

韓國戰爭

(上)

國防軍史研究所

發 刊 辭

한국전쟁은 우리 민족이 8·15 해방을 맞은 지 5년 후인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하여 3년 1개월간의 힘겨루기 끝에 1953년 7월 27일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휴전으로 접어들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과 소련을 정점으로 한 동서 양대 진영의 갈등구조였던 냉전(冷戰 : Cold War)체제하에서 빚어졌으며, 당초에는 북한의 남침에 의한 남북한간의 민족전쟁으로 시작되었으나 당시 이념(理念)을 달리하던 양대세력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비록 전쟁은 한반도에 국한되었지만 모두 20개국의 전투부대가 참전하여 국제적 성격의 전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 민족은 오천년 역사를 통해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참혹한 전화(戰禍)를 입었으나 그 결과는 38도선이 휴전선으로 바뀌었을 뿐 전쟁전 현상으로 회귀(回歸)하여 여전히 대치 형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방군사연구소의 전신(前身)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에서는 이 전쟁의 역사를 1967년부터 10여 년에 걸쳐 모두 11권의 전집으로 펴내었으며, 이는 국내 외적으로 한국전쟁사 연구에 많은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전집은 발행 부수가 제한된 데다 방대한 양이어서, 보다 쉽게 접하고 읽을 수 있는 새 전쟁사의 편찬을 각계에서 요망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당 연구소는 이미 발행한 전쟁사에 기초하되, 그후의 연구결과를 반영하고, 특히 최근에 전쟁당사자들이 공개한 사료에 의거 새 전쟁사를 전쟁 발발 50주년까지 펴낼 목표하에 한국전쟁을 3권으로 구분하여 편찬 중에 있습니다. 제1권은 전쟁의 배경을 비롯하여 전쟁발발로부터 중공군 개입전까지, 제2권은 중공군 참전으로부터 휴전회담 개시전까지, 제3권은 휴전회담 개막으로부터 휴전조인까지의 전쟁상황을 서술하게 됩니다.

한국전쟁사 3권 가운데 이번에 발간하는 제1권에는 북한의 전쟁계획 과정을

명확히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남침 초기단계에서 우리 정부의 전쟁지도와 유엔의 집단안전보장조치 전개과정을 재조명하였고, 그후 유엔군과의 연합으로 전개한 지연작전, 낙동강총력방어전 및 반격작전을 단계별 및 축선별로 집약하였습니다. 그리고 북진작전은 38도선 돌파 정책결정, 평양과 원산 점령 그리고 한만(韓滿)국경선으로 진격작전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전쟁사가 ‘한국전쟁은 계획된 남침전쟁’이며 이에 대응한 우리 국민의 자유수호의지, 정부의 전쟁지도, 그리고 국군의 용전분투상 등 전쟁의 실상을 바르게 인식하는 데 기여하리라고 확신하며, 나아가 국가안보와 국방에 대한 값진 교훈을 얻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1995년 6월 일

국방군사연구소장

엄 섭 일

일 러 두 기

1. 이 책의 장·절·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 표기하였다.
장 : 제1장, 제2장, 제3장, ……
절 : 제1절, 제2절, 제3절, ……
항 : 1, 2, 3, ……
목 : (1), (2), (3), ……
2.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문장은 한글 위주로 평이하게 썼으며, 혼동할 우려가 있는 용어와 고유명사 등은 원어를 () 안에 넣었다.
3. 한자로 표기하는 인명·지명·직위 등은 다음과 같이 표기하였다.
(1) 인명·지명 등은 각절에 처음 나올 경우에만 () 안에 원어로 표기하였다.
(2) 지명의 경우, 저명한 지명은 한자 표기를 생략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지명만을 () 안에 한자로 표기하였다.
(3) 외국 인명·지명은 이를 한국 음으로 표기하고 () 안에 원어를 넣었다.
4. 이 책의 본문에 인용된 원문을 번역함에 있어서는 원문의 뜻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 평이한 현대문으로 번역하여 독자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였으며, 원문 제작 당시의 관용어나 제도어는 그대로 사용하였다.
5. 주기(註記)는 인용된 원문의 전거(典據)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두어 각장 말미에 실었으며, 해설이 필요한 경우에도 붙였다.
6. 연대는 모두 서기(西紀)로 표기하였다.
7. 이 책에 사용된 부호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 : 인명·지명·숙어 등 해당 한자를 묶거나 해설, 보충한 경우의 표시
“ ” : 완결된 인용문이나 대화체 문장의 표시
‘ ’ : 인용문이나 대화체 문장의 일부분을 간추린 표시
「 」 : 저술이나 서명을 표시
8. 이 책에서는 한국전쟁의 배경에서부터 복진까지의 내용을 망라하였다.
9. 이 책의 부록으로 연표·관계 자료 목록을 책 끝에 실었다.

目 次

發刊辭
일러두기

第 1 章 戰爭의 背景

第 1 節 韓半島의 分斷과 葛藤	1
1. 日帝의 侵略과 獨立運動	1
2. 聯合國 會談과 解放	4
3. 政府樹立 方案과 民族의 葛藤	8
4. 南北韓 政府의 樹立	17
5. 共產主義者들의 暴力鬭爭	20
第 2 節 人民軍의 創建과 戰爭準備	23
1. 人民軍의 創設	23
2. 人民軍의 戰爭準備	27
第 3 節 國軍의 創軍과 防衛努力	41
1. 國軍의 創設	41
2. 國軍의 自衛力 確保努力	50

第 2 章 北韓의 奇襲南侵과 對應

第 1 節 人民軍의 南侵計劃	69
1. 南侵計劃 樹立	69
2. 戰爭指導·指揮體制 構築	82
3. 攻擊集團의 前方展開	84
4. 南侵命令 下達	85

第2節 國軍의 防衛態勢	91
1. 敵情判斷	91
2. 防禦計劃	95
3. 準備態勢	99
第3節 南侵과 初期戰鬥	107
1. 奇襲과 衝擊	107
2. 首都圈 作戰	112
3. 春川-洪川戰鬥	130
4. 江陵戰鬥	141
第4節 首都 서울의 失陷	148
1. 서울 防禦作戰	148
2. 서울 撤收作戰	159
第5節 美國의 支援과 유엔의 決議	166
1. 유엔의 人民軍 撤收 要請 決議	166
2. 美國의 制限的 軍事措置	170
3. 美 海·空軍의 支援	172
4. 유엔의 對北韓 軍事制裁 決議	173

第3章 遲延作戰

第1節 漢江線 防禦	187
1. 漢江防禦線 形成	187
2. 美國의 支援 擴大	193
3. 漢江-水原線 防禦作戰	197
第2節 遲延作戰으로의 轉換	203
1. 韓·美聯合戰線 形成과 國軍의 再編成	203
2. 京釜軸線 遲延戰	208
3. 車嶺山脈線 遲延戰	216
4. 蔚珍-寧海 遲延戰	231

第3節 유엔軍司令部의 創設과 支援體制의 定立	235
1. 유엔軍司令部의 創設	235
2. 國軍의 作戰指揮權 移讓	238
3. 戰線 調整과 國軍의 再編成	240
4. 戰爭支援體制의 定立	243
第4節 錦江-小白山脈線 遲延戰	244
1. 錦江線의 遲延戰	244
2. 小白山脈線 遲延戰	257
3. 寧海-盈德 遲延戰	272
4. 西南部 方面의 遲延戰	275

第4章 洛東江線 防禦作戰

第1節 洛東江 戰線의 形成	295
1. 洛東江防禦線	295
2. 韓·美軍의 防禦編成	298
3. 人民軍의 展開	301
第2節 人民軍의 8月攻勢와 防禦線의 危機	302
1. 彼我的 作戰目標와 準備	302
2. 大邱 北方의 危機	308
3. 洛東江 突出部 攻防	319
4. 馬山 西部의 反擊作戰	325
5. 杞溪-浦項의 爭奪戰	332
第3節 人民軍의 9月攻勢와 防禦線의 死守	341
1. 彼我的 最後 決戰態勢	341
2. 大邱 附近의 決戰	353
3. 昌寧-靈山의 固守	357
4. 咸安-馬山 附近의 攻防	361
5. 永川 奪還戰	364

6. 安康-浦項의 被奪	371
7. 決戰과 戰場의 主導權 轉換	378

第 5 章 仁川上陸作戰과 反擊作戰

第 1 節 仁川上陸作戰	392
1. 作戰計劃 및 部隊編成	392
2. 上陸作戰 및 橋頭堡 確保	402
3. 漢江으로의 進出	410
第 2 節 서울奪還作戰	415
1. 人民軍의 防禦力 強化	415
2. 上陸軍의 서울奪還 準備	415
3. 서울奪還作戰	420
4. 政府 還都	432
第 3 節 洛東江線에서의 總反擊	433
1. 反擊計劃	433
2. 洛東江線 突破作戰	438
3. 38線을 향한 追擊作戰	454

第 6 章 統一을 향한 北進

第 1 節 38線 突破論爭과 유엔의 決議	486
1. 38線 突破의 軍事的 決定	486
2. 10·7 유엔 統韓 決議	491
3. 國軍의 38線 突破 決定	493
第 2 節 元山-平壤 奪還作戰	496
1. 彼我的 作戰計劃	496
2. 元山 奪還作戰	501
3. 中部戰線 38線 突破	512

4. 平壤 奪還作戰·····	514
第3節 鴨綠江을 향하여·····	540
1. 人民軍의 最後 抵抗態勢·····	540
2. 유엔군의 戰果擴大計劃·····	541
3. 淸川江線 確保·····	543
4. 鴨綠江으로의 進擊·····	553
第4節 豆滿江을 향하여·····	564
1. 元山橋頭堡 確保作戰·····	564
2. 元山上陸作戰과 戰線整理·····	571
3. 長津湖·惠山嶺으로의 進擊·····	576
4. 豆滿江으로의 進擊·····	581
第5節 새로운 戰爭으로의 轉換·····	588
1. 유엔군의 最終攻勢·····	588
2. 새로운 戰爭으로의 轉換·····	591

附 錄

1. 年 表·····	598
2. 關係資料目錄·····	606

第1章 戰爭의 背景

第1節 韓半島의 分斷과 葛藤

1. 日帝의 侵略과 獨立運動

한민족은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공동의 언어와 문화적 전통을 지닌 통일민족 국가를 형성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19세기에 이르러 근대 자본주의 국가로 탈바꿈한 강대국들의 식민지 확대 경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되었다. 조선은 결국 1876년에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계기로 쇠국에서 개국으로 외교정책을 전환하여 여러 강대국에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국제무대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이러한 근대화로의 이행과정에서 조선은 대내적으로는 개화파(開化派)와 수구파(守舊派)의 갈등과 대외적으로는 청·일 양국의 조선에 대한 주도권 경쟁으로 말미암아 임오군란(壬午軍亂)과 갑신정변(甲申政變)이라는 양대 변란을 초래하고 말았다. 이 두 사건을 계기로 하여 청의 조선에 대한 지배권은 강화되었으며 조선 내부에서는 개화정책이 퇴조하고 민족의 자존을 지키려는 자주 의식이 고조되었다.

이리하여 조선의 문호개방 이후 이를 둘러싼 청·일의 주도권 쟁탈을 위한 대립은 일단 청의 승리로 결말을 보았다. 그 후에도 청·일간의 대립은 더욱 첨예화되었고 여기에 러시아와 영국까지 가세하여 열강의 각축은 가속화하였다. 한 반도를 둘러싸고 열강이 각축을 벌이는 동안 일본의 경제적 침략은 심화되었으며 조선의 정국도 향방을 잃은 채 혼미상태를 거듭하였다. 이와 같은 국가의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일본과 서양 세력을 배척하는 한편 조선 사회체제의 전반적인 개혁까지를 요구하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다. 동학농민운동은 일본과 청의 무력 개입으로 실패하였으나 대내적으로는 갑오경장(甲午更張)이라는 근대적 개혁의 단행을 촉구하여 조선의 봉건사회체제를 붕괴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며, 대외적으로는 청일전쟁을 유발하여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변화시키는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청으로부터 요

2 第1章 戰爭의 背景

동반도를 할양받아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성공을 거두었으나, 러시아·독일·프랑스 등의 압력에 의해 일본은 청일전쟁에서의 승리의 대가로 얻은 요동반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일본이 서구 열강의 간섭에 굴복하게 되자 조선 정계에서 친러파가 득세하고 일본의 영향력은 현저히 약화되었다. 이에 일본은 1895년에 민비(閔妃)를 시해하는 비상수단을 써서 조선에서의 열세를 만회해 보려 하였으나, 국왕인 고종(高宗)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여 친러내각을 구성하고 대한제국(大韓帝國)으로 국호를 개정함에 따라 조선에 대한 일본의 세력이 약화되고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 후에도 일본과 러시아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일본이 한반도의 38도선 분할안을 제시하는 등 타협의 모색과 대립을 거듭하다가 드디어 러일전쟁을 통하여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의 향방을 판가름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러시아·미국·영국 등 열강과의 일련의 협약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한반도를 강점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조성한 일본은 1905년에 정식으로 체결되지도 않은 을사조약을 공표하고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였다. 이어서 1907년에는 고종황제를 퇴위시키고 재정이 어렵다는 구실을 붙여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 해산하였으며 1910년에는 한일합병에 의하여 국권을 완전히 빼앗았다.

조선이 자주성을 잃고 국권을 침탈당해 가고 있는 동안 1895년부터 한반도의 각지에서는 양반·군인·농민·노비 등 각계 각층이 하나로 뭉쳐 이루어진 의병(義兵)이 봉기하여 1910년까지 일본군을 상대로 국권 수호를 위한 줄기찬 항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의 강력한 진압작전으로 말미암아 한일합병이 강요될 무렵에 이르러서는 의병이 더 이상 국내에서 항쟁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전국 각지의 의병부대들은 항일투쟁의 방향을 전환하여 투쟁지역도 국내에서 국외로 옮기고 근대화된 무기로 무장하는 한편, 보다 체계적인 독립군으로 변신하여 한·만(韓滿) 국경지역이나 노령·연해주 일대에 근거지를 두고 대일 무력항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의병이 활동무대를 국외로 옮기게 되자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은 애국계몽운동이 그 주류를 이루게 되었으며 의병항쟁의 맥락은 비밀결사조직인 독립의군부(獨立義軍部) 등에 의하여 계승되어 나갔다.

그러던 중 제1차 세계대전(1914~1917)의 전후처리를 위한 방안으로서 미국

대통령 윌슨(W. Wilson)이 민족자결주의 원칙을 제창하였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강대국의 압제를 받고 있던 많은 약소민족들이 독립을 이룩할 수 있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됨으로써 세계에 자주독립의 새 기운이 고조되었다. 한민족도 이러한 새로운 조류를 민족독립의 호기로 전망하였다. 그런데 이때 마침 고종 황제가 원인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서거하자 이를 계기로 한반도에서는 일제(日帝)의 억압에 대항하는 거족적 민족독립운동인 3·1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운동은 결과적으로 일제의 무자비한 무력진압에 의해 많은 희생을 낸 채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 3·1운동을 계기로 하여 한민족 진영에서는 상해(上海)에 독립운동의 총본산인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여 이로부터 한층 조직적이고 통일성 있는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새 장을 열게 되었다. 이후에도 국내에서 6·10 만세운동, 광주학생운동 등 크고 작은 민족운동이 일어났으나 일제의 막강한 무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던 독립운동은 국외에서의 무장독립운동이었다. 특히 만주지역에서는 많은 독립군부대들이 일제와 직접 교전함으로써 자주독립의 기치를 높이 세웠던 것이다.

바로 이 시기에 만주지역에서 가장 활발한 항일 무력활동을 전개한 독립군부대는 김좌진(金佐鎭)을 사령관으로 한 북로군정서(北路軍政署)와 임시정부 휘하의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 및 홍범도(洪範圖)의 대한독립군 등이었다. 이들 독립군은 만주지역 혹은 국경지역 일대의 일본군 수비대와 경찰을 습격하는 등의 유격항쟁을 전개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승리를 거둔 것은 1920년의 봉오동(鳳梧洞)전투와 청산리(靑山里)전투였다. 이 전투 이후 독립군의 주력부대들은 일본군의 추격을 피하여 소련지역으로 이동하였으나 소련의 자유시에서 적색군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막대한 희생자를 내는 시련을 겪기도 하였다. 이후 독립군은 정의, 참의, 신민의 3부로 통합정리되어 항일전을 전개하다가 3부의 통합이 결렬된 후에는 한국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의 양대 계열로 정리되었다.

그 후 1931년에 만주사변이 일어나자 한국독립군은 구국군(救國軍)과 연합군을 편성하여 서란현(舒蘭縣)전투를 비롯한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어 일본군과 만주군에 커다란 타격을 안겨 주었다.¹⁾

그러나 한국독립군은 일본군과 만주군의 공격이 강화되자 점차 그 활동의 근

4 第1章 戰爭의 背景

거지를 잃고 임시정부 주변에 집결하여 재건을 도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임시정부는 중국정부와의 교섭을 통하여 1940년 9월 17일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다. 이 한국광복군은 3개 지대로 편성되었으며 총사령부를 서안에 두고 총사령관은 이청천(李青天), 참모장은 이범석(李範奭)이 맡았다.

이렇게 한국민의 나라를 찾기 위한 독립운동이 줄기차게 전개되는 가운데 일본은 아시아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제패의 환상에 빠져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키면서 독일·이탈리아와 동맹을 맺고 1941년에는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공격하여 이른바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 일본은 이처럼 제2차 세계대전을 태평양지역으로까지 확대시킨 후 전쟁에 소요되는 인력과 물자를 충원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극에 달한 억압과 수탈행위를 자행하였으나, 한민족은 가혹한 시련 속에서도 독립운동을 계속하였다. 이리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1년 12월 9일에는 일본에 정식으로 선전포고하고 연합군과 협동하여 대일전(對日戰)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던 중국정부와 협정을 맺고 중국군과 협동작전을 하였다. 또한 1943년 6월에는 한·영군사협정을 체결하고 인도, 버마에 공작대를 파견하여 주로 대적선전, 포로심문, 적지정찰 등의 활동을 하면서 미약하나마 온 힘을 기울여 일제에 대항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장기간의 극악한 일본식민통치와 형극의 항일투쟁 과정에서 한민족(韓民族)은 한편으로 항일(抗日)과 친일(親日)로 대립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민족보다 이념을 우선시하는 공산주의 사상의 침투로 민족세력과 공산세력 간의 갈등구조로 빠져 들고 있었다. 불행하게도 이는 후일 화합보다는 대결로 치닫는 민족 분열의 한 원인이 되었다.

2. 聯合國 會談과 解放

한민족이 피나는 항일독립투쟁을 벌이는 시기에 독일·일본·이탈리아 등이 주도한 제2차 세계대전에 거대한 군사잠재력을 지닌 미국은 물론 한민족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약소민족까지 연합하여 참전하게 되자 독일과 일본은 패전을 거듭하게 되고 이탈리아가 무조건 항복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연합군이 모든 전역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총공세를 전개할 수 있게 되자 연합국들은 세계대전의 종전(終戰)처리와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고 일본이 강점한 영토의 처리과정에서 한반도의 독립문제를 협의하게 되었다.

본격적인 연합군측의 전후처리회담은 1943년 11월 22일~25일에 미국의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 영국의 처칠(Winston S. Churchill) 수상, 중국의 장개석(蔣介石) 총통 등이 참석한 카이로 회담이었다. 이들은 일본침령지 전후처리 기본구상과 한반도의 문제에 관하여 “일본을 제1차 세계대전 발발 후 점령한 태평양상의 모든 도서, 중국으로부터 탈취한 모든 영토와 강압적으로 탈취한 그 밖의 영토로부터 추방한다. ……한국은 한국인이 처해 있는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가 되도록 한다.”라고 선언하였다.²⁾

이 선언에 이어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미·영·소 3개국 수뇌가 태평양 전쟁의 종전을 앞당기기 위해 테헤란에서 소련의 대일전 참전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면서 소련 수상 스탈린(Joseph V. Stalin)이 전후처리 대원칙인 카이로 선언에 동의함으로써 이 선언의 관련 조항이 전후 한국문제 처리의 기본전제가 되었다.

카이로 선언의 한국관련 조항 중 ‘적당한 시기에(in due course)’로 해석되는 구절은 즉각적인 독립부여가 아니라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독립을 보장한다는 의미로서 한민족에게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실망스러운 표현이었다. 당시 중경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인 김구(金九)는 즉각 이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한국은 일본의 패망 즉시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³⁾ 그러나 전후처리 회담이 더욱 진전되면서 이 조항은 한민족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점차 구체화되어 갔다.

1945년에 접어들어 마지막으로 연합군에 대항하던 일본의 패전이 임박하게 되자 미·영·소 3국 수뇌들이 1945년 2월 4일~11일까지 얄타에서 회동하여 패전국의 처리, 식민지의 독립, 이권의 배분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이 얄타 회담은 비밀협상으로 진행되었으며, 1년 후에 공표된 협정문은 소련의 대일전 참전시기와 그에 따라 소련이 확보할 권익을 명문화하고 있을 뿐⁴⁾ 한국문제를 비롯한 기타의 논의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의정서에는 한국문제가 언급되어 있지 않았으나 회담 중 루스벨트 대통령과 스탈린 수상 간에 미·소·영·중 4개국에 의한 신탁통치를 실시하되 신탁통치기간 중 외국군은 주둔시키지 않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다만 신탁통치기간에 대하여 미국 대통령은 필리핀의 경험에 비추어 20~30년을 고려하였으며 소련 수상은 기간이 짧을 수록 좋다는 의견을 내놓았다.⁵⁾

6 第1章 戰爭의 背景

알타 회담이 끝난 후 미국무성은 이 협정을 한국에 적용하는 데 만전을 기하기 위해 당시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이승만(李承晩)에게 협력을 요청하였으나 이승만은 이에 대해 미국은 중경의 임시정부를 즉각 승인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승만은 알타회담에 대해 1905년 미·일간에 맺은 태프트-가쓰라(Taft-桂太郎) 비밀협정의 분노가 한국민의 기억에서 채 사라지기도 전에 미국은 또 다시 한국을 매도하기 위한 비밀협정을 벌였다고 신랄하게 비난하였다.⁶ 그렇지만 강대국의 전략과 협약을 바꿀 수는 없었다.

알타 비밀협정 후 5개월이 지난 1945년 7월 17일~8월 2일에 제2차 세계대전 중 마지막이 된 연합국 수뇌회담이 포츠담(Potsdam)에서 열렸다. 이때 독일은 이미 항복한 뒤였고 일본만이 최후의 저항을 하고 있었으며 연합군측은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조기에 종전을 달성하려는 목적 아래 주로 일본에 대한 전후처리방침의 설정, 소련의 대일전 참전시기와 미·소간의 작전협조, 미국이 실험에 성공한 원자폭탄의 사용에 대해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7월 26일 발표한 선언문에서 연합군측은 카이로 선언의 이행을 전제로 하고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포츠담 선언을 발표하였다.

일본국 정부가 즉시 전 일본군의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고 그에 대한 일본 정부의 충분한 보장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다면 즉각적이고 완전한 과멸뿐이다. 카이로 선언의 제 조항은 이행되어야 하며 일본의 주권은 혼슈(本州)·홋카이도(北海道)·규슈(九州)·시코쿠(四國)와 연합국이 결정하는 제도도(諸小島)에 국한된다.⁷

포츠담 회담에서 소련의 대일전 참전과 관련하여 미·소 양측 군사대표들은 한국, 만주, 동해를 두 개의 작전지역으로 분할하는 계획을 상당한 수준까지 발전시켰으며 이때 한반도의 작전경계선으로는 38도선과 유사한 선이 고려되었다.⁸

일본은 연합국의 최후통첩인 포츠담 선언을 즉각 거부하였다. 이에 따라 마지막 군사적 타격을 가하기 위해 미국은 8월 6일과 9일에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崎)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였으며, 소련도 8월 8일 선전포고와 더불어 대일전에 참전하였다. 그리고 임시정부는 1945년 8월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광복군의 일부를 미국전략정보처(OSS)의 훈련반에 참가시키고 한일공작반도 설치하였다. 한편 미육군성의 지원으로 광복군 정진 대원이 부양(阜陽)과 서안(西安)에서 공수작전 등 특수훈련을 받으면서 국내 진공작전에 대비하였다. 이

러한 연합군측의 총공세에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 일본은 8월 10일 조건부 항복을 제의하였으나 연합국은 일단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연합국은 일본의 무조건 항복 이후를 대비하기 시작하였으며 미국은 항복절차, 즉 항복을 받을 미·소·영·중의 연합군 지휘관을 지정하고 한국 등 일본이 점령한 영토를 항복접수에 편리하게 분할하는 명령을 작성하게 되었다.

이 일반명령 제1호를 성안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가능한 한 북쪽으로 분할하되 미군진주 능력을 고려한다는 원칙에 따라 인천과 서울을 병참 지역으로 확보할 수 있는 38도선안이 결정되었다. 이와 같이 작성된 일반명령 제1호의 한반도 내 일본군 항복과 관련된 항은 다음과 같다.

1. ……(b) 만주·북위 38도선 이북의 한국·사할린(華太)·쿠릴(Kuril)열도 내의 일본군 선임지휘관과 모든 지상군·해군·공군 및 보조부대는 소련 극동 군사령관에게 항복한다. ……(e) 일본 대본영 및 대본영의 선임지휘관, 일본 본토와 인접 제 도서 북위 38도선 이남의 한국, 류큐(琉球), 필리핀 내의 모든 지상군·해군·공군 및 보조부대는 미국 태평양 육군사령관에게 항복한다.⁹⁾



해 방

8 第1章 戰爭의 背景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발표하였고, 일반명령 제1호는 트루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소련·영국·중국의 동의를 얻었다. 이리하여 제2차 세계대전은 종결되었으며 한민족은 해방을 맞게 되었다. 한민족은 36년간의 일제의 압박과 압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가건설에 대한 희망과 포부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은 한순간일 뿐 전후처리협상의 불확실성과 소련군의 개입으로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3. 政府樹立 方案과 民族의 葛藤

(1) 北韓의 軍政과 共產化

소련은 1945년 8월 8일 대일선전포고 후 공군이 나진, 청진, 웅기를 폭격하는 가운데 지상군은 두만강 방면으로 진격하고 8월 13일에는 1개사단 병력이 청진에 상륙하였다. 소련군의 상륙 이틀 후인 8월 15일 일본은 항복하였으며 제일 먼저 평양에서 조만식(曹晩植)이 중심이 되어 국내 공산주의자들까지 포함한 건국준비위원회 평안남도 지부를 결성하고 해방 이후 정부수립에 대비하였으며, 각도 중심도시에서 속속 건국준비위원회 지부가 결성되었다. 이렇게 북한지역에서 민족주의자들의 정부수립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동안 소련군은 진군에 박차를 가하여 24일에 평양에 진주하고 다음날에는 개성까지 남하하였으며 26~28일경에는 해주, 신막, 복계, 김화, 화천, 양양까지 전개하여 38도선 이북 전 지역을 점령하였다.¹⁰⁾

북한을 점령한 소련군은 치스차코프(Ivan M. Chistiakov)¹¹⁾ 대장이 지휘하는 제1극동방면군 소속의 제25군으로서¹²⁾ 5개사단, 1개여단의 12만 명을 주축으로 하고 그 밖의 태평양함대의 해군시설 부대와 기타 부대병력 3만 명 등 모두 15만 명으로 구성되었다.¹³⁾

제25군은 1945년 8월 26일 평양에 소련군사령부를 설치하고 북한 전역에 걸친 군정체계를 수립하였으며, 군정실시 기관으로 로마넨코(A. A. Romanenko) 소장이 사령관인 민정관리총국을 설치하였다. 이 기관은 정치·경제·교육문화·보건위생·출판보도·사법지도부 등 군정에 필요한 9개의 지도부를 갖추었으며 군사회의(정치사령부)의 별도 통제를 받았다.

소련군은 군정기구를 갖추어 나가면서 일본군의 항복을 받고 무장해제를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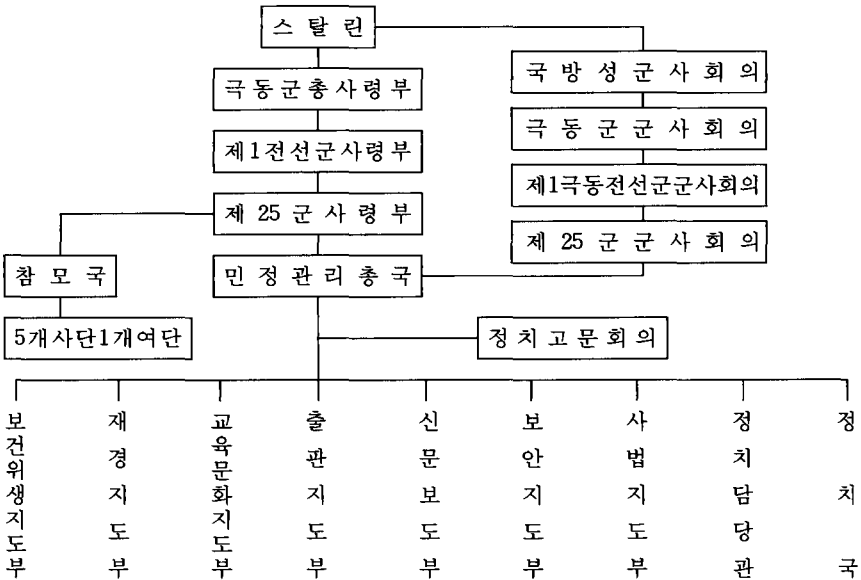
시하는 한편 38도선 요소요소에 진지를 구축하고 기관총을 설치하여 남북으로 오가는 통행인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였으며, 남북을 잇는 경의선, 경원선 등 주요 철도와 도로를 차단하고 교통통신을 폐쇄하였다.

이렇게 장벽을 친 소련군은 군정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로 우선 인민위원회의¹⁴⁾ 조직에 착수하였다. 소련군 사령관 치스차코프 대장은 평안남도에 설치된 조만식을 위원장으로 한 인민정치위원회를 승인하고 이어 각도에 인민위원회를 조직하면서 앞으로 통일정부를 만들되 신정부의 소재지를 서울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천명하였다.¹⁵⁾

이는 한반도에 공산정권을 수립하겠다는 의사의 표명이었으며 한민족이 주인이 되는 조직이 주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기에 충분하여 북한지역의 인민위원회 결성을 촉진하였다. 그리하여 북한에서는 해방과 더불어 조직되기 시작한 여러 정치단체들이 통폐합되고 8월 24일부터 9월 말까지 도별 인민위원회가 결성되었다.

각 인민위원회는 일본인 관료로부터 행정기관, 경찰관서, 경제기구 등 모든 국가기관을 접수하여 행정권을 인수하였다. 소련군정 당국은 인민위원회 위원

〈표 1〉 소련 군정의 조직



10 第1章 戰爭의 背景

장에는 한국인을 기용하되 소련군 장교를 고문역에 임명하고, 그들이 입북시 대동한 소련계 한인을 요직에 배치하였다. 그러므로 이 기구는 외관상 자주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소련군정 당국에 의해 지배되었다. 따라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인민위원회 조직은 민족진영세력이 점차 배제되면서 주로 소련계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장악되어 갔다.

이러한 공작은 10월 14일 소련군정 당국이 평양에서 군중대회를 열고 소련군 대위 김일성(金日成)을 북한 주민 앞에 내세움으로써 절정에 달하였다.¹⁶⁾ 그는 이때부터 소련군정의 충실한 하수인이 되어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소련군정이 김일성을 권력 전면에 내세우고 공산당이 민족주의자들을 말살하려는 공작을 진행하자 이에 분노한 조만식 등 북한 5도 민족주의 세력 대표자들은 북조선 민주당을 창당하여 북한 주민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소련군정 당국은 11월 18일 5도 인민위원회를 통괄하는 5도 행정국을 설치하고 산업·교통·체신·농림·사업·재정·교육·보건·사법·보안의 10개국으로 된 행정체제를 정비한 후 12월 17일에는 김일성을 북조선공산당 책임비서에 앉힘으로써 그를 북한 공산당의 제1인자로 만들었다. 이와 같이 소련의 군정이 실시된 지 약 4개월 만에 38도선 이북에서는 소련군정의 하수인 역을 담당하는 김일성을 정점으로 한 공산화 체제가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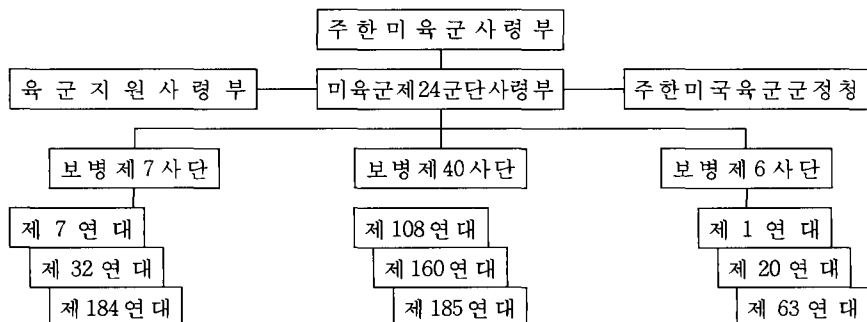
(2) 南韓의 軍政과 混亂

조선총독부는 일제의 패망을 앞두고 재한일본인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등을 고려하여 명망 있는 한국인에게 치안권을 비롯한 행정권의 일부를 이양할 것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송진우(宋鎭宇), 여운형(呂運亨)에게 의사를 타진하였으나 송진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정통(正統)으로 맞아들여야 하고, 이 정부가 연합군으로부터 정권을 인수하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거절하였다. 반면 여운형은 내외지(內外地) 혁명 단체를 총망라하여 독립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며 이를 수락하고 전국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국적인 조직의 지부를 설치하는 등 정부수립에 대비하였으나 공산세력에 잠식당하여 좌경화되었다. 한편 민족주의자들은 정당을 결성하여 공산주의자들의 조직확대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귀국에 대비하였다.

이렇게 해방 이후 권력의 진공상태에서 각 세력이 암중모색을 하던 시기에 맥

아더(Douglas MacArthur) 장군은 일반명령 제1호를 통보받고 하지(John R. Hodge) 중장¹⁷⁾이 지휘하는 오키나와(沖繩) 주둔 제24군단을 한국에 상륙시킬 것을 결정하였다. 이리하여 소련군이 상륙한 지 22일 만인 9월 4일 선발대를 투입하고 후속 주력부대 가운데 미 제7보병사단이 9월 8일 인천에 상륙하여 서울, 개성을 포함 38도선 일대와 경기, 충청도 일원으로 진주하였다. 그리고 미 제40사단은 9월 말에 도착하여 경상도 지방 일원에 배치되었으며 미 제6사단은 10월 16일 도착하여 전라도 지방 일대에 배치되었는데, 미군병력은 모두 7만 7,600명으로 그 편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주한미국육군사령부 기구표(1945. 9. 8)¹⁸⁾



미 제24군단장 하지 중장은 한반도에 진주한 후 상부로부터 군정에 관한 지침을 받지 못하자 일본총독부 체제를 잠정기간 유지시키고 이를 관리 감독하다가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미국인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되 점차 한국인으로 대체시켜 군정체제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복안을 수립하였다. 그리하여 9월 9일 일본총독의 항복을 받은 후에도 일본인 관리들을 그대로 유임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처사는 한국인들로부터 일본식민통치를 연장하려 한다는 맹렬한 비난과 규탄의 대상이 되었고 당초 계획의 변경은 불가피하였다. 따라서 하지 중장은 9월 12일 아베(阿部信行) 총독을 해임함과 동시에 제7사단장 아놀드(Archibald V. Arnold) 소장을 군정장관에 임명하고 국무성관리 베닝호프(Merrell H. Benninghoff)를 정치고문으로 지원받아 미군에 의해 직접 관장되는 군정으로 전환하였다.

그는 9월 20일부로 새로운 군정청 기구를 출범시키되 현지실정을 알지 못하

12 第1章 戰爭의 背景

는 미군이 행정사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우므로 총독부 기구를 답습하여 국장은 미군장교로 임명하고 현직에서 물러난 일본인들을 고문으로 임명하여 미군장교를 보좌하도록 하였다.

한편 해방 직후(8. 17) 중경의 임시정부는 주중미대사를 통하여 트루먼 대통령에게 임시정부 대표를 한국에 파견하여 한국과 한국민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회의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전달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하지 장군은 한국에 도착한 며칠 후 임시정부 지도자를 연합국의 후원 아래 귀국시켜 정치가 안정되고 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명목상의 수장으로 활동하도록 하자고 맥 아더 장군에게 제안하였으나 이도 실현되지 않았다.¹⁹⁾

결국 군정 당국은 38도선 이남에서 미군정이 유일한 정부이며 다른 정부는 있을 수 없다고 선언하여 한국독립운동을 주도해 온 임시정부마저도 인정하지 않았으나 워싱턴-도쿄-서울의 군정정책의 미비와 불일치로 시행착오는 여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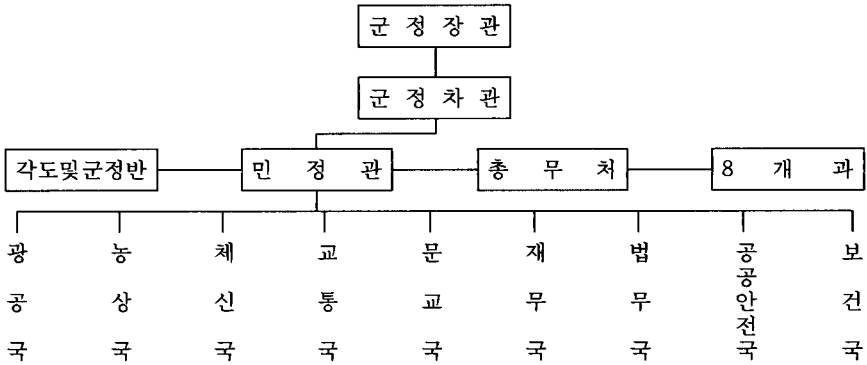
이에 대해 하지 장군은 확실한 정책지침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미국은 한국에서 실패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하였으며, 그의 정치고문 베닝호프는 미군정이 한국의 장래에 관한 미국 및 연합국의 정책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며 주한미군 병력이 부족하고 유능한 군정장교와 전문적인 장교가 적어 효율적인 군정을 실시할 수 없다고 보고하였다.²⁰⁾

이 밖에도 군정은 또 다른 큰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당시 국내산업은 위축되고 경제는 위기에 처해 있었으며 정치적으로는 미군이 주둔하기까지 수많은 정당이 난립하여 좌, 우, 중도로 나뉘어 각축을 벌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은 정치경험이 거의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나 산업체에 자격이나 책임을 요하는 자리에는 한국인을 거의 기용치 않은 일본식민정책이 남긴 유산이었다. 하지 장군은 이러한 정치적 복잡성과 일본 잔재의 어려움을 처리할 방법에 대해 지침을 받지 못하였다.

정책 부재와 사회적 혼란 가운데서도 미군정 당국이 남한의 행정업무를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되자 군정장관 아놀드 소장은 10월 5일에 이르러 일본인 고문들을 퇴임시키고 그 자리를 김성수(金性洙)를 비롯한 11명의 지도급 한국인 인사로 대체하였다. 그리고 12월에는 군정청 행정기구에 미국인과 한국인을 함께 기용하는 양국장 제도를 채택함에 따라 보다 많은 한국인이 군정청에서 일하게 되었으며, 1945년 말에는 그 수가 75,000명에 이르렀다. 당시 군정청 기구는 <표 3>과 같이 9개국 및 각도 군정반으로 되어 있었다.

<표 3>

군정청 기구표²⁾



이렇게 군정기구가 정비되고 있을 무렵인 10월 17일 드디어 미국의 기본군정 지침이 맥아더 장군에게 하달되었다.

한국에서 미국의 최종목표는 자유독립국가를 수립하고 나아가 책임 있고 평화를 애호하는 국가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는 것이다. 모든 행동에 있어 귀하는 미국의 대한정책, 즉 미·소에 의한 잠정 군정기로부터 미·소·영·중국에 의한 신탁통치를 거쳐 최종적으로 유엔회원국으로서 독립국가에 이르는 단계적 발전을 계획하고 있는 미국의 정책을 유념해야 한다.²⁾

미국의 정책은 분명하였으며, 군정-신탁통치-독립국가로 이행하는 것이었다. 이즈음 임시정부 요인들이 개인 자격으로 환국하기 시작하였다. 10월 16일에는 이승만이, 11월 23일에는 김구와 많은 임시정부 요인이 귀국하였다. 그러나 군정이 임시정부를 정부수입기관으로 인정치 않으면서 좌·우익을 망라한 각 정파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법령을 공포함에 따라 북에서 김일성을 정점으로 한 공산체제가 형성되어 간 것과는 대조적으로 국내의 여러 정당과 사회단체는 민주진영과 공산진영으로 크게 나뉘어 심각하게 대립하게 되었다.

(3) 信託統治案과 左右의 對立

미국은 남한에 진주한 후 군정을 실시하면서 이미 일련의 전후처리 회담을 통하여 합의한 대로 한반도 문제를 협의하고 처리하기 위한 회담의 개최를 모

14 第1章 戰爭의 背景

색하였다. 그러나 소련은 북한에 진주한 후 김일성을 내세워 북한을 위성국가화하려는 계획을 진행시키면서 남북의 교역 및 교통을 차단한 채 미·소간의 회담 개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를 타개하고자 미국무장관 번즈(James F. Byrnes)는 1945년 12월 3국 외상회담의 개최를 제의하였고 이에 따라 미국무장관 번즈, 영국외상 베빈(Aveurin Bevin), 소련외상 몰로토프(V. M. Molotov)가 모스크바에 모여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게 되었다.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한국문제에 관하여 3국은 카이로 선언을 이행한다는 데에 합의하고 이를 위해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임시정부 수립과 5개년 신탁통치안을 작성한다는 요지의 결정을 하였다.

- ① 한국을 독립국가로 재건하고 제반 조치를 취할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 ② 남한 미군사령부와 북한 소련군사령부 대표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 ③ 미소공동위원회는 임시정부와 협의하여 5개년 기한 4대국 신탁통치안을 수립한다.
- ④ 미군사령부 및 소련군사령부 대표자회의를 2주 내에 개최한다.²³⁾

협정내용이 알려지자 즉각적인 독립을 고대하던 한국민은 크게 실망하였으며 전국적인 신탁통치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이러한 한국민의 의사를 가장 강력히 대변한 세력은 김구가 이끄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계열이었으며, 조선공산당을 비롯하여 모든 좌익계의 정당 및 단체들도 일제히 신탁통치 반대에 보조를 같이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계열은 12월 28일 정무원 회의에서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제2의 독립운동으로 규정하고 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국민 쉼기대회의 개최를 계획하는 등 모스크바 결정에 대처하면서 반탁운동의 정당성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1946년 1월에 접어들어 남한에서는 공산당 계열이 소련 공산당측의 지령을 받아 모스크바 회담의 결정을 지지하면서 신탁통치 반대에서 찬성으로 급선회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좌·우익은 신탁통치를 둘러싸고 반탁과 찬탁으로 대립이 더욱 심화되었으며 신탁통치안을 받아들인 좌익이 국민들의 지지를 상실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한편 북에서는 1946년 1월 2일 평양방송을 통하여 “모스크바 회담의 결정은

신탁제도가 아니라 후견제도를 의미하며 주권은 조선에 있다.”는 소련측의 지령을 방송하여 소련의 정책이 신탁통치 찬성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어서 1월 4일 소련군정사령관의 주도로 열린 5도행정국 회의에서는 모스크바 회담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리었다. 하지만 조만식이 이에 반대하고 민족주의 계열과 함께 반탁운동을 벌이자 소련군정 당국은 그를 감금하고 그의 세력을 제거함으로써 이를 계기로 공산주의자들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정치적 변화가 일어났다.

(4) 美·蘇共同委員會의 決裂

신탁통치를 둘러싸고 대립이 심화된 가운데 미·소점령군 사령부는 이미 모스크바 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미·소양군 대표자 회담을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1946년 1월 15일 소련대표 스티코프(T. F. Shtykov) 중장 외 수행원 70여 명이 서울에 도착하였으며 회담은 다음날부터 비공개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회담에서 다를 주의제 선정에 대한 대립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다만 미·소공동위원회의 설치에 합의하고 폐회하였다.

모스크바 회담과 미·소양군 대표회담의 결과에 따라 1946년 3월 20일 미국측은 아놀드 소장, 소련측은 스티코프 중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결국 이 회담을 통하여 소련은 모스크바 협정과 신탁통치안을 지지하는 공산계열만을 협의대상으로 삼아 장차 한반도에 공산정권을 수립하겠다는 당초의 의도를 실현하려 하였으며, 미국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정당 및 사회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려 하였다. 미·소 쌍방은 이러한 기본노선과 방침을 굽히지 않음으로써 회담은 난항을 거듭하던 중 개최 50일 만인 1946년 5월 8일 제24회 회담을 마지막으로 무기휴회되었다.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은 정부수립방법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또다시 분출시켰다. 김구는 종전과 다름없이 통일임시정부의 구성을 주장하였으며, 김규식(金奎植)은 좌우합작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국제정세를 파악한 이승만은 공산당과의 타협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단독정부의 수립을 모색하기 시작하여 한국민주당이 호응하자 민족통일총본부를 결성하고 한국문제를 유엔에서 토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더 나아가 1947년 1월에는 직접 미국을 방문하고 자신의 견해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미군정을 비난하였다. 이에 하지 주한미군사

령관도 귀국하여 미정부와 협의를 가졌다. 이러한 이승만의 단독정부수립 주장은 그 시기가 국제관계, 특히 미·소의 대립이 격화된 때여서 미국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그러나 미군정 당국은 좌우합작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1946년 12월에는 좌우합작을 지지하는 인사들로 과도입법위원을 구성하고 김규식을 의장에 임명하였다. 이는 해방후 민주주의 정치기구의 최초 입법기관으로서 후일 국회가 구성될 때까지 군정하의 입법 활동을 하였다. 이어 미국인 군정장관 아래 한국인 민정장관을 두고 초대장관에 안재홍(安在鴻)을 임명하는(1947. 2) 등 대립정국의 수습을 모색하면서 군정에 한국인 참여를 확대시켜 나갔으며, 이를 남조선과도정부(1947. 6)로 발전시켜 행정권의 한국인에게 이양을 점차 추진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1947년 3월 트루먼 독트린(Truman Doctrine)²⁴⁾과 마셜플랜(Marshall Plan)²⁵⁾을 발표하여 외교정책을 바꾸고 소련의 팽창정책에 정면대응하자 미군정의 좌우합작에 의한 정국수습노력도 난관에 부딪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미·소 협의를 전제로 한 신탁통치의 필요성은 퇴색되어 갔고 좌우합작 정책도 그 명분을 잃기 시작하였으며 단독정부의 수립을 주장하는 견해가 확산되었다.

이 무렵 미국측의 수차에 걸친 회담재개 요청을 외면해 오던 소련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1947년 5월 21일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서울에서 다시 개최되었다. 그러나 회담은 협의대상의 선정을 놓고 소련측의 모스크바 협정 고수 방침과 미국측의 '의사표시 자유'의 주장이 다시 맞서게 되어, 같은 쟁점으로 비난과 반박을 되풀이한 1년 전의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의 재판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미국은 1947년 8월 26일 모스크바 협정의 이행방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미·영·소·중국의 4대국 회담을 열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영국과 중국은 동의하였으나 소련은 공동위원회가 모스크바 협정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으므로 4대국 회담에 응할 수 없다고 거부하고 1947년 10월 21일 소련대표부를 서울에서 철수시킴으로써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도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되었다.

결과적으로 모스크바 협정에 따라 개최된 두 차례의 미·소공동위원회는 근 2년에 가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하였다. 그 동안 북한에서는 공산단독정권의 창출작업이 진행되었으며, 남한에서도 좌우합작운동이 퇴조하고 단독정부수립이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대세를 주도하게 되었다.

4. 南北韓 政府의 樹立

(1) 韓國問題의 國際聯合 移管

미·소공동위원회에서 한국문제를 토의하는 동안 국제정세는 급격히 냉전으로 치달았으며 이에 연유하여 한국문제를 유엔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미국으로서도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에 이어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마저 결렬된 데다가 소련에 의해 4대국 회담마저 거부되자 한국문제를 유엔에 상정할 것을 검토하였다. 한국문제의 유엔상정은 신탁통치를 더 이상 거론치 않고 유엔주도하에 독립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을 뜻하여 한국민의 의사와도 일치하였으며 미국은 유엔의 도움을 얻어 소련의 한반도 독점의도를 차단할 수 있었다.

따라서 미국무장관 마셜은 1947년 9월 17일 유엔총회에서 “지난 2년 동안 미국은 소련과 협력하여 모스크바 협정에 따라 한국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전혀 진전이 없었다. ……소련과의 더 이상의 공동노력은 시간낭비일 뿐이며 그로 말미암아 한국인들의 독립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다.”고 한국문제의 유엔상정 이유를 설명하면서 신탁통치를 거치지 않고 한국을 독립시키는 방안이 강구되기를 바란다고 천명하였다.²⁶⁾

미국의 이러한 제안이 소련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제로 채택되자 10월 16일 미국은 “남북한이 1948년 3월 31일 이전에 유엔감시 아래 총선거를 실시하여 유엔임시위원단이 선거를 감시하고 정부수립을 감독하여 통일정부 수립 후 모든 외국군은 철수한다.”는 요지의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였다.²⁷⁾

유엔에서 미국측 결의안을 심의하는 동안 소련대표는 “유엔은 한국에 대한 관할권이 없으며 외국군은 통일정부 수립 전에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점령국은 즉시 군대를 철수시킨다는 대안을 내놓았으나 심의과정에서 채택되지 않았다. 유엔총회는 1947년 11월 14일 미국측 초안을 지지하고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설치를 규정한 결의안을 가결하였다.²⁸⁾ 이로써 한국문제는 미·소공동위원회의 신탁통치안으로부터 유엔관리하의 정부수립이라는 방침 아래 다루어지게 되었다.

(2) 大韓民國의 誕生

유엔의 결의에 따라 인도의 메논(K. P. S Menon)을 의장으로 한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이 설치되어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소련의 비협조로 북한지역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고 남한지역에서만 그 활동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정부수립에 관하여 남한의 정치지도자들과 협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당시 남한 정치지도자들도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는 단독정부수립 지지세력과 김구·김규식을 중심으로 하는 남북협상을 통한 통일정부수립 지지세력으로 크게 나누어져 정부수립방안에 대한 정견을 달리하였다.

이에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안을 만들어 유엔이 실행할 방안을 선택해 줄 것을 유엔 소총회에 요청하였다.

- ① 총선거는 가능한 지역인 남한에서만 추진한다.
- ② 협의대상이 될 수 있는 인민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한다.
- ③ 한국의 민족적 독립을 위한 남북한 지도자 회담 같은 다른 가능성을 탐구하며, 최소한도로 그것을 주시한다.
- ④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업무수행을 중단하고 총회에서 문제를 처리한다.²⁹⁾

1948년 2월 26일 유엔 소총회는 제1안을 채택하였으며 동년 3월 18일부로 과도입법의원이 제정한 5월 10일 총선거 실시법이 미군정청에 의해 공포되었다.³⁰⁾ 이 법은 안구버려에 따라 북한지역에 100석의 의석을 할당하고 있으며,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선거 가능지역인 남한에서만 실시한 5·10선거에서 198명의 제헌국회의원이 선출되었다.

제헌국회는 5월 31일 개원되어 초대 의장으로 이승만을 선출하였다. 그리고 7월 17일에는 전문 10장 103조의 헌법과 12개 행정부서를 둔 정부조직법이 법률 제1호로서 공포되었다. 이 건국헌법의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³¹⁾라고 선언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정신을 계승하였음을 명시하고 민족사의 정통성을 부여하였다. 이 헌법에 의거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시영(李始榮)을 선출하고, 8월 15일 대한민국의 수립을 내외에 선포하였다.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유

엔총회에 이를 보고하고, 총회는 12월 12일 대한민국이 한국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선언하는 다음 요지의 결의안을 승인하였다.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와 협의가 가능했으며 또한 전 한국인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효과적인 통치권을 보유하는 합법적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 정부는 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한국의 해당지역 선거권자의 유효한 자유의사 표시에 근거를 두었다. 따라서 이 정부는 한국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이다.³²⁾

(3) 北韓 共產政權의 樹立

북한에서 공산정권이 수립된 것은 사실상 도별 인민위원회가 구성되고 1946년 2월 8일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가 조직되어 김일성이 위원장직에 앉을 때이며, 이때부터 북한 내에서 민족주의 세력이 제거되고 소련계 공산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한 북한정권이 권력을 장악하였다.

중앙정부의 정권을 장악한 김일성은 1946년 11월에는 각 도·시·군 단위의 제 1차 인민위원회 선거를 실시하고 곧 이어 부락단위 인민위원회 선거까지 실시하였다. 이때 모든 선거구에서는 조선민주주의 민족전선이 단일후보를 추천하였으며 흑백투표가³³⁾ 실시되었다. 이 선거에 의해 인민위원들이 선출되어 1947년 2월 17일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1947년 11월 헌법제정을 위한 기구를 마련하고, 1948년 4월에는 소련공산주의를 모방한 인민헌법안을 채택하였다. 헌법이 마련되자 이해 7월에 '전 조선이 통일될 때까지 동 헌법을 북한지역에서 실시할 것'과 '동법에 의거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정하고 1948년 8월 25일 북한전역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실시할 것을 공표하였다. 그리고 이날 북한전역의 212개 선거구에서 공산주의 방식대로 흑백투표함에 의한 공개투표로 선거가 실시되었다.³⁴⁾

이 선거에 대하여 공산주의자들은 남한전역에서 비밀지하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였다고 선전하면서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북한정권의 수립을 공표하였다. 후일 북한정권 수립의 불법성과 관련하여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북한정권은 소련군의 창조물에 불과하며 소련으로부터 단순히 권력을 위임

20 第1章 戰爭의 背景

받아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이 괴뢰집단은 그의 지배권에 대해 공정한 국제 기관의 감시 아래 국민들에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등 정권의 통치권 요구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고 한 적이 없다.³⁵⁾

이리하여 한민족은 해방과 함께 통일국가를 건설할 기회를 갖게 되었으나 강대국의 전후처리 방침에 의한 38도선의 획정과 그 후 한반도에 위성국가를 건설하려는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의 정책으로 인해 결국은 38도선을 경계로 남에는 대한민국 민주정부, 북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란 공산정권이 수립됨으로써 민족과 국토의 분단을 고정화시키고 말았다.

5. 共產主義者들의 暴力鬭爭

일찍이 해방 후 남한 내의 미군정 아래서 정치투쟁을 하던 공산주의자들이 1946년 6월 정관사 위조지폐사건을 계기로 지하에 은신하여 선동, 태업, 파업행위를 시작하고 1948년 초 유엔감시하의 남한 단독정부수립을 위한 선거의 실시가 기정사실화되자 1948년 2월 2·7구국투쟁이라는 명목으로 유엔한국위원단의 활동을 반대하고 미·소양군의 철수와 선거방해투쟁을 전개하였다.

이 투쟁은 공장과 생산기관 및 교통기관에 남로당 세포조직들이 잠입하여 파업을 선동하고 경찰관서의 습격, 방화, 파괴와 전신·전화의 절단 등 공공시설의 파괴를 자행하는 등 폭동으로 발전하였다. 2·7폭동은 선박노동자들의 해상파업과 탄광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이어졌으며 서울과 각 지방 학생들의 동맹휴학으로 확대됨은 물론 관상대와 측후소 일부 종사원의 파업으로 기상관측까지 장애를 받았다. 폭동기간은 2주일 정도로 그 규모는 전국적이었으며 모두 8,479명이 검거되었다.³⁶⁾

2·7폭동에 이어 1948년 3월 말에 제주도에서는 남로당 조직책 김달삼(金達三)이 제주도 제9연대 내의 세포조직 책임자와 제주도지역을 폭력으로 장악할 것을 모의하고 곧 이어 있을 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주도 일원에서 일제히 무장폭동을 일으켜 경찰관서를 습격, 방화하고 경찰관과 양민을 살상하였다. 이 폭동으로 북제주군의 2개 선거구는 5·10총선을 실시하지 못하였다.³⁷⁾

이렇게 혼란상태가 야기되자 미군정청에서는 경찰병력을 투입하여 진압을 꾀하였으나 희생자만 났을 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리하여 제주도

지역 방위임무를 수행 중이던 제9연대를 동원하고 수원주둔 제11연대를 추가로 투입하였다. 이 토벌작전으로 제주도 내 유격근거지가 파괴되자 남로당은 그 보복으로 군부대 조직책에게 지령을 내려 제11연대장 박진경(朴珍景) 대령을 살해하게 하였다. 박 대령의 후임 연대장은 공비와 주민을 분리한 뒤 공비를 소탕하는 작전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³⁸⁾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1948년 10월 1일 다시 대규모 폭동이 일어나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경찰지서가 습격당하는 등 사태가 악화되자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는 한편, 제주도지구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공비소탕작전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로써 실로 폭동발생 후 13개월 만인 1949년 5월에 가서야 대부분의 공비조직이 소멸되고 제주도의 치안이 회복되었다.³⁹⁾

이후에도 폭동은 제주도에서 그치지 않고 주로 군에 침투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반란의 형태로 계속되었다. 1948년 10월 19일 제주도 폭동진압차 출동하려던 여수주둔 제14연대에서 남로당에 의한 군반란사건이 발생하였다. 남로당의 지령을 받은 제14연대 조직책 지창수(池昌洙) 상사를 비롯한 남로당원들이 주동이 되어 반란을 일으켰다. 반란군의 기도는 제주도 폭동이 성사될 수 있도록 토벌부대의 출동을 저지시키는 한편, 이를 기회로 다른 연대로의 파급효과를 노린 것이었다.

이들은 미리 포섭해 놓은 일당 40여 명과 함께 연대가 출동준비를 하는 동안 무기고와 탄약고를 점령하고 병력을 연병장에 집결시켜 “……우리는 동족상잔의 제주도 출동을 반대한다. 미제국주의 앞잡이 장교들을 모조리 죽여 버리자……” 등의 슬로건을 외치며 반란을 선동하였다. 이들은 20여 명의 장교와 수명의 하사관들을 사살하고 연대를 장악한 후 이날 밤 1,000여 명의 반란병력을 이끌고 여수시내로 진출하여 경찰과 교전 후 여수시를 장악하였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는 순천까지 진출하여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렇게 점령지역이 확대되자 반란군 세력은 여수지구 공산당원들이 합세함으로써 3,000명으로 불어났으며 이들의 주력은 광양-남원-전주 방면으로, 일부는 별교-광주-이리 방면으로 진출하려 하였다.⁴⁰⁾

반란군의 세력이 점차 커지면서 점령지역을 넓혀가자 정부는 10월 21일 광주에 반군토벌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23일에는 여수, 순천 지구에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반군토벌전투사령부는 25일 순천, 별교, 보성, 광양을 탈환하였으며, 27일에는 여수지역의 치안이 회복되었다.⁴¹⁾ 이후 반란군은 지리산으로 잠입하여

22 第1章 戰爭의 背景

유격전을 전개하였으며, 토벌작전은 이후에도 15개월 이상 지속된 후 1950년 1월 25일에 제엄령이 해제되었다.

여수·순천 반란사건에 이어 1948년 11월 대구주둔 제6연대에서 또 다른 군 반란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연대는 3개 대대의 주력이 제주도와 여수·순천 반란토벌에 투입되고 대구에는 연대본부 병력과 일부 경계병력만이 잔류하고 2개 중대는 김천, 영천, 포항에 파견되는 등 부대가 분산되어 있었다. 이러한 관계로 이 연대의 반란은 세 차례에 걸쳐 산발적으로 발생하였다. 처음에는 1948년 11월 2일 이 연대의 남로당 세포책임 연대본부의 곽종진(郭鍾振) 특무상사가 주동이 되어 여순과 보조를 같이하기 위하여 주력이 없는 기회를 이용, 연대본부에 비상을 발령하고 병력을 집결시켜 '여순반란군이 대구로 진출하였다.'고 조작 선동하여 병력을 집합시켜 반란을 일으키고 반대자 10여 명을 살해하였다. 이들은 대구서를 공격하는 등 시내로 진출하였으나 군경에 의해 실패하게 되자 40여 명의 동조자들과 팔공산으로 도주하였다.

이 사건 발생 후 여순토벌작전 중 원대북귀령을 받은 제1대대가 북귀 도중 달성군 월배 부근에 이르렀을 때 대대내의 좌익 불순세력들이 인솔장교 9명을 살해하고 반란에 가담할 것을 협박 종용하였으나, 군경의 출동으로 거사가 실패되자 팔공산으로 도주하였다. 연이은 사건이 1949년 1월 3일 포항근교 오천 비행장에 주둔하고 있던 제6연대 예하 제4중대에서 일어났다. 이 중대는 제6연대에서 좌익에 의한 군반란 사건이 계속되자 숙군을 위해 임무교대키로 되어 있었는데 좌익세력이 이를 탐지하고 소대장과 선임하사를 살해한 후 중대원들을 규합하려고 선동하였으나 중대원들이 이에 불응하자 도주하였다.⁴⁰⁾ 이로써 제6연대의 반란도 많은 희생자를 남긴 채 무산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남한에서 공산주의자들의 폭력적인 투쟁이 실패하게 되자 북한의 공산정권은 남로당의 무력투쟁수단에 의한 남한의 공산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후 무력적화통일의 달성을 목표로 한 군사력 증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게 되었다.

第 2 節 人民軍의 創建과 戰爭準備

1. 人民軍의 創設

(1) 人民軍의 胎動

해방 직후 소군정이 체제를 갖추기 전까지 북한지역에서는 민족주의자들이 조직한 자위대와 국내 공산주의자들이 조직한 치안대가 사회질서 유지와 치안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소련군정은 이들 단체의 활동을 억제하기 시작하였으며 김일성이 입북하자 각 도청 소재지마다 적위대를 편성하고 무장조직을 확대시키면서 소련군정을 대리하여 경찰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이들 무장단체들은 서로 대립하여 주도권 쟁탈을 위한 충돌을 야기하는 등 도리어 정국을 혼란스럽게 하는 요인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소련군정은 이것을 빌미로 1945년 10월 21일 무장단체 해산령을 발표하여 이들 단체를 해산시켜 무기와 탄약 등 군용물자를 소련군에게 반납하도록 하고 새로이 보안대를 조직하였다. 보안대는 1945년 11월에 소련군정을 추종하며 공산주의 사상이 투철한 자 중에서 선발된 2천 명 규모로 진남포에서 창설되었으며, 1946년 초까지는 각도에도 보안대를 설치하여 이들로 하여금 치안과 시설경비를 담당하게 하였다. 동년 6월에는 보안훈련소를 개천에 설치하고 신의주·정주·강계 등에 분소를 설치하여 보안대원의 모집·훈련을 실시하였다. 보안대는 후에 인민군과 더불어 북한군의 근간을 이루는 부대의 하나로 성장해 갔다.⁴³⁾

소련군정과 김일성은 보안대만으로는 치안과 경비, 특히 철도경비에 부족하다는 명목을 내세워 장차 군으로 전환시킬 목적 아래 1946년 1월에 본부를 평양에 둔 각 도별 철도보안대를 창설하였다. 이들은 철도·터널·역 등의 경비를 전담하였으며, 일본제 99식 소총⁴⁴⁾으로 무장하고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는데 그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1946년 7월에 북조선 철도경비사령부로 개편되었다.

사령부 예하의 철도경비대는 13개 중대로 편성되었으며⁴⁵⁾ 철도경비를 담당하면서 정규군 편성에 대비하였다. 철도경비대 훈련소도 개천과 나남에 각각 설치하여 증편된 철도경비대의 부족한 인원을 보충하고 훈련을 실시하였다.⁴⁶⁾

이렇듯 북한에서는 소군정의 지원 아래 정규군 창설 이전의 무력수단의 확보

24 第1章 戰爭의 背景

를 위하여 내무국 산하에 보안대와 철도경비대를 설치 운영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그들은 정규 군사력의 건설을 준비하기 위하여 1946년 2월 8일 진남포 도학리에 군간부와 정치간부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 평양학원을 설치하였다.

평양학원은 김일성 직계의 빨치산 출신들이 장악하고 그들 세력의 확장을 위한 저변확보를 위해 각 지방을 돌면서 각 인민위원회에서 핵심분자들을 선발하여 입교시키고 소련군 출신 한인들이 교관이 되어 정치교육을 군사훈련과 병행 실시하였다. 군사훈련에 있어서는 신체단련, 사격술 향상, 소련군 군사교리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정치분야에서는 정치학·노어·공산당사 등을 교육하되 사상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정치교육에 중점이 두어졌다.⁴⁷⁾

이러한 교육내용의 편성은 단순히 군간부를 양성한다기보다는 북한 공산체제와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빨치산 세력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분야별 핵심요원의 양성에 중점을 둔 것이었으며, 장차 이러한 요원을 양산하기 위한 각종 학교와 기관을 증설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 학원의 교육기간은 4개월의 단기과정부터 시작하여 1946년 6월 처음으로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이후 15개월 과정을 신설하여 제1기생 800여 명이 입교하였다. 이들은 평양학원을 수료한 후 당·보안대·경비대의 간부 혹은 교육기관의 교관으로 배치되었으며 전쟁직전까지 모두 2천5백 명이 배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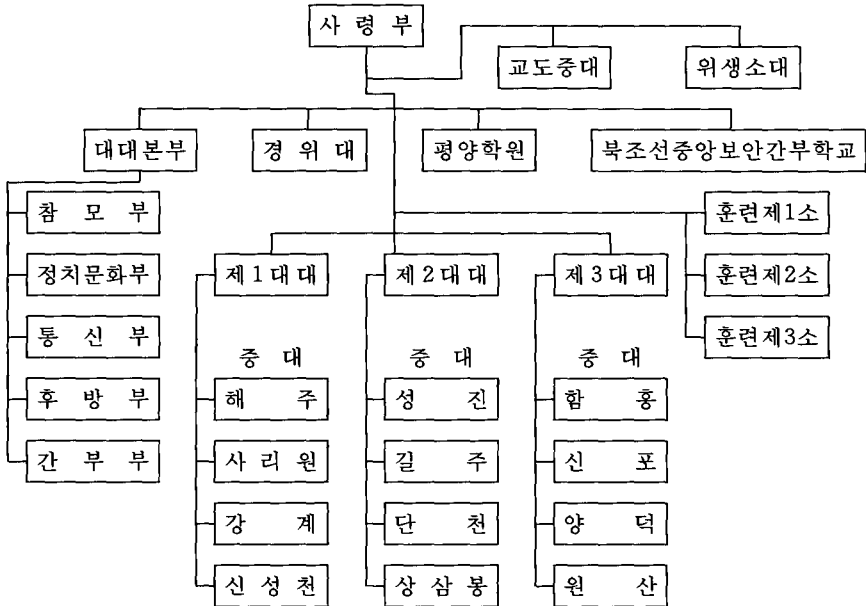
평양학원에서 공산체제의 기간요원을 양성하는 가운데 1946년 7월 평남 강서군에 군간부를 양성하기 위한 중앙보안간부학교를 설치하였다. 이 학교는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최초 300여 명을 입교시켜 보병중대·포병중대·공병중대 등으로 나누어 교육시켰으며, 1947년 10월 제1기 졸업생을 배출하고 난 후 위생중대·경리중대·통신중대 등을 증설하여 인민군의 병과별 간부를 양성하였다. 이들은 후일 인민군의 소대장·중대장·교관요원 등이 되었다.⁴⁸⁾

소련군정 당국과 김일성 일파는 이렇게 보안대와 철도경비대가 증편되고 평양학원, 중앙보안간부학교, 보안훈련소, 철도경비훈련소 등에서 군인력이 양성되자 여러 기관을 통합하여 지휘체제를 일원화할 필요에 따라 1946년 8월 15일 평양에 군지휘기구인 보안간부훈련대대부를 설치하였다. 이 보안간부훈련대대부는 최초 보안대를 제외한 평양학원, 중앙보안간부학교, 보안훈련소, 철도경비대로 편성되었으나 그 후 몇 차례의 개편을 거쳐 철도경비대의 13개 중대를 기간으로 하여 3개대대를 편성하고 훈련소를 3개소로 통합하였다.⁴⁹⁾

훈련대대부는 군사시설을 점차 확충하면서 병력증강과 군사훈련을 병행하였

〈표 4〉

보안간부훈련대대부의 편성



으며 각 훈련소들은 사단편성시 그 모체가 되었다. 대대부의 병력은 18세 이상 25세까지의 청년으로 모병하였으나 기피현상이 심해지자 강제징집을 시행하여 민청원과 당원을 집단적으로 입소시켰다. 장비는 초기에는 일제 38식 소총⁵⁰⁾으로 무장하였으나 소련제 소총과 탄약을 확보하고 소련군 장교를 고문관⁵¹⁾으로 두어 조직적인 체계로 급속히 성장하였다.⁵²⁾ 이리하여 북한에서의 군창설은 시간을 다투는 문제가 되어 있었다.

(2) 朝鮮人民軍으로의 改編

북한은 보안간부훈련대대부를 설치한 후 1947년 5월에 이르러 미·소의 대립이 심화되어 제반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판단되자 보안간부훈련대대부를 인민집단군(사령관 최용건)으로 재편하였으며, 보안간부훈련 제1소를 보병 제1사단, 제2소를 보병 제2사단, 제3소를 제3독립혼성여단으로 승격시키고 집단군 총사령부를 설치하였다. 이때부터 김일성은 본격적으로 군사력 강화와 군사원조의

〈표 5〉

보병사단의 창설(1947. 5. 17)⁵⁰⁾

부대구분	사단사령부	지휘관	창설경위
보병제1사단	개천	소장 전승화	개천 보안간부훈련소(제1소) 병력을 기간으로 창설, 제1, 2, 3연대, 포병연대
보병제2사단	나남	소장 강건	나남 보안간부훈련소(제2소) 병력을 기간으로 창설, 제4, 5, 6연대, 포병연대
제3독립 혼성여단	평양	소장 최민철	원산 보안간부훈련소(제3소) 병력을 기간으로 창설, 제7, 8, 9연대, 포병연대

획득에 박차를 가하였으며, 이들 사단들은 소련군으로부터 지원받은 박격포, 곡사포, 대전차포와 각종 기관총과 다발총, 소총 등을 장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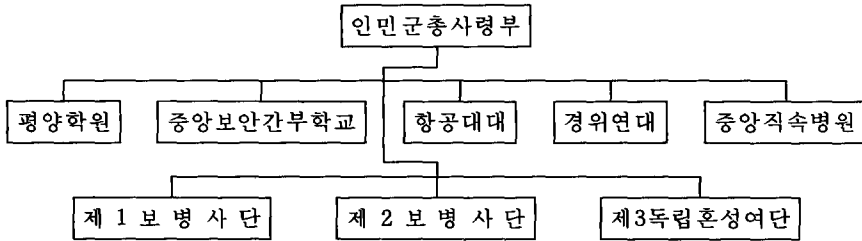
인민집단군의 편성시 각 사단의 병력은 1만 400명 정도이고 제3독립혼성여단은 3천400명 정도로 총병력은 약 3만 명 정도에 달하였으며 약 1만 7천 명의 훈련병이 있었다.⁵⁴⁾ 이때 계급제도를 도입하고 소련 군사고문관들의 주도로 전술훈련 등을 실시하다가 1948년 2월 8일 정규군 창설 선언과 함께 조선인민군으로 개편하고 인민군 총사령부를 설치하였다.⁵⁵⁾ 조선인민군의 창설은 북한공산정권의 수립을 공식화하기 7개월 전의 일이었다. 따라서 조선인민군은 하나의 무장집단에 불과하였으나 김일성은 1947년 말~48년 초에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에 의해 조선인민군을 창설한다고 선포하였다. 즉 남한의 머슴장군으로부터의 도발에 대응한다는 구실 아래 인민정권의 무력기관이라고 합리화하였다.

인민군의 해·공군은 육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었다. 해군의 모태는 1946년 7월 원산에 동해안 수상보안대와 진남포의 서해안 수상보안대로 나누어 편성된 수상보안대이며, 12월에 해안경비대로 바뀌었다. 이 해안경비대는 내무국의 관할 아래 놓여 있었으며 1948년 2월 조선인민군의 창설시 6천여 명으로 증강되었다. 교육기관은 1947년 6월에 해안경비대 간부학교가 설치되었으나 조선인민군이 창설되면서 인민군 해군군관학교로 개칭되었다.⁵⁶⁾

북한공군은 1945년 10월 발족한 신의주 항공대로 출발하였다. 신의주 항공대는 순수 민간단체 성격의 항공교육기관에 불과하였는데 1946년 6월 평양학원에 편입되면서 군사조직인 항공중대로 변모하였다. 그 후 1947년 인민집단군

<표 6>

인민군총사령부 기구표(1948. 2. 8)



창설시 항공대대로 독립하여 존속하였다.⁵⁷⁾

인민군 창설시 김일성은, “우리 인민군대는 북조선의 민주건설의 성과를 확고히 하며 인민위원회를 사수하고 조국의 완전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고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을 방위하기 위하여 전체 인민과 국가가 요구할 때 어느 때를 막론하고 다 동원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⁵⁸⁾라는 연설을 통하여 인민군의 주요한 목표가 남한의 공산화를 위한 무력침략에 있음을 분명히 시사하였다. 이는 북한지역 공산주의 체제의 건설이라는 목표가 달성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한반도의 공산화를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으며 소련의 전략과도 일치하는 것으로써 이후 소련의 군사지원 역시 더욱 강화되었다.

2. 人民軍의 戰爭準備

(1) 中·蘇의 支援과 戰力增強

북한은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의 공포와 더불어 인민군총사령부를 민족보위성으로 격상시키고 작전국 등 11개국으로 편성하여 각군의 업무를 관장하였다.⁵⁹⁾ 이렇게 군사업무 체계를 정비한 북한은 소련점령군의 장비를 인수받고 이어 중·소의 군사지원을 받아 급속히 군비를 확장해 나갔다.

특히 소련은 전쟁물자와 장비지원은 물론 인민군 건설초기부터 군수뇌부, 각 부대 및 학교기관을 지도하였으며 각 사단에는 대좌급 사단장 고문관을 비롯하여 중대급까지 150명을 배치하고 전차부대·항공부대에도 전문고문관을 파견하여 전술훈련과 장비교환에서부터 정비분야까지 담당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

28 第1章 戰爭의 背景

하여 인민군은 소련 군사교리로 무장되어 갔고 사회 전반에 걸쳐 소비에트화로 촉진되어 갔다. 소련군사고문관은 1948년 말 2천 명 정도까지 증강되었으나, 소련군 철수와 동시에 대대급까지만 고문관을 유지함으로써 1949년부터 군사고문관은 대폭 감소하였으며 그 대신 특별군사사절단이 파견되어 인민군의 전쟁 준비를 직접 지도하였다.⁶⁰⁾

인민군은 소련군 철수시 인수한 장비로써 1948년 9월 9일 제3혼성여단을 제3사단으로 완전하고 또 제4독립혼성여단을 창설하여 4개사단으로 증편함은 물론, 소련군 전차사단의 지원하에 제105전차대대를 창설하고 소련군 철수시 T-34 전차 60대, 자주포·사이드카·차량 등을 인수하여 제115전차연대로 증편하였다.⁶¹⁾ 또한 민족보위성 산하의 항공대대도 소련군 철수시 인수한 IL-10 폭격기와 YAK-9 전투기 등 100기로써 항공연대로 증편하였다.

이렇게 군사력을 증강해 나가던 중 소련군이 철군을 완료한 1948년 12월 중순에 모스크바에서 소련 국방상 불가닌(N. A. Bulganin) 원수의 주재 아래 5명의 소련군장성과 중공, 북한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인민군의 전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 3국 군사대표들은 18개월 내에 인민군을 남한 침략에 충분하게끔 증강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아래 내용의 비밀 군사협정에 합의하는 한편, 소련군 특별사절단의 파견을 결정하였다.

- ① 6개 보병사단을 돌격사단으로 편성한다.
- ② 돌격사단을 편성하기 위하여 중공은 한인계 중공군 20,000~25,000명을 입북시켜 인민군의 기간요원으로 제공한다.
- ③ 돌격사단 외 8개 전투사단과 8개 예비사단을 편성한다.
- ④ 기갑부대는 소련이 제공하는 500대의 전차로써 2개의 기갑사단을 편성한다.
- ⑤ 공군은 국제적인 문제점을 감안하여 필요한 시기까지 당분간 보류한다.⁶²⁾

이에 따라 초대 주북한대사로 임명된 스티코프 대장을 단장으로 5명의 장성과 12명의 대령 그리고 20명 가량의 중령·소령·대위 등 40여 명으로 구성된 군사사절단이 12월 말에 북한으로 출발하였다. 이때 파견된 소련군 장군들 대부분이 기갑전문가였다. 이 사절단은 도중에 하얼빈에서 조·중 실무진과 만나 동북의용군의 입북가능성을 확인한 뒤 1949년 1월에 평양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북한수뇌와 가진 회담에서 공군력의 지원을 강조한 북한측의 요구를 수용하여

항공기 150여 기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하고, 반면 지형을 고려하여 전차를 1개 사단으로 축소 조정하는 등 모스크바 합의사항을 현지실정에 부합되게 조정하면서 이의 이행에 착수하였다.⁶³⁾

북한의 전쟁준비는 1949년 3월 5일 김일성·스탈린 모스크바 회담을 계기로 급진전되었다. 이 회담에서 양자가 무력통일에 관한 합의를 보고 경제원조·군사물자공급·문화교류증진을 위해 소련이 북한에 1949년 6월~1952년 6월까지 3개년에 걸쳐 약 2억 루블(4,000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한다는 협정을 체결하였는데,⁶⁴⁾ 북한은 이 차관으로 군사장비를 도입하였다.

북한은 이 협정에 따라 1949년 5월 1일에 1차년도분으로 소총·전차·야포 등 지상장비와 함정, 항공기 그리고 탄약, 무전기 등 각종 전쟁물자 110여 종의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는 6월 4일에 승인되었다. 주요 품목의 승인 내역은 <표 7>과 같다.⁶⁵⁾

<표 7> 조·소협정에 의한 1차년도 전쟁지원물자(1949. 6. 4. 승인)

종 류	단 위	수 량	
항 공 기 및 공 군 장 비	일류신-10	대	30
	일류신 연습기-10	대	4
	야크-9	대	30
	야크-11	대	6
	야크-18	대	24
	PO-2	대	4
	예비모터 AM-42	대	6
	낙 하 산	개	250
	예비부품가격	천 루 블	350
기 갑 장 비	전차 T-34	대	87
	자주포 SU-76	대	102
	장갑차 BA-64	대	57
	사이드카 M-72	대	122
	예비부품가격	천 루 블	200
소 총 및 포 병 화 기	7.62mm 소총	정	10,000
	7.62mm 저격소총	정	1,000
	7.62mm 카빈소총	정	4,000
	45mm 대전차포	문	48
	76mm ZIS-3포	문	73
	122mm 포	문	18

30 第1章 戰爭의 背景

이에 따라, 북한은 1949년도에 소련으로부터 소총 15,000정, 각종 포 139문, T-34 전차 87대, 항공기 98대 등 많은 장비를 인도받게 되었으며, 중공으로부터는 1949년 4월 조중(朝中)회담에 따라 중공군 제166사단(방호산), 중공군 제164사단(김창덕) 그리고 중공군 독립 제15사단(전우)과 중국 각지의 한인의용군 약 50,000명이 1949년 7월부터 1950년 5월까지 북한지역으로 입북하였다.^{*)} 이와 같은 중·소의 지원에 따라 북한은 1949년 말까지 제4독립혼성여단을 사단으로 완편하고, 제5·제6사단을 추가 창설하여 6개사단으로 증편하였으며, 제115전차연대도 제105전차여단(1949. 5. 16)으로 개편하였다. 전차여단은 3개 전차연대(1개연대 전차 40대), 기계화보병연대, 교도연대, SU-76대대 등으로 편성되어 사실상 사단급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북한은 1949년 초부터는 총동원령을 발동하여 군병력 충원제도를 지원에서 징병제도로 바꾸고 북한의 고급중학 및 대학생들에게 군사훈련을 실시하는가 하면, 각도에는 민청훈련소를 설치하여 병력보충이 즉시 가능하도록 하고 청년들에게 군사훈련을 실시하여 제2보충병력을 확보하는 등 거국적 전쟁준비체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북한군 전차부대의 훈련모습

1950년에 접어들어 북한의 전쟁준비는 더욱 박차가 가해졌다. 김일성은 2월 4일 지상군을 10개사단으로 증편할 계획을 수립하여 소련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자, 3월 9일에는 추가 3개사단을 장비할 각종 장비, 탄약, 기자재 등을 도입하기 위하여 1951년도 차관분 1억 3,000만 루블을 1년 앞당겨 집행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소련의 동의를 얻었다.⁶⁷⁾

이들 장비의 도입은 1950년 4월 김일성의 모스크바 비밀방문을 계기로 촉진되어 4~5월에 청진항에는 T-34 전차, SU-76 자주포, 박격포, 곡사포, 고사포, 무전기 등 통신장비, 도하장비 1조 등 공병장비, 탄약 등 각종 전쟁물자를 실은 소련선박이 하역능력을 초과할 정도로 입항하였다.⁶⁸⁾

이와 같은 장비로써 이들은 1950년 3~6월에 한인계 중공군 제15사단으로 제12사단을 창설하고 3개의 민청훈련소를 주축으로 3개사단(제10, 제13, 제15사단)을 편성함으로써 모두 전투준비를 갖춘 10개사단을 보유하게 되었다.⁶⁹⁾ 뿐만 아니라 이때 도입된 전차로 독립전차연대를 추가로 편성함으로써 인민군의 기갑능력은 1개여단과 1개연대로 증강되었고, 총 240여 대의 T-34를 보유하게

<표 8> 인민군의 사단증편

부대구분	창설지	창설시기	창설모체	연대
제4사단	진남포	1948. 10.	제4독립혼성여단 3개 보병대대와 6개 직속독립부대	제16, 17, 18 포병연대
제5사단	나남	1949. 8.	중공군 제164사단 소속 동북의용군 10,000명	제10, 11, 12 포병연대
제6사단	신의주	1949. 10.	중공군 제166사단 소속 동북의용군 10,000명	제13, 14, 15 포병연대
제12사단	원산	1950. 5.	중공군 제15사단 동북의용군과 한인 중공의용군	제30, 31, 32 연대
제10사단	숙천	1950. 3.	숙천 제2민청훈련소를 기간으로 한 평남지역 병력	제25, 27, 107 전차연대
제13사단	신의주	1950. 6.	신의주 제1민청훈련소와 평북지역 병력	제19, 21, 23 연대
제15사단	화천	1950. 6.	회령 제3민청훈련소와 함북지역 병력	제45, 49, 50 연대

32 第1章 戰爭의 背景

되었다. 인민군 보병사단은 제5, 제6, 제12사단 외에도 중공군이나 소련군에서 입국한 자들이 보충되어 전체 병력의 1/3이 전투유경험자들이었고, 완전편성은 11,000명이었다. 이들은 소련제 61mm·82mm·120mm 박격포, 76.2mm·122mm 야포, 45mm 대전차포, SU-76 자주포 등으로 장비되어 강력한 화력을 보유하였다.

인민군의 증강과 더불어 내무성 관장하의 보안대도 강화하여 치안은 물론 38도선 및 국경경비를 강화하였다. 1947년 7월에는 보안대를 중심으로 사리원에 38경비대를 창설하여 38도선 경비를 강화하였다. 이들은 1948년 초에 38보안여단으로 증편되었고 1949년에 접어들어 38도선 경비부대를 3개여단으로 증편하여 죽천(제3여단), 시변리(제7여단), 간성(제1여단)에 전개하고 38도선 경비를 분담시켰다. 또한 철도보안대 후신으로 창설된 철도경비대대는 철도경비 제5여단으로 증편되어 철도경비를 담당하였고, 압록강·두만강변에서 국경경비를 전담하는 국경경비 제5여단도 편성되었다.⁷⁰⁾ 이들 경비여단들도 소련제 기관총·박격포 등으로 장비하였고, 편성·훈련·감독은 소련군 장교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이들에게는 정치교육이 특별히 강조되었다. 그 외에 특수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1949년 4월 회령에서 제766부대를 편성하여 유격대를 육성하고 1950년 4월 청진에서 모터사이클을 주장비로 기동정찰용 제12모터사이클연대를 창설하였다.

조선인민군 창설시의 항공대대는 1949년 1월에 비행연대로 증편되면서 3월

<표 9>

경비여단의 창설

부대구분	사령부	창설시기	경비구역 및 병력
38 경비 제 1 여 단	간 성	1949. 5.	철원 - 간성 : 5,000명
38 경비 제 3 여 단	죽 천	1948. 9.	해주 이서 - 서해 : 4,000명
38 경비 제 7 여 단	시 변 리	1949.	철원 이서 - 해주 : 4,000명
철도 경비 제 5 여 단	평 양	1949. 1.	북한 전역 철도경비 : 3,000명
한만국경 경비 제 2 여 단		1948. 9.	압록강변 및 두만강변 경비, 7개 위수지구에 1개대대씩 배치 : 2,600명

에 IL-10, YAK-9 등 프로펠러식 전투기 30대를 원조받았다. 그 후 항공기의 추가도입으로 이 연대는 이해 12월에 사단으로 증편되어 추격기 연대, 습격기 연대, 교도연대, 공병대대로 편성되었다. 이 사단은 1950년 4월 소련으로부터 약 60대의 IL-10, YAK-9 등을 추가지원받았으며 남침직전 IL-10 60대를 다시 지원받음으로써 이들이 보유한 항공기는 총 210여 대이었다. 북한공군 역시 소

<표 10> 인민군 병력

육	군	10개사단 지원 및 특수부대	120,880명 61,820명
		계	182,680명
해	군 · 해 병 대	3개 위수사령부 육 전 대	4,700명 9,000명
공	군	1개 비행사단	2,000명
총		계	198,380명

<표 11> 인민군 장비

전	차 · 장	갑	차	T-34(85mm포) 장갑차	242대 54대
자	주	포		SU-76(76mm)	176문
곡	사	포		122mm 76mm	172문 380문
박	격	포		120mm 82mm 61mm	226문 1,142문 360문
대	전	차	포	45mm	550문
고	사	포		85mm 37mm	12문 24문
항	공	기		YAK-9 전투기 IL-10 전투기 IL-2 전투기 연습 및 정찰기 계	211대
합	정			경 비 합 보 조 합 계	30척 80척 110척

34 第1章 戰爭의 背景

련의 고문관에 의해 육성되었음은 물론 조종사와 정비사 등이 소련의 공군기지와 군사학교에서 교육을 이수하였다. 당시 이들은 평양을 비롯하여 신의주·안주·청진·연포·평강·신막 등 10여 개 기지를 운용하였다.⁷¹⁾

북한의 해군은 1949년 12월 내무성에서 민족보위성으로 소속이 변경되면서 뒤늦게 인민군 해군으로 정식 발족하였다. 이에 따라 약 1만 5천의 병력으로 증강되어 청진·원산·진남포 등에 위수사령부를 설치하고 소련의 지원으로 30여 척의 대·소형 함정을 보유하게 되었다. 1950년에는 각 위수사령부에 각각 1개 대대 규모의 육전대를 편성하였으며, 남침직전에는 동해안 상륙작전에 투입할 새로운 육전대인 제549부대를 창설하였다.

이렇게 소련군 장교들에 의해 편성 훈련되고 소련에서 공급한 장비로 무장하는 등 소련의 강력한 지원을 받은 인민군은 1946년에서 1950년 사이에 육군 10개 보병사단, 해군 3개 위수사령부, 공군 1개 비행사단을 주축으로 하는 군대로 성장하였다.

(2) 人民遊擊隊의 南派

북한에서는 남한의 적화, 나아가 전쟁준비 차원에서 군사력 증강과 병행하여 유격대를 계획적으로 양성하여 남파하였다. 그들은 소련군이 진주한 직후부터 남한에서 월북한 자들을 일정기간 동안 공작요원으로 훈련시켜 남파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1946년 평양학원이 설립되자 대남반을 설치하고 월북한 남로당원을 공산주의 정치교육과 대남공작요원으로 훈련시킨 후 남한에 침투시켰다. 이들은 주로 좌경세력 또는 남로당원과 연계 민심 선동·테러·파괴 등 대남적화공작을 전개하였으며 군내부에도 침투하였다. 이들은 남한 내부의 분열과 혼란, 폭동과 반란 등 국가 전복활동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그 후 북한은 1948년 1월에 강동정치학원을 설치하고 인민유격대라 불린 무장 유격대원들을 본격적으로 양성하였다.⁷²⁾ 여기서 양성된 유격대원들은 남파되기 직전 양양 인민유격대 훈련소에서 재교육을 받았으며 전쟁발발 전까지 양성된 유격대원은 약 3천 명이었다. 북한은 강동정치학원 폐쇄직전인 1949년 4월에 회령에 제3군관학교를 신설하여 남침시 투입할 비정규전부대(제766부대)를 양성하였다.⁷³⁾

이렇게 양성된 인민유격대는 여수·순천반란 사건의 발생으로 국군토벌부대가 호남 및 경남 지역에 집중되어 후방경비가 허술해지고 남한의 사회가 혼란해지

자 본격적으로 침투하기 시작하였다. 이 유격대는 제1차로 1948년 11월 14일 약 180명이 양양에서 오대산 지구로 침투하였다. 이들은 산맥을 따라 태기산 부근까지 남하하였으나 국군토벌대에 의해 대부분이 소탕되고 잔여병력은 충북 제천 방향으로 도주하였다. 북한은 제1차 침투에서 실패하게 되자 그 원인을 분석한 후 1949년 6월 1일 약 400명의 유격대를 오대산으로 침투시켰다. 그러나 1차 침투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섬멸되었다. 1949년 7월 6일 세 번째로 약 200명의 유격대가 오대산까지 침투하였으나 토벌대에 쫓겨 30여 명만이 증봉산 방면으로 도주하였다.⁷⁴⁾

북한은 3차에 걸친 침투가 모두 실패하자 4차로 유격부대 중 정예인 김달삼부대(제주폭동 주모자) 약 300명을 1949년 8월 4일 일월산으로 침투시켰다가 더 이상 진출할 수 없게 되자 영일군 지경리로 재침투하였다. 이들은 경북 보현산에 거점을 구축한 후 동해연단(東海聯團)을 편성하여 본격적인 유격전을 전개하다가 토벌되었다. 이후 북한은 칠원지구에 새로운 유격대 근거지를 설치하고 1949년 8월 12일 선발대 15명을 용문산까지 남파하였으나 실패하였다(5차). 그리고 본대 40여 명이 1949년 8월 15일 명지산을 거쳐 용문산으로 침투하였으나 군경토벌대에 포착되어 20여 명이 사살되자 나머지 병력은 도주하였다(6차).

이렇게 계속 비정규군의 침투작전이 실패하게 되자 7차로 1949년 8월 17일 당시 강동정치학원장이던 이호제(李昊濟)가 직접 지휘하는 인민유격대 약 360명을 태백산으로 남파시켰다. 이들 병력의 대부분은 소탕되었으나 100여 명이 김달삼부대와 합류하여 경북 일원에서 준동하다가 토벌되었다.⁷⁵⁾

이후에도 1949년 9월 28일 약 50명의 유격대가 양양군 금옥치리로 침투하였으나 국군에 의해 저지되자 북상도주하였으며(8차), 1949년 11월 6일에는 약 100명의 유격대가 영일군 지경리로 해상 침투하여 보현산의 김달삼부대와 합류하였다(9차). 이후 유격대의 침투는 잠시 중단되었다가 10차로 1950년 3월 28일 양양·인제·양구에서 대기 중이던 김상호·김무현 부대 약 700명이 오대산과 방대산으로 침투하였다. 이들은 강력한 화력을 지닌 정예부대였으나 국군의 토벌작전으로 소탕되었다.⁷⁶⁾

북한유격대는 북한의 남침시 후방에서의 대대적인 교란작전의 수행을 기대하고 1948년 11월부터 1950년 3월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2천4백 명 가량이 침투하였으나 국군과 경찰의 토벌작전에 의해 2천여 명이 사살 또는 생포되었다.

따라서 수치상으로는 4백여 명의 유격대만이 잔존한 것으로 나타났다.⁷⁷⁾ 이 토벌작전에 전방사단의 일부와 후방의 3개사단 등 국군 4개사단 규모와 경찰병력 일부가 투입되어 대비정규전을 전개함으로써 38도선의 방어력과 후방경계가 약화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유엔한국위원단은 제4차 유엔총회에 점차 북한에서 과전하는 유격대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전공작도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우려를 표명하였다.⁷⁸⁾

인민유격대의 남파는 인민군이 특히 강조한 배합전술을 실현하기 위한 기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 전술은 주전선에서의 전투와 병행하여 후방지역에서 비정규전에 의한 또 다른 전투를 강요함으로써 배후에 제2전선을 형성하여 동원 및 증원을 방해하는 등 전후방을 동시에 전장화하여 전의를 상실케 하고 적을 격멸한다는 것이다.⁷⁹⁾ 결국 곧 있을 정규군의 남침을 앞두고 제2전선을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들이 소탕됨으로써 배합전술의 목표달성에는 실패하였으나 국군의 후방전력을 분산시킴으로써 그들의 남침전략에는 큰 기여를 하였다.

이렇게 북한 공산정권은 유격대를 남파하여 국군의 전력을 약화 내지 허비시켜 국민의 동요를 유발하는 한편, 북한 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쟁준비를 은폐하기 위하여 평화운동을 전개하고 남북한 교섭을 제의하였다.

(3) 戰爭準備와 平和攻勢

북한에서의 전쟁준비 기반은 어머 1945년 말부터 시작된 사회 각 계층의 구성원들에 대한 조직화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리하여 학생 및 청소년 조직을 통합하도록 하였으며 지식인과 문화인들은 선전전과 문화전에 나서도록 하고 각종 대회를 개최하여 북한주민들을 사회조직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북한주민들은 누구나 공산당 산하조직에 들어가야만 하였으며 반동분자를 구분하여 인민증과 인민반 조직으로 감시·통제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사회에서 공산당에 반대하는 단체가 사라지게 되었으며 주민 모두 한 사람 하나의 당에 의해 획일적인 지휘·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다.⁸⁰⁾

다음으로 김일성은 군사력의 강화에는 군사장비와 군수품의 자체생산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1946년 말부터 군수산업기지 건설에 착수하고 무기생산을 독려하였다. 그리하여 1948년 3월에 기관단총을 자체생산하기 시작하였으며 군수

공장을 전문분야별로 건설하고 권총, 박격포 등 여러 가지 화기를 생산하고 탄약, 포탄, 수류탄 등을 자체생산하였다. 뿐만 아니라 1949년에는 원산조선소에서 자체생산한 경비함의 진수식을 갖고 이 경험을 토대로 남포조선소에서 같은 종류의 경비함을 생산하였다.⁸¹⁾ 이와 같이 북한은 경제건설에 앞서 여러 기술을 군수산업에 동원하여 전쟁준비태세를 갖추었다.

또한 1949년 7월 15일에는 인민군과 그 가족을 원호한다는 명목 아래 조국보위후원회를 조직하였다. 이 후원회는 도·군의 행정구역에 따라 지도부를 설치하고 리 단위까지 조직에 편성하여 18세부터 45세까지의 남녀주민들을 회원에 가입시켰다. 이들은 이른바 조국보위사업에 대중을 동원하기 위한 공산당의 후원단체로서 김일성의 지침에 따라 인민군 가족의 원호와 더불어 인민군의 현대화를 위하여 비행기, 탱크, 함정 등의 구입을 위한 기금헌납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⁸²⁾

이렇게 사회를 조직화하는 한편, 사회주의 경제개혁을 실시하였다. 제일 먼저 1946년 3월부터 토지개혁을 실시하였다. 토지개혁 중 지주와 자본가들을 숙청하였으며 1백만 정보의 토지를 몰수하여 무상분배하였다. 1946년 8월부터는 주요산업의 국유화를 시행하여 약 1천 개의 산업시설과 기관을 국유화하였다. 이리하여 북한의 지주·자본가·종교인 등 공산독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유를 찾아 월남하게 되었으며,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 공산주의자들은 1947년부터 계획경제를 시작하여 1950년까지 3차에 걸친 경제계획을 시행하였다.⁸³⁾

소련과 중공의 지원 아래 사회의 조직화, 경제개혁의 실시와 군수산업의 육성, 계획경제의 시행을 거쳐 충분한 군사력을 확보한 북한 공산정권은 1949년 4월 세계평화옹호대회에 참가하여 소련이 주도하는 대로 군비경쟁 및 전쟁예산 증가 반대의 구호를 외쳤다. 그들은 1949년 6월 29일에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통)을 결성하고 동년 6월 30일 그들 방식으로 만들어진 평화적 통일의 방안을 대한민국에 제안했다. 이때 그들은 북한에서는 좌파가 80%, 남한에서도 65~70%의 득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⁸⁴⁾ 따라서 그들은 남한이 그들의 제의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로 인한 정치적 승리를 도모하려는 의도였다. 이후 1950년 3월 스톡홀름 평화대회에 참가하여 이 대회의 원자무기의 사용금지과 군비축소 주장에 찬성한다면서 위원회를 조직하고 북한 전역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1950년 5월 30일 조통(祖統)은 평화통일의 방안으로서 유엔감시하가 아닌

한국인 자결원칙에 입각한 남북을 통한 총선거를 8월에 실시하자고 제안하였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거절하자 북한은 또다시 결의문이라는 형식으로 총선거 실시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민족지도자 조만식과 거물남파간첩을 교환하는 요인교환도 제시하였다. 전쟁직전인 6월 19일 북한은 다시 대한민국 국회가 동의한다면 국회에 의한 통일방법을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선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북한정권의 평화운동과 남북한 교섭 제의는 평화회의를 거부하였다는 구실을 조장하기 위한 전쟁계획의 제2단계 전술에 불과하였다.⁶⁵⁾ 이를 증명하듯 인민군은 전력탐색과 유리한 지형지물의 확보를 위해 끊임없이 38도선상에서 충돌을 야기하였다.

(4) 38度線上的 挑發

인민군은 이미 1947년 7월에 38경비대를 편성한 후 소련군과 교대하여 38도선 경비를 인수하고 유리한 거점을 선점하였다. 이들은 국군이 미군으로부터 38선 경비임무를 인계받고 1949년 초부터 방어진지 편성에 착수하자 진지공사의 방해를 위한 사격을 가해 왔다. 이러한 소극적인 방해사격은 38경비대가 3개 여단으로 확대 편성된 후에는 병력이 38도선을 월경하는 등 더욱 도발적인 양상으로 바뀌었다.

이후 북한 공산군은 주로 개성·용진·포천·춘천·강릉 지구의 38도선상에서 거의 동시 다발적으로 부단히 무력도발을 촉발하여 남침직전까지 불법사격 및 공격횟수가 총 847회에 달하였다. 이러한 횟수는 해방 이후부터 계산하면 사흘에 1회 꼴이며 북한정권의 성립 이후부터는 매일 1회 꼴이 넘는 빈도였다.⁶⁶⁾ 그러나 인민군은 항상 그 책임을 국군에 전가하면서 선전공세를 벌였다. 그 도발상을 하나하나 열거하기 어려우므로 대표적인 사례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개성지구: 국군 제11연대는 1948년 11월부터 청단에서 고랑포에 이르는 38도선 경비지역을 인수하고 진지구축작업에 임하고 있었다. 당시 개성지구에는 적이 38도선 북에 연한 송악산(488고지)을 점령하고 아군은 그 선 남쪽으로 송악산에서 뺀 475, 292고지를 중심으로 방어진지를 구축 중이었다. 1949년 5월 3일 인민군 제1사단 제3연대 병력이 주를 이룬 인민군 1개대대 규모의 병력이 개성 북쪽 송악산 최고봉 능선을 타고 진지 공사 중이던 292고지와 인근 유

엔고지, 비둘기고지 등을 공격점령하였다. 제11연대장 최경록(崔慶祿) 중령은 즉각 제2대대장 지휘 아래 하사관 교육대를 포함한 대대규모의 병력으로 105밀리 곡사포, 57밀리 대전차포의 지원하에 공격을 실시하였으나, 토치카에서 응전하는 적을 제압하지 못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아군은 육탄공격을 감행하기로 결정하고 9명의 특공대원을 선발하였다. 특공대원들이 비둘기고지 기슭을 출발하여 각자 맡은 고지의 토치카에 육탄으로 돌격하여 토치카를 파괴함으로써 공격부대는 피탈당한 고지들을 탈환할 수 있었다. 이 전투에서 제2대대장, 하사관 교육대장, 육탄10용사 등 39명이나 전몰하였다.⁸⁷⁾

인민군은 송악산 전투 직후 배천 방면을 노리면서 소규모 충돌을 유발하였다. 그러던 중 1949년 5월 17일에는 1개대대 규모의 병력으로 38도선을 월경, 배천을 공격하였다. 이때 제11연대 제7중대는 대대에 증원을 요청하고 제5중대의 지원을 받아 신속히 출동하여 인민군을 격퇴하였다.

이 무렵 개성지구의 요충지인 송악산에서의 대치상태는 계속되고 있었으며, 최고봉인 488고지를 점령한 인민군은 개성시내를 감제하고 수시로 기습사격을 가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인민군이 7월 25일 개성시에 박격포 공격을 가하여 오자 제1사단장 김석원(金錫源) 장군은 예하 제11연대 제1대대로 하여금 488고지를 공격 점령토록 명령하였다. 이렇게 송악산을 둘러싼 피아의 공방은 8월 3일까지 계속되었으며 결국 제11연대는 지형의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등대고지(475)·292고지·비둘기고지 등을 확보하였다.⁸⁸⁾

웅진지구 : 웅진반도에는 제12연대 1개중대와 경기도 경찰기동대 3개중대가 38도선 경비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38도선은 두락산(남)-국사봉(북)-충무고지(남)-은파산(북)-까치산(남)을 연하고 있었다. 개성지구 도발과 같은 시기인 1949년 5월 21일 인민군 38경비 제3여단은 웅진반도를 장악하려는 기도에서 200여 명의 병력으로 국사봉 남쪽 고지를 기습하고, 26일에는 국군 방어지역으로 깊숙이 침투하였다. 뿐만 아니라 두락산 동쪽의 작산도 점령하였다. 이에 인천주둔 제12연대가 부대를 투입하여 이를 반격 격퇴하였으나 인민군이 6월 7일 다시 병력을 증강하여 공격해 오자 부득이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인민군의 공세가 격화되자 국군은 웅진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일대반격을 가하여 격퇴시켰다.⁸⁹⁾

제1차 웅진전투에서 패퇴한 인민군은 38경비 제3여단장 최현(崔賢)을 파견하

40 第1章 戰爭의 背景

여 새로운 침공을 준비하였다. 이들은 8월 4일 국사봉-총무고지로 중앙돌파하여 용진을 강점하고자 기도하였다. 그러나 용진지구전투사령부 예하의 국군 제18연대와 제2연대의 주력은 과감한 반격으로 이를 물리치고 총무고지를 계속 확보하였다.

제2차 침공에서 실패한 인민군은 1949년 10월 14일 38경비 제3여단 2개대대로 그들의 제1차 침공시 상실한 은파산을 탈환하기 위해 공격을 가해 왔다. 아군은 그 때 작산을 탈환하기 위해 그 북쪽의 은파산을 먼저 점령하였었다. 제2연대는 은파산을 고수하기 위해 분투하였으나 인민군의 우세한 화력에 의해 부득이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후에도 용진목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역습을 시도하다가 진지로 복귀하였다.⁹⁰⁾

포천지구 : 개성지구와 용진지구에서의 도발에 실패한 인민군은 포천지구에서 새로운 무력충돌을 유발하였다. 인민군은 1949년 6월 12일 약 200명의 병력으로 사적리를 공격하였으나 이러한 첩보를 입수한 국군 제1연대가 사전에 2개중대를 매복시켰다가 인민군을 섬멸하였다.

춘천지구 : 1949년 8월 6일에는 북한군 38경비 제1여단 소속 1개대대 병력이 국군 제7연대지역 전방 인제에서 관대리로 남하하여 박격포를 사격하며 소양강을 도하하여 38도선 남쪽의 682고지와 704고지 및 600고지를 공격해 왔다. 이에 춘천 주둔 국군 제7연대는 홍천의 제1대대를 출동시켜 반격을 개시, 682고지와 704고지를 탈환하였으나 그 동쪽 600고지는 7차의 공격에도 실패하였다. 총참모장의 특별지시로 원주의 제8연대까지 투입되어 합동작전을 전개하여 힘겹게 600고지를 탈환하였다.⁹¹⁾

강릉지역 : 이 무렵 적의 도발이 빈발한 지역으로써 빼놓을 수 없는 곳은 강릉 북방 동해안 부근이었다. 이곳에서 적의 38경비 제1여단 예하부대가 수시로 38도선을 월경하여 주민의 납치·약탈·방화행위를 거침없이 하고 국군의 진지에 대한 공격이 다반사였다. 1949년 2월에는 국군 제10연대가 서림 방면과 기토문리에서 잔교리 지역으로 침공한 적의 공격을 격퇴한 후 그 보복으로 기토문리의 적 해군과견대를 목표로 105밀리 포격을 가하였다. 또한 이 무렵 인민유격대가 남파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7월에는 국군 제10연대의 일부 병력이 양양의 유격대 훈련소를 목표로 공격한 후 철수하였다.⁹²⁾

적의 이러한 도발은 남침을 앞두고 그들 부대의 훈련과 국군의 방어태세 파악이라는 목적 외에 유격대의 남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국군의 38도선 경계부대를 분산시키는 전략의 일환으로 계획적인 것이었다. 이렇게 38도선상에서의 인민군이 빈번하게 침공하는 가운데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자 대한민국은 자력으로 국토를 방위하기 위해 자위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게 되었다.

第3節 國軍의 創軍과 防衛努力

1. 國軍의 創設

(1) 創設計劃

해방을 맞이한 후 민족의 장래가 매우 불투명한 시기에 일본·만주·중국 등지에서 귀국한 군사경력을 지닌 뜻 있는 인사들이 국가재건에 대비하여 사회질서와 치안을 유지하고 나아가 건군(建軍)의 주역이 되기를 자처하며 연고관계를 중심으로 여러 군사단체를 결성하였다. 이때 공산주의자들까지도 무력수단의 보유가 정권수립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편이라는 판단 아래 군사단체를 결성하였다. 따라서 30여 개의 군소 군사단체가 난립하게 되었으며 장차 정부수립시에도 어느 하나의 군사단체를 국군의 기간으로 삼는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더구나 일부 공산주의자들이 조직한 군사단체의 무분별한 세력확장으로 인하여 사회혼란까지 야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군정의 한국측 치안책임자인 조병옥(趙炳玉) 경무과장이 이응준(李應俊), 원용덕(元容德) 등의 조언을 받아 시크(Shick) 경무과장에 창군을 위한 국방부의 설치를 건의하고 미군정 내에서도 군의 모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활발히 개진되어, 주한미군사령관 하지 중장은 창군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⁸⁹⁾ 한편, 군정청 내에 위원회를 설치하여 한국의 국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군정당국은 이들 군사단체가 우후죽순격의 정당과 합세한다면 더욱 혼란이 조장될 것을 우려하여 사설군사단체는 해산한다는 전제 아래 1945년 11월 13일에

42 第1章 戰爭의 背景

공포된 다음 취지의 군정법령 제28호⁹⁰⁾에 따라 국방사령부(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Defense)를 설치하고 예하에 군무국과 경무국을 두고 군무국에 육군부와 해군부를 설치하였다.⁹¹⁾

한국의 중국적인 독립을 준비하며…… 민관(民官) 안녕의 유지와 민간의 무질서에 대하여 민권을 옹호하는 민간경찰기구의 보조 및 종교·언론의 자유, 재산권을 유지하며 육·해군의 소집·조직·훈련 준비를 시작하며 국민의 정부수립을 보호키 위하여 자에 조선군정청 국방사령부를 설치한다.

군정당국은 군정법령 제28호 제3조에 따라 사설군사단체의 활동을 규제하도록 하였으며, 국방사령부를 중심으로 한국의 군사지도자 이용준 등이 제시한 국방계획안을 기초로 하여 국방군(國防軍)의 창설계획을 수립하였다.

- ① 국립경찰의 보강을 위해 국방군을 창설·발전시킨다.
- ② 국방군의 병력은 45,000명으로 하며 육군과 공군으로 구분하여 육군은 3개 보병사단으로 된 1개군단으로 편성하고, 공군은 1개 수송비행중대와 2개 전투비행중대 및 근무부대로 편성한다.
- ③ 해군, 즉 해안경비대는 5,000명으로 제한한다.⁹²⁾

그러나 당시의 상황으로는 이러한 계획의 확정과 이행에 앞서 미군식 훈련이 실시될 경우에 대비, 언어소통을 위해 장차 군간부가 될 요원에게 군사영어를 교육하는 기관이 필요하게 되어 미군정청은 1945년 12월 5일 군사영어학교를 설치하였다. 이 학교는 구술시험, 신체검사, 군경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입교토록 하였다. 교육내용은 군사영어가 주였으나 국사·참모학·자동차 교육·소화기훈련 등이 포함되었으며 약 4개월간 축차적으로 110명을 임관시킨 후 폐교하였다.⁹³⁾

국방사령부는 군사영어학교의 폐교 후 경비대 간부 양성을 위해 1946년 5월 1일 조선 국방경비사관학교를 새로이 창설하고 군사영어학교에서 졸업하지 못한 인원들을 입교시켰다. 이 국방경비사관학교는 조선경비사관학교를 거쳐 후에 육군사관학교로 개칭될 때까지 창군요원 양성의 본산역을 담당하였다.

군사영어학교를 설치하여 군 창설에 대비하는 가운데 미군정에서는 군 창설계획을 맥아더 장군에게 송부하였다. 맥아더 장군은 군 창설건은 자신의 권한 밖의 일이라며 이를 국무-육군-해군조정위원회(SWNCC)에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등 위원회는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정치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군 창설에 관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없으며 그 대신 점령군의 경비임무(警備任務) 부담을 덜기 위해 경찰을 미군무기로 장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하지 사령관은 신임국방부장 참페니(Arthur S. Champeny) 대령에게 보다 규모를 축소시킨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자 참페니 대령은 군기능보다 경찰 기능에 가깝게 병력과 장비를 축소한 경찰예비대 창설안을 건의하였다.⁹⁸⁾ 이는 아래와 같이 1개 도에 1개연대씩 모두 25,000명 규모의 8개연대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당시 뱀부(Bamboo)계획이라 불렸다. 이 계획 수립시 국방사령부 고문 이용준은 각도에 1개사단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 ① 남한의 각도에 1개중대씩 8개중대를 설치하되 편성은 중화기가 없는 미군 보병중대를 기준으로 장교 6명, 사병 225명으로 편성하고 장교는 중앙에서 양성한다.
- ② 각도에 중대를 편성할 때는 정원의 20%를 초과 편성하도록 하여 그 중대의 편성이 완료되고 훈련이 끝나면 그 초과병력을 기간으로써 다음 중대를 추가 편성한다.
- ③ 이와 같이 중대를 확대 편성하여 대대를 편성하고 대대편성이 완료되면 각도에 1개연대를 편성한다.⁹⁹⁾

뱀부계획의 확정에 따라 조선경찰예비대 또는 조선국방경비대¹⁰⁰⁾라는 명칭으로 군 창설이 이루어지게 되자 대부분의 사설군사단체들은 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산되었으며 그 요원들은 경비대로 흡수되었다.

(2) 國防警備隊의 設置 및 增編

조선국방경비대는 뱀부계획과 군정법령 제42호(1946. 1. 14)에 기초하여 경찰예비대 2만 5천과 해안경비대를 설치하게 되었다.¹⁰¹⁾ 경비대는 1월 15일 태릉에서 제1연대 제1대대 A중대 창설을 계기로 각도 단위 연대별로 단지 소총으로만 무장한 경비병 중대를 창설하기 시작하였으며 2월 7일 경비대 총사령부를 설치하면서 본격적으로 중대편성 및 모병(募兵)업무에 착수하게 되어 4월 1일까지 8개중대를 편성함으로써 일단 8개연대의 창설을 완료하였다.¹⁰²⁾

44 第1章 戰爭의 背景

창설시 간부는 주로 군사영어학교 출신들을 배치하였으며 병력은 모집하여 충원하였으나 사설군사단체의 인원까지 받아들였으므로 좌익사상을 지닌 인원이 다수 입대하여 큰 문제로 남았다. 국방경비대는 대대 및 연대순으로 점차 부대를 확대해 나가 1947년 3월까지 당초 목표한 부대와 추가로 도(道)로 승격된 제주도의 제9연대를 포함하여 8개연대를 완전 편성하였으나 대구의 제6연대는 구성원 중 좌익세력이 물의를 일으켜 편성이 늦어졌다.¹⁰³⁾

이때 연대편제는 3개대대, 대대는 3개중대의 3각 편성이었으며 군의 계급구조는 장교·하사관·병의 3단계로 구분하여 장교는 만 단위로, 사병은 백만 단위로 하여 군번을 부여하였다. 이들은 미군으로부터 지원받은 일본군의 38식 및 99식 소총으로 장비하였고 일본식 복장을 착용하였으나 1946년 9월 이후 점차 미제 병기와 미국식 피복으로 전환해 갔다. 교육훈련은 전투훈련이 아닌 주로 총검술·집총훈련·폭동진압법 등 치안유지 위주로 실시하였다.¹⁰⁴⁾

육군이 창설되고 있는 가운데 해군의 모체를 설치하려는 움직임도 수반되었다. 가장 먼저 손원일(孫元一)·정극모(鄭兢謨) 등이 사설단체인 해사대를 조직하였다. 해사대는 미군이 군정을 실시한 후 일시 건준에 가담하였다가 조선해사보국단과 통합하여 조선해사협회로 개칭하였다. 이후 미군정과 몇 차례의 협의를 거쳐 약 200명 규모의 해안경비대를 조직할 것과 본부를 진해에 설치할 것에 합의하자 1945년 11월 11일 해안경비대를 창설하고 명칭을 해방병단이라 하였다.¹⁰⁵⁾

해방병단은 1946년 1월 14일 국방사령부에 편입되었으며 본부를 진해에 두고 단장에는 손원일이 취임하였다. 그러나 해군요원의 확보와 함정 등 장비의 부족이 커다란 문제였다. 이리하여 1946년 1월 17일 해방병(海防兵)학교를 설치하는 한편 조합창을 설치하였다. 해방병학교는 후에 조선해안경비 사관학교로 개칭되면서 해군 창설요원을 양성하였고 정부 수립 후 해군사관학교로 발전하였다.

이와 같이 국방사령부가 경비대의 창설에 몰두하던 1946년 3월 29일에 군정청의 각국이 부로 승격되는 조직의 개편에 따라 국방사령부는 국방부(Department of National Defense)로 개칭되었다.¹⁰⁶⁾ 그러나 소련대표가 미소공동위원회 회의에서 국방부라는 정부기관을 의미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의도가 무엇이나고 항의하자 미군정에서 이를 받아들여 6월 15일에는 그 명칭이 국방부에서 국내경비부(Department of Internal Security)로 개칭하게 되었다. 이때 예하의 조선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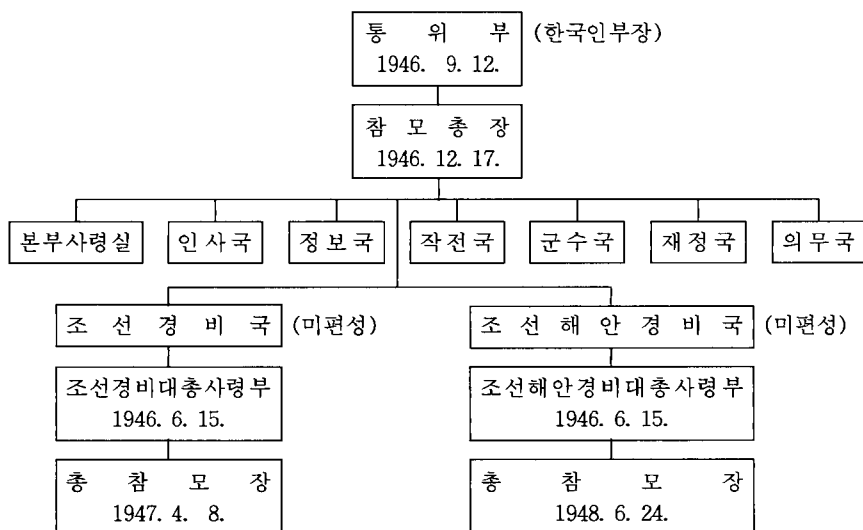
방경비대는 조선경비대로, 국방경비대 사령부는 조선경비대 총사령부로, 그리고 해방병단은 조선해안경비대로 개칭하였다.¹⁰⁷⁾

이렇게 되자 한국의 군관계자들이 국방부의 명칭변경에 항의하였으나 하지 사령관은 미·소 관계를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표시하였다. 이에 한국 측에서는 국내경비부를 통위부(統衛部)라 호칭하였으며 군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독립의 의미를 되새긴다는 의도에서 통위부장을 광복군계 인사로 천거하여 9월 12일에는 한국인으로서 초대 통위부장에는 유동열(柳東悅) 장군이 취임하였다. 유(柳) 통위부장과 경비대 사령관에 임명된 이형근(李亨根) 중령·송호성(宋虎聲) 중령 등 간부들은 경비대 창설 이래 군내에 잠입한 공산주의자들의 제거와 군·경간의 대립으로 발생하는 불상사를 해소하려고 노력하면서 창군(創軍)을 서둘렀다.¹⁰⁸⁾

1946년 9월 12일 통위부장의 취임을 계기로 사실상 군의 지휘권이 한국인에게 이양되고 미군은 고문관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경비대 총사령부를 비롯한 각 연대의 지휘권도 한국인이 행사하였다.¹⁰⁹⁾ 미고문관은 통위부 내에 약 20명, 경비대 총사령부 산하에 10명 이하의 인원이 상주하였고, 각 연대 고문관들은 1명이 2개연대씩 맡아 모병·행정·조직 및 훈련을 담당하였다.

<표 12>

통위부 기구표



46 第 1 章 戰爭의 背景

1947년 10월에 이르러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소련측에 의해 점령군 철수문제가 제기되자 미군측에서는 육군성의 주관하에 맥아더 장군이 하지 장군과 함께 한국의 국방과 국방군의 창설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들은 한국의 경제사정, 신병의 훈련시설 및 유능한 지휘관의 부족, 언어 장벽, 그리고 주한미군의 지원능력 감소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한 후 결과적으로 국방군의 창설은 아직 시기상조이며 그 대신 경비대를 5만 명으로 증원하되 필요시 보병, 포병, 화기 및 장갑차량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의 국내치안 유지능력의 개선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미군철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통위부에서는 장차 정부수립 후의 국방을 고려하여 1947년 12월 1일부로 기존의 9개연대를 3개연대씩 묶어 3개여단을 편성하였고, 경비대의 확장계획에 따라 모병에 박차를 가하여 1948년 4월과 5월에 추가로 6개연대와 2개여단을 증편하였다.

군의 창설작업이 진행되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게 되자 각종 군수품의 보급과 군지원을 위한 부대의 설치가 시급하였다. 이에 따라 1946년 7월부터 통

<표 13> 연대 창설

연 대	창 설 일	창 설 지	창 설 지 휘 관
제 1 연 대	1946. 1. 15.	태 릉	정 위 채 병 덕
제 2 연 대	1946. 2. 28.	대 전	정 위 이 형 근
제 3 연 대	1946. 2. 26.	이 리	부 위 김 백 일
제 4 연 대	1946. 2. 15.	광 산	부 위 감 홍 준
제 5 연 대	1946. 1. 29.	부 산	참 위 박 병 권
제 6 연 대	1946. 2. 18.	대 구	참 위 김 영 환
제 7 연 대	1946. 2. 7.	청 주	참 위 민 기 식
제 8 연 대	1946. 4. 1.	춘 천	부 위 김 종 갑
제 9 연 대	1946. 11. 16.	모 슬 포	부 위 장 착 국
제 10 연 대	1948. 5. 1.	강 릉	소 령 백 남 권
제 11 연 대	1948. 5. 4.	수 원	중 령 박 진 경
제 12 연 대	1948. 5. 1.	군 산	중 령 백 인 기
제 13 연 대	1948. 5. 4.	운 양	중 령 이 치 업
제 14 연 대	1948. 5. 4.	여 수	소 령 이 영 순
제 15 연 대	1948. 5. 4.	마 산	중 령 조 암

<표 14> 여단 창설

여 단	창 설 일	창 설 지	초대 지휘관	구 성
제 1 여 단	1947. 12. 1.	서 울	송 호 성 대령	제1·7·8연대
제 2 여 단	1947. 12. 1.	대 진	원 용 덕 대령	제2·3·4연대
제 3 여 단	1947. 12. 1.	부 산	이 응 준 대령	제5·6·9연대
제 4 여 단	1948. 4. 29.	서 울	채 병 덕 대령	제7·8·10연대
*제 6 여 단	1948. 11. 20.	청 주	유 재 흥 중령	제4여단의 개칭
제 5 여 단	1948. 4. 29.	광 주	김 상 검 대령	제3·4·9연대
제 7 여 단	1949. 1. 7.	용 산	이 준 식 대령	제1·9·17·19연대

<표 15> 지원부대의 창설

구 분	창 설 일	초대 지휘관	창 설 지	기 간 부 대
보 급 부 대	1946. 7. 1.	채 병 덕 소령	대 방 동	제1연대 보급중대
제 1 병 기 대 대	1948. 1. 1.	소 병 기 소령	영 등 포	병기중대
제 1 공 병 대 대	1948. 1. 1.	오 규 범 중령	김 포	제21자동차중대
제 1 병 참 대 대	1948. 1. 1.	유 흥 수 소령	영 등 포	
제 1 의 무 대 대	1948. 5. 1.	한 왕 용 대위	영 등 포	
제 1 육 군 병 원	1948. 5. 1.	신 학 진 중령	영 등 포	
제 51 통 신 대 대	1948. 5. 1.	정 운 완 중령	수 색	각 연대 파견병력

위부의 보급지원을 위해 병기·병참·공병·의무·통신 등의 지원부대를 편성하게 되었으며 전투부대의 지원을 위한 체계가 어느 정도 갖추어지게 되었다.

해안경비대는 1946년 9월 15일에 미해군으로부터 최초로 상륙정(LCI) 2척의 인수를 비롯하여 1948년 1월 14일까지 상륙정 6척·소해정(AMS) 18척·소해정(JMS) 11척·유조선 1척 등 모두 36척을 인수하였다. 1946년 10월 1일에 해안경비대 총사령부를 진해에서 서울의 통위부로 옮기는 한편, 인천·목포·목호·군산·포항·부산순으로 기지를 설치하고, 진해에는 특설기지사령부를 설치하였다. 해상방위력의 증강에 따라 해안경비대는 1947년 8월 30일부로 38도선 이남의 해상방위업무를 미 제7함대로부터 인수하였으며 이해 말까지 2개 특무함대로 조직이 발전해 나갔다.

한편 경비대의 창설과 때를 같이 하여 외국에서 항공계에 몸담았던 인사들이



국방경비대 교육

1946년 8월 10일에 항공건설협회를 조직하고 공군창설을 목표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한 끝에, 1948년 5월 15일 경기도 수색에서 통위부 직할로 항공부대를 창설하였다. 당초 이 부대의 주임무는 경비대 작전에 필요한 연락업무의 수행이었고 6월 23일에 조선경비대로 예속 변경되었다. 1948년 7월 27일 이 부대는 항공기지부대로 개칭과 더불어 경기도 김포로 이동하였으나 아직 항공기는 1대도 보유하지 못하였고 병력도 105명에 불과하였다.

이렇게 경비대가 군으로써의 모습과 체제가 점차 갖추어지자 군의 지휘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통위부와 경비대 총사령부의 기능조정에 착수하여 통위부는 정책수립을 전담하고 경비대 총사령부는 작전통제를 담당하도록 하였다.¹⁰⁾

(3) 國軍으로의 出帆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더불어 조선경비대는 국군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되었다. 국군은 헌법 제6조 “대한민국은 모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¹¹⁾는 정신에 따라 정부조직법에 의거 국방부가 설치되고 국방부장관이 육·해·공군의 군정을 담당하게 되었다. 초대 국방부장관에는 광복군 출신인 이범석(李範奭)이 취임하여 창군의 초석이었던 광복군 출신·일본군 출신·만주군 출신의 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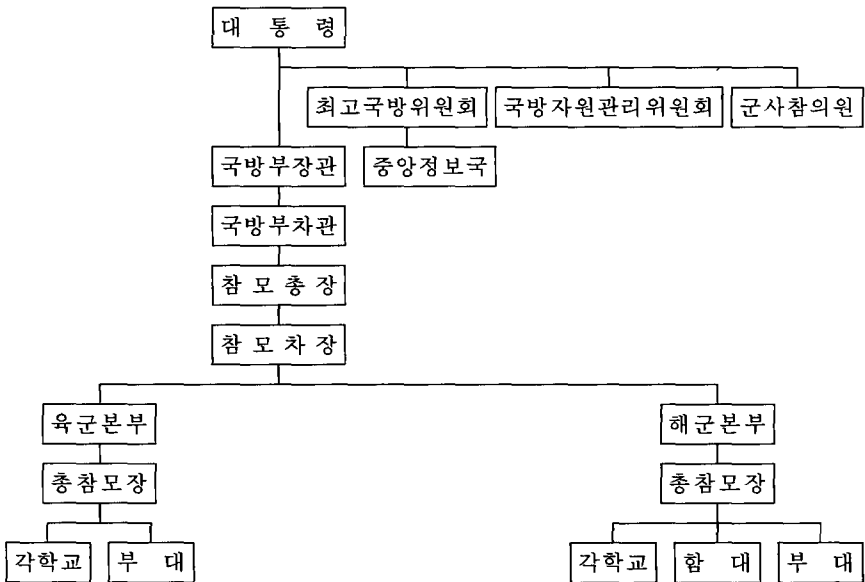
경력자들을 등용하여 군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한편, 광복군의 독립투쟁정신을 계승하여 자주독립과 진중호국 및 반공민주정신을 건군의 기본이념으로 천명하였다.

국방부의 설치에 따라 조선경비대는 대한민국 육군으로, 해안경비대는 대한민국 해군으로 각각 개칭되어 국방군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국군조직법의 제정을 서두르게 되었고, 이는 정일권(丁一權)·신응균(申應均) 등에 의해 기초되어 11월 30일 법률로 공포되었다.¹¹²⁾

이 국군조직법에 따라 국군을 육군과 해군으로 조직하되 통수권을 대통령이 장악하고, 군은 정규군과 호국군(예비군)으로 구분하였다. 공군은 육군에 항공부대로 두었다가 독립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¹¹³⁾

당시 육군은 소화기(小火器)로 장비한 5개여단에 15개연대를 보유하여 총병력이 5만여 명이었으며, 해군은 2개 특무정대에 대·소함정 105척, 3,000여 명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군정권을 행사하고 참모총장이 장관을 보좌하여 전군에 대한 군령권을 행사하게 되었으며, 각군본부는 총참모장이 참모총장의 명령을 받아 각군을 지휘감독하게 하였다.

〈표 16〉 국군의 조직표(1948. 11. 30)



50 第1章 戰爭의 背景

곧 이어 제정된 직제령에 따라 국방부는 최초 5개국(1~4국, 항공국)으로 편성하고 참모총장을 의장으로 하는 연합참모회의를 구성하였으며, 각군본부에는 필요한 참모부와 감실을 둠으로써 국방부와 각군본부의 조직을 완료하였다.

건군기에 국방부가 판단한 방위전력의 규모는 북한과 만주로부터의 위협까지 고려하여 총 23만이었으나 당시의 가용전력은 소요의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¹⁴⁾

이와 같이 국군은 국방군으로서 조직과 체제를 정비하고 국토방위에 임할 수 있게 되었으나 소요전력의 확보가 급선무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의 달성에는 당면한 무거운 도전을 극복해야 했다. 우선 내적으로 국군은 국방경비대의 창설초기 모병과정에서 사상을 고려치 않고 인원을 받아들임에 따라 좌익사상을 지닌 장병들이 입대하여 군내에 용공사상(容共思想)을 부식시키는 한편, 일부 남로당과 연결된 세력들이 군내에 세포망을 조직하고 반란과 폭동을 유발하였다. 결국 여순반란사건을 계기로 군내부에 잠입한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하고 문란해진 군기와 지휘계통을 확립하기 위하여 1948년 10월부터 대肃군(大肅軍)을 시작하여 국군의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미군의 철수도 동시에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국방부는 안보상 이중고의 무거운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표 17〉 국군의 전력소요 판단

육	군	상 비 군	100,000명
		예 비 군	100,000명
해	군	상 비 군	10,000명
		예 비 군	10,000명
공	군	육군으로부터 분리 독립된 군으로 유지 전략부대 : 1개 비행사단 해·공군 파견대 : 소규모 부대	

2. 國軍의 自衛力 確保努力

(1) 美軍撤收와 對應

점령군의 철수는 소련이 1947년 9월 26일의 미·소공동위원회 회담시 한반도에서의 외국군을 1948년 초에 동시철수시키자고 주장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제

기되었다. 이러한 소련의 일방적인 주장은 통일임시정부의 수립과 신탁통치에 대한 논의라는 미·소공동위원회의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소련은 이미 북한에 남한보다 강력한 괴뢰정권과 군사력을 설치해 놓았으므로 점령군이 철수하더라도 자신들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한 나머지 자신들의 의도대로 한반도 문제를 처리하려는 것이었다.¹¹⁵⁾

미국은 이 무렵 트루먼 미 대통령의 특사로 한국과 중국에 파견되었던 웨드마이어(Albert C. Wedemeyer) 장군의 보고서를 기초로 즉시 철수, 무기한 점령, 소련과 동시철수 등의 방안을 놓고 점령군의 철수문제를 검토하면서 결과적으로 이들은 한반도에 부대나 기지를 유지할 전략적 이점이 없고 주한미군이 오히려 다른 지역에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한반도가 소련의 지배 아래 놓이지 않도록 한다는 전제로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가능한 빨리’ 철수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소련이 제기한 외국군의 철수는 한국문제가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유엔으로 이관되면서 한반도에 통일정부를 수립하려는 논의에 포함되어 총회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미국은 1947년 10월에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설치 결의안을 통해 한국에서 통일정부가 수립된 후 모든 외국군을 철수시킨다는 제안을 내놓았으며 이에 대해 소련대표들이 정부수립 전 외국군의 철수를 주장하였으나, 유엔은 같은 해 11월 14일 미국측 안을 채택하여 “독립정부가 가급적 조속히, 가능하다면 90일 이내에 점령군이 한국으로부터 완전히 철수하도록 점령당사국과 협정한다.”라고 결정하였다.¹¹⁶⁾

이에 따라 미국은 1948년 4월 8일 향후 수립될 대한민국 정부와의 관계설정에 있어 기존의 방침대로 미군의 철수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써 실행가능한 범위 내의 지원을 한다는 방안을 채택하고 이해 말까지 군사력을 철수시킬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형성하기로 정책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정부를 지원하며 경제원조를 제공하고 미군철수 전에 경비대를 전면전(全面戰)이 아닌 외부의 침략에 대응할 수 있도록 증강하되 철수는 1948년 8월 15일에 개시하여 12월 31일까지 종료하도록 계획하고 있었다.¹¹⁷⁾

이렇게 한반도에서 소련군 및 미군의 철수문제가 제기되어 그 이행이 기정사실화되어 가는 시기에 갓 출범한 정부의 국방정책은 자주적으로 국방 역량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 목표였으나 현실적으로 경제적 뒷받침이 불가능하였고 팽창하는 국제 공산세력과 당면한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모든 민주진영의 군사 역량을 규합하며 특히 미국의 작전지원을 받아 공동작전을 전개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연합국방(聯合國防)을 시책의 기초(基調)로 삼았다. 이에 따라 미군철수 반대 내지 미군철수 연기라는 입장을 취하면서 미군철수의 대안으로 방위력의 증강을 위한 군사원조 획득에 주안점을 두게 되었다. 그리고 미국정부도 주한미군이 담당하였던 역할을 군사원조로써 메우려는 그들의 계획을 세워 놓고 있었다. 따라서 우선 1948년 8월 24일 한·미간에 잠정적 군사안전에 관한 행정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주한미군의 철수절차를 협의하고 철수완료시까지의 한국의 안전을 유지하며 편성 중에 있는 대한민국 국군의 조직·훈련 및 장비를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¹¹⁸⁾ 이에 따라 주한미군사령관은 잠정적으로 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면서 임시 주한미 군사고문단(PKMAG)을 설치하여 군사지원을 하였다.

소련은 1948년 9월 북한정권의 외국군 철수요구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소련군이 12월 말까지 철군을 완료할 것이라 발표하고 미국도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면서 10월 19일부터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9월 15일 주한미군의 철군이 시작될 무렵 안보상의 중대한 위협이 발생하였다. 북에서는 공산정권이 수립되어 군사력을 강화하고 남에서는 이들의 사주를 받은 공산주의자들이 야기한 폭동과 반란이 연쇄적으로 일어나 국내정국이 불안하게 되어 남침가능성이 높아진데다 국군이 이에 대처하기엔 너무도 열세한 상태에 있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트루먼 대통령에게 국군이 충성심으로 단결되고 어떠한 대내외적인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을 때까지 미군의 철수를 유보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¹¹⁹⁾

이법석 국방부장관은 1948년 11월 20일 국회에서 미군철수에 관한 정부의 입장과 전략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소련의 동시철군 제의의 저의를 폭로한 다음 미군의 계속 주둔 결의안을 채택해 주도록 요청하였으며, 이에 국회는 “현하 국내정세에 비추어 대한민국의 방어태세가 정비될 때까지 미군의 남한 주둔이 필요함을 결정함”이라는 결의를 하였다.¹²⁰⁾ 이에 앞서 정부는 유엔임시한국위원단으로 하여금 남·북한간에 평화교섭이 달성될 때까지 주한미군의 철수연기보고서를 내도록 교섭을 벌여 10월 30일 그 보고서가 유엔총회에 제출되었다. 이때 미국으로서는 소련과 보조를 맞추어 이해 말까지 철수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하에 철수문제를 유엔총회의 조치에 위임하겠다는 결정을 해두고 있었다.¹²¹⁾

1948년 12월 12일 파리 유엔총회의 ‘대한민국의 수립과 점령군의 철수결의’에

서 “점령국들은 가능한 한 조기에 한국으로부터 그들의 점령군을 철수시킬 것을 권고한다.”고 결의하였다.¹²³⁾ 이로써 미군은 철수일정의 융통성을 확보하게 되었으나 소련은 유엔의 결의 직후인 12월 16일 한반도에서 소련군의 철수가 완료되었음을 발표하였다.

주한미군은 1949년 1월 15일 미 제24군단을 해체하고 7,500명 정도의 1개연대전투단과 임시군사고문단만 잔류시킨 채 철수하였으며 이 연대전투단은 6개월 뒤인 1949년 6월 30일에 철수완료하였다. 임시군사고문단은 미군의 철수가 끝나자 1949년 7월 1일부로 정식군사고문단이 되었다. 이 고문단은 국군의 편성과 훈련에 관한 자문과 미 군사원조의 효율성 보장을 임무로 하였다.¹²³⁾

(2) 自衛力의 確保努力

국방부는 국군으로 출범하여 국토방위의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자마자 곧 주한미군의 철수가 시작됨에 따라 스스로의 힘으로 외침을 방어할 수 있는 전력을 구축해야 했다. 국방부는 당초 판단한 방위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족 2개월 후인 1948년 10월부터 우선 보병연대의 증편에 주력한 결과 1949년 1월까지 총 6개여단 20개연대를 편성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때 주한미군으로부터 38도선 경비임무를 인수함으로써 비로소 실질적인 국방임무를 떠맡게 되었으며, 한·미잠정행정협정에 의거 철수하는 미군으로부터 5천6백만 달러에 해당하는 5만 명 분의 소총과 소총탄, 2천 문의 로켓포, 각종 차량 4만 대, 경포, 박격포 다수, 포탄 70만 발 등 무기와 장비를 인수하였다.¹²⁴⁾

그러나 인수장비 중 최대 구경인 105mm M3 곡사포는 구형장비로써 인민군의 122mm 야포에 비하여 사거리가 턱없이 모자랄 뿐 아니라 57mm·37mm 대전차포는 적 전차를 파괴할 수도 없는 등 대부분이 낡고 성능이 좋지 못한 것이었다. 이는 당시 미국의 대한군원(對韓軍援) 기본정책인 “한국군의 조직을 다만 대내적 소요를 다스려 국내치안을 유지하는 한편, 38도선 북으로부터의 공격을 억제할 수 있도록 발전시킨다.”고 하는 방침의 결과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원조장비로써는 북한과의 군사적 불균형을 극복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이 5만 명의 인가병력은 1948년 3월에 책정된 당시 경비대 병력수에 근거한 것이었으며 1년이 지난 1949년 3월의 국군병력은 104,000명 선(육군 65,000명·해군 4,000명·경찰 35,000명)을 상회하고 있었으나 장비부족으로

추가증편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군사적 불균형의 해소와 증가되는 병력을 장비하기 위한 정부의 대미군사지원 획득 노력은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결과적으로 3월 말에 육군의 지원병력 수준을 65,000명(15,000명 증가)으로 상향 조정하고, 해군에도 약간의 무기와 함정을 제공하며, 6개월 분의 수리부속품을 인수받는다라는 내용에 관하여 한·미간의 합의를 보게 되었다.¹²⁶⁾ 이들 장비와 수리부속품은 1949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인도되었다.

그 후 주한미군의 잔류부대 철수에 대비한 정부의 방위력 증강노력은 계속되어 철군이 완료되고 군사고문단이 활동을 시작한 1949년 7월경에는 국군의 상비군 병력이 10만 명에 이르렀다. 이때 국방부는 중·소의 지원하에 확장되고 있는 인민군의 위협에 대비하여 방위전력의 규모를 상비군 10만, 예비군 5만, 경찰 5만, 보충병 20만 등 모두 40만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소요의 장비획득을 위한 군사외교노력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¹²⁶⁾

이승만 대통령은 1949년 8월 20일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통하여 “미국관리들은 대한민국이 2개월간의 전투에 충분한 군수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나 대한민국의 각료들은 불과 2일간의 전투에나 충족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전쟁이 발발할 경우 대규모이고 전면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에 첨부한 목록대로 필요한 무기와 탄약을 보유해야 합니다.”라고 미국의 군사원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역설하고 〈표 18〉과 같은 무기소요 목록을 제시하였다.¹²⁷⁾

국방부는 한편으로 군원획득 노력을 기울이면서 또 한편에서는 국방정책에 따라 국군조직법상의 군 기본조직인 육군의 사단편성과 해군의 함대 조직 및 공군의 독립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다. 육군에 있어서는 주한미군 본대의 철수시에 인수한 장비로써 3개연대를 증편(도합 22개연대)하면서 1949년 5월 12일에 6개여단을 사단으로 개편하고 6월 10일에 다시 제8사단과 수도경비사령부를 창설함으로써 비로소 8개사단을 확보하게 되었다.

최초의 사단은 3개연대를 주축으로 본부 및 본부중대, 포병대대, 공병중대, 통신중대, 병기중대, 병참중대, 의무대대로 편제되었으나 당시 8개사단 중 4개사단만이 3개연대를 갖추고 나머지는 2개연대로써 편제되었다. 이 중 제1, 제7, 제6, 제8사단과 제17연대가 38도선 경비를 담당하였고 그 밖의 사단은 후방지역 방어, 특히 공비토벌작전에 임하였다. 이들 보병사단의 지원부대 증편에도 노력하여 통위부 당시의 대대급 후방지원부대를 포병단 등 단급 병과부대로 발

<표 18> 무기소요 목록(1949. 8. 20)

무 기 명	10만 정규군 소요			30만 예비군 소요		
	필수량	현보유	과부족	필수량	현보유	과부족
M-2, 105mm 곡사포	12	0	-12	4	0	-4
M-3, 105mm 곡사포	192	85	-107	64	0	-64
M-1, 81mm 박격포	684	275	-409	228	0	-228
M-2, 60mm 박격포	962	373	-589	321	0	-321
57mm 대전차포	204	117	-87	68	0	-68
37mm 대전차포	72	21	-51	24	0	-24
50구경 중기관총(공냉식)	400	443	+43	135	43	-92
45구경 권총	6,080	4,199	-1,881	2,027	0	-2,027
45구경 기관단총	752	692	-60	274	0	-274
30구경 경기관총(공냉식)	618	352	-266	206	0	-206
30구경 경기관총(수냉식)	791	291	-500	264	0	-264
30구경 M1소총	82,320	40,050	-42,270	17,440	0	-17,440
30구경 카빈소총	33,183	14,746	-18,437	11,061	0	-11,061
30구경 자동소총(BAR)	2,333	1,091	-1,242	500	0	-779
M1소총 대검	82,320	27,415	-54,905	17,440	0	-17,440
카빈소총 대검	33,183	14,736	-18,447	11,061	0	-11,061
쌍안망원경	1,500	913	-587	500	0	-500
2.36" 로켓발사기	3,264	1,961	-1,303	1,088	0	-1,088
M1소총 유탄발사기	-	-	-	-	-	-
카빈소총 유탄발사기	-	-	-	-	-	-
M9 투광수타기	-	-	-	-	-	-

<표 19> 연대의 증편(1948. 8. 15~1949. 6. 10)

연 대	창 설 일	창 설 지	초대 지휘관	비 고
제 16 연 대	1948. 10. 28.	마 산	중령 박 시 창	제20연대는 여순반란부대에 가담한 제4연대를, 제22연대는 대구반란을 일으킨 제6연대를 개편 창설
제 17 연 대	1948. 11. 20.	시 흥	중령 백 인 업	
제 18 연 대	1948. 11. 20.	포 향	중령 최 석	
제 19 연 대	1948. 11. 20.	광 주	소령 민 병 권	
제 20 연 대	1948. 11. 20.	광 주	중령 이 성 가	
제 21 연 대	1949. 2. 1.	광 주	중령 박 기 병	
제 22 연 대	1949. 4. 15.	대 구	중령 오 덕 준	
제 23 연 대	1949. 4. 20.	마 산	대령 김 종 평	
제 25 연 대	1949. 6. 20.	대 전	중령 유 해 준	
기 갑 연 대	1948. 1. 1.	수 색	소령 이 용 문	

〈표 20〉

사단의 창설

사 단	창 설 일	사 단 장	예 속 연 대	위 치	비 고
제1사단	1949. 5. 12.	대령 김석원	제11, 12, 13연대	수 색	제1여단의 승격
제2사단	1949. 5. 12.	대령 유승렬	제5, 16, 25연대	대 전	제2여단의 승격
제3사단	1949. 5. 12.	소장 이용준	제22, 23연대	대 구	제3여단의 승격
제5사단	1949. 5. 12.	준장 송호성	제15, 20연대	광 주	제5여단의 승격
제6사단	1949. 5. 12.	대령 유재홍	제2, 7, 9연대	원 주	제6여단의 승격
제7사단	1949. 5. 12.	대령 이준식	제1, 19연대	의정부	수도사단을 개칭
제8사단	1949. 6. 20.	준장 이형근	제10, 21연대	강 릉	
수경사	1949. 6. 20.	대령 권 준	제3, 8기갑연대	서 울	

전시켰으나 중요한 장비의 부족으로 기능면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국방부는 대통령령(1948. 11. 20)과 국군조직법(1948. 11. 30)에 근거, 예비군의 편성에도 착수하여 1949년 육군본부에 호국군사령부(초대사령관 : 송호성 준장)를 두고 같은 해 1월부터 7월까지 모두 7개여단 18개연대를 지역별로 편성하였다. 호국군은 거주지에 주둔한 연대에 소속되어 생업에 종사하면서 소정의 군사훈련을 받았다. 그러나 정부는 1949년 8월 6일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는 병역의무를 진다.”는 국민개병주의(國民皆兵主義)를 채택한 병역법의 제정을 계기로 지원병제에서 의무병제로 전환하면서 8월 31일부로 호국군 제도를 폐지하였다. 그 대신 육군본부에 청년방위국을 신설하면서 대한청년단 조직을 중심으로 청년방위대를 도·시·군·면·동·리 단위로 조직하였으나 훈련이 되지 않아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그 밖에 육군은 북한에서 탈출한 청년들과 귀순장병들으로써 수색학교(독립 제1대대), 호림부대(영등포학원), 보국대대(제803독립대대) 등 특수부대도 창설하여 남파되는 유격대와 지방공비의 소탕작전에 운용하는 한편, 일부는 대북공작도 준비하였으나 이는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

해군은 정부수립 후 발발한 여순반란 사건에 출동하여 해상봉쇄작전과 지상군 지원작전을 실시하면서 작전경험을 축적하는 한편, 해상세력을 1949년 2월 1일부로 훈련정대를 포함, 4개 정대로 확대 개편하고 작전해역을 분담하여 해상방위체제를 정비하였다. 이와 더불어 해군으로서는 해안경비대 때 도입된 함

정이 대부분 소해정인 데다 노후하여 근대식 해상장비를 갖춘 전투함의 획득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정부는 미국으로 군원요청시마다 함정지원 요청을 하였고 미국은 약간의 함정과 무기 및 수리부속품의 지원을 약속하였으나 1949년 하반기에 이르러 수척의 낡은 함정이 추가도입되고 간신히 각 함정이 37mm 포와 기관총을 장비할 정도였다.

이에 해군에서는 함정건조 모금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고 이것이 전국에 확산되어 목표액이 달성되자 손원일 제독 등이 미국으로 건너가 구잠함(PC) 4척을 구매하여 그 중 1척이 1950년 4월 1일에 진해항에 도착함으로써 해군은 비로소 3인치 포를 장착하고 대잠장비를 갖춘 전투함을 갖게 되었다.¹²⁹⁾ 해상작전체제의 구축, 함정의 확보노력과 병행하여 기지부대의 정비에도 착수하여 해군은 1949년 6월 25일부로 진해에 통제부를 설치하고 각 기지를 경비부로 승격시켜 작전지원체제를 한층 발전시켰다.

또한 해군은 여순반란 진압지원 작전에서 육전대가 없어 상륙작전을 실시하지 못하여 논의하기 시작한 해병대를 1949년 4월 15일에 진해에서 1개대대 규모로 창설하였다. 해병대는 곧 진주지구의 공비토벌작전에 나섰으며 그 후 12월 28일에 제주도로 이동하여 역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면서 부대의 증편에 주력하였다.¹²⁹⁾

한편 육군의 항공기지부대로 있던 공군은 1948년 9월 1일에 김포비행장으로 기지를 이동하고 미군으로부터 9월 4일 L-4형 연락기 10대의 인수를 계기로 9월 13일 육군 항공기지사령부로 개편을 단행하였다. 이 항공기는 시속 160.9km, 항속거리 483km의 구형 기종이나 이것이 한국공군 역사상 최초의 항공기였다. 또한 이 항공기는 도입되자마자 곧 여순반란 진압작전에 동원되어 정찰·연락·지휘관 수송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항속거리가 긴 항공기의 확보가 시급히 요망되고 인정됨에 따라 곧 L-5형 연락기 10대를 추가로 인수하였다. 이와 아울러 항공부대의 최용덕(崔用德)·김정열(金貞烈) 등 간부들은 공군의 독립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고, 이러한 준비과정의 하나로 1948년 12월에는 항공기지사령부를 육군항공사령부로 개편하고 항공기지부대, 항공비행부대 및 항공사관학교로 전문화하였다.¹³⁰⁾

항공사령부는 1949년 초 이 대통령에게 북한공군의 현황을 분석보고하고 전투기 확보를 위한 군원을 요청해 주도록 건의하였으며, 이 대통령은 무초(John J. Muccio) 대사와 로버츠(William L. Roberts) 고문단장을 통하여 미국정부에 전

투기를 포함한 무기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장면(張勉) 주미대사와 조병옥(趙炳玉) 특사로 하여금 관계관들을 이해시키도록 하여 4월 10일에는 전투기 75대, 폭격기 12대, 연락기 및 정찰기 30대, 수송기 5대 등 3,000명의 병력 육성을 위한 장비를 원조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¹³¹⁾

미국은 이 원조요청을 수용하지 않았으며 공군의 독립노력에도 반대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1949년 10월 1일에 공군을 육군에서부터 독립시켜 국군을 육·해·공군 3군체제로 발전시켰다. 이때 공군은 비행단·항공기지사령부·여자항공대·공군사관학교·공군병원 및 보급창으로 증편되었다. 아울러 ‘애국기헌납모금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여 캐나다제 AT-6형 연습기 10대를 구매하였다. 이는 0.5" 기관총 2정씩을 장착한 것으로써 애국심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건국기라는 명칭이 붙여졌다. 공군으로 발족시 기지도 종래의 여의도와 김포에서 수원·군산·광주·대구·제주도로 확대해 갔다.

한편 국방부는 정부수립 후 부대의 증편에 따라 늘어나는 군수수요를 군사원조만으로 충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도 안 되었으므로, 초보적이거나 자체조달과 생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가운데 1948년 11월에 조달본부가 설치되어 해외에서 소요물자를 구매하는 동시에 국내생산품도 조달하여 군소요의 일부를 충당하였다. 그리고 1949년 1월 15일에는 병기 제1, 제2 공장을 지정하고 동년 5월에는 제3공장을 지정하여 총·포의 수리 및 수류탄과 소화기 부품 생산을 시작하였다. 이와 아울러 1949년 6월부터 전투복과 군화 등을 생산하였으며 그리고 양곡 및 소모품은 전량 국내에서 조달하였다.¹³²⁾

이와 같이 국군이 3군체제로 정립하고 초보적이거나 군수지원체제 기반구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때, 1950년 회계연도 대한군원(對韓軍援)으로 약 1천20만 달러가 할당되었다. 이는 이미 미군으로부터 인도받은 구형장비의 정비물자와 수리부속품의 구매에 필요한 규모이며, 정부가 요청한 추가장비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었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 추가원조요청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온 미 고문단측에서도 1950년도 대한군원은 최소 2천만 달러는 되어야 한다며 약 980만 달러 상당의 추가군원요청을 하였다. 여기에는 그간 정부가 누차 요구해 온 지상군용 105mm(M2) 곡사포, 4.2" 박격포, 해군용 3" 함포, 공군의 F-51, T-6, C-47 등 주요장비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전차는 한국지형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한 그들의 관점에서인지 누락되어 있었다. 고문단장이 이 원조는 국군이 스스

로 방위태세를 갖추게 되는 최소수준의 것이라고 강조한 점으로 보아 당시 남북한 군사력의 불균형이 심각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무렵 1950년 1월 5일 트루먼 대통령의 대만 불개입선언과 1월 12일 애치슨(Dean G. Acheson)의 극동 방위선 천명을 통해 나타난 극동 및 대한 정책의 변화조짐에 따라 1월 26일 한·미상호방위원조조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대한군사원조액은 3월 15일 최종적으로 1천97만 달러로 확정되고 말았다. 결국 추가원조는 거의 수용되지 않았고, 그나마 이 원조액 중 남침시까지 도착한 것은 천달러 상당의 통신장비뿐이었다.¹³⁹⁾

미국의 이러한 미미한 대한군사원조는 한국군의 방위력에 심각한 우려를 야기시켰다. 주한미군사고문단은 한국군의 보급상태는 악화되어 1950년 6월의 전투부대에 대한 보급과 정비는 필요한 최저한도에 그치고 있으며 모든 종류의 부품은 떨어지고 한국군 무기의 15%, 수송수단의 35%는 사용할 수 없어 당시 장비로는 인민군의 남침시 15일 이상 지탱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¹⁴⁰⁾

따라서 국군은 소련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은 인민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단히 열세한 군사력을 보유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공군력의 열세가 두드러졌으며 지상전력에 있어서는 전차와 적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대전차 화기를 전혀 보유하지 못한 채 전쟁을 맞게 되었다. 국군의 전쟁직전 부대 규모와 보유장비는 <표 21>, <표 22>와 같다.

지금까지 서술한 바와 같이, 한민족은 일본의 침략과 식민통치로부터 빼앗긴 국권을 회복하고 독립을 되찾기 위하여 줄기찬 항일투쟁을 전개하였으나 결국

<표 21> 국군의 병력

육	군	8개 사단(22개 연대)	67,416명	
		지원 및 특과부대	27,558명	
		계	94,974명	
해	군	3개 정대, 7개 경비부	7,715명	
해	병	대	2개 대대	1,166명
공	군	1개 비행단, 7개 기지	1,897명	
총			계	105,752명

〈표 22〉

국군의 장비

전 차 · 장 갑 차	장 갑 차	27대
자 주 포	-	-
곡 사 포	105mm M3	91문
박 격 포	81mm	384문
	60mm	576문
대 전 차 포	57mm	140문
	2.36"	1,900문
고 사 포	-	-
항 공 기	L-4	8대
	L-5	4대
	T-6	10대
	계	22대
함 정	경 비 함	28척
	보 조 함	43척
	계	71척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을 쟁취하지 못하고 연합국의 도움으로 해방을 맞이하였다.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환국하여 즉시 새 독립국가로 출범하려는 한민족의 소망과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으며, 미국과 소련은 ‘연합국의 전후처리 방침’에 따라 38도선으로 한반도를 양분하고 남과 북에 각기 그들의 군대를 진주시켜 일본군의 항복을 받은 다음 군정으로 전환하였다.

이들은 ‘모스크바 회담’에서 5년간의 신탁통치를 거쳐 독립을 부여하기로 결정하고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위한 임시정부 구성을 협의하였으나, 소련의 한반도 공산화전략과 민족지도자들의 ‘좌익-우익’ 및 ‘찬탁-반탁’ 분열로 인하여 임시정부 구성에 실패하고 ‘동서냉전’과 연계되어 남북분단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념구도로 변질되고 발전되어 갔다.

이로 인해 한국문제는 유엔총회로 이관되었으며 유엔감시하에 남북총선거를 통해 독립정부를 수립하도록 결정하였으나 소련이 이에 반대하고 유엔감시단의 입북을 허용하지 않아 결국 2개의 정부가 남과 북에 수립됨으로써 남북분단은 사실상 고착되고 말았다.

이후 북의 공산정권은 중·소의 지도와 지원하에 남한의 공산화를 목표로 전쟁준비와 군사력을 강화하였으며, 반면에 미국의 소극적 대한정책(對韓政策)과 지원부족이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하여 대한민국은 소요의 방위전력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격차가 대단히 심화되어 가고 있었다.

이처럼 일본의 침략과 독립운동, 미소의 분할점령과 한반도 정책, 해방정국과 민족내부분열 등에서의 역사적이고 현상적인 복합요인들이 남침전쟁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주 기

- 1) 蔡根植, 「武裝獨立運動和史秘史」(공보처, 1978), pp. 171~180.
- 2) Foreign Relation of the United States, 1943, China, p. 257.
- 3)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史」 제1권(구판), 1967, p. 40.
- 4)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 The First Year* (Washington, D. C. :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2), p. 7.
- 5) Ibid. ; 외무부 외교연구원, 「한국외교 20년 부록」, 1966, pp. 251~252.
- 6)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國防史」 제1집, 1984, pp. 106~107.
- 7) 위의 책, pp. 514~515 ; FRUS, 1945, vol. 2, p. 1474.
- 8) *Policy and Direction*, p. 8 ;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Department of the Army, Washington, D. C. : GPO, 1961), p. 3.
- 9) 「國防條約集」 제1집, pp. 573~575.
- 10) 「韓國戰爭史」 제1권(구판), pp. 55~56.
- 11) 치스차코프는 1900년 농민의 아들로 출생하여 불세비키 혁명 때 적군병사로 가담하였다. 독·소전쟁 때 6군사령관이 되었으며 북한점령군 사령관으로 북한에 진주하였다.
- 12) 당시 소련극동군은 제1극동방면군, 제2극동방면군, 자바이칼방면군, 태평양함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제25군은 제1극동방면군의 동측방을 담당한 조공부대인데 동만주 일대의 일본군 방어지대를 돌파한 후 왕청(汪淸)·도문(圖門)·연길(延吉) 방면으로 진출하였다.
- 13) War Department Intelligence Division, *Intelligence Review*, 1946. 6. 20.
- 14) 공산국가의 행정기관이다. 북한에서는 소련군이 진주한 후 임시인민위원회, 인민정치위원회, 인민위원회 등이 결성되었으나 그 역할은 대동소이하여 후에 인민위원회로 통일되었다.
- 15) 「韓國戰爭史」 제1권(구판), pp. 51~52 ; 森田芳夫著, 「朝鮮終戰の記錄」, 昭和39年, pp. 184~185.
- 16) *Policy and Direction*, p. 24 ; EUSA, *History of the North Korean Army*, p. 90.
- 17) 하지 중장은 일리노이주 출신으로 제1차 세계대전에 대대장으로 참전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시에는 오키나와 전투에서 전공을 세웠다.
- 18)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國防史」 제1집, 1984, p. 179.

- 19) *Policy and Direction*, pp. 14~15.
- 20) *Ibid.*, pp. 17~18.
- 21) 「國防史」 제1집, p. 181.
- 22) *History of US AFIK*, pt. 2, ch. 4, pp. 57~58 ; *Policy and Direction*, p. 19.
- 23) 「國防條約集」 제1집, p. 586 ; FRUS, 1945, Vol. 7, pp. 699~700.
- 24) 1947년 3월 12일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직·간접적인 위협을 받는 전세계 국민을 지원할 것을 다짐하고 대외군사원조를 시작한 외교정책연설.
- 25) 미국이 1948년에서 1951년까지 서유럽국가들에게 실시한 유럽경제부흥계획을 말함. 이는 1947년 6월 당시 국무장관 마셜이 하버드 대학에서 행한 연설을 기초로 하여 계획되었다.
- 26) 「한국외교 20년 부록」, pp. 274~276 ; 「韓國戰爭史」 제1권(구판), pp. 90~91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17, 1947. 9. 28, p. 620.
- 27) State Department, *The Conflict in Korea*, US GPO, 1951, pp. 7~8.
- 28) 「한국외교 20년 부록」, pp. 285~287.
- 29)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史」 제1권, 1977, p. 67 ; U. N. Official Record, Third Session, Supply No. 9, 1984, p. 26.
- 30) 선거구는 소선거구제와 법정선거구 획정주의를 채택하였다. 이는 각 선거구마다 1인의 국회의원을 선거하는 제도였고 인구 15만 미만은 1개구, 25만 미만은 2개구, 35만 미만은 4개구로 하여 모두 200개의 선거구를 획정하였다.
- 31) 대한민국 공보처, 관보 제1호, 1948. 9. 1 ; 국방부 법제위원회, 「국방관계법령집」 (1), 1960, pp. 1~4.
- 32) 「國防條約集」 제1집, pp. 592~595 ; 「한국외교 20년 부록」, pp. 292~294 ; 「國防史」 제1집, p. 127 ; U. N., *Year Book of the U. N., 1948~49*, pp. 288~289.
- 33) 1인의 후보자에 대하여 찬성자는 백함, 반대자는 흑함에 넣는 방식으로 투표자가 백함으로 가는지 혹은 흑함으로 가는지 알 수 있는 공개투표이다.
- 34) 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49, p. 43.
- 35) 「한국외교 20년 부록」, pp. 301~302.
- 36)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對非正規戰史」, 1988, pp. 17~21.
- 37)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要約」, 1986, p. 88.
- 38) 「韓國戰爭史」 제1권(구판), pp. 438~442.
- 39) 「對非正規戰史」, pp. 26~30.
- 40) 「韓國戰爭要約」, p. 89.
- 41) 「對非正規戰史」, pp. 31~38.
- 42) 국군보안사령부, 「대공 30년사」, 1978, pp. 51~52.

64 第1章 戰爭의 背景

- 43) 「韓國戰爭史」 제1권, pp. 87~88; 김창순, 「북한 15년사」, 지문각, 1961, pp. 49~51.
인민군 지상군은 한국전쟁 전까지 인민군, 보안대, 경비대 등이 근간을 이루었다.
- 44) 99식 소총은 일본에서 1939년에 제식화된 총으로서 38식 소총의 구경을 크게 하여 위력을 증대시킨 소총으로 대공사격을 위한 표적을 부착한 단총이다.
- 45) 철도경비중대는 강계·양덕·원산·함흥·신포·단천·성진·성삼봉·사리원·신성천 등지에 주둔하였다.
- 46) 「韓國戰爭史」 제1권, pp. 88~89.
- 47) 위위 책, pp. 88~89.
- 48) 「韓國戰爭史」 제1권, p. 90; 「韓國戰爭史」 제1권(구판), pp. 680~682.
- 49) 「韓國戰爭史」 제1권, pp. 88~89.
- 50) 38식 소총은 일본이 1906년에 만들어 제2차 세계대전시 사용한 대표적인 소총으로 명칭 38년에 제식화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명칭이 붙었다.
- 51) 스미르노프를 단장으로 한 소련군사고문단이 북한군의 기본단위 부대 편성 및 훈련을 주관하였다.
- 52) 「韓國戰爭史」 제1권, p. 90.
- 53) 1948년 3월 24일에 전투훈련국장 김응이 제1사단장으로, 1947년 8월에 김책이 제3여단장으로 보직되었다. *History of the North Korean Army*, pp. 94~95.
- 54) 「韓國戰爭史」 제1권, pp. 92~93; 「韓國戰爭史」 제1권(구판), pp. 684~689; 육군본부 정보참모부, 「북괴 6·25 남침분석」, 1970, pp. 39~41.
- 55) 「韓國戰爭史」 제1권, pp. 92~93; 「북괴 6·25 남침분석」, pp. 39~41.
- 56) 위의 책, pp. 90~91.
- 57) 위의 책, p. 91.
- 58) 인문과학사, 「김일성선집」 1, 평양, 1961, pp. 481~486;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서문당, 1991, p. 81.
- 59) 이때 북한의 군사업무는 이원화 체제를 유지하였다. 인민군은 민족보위성에서, 보안대와 국경경비대는 내무성에서 관장하였다. 어느 것을 막론하고 소련군의 철수 때까지 소련군 정치사령부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이후에는 소련군사사절단이 북한의 군사업무에 관여하였다.
- 60) 陸軍本部, 「6·25사변 육군전사」 제1권, 1952, pp. 72~74; USFTK, G-2 Rept 7, p. 138.
- 61) 북한에서의 전차부대의 발전은 1947년 5월 인민집단군 편성시부터 시작되어 자질이 우수한 병력을 선발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1948년 초 소련군 전차사단의 철수시 잔류한 표도르 중령 지휘하의 소련군 전차부대(전차 150대, 병력 300명), 한인계 소련군 병력의 도움으로 급속히 전기를 익혔다. 1948년 11월 표도

- 르 중령과 그의 병력은 전차 60대, 자주포 30문, 사이드카 60대, 차량 40대를 남겨 놓고 철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1948년 12월 인민군 제115전차연대가 유경수를 연대장으로 평양부근 사동에서 창설되었다. 이 전차연대는 2개 전차대대, 1개 자주포병대대, 1개 공병중대, 1개 경찰중대, 1개 수송중대, 1개 의무과전대로 구성되었다. 「韓國戰爭史」 제1권, p. 95.
- 62) 「韓國戰爭史」 제1권, p. 108 ; 「韓國戰爭史」 제1권(구판), p. 705.
- 63) How Russia Built The North Korea Army, The Reporter, September. 26. 1950.
스티코프는 제1극동전선군 군사회의 위원, 미·소공동위원회 소련측 수석대표를 역임하였으며, 주북한소련대사가 되었다. 그는 스탈린을 대신하여 북한 김일성 정권을 창출하였으며 북한의 남침준비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 64) 외무부, 소련문서(3), pp. 6~12. 국방군사연구소 소련자료 김일성 불가신.
- 65) 외무부, 소련자료(4), pp. 28~31. 여기에는 각종 품목의 명세서가 모두 기술되어 있다.
- 66) 「韓國戰爭史」 제1권, pp. 94~95 ; 「韓國戰爭史」 제1권(구판), pp. 689~690.
- 67) 외무부, 소련자료(2), p. 22 ; 소련자료(4), pp. 46~49.
- 68) 朱榮福, 朝鮮人民軍の南侵の敗退, pp. 212~232 ; Appleman, ibid., p. 12.
- 69) 「韓國戰爭史」 제1권, pp. 94~95 ; 陸軍本部(역), 「정책과 지도」, p. 59.
중공군 제15사단은 1950년 4월 25일 원산에서 제7사단으로 개편되었으나 남침전 제12사단으로 개칭되고, 그 후 제7사단은 신편되었다.
- 70) 「韓國戰爭史」 제1권, pp. 98~99.
- 71) 「韓國戰爭史」 제1권(구판), pp. 697~702 ; 외무부, 소련자료(4), p. 28.
- 72) 「韓國戰爭史」 제1권(구판), pp. 498~499 ; 한국홍보협회, 「한국동란」, 1973, pp. 148~149. 강동정치학원에서는 대남지하공작요원으로 파견할 정치요원과 유격 훈련을 받고 유격대로 파견될 군사요원, 지하공작과 유격활동을 겸할 혼합요원 등으로 나누어 훈련시켰다. 교육은 소련공산당사를 비롯하여 일반학, 유격전술, 남한적화공작 교육 등이 중점적으로 교육되었다.
- 73) 한국홍보협회, 「한국동란」, pp. 148~149.
- 74) 「對非正規戰史」, pp. 44~45.
- 75) 위의 책, pp. 44~45.
- 76) 위의 책, pp. 44~46.
- 77) 위의 책, pp. 146~147.
- 78) 陸軍本部, 「6·25사변 육군전사2 부록」, 1953, p. 7 ; 「對非正規戰史」, pp. 146~147.
- 79) 國防部, 「북괴의 군사정책과 군사전략」, 1979, pp. 105~109.

66 第1章 戰爭의 背景

- 80) 「韓國戰爭史」 제1권, pp. 121~124.
- 81) 「조선전사」 제24권, pp. 274~278.
- 82) 위의 책, pp. 280~285; 한국홍보협회, 「한국동란」, p. 127.
- 83) 「韓國戰爭史」 제1권, p. 127.
- 84) 외무부, 소련자료(2), p. 8.
- 85) 「韓國戰爭史」 제1권(구판), pp. 726~728; 외무부, 소련자료(2), p. 26.
- 86) 「韓國戰爭史」 제1권, p. 146; 「韓國戰爭史」 제1권(구판), pp. 520~522.
- 87) 이들 9명의 특공대원과 별도로 292고지의 토치카를 육탄공격하 하사 1명을 포함하여 육탄10용사라 한다.
- 88) 「陸軍發展史」(上), pp. 279~280.
- 89) 위의 책, p. 282. 웅진지구전투사령부(1949. 6. 5) 사령관 제6사단장 김백일 대령, 제12연대, 제13연대 제2대대, 제8연대 제1대대, 38부대(유격부대), 57밀리 1개중대.
- 90) 「韓國戰爭史」 제1권, pp. 149~152.
- 91) 「陸軍發展史」(上), pp. 283~284; 「韓國戰爭史」 제1권, pp. 147~148.
- 92) 「韓國戰爭史」 제1권(구판), pp. 535~536; 「陸軍發展史」(上), p. 284.
- 93) 陸軍士官學校, 「육군사관학교 30년사」, p. 61; 박경석, 「오성장군 김홍일」, 서문당, 1984, pp. 267~268.
- 94) 군정법령 제28호는 제1조가 국방사령부의 설치, 제2조가 군사국의 창설 및 육해군부의 설치, 제3조가 경찰 군사기관의 금지로 되어 있다.
- 95) 「國防條約集」 제1집, p. 683.
- 96) 「國防史」 제1권, p. 292.
- 97) 「육군사관학교 30년사」, pp. 63~64.
- 98) 「國防史」 제1권, p. 294.
- 99) 「韓國戰爭史」 제1권 p. 261; 「國防史」 제1권, p. 294.
- 100) 최초 창설된 군의 명칭은 조선경찰예비대(Korean Constabulary Reserve)이나 한국 측에서는 국군의 모체라는 의미에서 조선경비대라고 불렀다.
- 101) 군정법령 제42호(1946. 1. 14) 제1조, 당시 운송국(運送局)의 해안경비임무를 국방국으로 이관조치하도록 되어 있었다. 군정법령 제86호.
- 102) 陸軍本部, 「창군전사」 병서연구 제11집, 1980, pp. 324~325.
- 103)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육군역사일지」(1), 1945~1950, pp. 19~29.
- 104) 「陸軍發展史」(上), pp. 111~116.
- 105) 「韓國戰爭史」 제1권(구판), pp. 547~560.
- 106) 군정법령 제64호로써 조선정부 각 부서의 명칭이 개칭되었다.

- 107) 군정법령 제86호(조선경비대 및 조선해안경비대) “제1조 조선 정부의 국방부는 자에 국내경비부로 개칭함. 조선 정부의 국내경비부의 군사국은 자에 폐지함. 1945년 11월 13일부 법령 제28호제2조는 자에 폐지함. 제2조 조선경비대가 자에 창설되고 1946년 1월 14일부로 국내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선 정부 예비경찰 대로 활동함. 조선경비대는 국내경비부의 조선경비국 관리하에 속함.”
- 108) 「창군전사」 병서연구 제11집, pp. 327~328 ; 이응준, 「회고 90년(1980~1981)」, pp. 242~245.
- 109) 「6.25사변 육군전사」 제1권, pp. 266~267 ; 역대 경비대총사령부 총사령관 : 초대 원용덕 참령(1946. 2. 22~6. 24), 2대(대리) 이형근 중령(1946. 9. 28~12. 23), 3대 송호성 대령(1946. 12. 23~1948. 11. 20), 총참모장 : 초대 김상겸 대령(1947. 4. 8), 2대 정일권 대령(1947. 9. 12), 3대 이형근 대령(1948. 2. 11~7. 25).
- 110) 「陸軍發展史」(上), p. 127.
- 111) 「國防部史」 제1집, p. 399.
- 112) 「陸軍發展史」(上), pp. 178~182.
- 113) 「국방관계법령집」(1), pp. 47~50.
- 114) 미 육군장관 로알의 방한시 신성모 내무장관의 통보내용(1949. 2. 8)
- 115) 육군본부(역), 「정책과 지도」, pp. 29~30 ; 「美國合同參謀本部史 韓國戰爭」(上), pp. 30~36 ; 정일형, 「유엔과 한국문제」, pp. 2~6.
- 116) 「한국외교 20년 부록」, pp. 279~285.
- 117) 「美國合同參謀本部史 韓國戰爭」(上), p. 28.
- 118) 「國防條約集」 제1집, p. 34 ; Sawyer, *KMAG*, pp. 34~35.
- 119) 陸軍本部(譯), 「정책과 지도」, p. 52.
- 120) 「韓國戰爭史」 제1권(구관), p. 223.
- 121) 위의 책, pp. 222~223.
- 122) 「한국외교 20년 부록」, pp. 292~293.
- 123) 陸軍本部(譯),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p. 7.
- 124) 「國防條約集」 제1집, p. 34 ; 「國防史」 제1집, pp. 172~173.
- 125) 「國防史」 제1집, p. 321.
- 126) 주한미대사 무초(Muccio)가 미국무장관 에치슨(Acheson)에게 보낸 서한 ; 「國防史」 제1집, p. 322.
- 127) 「國防史」 제1집, pp. 527~528.
- 128) 「韓國戰爭史」 제1권, pp. 82~83.
- 129) 위의 책, p. 86.
- 130) 위의 책, pp. 83~84.

68 第1章 戰爭의 背景

131) 앞의 책, pp. 84~86.

132) 「韓國戰爭史」 제1권(구판), pp. 393~394; 「國防史」 제1권, p. 226; 「國防部史」 제1집, pp. 221~222.

133) *Policy and Direction*, p. 36; Sawyer, *KMAG*, pp. 96~104.

134) 국토통일원, 「한국전쟁 발발배경 연구」, p. 139.

第2章 北韓의 奇襲南侵과 對應

第1節 人民軍의 南侵計劃

1. 南侵計劃 樹立

(1) 戰爭計劃

북한의 남침 전쟁계획은 1948년 9월 김일성 정권 수립과 때를 같이하여 김일성·스탈린·모택동 3자(者)의 긴밀한 협의하에 추진되었다. 이는 당초 군정을 실시하면서 북한을 공산기지화하고 이를 발판으로 남한의 민중봉기와 폭동 및 반란을 유발하여 전 한반도의 공산화를 획책한 소련이, 이러한 폭력적 방법으로는 목표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시행착오를 통하여 깨닫게 되자 무력수단으로써 이를 달성하기로 전략을 전환한 데서 비롯되었다.

소련은 이 전략의 수행에 장애요인인 미군 철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1948년 12월 소련점령군의 철수를 일방적으로 단행하고, 이후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모스크바에서 소련국방상 주재하에 북한·소련·중공의 군사대표자 전략회담을 열어 향후 18개월 내(1950년 6월까지) 북한 인민군을 6개 돌격사단, 8개 전투사단, 8개 예비사단, 2개 전차사단의 지상군을 주축으로 하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육성, 전쟁준비를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¹⁾ 실제에 있어서도 전쟁발발 전까지 10개 보병사단 1개 전차여단(전차 대수는 2개사단 규모), 3개 특수연대, 5개 경비연대로 증강되어 목표전력에 근접하였지만, 당시 인민군의 규모가 3개 사단이었던 점에 비추어 본다면 놀랄 만한 정도의 목표설정이었다.

이즈음 동서 냉전의 격화로 어제의 연합국 전우들이 서로 총부리를 겨누는 사건이 베를린·터키·그리스 등지에서 벌어지고 중국의 국공내전(國共內戰)에서는 공산군의 승리가 확실시되고 있었다. 이러한 때인 1949년 3월 5일 김일성이 모스크바로 스탈린을 방문하여 ① 통일문제 ② 경제협력과 무역 ③ 1949~50년도 무역협정 ④ 기술지원 ⑤ 문화교육분야의 협력 ⑥ 북한 아오지-소련 크라스키노 사이 철도건설 ⑦ 전쟁준비와 군사력 건설 등의 협의를 가졌으며, 이중

남북통일문제, 경제지원, 군사력 증강 등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통일문제에 있어 양자는 김일성이 제기한 무력에 의한 ‘조선통일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를 보았으며, 정치적으로나 군사·전략적으로 김일성보다 우위에 있는 스탈린은 그 방안에 관해 북한이 선제공격을 하는 경우와 남한의 도발을 유도한 후 소위 되받아치는 두 가지 전략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당시로서는 후자의 방안을 택할 것을 권유하였다.

스탈린은 선제공격의 경우 북한군이 남한군에 대해 절대적인 우위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아직 남한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음과 미·소간에는 38도선 분할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상기시켰다. 또한 스탈린은 남한에 대한 공세적 군사활동은 남한의 침략을 격퇴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²⁾ 즉 당시 선제공격은 시기상조로서 군사력을 강화할 단계이며 무력침공은 남한의 도발을 되받아치는 형식을 빌리라는 것이었다. 경제지원에 있어서는 북한이 수립한 경제부흥발전계획 지원을 위해 4,000만 달러의 차관제공, 기술지원, 전문가 파견에 합의하였는데, 이 금액으로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주로 전쟁준비에 필요한 인민군의 무기 및 장비를 구입하였다.³⁾

스탈린이 남한의 군사력, 주한미군, 38도선 무력충돌 등에 관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남한의 군사력이 60,000명이라는 김(金)의 설명에 가소롭다는 듯이 웃음을 터트렸으며, 특히 국군 내에 공산 세포조직을 침투시켰는지에 관하여 문의하고 박헌영(朴憲永)이 침투해 들고 있으나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하자, 지금 정체를 드러낼 필요가 없다고 하는 한편, 남한에서 북으로의 침투도 경계하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스탈린은 북한의 해군과 공군지원, 소련 군사학교에 위탁교육 실시 등을 약속하였다.⁴⁾ 이어 3월 12일의 김일성·불가닌 회담에서는 인민군의 지상군 증창설에 따른 무기공급, 해군창설에 필요한 소해정과 전투함 및 해군교문관 그리고 항공력 증강을 위한 교육용 항공기의 공급의 지원약속을 받았으며, 특히 남한에 미군이 주둔하는 한 청진의 소련 해군기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⁵⁾

그 다음 3월 17일에는 이와 같은 합의내용을 골격으로 ‘전쟁지원의 성격, 소련에서의 북한군 교육 및 경제관계의 발전과 기타 문제’들에 관한 조·소협정이 체결되었다. 당시 이들 간에는 ‘경제·문화협정’이 체결된 것으로 공식 발표되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군사비밀협정도 체결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해 왔는데, 이

번에 공개된 크레믈린 문서에 의해 당시 회담과 협정의 중점이 전쟁지원에 있었음이 밝혀졌다.⁶⁾ 이 회담은 김일성과 스탈린이 무력남침에 의한 통일방안에 합의를 보고 소련이 그에 따른 북한의 군사력 증강지원 약속을 했다는 점에서 한국전쟁 모의과정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편 ‘김·스’ 회담에서 조·중(朝·中) 문제는 양국간의 회담을 통해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1949년 4월 28일에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대표 김일(金一,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겸 인민군 정치지도부 대표)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그는 먼저 심양에서 고강(高崗)을 면담하고 북경에서 주덕(朱德)과 주은래를 비롯하여 모택동과 연쇄 회담을 가져 모스크바 회담 내용, 북한의 무력통일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고 중공군 내의 한인사단(韓人師團)의 북한 인민군으로 편입문제를 확정지었다.

모택동은 모스크바의 ‘김·스’ 회담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미얀마, 말레이시아, 인도차이나를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의 공산당 정보국 창설에 관해 중국과 인도차이나가 전쟁 중이고 북한의 정세가 긴박하므로 시기상조이나 궁극적으로는 고려할 문제라고 강조를 하였다. 그는 한반도 정세에 대하여 “한국에서의 전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며 빨리 끝날 수도 오래 끌 수도 있다. 지구전은 북한에 유리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이 끼여들어 ‘남한정부’를 지원해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들 바로 곁에 소련이 있고 우리들이 만주에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이 경우 “중공군을 파병하여 일본군을 격퇴시킬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모택동은 당시 국제정세가 별로 유리한 상황이 아니며, 중국공산당이 장개석 군과 전투 중에 있어 평양을 도울 수 없으므로 가까운 시일에 남한을 공격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고, 그들이 국민당을 패퇴시켜 중국을 완전지배할 때까지 결정적 행동을 유보하도록 김일성에게 권고하였다.

모택동은 한인사단에 대하여, 만주의 목단과 장춘지역에 배치된 2개 사단의 이관에는 동의하였으며, 나머지 1개사단은 중국 남부에서 국민당에 대항하여 전투 중에 있으므로 빨라야 1개월 후에 인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였다.⁷⁾

이 회담은 일본군이 투입될 경우 중공군의 파병의지가 천명된 점에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회담 내용은 모택동과 김일성이 각각 5월 14일과 17일에 소련 대사를 통하여 스탈린에게 보고하였다. 이로써 ‘김·스·모’ 삼자가 한반도 무력통일 방안에 합의를 보았다. 그 후 소련으로부터는 주로 전쟁물자가, 중공

으로부터는 주로 중공군 내의 한인출신 병력이 북한으로 유입되었고 인민군의 전력은 날로 증강되어 갔다.

인민군의 전력이 증강하자 김일성은 1949년 8월 12일과 14일에 일시 귀국한 스티코프 대사에게 대남선제공격을 준비해야겠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미군이 철수함으로써 38도선은 의미가 없고, 38도선 무력도발을 통해 인민군의 전력우세가 입증되었으며, 게다가 통일민주조국전선의 평화제의를 남한이 거부하고 있으므로 침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남한에서 인민봉기가 뒤따를 것이며, 만일 대남공격을 하지 않으면 인민들이 이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변하였다. 특히 남한 정부가 38도선 부근에 일종의 마지노(Maginit)선을 구축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로 인해 인민군의 반격기회가 상실될 것이므로 선제공격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⁹⁾

소련 대사가 1949년 3월 '김·스' 회담에서 논의된 스탈린의 지령을 상기시키며 의문을 제기하자 김은 38도선 가까운 삼척(강원도)에 '해방구역' 건설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의 결행도 더욱 철저한 준비와 상황판단 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소련측의 답변에 부딪히자, 이번에는 웅진반도 점령계획을 제시하였다.¹⁰⁾ 이는 장차 공격작전에 유리한 발판이 될 뿐만 아니라 웅진반도를 점령함으로써 전선을 120km나 축소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군의 전력과 사기를 판단하여 사기가 저하된 경우에는 남침으로 치닫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북한이 먼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단기간에 남한을 점령할 수 있을 때나 가능하나 북의 능력이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소련의 판단과 반대에 부딪혀 이는 실현을 보지 못하였다.¹¹⁾ 이때 소련은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전쟁을 일으켜 지구전이 될 경우 미군의 개입 동기를 제공하게 된다는 점에 유의하였으며, 남한 내에서 빨치산 활동을 강화하고 반동체제의 파괴와 남한에서 인민봉기의 확산, 인민군의 강화에 최대한 힘을 집중하도록 스티코프 대사를 통하여 지령하였다.¹²⁾ 김일성과 박헌영은 해방구 설치와 웅진반도 점령계획에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망하였지만 남한에서의 빨치산 투쟁 확산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주도할 요원을 증파하였다.¹³⁾

김일성은 1949년 10월 1일에 중국에 공산정권이 수립되자, "이제 남조선 해방의 차례가 되었다. 빨치산이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다. 나는 해방문제를 생각하면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며 1950년 1월 17일 외상 박헌영 사저에서의 만찬에서 소련의 스티코프 대사와 참사관들에게 선제공격 계획에 관한 승인

을 얻기 위해 스탈린과의 면담을 주선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그는 무력통일 방안에 대해, “1949년 3월 스탈린과의 회담에서 남한이 먼저 공격할 경우 반격할 것을 승인받았지만, 이승만이 침략을 기도하지 않아 반격을 시행할 기회가 없어, 남한 인민의 해방과 국가통일이 지연되고 있다며 인민군의 선제공격 행동에 관한 토의를 갖고 허락을 받고자 스탈린과 면담이 필요하다.”고 누차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는 “스탈린과의 면담이 어려우면 모스크바에서 돌아오는 모택동과 면담을 이루고자 노력하겠다면서 중국내전이 끝나면 그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한 약속을 상기시키며, 모택동은 모스크바에서 모든 문제에 관한 지시를 받아 올테니까.”라고 덧붙였다.¹³⁾

모택동은 1949년 12월 16일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1950년 2월 17일까지 2개월 동안 스탈린을 비롯한 소련의 수뇌들과 회담을 가지고 ‘중·소우호동맹상호조약’, ‘장춘(長春) 철도·여순(旅順) 및 대련(大連)에 관한 협정’, ‘차관협정’을 체결하고 귀국하였다.¹⁴⁾ ‘스·모’ 회담은 표면적으로는 발표된 바와 같이 중·소 양국간 문제에 국한된 것 같으나, 당시 국제 및 동아시아 정세로 보아 냉전체제하의 양국간 결속다짐은 물론 세계공산화를 위한 역할분담이 협의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으며, 이번 공개된 자료에 나타난 김일성의 발언으로 미루어 북한의 남침전쟁지원 문제가 심도 있게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김일성은 스티코프의 주선으로 1950년 3월 30일에 평양을 떠나 비밀리에 스탈린을 방문하여 남북한 통일의 방법, 북한 경제개발의 전망, 그리고 공산당 내부문제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다. 이 회담에서 스탈린은 국제환경이 유리하게 변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북한이 통일과업 선제남침을 개시하는 데 동의하였다. 이와 함께 이 문제의 최종결정은 북한과 중국에 의해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만일 중국측의 의견이 부정적이면 새로운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문제의 결정을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김일성과 박헌영은 4월 25일에 귀환하였다.¹⁵⁾

모스크바 회담 결과에 따라 김일성은 1950년 5월 13일 북경으로 모택동을 방문하였다. 이날 저녁 늦게 북한 지도자들은, 스탈린이 모스크바 회담에서 현 국제환경이 과거와는 다르므로 북한이 행동을 개시할 수 있으나 최종결정은 모택동과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음을 설명하자, 모(毛)는 동 문제에 관하여 스탈린 자신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싶다고 요청하였다.¹⁶⁾

모택동의 요청을 받은 스탈린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통일에 착수하자는 조선사람들의 제창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중국과 조선이 공동으로 결

정해야 할 문제이고 중국 동지들이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다시 검토할 때까지 연기되어야 한다.”라고 응신하였다.¹⁷⁾

모스크바의 메시지를 받은 모택동은 5월 15일 김일성 및 박헌영과 구체적으로 의견 교환을 하였다. 김일성은 북한이 전쟁계획을 3단계로 수립했다고 언급하였다.¹⁸⁾

제 1 단계 : 군사력을 준비하고 이를 증강함

제 2 단계 : 평화적 통일에 관한 대남제의

제 3 단계 : 남한측의 평화통일 제의 거부 후 전투행위 개시

모택동은 한국통일은 무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며 이 계획에 찬성하고, 계획된 작전을 위해 치밀한 준비가 필수불가결하며 각개 병사와 사령관들에게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시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 인민군이 신속히 행동해야 하며 중요도시를 포위하되 이를 점령하기 위해 지체해서는 안 되며 병력은 적군을 섬멸하는 데 집중 운용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일본군 참전문제에 관하여 김(金)은 일본군의 참전 가능성은 별로 없으나 미국이 2~3만의 일본군을 파견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이것이 상황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며 이 경우 인민군은 더욱 맹렬히 전투에 임할 것이라고 하였다. 모(毛)도 2~3만의 일본군이 참전하는 경우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 단계에서 일본의 참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모택동은 만일 미군이 참전한다면 중국은 병력을 파견하여 북한을 돕겠다고 하였다. 모는 중국이 대만을 점령한 후에 남쪽에 대한 작전을 시작하면 북한을 충분히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현시점에서 작전을 개시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그 작전이 양국간 공동의 과제가 되었으므로 이에 동의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다. 1950년 7월 주은래(周恩來)가 중국 주재 소련대사 로신에게 한 말에 의하면 이 회담에서 모(毛)는 미군의 직접참전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한 반면 김(金)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그 밖에 우호동맹상호원조 조약은 통일 후에 체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김(金) 일행은 5월 16일 평양으로 복귀하였다.¹⁹⁾

이에 앞서 김일성은 모스크바에서 복귀 후 곧 남침공격 작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총참모부에 지시하였고, 총참모장 강건(姜健)과 새로 부임한 바실리에프(Vassilyev) 고문단장이 중심이 되어 5월 29일에 이를 완성하였으며 공

격개시일을 6월 말로 결정하여 건의하였다. 이 계획은 1개월 기간으로 3단계로 구성되었다.²⁰⁾ 북한지도부는 이를 승인하였으며, 6월까지 완전한 전투준비를 갖추기로 하였다. 김일성은 공격개시일이 더 늦어질 경우 인민군의 전투준비에 관한 정보가 남쪽에 누설될 수 있으며, 7월에는 장마로 부대기동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6월 말을 선호하였고 고문관들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 계획은 6월 16일에 스티코프를 통해 스탈린에게 보고되고 그도 동의하였다.²¹⁾ 이와 같이 북한의 남침계획은 ‘김·스·모’간 긴밀한 협의하에 치밀하게 계획되고 준비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남침일자는 6월 25일로 정해졌다. 이날이 일요일이니 경계가 소홀할 것을 예상, 기습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선택이었다.

그런데 당시 인민군작전국장이었던 유성철(兪成哲) 소장의 증언에 의하면 이 계획의 명칭은 ‘선제타격 작전계획’으로서 러시아어로 작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러시아어로 된 이들 문서의 사본이 전쟁 중에 노획되었다. 이는 소련 고문관이 주동이 되어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증거이다. 당시 인민군총사령부 간부들의 군사경력으로서는 전쟁계획을 세우기에 부족한 반면, 고문관들은 소련군의 작전통들이었다. 유성철은 총참모장 강건의 감독하에 소련군 출신인 포병사령관, 공병국장 등과 함께 극비리에 이를 한글로 옮겼다.²²⁾ 이로써 드디어 인민군의 선제타격 작전계획이 완성되었다.

(2) 南侵의 基本戰略

김일성과 스탈린이 모택동과 협의하여 수립한 남침계획의 기본전략은 1950년 6월 말에 전면공격으로 신속히 서울을 점령하고, 인민봉기를 유발하여 한국 정부를 전복하는 한편, 인민군이 신속히 남해안까지 전개하여 미 증원군의 한반도 상륙을 막아 1개월 내에 전쟁을 종결하며, 8월 15일 해방 5주년 기념일까지 서울에 통일인민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이었다.

김일성과 스탈린이 전쟁계획을 최종적으로 결정함에 있어 가장 고심한 사항은 미군의 개입 가능성 문제이었다. 당시 미국에 비해 전력의 열세하고 특히 핵무기 개발에 뒤져 있는 소련으로서는 만에 하나라도 미국과의 대결이 일어나는 것을 피하고자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북한 단독으로서는 미군에 대항하여 승리를 거둘 수 없다는 점 또한 잘 알고 있었다. 이 때문에 소련은 주한 미 점령군의 철수를 사전에 유도하였다. 비록 애치슨 국무장관이 한반도가 미국의 태

평양 방위선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발표하였으나 남침으로 인한 동서냉전의 균형이 깨어지는 상황에서 미군의 참전 여부는 불확실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의 대책으로 ‘김·스’ 양인은 미국이 참전 결정을 하더라도 미군의 한반도 도착 전에 재빨리 전쟁을 종결지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전제로 남침을 최종 결정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하여, 남침전략의 기본은 미군의 증원부대가 전개하기 전에 속전속결로써 서울을 점령하여 승리를 굳히고 신속히 남해안까지 전개하는 것이었다. 「조선전사」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우리의 전략계획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대병력이 동원되기 전에 이승만 괴뢰군대와 이미 우리 강토에 침습한 미군을 단시일 내에 소탕하고 인민군대가 부산, 마산, 목포, 여수, 남해 계선까지 진출하여 우리 조국강토를 완전히 해방하며 인민군대를 전 조선땅에 기동성 있게 배치함으로써 미 제국주의자들이 상륙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²³⁾

김일성은 스탈린과의 대좌에서 “남한인민은 이승만 정권에 대하여 불만이 많다. 그는 미 제국주의의 꼭두각시다. 그들은 나라의 주인이 되고자 한다. 일격을 가하기만 하면 민중봉기가 일어나 인민의 권력이 승리할 것”이라며 인민봉기론을 들어 전쟁 조기 종결 주장을 뒷받침하였다.²⁴⁾ 유성철의 증언에 의하면 김일성과 지도부는 “일단 서울을 점령하면 남한 전역에 잠복해 있는 20만 남로당 당원이 봉기하여 남한정권을 전복시킬 것이라는 박헌영의 호언장담을 철썩같이 믿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은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면 끝나는 것으로 착각하였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인민군부총참모장과 정찰국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상조(李相朝)도 같은 증언을 하고 있다.²⁵⁾

박헌영의 주장은 김일성의 남침의지를 부추긴 중요한 변수의 하나인 동시에 후에 그가 숙청당하는 빌미가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남침전략의 또 하나의 핵심은 인민군의 공격과 더불어 남로당원을 주축으로 하는 민중봉기를 촉발시켜 대한민국 정부가 스스로 전복되게 한다는 것이었다. 이 전략에 따라 김일성은 남침을 개시한 다음날 방송을 통하여 ‘남한인민’의 봉기를 촉구하였다.

공화국 남반부 동포들은 이승만 괴뢰정부의 명령과 지시에 복종하지 말고……
남반부 노동자들은 도처에서 파업과 폭동을 일으키며……
남반부 농민들은 적들에게 식량을 주지 말고 빨치산 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문화인 인테리들은 인민대중 속에서 미제와 이승만 역도의 죄악을 철저히 폭로하여 대중적 폭동조직의 선동자 역할을 다해야 한다.²⁶⁾

그러나 실제에 있어 인민군의 남침 후 인민봉기는 일어나지 않았다. 김일성은 훗날, “미국놈의 고정간첩 박헌영은 남조선에 지하당원이 20만 명이나 되고 서울에만 6만 명이 있다고 떠벌였는데 20만 명은 고사하고 우리가 낙동강 계선에 진출할 때까지 단 한 건의 폭동도 없었다. 만일 부산에서 노동자들이 단 몇 천 명이라도 일어났더라면 우리는 반드시 부산까지 해방시켰을 것이고 미국놈들은 상륙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²⁷⁾ 이는 김일성이 인민봉기에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전쟁을 도발했는가를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김일성은 선제타격계획이 완성된 약 1주일 후인 1950년 6월 7일에 조국통일전선 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8월 5일~8일 사이에 전 조선적인 남북총선거를 실시하고 통일적 최고입법기관을 창설하며 8월 15일 해방 5돌 기념일에 서울에서 최고입법기관회의(국회)를 소집할 것. 이를 위하여 6월 15일~17일에 해주 또는 서울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제 조건과 총선거 실시의 절차문제를 토의 결정할 것”이라는 요지의 ‘남한인민’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하고 발표하였다.²⁸⁾ 이때 그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조국의 평화통일을 반대하는 민족반역자(이승만 정권을 지칭)”는 대표자 회의에 참가시키지 않으며, 유엔한국위원단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는 이에 대한 협의를 그들 스스로 부정한 허구성 호소문이었으며, 다만 위장평화공세의 하나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성명은 남한의 공산화, 즉 전 한반도의 공산화 목표달성 시한설정에 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성명으로 보아 김일성과 소련 고문관들은 8월 15일 해방 5주년 기념일까지 서울에 통일한국 새 공산정부를 수립하는 데 시기적으로 알맞게 남한 점령을 완료하고 소비에트 방식의 선거를 마칠 수 있다고 예상하였던 것 같다. 즉 그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전쟁이 그들의 승리로 끝날 것으로 보고 그 후 선거를 거쳐 8월 15일까지 서울에 통일 인민정부의 수립을 목표로 설정하였던 것이다.²⁹⁾

그 밖에도 그들은 국군의 후방을 교란하는 한편, 인민군의 남침시 배합전술을 구사하기 위한 인민유격대를 사전에 남파하는 등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였으나 기본전략은 3일 내에 서울점령, 인민봉기에 의한 한국정부 전복, 속전속

결로 미군전개 전까지 남한 전역 점령, 그 후 해방 5주년 기념일까지 통일 인민정부 수립으로 정리할 수가 있다.

(3) 作戰計劃

선제타격작전계획은 유성철의 증언에 따르면 전투명령서·부대이동계획·병참보급계획·기만계획으로 구성된 대단히 완벽한 공격계획이었다.³⁰⁾

이 계획은 김일성의 작전방침에 따라 그들의 공격집단을 금천-구화리, 연천-철원, 화천-양구 지역에 집중하여 공격작전을 전개, 3일 내에 서울 부근의 국군 주력부대를 포위섬멸한 후 그 전과를 확대하여 남해안까지 진출한다는 개념하에 3개 단계로 추진하도록 수립되었다.³¹⁾

제 1 단계 : 국군의 방어선 돌파 및 주력 섬멸단계로서 3일 내에 서울을 점령한다. 서울(수원)-원주-삼척까지 진출한다.

제 2 단계 : 전과확대 및 예비대 섬멸단계로서 군산-대구-포항까지 진출한다.

제 3 단계 : 소탕 및 남해안으로의 진출단계로서 부산-여수-목포로 전개한다.

전쟁간에 노획한 인민군 공격작전의 정보계획(1950. 6. 20)에 의해 밝혀진 작전단계와 이에 따른 정보계획 목표를 요약하면 <표 1>과 같다.³²⁾

<표 1> 작전단계 및 정보계획목표

작 전 단 계	작 전 지 역	정 보 계 획 목 표
제 1 단계 방어선 돌파 및 주력섬멸	38도선 방어선) 서울(수원)-원주-삼척	• 전방 방어체계 • 서울 방어조직 • 예비대 투입
제 2 단계 전과확대 및 예비대 섬멸	서울(수원)-원주-삼척) 군산-대구-포항(경주)	• 후방 방어진지 • 사단의 전방이동 • 증원부대 및 물자 유입
제 3 단계 소탕작전 및 남해안으로의 전개	군산-대구-포항(경주)) 부산-여수-목포	• 접근로상의 방어조직 • 항구의 작업활동 • 항구의 방어대책

<p>- Уточнить основные позиции артиллерии против. Ком. чейбо округи и пембонг.</p> <p>- Уточнить расстановку противотанковой артиллерии противника, особенно на направлениях продвижения в глубине вывозных и глубины обороны противника.</p> <p>- Выявить места размещения основной массы живой силы противника и резервы сил.</p> <p>- Уточнить данные о степени разбитости обороны противника в направлении Коя в глубину, наличие оборонительных сооружений по основ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боя, в размещении позиций и районов обороны противника и дивизионных районов на направлениях Кайбо, Тонган, Понгун, Канок, Сингун.</p> <p><u>2. Выявить разбитость артиллерийской противника в ходе операции обороны у ЗВ паралили.</u></p>	<p style="text-align: center;">-2-</p> <p>Взломостеленный укреплёб. Система надводных дивизий. ЗВ Брунн № 1, № 3.</p>
<p>- Выявить начало и направления отхода частей и подразделений противника с рубежа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у ЗВ паралили.</p> <p>- Выявить пути отхода противника на направлениях Омунг, Канг, Канок; также количество человек и техники у них на пути отхода и пути отхода (переправы, заливные мосты, караваны, действующие и др. и др.).</p>	<p>Численность надводных дивизий. Разнообразие их типовых частей.</p> <p>Система надводных ЗВ, 6 и 1 нд. Разнообразие их типовых частей.</p>

인민군 정보계획

* 이 정보계획은 1950년 10월 4일 서울에서 노획되었으며, 1987년 4월 28일에 비밀해제되어 공개되었다. 모두 7페이지로 1950년 6월 20일에 인민군 총참모장이 확인하였다.

선제타격계획의 제1단계 작전은 인민군의 지상군 총 10개사단을 2개군단의 공격집단으로 편조하고, 그 중 제1군단을 주공으로써 금천-구화리, 연천-철원에서 38도선을 돌파하여 북으로부터 서울을 압박하도록 하고 제2군단을 조공으로써 화천-양구에서 38도선을 넘어 서울 동측방과 수원 방향으로 우회시켜, 양개군단의 협조된 포위공격으로 서울을 점령한 후 수원-원주-삼척 선을 확보하도록 계획하였다.³³⁾

이에 따라 제1군단은 자체의 주공부대인 제3사단과 제4사단을 제105전차여단(-)의 지원하에 철원-포천-의정부 축선과 연천-동두천-의정부 축선으로, 제6사단(-1)과 제1사단을 제203전차연대의 지원하에 금천-개성-문산 축선과 구화리-고랑포-문산 축선으로 투입하도록 하였으며 제6사단 일부로써 웅진반도 및 김포반도를 공격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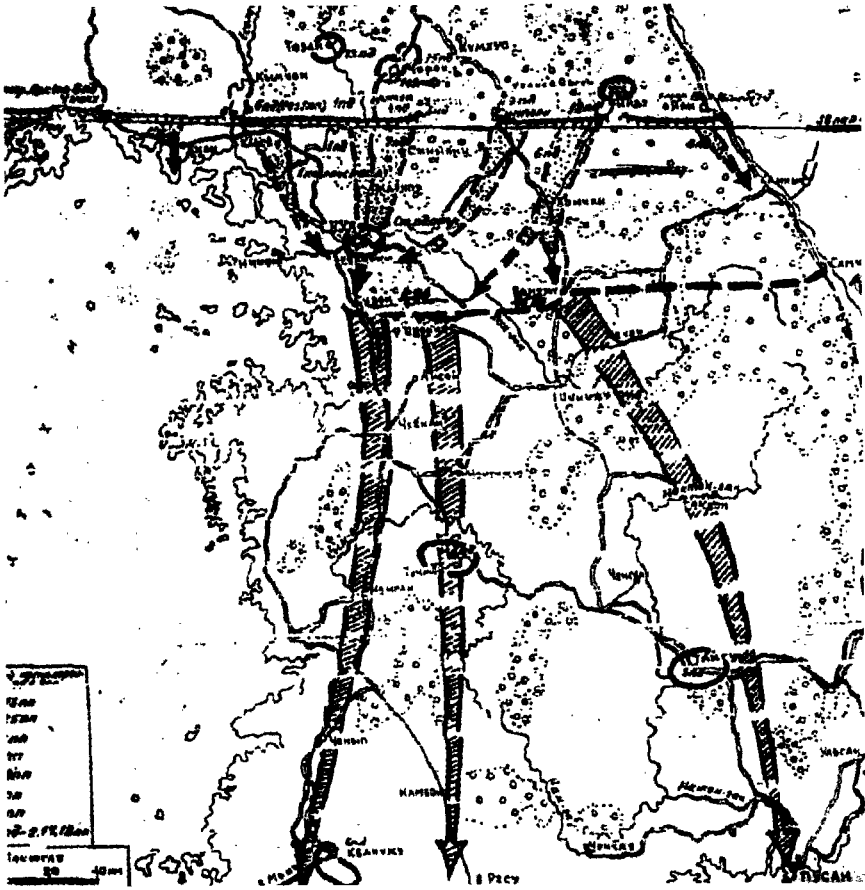
제2군단은 주력인 제2사단과 제12사단을 화천-춘천-가평 방향과 양구-홍천-수원 및 원주 방향으로 투입하고, 제5사단을 양양에서 강릉-삼척으로 진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766부대와 제549부대를 동해안의 정동진과 임원진으로 상륙시켜 국군의 후방을 교란하며 제2군단의 작전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제2, 3단계 작전은 제1단계작전에 이어 실시되나, 전략계획 자체가 서울이 점령되면 민중봉기가 일어난다는 상황을 대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국군의 조직적인 저항은 없을 것으로 보고, 제2단계에서는 신속한 전과확대로 들어가 예비부대를 격파하며 군산-대전-대구-포항 선까지 진출하고, 이어 제3단계로 전환하여 잔존 저항세력을 소탕하고 부산-마산-여수-목포 선까지 진출할 계획이었다.³⁴⁾

이때 제1군단은 서울 점령 후 재편성을 거쳐 서부축선과 중부축선으로 진격하여 목포-여수 방향으로 진출하고 제2군단은 동부축선과 동해안 방향으로 진격하여 마산-부산 방향으로 진출하도록 하였다.³⁵⁾

또한 제2, 3단계 작전은 국군의 저항이 경미할 것으로 판단한 데 이어 미 증원군의 전개 이전에 남해안까지 진출하여 부대배치를 끝낸다는 전략에 따라 신속한 기동에 중점을 두어 제1단계작전과는 달리 군단간 상호지원을 고려하지 않은 채 4개의 축선별로 국군을 각개 격파하여 '전략 중심'으로 깊숙이 진입하도록 하였다.³⁶⁾

실제에 있어 제1단계작전은 그의 계획대로 진행되었으며 계획목표도 달성하였으나 제2, 3단계 작전은 계획과는 아주 다르게 진행되었다. 그것은 인민봉기도 일어나지 않았고, 국군의 저항도 완강하였으며 미 증원군도 신속히 전개하



인민군 남침계획(선제타격계획)

* 인민군의 선제타격계획 상황도 사본. 이 상황도는 1992년 8월 29일에 연합통신이 러시아 군사연구소 수석연구원 코르트코프 박사로부터 입수한 것으로서, 그의 말에 의하면 원본은 모스크바와 평양에 각 1부씩 보관되어 있다.

는 등 상황이 그들의 전략 판단과는 대단히 다른 양상으로 발전되었기 때문이었다.

2. 戰爭指導·指揮體制 構築

인민군은 1950년 5월 말에 작전계획이 완성되자, 6월에 접어들어 전쟁준비는 폐목적의 위장평화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작전계획의 이행을 위한 막바지 준비에 돌입하여 이의 일환으로 전쟁지도·지휘체제를 구축하였다.

그들은 6월 10일 민족보위성 총참모장실에서 사단장 및 여단장급 지휘관이 참석한 비밀작전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의 주제는 남침을 위한 부대이동 명령의 하달이었으나, 비밀유지를 위해 이를 사단급 부대의 기동연습이란 이름으로 포장하였다. 부대이동은 작전개념에 따라 2개의 공격제대 형성을 목표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이때 군단사령부의 창설을 결정하였다.³⁷⁾

이에 따라 그들은 6월 10일에 김웅(金雄) 중장(민족보위성 훈련국장)을 군단장으로 제1군단사령부를 편성하고, 6월 12일에 김광협(金光俠) 중장(인민군 제3사단장)을 군단장으로 제2군단사령부를 구성하였다.³⁸⁾

다음으로 그들은 이 양개 군단을 지휘할 야전군사령부급의 이른바 전선사령부를 설치하였다. 김책(金策: 부수상 직위)이 사령관에 임명되고 참모장에는 총참모장 강건이 임명되었다.

전선사령관에는 그 서열이나 위치상 민족보위상인 최용건(崔庸健)이 임명되는 것이 당연하나 그는 남침에 반대함은 물론 소련 고문단에 의한 인민군의 전쟁준비에도 반대하는 등 김일성과 견해 차이를 보여 사령관에 임명되지 않았다.³⁹⁾ 「조선전사」에는 “전선사령부는 전선지휘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창설하였으며 이로써 김일성의 지휘를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실현하고 전반적 전선에 대한 지휘를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⁴⁰⁾ 여기에는 7월 5일에, 즉 전쟁발발 후에 창설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유성철의 증언에 따르면 전쟁 전에 설치되었음이 틀림없다.

그는 “개전당시 전선사령부는 평양에 가까운 서포(西浦) 천연동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일제시대 일본군 화약창고로 사용했던 이 동굴 안에서 전선으로부터 들어오는 전황보고를 받고 있었다. 25일 상오 09:00 인민군이 개성을 점령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다. 동굴 안에는 순간 ‘와’ 하는 함성이 터졌고 우

리는 서로를 꺼안으며 승리의 기쁨을 나누었다.”고 하였다.⁴¹⁾

이와 같이 군의 야전지휘체제를 확립한 김일성은 전쟁준비의 최종단계로서 국가의 3권을 직접 장악함은 물론, 군통수권을 자신이 행사하기 위하여 자신이 군사위원장에 올랐다. 「조선전사」에서는 그가 6월 26일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제정한 군사위원회 조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군사위원장에 추대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이는 형식상 전쟁발발 다음날에 결정한 것으로 발표한 것이지 사실은 전쟁 전에 모두 짜여져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⁴²⁾

군사위원회 조직에 관한 정령에 의하면, “국군의 38도선 이북에 대한 불의의 침공으로 조성된 전쟁에 대처하여 전체 인민의 역량을 급속히 동원할 목적으로 조직한다.”고 엉뚱하게 둘러대고 위원장 김일성, 위원 박헌영·홍명희·김책·최용건·박일우·정준택으로 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 위원회에 모든 주권을 집중시켰으며, 전체 인민들과 일체 주권기관·정당사회단체 및 군사기관들이 이 위원회의 결정·지시에 절대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정권 내각의 각 성·국들을 비롯하여 중앙기관들과 각 도·시의 각급 조직들이 모두 군사위원회에 소속되었다. 그는 군사위원장으로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부분들의 기구와 사업을 전시체제(戰時體制)로 개편하여 모든 역량을 전쟁의 종국적 승리를 목표로 조직하고 동원하도록 조치하였다.⁴³⁾

또한 최고인민회의는 군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인민군 최고사령관을 통하여 집행하도록 한 그들의 법률에 따라 7월 4일자로 김일성을 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임명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조치 역시 실제로는 전쟁 전에 이루어졌음이 분명하다.⁴⁴⁾ 그는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서 군사위원회의 명에 의거 평시 민족보위상 지휘하에 있던 참모기구와 각군부대를 직접 지휘 감독하게 됨은 물론 사회안전성 관하의 준군사부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대에 대한 군통수권을 행사하였다.

결국 김일성은 공산당 총비서, 내각수상에다 군사위원장, 나아가 인민군 최고사령관을 겸함으로써 절대 권력을 장악하고, 군사위원회 위원장·인민군 총사령관-전선사령관-군단장-사단장에 이르는 전시 전쟁지도 및 지휘체제를 완전하게 갖추어 전쟁에 임하였다. 이것만으로서도 북한이 사전에 전쟁준비를 얼마나 철저히 했는가를 알고도 남음이 있다 할 것이다.

3. 攻擊集團의 前方展開

전쟁지도·지휘체제의 구축과 동시에 남침준비의 마지막 단계로 인민군의 공격부대가 작전개념에 따라 기동하기 위하여 38도선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비밀리에 침략을 계획한 인민군의 지도부로서는 공격부대의 전개로 인하여 그 기도가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기발한 방안을 짜내었다. 사단급 부대의 약 2주間に 걸친 대기동연습을 실시한다는 것으로 부대전개를 위장하였다.

6월 10일~12일 민족보위성 비밀작전회의에서 총참모장은 지휘관들에게 6월 23일까지 어떠한 적의 공격도 물리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라고 명령하고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우리 인민군은 지금까지 사단단위까지의 전투연습을 해왔으나 금번 전투사단을 총동원하여 기동연습을 하게 되었다. 본 연습에는 모든 기본부대는 물론 병기의 일체와 전 장비가 시위될 것이다……. 그리고 본 기동연습은 다소 오래 걸릴지 모르나 2주일이면 족할 것이다. 특히 본 연습은 극비리에 거행되는 만큼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 것이며 가족에게 알려서도 안 된다. 명심하여 비밀을 지켜라.⁶⁵⁾

〈표 2〉 공격부대의 전방전개⁶⁶⁾

부 대	주둔지	도 착 지	부 대	주둔지	도 착 지
제 1 군 단		금 천	제 2 군 단		화 천
제 6사단(-1)	사 리 원	계정(개성북쪽)	제 2 사 단	원 산	화 천
제 14 연 대	사 리 원	해 주 · 죽 천	제 12 사 단	원 산	양 구
제 1 사 단	남 천 점	구 화 리	제 5 사 단	나 남	양 양
제 4 사 단	남 포	연 천	제 15 사 단	회 령	화 천
제 3 사 단	평 강	운 천	독립전차연대	나 남	인 체
제 13 사 단	신 의 주	금 천	제 12MTSP연대	길 주	양 양
제 105전차(-1)	평 양	연 천	제 766 부 대	회 령	원 산 · 간 성
제 203전차연대	평 양	남 천	제 549 부 대	갑 산	성 진

* 제10사단(군예비) 숙천에 주둔

여기에서 부대이동이 2주간의 훈련이라면 가족에게까지도 비밀을 유지하라고 한 것은 설득력이 없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신편된 양개 군단의 통제하에 남침을 위한 부대이동이 실시되었다.

이때까지 38도선에는 내무성 관할의 제1경비여단(간성), 제7경비여단(시변리), 제3경비여단(죽천)이 경비 임무를 수행해 왔고, 민족보위성 예하의 전투사단들은 후방의 각도에 주둔하고 있었다.

공격부대들은 6월 12일부터 주둔지를 출발하여 38도선 북방 10~15km 지역으로 훈련이 아닌 부대이동을 시작하였다. 주둔지가 38도선 가까운 부대는 도보로, 먼 부대는 기차를 이용하였으며, 예비사단도 각각 해당 군단지역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지원부대도 피지원부대 전개지역으로 이동하였고 제766부대와 제549부대는 해상침투 준비를 하였다. 이동은 6월 23일까지 명령대로 완료되었으며 이로써 인민군은 작전개념대로 제1·제2의 2개군단으로 편조가 완료되고 공격개시를 위한 최종 준비태세에 들어갔다.

4. 南侵命令 下達

총사령부는 공격부대의 이동에 때맞추어 마침내 극비리에 남침을 위한 정찰명령과 공격명령을 차례로 해당부대에 하달하였다.

우선 부대전개가 한창 진행 중이던 6월 18일에 인민군참모부가 발행한 정찰명령 제1호(Reconnaissance No. 1)가 공격부대에 하달되었다. 이 명령은 공격부대 정면의 적(국군방어부대)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고 공격대기진지에 진입한 다음 공격개시 전까지, 그리고 공격개시 후 단계별로 수집해야 할 정보요구를 대단히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정찰명령의 원본은 러시아어 필사체로 작성되었으며, 전쟁 중인 1950년 10월 4일에 서울에서 노획되었다.⁴⁷⁾

이 정찰명령에서 제4사단은 그 목표를 서울에 두고 있고 제2사단은 춘천-서울 도로를 따라 한강을 건너 이천, 수원 방향으로의 진출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사단에 하달한 정찰명령 중 대표적으로 제4사단과 제2사단 것의 내용 중 일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민군총사령부 정찰명령 제1호(1950. 6. 18)

수 신 : 제4사단 참모장

1. 적 보병 제1사단 제1연대가 임진강-538고지까지 방어하고 있다.
우전방은 적 제1사단 제13연대가, 좌전방은 적 제7사단 제9연대가 방어하고 있다.
2. 사단이 공격대기진지를 점령하면, 관측과 정찰을 실시하여 공격개시 전 날밤까지 적 주저항선, 지뢰와 장애물지대 및 통로, 진지 및 관측소 위치, 화력체계, 적 주력의 위치, 포진지 및 구경, 대전차포의 배치 등을 정확히 파악한다. 공격이 개시되면 정찰대를 추가로 편성·파견하여 의정부-서울로 이르는 각 접근로상의 저항진지를 파악하고 예비대를 공격하라. 서울 부근으로 진출하면, 모든 수단을 다하여 시내에 집중된 적의 부대와 시가방어 조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라.⁴⁸⁾

인민군총사령부 정찰명령 제1호(1950. 6. 18)

수 신 : 제2사단 참모장

1. 적 제6사단 제7연대가 590-621고지를 방어하고 있다.
그 동쪽으로는 적 제19연대가 병행하여 방어하고 있다.
적의 경계진지는 38도선 근처의 고지에 연하여 있고, 주저항선 전단은 이로부터 1~1.5km 후방 590고지-313고지…… 가지리선에 연해 있다.
2. 사단이 공격대기진지를 점령하면 관측과 정찰을 통하여 공격개시 전 날 밤까지 적 주저항선, 지뢰와 장애물지대 및 통로…… 등을 정확히 파악한다.
공격이 개시되면 적 예비대의 투입을 관찰하고, 부대의 철수 개시와 방향을 파악한다. 전방부대가 사암리에 도달하면 …… 방향으로 정찰대를 파견하여 부대의 출현과 서울-춘천 철로와 도로상의 이동상황을 파악한다. 전방부대가 고현리, 강촌리에 도달하면 서울로 이르는 도로에 강력한 기동정찰대를 파견하여 한강 남쪽 제방까지 진출해 그곳의 적정과 서울로 이르는 도로상의 적정을 파악한다.
부대가 한강에 도달하면 정찰을 통하여 서울-수원-이천 도로상의 이동과 곡수(?), 수원, 이천 부근의 적 활동을 파악한다.⁴⁹⁾

Начальнику штаба 2 дивизии.

Обрисование на разведку №21 5-й дивизии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й армии
18.6.1950 г. Карман 50 000-1949.

1. Противник, 7 полк 6 дивизии в артиллерии 7 оборонной укреплений
выс 590,2 (0676)*, выс 621,0 (0692). Восточная укреплений 38 параллели
оборонной укреплений 19 полк.
Ближний край укреплений по высоте у 38 параллели. Ближний
край восточной стороны обороны в 1-1,5 км от параллели по высоте
569,2. 515,0 (0672), вдоль дорог Джинчхан (1185), Коджон (0686).
В районе Коджон (0286), Джинчхан (0688) подготовлена оборонительная
позиция артиллерийская вышка в долине Сюкхи.

2. С вышкой дивизии в указанное положение до начала наступления
наблюдения и поисками в ночь перед атакой:
- Основательно уточнить и зафиксировать передний край восточной стороны
оборонной укреплений, каменные укрепления, проволочные заграждения,
вышки и заграждения укреплений и проходы в заграждениях.
 - Уточнить расположение траншей, ДОТ, ДОЗ, КП, насыщенные
оборонной артиллерией средствами и систему огня. Выявить где рас-
положена основная масса живой силы.
 - Уточнить артиллерийские позиции артиллерии, казематы и казематы артиллерии.
Уточнить размещение противотанковой артиллерии на высоте
пока от параллели на Сюкхи.

В источнике вышка для по вышке на указанное положение обрабо-
тать указанные карты цели и карты инженерных сооружений
противника.

С началом наступления:

- Следить когда, какими силами и с какой рубкою противника
наступают вой в бой и вводить резервы; уточнить начало и
направление атаки подразделений действующих в указанной зоне

인민군 정찰명령

* 이는 남침직전 제2사단에 하달된 인민군 총참모부 정찰명령 제1호이다.

정찰명령에 이어 부대기동이 완료될 무렵 인민군의 공격부대에 대한 준비된 전투명령 제1호가 하달되었다.⁵⁰⁾ 이에 따라 군단과 사단은 예하부대에 공격명령을 하달하였다. 유성철의 증언에 따르면, 선제타격작전계획에는 전투명령서가 포함되어 있었고, 당시 제2군단 소속 공병소좌 주영복(朱榮福)이 6월 19일에 인민군총참모부 공병국장실에서 박길남(朴吉南) 국장으로부터 전투명령 제1호 공병부록(노어)을 받아 한글로 번역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총참모부 전투명령은 이날 하달된 것으로 추단된다.⁵¹⁾ 총참모부의 이 전투명령서는 아직 노출되지 않았지만 다행히 이보다 3일 후인 6월 22일에 하달한 인민군 제4사단 전투명령(한글 필사본)이 1950년 7월 16일 대전 부근에서 노획되고, 역시 동일부로 하달된 제2사단 전투명령이 노획되어 그들의 계획적 남침을 확고부동하게 증명하고 있다.

제4사단의 전투명령 제1호는 사단이 서울 공격의 주공부대로서 1950년 6월 23일까지 공격준비를 완료하고 별명에 의거 적의 방어선을 돌파한 다음 의정부, 서울 방향으로 진출하는 것으로 기동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공격을 지원할 각 부대에 대한 임무도 상술하고 있으며 공격작전에 필요한 신호규정까지 명시하였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⁵²⁾

제4사단 전투명령 제1호

1. 아군의 방어 정면에는 적(국군) 제7사단 제1연대가 방어한다.
2. 사단은 군단의 공격 정면에서 가장 중요한 방향 광동-아장동에서 적의 방어를 돌파하며 최초 마지리, 535고지를 점령하고 평마을, 내회암을 점령한 후 의정부, 서울 방향으로 진격한다.
3. 우익에는 제1보사가 공격하며, 좌익에는 제3보사가 공격한다.
9. 포병 공격준비사격은 30분간이며……
10. 항공대는 적의 군사시설, 도로를 파괴하며 예비대의 집결을 불허한다.
11. 반항공대책은…… 적기 내습시 보병무기의 30%를 동원한다.
12. 반전차 화기로써 반전차대책을 강구한다.
13. 지휘소는 6월 23일부터 전개하며 이동축은 의정부로 통하는 도로방향이다.
16. 기본신호 : 공격개시-폭풍(전화), 244(무전)
 돌격개시-녹색신호탄, 224(무전)

이 명령에서 “제4사단은 군단 정면의 가장 중요한 방향에서 적의 방어선을 돌파한다”, “우익에는 제1사단, 좌익에는 제3사단이 병행공격한다”함으로써, 비록 군단예하 다른 사단의 공격명령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제4사단이 군단과 더불어, 그리고 군단의 주공으로서 좌우 인접사단과 병행하여 공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제2사단 전투명령 제1호(한글 필사본)는 사단이 1950년 6월 22일까지 공격 준비를 완료하고 특별명령에 따라 공격개시선으로 이동하여 국군의 방어선을 돌파하며 그날 내로 춘천을 점령한 후, 가평방향으로 진출한다는 개념으로 다음 요지와 같이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다.⁵³⁾

제2사단 전투명령 제1호

1. 사단의 공격 정면에는 국군 제6사단 제7연대가 방어하고 있다.
2. 사단은 882고지, 송암리, 모진교, 마평리 간에서 적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최근임무(最近任務)로써 신당리……도자골을 점령하고 최후임무(最後任務)로써 춘천을 당일 내로 점령한 후 가평 강촌 방향으로 진출한다.
3. 우익에는 제3보사가 서울 방향으로 공격하며, 좌익에는 제12보사가 홍천-원주, 횡성-여주 방향으로 공격한다.
4. 제6연대(주공)를 우, 제4연대를 좌로 하는 2개연대 병진대영으로 공격하며 제17연대는 주공을 후속한다.
8. 포병은 1950년 6월 22일 24 : 00까지 사격준비를 완료하고 공격준비 사격시간은 30분이다.
9. 공병은 모진교를 확보하며 교량으로 보병의 도강을 보장한다.

第二步師 師團長 李 靑 松

이 명령에서 인민군 제2사단은 “우로는 제1군단 예하 제3보사와 좌로는 제12사단이 병행공격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제4사단과 제2사단 전투명령을 종합해 보면 비록 다른 사단의 공격명령이 없더라도 그들은 전 전선에서 전면남침 공격계획을 수립하였다는 것이 증명된다. 특히 이들 명령상의 기동계획이 전술한 선제타격계획의 작전개념과 일치하고 있어, 그 개념의 정확성도 여기에서 입증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선제공격계획의 증거를 열거하지 않아도 1950년 6월의 전쟁은 계획적 남침에 의해 일어났으며, 그들의 공간사에서 주장하는 논리가 기만적이고 허구적임이 명약관화하게 되었다. 그들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미제와 이승만 괴뢰도당은 1950년 6월 25일 드디어 공화국 북반부에 대한 무력침공을 개시하여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켰다……. 조선인민군이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무력침공을 물리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 나섬으로써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이 시작되었다.⁵⁴⁾

이는 분명 역사의 날조이며, 민족의 비극이 남침에 의해 일어났음은 자신들이 수립한 계획과 자신들이 작성한 문서들이 증명해 주고 있다.

第 2 節 國軍의 防衛態勢

1. 敵情判斷

김일성과 스탈린은 모택동과의 협의를 거쳐 1948년 말 남침전략을 수립하고 1950년 4월에는 전쟁계획을 확정지었으며 5월에는 선제공격계획까지 작성완료하였다.

그들은 침략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1949년부터 인민군의 군사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였고, 인민유격대를 10차에 걸쳐 2,400명이나 남파시켜 남한의 후방을 교란하였으며, 38도선에서는 무력도발을 격화시켰다. 또한 부대증편에 따른 급격한 병력소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북한은 1949년 여름부터 병역제도를 지원병제에서 징병제로 전환하여 모병을 강화하였고, 1949년 7월 15일에는 조국보위후원회를 조직하여 강제적이지만 전 ‘인민적’ 차원에서 전쟁준비를 뒷받침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반면 남한에서는 정부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한 자위력 확보를 위해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하여 1949년 3월부터 대미군원교섭을 벌이고 지원요청을 하였음에도 미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남북한 군사력의 격차는 점점 심화되었다. 더군다나 1950년 1월 12일의 애치슨 연설에서 “한국과 대만이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미국의 대한(對韓) 방

위지원 의지에 의구심마저 자아내었다.

이 무렵 정부는 각계 각층에 깊숙이 침투한 노동당 세포조직을 파괴하고 좌경사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치안력을 총동원해야 하였고, 정치권에서는 개헌문제를 놓고 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아 국민의 단결을 도모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안보환경에서 전방부대는 적의 38도선 무력도발에 대한 방어대책을 취해야 했고, 후방부대는 인민유격대 및 잔존 공비토벌에 동원되었다. 또 한편에서는 군 내부까지 침투한 공산주의 세포조직들로 인하여 오염된 군의 숙군과 업도 진행해야 했다. 규모 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열세한데다 이런 여건들로 인하여 국군은 전력의 극대화나 유사시 전력의 집중적 운용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방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1949년 연말(12월 27일), 육군본부는 이러한 국내외 정세가 그대로 반영된 듯, 정보종합보고에서 적의 병력과 장비를 <표 3>과 같이 평가하고 “1950년 춘계에는 적이 전면적 공세를 취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정보판단에 근거하여 정부는 북한의 남침을 경고하는 한편, 미국으로부터는 군사지원을 획득하기 위한 외교노력을 전개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특히 육군본부 작전국장 강문봉(姜文奉) 대령은 정보보고에 따라 38도선의 방어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1950년도 국방예산에 38도선 축성공사비를 제상하였으나 국회에서 삭감되었다.⁵⁶⁾

1950년 1월 육군총참모장 신태영(申泰英) 소장은 이에 근거하여 유엔한국위원단에 안만군의 병력과 장비가 훨씬 우세하다고 하면서 “북한당국의 침략계획이 성숙했다고 믿으며 그들이 행동하기 전 오직 시간문제만이 남아 있다.”라고 통고하였다.⁵⁷⁾

그러나 미 대사관이나 미 고문단측의 발표는 상반되었다. 전쟁이 일어나면 국군이 침략을 격퇴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사실상 이들은 국군이 너무 강력해지면 북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1950년 5월 10일 신성모(申性模) 국방장관은 외신기자들과의 회견석상에서 “북괴군은 그 병력을 38도선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북한으로부터의 침략위험이 임박했다.”⁵⁸⁾고 설명하였다. 다음날 이승만 대통령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5~6월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렵다.” “미국의 원조만이 북괴의 침략을 방위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⁵⁹⁾

〈표 3〉 적 정 관 단(1949. 12. 27)

○ 병 력					
인 민 군	91,598명		기 타	22,000명	
보 안 군	60,424명		계	174,022명	
○ 장 비					
소 총	75,653정		기관단총(다발총)	30,099정	
경 기 관 총	5,234정		중 기 관 총	2,287정	
82밀리 박격포	603문		120밀리 박격포	126문	
76밀리 곡사포	218문		122밀리 곡사포	73문	
자 동 차	1,693대		전 차	120대	
장 갑 차	60대		비 행 기	62대	
경 비 정	30척		비 행 장	17개소	
○ 결 론					

“최근의 적정과 제반 정세를 종합하건대 명년(1950년) 춘계를 계기로 적정에 급진적 변화가 예기되며 적은 그때까지 대 남한 후방교란의 기반확득과 내부붕괴 공작을 강행하여 남한침공의 구체적 조건을 형성함과 동시에 전 기능을 총동원하여 전쟁준비를 급속도로 촉진시킨 다음 38도선 일대에 걸쳐 전면적 공세를 취하고 일거에 대한민국의 전복을 기도할 것임.”⁵⁵⁾

이처럼 전쟁의 위험이 임박하였다는 보도가 빈발하는 가운데 1950년 5월 12일 육군본부 참모부장 김백일(金白一) 대령과 정보국장 장도영(張道英) 대령은 외무부장관이 유엔한국통일위원단과 가진 회견에서 북한의 군사상황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알려진 자료 중 전쟁작전의 인민군에 관한 정보관단이란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이를 요약하면 〈표 4〉와 같다.⁵⁶⁾

이 적정은 앞서의 것에 비하여 6개월 동안에 병력 8만, 박격포가 666문, 곡사포 293문, 자주포 176문, 전차 53대, 비행기 135대 등 인원장비가 현저히 증가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전쟁준비에 박차가 가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특히 이 현황은 약 1개월 반 후 개전시의 실제병력과 장비현황에 대단히 근접한 것으로서, 당시 국군 수뇌부에서 적정을 정확히 읽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94 第2章 北韓의 奇襲南侵과 對應

〈표 4〉 정보판단(1950. 5. 12)

○ 병 력			
인민군 6개사단	93,500명	보안군 3개여단	24,000명
공 군 1개사단	1,800명	기갑 1개사단	10,000명
해 군 2개사단	15,000명	기 타	37,000명
		계	182,400명
○ 장 비			
85밀리 고사포	24문	37밀리 고사포	24문
82밀리 박격포	1,223문	45밀리 대전차포	586문
76밀리 곡사포	464문	120밀리 박격포	172문
전 차	173대	122밀리 곡사포	120문
자 주 포	176대	장 갑 차	60대
경 비 정	30척	비 행 기	197대

○ 38도선 일대의 적의 배치현황

38도선 일대에는 3개 경비여단이 배치되어 있고 그 후방 사리원에 제6사단, 연천에 제1사단, 철원에 제3사단이 위치하고 있다. 전차 1개연대는 철원에, 또 다른 전차연대가 사리원과 연천에 배치되어 보병사단을 지원하고 있다.

○ 최근의 현저한 활동상황

3,300명의 보안대가 1950년 3월 4일 이래 38도선 일대에 집결하고 도처에서 아진지에 침투행동을 감행하여 국군을 분주케 하는 동시에 경비력을 탐색하고 있다. 이러한 전초전의 이면에서 북괴의 정규군은 언제라도 임전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국방부에서는 이와 같이 긴박한 적정에 자력(自力)으로써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50년 5월 육군본부 작전국장 강문봉 대령이 피아의 병력과 장비를 비교하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부족한 전력을 약 300km에 달하는 38도선 방어시설의 강화로써 보완하기 위하여 긴급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국회는 5·30선거로 인하여 휴회 중이어서 처리되지도 못한 채 결국 전쟁을 맞게 되었던 것이다.⁹¹⁾

2. 防禦計劃

국방부는, “1950년 춘계에 적이 38도선에서 전면적인 공격을 할 것이다.”고 한 1949년 연말 종합정보보고서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수립을 서둘러 1950년 3월 25일자로 군방어계획, 즉 육본작전계획 제38호를 확정하고 예하부대에 하달하였다.⁸²⁾

이 계획은 적의 주공이 철원-의정부-서울 축선에 지향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방어중점을 의정부지구에 두어 방어진대를 구성하고 적의 공격을 진전에서 격파하여 38도선을 확보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국군은 주한미군의 철수에 따라 1949년 1월부터 38도선 방어임무를 인수하였었다. 국군은 정부수립과 더불어 출범하였지만 국토방위는 사실상 이때부터 시작하였으며, 적의 남침위험이 고조되고 방어계획을 수립한 당시에는 육군·해군·공군의 3개군으로 정립되어 있었다.

그 중 육군은 8개사단 규모로서, 제1사단이 개성 방면(청단-적성), 제7사단이 철원 방면(적성-적목리), 제6사단이 춘천 방면(적목리-진혹동), 제8사단이 동해안 강릉 방면(진혹동-동해안), 그 밖에 제17연대가 웅진반도에서 38도선을 경계 중이었다. 그리고 수도경비사령부가 서울에, 제2사단이 대전, 제3사단이 대구, 제5사단이 광주에 사령부를 두고 각기 도별로 후방지역작전을 수행 중이었다.

이와 같은 방어계획 목표와 부대배치에 토대를 두고 작성된 육본작전명령 제38호 및 육군방어계획은, “방어중점을 의정부지구에 두고서 제일선(전방방어진대)에 3개의 진지선을 설치하고 군을 제일선부대, 군예비대의 2개 방어제대로 편성하여 단계적으로 전방방어작전을 실시함으로써 적의 공격을 저지격퇴한다. 그리고 경찰 및 청년방위대 등 준군사적 요소로써 후방경계부대를 편성하고 해공군 작전계획과 협조하여 후방지역작전을 실시한다.”라는 개념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第一線作戰(前方防禦) 概念

초기작전(경계진지전투) : 38도선 경계진지선에서 적의 진출을 지연한다. 지

연전투는 주저항진지대(帶) 정면의 교량 및 도로파괴를 실시하며 주저항선까지 진전(轉進)한다. 한편 제2·제3·제5사단의 집결과 동시에 웅진 방면 부대와 동해안 제8사단은 주작전이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적극 견제공격을 취하고 적절히 유격전을 감행하여 적의 동서측방을 위협한다.

제2기작전(주저항선전투) : 주진지선에서 전화력의 집중발휘 및 철저한 역습으로 가장 강력한 전투를 실시하여 적을 진전에서 격멸한다. 만일 적이 아(我) 진지에 침입하였을 경우라도 모든 수단을 다하여 이 선에서 교착시킨다. 전선이 너무 확장되어 전투지도상 불리한 경우에는 지연전을 실시하면서 점차적으로 예비진지선으로 이동한다.

제3기작전(최후저항선전투) : 전군이 예비진지선에서 전화력을 집중하고 역습으로써 적의 전력을 철저히 분쇄 격파하여 최후까지 이 진지를 확보한다.

(2) 防禦梯隊 編成·任務

○ 제1선부대(전방방어부대)

제1사단 : 방어의 중점을 문산 정면에 지향하고 적의 공격을 보·포의 저항으로써 철저히 소모시켜 진전에서 격멸한다. 특히 제7사단 좌익 정면에 화력을 지향하여 주공 정면의 전투에 협조한다.

제7사단 : 방어의 중점을 의정부 정면에 지향하고 적 특히 전차를 동반하는 주공을 보·포의 긴밀한 협동과 저항으로써 진전에서 격멸한다.

제6사단 : 험준한 산악지대를 이용하여 철저한 유격전 및 방어전투를 전개하며, 예상하는 적 주력의 동측면에 대한 위협을 견제하고, 제7사단 우전방에 대한 화력지원의 실시로 주작전지역의 전투가 유리하게 전개되도록 한다.

제8사단 : 험준한 산악지대를 이용하여 철저한 유격전과 방어전투를 전개하며, 특히 동해안으로부터 상륙을 기도하는 적을 수제선에서 철저히 격멸한다.

제17연대 : 주전투지역의 전투가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웅진지구 정면에서 철저한 방어전투의 전개 및 유격전을 실시하여 적의 서측방을 위협한다. 또 필요에 따라 신속히 해주 일대를 점령할 준비를 한다.

○ 군예비대

수도경비사령부 : 김포 인천지구를 포함한 수도권지구의 방어를 준비한다. 필요시 제1·제7사단을 지원한다.

제2·제3·제5사단 : 신속히 서울에 집결하여 서울 주변지구에 진지를 구축하고 적의 침투를 적극 방지하는 동시에 제2사단은 춘천-의정부 부근에, 제3사단은 의정부-문산 부근에, 제5사단은 문산-의정부 부근에 지원할 계획을 수립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공세이전할 계획을 준비한다.

독립기갑연대 : 경원선 철원 이남지역에 중점을 두고 수색준비를 하며 또 서울 동남 반경 32km 지역의 수색계획을 준비한다.

포병학교 교도연대 : 수도방어를 고려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제7사단 및 제1사단 주진지 전방에 대한 화력지원계획을 준비한다.

제1공병단 : 수도방어계획에 협력하는 동시에 필요에 따라서는 제1·제7사단 방어전투에 협력할 준비를 한다.

○ 후방경계부대

후방경계 : 공비토벌은 원칙적으로 경찰이 담당한다. 전투경찰 22개 대대가 편성 배치된다. 국가 주요시설은 원칙적으로 경찰·청년방위대·대한청년단 등이 경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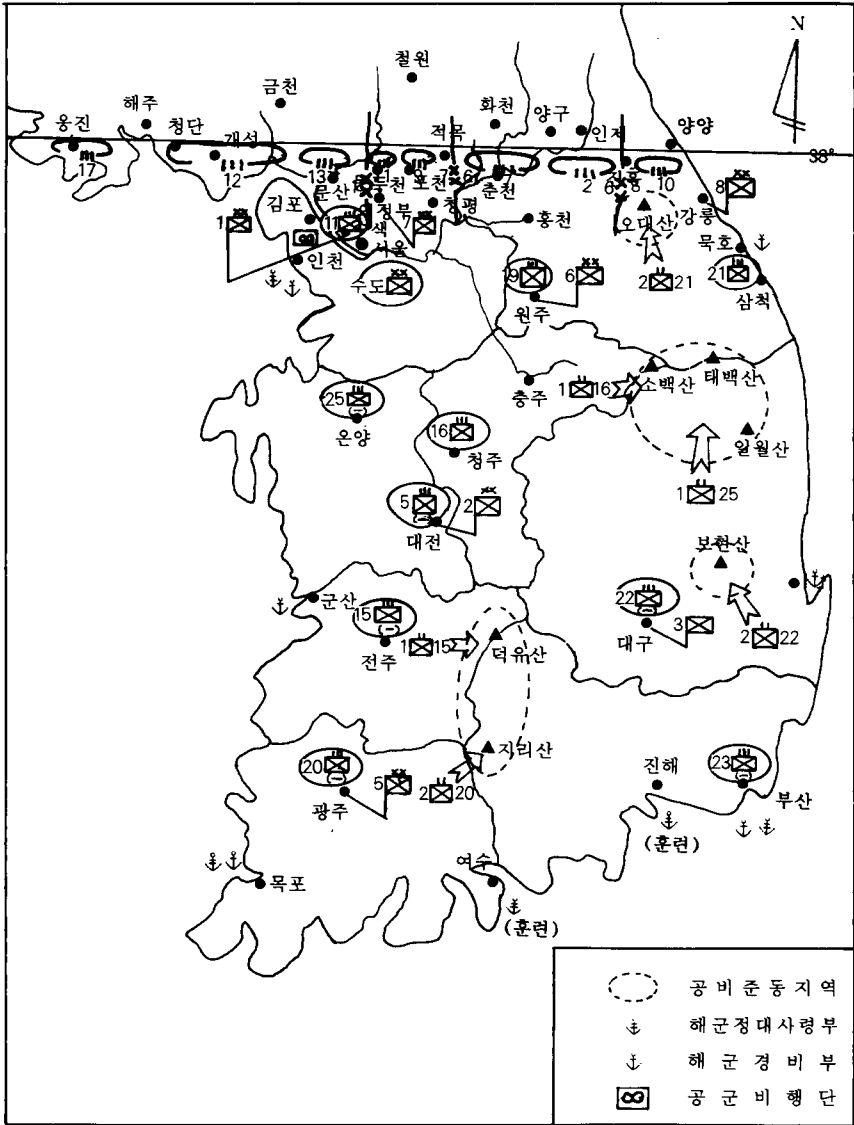
해안선 경비 : 해군본부의 해안선 방어계획에 의거 한강하구·군산·포항에 중점을 두고 철저한 해안선 방어진을 구성하여 해군지휘하에 특별경찰대·해안청년방위대로써 감시 및 경비한다.

대공경계 : 공군본부의 대공계획에 의거 대공감시부대를 편성하며, 육군은 각급부대가 대공부대를 편성하여 중요지구를 방어한다.

이 계획은 육군총참모장 명의로 작성한 국군의 기본방어계획 및 육군작전계획으로서 해당부록까지 구비한 대단히 완벽한 작전계획이다. 또 이 계획에서 “해군과 공군작전계획에 따라……”의 내용으로 보아 해군과 공군도 기본방어계획에 따라 자체의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던 것으로 믿어진다.

이에 기초한 각 사단 특히 전방부대의 작전계획은 1950년 5월 초에 가서야 수립되었다. 하지만 이때에 수립된 계획은 방어선 점령을 위한 기본계획 위주였고 화력계획, 장벽계획, 역습계획 같은 지원계획은 준비과정에 있었다. 당시 국군의 방어배치는 다음 상황도와 같았다.

국군의 방어배치



3. 準備態勢

국방부는 정보판단을 통하여 적정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1950년 3월에는 방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5월에는 적의 남침이 시간문제일 뿐 임박했다고 경고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과 계획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국방은 준비태세의 미비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1) 防禦線 및 陣地準備

1949년 초 38도선 경비임무가 전환될 때, 국군이 미군으로부터 인수한 진지라고는, 이 선을 통과하여 남북으로 왕래하는 인원이나 교통을 통제하기 위하여 간선 도로변에 설치한 38도선 경비초소뿐이었으며 전술적 목적의 방어진지라고는 하나도 없었고, 시설이라야 콘서트 건물이 고작이었다.⁶³⁾

반면 이 선 북쪽에는 북한의 38경비대가 1947년 7월부터 소련군으로부터 경비임무를 인수하였고, 1949년 초에는 이들이 3개여단으로 증편되어 전술전략상의 요지를 장악하고 강력한 진지를 구축하여 38도선의 경계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군에 의한 38도선 방어진지 구축공사가 시작되었으나 전초진지 구축은 이미 유리한 위치를 점령한 적 38경비대의 방해로 인하여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결국에는 무장충돌로까지 발전됨으로써 진지편성은 더욱 어려워졌다.

적의 방해전술 외에도 국군은 38도선 경비전담부대가 편제되어 있지 않아 연대로부터 여단 및 사단으로 증편되어 가는 과정에서 38도선 방어임무 담당부대가 다른 부대와 교대되었는데 이 또한 38도선 경계는 물론 방어진지 강화의 저해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국군이 사단으로 성장함으로써 방어조직이 정립되는 한편, 1950년 3월에는 군 방어계획이 확정되고 5월까지의 각 사단의 방어계획이 준비됨에 따라 방어편성과 진지준비도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으며 방어선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하지만 이 무렵 격화되는 38도선 무력도발, 후방공비의 준동에 따른 작전소요의 증가, 축성자재 지원부족으로 인하여 방어진지 공사는 여전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없었다. 다행히 지역주민, 학생, 대한청년단 등 애국시민단체에 의한 노력봉사의 도움으로 공사병력을 다소나마 덜게 되었으며,⁶⁴⁾ 6월까지의 진지공사에 상당한 진척을 보았다.

이 무렵의 공사실태는 사단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대체로 38도선 경계진지는 요지(要地)에는 콘크리트 또는 통나무 유개호로 구축하고 호간에는 연락호로 연결하였으며, 진전에는 철조망을 2중으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는 대인지뢰를 매설하였다. 주저항선과 예비진지에는 진입로를 개설하고 교통로와 무개 개인호를 구축하였으며 대부분 지뢰나 철조망 등 장애물은 설치하지 못하였다. 관측소와 공용화기 진지의 일부는 통나무 유개호로 구축하였다.⁶⁵⁾ 적의 전차에 대비한 장애물은 설치하지 않았고 대전차지뢰도 보유한 것이 없어 매설하지 않아 대전차방어에 대한 대응책은 대단히 소홀하였다.⁶⁶⁾

공병은 보병부대의 축성 및 장애물 공사를 지원하는 한편 임진교, 소양교 등 중요교량의 폭파계획을 준비하였고 거부계획도 마련하였다.⁶⁷⁾ 당시 사단당 1개 대대 규모의 포병은 축지를 실시하고 관측소를 설치하는 한편, 포대별로 전방 연대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전개할 진지를 선정해 두고 있었다.⁶⁸⁾

이처럼 개전 전 전방방어진지의 구축은 적의 폭사화기에 병력과 장비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고 또 선방어개념의 방어편성이어서 중심방어력도 부족하였으며, 특히 주요 접근로상 대전차 방어대책이 미비하였다.

(2) 兵力과 裝備의 劣勢

개전직전 국군이 보유한 병력과 장비는 인민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너무나 열세하였으며 이는 당시 국군의 방어준비태세상 근본적 취약점과 위협이 되었다. 인민군의 전력은 계속 증강되어 남침직전의 총병력이 198,380명에 달하였으며 이는 국군의 105,752명에 비하여 2:1로 우세하였다. 전방방어지역에서의 피아 병력 비율은 아군의 방어부대 병력을 적의 전개부대와 비교할 때, 주공 방향인 철원-의정부-서울 축선 1:4.4, 개성-문산-서울 축선 1:2.2, 조공 방향인 화천-춘천과 인제-홍천 축선 1:4.1, 그리고 양양-강릉 축선 1:2.5로 국군이 열세하였다.

특히 주공 방향의 전투력 비율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육군본부가 취한 일부 부대의 예비속 조정명령에 기인된 것이었다. 육군본부는 6월 15일자로

철원 정면을 담당하고 있는 제7사단의 예비연대인 제3연대를 서울의 수도경비 사령부로 예속 변경하고, 그 대신 온양에 위치한 제2사단 제25연대를 제7사단에 편입조치하였다. 이에 따라 제3연대는 명령대로 후방으로 이동을 해 버렸는데, 제25연대는 주둔할 전방지역의 수용시설이 해결되지 않아 이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남침을 당했기 때문이었다.⁹⁾ 적의 남침위협도 경고된 상황에서 전방부대를 먼저 후방으로 이동시킨 자체가 전술적으로 부대교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그 밖에 당시 약 1/3 병력이 외출한 것을 고려한다면 실제병력 비율은 이보다 훨씬 격차가 심하며, 예로써 제7사단의 경우는 1 : 7, 제1사단의 경우도 1 : 4로 대단히 심각하였다.

〈표 5〉 접근로별 병력 비교⁹⁾

접 근 로	국군 방어부대	인민군 전개부대	국군 : 인민군
개성-문산-서울	제1사단 9,715명 (5,000명)	제1사단 11,000명	1 : 2.2 (1 : 4.2)
		제6사단(-1) 8,000	
		제203전차연대 2,000	
		계 21,000	
철원-의정부-서울	제7사단(-1) 7,211명 (4,500명)	제3사단 11,000명	1 : 4.4 (1 : 7.1)
		제4사단 11,000	
		제13사단 6,000	
		제105전차여단(-1) 4,000	
계 32,000			
화천-춘천 인제-홍천	제6사단 9,112명 (미상)	제2사단 10,838명	1 : 4.1
		제12사단 12,000	
		제15사단 11,000	
		독립전차연대 1,100	
계 36,938			
양양-강릉	제8사단 6,866명 (미상)	제5사단 11,000명	1 : 2.5
		제766부대 3,000	
		제549부대 3,000	
		계 17,000	

* ()은 외출·외박을 제외한 실병력.

다음으로 장비의 상대적 전투력 비율은 병력의 격차보다 더욱 심하였다. 인민군은 T-34 전차 242대, 전투기를 주종으로 한 항공기 211대를 보유한 데 비하여 국군은 전차는 전무하였고 항공기도 연락용과 연습용을 합하여 22대밖에 없어 비교가 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적의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대전차화기나 항공기를 공격할 대공화기도 갖추지 못하였다. 편제상 보유한 57밀리 대전차포나 2.36인치 로켓은 성능이 약하여 정상적인 공격으로서는 T-34 전차를 파괴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적은 122밀리 신형곡사포(사거리 11,710미터)를 비롯하여 총 552문의 곡사포를 보유한 데 비해 아군은 105밀리 M3곡사포(사거리 6,525미터) 91문이 고작 이었고 적이 120밀리 박격포(사거리 5,700미터)를 포함한 총 1,728문의 박격포를 보유한 데 비해 아군은 81밀리 박격포(사거리 3,600미터)와 60밀리 박격포를 합하여 960문뿐이었다.

이와 같이 전쟁적전 장비의 전투력 비율은 상대적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숫자상의 격심한 차이는 물론이고 이에 사거리와 구경 등 성능까지 고려한다면 상대적 화력 비율은 엄청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유로서 5월 10일 국방장관의 기자회견서 육군본부의 김백일 참모부장은, “북한 괴뢰군의 장비는 국군보다 2~3배나 우세하며 더 많은 비행기, 전차, 포, 기관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 이와 같은 압도적인 우세에 대하여 단순히 용기만으로 일을 치를 수는 없는 일이다.”라고 하였다.⁷¹⁾ 즉 당시 장비보유 열세를 정신전력만으로 극복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당시의 장비전력을 평가함에 있어 적의 장비는 남침공격을 위해 소련으로부터 도입된 신형장비가 대부분이었으며 전쟁예비량까지 확보한 데 비하여 미군으로부터 인수받은 국군의 보유장비는 대부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사용하던 노후장비인데다 그 후 요청한 수리부품 등 군원보급이 도착되지 않아 병기장비의 15%가 폐품화되었고 그 외에도 정비를 기다리는 장비가 상당하였다. 차량의 경우도 보병 8개사단이 T/E의 52%밖에 보유하지 못하였는데, 이들 차량도 가동률이 40%를 넘지 못하였다.⁷²⁾

따라서 국군은 병력이나 장비 면에서 적의 공격을 억제하거나 저지할 준비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공격, 즉 북침(北侵)이란 도모할 수 없는 것이 그

때의 현실이었다.

(3) 教育訓練 水準

국군은 창군 이래 후방지역의 공비토벌작전을 비롯하여 38도선에서의 적의 도발에 대응하고 인민유격대 토벌을 위한 대비정규전 작전에 동원됨으로써 사실상 지휘체제상의 건제부대별로 조직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할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육군본부가 교육각서를 하달한 것도 1950년 1월이 최초였다. 이에 따르면 8개사단의 전 부대가 3월 말까지 분대전술부터 대대전술까지는 끝마치도록 되었다. 전방사단은 38도선에 배치된 부대들을 교대해 가며 훈련하고 후방사단은 공비토벌 작전지역에서 약식으로 훈련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훈련은 작전에 밀려 형식에 그칠 뿐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⁷³⁾

육군본부는 3월 14일에 6월 1일까지 대대훈련을, 9월 말까지 연대전술훈련을 완료한다는 내용의 교육각서 제2호를 제차 하달하였다. 그 결과 6월 15일 현재 전술훈련으로서는 제7사단의 6개대대, 제8사단의 1개대대, 수도경비사령부 9개대대, 모두 16개대대가 대대급훈련을 마쳤다. 30개대대는 중대훈련을 치르는 중이었고 17개대대는 소대급훈련도 마치지 못하였으며, 2개대대는 75%가 소대급훈련을 마치고 50%가 중대훈련에 들어가 있는 실정이었다.

그리고 17개대대와 5개 연대참모가 지휘소훈련을 마치고, 14개대대는 8일간의 기동훈련을 마쳤으며, 6개대대는 대전차 공격훈련을 하였다.

따라서 65개대대 중 25%에 불과한 16개대대만이 기간내에 대대훈련을 마쳤을 뿐이었다. 이리하여 육군본부는 다시 7월 말까지 대대훈련을, 10월 말까지 연대훈련을 마치도록 훈련목표 일정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고 훈련을 독촉하였다.⁷⁴⁾

반면에 인민군은 그들의 치밀한 남침계획에 따라 전력증강과 병행, 계획적으로 훈련을 추진하여 1949년 전반까지 사단급의 자체훈련을 완료하고 이해 말부터는 민족보위성 훈련국 통제하에 사단단위 종합전술훈련을 실시하면서 공격작전 능력을 평가하고 보완해 나갔다.⁷⁵⁾

이에 앞서 그들은 1949년 7월 초에 최초로 ‘전차포병을 동반하는 보병사단의 공격에 대한 지휘관 및 참모의 야외훈련’이라는 지휘소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는 사단의 작전을 지휘통제할 군단급의 지휘소 기동훈련이었다. 이 지휘소

훈련에서 강건 총참모장이 군단장 역을 맡고 김광협(金光俠) 훈련국장이 군단 참모장에 임명되었다. 이 훈련에는 민보성의 각 부서 고문관 10여 명, 총참모장과 훈련국장을 비롯하여 작전국장, 포병사령관, 문화부사령관 등 고급군관 100여 명이 참가하였다. 이들은 사단단위의 공격작전 전투를 상정한 시나리오에 따라 각급제대 지휘소를 기동시키면서 상황을 처리하며 기동연습을 실시하였다.⁷⁶⁾

이후 민족보위성에서는 훈련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50명의 훈련평가단을 구성하고 사단단위 야외기동훈련에 착수하였다. 1949년 12월에는 신편된 제5·제6사단을 차례로 동원하여 ‘보병사단 공격연습’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제2사단은 해안선에서 방공 및 정찰훈련과 각개 및 대대 단위의 전투훈련을 평가받았으며, 제1사단은 도로과파 및 정찰훈련에 치중한 훈련을 받았다.⁷⁷⁾

1950년 2월에는 공병부대의 진지돌파 특수훈련 및 도하작전훈련이 있었다. 적 진지돌파 특수훈련은 적의 진지 정면에 설치된 장애물과 지뢰를 제거하고 영구진지를 폭파하기 위하여 공병 특수임무부대가 적의 강력한 축성진지를 돌파하는 것으로서, 각 사단(제1·제2·제3·제5·제6사단)에서 1개소대씩 차출하여 훈련을 시킨 후 이들이 원대복귀하여 전 공병에 대한 훈련을 시키는 방법으로 추진하였다.⁷⁸⁾ 또한 민족보위성에서는 2월 말에 ‘진지돌입 및 적 배후에서의 침투’라는 명칭의 합동훈련을 실시하였는데, 이 훈련에는 2개 보병사단과 전차부대가 참가하였으며,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내렸다.⁷⁹⁾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들은 3월까지 일단 대부대 기동훈련까지 마치고 4월부터는 소련에서 도입된 신형장비의 조작훈련 및 대부대훈련에서 나타난 결점을 보충하는 부대훈련을 실시하였다.

특히 1950년에 들어와서 총참모부 소속 고급군관 40명을 대상으로 ‘특별군사문제연구’반을 구성하여 강의와 토의를 가졌는데 그 내용이 남한의 지형분석, 남한의 도로·철로 등 교통, 국군의 편성·장비·배치 그리고 국군의 창설과 성장 및 남한의 정치, 경제 등에 관한 것이었다.⁸⁰⁾ 기동훈련을 끝낸 그들이 남침일자가 가까워옴에 따라 총참모부의 고급간부들을 중심으로 전쟁지도를 위하여 비밀리에 남한과 국군에 관한 집중적인 연구를 실시하고 있었다.

(4) 警戒態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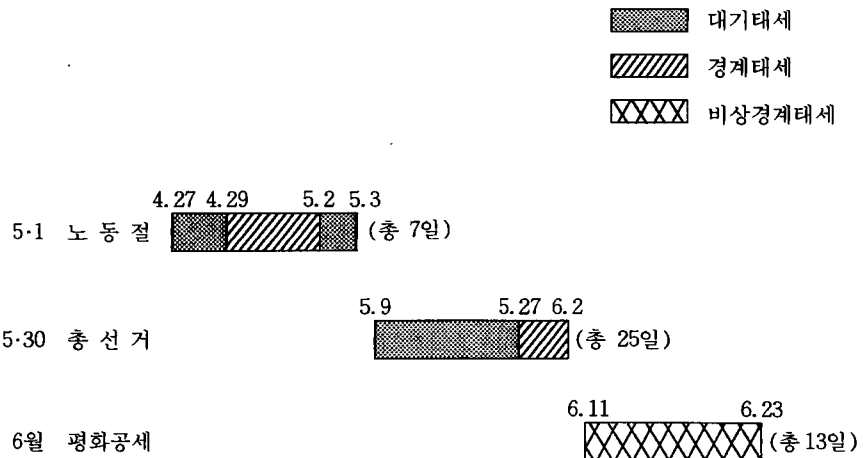
1950년 접어들어 “북한의 전쟁준비는 완료되었고 남침은 시간문제만 남겨 두

고 있다.”라는 취지의 발표가 반복되고 이승만 대통령은 “5~6월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경고하였는가 하면 맥아더 장군도 3월 10일 워싱턴으로 보낸 비밀정보보고서에서 “최근 입수된 정보에 의하면 북한이 6월에 남한을 침략할 것이라 한다.”⁸⁾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5~6월의 위기설이 파다한 가운데 1950년 4월 10일 육군총참모장에 재기용된 채병덕(蔡秉德) 소장은 4월(22일)과 6월(10일)에 8개 사단장을 비롯한 참모부장·작전·인사국장 등 군 수뇌의 인사조치를 단행하고, 당시 적의 동향과 국내정세를 고려하여 세 번에 걸친 경계 강화조치를 취하였다.

우선 4월 21일에 인민군과 공비들이 5·1 노동절을 전후하여 남침과 폭동을 기도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각 사단으로 하여금 경찰과 긴밀한 협조를 하고 관찰지역 내의 순찰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는 5월 8일에 적이 5·30 선거의 혼란기를 틈타 침략과 폭동을 기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후하여 각 부대로 하여금 비상소집 및 출동에 만전을 기하고 경계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그 다음은 적의 6·7 남북한 선거제의, 6·10 요인교환제의 등 강화되는 평화공세가 남침흥계를 호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6월 11일부터 군에 비상경계 명령을 하달하였다. 그러나 아무런 징후를 포착하지 못하자 6월 23일 24:00부로 동 비상경계령을 해제하였다.

〈표 6〉 경계태세 구분 및 기간



6월 11일부터 6월 23일, 이 기간은 인민군이 남침을 위한 공격 대기지점으로 부대이동을 한 기간이었다. 그들 계획으로는 공격일자를 2일 앞두고 있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지휘조치였다. 적은 공격준비의 마지막 단계로서 공격 대기지점으로 이동을 완료하였는데, 전군에 전투대기령을 내려도 부족할 시기에 비상경계령을 해제한 것이다. 아무튼 그간 45일이나 지속되던 오랫동안의 경계태세가 해제되자 다음날인 24일(토요일)에는 부대가 외출·외박을 실시했고, 또 농번기에 즈음한 휴가도 실시하는 등 오랫동안의 긴장상태에서 벗어나 훌가분한 마음으로 휴일을 즐기려 하였다. 이리하여 약 1/3에 해당되는 병력이 주말에 제자리를 비우게 되었다.⁸⁵⁾

한편 세 번째 비상경계 조치가 진행되고 있던 6월 17일에는, 서울에 온 미국 무성 고문 달레스(John F. Dulles)가 다음날 전방을 시찰하고 그 이튿날에는 국회의 개원식 연설에서 “미국은 한국이 어떤 외부에서의 침략을 받을 때는 물심양면으로 원조하겠다.”는 발언을 하였고, 이승만 대통령은 그에게 대한민국을 미국의 방위계획에 포함시켜 주도록 요청하였다.⁸⁶⁾ 그러나 그의 발언이나 이 대통령의 요청은 아무것도 실현되지 않았고 또한 실현할 시간여유도 없는 가운데 적의 침략을 받게 되는데 도리어 그의 전선방문은 북한에 의해 북침의 빌미로 악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38도선에서의 위기가 고조되자 유엔에서 파견된 유엔한국위원단의 현지 감시반이 6월 9일부터 6월 24일까지 강릉에서 웅진까지 38도선 전역을 순시하고 웅진에서 서울로 복귀한 24일에 안전보장이사회로 송부할 감시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는 38도선의 일반적 사태에 대하여 “38도선의 현지 시찰 이후 감사반원들이 받은 가장 중요한 인상은, 남한군은 전적으로 방어를 위하여 편성되어 있었고 북한군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감행할 상태에 있지 않았다.”라고 시작하고 있다.⁸⁷⁾ 물론 이들은 38도선 이북의 사태에 관하여, “최근 민간인이 38도선 인접지역에서 북으로 4~8km 이동한 바 있다. 웅진 북쪽 취야에 군사활동이 증대하고 있다.”⁸⁸⁾는 보고를 접한 것 외에 인민군의 비정상적 활동, 즉 침공의 징후를 포착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것이 전쟁발발 직전의 유엔 공식보고서이며 여기에서 국군은 전적으로 방위태세에 있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편 6월 24일 육군본부 상황실에서는 22~23일에 입수된 첩보를 분석하고 적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다는 데 우려하고 있던 차, 제7사단으로부터 “인민군

군관들로 보이는 일단의 무리가 아측을 향하여 지형정찰을 하는 것 같다.”는 보고를 받자, 제 첩보를 분석하여 “북괴의 전면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보며 이는 이날이나 다음날이 될지도 모른다는 판단을 내렸다.”⁸⁶⁾

정보 실무자들의 이러한 판단에 따라 이날 15:00에 채 총장을 위시하여 일반참모들이 상황실에서 긴급회합을 가지고 상황을 분석하였다. 이때 김종필(金鍾泌) 중위와 이영근(李永根) 중위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비상경계령 해제와 즉각중지, 즉시 휴가 및 외출중지, 아니면 최소한 2/3 병력의 영내대기를 건의 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으며, 채 총장은 첩보대를 포천, 동두천, 개성 등지에 파견하여 적정을 살피고 그 결과를 다음날 08:00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⁸⁷⁾

이날 밤에는 육군회관장교구락부 준공파티가 열렸고 여기에는 채 총참모장을 비롯한 육군본부의 참모장교, 참모학교 요원과 피교육자, 각급부대지휘관이 다수 참석하여 밤늦도록 연회를 벌였다.⁸⁸⁾

이리하여 기습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도 놓치고 말았다. 육군총참모장이 하 중요간부들이 술에 취해 있고 전군(全軍)의 경계상황이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운명의 날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第3節 南侵과 初期戰鬪

1. 奇襲과 衝擊

1950년 6월 25일 04:00, 가랑비가 소리없이 내리고 짙은 안개가 산골을 메운 이른 새벽, 한반도의 허리가 부러지는 폭음과 섬광이 새벽의 고요를 심하게 흔들어 놓았다.

북한 인민군의 기습 남침이 그들의 계획대로 38도선 전 지역에 걸쳐 야포와 박격포의 공격준비사격과 더불어 일제히 시작된 것이다. 인민군은 서쪽의 웅진 반도로부터 개성, 동두천, 포천, 춘천, 주문진에 이르는 38도선 전역에서 지상공격을 개시하는 한편, 강릉 남쪽 정동진과 임원진에 육전대와 유격대를 상륙시켰다.⁸⁹⁾

서울을 목표로 정한 인민군의 주공 제1군단은 연천과 운천에서 의정부에 이르는 축선과 개성에서 문산으로 이어지는 접근로에 전투력을 집중하였으며, 춘

천, 강릉을 목표로 한 조공 제2군단은 화천-춘천 접근로에 중점을 두고 계획된 축선을 따라 소련제 T-34 전차를 앞장세워 일거에 국군의 38도선 방어진지를 돌파하고 남진을 계속하였다.

이에 앞서 육군본부 상황실에는 밤새 적의 공격을 예고하는 정후의 첩보가 간헐적으로 보고되더니 새벽에는 전방사단으로부터 접적을 알리는 상황보고가 잇달았다. 01:00에는 제17연대로부터 “국사봉 북쪽에서 수 미상의 인민군이 접근하고 있다.”는 긴급전문이 들어왔고, 03:00에는 제1사단으로부터 “적이 구화리에서 도하용으로 보이는 주정을 전방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전문이 입수되었다. 03:30에는 제7사단으로부터 “양문리 북쪽 만세교 부근에서 전차의 굉음이 들린다.”라는 보고에 이어 잠시 후에는 “적의 포탄이 진전에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다급한 상황보고가 들어왔다. 이때부터 각 사단에서는 “적의 대대적인 공격이 시작되었다.”는 상황보고가 쇄도하기 시작하였다.⁹⁰⁾

당일 당직 상황근무 중이던 작전국의 조병운(曹秉雲) 대위와 정보국의 김종필 중위는 이 상황을 당직사령에게 보고함과 더불어 비상조치를 취하도록 건의하는 한편 정보·작전국장을 비롯한 각 부처 부서장들에게 통보하였다.⁹¹⁾

육군총참모장 채병덕 소장은 이날 02:00경 귀가하여 취침중 당직사령으로부터 이 보고를 받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으며 곧 상황장교 김 중위를 자택으로 불러 보다 자세한 상황을 확인한 다음 “06:00부로 전군에 비상을 발령하고 각 국장을 소집하라.”는 요지의 구두명령을 하달하였다.⁹²⁾

채 총장은 즉시 신성모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지프차를 타고 장관 관사로 가서 07:00에 적의 침공상황을 보고하였다. 이때 배석한 그의 비서의 회고에 의하면 장관은 “자못 놀라고 당황하는 표정이었으며 짐작은 하였지만 적이 일요일에 기습을 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것 같았다.”⁹³⁾고 하였다.

이와 같이 적 침공상황이 각 부대에 전파되고 비상소집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많은 지휘관과 장병들이 모처럼의 휴일을 맞아 휴가, 외출, 외박 중이어서 전화, 전령, 방송 등 각종 수단이 동원되었지만 이들의 부대복귀는 늦어지고 있었다. 총참모장은 장관에게 보고를 마친 후 곧장 육군본부로 들어와 국방부 정훈국장(육군정훈감 겸무)을 불러 “전군에 비상을 알리고 신속한 소집이 되도록 모든 방법을 다하라.”고 하였다.⁹⁴⁾

중앙방송(KBS)은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07:00에 북한의 남침 제1보를 보

도하였다. 당시 정훈국장 이선근(李瑄根) 대령의 회고에 따르면, 이때 이미 전방 경계진지가 무너졌는데도 북한이 남침공격을 하였음을 알리면서 “10만 국군이 견재하니 전국민은 염려하지 말라.”는 낙관적 문구를 넣어 방송하였다. “방송의 목적은 일반국민에게 남침사실을 알리는 데도 있었지만 휴가 또는 외박 중인 장병을 긴급히 원대복귀시키는 데 있었기 때문에 민심을 크게 자극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는 것이다.⁹⁰⁾ 이와 함께 국방부 정훈국이 중심이 된 가두방송반이 서울시내를 누비며 장병들의 부대복귀를 촉구하였다.

이러한 보도와 가두방송은 막 잠자리에서 일어나던 국민들에게는 충격이었다. 동시에 전란과 시련을 많이 겪어온 국민들로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한 마음으로 보도에 귀를 기울였다.

채 총참모장은 비상발령 및 소집조치를 취한 다음 김백일 행정참모부장(작전참모부장 겸무)과 협의하여 08:00에 예비사단인 제2·제3·제5사단을 서울로 이동하도록 명령하였으며, 11:00에 수도경비사령부 예하 제3연대를 제7사단에 배속조치하고 또 보병학교 교도대와 육군사관학교 교도대를 용산에 집결시켜



남침보도(조선일보 6월 26일자)

서울특별부대(부대장 유해준 중령)라는 임시예비대를 편성하도록 명령하였다.⁹⁰ 이러한 긴급조치를 취하며 채 총장은 문산의 제1사단사령부와 의정부의 제7사단사령부에 들러 직접 전방 상황을 파악하기도 하였다.

이 무렵 북한 정권은 그들의 남침 기습달성이 확실해지자 11:00경 평양방송을 통해, “북한인민군은 자위조치로써 반격을 가하여 정의의 전쟁을 시작하였다.”라는 표현으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하였다. 그후 13:35 방송에서 김일성은 “남한이 북한의 모든 평화통일 제의를 거절하고 이날 아침 옹진반도에서 해주로 북한을 공격하였으며, 이는 북한의 반격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남침을 은폐하기 위한 궁색한 변명을 만들어냈다. 「조선전사」에는 이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⁹¹

미제와 이승만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공화국정부의 합리적인 방안들을 거부하고 1950년 6월 25일 드디어 공화국 북반부에 대한 무력침입을 개시하여 침략전쟁을 일으켰다.

김일성은 공화국 경비대와 인민군대에게 적들의 무력침공을 저지시키고 즉시 반공격으로 넘어갈 것을 명령하셨다.

조선인민군이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무력침공을 물리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 나섬으로써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이 개시되었다.

이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치밀하게 계획하고 도발한 비극적 침략전쟁의 역사를 날조하여 조국해방전쟁이라고 미화하며 그 책임을 대한민국에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날 10:00 적기가 김포와 여의도 기지를 정찰한 후 정오경에는 인민군의 YAK 전투기 4대가 서울상공에 출현하여 용산역, 서울공작창, 통신소, 육운국청사에 기총소사를 가하고 폭탄을 투하함으로써 서울시민의 불안은 더하였다.⁹² 그런데 이때 국방부에서는 “옹진의 제17연대가 해주로 돌입했다.”는 오보(誤報)를 했고 도하(都下) 일간신문들도 이를 보도함으로써 공격을 받아 고전하고 있는 군과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을 일순간이나마 고무시키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는 연합통신의 최기덕(崔起德) 기자가 옹진에서 돌아와 정훈국에 들러 내가 옹진을 떠나 올 무렵 “제17연대 장병들의 사기는 해주를 공격하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요지의 이야기가 와전된 데서 나온 것인데, 북한에

의해 남한이 선제공격하였다는 구실로 악용되는 뜻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⁹⁹⁾

이처럼 전황에 대하여 혼란이 일고 오보로 인한 판단착오를 일으키자 국방부는 13:00에 비로소 아래 요지의 공식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것이 신문의 호외로써 전국에 전파되자 전국은 충격과 긴장, 흥분과 불안에 휩싸였다.

금일 04:00에서 08:00 사이에 북한은 38도선 전역에서 불법남침을 자행하였다. 용진, 개성, 장단, 의정부, 동두천, 춘천, 강릉 등 각 지구 정면에서 북괴는 거의 동시에 남침을 개시하고 동해안에서는 상륙을 기도하였다. 국군은 전역에 걸쳐 이들을 요격하기 위하여 긴급하고도 적절한 작전을 전개하고 있다. 동두천 정면에서 그들은 전차까지 동원하여 침입하였으나 우리 대전차포에 의해 격파되고 말았다……. 군은 이들에게 단호한 응징태세를 취하고 각 지구에서 용감무쌍한 전투를 전개하고 있다. 전국민은 군을 신뢰하고 미등함이 없이 각자의 직장을 고수하면서 군작전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¹⁰⁰⁾

국군통수권자인 이승만 대통령은 이날 비원의 반도지(半島池)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중 10:00경 경무대 경찰서장 김장흥(金長興) 총경으로부터 “북괴의 대거 남침” 소식을 듣고 경무대 관저로 돌아왔으며, 같은 시간에 경무대에 도착한 신성모 국방장관(국무총리 겸무)으로부터 “이미 개성이 함락되고 탱크를 앞세운 공산군이 춘천 근교에 도착하였다.”는 최초의 전황보고를 받고 곧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다.¹⁰¹⁾ 11:00에 국무총리 서리 신성모 주재하에 진행된 국무회의는 그때까지의 정보에 의한 신 장관의 전황설명으로는 국지적 무력충돌인지 전면적인 남침인지 분명하지 않자 전선에 나간 채 총장이 돌아올 때까지 일단 산회하였다.¹⁰²⁾

산회된 국무회의는 14:00에 대통령 주재하에 속개되었고, 채 총장은 이 자리에서 “38도선 전역에 걸쳐 40,000~50,000명의 북괴군이 94대의 전차를 앞세우고 불법남침을 개시하였으나 각 지구의 국군은 대전차포로 적전차를 격퇴하면서 적절하게 작전을 전개 중에 있다……. 후방사단을 진출시켜 반격을 감행하면 능히 격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보고하였다.¹⁰³⁾

이 대통령은 전국(戰局)이 심상치 않음을 간파했음인지, 곧 대통령령 제377호(비상사태하의 법령 공포의 특례에 관한 건)를 공포하고 긴급명령 제1호(비상사태하의 범죄처단에 관한 특별조치령)를 하달하여 전시를 맞아 반민족적 반인도적인 범죄자를 중벌키로 하였다. 이는 당시 헌법 제57조에 근거한 대통령

의 긴급명령권의 발동이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때까지 헌법 제64조에 의거한 계엄령도 선포하지 않았고 전시체제로의 전환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¹⁰⁴⁾

또한 대통령은 11 : 35 무초 주한미대사의 방문을 받고 우선적으로 탄약지원을 해주도록 요청하였다. 임병직(林炳稷) 외무부장관도 장면 주미대사로 하여금 유엔과 미국에 대한 외교활동을 전개하도록 훈령하는 한편, 미국무성·국방성 그리고 극동군사령부에 긴급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주한미대사와 유엔한국위원단과의 협조도 유지하였다. 무력충돌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거나 이에 관련된 모든 사태의 감시와 보고를 주기능으로 한 유엔한국위원단은 북한의 남침통보에 접하자 14 : 00부터 대처할 방책의 논의를 시작하였다.¹⁰⁵⁾

이 무렵 전선에서 국군은 물밀듯이 내려오는 인민군의 막강한 전차 앞에 속수무책이었으며 파괴되지도 않는 대전차화기 대신 육탄으로 적의 전차 위에 뛰어올라 수류탄으로 전차를 파괴하는 등 피어린 격전을 시도하고 있었다.

한편 남침의 급보에 접한 해군은 25일 09 : 00에 해군본부 작전명령 갑 제18호로 예하대에 비상경계돌입과 전투준비에 임하도록 명령하여 서해의 제1정대와 동해의 제2정대 및 각 경비부는 해상경계를 강화하고 적의 상륙에 대비하였다.¹⁰⁶⁾

공군은 적기의 정찰이 시작된 25일 10 : 00, 같은 시간에 여의도 기지내에 공군작전지휘소를 설치하고 당면한 전황을 검토한 후 신속한 전투태세를 갖추는 한편, T-6 및 L형 항공기로 적의 남하를 최대한 저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제공권이 적에게 있어 일몰경에야 T-6가 편대를 짜서 적의 접근로로 정찰에 나설 수가 있었다.¹⁰⁷⁾

하지만 무력 적화통일의 망상에 사로잡힌 김일성 정권의 전쟁도발은 우리의 조국강토를 순식간에 피로 물들게 하였고, 병력과 화력 및 장비 면에서 열세한 국군은 안타깝게도 각 지구에서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지 않을 수 없었다.

2. 首都圈 作戰

(1) 初期戰鬪

인민군의 공격작전은 수도의 장악이 전쟁의 승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 왔다는 역사의 교훈과 서울이 갖는 정치·경제·사회·문화·심리 등 제반 분야의 중요

성에 비추어 수도 서울의 점령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2개군단의 주력이 이곳을 목표로 공격하였다. 인민군 제1군단은 연천·운천-의정부-서울에 이르는 주공축선에 전투력을 집중하고, 개성-문산-서울에 이르는 공격축선에 조공을 투입하였는가 하면, 제2군단도 주력을 춘천-가평-서울 및 춘천-홍천-수원 방향에 투입하였다. 이들은 서울을 계획대로 양익에서 포위하여 점령하고자 하였다.

1) 東豆川·抱川地區 戰鬪

적 주공이 지향된 의정부 북방의 국군 제7사단 정면에서는 인민군 제3사단이 운천에서 포천으로, 제4사단이 연천에서 동두천 방향으로 각기 제109·제107전차연대와 협동하여 전격적인 속도로 남하하고 있었다.

적 주공이 지향된 의정부 북방의 국군 제7사단은 적성에서 사직리까지 47km의 정면을 방어하였다. 당시 제1연대가 동두천 정면, 제9연대가 포천 정면을 담당하였는데 연대의 각 1개대대가 38도선 경계를 실시하고 주력은 교육훈련 중에 있었다. 사단은 예하의 제3연대가 수도경비사령부로 예속변경되고 그 대신 온양의 제2사단 제25연대가 편입되도록 명령이 하달되었으나 아직 도착되지 않아 사단예비를 보유하지 못하였다.

국군 제7사단은 인민군의 공격이 개시되자 비상소집을 실시하는 한편, 전방에 추진 배치된 경계부대로 하여금 적의 전진을 저지시키면서 제1연대(연대장 威俊鎬 대령)와 제9연대(연대장 尹春根 대령)를 적 접근로상의 주진지에 신속히 배치하기 위하여 서둘렀다. 그러나 당시 전방 양개 연대의 주력은 의정부에서 교육훈련 중이어서 이들이 집결하여 감악산(紺岳山)-마차산(馬車山)-소요산(逍遙山)-가랑산(加郎山)-천주산(天柱山)을 연하는 주저항선에 투입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였다.

동두천 북방 제1연대 정면의 적 인민군 제4사단(사단장 이권무 소장)은 전곡(全谷)-초성리(哨成理)-동두천 방향에 전차 2개대대로 증강된 보병 제16연대를 주공으로 투입하고, 그 서쪽의 적암-봉암리 축선에 제18연대를 조공으로 투입하여 병진공격을 실시하였다. 전곡에서 한탄강을 건너 제1연대 제2대대 경계진지를 돌파하고 초성리를 점령한 인민군 제4사단 제16연대는 전차를 선두로 동두천 전방으로 진출하였다.

이때 제1연대 제2대대는 주저항선인 동두천 북쪽 소요산 일대의 진지로 철수하여 남하하는 인민군과 일진일퇴의 치열한 전투를 계속하면서 진지를 사수하

고 있었다. 이처럼 제2대대가 적의 강력한 보·전협동부대를 저지하고 있을 때 연대장은 제1대대를 제2대대 서측 주저항선인 마차산에 투입하고, 제3대대를 마차산 남쪽 봉암리에 계획대로 배치하였다. 그러나 제1대대가 마차산의 방어 진지를 점령하였을 때 적은 이미 마차산 서측으로 우회하여 덕정 방향으로 남하 중에 있었다. 따라서 제1대대는 이들과 접촉을 이루지 못하였고 또 동측 3번 도로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2대대와는 거리가 멀어 지원도 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적은 제3대대와의 접촉을 피한 채 서측으로 우회 남하하였다. 이로써 제1연대는 개전초기의 긴박한 상황하에서 1개대대만이 사투를 벌이고 2개대대가 접촉도 갖지 못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한편 동두천 부근 보산리(保山里)까지 추진되어 준비된 진지를 점령하고 있던 제1연대 직접지원 포병 제5야전포병대대 제2중대는 제2대대 정면에서 밀집 대형으로 도로를 따라 남하하는 적 1개대대에 집중포격을 가하여 대부분을 격멸하는 수훈을 세웠다. 그 후 몇 시간이 지난 다음 적은 또다시 전차 2대를 앞세우고 공격을 재개하였다. 이때 제1연대 57밀리 대전차포 중대장은 창말고개(소요산역 북쪽 500m)에서 선두전차 2대의 측면을 사격하여 모두 파괴하였다. 이렇게 되자 후속하던 적의 공격제대는 다시 초성리 쪽으로 후퇴하였다.

이 무렵 제1연대 제2대대와 지원부대병력은 탄약이 떨어져 재보급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으나 즉각적인 조치는 불가능한 형편이었다. 결국 15:00경 제107전차연대 소속의 전차 수십 대를 앞세운 적 제4사단의 총공격에 소요산 일대의 주저항선은 돌파되기 시작하였고 제2대대는 10시간에 걸친 혈전을 하였으나 철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적은 주저항선을 돌파한 공격기세를 이용하여 해질 무렵에는 동두천 시내로 돌입하였다.

국군은 어둠 속에서 시가전을 펼쳤으나 역부족으로 덕정으로 철수하여 집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 마차산의 제1대대에는 유·무선 통신의 두절로 철수 명령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날 포천 북방 제9연대 정면은 연대장이 전날 장병들의 외출·외박을 허가하지 않고 전 장병을 영내 대기시켰다. 연대 정면의 적 제3사단의 활동이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징후를 포착하고 취한 지휘조치였다.

적 제3사단은 타지역의 적보다 20분이 앞선 03:40부터 국군의 경계초소와 거점을 중심으로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하고 전차 40여 대를 앞세워 주공부대를

양문리(지금의 38휴게소)로부터 포천에 이르는 43번도로에 투입하였다.

또한 양문리 서쪽 영평리에서 포천 북쪽 가랑산에 이르는 축선에 투입된 적의 조공은 전차의 지원 없이 소로를 따라 4열중대의 밀집대형으로 경계진지 전방으로 접근하다가 아군으로부터 사격을 받은 후에야 전투대형으로 전개하였다.

이 지역에 배치된 국군의 전초 제9연대 제6중대는 악착같이 저항하여 수차에 걸친 적의 과상공격을 계속 물리치고 적의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연시켰다. 이로 인해 양평리-가양리 접근로를 통해 측후방을 강타, 포천을 조기에 점령하고, 제9연대 주력의 퇴로를 차단하려던 적의 기도는 좌절되었다.

이 동안 제9연대장은 주저항선인 천주산에 제1대대를, 좌측 신북교를 포함한 가랑산에는 제3대대를 의정부 집결지로부터 추진 배치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 아래에서 경계부대였던 제9연대 제2대대는 만세교 남쪽의 160고지에서 철수병력을 수습하면서 전차를 앞세운 적과 교전하였으나 탄약이 부족하여 평촌을 거쳐 퇴계원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이날 09:00에 적 제3사단의 주력은 보·전협동작전으로 포천읍 북방 주저항선까지 진출하였다. 적의 전위대로 보이는 전차 2대는 아군 방어진지의 전방까지 진출하여 57밀리 대전차포 4문을 파괴한 연후에 일단 철수하였으며, 약 1시간 후에 전차와 자주포, 장갑차 및 차량으로 혼성된 약 80여 대의 기갑부대가 아군의 57밀리 대전차포 2문을 파괴하고 노도와 같이 밀어닥쳤다.

이렇게 신북교 일대에서 43번도로 접근로를 방어하던 제3대대의 주진지가 순식간에 무너졌다. 적의 기갑부대는 국군의 주저항선을 돌파한 후 11:00경에 포천을 점령하고, 그 여세를 몰아 포천 남쪽에 포진한 제5야전포병대 진지를 유린하였다. 이때 연락장교편으로 “지금 제3연대가 포천으로 출동 중이니 이와 협조하여 탄장(炭場)선에서 적을 저지 격멸토록 하라. 만일 현 진지에서 저지 불가하면 예비진지에서 이를 격멸토록 하라.”는 사단의 구두명령이 도착하였다. 그러나 현지 상황은 이미 예비진지까지 적에게 피탈된 데다 사단과의 통신도 두절된 상태이므로 제9연대장은 축석령에서 증원부대와 합세하려는 결심하에 연대장 재량으로 광릉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연대는 17:00경 먹구름의 은폐와 쏟아지는 비를 틈타 서파(西坡) 방향으로 철수를 감행하였다. 그러나 제3대대는 연대지휘망의 두절로 명령을 수령하지 못하여 진지를 지키고 있다가 철수시기를 놓쳐 이날 밤에 좌인점 제1연대지역 덕정 부근으로 철수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전투력의 큰 손실을 입었다.¹⁰⁸⁾

서울에 있던 수도경비사령부 예하 제3연대(연대장 李尙根 중령)는 비상발령 후 제7사단에 배속명령을 받고 소집된 600여 명의 병력으로 2개대대를 혼성편성하여 연대장이 도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3대대장(金鳳翔 소령) 지휘하에 주둔지인 서빙고를 떠나 포천으로 향하였다.

제7사단의 동측 제9연대를 증원하는 임무를 띤 제3연대가 15:00경 포천 남쪽 송우리(松愚里) 부근에 이르렀을 때, 포천 읍내에서는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뒤늦게 합류한 연대장은 제7사단 사령부에서 확인한 불확실한 적정과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포천 부근의 상황을 종합판단한 끝에 송우리에 방어진지를 급편하기로 결심하고 태봉산(胎峰山)과 그 남쪽에 2개대대를 배치하였다. 그러나 제3연대의 방어진지 편성이 미처 끝나기도 전인 17:00경 전차 7~8대를 선두로 하여 자주포, 장갑차, 차량 등 150대로 이루어진 적의 대기갑부대가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대규모의 기갑부대를 맞아 장비가 열세한 제3연대는 81mm 박격포를 비롯한 각종 화력을 집중하고 57mm와 2.36" 대전차포로 전차를 공격하며 싸웠으나 적의 전차 1대만을 도로변 배수로에 빠지게 하였을 뿐 적의 포격과 기총사격에 완전 압도되어 거의 저항을 포기한 상태로 빠져 들었다. 이처럼 위급한 상황 아래서 연대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더 이상 방어진지를 지탱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제3대대장은 연대장을 대신하여 철수명령을 하달할 수밖에 없었다.¹⁰⁹

결과적으로 작전 초일에 국군 제7사단은 동두천과 포천 및 송우리까지 피탈당하고 부대의 전력이 분산되어 의정부 방어가 위태로운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2) 開城-汶山地區 戰鬥

수도권에 이르는 북서 접근로인 개성-문산-서울에 이르는 축선에서는 국군 제1사단이 청단에서 고랑포까지 약 94km에 달하는 광대한 정면에서 방어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제1사단은 제12연대(청단-대원리)와 제13연대(대원리-고랑포)를 전방에 배치하고 제11연대를 수색에 예비로 보유하여 38도선 경계를 하다가 적이 공격을 해오면, 광정면이라는 취약점 때문에 임진강 남안으로 철수하여 문산-적성간의 준비된 전방방어진지에서 고수방어를 하고, 불연(不然)이면 파주 남쪽 예비진지에서 적을 방어한다는 계획이었다.

제1사단 정면의 인민군은 제203전차연대로 증강된 제1 및 제6사단(-)의 2개사단으로서 그 중 제1사단은 구화리-고랑포-문산 방향으로, 제6사단은 개성-문산 방향으로 주력을 남하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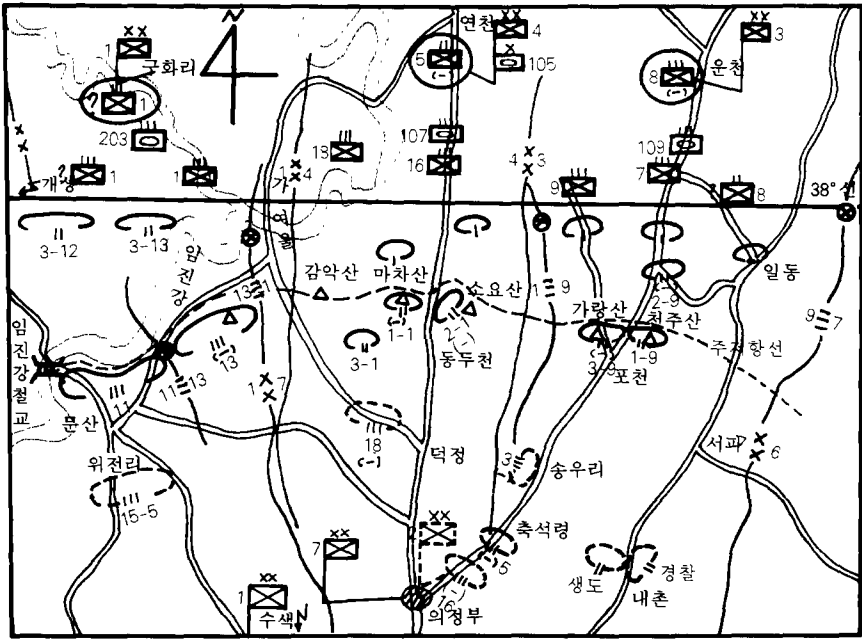
제1사단(사단장 白善樺 대령)은 적의 강력한 기습공격을 받고 38도 분계선에 배치된 제12연대와 제13연대 제3대대가 초전(初戰)에 각개 격파되었다. 개성은 09:30경에 적에게 점령되었다. 적 제6사단 제13연대가 송악산에서 국군 제12연대 제2대대 경계진지를 공격하는 동안 그들의 제15연대가 경의선 철로를 이용하여 기차를 타고 개성역으로 들이닥쳐 순식간에 이곳을 점령하고 경계진지를 양단하면서 배후를 위협하기 시작하였다.¹¹⁰⁾

이 과정에서 많은 손실을 입은 제12연대는 장단-문산 방향과 영정포-김포반도로 철수하고 일부는 퇴로가 차단되어 서해로 빠져 나가야 했다. 제13연대 제3대대도 전방중대가 돌과되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제12연대보다는 유리한 지형을 잘 이용하여 적을 지연시키면서 임진강 남쪽으로 철수하였다. 이 동안 사단의 작전계획대로 사단 동측지역 주저항선인 파평산 진지는 제13연대(-)가 점령하고 사단예비로 수색에 있던 제11연대는 사단 서측방 주저항선을 점령하였다. 이 당시 제13연대 제1대대는 주진지 부근에서 대대훈련 중이어서 조기에 진지를 점령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국군의 38도선 경계진지를 돌파한 적은 그 공격기세를 몰아 남진을 계속하여 임진강 철교와 도섭이 가능한 가여울(적성 북쪽)로 진출, 임진강 도하를 위한 교두보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사단 주저항선의 전방을 흐르는 임진강은 강폭이 300~1,000m에 이르고 수량이 풍부하며 강 하류는 만조시 수심이 증가하여 주월리까지 그 영향이 미친다. 또한 강 양안에는 단애가 형성되어 있어 인접 제7사단과 접경지역인 가여울을 제외하고는 도섭이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지형적인 여건 때문에 부대기동, 특히 기갑부대의 도하가 제한되어 적은 임진강 철교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가여울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임진강 철교 남쪽의 주저항선에 병력을 배치하게 된 제11연대장(최경록 대령)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마정리(馬井里) 일대의 1번도로 좌우측에 제1대대를 배치하고 연대 57밀리 대전차포중대와 사단으로부터 배속받은 수도경비사령부 소속 57밀리 대전차포중대를 이곳에 증강 배치하였으며, 대안의 무명고지에 증강된 1개소대 규모의 전투전초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연대 동측 임진강 나루터 남쪽 화석동(化石洞) 일대에는 제2대대를 배치하고 제3대대는 예비로 연대

수도권 작전



지휘소가 있는 적전리(赤田里)에 집결보유하였다.

이 무렵 임진강 건너편에서 제12연대장(全盛鎬 대령)이 상처를 입고 임진강 철교를 건너왔고 연대 일부 병력이 철수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적이 추격해 오고 있었다. 연대장은 제12연대의 철수상황을 확인한 후 사단장에게 철교 폭파를 건의하였다. 임진강 철교의 폭파를 책임진 사단공병대대장은 이 임무를 공병제3중대장 김동일(金東日) 대위에게 부여하고 있었다. 그런데 철교를 폭파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제3중대장의 행방을 알 수 없었다. 대대장은 할 수 없이 공병대대 작전장교인 정극서(鄭極徐) 대위에게 철교폭파 임무를 수행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정 대위는 제11연대장과 철교폭파에 대하여 협조한 다음, 철교에 폭약을 장전하고 점화하였으나 불발이었다.

정 대위가 급히 폭파병 두 명을 이끌고 도폭색과 뇌관을 다시 연결하고 있을 때 대안에서 인민군의 사격이 집중되어 끝내 철교를 폭파하지 못하고 철수함으로써 임진강 철교 폭파는 실패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인민군은 경의선을 통한

양호한 접근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무렵 대안에 추진되었던 전초진지 전방에서 전술행군 대형으로 1번도로를 따라 남하하는 대규모의 인민군 병력을 발견하였고 이들이 전초진지 전방에 도달했을 때 포병의 지원사격을 요청하여 포격을 가하는 한편, 임진강 철교 부근으로 진격해 오는 인민군에 대하여 치열한 사격을 가하였다. 적은 임진강 철교를 확보하기 위해 수차에 걸쳐 공격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일단 공격을 중단하고 국군이 철교를 폭파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 무렵 사단의 동측 주방어선인 파평산의 제13연대는 가여울-적성-문산에 이르는 도로축선에 적이 진출할 것에 대비하여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날 늦게 대대규모의 인민군이 파평산 서북쪽 고랑포-자하리 방향으로 공격해 오다가 사단의 계획된 살상지대에 걸려 화력에 의해 격멸되었다.

이로써 제1사단은 적의 공격 초일 비록 제12연대가 많은 손실을 입고 분산 철수하기는 하였지만 임진강에 연한 방어진지를 확보하였다.

3) 襄津地區 戰鬪

한편 개성 서쪽 웅진반도에서는 국군 독립 제17연대(연대장 白仁燁 대령)가 45km에 달하는 38도선 경계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연대장은 대치 중인 적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아 적의 남침 전일에 제1, 3대대로 하여금 모두 진지를 점령하고 경계를 강화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예비인 제2대대도 출동 준비태세를 갖추어 두고 있었다. 이는 적의 전면 남침 징후를 포착해서가 아니라 적이 웅진을 공격할 것으로 추단한 조치였다.¹¹⁾ 연대의 작전계획은 적의 국부적인 공격에는 경계진지를 고수하거나 지연전을 전개하며 전면전시에는 웅진에서 철수하도록 되어 있었다.

제17연대 정면의 적은 인민군 제6사단 예하 제14연대와 제3경비여단으로서 제14연대는 전차를 선두로 제3대대 정면 취야에서 양원 및 강령 방향으로, 제3경비여단은 기마대를 앞세우고 제1대대 정면 옥동에서 웅진 방향으로 공격을 해왔다.

적의 기습을 받은 제17연대는 초전부터 악전고투하였으며 좌전방 제1대대(대대장 김희태 소령)의 주저항선이 06:00경 인민군에 의해 돌파되었다. 연대장은 지체 없이 예비대인 제2대대(대대장 宋虎林 소령)를 투입하여 역습에 성공하였으나 우전방의 제3대대가 이번에는 적의 강력한 보·전협동 공격 앞에 철

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적은 아군에게 재편성할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고 공격기세를 계속 유지하여 17:00경에는 웅진과 강령을 점령함으로써 연대 방어진지는 동서로 양분되고 말았다.

제17연대장은 이와 같이 전투지역이 양분되어 웅진반도를 지탱할 수 없게 되자 연대본부와 직할대 및 제3대대는 지연전을 전개하면서 부포항에 집결, 다음 날 오전에 해군함정 편으로 해상 철수를 단행하였다. 그리고 웅진지역에서 역습에 성공한 제2대대는 제1대대 및 연대직할대의 낙오병을 수습하면서 사곶항에서 민간 선박 편으로 철수하였다.

(2) 軍豫備의 前方展開

채병덕 총참모장은 이러한 상황의 전개에 대응하여 기하달한 명령에 따라 우선 재경부대를 의정부지구에 중점을 두고서 전방사단에 투입하여 방어력 강화 조치를 취하였다. 이날 11:00에 수도경비사령부 예하 제3연대를 제7사단에 배속한 데 이어 오후에는 제18연대(-1)도 추가 배속하고, 제8연대는 제6사단에 배속하여 가평지구로 투입하였다. 또 서울특별연대는 제1사단에 배속하고, 육군사관학교 생도대대(전투경찰 1개대대 배속)는 포천으로 진출한 적의 일부가 서울 동측으로 우회할 것에 대비 내촌(內村)으로 투입하였다. 그리고 포병학교 교도대대와 독립기갑연대 장갑대대도 <표 7>과 같이 전방사단지역으로 전개시켰다.

이와 같이 재경부대의 투입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날 오후부터는 의정부가 위태로운 상황에 접어들게 되자, 육군본부는 서울에 도착하기 시작하는 후방사단도 부대가 도착하는대로 의정부에 우선권을 두고 전방으로 투입하였다.

후방사단에 대한 동원명령은 이날(25일) 08:00에 하달되었다. 하지만 당시 이들 사단은 연대 및 대대단위로 분산되어 작전 중인데다 영외로의 외출·외박 인원이 많아 이들의 집결과 소집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연대 또는 사단단위의 집결된 부대이동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각 사단은 완전편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대대별로 집결되는 대로 열차를 이용하여 출발하였다. 또 목적지인 서울에서도 부대가 모두 도착한 다음에 사단단위로 운용하기에는 전방상황이 너무도 위태롭다는 것이 당시 채병덕 소장의 상황판단이었다.

서울 용산에 가장 먼저 도착한 부대는 제2사단지휘부와 제5연대(-1)이었다.

〈표 7〉 재경부대의 전방전개(6. 25~6. 26)¹²⁾

지 원 부 대	피 지원부대 및 지 역	출 발	전 개
수도사단			
제3연대	제7사단	25, 11 : 00(서울)	25, 20 : 00(의정부)
제8연대(-1)	제6사단	25, 오후(서울)	25, 박모(가평)
제18연대	제7사단	25, 19 : 00(서울)	25, 21 : 00(의정부)
서울특별연대			
육사교도대대	제1사단	25, 오후(서울)	25, 박모(문산)
보교교도대대	"	"	"
육군사관학교			
생도대대	제7사단	25, 16 : 00(서울)	25, 19 : 00(내촌)
경찰대대	"	"	"
육군포병학교			
제1교도대대(57mm)	제1, 7, 6사단	25, 16 : 00(영등포)	25, 오후(각 부대)
제2교도대대(105mm)	제7사단	26, 01 : 00(서울)	26, 아침(금오리)
독립기갑연대			
제1대대(장갑차)	제1, 7, 6, 8사단 김포전투사령부	25, 15 : 00(서울)	25, 오후-26, 오전 (각 부대)
육본장교연대	의정부전투사령부	26, 19 : 00(서울)	26, 21 : 00(창동)

이때 채 총참모장은 “곧 의정부로 전진하여 적을 저지하라.”고 구두명령을 하달하였고, 제2사단장 이형근(李亨根) 준장은 “사단 주력의 집결은 명일 아침에야 이루어질 것이며 날도 어둡고 지형도 생소하므로 병력의 축차적 투입의 우를 범하지 말고 차제에 한강선 방어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라는 요지의 건의를 하였다. 그러나 채 총참모장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5연대(-1)는 총참모장의 명령대로 화차에 탑승한 채 용산역을 출발하여 20 : 00에 의정부 금오리에 도착하였다. 제2사단의 나머지 제16연대(-1)와 제25연대(-1)는 다음날 오전까지 의정부로 투입되었다. 그리고 제3사단의 제22연대, 제5사단의 제15연대와 제20연대도 서울로 이동 후 연대·대대별로 분리되어 김포·문산·의정부 방면으로 투입되었다.

(표 8) 후방사단의 전방전개(6. 25~6. 27)¹¹³⁾

지 원 부 대	피 지원부대 및 지 역	출 발	전 개
제2사단			
제5연대(-1)	의 정 부	25, 19 : 00(대전)	25, 20 : 00(금오리)
제16연대(-1)	"	25, 19 : 00(청주)	26, 07 : 00(의정부)
제25연대(-1)	"	25, 21 : 00(온양)	26, 11 : 00(창동)
제3사단			
제22연대 제3대대	김포전투사령부	25, 11 : 00(대구)	25, 오후(김포)
제22연대(-1)	제1사단	"	26, 오후(벽제)
제5사단			
제15연대 제3대대	제1사단	25, 오후(전주)	26, 오후(봉일천)
제20연대 제3대대	"	25, 밤(광주)	26, 밤(봉일천)
제15연대 제2대대	미아리전투사령부	26, 03 : 00(전주)	27, 08 : 00(미아리)
제20연대 제1대대	"	26, 오전(광주)	"

이러한 긴급조치에 따라 이날 의정부 전선에 증원된 병력은 5개연대 총 15개 대대(포병학교 포병대대, 육사생도대대, 전투경찰대대 포함)에 달하였다. 하지만 투입된 병력은 비상소집된 순서대로의 임시편성이어서 부대건제가 갖추어지지 않았고 도착하는 대로 축차적인 투입을 한 데다가 유·무선 통신망이 구비되지 않아 횡적 연락과 협조는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상·하부대간의 지휘체제마저 확립되어 있지 않는 등 전투준비의 미비로 소기의 전투력을 발휘하기 어려웠다.¹¹⁴⁾

결국 국군은 인민군으로부터 불의의 기습공격을 받고 그날 38도선에서 철수하여 수도권 전방의 제7사단은 동두천 및 송우리를 연하는 선까지 밀려나 의정부를 위협받고 있었으며 제1사단은 임진강을 연하는 선에서 대치 중이었고 웅진반도의 제17연대는 해상철수를 단행하였다. 따라서 당일의 상황은 서울을 방어하기 위하여는 의정부 북방의 적을 어떻게 저지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3) 議政府 反擊作戰

총참모장 채병덕 소장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의정부를 고수해야 한다.’는 결의를 굳히고 재경부대(在京部隊)는 물론 긴급히 동원된 후방부대가 서울에 도착되는 대로 이곳에 집중 투입하면서 26일 01:00에 의정부에 있는 제7사단사령부를 방문하여 제7사단장과 제2사단장에게 반격명령을 하달하였다.¹¹⁵⁾ 명령을 수령한 제7사단장 유재홍 준장은 그 명령이 불만스럽기는 하였지만 최고지휘관의 명령이라 이에 승복하였다. 그러나 제2사단장 이형근(李亨根) 준장은 반격작전을 실시할 시기가 아니라는 그의 판단을 설명하고, 다음날 사단 병력이 모두 도착한 연후에 전투력을 집중운용하도록 건의하였으며, 아울러 방어에 유리한 한강선 방어를 역설하였다.¹¹⁶⁾

이에 대한 총참모장의 반응은 냉담하였다. 그는 강경한 어조로 명령대로 작전을 전개하도록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대전차 방어수단으로서 수류탄과 화염병을 가지고 육탄공격을 감행하도록 강력히 지시하였다.

이 명령에 따라 제7사단은 26일 아침에 행동을 개시하여 동두천을 목표로 공격하게 되었으며, 제2사단은 축석령을 경유, 포천으로 진출할 계획이었다.

반격명령을 받은 26일 새벽, 당시 제7사단의 가용 전투병력은 제1연대의 2개 대대와 동 연대 작전통제하에 있는 제3연대 제2대대 그리고 전날 사단에 배속된 제18연대의 2개대대로 모두 5개대대였지만 실병력은 증강된 1개연대 규모에 불과하였다.

이 무렵 동두천을 점령한 인민군 제4사단은 동두천에서 공격제개를 위한 재편성을 완료한 후 서측의 봉암리-덕정으로 통하는 도로 접근로에 주공을 지향시켜 공격개시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이 동두천에서 양호한 3번도로를 공격축선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은 그곳에 국군의 강력한 저항이 있으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제1연대는 반격을 위해서 덕정에서 철수병력을 수습하여 재편성한 혼성대대(韓泰源 중령이 지휘)와 제3대대를 전방 공격제대로 하고 제3연대 제2대대를 예비로 하여 26일 08:00 공격을 개시하였다.

같은 시간에 신성모 국방장관은 중앙방송국(KBS)에 나가 “침입한 적은 국군의 반격으로 후퇴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군은 총반격전을 개시하였는바 차제에

압록강까지 진격하여 민족의 숙원인 국토의 통일을 완수하고자 말 것이다.”라는 요지의 생방송을 실시하였고 이는 이후에도 반복 방송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전세를 낙관하게 되었다.

개전초기부터 철수, 방어 그리고 또 철수로 이어진 수세적인 전투만 겪어오던 장병들은 공격으로 전환하자, 활기차고 사기왕성한 가운데 진격하였다. 유일선의 혼성대대는 뜻밖에도 적정이 거의 없는 가운데 3번도로를 따라 동두천을 탈환하고 소요산까지 진출하였다.

반면 좌일선인 제3대대는 용암리(龍岩里)에서 봉암리를 목표로 진출하던 중 하비리(下脾里) 부근에 이르렀을 때에 북쪽에서 남하하고 있는 인민군의 기갑부대와 조우하였다. 제3대대 병력은 150여 명으로 1개중대 규모에도 미달되는 전투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대는 과감하게 공격하였으나 교전한 지 30분 만에 분산되었다.

제3대대장은 흩어진 일부 병력을 수습하면서 우이동(牛耳洞)으로 철수하였으며 연대장의 명령에 의해 오봉산(五峰山)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부대대장이 이끄는 일부 병력은 천보산을 넘어 수락산-태릉으로 철수하고 그 일부 병력은 도락산을 거쳐 창동으로 철수하는 등 제3대대는 부대건제가 완전 와해되고 말았다.

한편 덕정에 위치한 제1연대지휘소에서는 혼성대대장으로부터 동두천을 탈환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기뻐했으나 얼마 뒤에 철수명령을 하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이유는 제3대대가 조우했던 인민군 제4사단의 주력이 양호한 3번도로가 아닌 서측의 우회도로를 이용하여 예기치 않은 방향에서 덕정을 포위하였기 때문이었다.

제2사단의 반격작전은 실제로는 1개대대로써 시작되었다. 당시 사단병력은 제5연대의 2개대대밖에 없었으며 전날 청주에서 출발한 제16연대는 그 한 시간 뒤에 창동에 도착하였다. 이 병력을 가지고 목표인 포천을 탈취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단장은 작일 투입된 제3연대가 축성령을 방어¹⁷⁾하고 있는 만큼 일단 축성령에서 상황추이를 보아 가면서 그곳을 공격발판으로 하여 포천으로 진격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제3연대는 이미 축성령을 포기하고 금오리로 철수 중이었다.

제5연대는 연대장 백남권(白南權) 대령이 주일 미군부대에 파견 중이어서, 부대연장 박기성(朴基成) 중령이 연대장을 대리하고 있었으나, 남침 당일은 부대연장도 부산으로 외출 중이어서 위급한 시기에 지휘관이 부재였다. 하는 수 없이 사단참모장 최창언(崔昌彦) 중령이 연대병력을 인솔하여 의정부 동북쪽

금오리로 진출하였었다. 반격명령을 받고 출발 전에 연대는 탄약보급을 요청하였다. 이는 작일 연대가 대전에서 출발할 때 시간이 촉박하여 반기수에도 미달되는 실탄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단 또한 급히 이동한 관계로 탄약이 있을 리 없었다. 결국 제7사단과 협조하여 축석령에서 추진보급을 받기로 하고 우선 병력을 출발시켰다.

연대 선봉대로서 26일 03:00에 금오리를 떠난 제5연대 제2대대는 이날 새벽 축석령 고갯마루에 도착하였으나 제3연대가 배치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그 대신 제9연대와 제3연대의 낙오병들이 길가에서 갈피를 못 잡고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축석령 북쪽에서는 전차의 집단이 접근해 오는 이동소음을 들을 수 있었다.

상황이 위급함을 느낀 제2대대장(車甲俊 소령)은 축석령 고개 좌·우측에 급편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잠시 후 안개가 거지면서 장사진을 이룬 인민군의 기갑부대가 축석령 고개를 올라오고 있는 것이 관측되었다.

제5연대 장병들은 전차를 보고도 겁내지 않고 의기양양하게 버티고 있었다. 공비토벌작전에서 다소의 실전을 경험한 그들은 T-34 전차의 위력을 전혀 모르는 가운데 인민군 전차부대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

인민군 기갑부대는 느린 속도로 접근해 오고 있었다. 제2대대장은 휴대한 실탄이 얼마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사격을 통제하였으며 선두전차가 방어진지 전방 200~300m 지점에 이르렀을 때 대대의 전 화력을 집중시켰다. 60밀리 및 81밀리 박격포 그리고 2.36인치 로켓포도 불을 뿜었다. 그러나 적 전차는 끄덕도 하지 않고 계속 접근해 오자 대대장병들은 괴물처럼 다가오는 전차에 대해 슬그머니 겁을 먹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몇 발 되지 않는 실탄을 다 사격한 후 각자의 진지에서 이탈하기 시작하였다. 교전한 지 10분도 안 되어 의정부 방어의 요지인 축석령의 방어진지가 삼시간에 무너져 버린 것이다. 또한 제2대대를 뒤늦게 후속하던 제1대대는 축석령에 올라오지도 못하고 적의 기갑부대 공격에 밀려 퇴계원 쪽으로 철수하였다.

이렇게 제2사단의 1개연대가 적에게 제대로 싸워 보지도 못하고 격과당하자, 반격은 고사하고 이제는 의정부로 남하하는 적을 저지하는 데도 급급하게 되었으며, 좀 늦게 도착한 제16연대(연대장 文容彩 대령)를 의정부 동북쪽 상금오리 부근의 감제고지에 배치하여 축석령에서 밀려오는 적의 진출을 저지하려 하였다. 부대를 배치하고 약 1시간이 지났을 무렵 전차 20대를 앞세운 인민군의

공격대열이 방어진지 전방으로 육박하였다.

제1대대 부대대장 김진동(金鎭東) 대위가 지휘하는 대전차 특공대가 2.36인치 로켓포로 선두전차에 기습적인 집중사격을 가하여 도로 옆 배수로에 빠지게 함으로써 적의 진출을 잠시동안 지연시킬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제16연대의 2개대대는 능선을 타고 방어진지에 접근한 적 보병부대와 한차례의 교전을 치렀으나 승산이 없자 태릉과 호원동으로 철수하였다. 26일 12:00경 의정부 동북쪽 제16연대의 진지를 돌파한 적 제3사단은 의정부를 향해 계속 남하하고, 덕정을 점령한 제4사단은 의정부를 북서쪽에서 협공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다급한 상황 아래서 의정부 바로 북쪽 금오리에 포진한 육군포병학교 제2교도대대장 김풍익(金豊益) 소령은 제2포대장 장세풍(張世豊) 등과 105밀리 곡사포로 선두전차의 무한궤도를 파괴하였다. 그러나 제2탄을 장전하는 순간 후속전차의 사격으로 장렬한 전사를 하였다.¹¹⁶⁾ 그 직후부터 적 전차부대는 아군의 저항이 거의 없는 가운데 26일 13:00경 서울의 관문이며 교통의 요충지인 의정부를 점령하였던 것이다. 당시 의정부 시내에서는 철수하는 군인과 부상병, 뒤늦게 피난길에 오른 주민들의 인파로 대혼잡을 이루고 있었으나 속수무책이었다.

한편 의정부 상황이 혼미를 거듭하고 있던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는 작전지도 지침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 신성모 국방부장관은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군사경력자들의 자문을 받아 난국을 타개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날 10:00에 현역 및 재야 원로급 군사경력자들을 국방부로 소집하여 작전지도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는 각군 총참모장, 김홍일 소장(참모학교장), 송호성 준장(전 경비대총사령관), 유동열(전 통위부장), 이범석(전 국방장관), 이청천(전 광복군사령관), 김석원(전 제1사단장) 등이 참석하였다.

회의 벽두에서 신 장관과 채 총장은 “군은 의정부에서 북괴군을 반격하고 있으며 전황은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고하였다. 김홍일 소장은 작전지도 방침의 확정을 강조하는 한편, 의정부 정면에서의 공세 이전을 위협시하고 한강 이남에서의 결전을 주장하였으며 김석원, 이범석도 이에 동조하였다. 그러나 결국 이 회의는 신 장관과 채 총장의 서울 고수론을 꺾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이날 회의에 배석하였던 수도경비사령관 이종찬 대령은 “군사경력자회의에서

군의 원로들은 한강선에서 군을 정비하고 새로운 대세에 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본인과 채 총장은 서울 고수론을 주장하였다.”라고 회고하였다.

이 대령은 “당시 작전방침으로써, 서울 고수에 전념하든가, 한강선으로 철수하든가 양자택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데 한강선으로 철수하는 것은 서울시민을 포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동력을 갖지 못한 관계로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 명약관화였다. ‘채 총장의 서울고수 주장이 정치적인 체면을 지키려는 데서 나온 것이며, 병력의 비율이나 가능성을 무시한 병법상의 상도에 위배되는 결정적인 실책이었다.’고 하는 것은 혹평일는지 모른다. 이는 당시의 불투명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론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¹¹⁹⁾

군사경력자회의가 끝나자 신 장관과 채 총장은 11:00부터 중앙청에서 개최된 비상국회에 출석을 요구받고 전황(戰況)을 설명하였다. 이 설명에서 신 장관은 “3~5일 이내에 평양까지 점령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와 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였고, 채 총장은 “적을 의정부 밖으로 격퇴하였다. 3일 안으로 평양까지 점령하겠다.”라고 낙관론을 폈다.¹²⁰⁾

국회에서 증언을 마치고 육군본부로 돌아온 채 총장은 의정부에서의 반격이 성공하기를 학수고대하였으나 현지로부터의 상황보고는 비관적이었다. 그는 김백일 참모부장에게 상경하는 예비사단부대를 의정부 방면으로 투입하라고 명령하고 의정부로 향하였으나 이 무렵 의정부는 적의 수중으로 들어가 있었다.

채 총장은 백석천에서 철수부대를 수습하며 의정부전투의 작전책임을 물어 제2사단장 이형근 준장을 현지에서 해임하고, 제7사단장으로 하여금 양개 사단을 통합지휘하여 창동으로 철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그때 창동에 집결하고 있던 제2사단 제25연대(-)를 백석천에 배치시켜 철수부대를 엄호토록 하였다.

이 무렵 동두천을 점령한 제1연대의 혼성대대는 그때까지도 마차산에 고립된 제1대대와 연결할 계획을 세웠으나 퇴로가 차단될 위기에 봉착하여 이를 포기하고 연대의 명령에 따라 철수하여 17:00경 덕정국민학교로 집결하였다가 다시 의정부 동북쪽 천보산에 21:00경 도착하였다. 천보산에서 바라보는 의정부 시가지는 화염에 휩싸여 있었으며 치솟는 불길은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장병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군의 주요사령부가 위치하고 있던 의정부가 몇 시간도 못 되어 적의 수중으로 들어간 것을 보고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여 울분을 참지 못하였으나 어쩔 도리가 없었다. 대대장은 혼성대대를 다시 이끌고 송

추-백운대를 경유하여 다음날 아침 우이동에 위치한 연대본부에 도착하였다.

한편 26일, 이른 새벽 의정부에서의 반격작전에서 수경사 예하 제18연대는 제7사단의 최일선 연대로써 10:00경 봉암리를 목표로 공격하였으나 덕정 서북쪽 은현국민학교 앞을 통과할 무렵인 12:00경 제7사단사령부로부터 현 위치에서 방어작전으로 전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는 제2사단이 축석령에서 철수하고 의정부가 곧 실함될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였다.

제18연대가 은현 일대 고지에서 진지를 편성하고 있을 무렵 봉암리-덕정을 잇는 무명도로상에 적의 기갑부대가 나타났다. 이때 부연대장 한신(韓信) 중령이 이끄는 대전차 특공대가 진지전방 변암교(邊岩橋)에서 선두전차에 대하여 2.36인치 로켓포를 발사하여 명중시켰으나 전차는 파괴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집중포화를 받았다. 연대장 임충식(林忠植) 대령은 기갑부대와와의 전투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통과시킨 다음 후속할 보병부대를 기다렸다. 그로부터 2시간이 지난 뒤에 보병부대는 나타나지 않고 인민군의 보급수송대가 우마차 12대에 포탄을 가득 싣고 연대방어 정면에 나타났다. 연대는 이들을 일격에 격멸하고 인민군 총위 한 명을 포함한 11명의 인민군을 생포하였다. 총위가 휴대한 상황판에는 인민군 제4사단과 제3사단의 전투지경선이 영등포까지 그어져 있었으며 7월 3일에는 수원으로 진출할 예정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¹²¹⁾

그 이후 제18연대는 제7사단과 통신이 두절되어 추가적인 지시를 받지 못하고 날이 어두워졌다. 연대장은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 이튿날 새벽 02:00에 대대별로 철수를 개시하여 삼송리로 향하였다.

그 밖에 육군본부 명령에 따라 25일 19:00경 일동-퇴계원 중간지점인 내촌(內村) 부근의 감제고지에 배치되어 제7사단의 동측방을 방어하던 생도대대와 배속된 전투경찰대대는 이튿날 포천 및 일동 방향에서 남하하는 인민군과 격전을 치르고 야간에 태릉으로 철수하여 새로운 방어진지에 투입되었다.¹²²⁾

(4) 汶山 부근 戰鬪

의정부 전투가 전개되는 동안 임진강을 천연 장애물로 하여 주저항선을 편성한 국군 제1사단은 이곳에서 반드시 적을 격퇴하겠다는 의지로 적과 맞섰다. 26일 사단의 동측에 배치된 제13연대 정면에서 과평산 북쪽의 도로를 따라 최초로 적 전차부대가 출현하였으며 그 중 선두전차 5대가 과평산 동북쪽으로 접

근해 왔다. 연대는 2.36인치 로켓포 사격을 가하였으나 한 대의 전차도 파괴할 수가 없었다.

제1대대장(金振曄 소령)은 병력 18명을 선발하여 대전차 특공조 2개조를 편성하였다. 특공대원들은 81밀리 박격포탄과 수류탄을 전선줄로 묶어 만든 급조 폭탄을 안고 적 전차의 무한궤도 밑으로 앞을 다투어 뛰어들어갔다. 국군의 필사적인 육탄공격에 겁을 먹은 듯 적 전차 5대는 진출을 포기하고 도로변의 초가집 옆에 정지하였다. 그러자 아군이 쏜 예광탄이 초가집에 맞아 순간간에 불이 나면서 전차에 옮겨 붙었다. 이 광경을 목격한 후속전차대는 적성(積城)으로 철수하여 버렸다.

얼마 후 1개연대 규모의 적이 또다시 공격해 왔으나 연대는 치열한 근접전투를 펼치면서 방어진지를 고수하였다.

한편 제1사단은 육군본부의 조치에 따른 지원부대가 도착하자 서울 특별연대를 분할하여 보병학교 교도대대는 제11연대에, 육군사관학교 교도대대를 제13연대에 재배속하였다. 그리고 제15연대는 최후저항선상의 위전리(韋田里)에 배치하고 여기에 제20연대 제3대대를 배속시켜 사단의 방어중심을 증가시켰다. 이는 사단의 방어중점을 1번도로 접근로에 두고 주저항선이 돌파되었을 사태에 대비하여 전방연대의 철수엄호와 역습의 발판을 사전에 확보하겠다는 사단장의 작전 복안이었다.

이렇게 후방에서 증원된 부대로 전투력이 대폭 증강된 것에 힘을 얻은 국군 제1사단은 주저항선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상황진전을 보아 가면서 반격으로 전환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이 무렵 우인점 부대인 제7사단이 덕정-축석령 선으로 철수하였기 때문에 사단의 우측방은 완전히 노출되어 버렸다. 이리하여 가여울-적성으로 진출한 적 제1사단은 전차를 앞세우고 접적 없이 국군 제1사단의 주저항선 동측으로 또다시 공격해 들어왔다.

또한 사단 서측방의 제11연대 전방의 인민군 제6사단은 임진강 철교가 폭파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날이 밝기 전 야음을 이용하여 문산 돌출부에 전차를 투입하고 26일 이른 새벽에는 임진강 철교를 통해 5대의 전차를 앞세워 보·전·포 협동부대로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에 따라 이곳을 방어 중이던 제11연대는 철교 남쪽으로부터 중심 깊은 방어진지에서 완강히 저항하였으나 전차와 대결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과 방법이 없어 문산 남쪽 구릉지대로 철수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전선 상황이 아군에게 불리한 상태로 전개되어 갔으나 문산 북쪽까지 진출한 인민군은 진격을 멈추고 후속부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를 역습의 호기라고 간파한 제11연대장은 배속된 보병학교 교도대대를 포함한 3개대대를 동시에 투입하여 역습을 단행함으로써 지역 내의 적을 임진강 북쪽으로 격퇴하고 주저항선을 회복하였다.

그러나 이 무렵 사단 동측의 제13연대는 파평산 방어진지의 노출된 동측방으로 접근한 적의 공격을 저지하지 못해 주저항선이 무너지고 전차를 앞세운 적 제1사단의 주공이 320번 도로를 따라 서쪽으로 진출하면서 문산리를 위협하였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 처한 백선엽 사단장은 봉일천 북쪽 위전리-도내리를 연하는 최후저지선으로 철수하여 마지막 결전을 펼치면서 반격의 기회를 조성하기로 결심하고 19:00부로 철수명령을 하달하였다. 그리고 사단사령부를 봉일천 국민학교로 이동하였으며, 제11·제13연대는 야음을 이용하여 위전리 일대에 배치된 제15연대의 엄호하에 금촌의 방어진지로 철수하였다.

이와 같이 적의 남침 2일째 서울 북방에서는 인민군의 주력이 국군의 전방 주저항선을 돌파하고 문산-의정부 선까지 진출하였으며, 국군은 27일 봉일천과 창동선에 급편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가용 전 예비대를 투입하여 서울 방어를 위한 최후의 저항을 준비하였다. 그런가 하면 이날부터 웅진반도를 점령한 인민군 제6사단 제14연대가 영정포에서 강화도와 김포반도 방향으로 도하를 시도함에 따라 국군은 김포반도에 대한 방어방책도 강구해야만 했다.

3. 春川-洪川戰鬪

중부전선을 담당한 국군 제6사단은 춘천에 제7연대를, 홍천 북동쪽에 제2연대를 각각 배치하고 제19연대는 사단예비로서 원주에 집결보유하여 적목리로부터 진흥동까지 84km의 광정면을 방어하고 있었다. 사단은 방어지역 서측의 북한강과 전방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소양강을 이용하여 제7연대는 소양강 북안에, 제2연대는 소양강 남안에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하지만 좌일선의 제2연대는 6월 20일에 사단에 예속되어 가까스로 이곳에서 제8연대와 진지교대를 마쳤으며, 예비인 제19연대도 5월 1일에 예속된바 이들의 방어 및 전투태세는 아직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이미 1/3병력이 외출·외박한 상태이지만 사단은 6월 19일에 생포한 포로진술과 정찰대를 화천과 양구에 파견하여 확인한 정보에 따라 적의 전면적 또는 국지적 공격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자체로 경계조치를 취해 두고 있었다.

사단 정면의 적은 제2군단으로써 북한인민군의 조공으로 중·동부지역 공격을 담당하여 공격 당일에 춘천을 점령할 계획하에, 그 예하 제2사단을 주공으로 화천-춘천 축선에 투입하고, 인제-홍천 축선에는 독립전차연대로 증강된 제12사단을 투입하였다. 이들은 조기에 춘천·홍천을 점령하고, 서울 포위를 위해 인천-수원으로의 우회기동을 할 계획이었다.

25일 새벽 춘천을 비롯한 중부전선 전역에서 적의 포격이 개시되었다. 적의 공격준비 사격은 주접근로로 판단한 전술적 요지인 화천-춘천 도로상 모진교 남쪽 일대에 집중되었다.

약 30분 동안 가해진 엄청난 포격에 아군 장병들은 한동안 났을 잃고 있었다. 더욱이 질게 깔린 안개 때문에 적이 접근하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가 진전까지 육박한 적의 출현을 보고 장병들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혼란이 야기되었다.

원주에서 적의 대대적인 공격이 개시되었다는 급보를 받은 사단장은 사단에 비인 제19연대에 출동명령을 하달한 후 작전참모를 대동하고 춘천으로 직행하였다.

제7연대장 임부택(林富澤) 중령은 적의 포격이 모진교 일대에 집중된 상황으로 보아 적의 주공이 화천-신평-춘천 축선에 지향되었음을 직감하고 연대에 비인 제1대대(대대장 金龍培 소령)를 소양교 북쪽의 준비된 방어진지(164고지)에 배치하였다.

적은 모진교 남쪽 강변 일대의 강제고지를 점령하여 교두보를 확보할 기도하에 고탄리(古呑里) 부근에 배치된 제3대대에 맹렬한 포격을 가하였다. 포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인공기(人共旗)를 앞세운 적의 보병부대는 전술행군중대를 유지한 채 진전으로 육박하였다.

모진교 정면에서는 SU-76 자주포를 앞세우고 교량을 건너 교두보를 확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38도선 남쪽 300미터 지점에 위치한 길이 250미터의 모진교는 화천-춘천 축선의 관문이며, 이 다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기계화부대가 북한강을 도하할 수 없어 춘천으로 들어갈 수 없는 전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교량이었다. 그러나 제7연대는 모진교를 폭파할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었는데, 이 다리가 적의 강제

하에 있어 폭약 장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폭 4미터 안팎인 모진교는 보잘것없는 작은 교량에 불과하지만 적의 주공이 밀어닥쳤을 때 이 작은 교량 하나를 제대로 폭파를 못해 47km에 달하는 제7연대의 방어정면이 일시에 무너지고 말았다. 더구나 고탄리, 인람리(仁嵐里)의 38도선 진지로부터 춘천시 외곽지대까지는 아군병력이 거의 없는 무인지경이었다. 적의 신속한 기동으로 인해 서원-역골간의 애로지역에 도로대화구마저 설치하지 못함으로써 일사천리로 진격할 수 있었던 적은 이날 09:00경 춘천이 바라보이는 역골, 지내리까지 진출한 후, 일단 진격을 멈추었다.

모진교에서 적의 주공을 저지하지 못한 제7연대의 전방부대는 계획된 주저항선으로 철수하여 준비된 방어진지를 점령하였다.

비록 적 주공의 진출을 지연시키는 데 실패하였지만 제7연대의 전투태세는 신속하고 질서있게 진행되었다. 연대장 임부택 중령은 소양강 방어선을 보강하는 한편, 작전지역 내의 민간차량을 징발하여 기동력을 증가시키고 군량미와 탄약을 확보하는 동시에 연대 직할대로 신예비대를 편성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갔다.

한편 연대 57밀리 대전차포중대 제2소대장 심일(沈鎰) 소위는 옥산포 도로변 소나무 숲에서 적의 SU-76 자주포 2문을 대전차포와 육탄공격의 병행으로 파괴하여 기염을 토했다.¹²³⁾ 얼마 멀지 않은 164고지에서 이 광경을 바라보던 아군 장병들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면서 기세를 올렸다. 이것을 계기로 제7연대 장병들은 전차를 파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전차에 대한 공포심을 제거할 수 있었다. 당시 장병들은 이 자주포와 전차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였다.

그 직후 갑자기 적의 포격이 164고지 일대와 춘천시내에 집중되었다. 적은 38도선을 쉽게 돌파한 후, 아군의 전투력을 과소평가하여 춘천을 단숨에 탈취할 수 있다고 속단하고 역골-소양교간 6km에 달하는 개활지를 밀집대형으로 접근하였다.

이때 사단지원포병인 제16야전포병대대는 소양교 북쪽 옥산포 남쪽에 진지를 점령하고 있었다. 그런데 보병부대는 그 동쪽 1.5km 고지 일대에 배치되어 있었으므로 포병을 엄호할 수 없는 처지였다. 이는 전방에 배치된 경계부대가 쉽게 무너져 버린 결과에서 초래된 상황이었다. 이처럼 위태로운 국면에서 지원포병은 직접 조준사격으로 적과 맞서 필사적으로 포격을 집중하였으며 곧 이어 57

밀리 대전차포 3문이 이에 가세하였다. 적은 선두 돌격제대가 격멸되면 다시 후속제대를 투입하는 과상공격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나무 한 그루 없는 전담 지대에서 완전 노출된 상태로 무조건 정면공격만을 감행하였기 때문에 막대한 출혈이 있었으나 공격을 중단하지 않았다. 그들은 공격 당일에 춘천을 점령한다는 명령의 이행을 위하여 우선 소양강 도하발판을 확보하려고 죽음을 무릅쓰는 듯하였다.

한편 사단동측의 제2연대는 24일까지 제8연대와 임무를 교대하였으므로 장병들은 작전지역 내의 지형을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25일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제2연대는 제1대대를 좌전방의 관대리 일대에, 제3대대를 우전방의 현리 일대에 배치하고 제2대대를 예비로 홍천 북쪽의 결운리에 집결 보유하고 있었다. 제2대대는 24일에 홍천에 도착한 관계로 장비의 포장도 풀지 못한 상태였다.

제2연대 정면의 적은 인민군 제12사단으로서 양구-신남-홍천 축선에 전차로 증강된 주공을 지향시키고, 인제-현리 접근로에 조공을 투입하여 공격해 왔다. 그런데 최초 제2연대의 주전투지대가 된 마노진 나루터는 전날 내린 많은 비로 말미암아 소양강물이 불어나 도섭이 어려운 상태에서 아군에게 유리한 장애물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루터 남쪽 청구리 일대 횡격실 고지에 배치되었던 제1대대 경계부대는 이날 새벽 2차에 걸쳐 소양강을 도하하는 적을 격멸하여 기세를 올렸다. 두 번이나 공격이 돈좌된 적은 아군 진지에 맹렬한 포격을 가하는 한편, 45밀리 대전차포 2문을 마노진 부근 강변으로 추진하여 근접 지원사격을 계속하는 가운데 세 번째의 공격제파를 투입하였다.

청구리에 배치되었던 아군은 적의 포격으로 약 2/3의 병력이 손실되고 탄약마저 떨어져 버렸다. 방어진지를 지탱하던 약 20여 명의 생존자는 백병전을 벌이다가 분산 철수하였다.

제1대대의 경계부대가 마노진 나루터에서 혈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 제2연대장 함병선(咸炳善) 대령은 연대예비인 제2대대를 어론리 좌측에, 그리고 전방에서 철수 중인 제1대대를 그 우측에 재배치하였다. 그러나 전방에 처음 투입되어 지형에 익숙하지 못한 연대 장병들은 철수 중 산간소로에서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한편 현리지역의 제3대대(대대장 李雲山 소령)는 38도선 부근의 흙고개-진다

리 일대에서 격전을 치른 다음, 현리 남쪽 매화고개를 거쳐 오미재에 저지진지를 편성하였다.

이로써 제2연대 방어지역은 동서로 양단되었으며, 현리지역의 제3대대는 모든 통신이 두절되어 연대본부에서는 이 대대의 행방마저 파악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제3대대의 우전방 중대로서 방동리에 배치되었던 제9중대는, 적중에 고립되어 오미재 방향으로 철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독자적인 작전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어론리 일대에서 혼란을 수습하여 안정을 되찾은 제2연대는 적의 전차를 파괴할 방법을 모색하였지만 이렇다 할 묘안이 있을 리 없었다. 연대장은 부득이 대전차특공대를 편성, 운용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제5중대 제1소장(강승호 소위)이 지휘하는 특공대 20명이 어론리 북쪽 아래 다무리 고개 부근 도로변에 매복하고 있던 중, 해치를 열고 남하하는 적의 선두전차를 30미터 거리에서 수류탄을 전차 안에 집어넣고, 2.36인치 로켓포탄을 사격하여 파괴하였다. 이때 2번 전차가 선두전차를 도로 옆으로 밀어내다가 배수로에 빠져 버렸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제2대대는 모든 화력을 적의 대열에 집중하여 전차와 보병을 분리시킨 후 과감하게 반격에 나섰다. 적은 선두전차 2대를 잃은 데다가 보병마저 격멸되자 후속하던 전차 8대는 북쪽으로 도주하였다.

이 어론리전투에서 자신감을 얻게 된 제2연대장은 익일 새벽에 2개대대로 반격을 감행, 어론리 북쪽의 402고지와 488고지를 탈환하여 이를 발판으로 38도선을 회복한다는 작전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이 시점까지도 지원포병이 없는 제2연대의 전투력을 고려할 때 그러한 작전구상은 일종의 모험이었다.

한편, 6월 26일 아침 제19연대 제2대대가 원주에서 이동하여 소양교 북쪽 우두산(牛頭山)에 배치된 지 얼마 후에 역골-옥산포 일대에 적이 집결하기 시작하였다. 우두산 전방 164고지에 배치된 제7연대 제1대대는 대대의 서쪽 2km 지점에서 일어나는 적의 활동을 보고 적이 더 증강되기 전에 적의 일부를 격멸하고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파쇄공격을 실시하여 신동리까지 진격하였으며 그곳에서 적의 반격에 대비하였다. 뜻하지 않은 공격을 받은 적은 역골 후사면 지내리로 물러났다. 적 제2사단의 예비인 제6연대가 투입되어 14:00경 전방연대를 초월, 공격을 재개하였다.

이들은 맹렬한 포격으로 164고지-우두산에 배치된 국군 2개대대를 견제하면

서 옥산포-마전리(일명 : 가래목 여울, 지금의 제2소양교 부근 수물지역)로 진출, 단숨에 소양강을 도하할 기세였다.

이와는 별도로 동쪽 통로로 접근한 적 자주포 5대가 방어부대의 포화를 뚫고 소양교(지금의 제1소양교) 부근 강변까지 진출하였으나 도로변 초가(草家) 옆을 지날 때 그곳에 매복해 있던 57밀리 대전차포의 측방사격을 받고 선두의 자주포 2대가 파괴되었다. 이 광경을 본 후속 자주포 3대는 방향을 북으로 돌려 도주하였다.

이 무렵 가래 여울목 부근 모래밭까지 진출한 적의 공격제대는 살상지대에 걸려 전멸되었고 소양강은 순식간에 피로 물들었다. 적은 제2·제3의 공격제대를 동일한 접근로상에 투입하였으며 정확하고 통렬한 포격 앞에 출혈을 강요할 뿐 한 명도 소양강을 건너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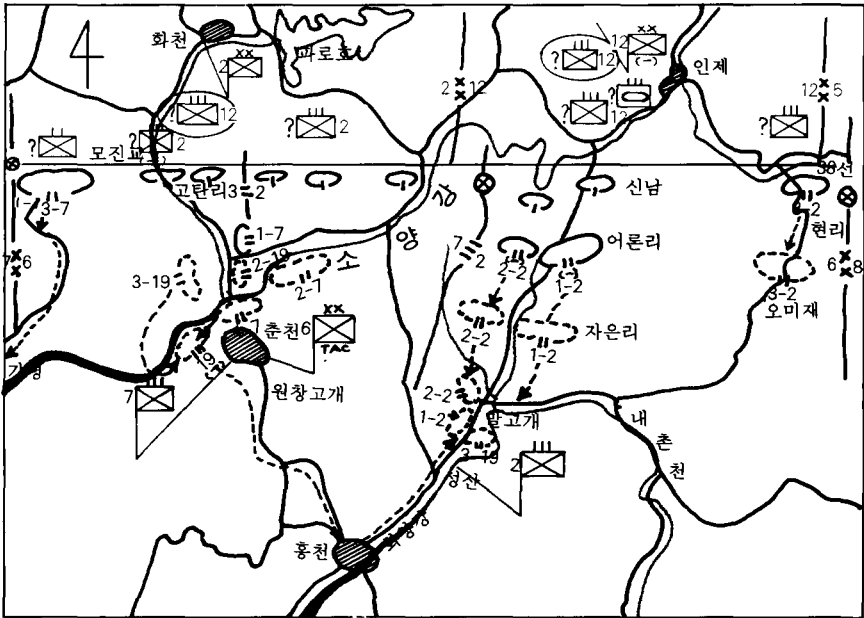
춘천 뒷산 봉의산(鳳儀山)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단장은 춘천방어에 자신감을 얻었고, 화력의 열세로 고전하고 있는 흥천 방면의 제2연대에 포병 1개 중대를 지원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와 동시에 방어 정면을 축소시킬 시기가 되었다는 판단 아래 이날(26일) 밤에 소양강 북쪽에 배치된 모든 부대를 소양강 남안의 최후 저지선으로 조정, 배치하였다.

이에 따라 소양교를 기준으로 동측은 제7연대가, 서측은 제19연대가 배치되었다. 사단 공병대대장(朴正采 소령)은 소양교 북쪽에서 최후 저지선으로 병력이 재배치됨에 따라 소양교의 폭파를 사단장에게 건의하였다. 그러나 사단장은 아군의 역습에 대비하여 교량폭파를 보류시키고 그 대신 교량 위와 입구에 장애물을 보완하도록 하였다.¹²⁴⁾

한편 춘천 북방에서 적의 압력이 가중되던 이날 육군본부의 명령에 따라 수도사단 제8연대(-1)와 독립기갑연대 제3도보수색대대 제8중대가 가평에 진출하여 제7사단과 제6사단간의 부대간격을 메우기 위한 전투준비를 갖추는 듯하였으나, 서울지역의 상황이 보다 위험하게 되자, 이들 부대는 다음날 새벽에 서울로 복귀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 지역에는 제7연대 제3대대(-)만 화악산 쪽에서 가평에 이르는 접근로를 차단하고 있었다.

이날(26일) 아침, 사단 동쪽의 제2연대는 어론리에서 계획한 대로 반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적의 즉각적인 반격에 부딪쳐 격전을 치르게 되었고 강력한 보·전협동부대와 힘에 겨운 교전을 계속하는 동안 점차로 병력이 감소되어 마침내 어론리 남쪽의 자은리로 철수하게 되었다. 이 무렵 춘천에서 급파된 제16

춘천·홍천지구 전투



야전포병대대 제1중대가 자은리 남쪽에 포진하여 제2연대의 철수를 엄호하였다. 그러나 재편성할 여유도 없이 밀어닥친 적의 공격기세를 감당하지 못한 아군은 지휘체계가 와해되고 지리멸렬된 상태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되었다. 연대는 또다시 자은리로부터 철정리로 철수의 발길을 옮기지 않을 수 없었다.

이날 오후 늦게 철정리에서 철수 병력을 수습한 결과 제2연대의 병력은 1개 대대규모에 불과하였다. 철정리 한계국민학교에서 재편성이 진행되고 있을 때 연대장은 말고개 남쪽 성산(城山)지서로 연대전술지휘소를 옮기고 말고개에 새로운 방어진지를 편성하기로 결심하였다. 이곳의 지형은 큰 말고개와 작은 말고개가 주변의 저지대를 감제하며 철정리 남쪽에서 내촌천(內村川)과 합류한 화양강(華陽江)이 작은 말고개를 끼고 흐르고 있어 측방이 보호된다. 또한 인제-홍천을 연결하는 도로가 현리에서 뺏어내린 도로와 철정리에서 합쳐져 작은 말고개로 통하게 됨으로써 이곳을 경유하지 않고는 홍천으로 진출할 수가 없으며, 이 고갯길은 노퍽이 좁고 굴곡이 심하여 대전차 방어에 매우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제2연대장은 제1대대(대대장 金柱亨 소령)를 작은 말고개에, 제2대대(대대장 文正直 소령)를 큰 말고개에 배치하였으며 여기에 중심 깊은 대전차 격멸지대를 편성하고 동시에 각 중대별로 대전차특공대를 운용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철정리 한계마을 부근의 도로 굴곡지점에 살상지대를 설정하였다. 한편 제3대대는 이날 오후 오미재에서 철수 중이었다. 자은리로 진출한 적은 일단 진격을 멈추고 더 이상 남하하지 않았으므로 전장은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이 무렵 적정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인민군 제2군단의 주목표는 당일에 춘천을 점령한 후 수원방향으로 진출하여 제1군단의 서울 공격작전을 돕는 것이었다. 그런데 점령은커녕 춘천을 공격한 그들의 제2사단이 도리어 큰 손실을 입고 공격능력이 약화되었다. 다급하게 된 적 제2군단장은 흥천 방향으로 공격하던 제12사단의 2개연대(전차 1개중대 배속)를 인제-춘천으로 전환시켜 춘천 공격 능력을 강화하였다. 이들은 26일 저녁에 춘천 북쪽에 도착하여 적 제2사단과 합류하였다.¹²⁵⁾

27일 날이 밝자 인민군 제2사단과 제12사단은 춘천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을 가하였다.¹²⁶⁾ 이른 아침부터 소양강 남안과 봉의산 일대에 포탄이 비오듯 하였고 춘천시내에도 포탄이 떨어져 화염이 시내를 덮었다. 그들은 10:00경부터 T-34 전차와 SU-76 자주포를 앞세워 봉의산을 집중공격하며 1개연대 규모가 가래모기로 도섭을 감행하였다. 제7연대는 57mm 대전차포와 105mm 곡사포로 전차의 도하를 저지하며 제1제과, 제2제과가 차례로 반복 도하하려는 적을 수장시키며 적을 격퇴하였다. 소양강이 붉게 물들었다.

사단장은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기 전 이날 아침 일찍 제2연대를 방문하였다. 거기에서 제2연대가 전차를 앞세운 적의 압력을 받고 있다는 상황보고를 받고 말고개의 상황이 춘천보다 긴박하며 만일 이곳이 돌파되면 흥천이 그들의 수중으로 넘어가 사단의 철수세가 차단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사단예비를 흥천지역으로 전환시키고 제2연대의 전력을 강화하기로 결심하고 봉의산으로 되돌아왔다. 제6사단은 이미 적 제12사단의 주력이 춘천으로 이동한 적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¹²⁷⁾

그 동안 두절되었던 육군본부와의 유선망이 소통되었다. 육군본부 참모부장(김백일 대령)은 “서부전선은 완전히 무너졌다. 육군본부는 시흥으로 철수한다. 제6사단장은 판단에 따라 중앙선을 중심으로 한 중부전선에서 지원전을 전개하기 바란다.”라고 하는 내용의 지시를 하였으며 그 직후 통신이 두절되고 말았

다.¹²⁸⁾ 이때서야 비로소 전 전선의 개황을 파악하게 된 제6사단장은 서울이 실패되었을 경우 적의 여주 방면으로 진출하여 증부전선을 후방에서 포위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긴박한 사태라 하더라도 춘천시민과 행정기관의 피난을 위해 24시간의 여유는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소신이었다.

이에 사단장은 제7·제2연대로 하여금 현 방어진지를 고수하게 하고, 제19연대를 즉시 흥천으로 이동시켜 제2방어선을 형성하여 제7·제2연대의 철수를 엄호하도록 하는 동시에 제16야전포병대대(-)로써 제2연대를 지원하는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¹²⁹⁾

제7연대는 연대직할대로서 신예비대를 잠정 편성하여 제19연대가 방어하던 지역에 배치하였다. 또한 제19연대와 제16야전포병대대(-)는 이날 오후에 행정군계대별로 춘천을 떠나 흥천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날 오전 소양강 도하에 실패한 적은 이미 제19연대가 빠진 전선을 재정비하고 있던 제7연대 진지로 재공격을 해왔다. 이번엔 전차를 소양교로 투입하며 2개연대는 가래모기로 도섭을 강행하고 1개연대는 춘천 동북방의 원진 나루터에서 소양강을 건너 구봉산 방향으로 공격해 왔다. 드디어 적 전차가 소양교를 도하하고 제7연대의 방어선의 일각이 무너지고 돌파구가 확장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우측방으로부터의 후방차단이 우려되었다. 연대는 이틀로부터 봉의산을 피탈당하자 17:30경 춘천을 포기하고 원창고개 방향으로 철수하였다. 적이 춘천시내에 진입하였다.¹³⁰⁾ 그러나 이는 당초목표보다 48시간이나 지연된 것이며 또 제12사단마저 최초의 공격축선에서 전환함으로써 계획상의 큰 차질이 빚어졌다. 제7연대는 춘천으로부터 철수 후 그 남쪽 국사봉-안마산-대룡산선에서 적을 지연하면서 6월 28일 정오까지는 원창고개에 신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춘천에서 혈전이 벌어지던 6월 27일 동측의 제2연대 정면에서는 적이 소규모의 보·전 협동부대를 말고개에 투입하여 위력수색을 벌이면서 간헐적으로 교란사격을 가하기도 하였으나 본격적인 공격행동은 없었다. 연대는 추가로 지원된 제16야포대대 3중대를 말고개 남쪽의 제1중대와 함께 배치하는 등 말고개의 방어태세를 보강하였다. 또 이날 저녁 흥천에 도착한 제19연대는 제3대대로 하여금 대전차특공대를 편성케 한 후 이 대대를 말고개 서남쪽 뒤편에 배치하고 연대(-1)는 춘천과 양구·인제에서 흥천에 이르는 양쪽 도로를 제압할 수 있는 망령산(望嶺山)에 투입하여 흥천방어선을 강화하였다.

28일 새벽, 제2연대는 예상되는 적의 공격 준비를 방해하기 위하여 제1대대(김주형 소령)로써 파쇄공격을 실시하였다. 짙은 안개 속에 전개된 이 공격은 기습의 달성으로 북골 부근의 지휘소로 추정되는 적 부대를 유린하여, 참전자의 증언에 의하면, 200여 명의 적을 사살하고 차량으로 5대 분의 보급품을 파괴한 후 복귀하였다.¹³¹⁾

이날 09:00경 안개가 걷히자 사전공격 준비를 갖추고 있던 제12사단(-)이 전차 및 자주포 10여 대와 병력을 가득 실은 수십 대의 트럭으로 편성된 기계화부대를 투입하여 단숨에 아군방어진지를 돌파할 기세로 말고개 북쪽의 한계(寒溪) 마을까지 진출하였다. 이 일대는 반월형의 분지인데 이곳에 살상지대를 설정해 놓고 있었다.

마침내 적의 주력이 살상지대에 완전히 진입하고, 선두전차 대열이 작은 말고개를 오르기 시작한 직후 방어부대의 모든 화력이 살상지대로 집중되었다.

적은 예상 외로 강력한 포화로 인하여 순식간에 대혼란이 일어나고 전차와 보병이 분리되었다. 이러한 아비규환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적의 일부 병력은 공격대형으로 산개하여 작은 말고개를 향해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바로 이때 살상지대 중간지점의 도로 암거 속에 매복하고 있던 기관총조는 지근거리에서 적에게 급속사격을 퍼부어 격멸시키고 사격진지를 옮겨가며 세 번째 진지에서 전사하였다. 이 무명용사의 분전으로 적의 보병부대는 빨래 그들의 전차부대와 합류하지 못하였다.¹³²⁾

보병부대와 분리된 적의 전차대열은 SU-76 자주포를 선두로 T-34 전차와 자주포 등 10여 대가 전차포와 기관총 사격을 가하면서 느린 속도로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하였다. 이 고개 첫 번째 S자 굴곡지점에 배치되었던 57밀리 대전차포가 포문을 열고 첫탄을 명중시켰다. 그러나 전차는 끄덕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후속전차가 사격한 포탄에 맞아 포수 이하 전원이 전사하고 대전차포는 파괴되었다. 도로변에서 그 광경을 지켜본 연대 병사들은 전차에 대한 공포심이 싹트고 육탄공격을 주저하게 되었다.

잠시 후 적의 전차대열은 고개 중턱에 있는 가장 굴곡이 심한 지형인 두 번째의 S자형 굴곡지점에 이르렀다. 선두에서 달리던 자주포가 굴곡지점을 미처 빠져 나가기 전 측면이 노출되는 순간에 30m쯤 떨어진 곳에서 이를 지켜보던 제2연대 57mm 대전차포 중대 제2소 1분대장 김학두(金學斗) 일등중사는 철갑탄을 장전하고 직접 사격하여 자주포의 측면을 명중시켰다. 이어서 2탄, 3탄을 계

속 발사했다. 첫탄에 명중된 선두 자주포가 2~3m 전진하다가 정지하자 후속하던 전차가 자주포와 충돌한 후 정지하였다. 용기백배한 대전차포 부대장은 2번전차에도 계속 명중탄을 퍼부었다.

이때 제19연대 대전차특공대원 조달진(趙達珍) 일병이 1번전차에 뛰어올라 해치 안에 수류탄을 넣고 뛰어내렸다. 잠시 후 굉장한 폭음과 함께 화염이 치솟았다.¹³³⁾ 선두전차 2대가 파괴되자 후속하던 전차들은 모두 정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호기를 포착한 대전차특공대는 제각기 수류탄과 화염병을 들고 적 전차를 맹렬히 공격하였다. 당황한 적 4번전차는 북으로 회전하려다가 화양장으로 굴러 떨어졌으며 나머지 전차병들은 탈출하다가 대부분 사살되었다. 후미전차는 전차대열이 정지하자 해치를 열고 전차장이 뒷면을 살피고 있었다. 바로 이때 약 10m쯤 떨어진 좌측 능선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던 대전차특공대가 발사한 2.36인치 로켓탄이 해치 안으로 들어가 폭발하면서 불길을 내뿜었다.¹³⁴⁾ 이리하여 10여대의 적 전차는 좁고 굴곡이 심한 작은 말고개의 오르막길에서 섬멸되었다.

이는 개전 이후 최대의 전차격멸전이었다. 정상적인 공격방법으로는 성능상적의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지 못하였음에 불구하고 이들 장비들은 지형을 최대로 이용하여 지근거리에서 전차의 취약부분에 사격을 가하고 육탄으로 적의 전차를 용감하게 공격함으로써 전쟁사에 빛나는 전례를 남기게 되었다. 이는 국군장병의 사기를 드높임은 물론 전투에 자신감을 불어넣었는가 하면 적은 전차를 투입하고서도 말고개를 돌파하지 못함으로써 진출이 지연되어 더욱 초조해졌다.

한편 이날 제7연대는 원창고개로 물러나 제2대대가 고갯마루에서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연대주력은 퇴로차단이 우려되어 홍천 북쪽 사현(沙峴)으로 철수하였다. 원창고개는 소양강 남쪽 약 10km 지점 춘천-홍천 도로를 가로지르는 횡격실 능선상의 표고 약 600m 고개로서 이 접근로를 통제하는 요지요부였다.

적은 이날 밤부터 이 고개를 공격해 왔으며 다음날인 29일 아침 날이 밝자 포병지원사격을 연신하면서 2개연대 규모가 제2대대 진전에 나타났다. 제2대대는 유리한 지형에서 적의 거듭되는 공격을 격퇴하였다. 그런데 11:00경 다시 나타난 1개대대 규모의 적이 백기를 흔들며 진전으로 접근하였다. 대대는 드디어 적이 투항하는 것으로 믿고 이들을 받아들일 채비를 하였다. 그 순간 20m까지 접근하던 적이 갑자기 숨졌던 다발총을 난사하며 진내로 진입하였다. 육박전이 벌어졌으나 기습을 당한 제2대대는 요충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

제7연대가 원창고개에서 적의 공격을 받고 있을 때 말고개의 제2연대도 적의 새로운 공격에 직면하였다. 이번엔 적이 중앙의 도로 접근로로는 견제공격을 가하면서 양측방으로 우회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말고개 동측의 청벽산(451고지)을 점령하고 홍천 북방 양지말 쪽으로 진출함으로써 제2연대의 퇴로 차단이 우려되었다.

이와 같이 29일 홍천 전방의 중요 고지군이 피탈되자¹³⁵⁾ 제6사단장은 제2·제7연대에 홍천 남쪽으로의 철수를 명령하였다. 이로써 국군 제7사단은 약 5일간의 전방방어 전투를 끝내고 이날 오후 홍천-원주 방향으로 축차적인 철수길에 올랐다.

이에 앞서 제6사단장은 전날 L-5 연락기로 사단사령부에 도착한 육군본부 작전국장 장창국(張昌國) 대령으로부터 “원주에 새 방어선을 형성하여 동해안 전선에서 철수 중인 제8사단을 엄호하는 동시에, 이천(利川)에 1개연대를 배치하여 노출된 측방을 경계하라.”는 내용의 작전명령을 수령하였다.

제6사단장은 제8사단이 원주로 이동하려면 최소한 48시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홍천과 횡성 간에서 적을 최대한 지연시키기로 하였다.

기간 중 적 제2군단은 비록 춘천을 점령하고 홍천에 대한 압력을 가하는가 하면, 춘천 점령 후 적 제2사단이 경춘가도를 타고 서울 방향으로 진출을 서둘렀으나 당초의 계획보다 지연되어 적 제1군단의 서울공격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초기전투에서 전차를 포함한 인원, 장비의 많은 손실을 입고 국군 제6사단의 축차적인 저항에 부딪쳐 원주 이천 방향으로의 진출도 늦어져 작전계획상의 큰 차질을 빚고 있었다.

당시 작전국장 유성철(兪成哲)은 “제2군단은 28일까지 춘천·홍천·이천을 거쳐 수원에 도착, 서울을 포위공격할 예정이었으나, 국방군의 강한 저항에 직면, 홍천 부근에서 맴돌고 있었다.”라고 하였고, 이에 그 자신이 “전방으로 나아가 제12사단장 최충국 대좌의 지프차를 타고 전투를 독려하던 중 적의 박격포탄을 맞아 사단장이 중상을 입고 후송도중 사망하였다.”고 증언하였다.¹³⁶⁾

4. 江陵戰鬪

동해안지역 방어를 담당한 국군 제8사단(사단장 李成佳 대령)은 아직 2개연대밖에 갖추지 못한 부대로써 38도선에 제10연대를 배치하고 삼척에 제21연대

를 예비로 집결보유하고 있었다.

사단의 책임지역은 제6사단과 협조점인 진흥동에서 동해안의 기토문리까지 26km로써 적이 남침을 하면, 예비인 제21연대를 좌일선에 투입하여 2개연대로써 38도선에서 적을 저지격멸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강릉을 고수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38도선 남쪽의 고지군에 경계진지를 편성하고 광원리, 오대산과 연곡천을 이용하여 주저항진지를 구축하였으며, 그 남쪽 운두령과 사천선을 예비진지로 선정해 두고 있었다.¹³⁷⁾

그러나 6월 중순에 침투한 적의 비정규전부대 토벌작전에 각 연대에서 1개대대씩 2개대대를 오대산·계방산(桂芳山) 일대에 투입¹³⁸⁾하였기 때문에 적이 전면 남침을 개시하였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가용병력은 4개대대 규모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제10연대는 공비토벌에 투입된 연대의 좌일선 제1대대를 제3대대로써 교대하는 중에 있었다.

한편 사단 정면의 적은 인민군 제5사단으로서 양양-강릉에 이르는 해안도로 축선에 주력을 투입하여 북쪽에서 제10연대를 정면공격하고 제766부대와 제549육전대를 강릉 남쪽의 정동진과 임원진으로 상륙시켜 제21연대의 증원을 차단함으로써 2개연대를 각개 격파하는 동시에 강릉을 남북에서 협공하려 하였다. 그리고 태백산맥에 이미 침투한 잔존 유격대와 합류하여 적 제2군단의 작전을 촉진할 기도였다.

적 제5사단은 계획대로 6월 25일 04:00 공격준비사격과 더불어 38도선을 돌파, 주공이 주문진으로 진격을 개시하였으며 조공은 양양-서림리-원일전리(元日田里)의 계곡 접근로를 따라 남하하기 시작하였다.

소대·분대 단위로 경계진지를 구축하여 38도선을 경계하던 제10연대의 전방 부대들은 엄청난 양의 적의 포병화력에 압도당하여 경계지역은 순식간에 수라장이 되었으며, 제대로 전투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분계선 남쪽에 준비된 저지진지로 철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저지진지도 점령하지 못하고 7번도로 축선상의 제2대대(대대장 趙原英 소령)는 주문진으로 물러서게 되었고, 좌전방 서림리 일대의 제1대대(대대장 朴致玉 소령)는 구룡령(九龍嶺)에서 축차적인 지연전을 전개하면서 광원리(廣院里) 부근으로 철수 중이었다.

한편 강릉 남쪽 정동진리의 해변마을인 등명동에는 이날 04:00경 수많은 인민군이 나타나 마을 주민들을 강제동원하여 마을 옆 해안에 접안한 수송선에서 하역한 탄약과 보급품을 뒷산으로 운반시켰다.¹³⁹⁾ 이때 뒷산 중턱에는 인민군이

이미 개인호를 파놓고 경계태세를 취하고 있었다. 따라서 적의 선발대가 상륙한 시간은 04:00 이전이었고 해상의 38도선을 넘은 시간은 이보다 훨씬 앞설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적은 이날 새벽 등명동 해안초소에 근무 중이던 경찰 1명을 사살하고 상륙에 완벽한 기습을 달성하였으며, 주민들이 적을 발견하였을 때는 이미 선발대가 상륙지역을 점령한 후였다. 적의 출현상황은 이 마을의 대한청년단원에 의해 약 4km 떨어진 안인진지서에 신고됨으로써 군경부대에 전파되었다. 제8사단장은 05:40에 강릉경찰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며 제21연대장은 06:00경 삼척경찰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¹⁴⁰⁾

이렇게 상륙지역을 확보한 적의 육전대는 발동선과 범선으로 주력부대를 상륙시켰다. 이들은 1개연대 규모로서 축차상륙하여 주력이 삼척-강릉도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밤재를 점령한 후 1개대대는 강릉을 목표로 북상하고, 또 1개대대는 옥계 방향으로 남하하였다. 또한 07:00경에는 임원진에 유격부대인 제766부대가 상륙하여 1개부대는 태백산맥으로 침투하고 1개부대는 삼척 방향으로 북상하였다.¹⁴¹⁾

강릉비행장에 사령부를 둔 제8사단장은 이와 같이 전방경계진지가 삼시간에 돌파되고, 후방 해안지역에 적이 대거 상륙하였다는 상황보고에 접하자, 06:00에 사단작전회의를 소집하고 이 자리에서 우선 제10연대로 하여금 적을 최대한 저지토록 하는 한편, 삼척에 있는 제21연대를 강릉으로 이동시켜 주저항선인 연곡천(連谷川)-사천(沙川) 선에서 적을 저지격멸하여 강릉을 사수하기로 하고 사단 공병대대로 예비대를 편성하는 동시에 육군본부에 1개연대의 증원을 긴급 요청토록 조치하였다. 그 후 육군본부로부터 “사단장의 재량권에 따라 최선을 다할 것이며 1개연대의 증원은 서울방어가 더 긴급하므로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직후 모든 통신이 두절되었다.

육군본부로부터 전반적인 상황통보를 받은 사단장은 이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6월 25일 10:00를 기하여 작전지역 내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모든 군수품은 대관령 너머 진부리(珍富里)로 소산시키며, 군·경 가족과 공공기관을 후방으로 피난 및 소개시키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민간차량을 징발하여 기동력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사단은 장병 가족에게 6개월 분의 봉급과 식량을 지급하고 계엄업무를 담당할 민사부장을 임명하였으며 주민의 피난계획까지도 준비하였다. 이

처럼 장기전을 예상하고 대비한 것은 다른 사단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되자 주민들은 군을 믿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으니 강릉학도호국단 산하 1,400여 명의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탄약 및 보급품의 운반과 환자구호 그리고 연락업무를 수행하였다.

제10연대장(高根弘 중령)은 적이 후방의 등명동에 상륙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57밀리 대전차포 중대와 제4중대를 강릉 남쪽의 안목(安木)-안인진(安仁津) 일대로 급파하였다. 그 무렵에는 적의 상륙선단의 일부가 해안선을 따라 남하하고 있었으며 그 일부는 안인진 해변에 점안을 시도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안인진에 도착한 대전차포 중대가 적의 선단에 맹렬한 포격을 집중하여 격퇴시켰다. 또한 제4중대는 등명동에 상륙한 적 육전대가 산악을 따라 강릉으로 북상할 경우에 대비, 가장 방어에 유리한 안인진 서쪽 대포동에 방어진지를 급편하고 경계를 하고 있던 중 때마침 북상 중이던 1개중대 규모의 적을 발견하여 격멸함으로써 위급한 국면을 타개하였다.

한편 안인진·대포동의 교전상황을 종합 분석한 사단장은 강릉을 고수하려면 북쪽의 적을 방어하는 것 못지않게 남쪽에서 협공하는 적에 대비하는 것 또한 급선무라는 결론을 짓고 강릉 남쪽 12km 지점의 군선강(群仙江)에 방어진지를 급편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가용병력이 없었다. 사단장이 사용할 수 있는 병력은 사단의 공병임무를 수행해야 할 사단 공병대대밖에 없었다. 할 수 없이 사단장은 전방방어에도 힘겨운 제10연대장에게 제21연대가 증원될 때까지 군선강 방어임무를 수행하도록 명령하고 이를 위하여 공병 1개중대의 배속과 아울러 제18야전포병대대 1개중대로 이들 부대를 직접 지원하도록 조치¹⁴⁰⁾를 취하는 한편, 공병대대를 연곡천 주저항선에 배치하고 사단전술지휘소도 사천국민학교로 추진하였다. 제10연대장의 지시에 따라 연대예비인 제3대대장은 배속된 제21연대의 제10중대, 공병 1개중대 등으로써 군선강 방어진지를 급편하였다.

한편 삼척에 있던 제21연대장은 적의 상륙 정보를 입수하고 북평에 주둔 중이던 제1대대로 하여금 이를 확인토록 한 결과, 수색대와 제1중대가 북상하여 육계 부근에서 수색작전을 펴던 중 때마침 남하하는 1개중대 규모의 적을 발견하고 경찰 및 대한청년단원과 더불어 기습적으로 공격하여 괴멸적 피해를 가하였으며, 적의 주력이 밤재를 차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¹⁴¹⁾ 연대장(김용배 중령)은 강릉으로의 이동명령을 받고 지역 내의 민간차량을 징발하며 준비를 하던 차에 밤재에 1개대대 규모의 적이 도로를 차단했다는 보고를 받고 심사숙고

끝에 북평-백봉령(白峰嶺)-삽당령(插塘嶺)-구산리(邱山里)로 우회이동한다는 단안을 내렸다. 이리하여 제21연대는 2개 행군제대로 편성하고 주력은 25일 19:00에 삼척을 떠나 다음날 10:30경 강릉을 경유 군선강 방어진지를 인수하였다. 그리고 제3대대는 장성과 임제리에 배치한 2개중대를 삼척으로 집결시킨 후에 강릉으로 행군하여 본대와 합류하였다.

사단장으로부터 대대는 주저항선에 배치하라는 명령을 받은 공병대대장 김묵(金默) 소령은 전투편성을 마치고 제10연대에 배속되어 연곡천 주저항선 진지를 점령함으로써 공병이 보병전투를 수행하는 첫 번째 기록을 세웠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제18야전포병대대 제1·제2중대는 주저항선 후방의 석교리(石橋里)와 사천국민학교에 전개하였다.

주저항선을 사전에 확보한 이들은 전방대대인 제10연대 제2대대의 철수를 효과적으로 엄호할 수 있었으며, 26일 오전에는 제21연대가 군선강에 배치 완료되고 대전차포 중대가 증원됨에 따라 연곡천의 방어배치를 조정하고 반격의 기회를 노리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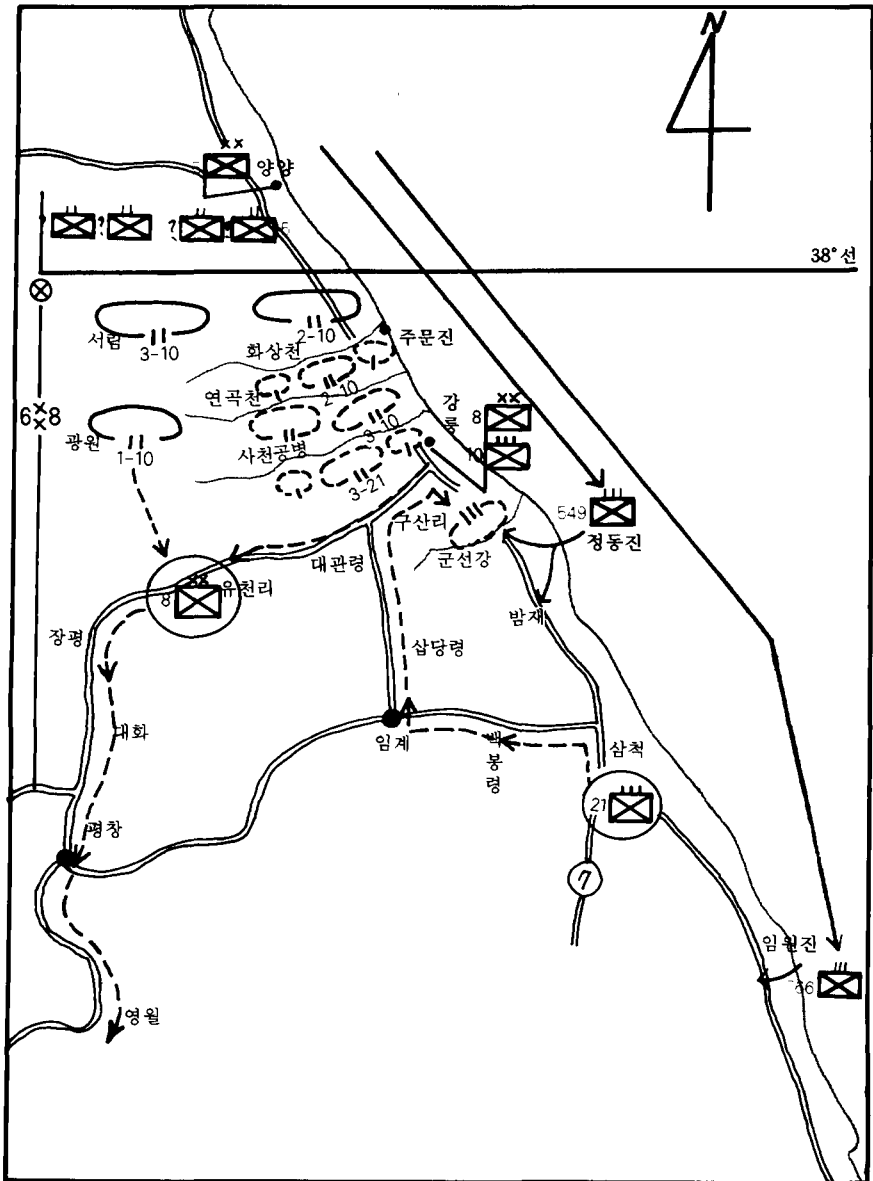
한편 제10연대가 주저항선에서 방어진지를 재편성하고 있을 때 사천면 대한청년단은 사명감이 투철한 대원 40명을 선발하여 적정수집을 자원하고 나섰으며, 면(面)부인회와 청년단은 야전취사장을 설치하여 군·경들에게 주먹밥을 공급함으로써 군작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제8사단의 주방어지대는 연곡천-송림리(松林里)간 4km의 방어정면과 그 남쪽 사천까지 3km 정도의 방어중심을 가진 지역에 형성되어 있었다. 연곡천은 강폭이 200~250m 정도이지만 수심이 깊어 교동(教洞)과 송림리의 여울 외에는 도섭이 불가능하였다. 또한 7번도로와 연곡천이 만나는 지점에는 목교가 가설되어 있었으나 자주포를 포함한 중장비는 통과할 수 없었다. 사단은 이 목교를 파괴하지 않고 그 부근에 살상지대를 설정하여 적을 유인격멸할 계획이었다.

적은 26일 새벽 04:00 공병대대 정면으로 강습도하를 시도한 것을 계기로 산발적인 교전이 있었으나 대대적인 공격은 없었다. 제10연대는 이 소강상태를 이용하여 이날 밤 제2대대가 주저항선 전방의 감제고지인 천마봉(天馬峰)을 공격 탈취하여 주문진 공격의 발판을 확보하였고 사단에서는 주문진 공격명령을 하달하였다. 그런데 그 무렵에는 적 또한 공격준비를 완료하고 공격개시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사단은 그와 같은 적정을 탐지하지 못하였다.

다음날(27일) 새벽 04:00경 사단의 주문진 공격개시 시간보다 1시간 빠르

강릉 부근 전투



게 적이 먼저 공격준비사격을 가해 왔다. 그들의 맹렬한 포격은 주방어선과 전방에 제2대대가 추진배치되어 있는 천마봉에 집중되었다. 화력의 강도는 어느 때보다도 훨씬 강한 것이어서 제2대대는 집중포격을 받고 얼마 후에는 천마봉을 포기하고 분산 철수하였다. 이때 주방어진지에서는 이런 상황보고를 받지 못해 측방에서 접근하는 적을 아군으로 판단하는 실수를 저질러 방어선의 일부가 돌파되었다. 뒤이어 계속 밀어닥치는 적의 공격대열에 의해 주방어진지는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이와 같이 주방어진지가 무너지고 방어부대가 와해되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증원된 제21연대 제3대대가 사천선에 투입하여 분산철수하는 병력을 수습하고 적을 저지함으로써 최고조에 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한편 사천국민학교와 그 서쪽으로 건너편 밤나무 밭에 포진한 제18야전포병대대(대대장 張庚石 소령)는 적이 주저항선까지 쇄도한 후에는 사격을 통제할 여유가 없이 다만 포단위로 사격을 계속하게 되었다. 이러한 필사적인 포병의 저항은 주저항선을 돌파한 적의 진출을 지연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고, 주저항선에서 철수한 병력으로 하여금 사천선에 저지진지를 편성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계속 밀려오는 적의 공격대열은 야포대대가 있는 곳까지 밀어닥쳐 보병의 보호를 받을 겨를도 없이 영거리 사격(직접조준사격)으로 대응하던 포병들의 진지로 들어왔다. 대원들은 소총, 야전삽, 곡괭이 등 닥치는 대로 손에 잡고 진내에서 백병전을 벌여 기어이 적을 격퇴시켰다. 보병도 아닌 포병이 백병전을 벌여 적을 물리친 장쾌한 일이었다. 그 후 제18야포대대는 제21연대 제3대대의 엄호를 받아 오죽헌(烏竹軒) 부근으로 철수하여 다시 화력지원을 계속하였다.

제8사단장은 육군본부와의 모든 통신이 두절된 탓으로 전 전선의 전황을 알 수 없어 부대지휘상 많은 고충을 겪고 있었다. 그는 적정과 가용병력 및 지형을 고려하여 심사숙고한 끝에 승산 없는 무모한 전투를 회피하고 전황이 과곡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대관령으로 물러나 상황추이에 따라 반격하기로 결심하였다.

이 무렵 연곡천 일대의 아군 주방어진지를 점령한 적은 재편성 중에 있었으며 그리고 후방의 군선강방어선에서는 적의 산발적인 공격을 격퇴하고 방어선을 지탱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단은 27일 14:00 철수를 개시하여 대관령을 넘어 이날 밤 사단사령부와 제10연대는 유천리에 집결하였고 제21연

대는 횡계리에 집결하였다. 적은 21:50경 강릉으로 진입하였다.

제8사단장은 2개연대의 재편성상태를 점검한 결과 사단전투력이 건재하며 장병들의 투지가 불타고 있음을 확인하자 강릉탈환을 목표로 반격하기로 결심하고 공격명령을 하달하였다. 28일 아침에 제21연대가 공격을 개시하였으며 제10연대 제1대대가 구산리 동측 칠봉산(七峰山)으로 추진 배치하여 공격제대를 측방에서 엄호하도록 하였고, 포병은 105밀리 2문을 대관령 동편의 보광리(普光里) 입구까지 추진하여 화력지원을 하였다.

공격제대가 강릉 교외까지 진출할 무렵 원주의 제6사단사령부와 극적인 통화가 이루어져 “원주로 철수하라.”는 육군본부의 명령을 받고 난 후 공격을 중지하고 대관령으로 철수하였다.

28일 저녁 유천리와 하진부리에 집결한 제8사단은 행군 준비를 갖추고 다음날 원주를 향해 차량행군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대화(大和)에서 횡성이 피탈되었다는 것을 피난민으로부터 확인한 사단장은, 적이 원주에 먼저 도착할 거리에 있으므로 목표를 제천으로 변경하였다.

이처럼, 동부전선의 국군은 제6사단이 춘천과 홍천에서 인민군 제2군단 예하의 제2사단과 제12사단의 진출을 봉쇄하고, 제8사단이 강릉을 중심으로 적 제5사단과 해안에 상륙한 육전대의 협공을 저지하면서 분전하던 중 육군본부의 작전지도지침에 따라 제6사단은 이들을 저지하면서 원주 방향으로 물러나야 했고 제8사단은 제천을 목표로 이동 중이었다.

이는 6월 27일부터 춘천과 강릉을 두고 피아가 공방전을 벌이고 있을 때 서부전선에서 전개된 서울방어작전의 결과에서 연유된 것으로 지연작전으로의 전환을 위한 국군의 전반적인 전선조정에 따른 것이었다.

第4節 首都 서울의 失陷

1. 서울 防禦作戰

(1) 政府와 軍首腦部의 戰爭指導

전쟁초기 국방부와 군수뇌부는 ‘서울 고수냐’, ‘한강선 방어냐’의 기로에서 ‘서

을고수' 전략을 굳히고 모든 예비전력을 서울 북방에 집중투입하여 문산을 방어하는 한편, 의정부에서 적을 저지하고 반격으로 이전하려 하였으나, 26일 이곳마저 피탈당하였다.

다급하게 된 육군 총참모장은 이날 17:00에 제7사단장 유재홍 준장에게 의정부지구 전투사령관이라는 직책을 부여하고 제2사단을 포함, 이 방면에 투입된 모든 부대를 통합지휘하도록 하며 창동-우이동 선에서 적을 저지한 후 제3·제5사단으로써 반격으로 이전, 실지(失地)를 회복한다는 긴급 구두명령을 하달하였다.¹⁴⁴⁾

이 무렵 문산 방면에서는 제1사단이 봉일천으로 철수 중이었고 김포반도에는 적이 한강하구로 도하를 시도하자 급조된 김포지구사령부가 방어편성을 실시 중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급전되자 '서울 고수'는 의문시되었고 군의 전쟁지도 방침이 흔들리게 되었다.

국방장관은 26일 심야에 육·해·공 총참모장이 참석한 군수뇌연석회의(軍首腦連席會議)를 소집하여 긴급대책을 논의한 끝에 "육군은 철수를 거듭할 경우 마지막에는 게릴라작전으로 최후까지 항전하며 해·공군은 지상군 작전에 협동하고 마지막에는 망명정부요인의 수송을 담당한다."는 전쟁지도 원칙을 결정하고 있었다.¹⁴⁵⁾

이 무렵 27일 01:00 중앙청에서는 비상국무회의(非常國務會議)가 소집되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이범석 전 국무총리는 국가의 기본전략문제를 결정하고자 제의하고 "서울 외곽에서 저항을 계속하며 지연전을 벌일 것이냐, 서울을 사수할 것이냐, 아니면 서울을 철수할 것이냐를 시급히 결정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다면 서울 시민에 대한 조치와 한강교 폭파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군수뇌연석회의가 끝난 다음 채 육군총장을 대동하고 이 국무회의에 출석한 신 국방장관은 총참모장의 낙관적인 전황 설명과는 달리 정부의 수원이동을 발의하였고 각료들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수원으로의 천도를 결정하였다. 서울시민에 대하여는 당초부터 이동계획이 없었지만 이때에도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였다.

이어 양인은 심야국회(深夜國會)에 참석하여, 채 총장은 "서울을 고수한다. 그리하여 반격으로 전환, 백두산에 태극기를 꽂을 것이다."라는 요지로 국무회의에서와 같은 맥락의 발언을 하였고, 신 국방장관은 총리 자격으로 "전세로 미루어 정부의 이동이 불가피하다."고 암시하였다. 국회는 갑론을박 끝에 "국회

의원은 100만 서울시민과 더불어 수도를 사수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심야국회에서 나온 신 장관은 정부의 이동에 따른 국군의 철수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05:00경 국방수뇌회의(國防首腦會議)를 소집하였다. 장경근(張璟根) 국방차관을 비롯한 제1·제2·제3국장 각군 총참모장, 그리고 육군본부의 참모부장과 정보·인사·군수국장이 참석하였다. 신 장관이 불리한 전세로 인하여 서울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복안을 눈물 어린 표정으로 발표하자 모두가 비통해하였다. 이때 국방부 제2국장 이선근(李瑄根) 대령은 책상을 치면서 일어나 “100만 학도를 동원해서라도 서울을 사수하자. 서울 시민을 그냥 두고 철수할 수 없다.”고 역설하였다.¹⁴⁶⁾

결국 채 총장이 “정부는 남으로 이동하더라도 군은 서울을 고수한다”는 결심을 피력함으로써 회의를 끝내었다. 그러나 회의가 끝난 직후 채 총장은 전선으로부터 “오늘 밤을 넘기기가 어렵다”는 어두운 전황보고를 접수하였다.

이처럼 27일 날이 밝기 전 비상국무회의·심야국회·국방수뇌회의에서 정부의 이동을 결정하고 군의 철수문제를 논의하는 동안 국군통수권자인 이승만 대통령이 03:00경 경무대를 떠나 피난길에 올랐다.

한 나라가 외침을 받아 수도가 함락 직전에 놓여 있을 때 대통령의 일거일동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하여 중요하다. 이러한 경우 언제, 어떻게 수도를 떠나느냐, 즉 이탈시기의 결정과 통수권자로서의 조치가 중요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 프란체스카 여사는 다음과 같이 기술해 두고 있었다.

27일 02:00경 신 국방장관이 경무대에 도착했고 뒤이어 서울시장과 조병옥 씨가 뒤따라 들어왔다. 신 장관이 간곡히 “각하, 서울을 떠나셔야겠습니다.”라고 권유하였다. 대통령은 “안 돼! 서울을 사수해! 나는 떠날 수 없어!”라고 하였다. 결국 국가원수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면 더 큰 혼란이 야기된다는 주변의 염려로 대통령은 남하를 결심하였던 것이다.¹⁴⁷⁾

27일 06:00 정부가 수원 천도를 발표함으로써 시민들은 비로소 수도의 위기가 급박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서울북방 교외에서는 피난민이 계속 시내로 몰려들고 일부 서울시민은 피난길을 재촉하는 한편, 증원부대차량이 북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내는 혼란 속에 빠져 들었다. 특히 한강 인도교 부근과 서울역은 혼잡이 극에 다다랐다.

10:00경부터 창동저지선마저 무너지자 채 총장은 드디어 수도사수의 결심을 번의, 신 장관으로부터 서울철수를 허락받고 11:00 육군본부와 재경부대장

의 연석회의를 개최하였다. 여기에서 해·공군본부는 수원으로, 육군본부는 시흥 육군보병학교로 이동한다고 천명하였으나, 전선부대의 철수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이어 공병감 최창식(崔昌植) 대령이, 적이 서울시내에 들어오기 2시간 전에 한강교(한강대교, 철교 3개소, 광진교)를 동시 폭파할 것이며 현재상황으로 보아 폭파시간은 16:00라고 보고하였다. 또 교량 폭파 후에는 공병대가 전선에서 후퇴하는 병력을 도하시키기 위하여 공병 보트 18척을 준비한다고 하였다.

수도경비사령관 이종찬(李鍾贊) 대령은 서울 시민의 소개조치 없이 군부만의 철수는 있을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도 라디오 방송의 전황보도는 고무적이었고 13:00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녹음방송이 있었으나 시민들은 더 이상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채 총장은 군부의 철수는 극비리에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12:30부터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육군본부는 시흥의 육군보병학교로 이동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미군사고문단도 뒤이어 시흥으로 이동하였다.

이때 미군의 지원을 예고하는 소식이 담지하였다. 고문단장 대리 라이트(W. H. S. Wright) 대령은 한강을 도하한 직후 맥아더 장군으로부터 “합동참모본부로부터 군사고문단을 포함한 주한미군의 군사활동에 관한 작전통제권을 부여받았다. 곧 조사반¹⁴⁸⁾을 파견할 예정이다.”라는 전문을 수령하였으며, 시흥에 도착해서는 “중대한 결정이 임박하였으니 기운을 내라.”는 또 다른 전문을 입수하였다. 고문단장 대리는 이들 전문을 고문단이 한국에 머물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철수계획을 취소한 뒤 잔류한 고문단원과 더불어 서울로 복귀하기로 하였다.¹⁴⁹⁾ 이에 라이트 대령은 채 총장에게 전문내용을 설명하고 다시 육군본부를 용산으로 복귀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편 수원에서는 신 장관이 미 대사관 직원으로부터 미군의 지원소식을 듣고 즉시 채 소장에게 “미군이 해군과 공군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러 오게 되었으니 병력의 희생을 적게 하면서 미군이 올 때까지 지구전을 하라.”¹⁵⁰⁾고 전하였다.

채 총장은 미군의 지원소식에 고무되어 다시 한강을 건너 용산으로 복귀하기로 결심하였다. 서울 고수는 전쟁발발시부터 채 총장의 일관된 작전지도 방침이었다. 그의 결정은 장관의 지침과는 일치하지 않으나 그가 통수권자 다음의 실질적인 최고군령권자이며,¹⁵¹⁾ 대통령도 서울 고수의지를 천명한 바 있고, 당시 국군이 창동-미아리 선에서 혼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휘상 불가피한 선

택이라는 견해와 반면 결과론에서 조기에 한강선 방어로 전환하는 것이 보다 나은 선택이었을 것이라는 시각의 양면적 평가를 받고 있다.

채 총장의 결심에 따라 육군본부는 이날 18:00경 다시 용산으로 복귀하여 전쟁지도에 임하였다. 이때 각 신문사에서는 대대적으로 미극동군사령부의 전방지휘소 설치를 대서특필하여 호외와 벽보를 붙였고, 정훈국에서는 장병들의 사기를 제고하기 위한 가두선전에 주력하였다.

(2) 倉洞-彌阿里 戰鬪

의정부의 실함으로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가 전쟁지도 방안을 놓고 혼선을 빚는 가운데, 전선에서는 의정부지구 전투사령관에 임명된 제7사단장 유재홍 준장은 이곳에 투입된 전력을 규합하여 창동을 중심으로 도봉산(우이동)-수락산(상계동) 선의 구릉지대에 방어선을 형성하기로 계획하고 철수부대를 수습중이었다.

이때 의정부 남쪽 백석천 일대에 배치된 엄호부대인 제2사단 제25연대(-)가 철수부대를 뒤따라 26일 17:00경부터 전차를 앞세운 적 제3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자 방어선을 형성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의문시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제25연대는 2.36" 로켓포조 분대장이 백석교에 잠복하여 적 전차 1대를 파괴하고, 또 이날 밤 제11중대장이 편성한 전차특공대가 정차 중인 적 전차를 공격하여 2대를 파괴하는 등 강력히 저항하였다. 적은 이와 같은 뜻하지 않은 전차의 손실에 충격을 받았음인지 이날 저녁 공격을 중단하였다가 다음날 새벽에 재공격을 하였고 엄호부대는 분산철수하였다.

이 동안 의정부지구 전투사령부는 철수병력을 수습하여 우이동-창동 구릉지대에 제7사단 제1·제3·제9연대, 제2사단 제5·제16·제25연대, 제3사단 제22연대의 잔여병력을 모아 총 6개대대 규모의 병력을 배치할 수 있었다. 우측방 불암산 방면에는 제9연대(-) 철수병력이, 육사 부근 고지에는 내촌에서 물러난 생도대대가 육사교장 이준식(李俊植) 준장의 지휘하에 각각 배치되었다. 이때 육군본부의 장교연대가 창동 부근에서 병력수습에 나섰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육군본부는 이들을 해체하여 각 연대에 배치 연락임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그러나 도봉산과 수락산 어간의 넓은 회랑은 적의 기계화부대 기동에 대단히 유리하였다. 27일 10:00경 각 부대는 미처 방어진지를 편성하기도 전에 40여

대의 전차와 자주포로 증강된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방어부대는 포병학교 제2교도대대 105mm 곡사포 6문의 지원사격을 받으며 실탄이 고갈될 때까지 고군분투하였으나 결국 적의 전차를 저지하지 못하고 방어선이 돌파되어 미아리, 태릉 일대로 분산철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1연대장 함준호(咸俊鎬) 대령이 수유리에서 적탄에 맞아 장렬히 전사하였다.

이 무렵 미아리-회기동 선에서는 전날 육군본부로부터 미아리에서 수도 서울을 방어하라고 명령을 받은 미아리지구 전투사령관 겸 제5사단장 이응준(李應俊) 소장이 이곳에 투입된 예하의 제15연대 제2대대, 제20연대 제1대대와 수도사단 제8연대 제2대대를 지휘하여 방어진지를 편성하다가 철수병력을 수습하고 있었다. 창동을 점령한 적이 진격을 멈춤으로써 전선은 잠시 소강상태가 유지되었으며, 태릉 일대에서는 제9연대(-)와 생도대대가 적과 접촉을 유지하고 있었다.

제5사단장 이응준 소장과 제7사단장 유재홍 준장은 정릉(171고지)-미아리-청량리(106고지)를 잇는 이른바 미아리 방어선을 형성하고 3번도로를 포함한 서측부대는 이 소장이, 동측부대는 유 준장이 각각 지휘하여 서울을 방어하기로 하였다.

이들은 방어선의 지형이 황격실로서 방자에게 유리하므로 미아리에서 도로만 차단하면 적 전차를 막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전력을 다하여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미아리지구 전투사령관 이응준 소장은 제20연대 제1대대를 171고지 동쪽, 제1연대(대대규모)를 길음교 북쪽 공동묘지, 제15연대 제2대대를 미아리고개 132고지에 배치하였으며, 의정부지구 전투사령관 유재홍 준장은 혼성연대¹⁵⁰⁾를 164고지 북동쪽, 제8연대 제2대대를 회기동 143고지 및 중랑교 남쪽 106고지에 배치하고 제16연대(대대규모)를 예비로 돈암국교에 배치하였다. 지원화력으로 105mm 곡사포 6문이 돈암동에 배치되고, 57mm 대전차포는 6문이 미아리고개 전방에, 2문이 중랑교에 배치되었다. 이 선에서는 병참, 경리, 병기 등 지원병과 병력까지 투입되었다.¹⁵³⁾

이와 같이 27일 오후까지 미아리-회기동 선에는 약 3,000여 명의 병력이 배치되었으며, 총참모장을 비롯하여 이응준 소장, 유재홍 준장, 육본 요원, 재경 각 부대 및 군사학교 간부들이 서울 사수의 비장한 각오로 미군의 참전소식도 전하면서 미아리선에서 혼성병력의 사기를 고양시키고 있었다.

아울러 공병대대가 민간인을 동원하여 미아리 일대에 산병호를 구축하였으며, 육본 전방지휘소장 강문봉(姜文奉) 대령의 지휘하에 미아리에서 수십 대의 차량을 동원하여 접근로에 도로장애물을 구축하고 길음교로 전차접근시 폭파할 준비를 해두었다. 우측방에서는 경춘가도의 중랑교를 국군 제3사단 공병대대가 폭파하였다.

한편 인민군은 서울을 점령하기 위해 최초 수립된 선제타격계획에 의해 '서울 일대의 국군을 정면과 측익, 배후로부터 타격하여 포위섬멸'한다는 작전하에 각 부대가 진격에 각축을 벌이고 있었다.¹⁵⁹⁾ 서울 정면에서는 적 제4, 제3사단이 빠른 진출을 위해 보병부대와외의 교전을 회피하고 기갑부대로 하여금 전진로를 개척하도록 하였으며, 서울 서북방에서는 적 제1사단과 제6사단(-)이 압력을 가하고, 서측방에서는 제6사단 제14연대가 김포 정면으로 진출을 서두르고 있었다. 그러나 춘천 방면의 적은 국군 제6사단에 의해 저지되어 계획보다 진출이 늦어지고 있었다.

27일 밤 폭우가 집중되는 가운데 적의 공격이 재개되었다. 적의 기마정찰대와 전차 약 10여 대가 19:00 수유리 방면에서 미아리로 공격하였다. 전방에 배치된 국군 제20연대 제1대대는 사력을 다하여 분전하였으나 적 전차를 저지하지 못하였다. 공병이 도로에 폭약을 매설하여 적 전차를 저지하려 하였으나 역시 실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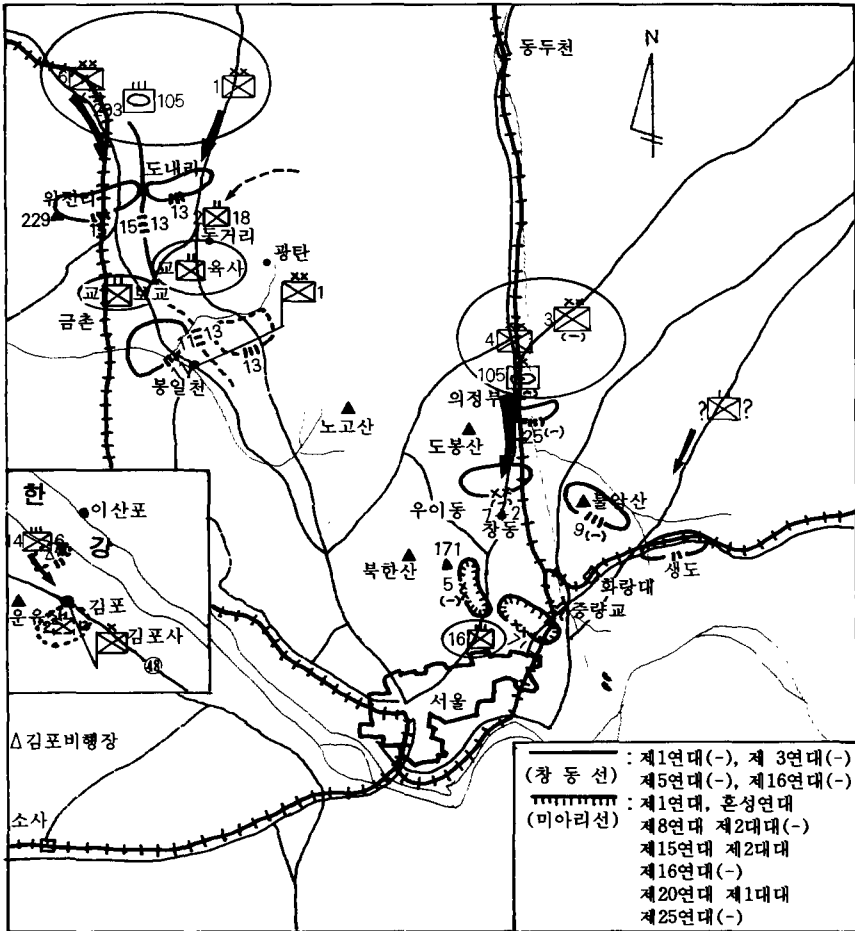
그러나 곧 이어 105mm 포 곡사포 3문, 대전차포 3문, 81mm 박격포 4문, 2.36" 로켓포 등이 일제히 적 전차에 사격을 집중함으로써 마침내 선두전차를 파괴하여 적의 공격을 격퇴하는 데 일단 성공하였다. 때마침 미군이 참전한다는 방송을 들은 시민들이 장병들의 식사를 마련하여 달려오기도 하였다.

미아리 방어선은 어두워지면서 잠시 접적이 끊어졌으나, 이날 24:00경 적의 전차 수대가 보병정찰대의 선도하에 다시 폭우 속에 수유리에서 미아리로 기습적으로 진입하면서 전황이 급전되었다. 미아리 공동묘지의 도로변에 배치된 부대들은 수미터 전방도 관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적의 전차공격을 받자 각개분산되기 시작하였다.

적 전차는 미아리 삼거리에 구축된 장애물을 쉽게 밀어제치고 길음교로 진출하였다. 이때 서울 시내에 침투해 있던 적의 편의대가 곳곳에서 예광탄으로 신호를 보내어 국군의 사기를 저상하고 있었다.

길음교 좌측고지에 배치된 제15연대 제2대대는 적 전차가 접근하자 길음교

서울 방어 작전



부근에 포격을 집중시키고 대대장의 진두지휘하에 육탄공격을 감행하며 실탄이 고갈될 때까지 저항하였으나 결국 적 전차 2대의 고개진입을 허용하고 말았다. 이때가 28일 01 : 00경이었다. 마침내 서울 최후방어선이 돌파되고 말았다. 회기동 일대에 배치된 제8연대 제2대대는 적과 접전을 전개하다가 탄약이 고갈되어 철수하였으며, 태릉의 제9연대(-)와 육사 생도대대도 28일 아침까지 접적을 유지하다가 철수하였다.

미아리방어선에서 28일 새벽을 맞이한 잔류병력들은 적 전차가 시내로 진입

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진지를 지키고 있다가 날이 밝은 다음 적 보병 부대의 급습을 받고서 분산철수하기 시작하였다.

(3) 奉日川 부근의 戰鬪

6월 27일 서울 북방 의정부-미아리에서 인민군 제3사단과 제4사단이 3번도로 접근로로 공격을 집중하고 있던 같은 시간에, 서울 서북방에서는 문산-법원리까지 진출한 인민군 제6사단(-)과 제1사단이 1번도로와 307도로로 접근로에 전개하여 서울을 목표로 봉일천 전방으로 진격 중이었다.

이때 봉일천에서는 임진강에서 철수한 국군 제1사단이 제15연대(배속 제20연대 제3대대)를 1번도로상 위전리에, 제13연대를 307번도로상 도내리에, 그리고 제11연대를 예비로 최후의 저항진지를 편성하고 적의 서울로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하여 결전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초기전투에서 분산철수한 제12연대는 급흔에서 재편성 중이었다.¹⁵⁵⁾

이날 10:00경 전차를 선두로 적 제6사단의 주력부대가 제15연대 정면으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1번도로상의 중심 깊은 대전차 방어지대를 형성한 제15연대 제3대대장(崔炳淳 소령)은 57밀리 무반동총과 2.36인치 대전차 화기가 전차 앞에서 무력함을 알고 육탄공격을 결심하게 되었다. 그는 제11중대장에게 선두 전차를 공격하라고 지시하고 자신이 직접 수류탄특공대를 이끌고 후미전차에 접근하였다. 제15연대 정면에 출현한 적 전차는 모두 6대였는데 전차장들은 모두 상반신을 밖으로 내놓고 있었다. 수류탄을 손에 든 특공대가 일제히 돌진하였으나 전차에서 불을 뿜는 기총사격에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고 제11중대장(李善道 대위)도 전차에 뛰어오르다가 전사하였다.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제11중대 제2소대장 박종순(朴鍾淳) 소위가 선두전차 안에 수류탄을 집어 넣어 폭발시켰다. 이렇게 되자 적 전차 6대를 잃은 인민군은 일단 공격을 중단하고 문산리로 철수하였다. 이로써 제15연대는 적 제6사단의 공격기세를 보기 좋게 꺾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장병들의 전차 공포증을 말끔히 해소하고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였다.

좌전방의 제15연대가 격전을 벌이고 있는 동안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던 우전방의 제13연대는 19:00경에 인민군 제1사단의 보·전협동공격을 받아 방어진지가 양분되는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제2중대 신현조(申鉉祚) 중위가 지휘한

2.36" 로켓조가 선두전차의 무한계도를 파괴하는 바람에 적의 공격이 주춤하게 되었고 사기가 양양된 연대는 방어선을 회복하였다.

이날 밤 봉일천 일대에 소나기가 쏟아지자 적은 기상의 악조건을 역이용, 야간공격을 전개하였다. 최후저항선은 무너졌고 제1사단은 밤새 봉일천으로 물러났다.

이에 앞서 27일 저녁에 육군본부에서 파견한 작전지도반(반장 金弘一 소장)이 제1사단 전술지휘소를 방문하여 미아리방어선의 전황을 설명한 다음 우발사태에 대비하여 한강 도하철수를 준비하도록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단장은 총참모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철수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해 조속한 조치를 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당시 제1사단과 육군본부와는 통신이 불통이었다. 작전지도반장은 재량권이 없었으므로 사단장의 건의를 총참모장에게 전달할 것을 약속하고 사단 전술지휘소를 떠났다.¹⁵⁶⁾ 이튿날(28일) 아침 L-5 연락기가 사단 전술지휘소에 통신통을 떨어뜨리고 갔다. 그 속에는 “현 방어선을 사수하라.”는 육군본부의 명령이 담겨 있을 뿐 한강 이남으로 철수하라는 언급은 없었다.

사단장은 이미 수립해 놓은 반격명령을 하달하고 28일 아침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15연대의 철수로 좌전방이 된 제11연대는 큰 교전 없이 적 제6사단을 격퇴, 위전리-도내리 선상의 중간목표를 점령하고 최후저항선의 좌측 일부를 회복하였다. 반면 제13연대는 대치한 적 제1사단과 일진일퇴의 격전을 치르고 있었기 때문에 반격으로 전환할 수가 없었다. 사단장은 지체 없이 배속된 서울특별연대와 제20연대 제3대대를 투입하여 양개 연대 사이에 형성된 간격을 메우고 방어선을 연결할 수 있었다.

이날 적은 완강한 저항을 보이지 않았다. 이처럼 최후저항선의 일부를 회복하자 사단 전술지휘소에서는 주저항선의 회복도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게 되었다.

(4) 金浦 방면의 戰鬪

서울북방 의정부와 봉일천지역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한강 하구지역인 김포지역에서 또 다른 적이 서울을 측면에서 위협하고 있었다. 김포반도 북단의 한강하구는 강폭이 2~3km에 이르고 조수 간만의 영향을 받아 도하작전을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웠으므로, 육군본부에서는 지형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이 일대의

방어계획은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인민군 제6사단은 그러한 방어의 취약점을 간과라도 한 듯 점령한 웅진지구를 38경비 제3여단에 인계한 후 제14연대가 이미 26일 오전 영정포에 집결하여 도하지점을 정찰하면서 강화도와 김포반도 방면으로 도하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적의 도하징후를 보고받은 육군본부는 급히 남산학교장 계인주(桂仁珠) 대령을 김포지구 전투사령부관에 임명하고 그곳으로 도하한 제12연대 제2대대를 포함하여 남산학교, 보병학교 후보생, 공병학교 학생, 보국대대 병력과 또 그곳으로 투입된 독립기갑연대 일부 부대를 통합 편성하여 적의 도하에 대비하도록 명령하였다.¹⁵⁷⁾ 계 대령은 통진을 중심으로 한강하구와 염하를 이용하여 김포반도를 방어할 것을 구상하고 강화도-통진간 도로 좌측에 보국대대와 기갑연대 제1대대를 배치하고, 우측에 기갑연대 제3대대(도보), 그리고 김포반도 북단에는 제12연대 제2대대(혼성), 남산학교 소대병력을 배치하고 보병학교 후보생대대를 예비로 하는 진지편성에 주력하였다.¹⁵⁸⁾

각 부대가 진지편성을 거의 마무리할 무렵 26일 16:00 적의 도하정찰이 두드러졌으며, 2시간 후 수척의 적 어선이 김포반도 북단의 강령포로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정면의 제12연대 제2대대 제5중대는 적 2개중대 규모가 막 하선(下船)하기 시작하였을 때 일제히 기습사격을 가함으로써 적을 섬멸하였으며, 또한 조강리 강둑에 배치된 장갑 1개소대도 적의 화물선을 관측하고 장갑차에 설치된 37밀리 포를 발사하여 격침시키는 전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이날 야간에 적은 소규모 부대를 은밀하게 강령포 일대의 고지로 침투시켜 도하발판을 확보하는 한편, 강화로 상륙한 1개중대 규모가 갑곶에서 염하를 건너 보국대대를 배후에서 급습, 김포사령부 전방부대의 퇴로차단을 기도하였다.

27일 미명부터 적 제14연대는 대안에서 지원사격과 더불어 본격적인 도하를 개시하였다. 국군 제12연대 제2대대를 비롯한 각 방어부대는 적의 공격을 받고 고전하였으며 더구나 보국대대의 돌파로 퇴로가 차단되었음을 알고부터 방어선이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때마침 육본에서 김포지구의 위기를 실감하고 제3사단 제22연대 제3대대와 수도경비사령부 제8연대 제3대대, 기갑연대 도보수색대대 제8중대를 김포사령부에 배속하여 전투력을 강화하였다.

따라서 김포사령부는 이날 저녁까지 철수부대를 수습하고 새로이 투입된 부대로써 김포방어의 마지막 보루인 운유산-73고지선에 보병학교 후보생대대, 제

8연대 제3대대(-), 기갑연대 제3대대(-)와 제2대대, 제22연대 제3대대를 배치하고 제12연대 제2대대를 김포에 예비로 확보하여 비로소 부대간 연결된 새로운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장림 일대를 장악한 적의 주력은 잠시 추격을 멈추고 부대정비에 임하고 있었다.

그러나 28일 새벽 적은 2개 방면에서 공격을 재개하였다. 적은 도하부대를 만재한 어선 수척으로 한강을 거슬러 대촌 북쪽 강변에 상륙시키는 한편, 거의 동시에 전차 2대를 선두로 주력을 김포로 향하는 도로접근로에 투입하여 국군 제22연대 제3대대 정면으로 공격하였다.

김포지구의 장병들은 2.36"로켓포와 장갑차의 37mm 직사포 등을 집중하고 소총탄이 소진될 때까지 고군분투하였으나 적 전차를 저지하지 못하였다. 방어선의 일부가 무너지자 즉시 예비인 제12연대 제2대대(-)가 투입되었으나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 이미 김포에도 적의 포탄이 낙탄하는 가운데 방어부대가 김포로 물러나기 시작하였다.

2. 서울 撤收作戰

(1) 漢江橋의 爆破

인민군 제1군단이 김포·금촌, 미아리로 서울을 향해 각축을 벌이던 중 28일 01:00경부터 인민군 제4사단을 지원하던 전차가 미아리 고개를 넘어섬으로써 국군의 방어선이 돌파되고 일부 부대가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더 이상 조직적인 저항은 불가능하였다. 이는 서울 고수를 위한 최후 방어선의 붕괴를 의미하였다.

이 무렵인 28일 01:45경 채 총장은 강문봉 대령으로부터 적 전차가 시내에 진입하였다는 것을 보고받자 즉시 공병감 최 대령에게 “지금 적 전차가 시내에 들어와 싸우고 있다. 즉시 한강에 가서 한강교를 폭파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그리고 채 총장은 전방부대의 전투지휘를 일선 지휘관과 김백일 참모부장에게 맡겨둔 채 용산의 육군본부를 떠나 한강을 건너 시흥으로 향하였다.

한강교량의 폭파준비는 이미 의정부가 실패되고 창동으로 철수하던 26일 저녁에 채 총장이 최 공병감에게 “임진교의 파괴실패를 상기시키면서 한강교 폭파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공병감은 다음날 27일 09:00에 공병학교장 엄홍섭(嚴鴻燮) 중령에게 폭파를 준비하라고 명령하였으며, 엄 교장은 남한강과출소에 지휘소를 설치하고 황원회(黃元會) 중위와 이창복(李昌馥) 중위에게 폭파임무를 부여하였다. 이들은 이날 15:30까지 한강상의 5개 교량¹⁵⁹에 폭약설치를 완료하였다.

최 공병감은 총참모장으로부터 적의 서울시내 진입 2시간 전에 파괴하도록 지시를 받았으며 이때 상황으로는 27일 16:00를 폭파예정시간으로 계획하여 준비작업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무렵 시흥으로 내려갔던 육군본부가 다시 용산으로 복귀함에 따라 폭파부대는 폭파장치를 일단 제거하여 차량과 열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대기하고 있던 중, 전방상황의 악화로 27일 23:30경 재차 폭파준비 명령을 받게 되자 역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제거한 폭약을 재장전해 두고 있었다.

한편 총참모장이 떠난 직후 미아리 선에서 육군본부에 당도한 이용준 소장, 유재홍 준장, 이형근 준장 모두가 한강 폭파명령 하달소식을 듣고 참모부장 김백일 대령에게 “아직 일선병력은 철수명령이 없어 그대로 남아 있으니 병력이 철수한 후 폭파하자.”고 요청하자 김 대령이 동의하여 작전국장 장창국 대령에게 교량폭파를 중지하도록 명령하였다.

장 대령은 즉시 지프차로 폭파지휘소가 위치한 남한강과출소로 향하였으나 도로가 막혀 늦어지고 있었다. 당시 26일부터 이승만 대통령이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서울시민들의 이동금지명령을 하달하였으나 그 명령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강(江) 북단에는 폭주하는 인파와 차량으로 대혼란이 야기되었고, 군의 차량과 장비는 피난민들에 의해 거의 완전히 차단된 상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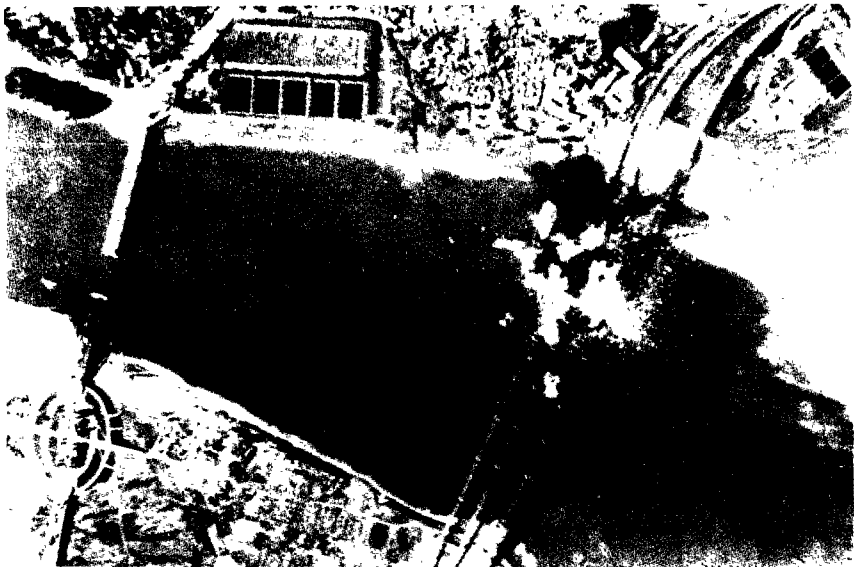
폭파지휘소에서는 총장의 폭파명령을 받은 최 대령이 28일 02:20경 엄 중령에게 폭파명령을 하달하였으며, 엄 중령은 즉시 대기하고 있던 황 중위에게 장악점화를 지시하였다. 이때의 교량상황은 육군 헌병과 경찰이 명령 없이 후퇴하는 차량들을 저지하고 있었으나 통제는 거의 불가능하였다. 황 중위는 먼저 교량 부근에 배치된 공병 경계분대에 차량통과를 차단하도록 신호하였다. 그러나 이때 이시영 부통령의 차량이 통과하면서 10여 대의 차량이 꼬리를 물고 통과하였다.

점화신호와 동시에 인도교에 이어 3개 철교에서 굉음과 함께 불꽃이 치솟았다. 그러나 장악의 불발로 경부선 복선철교와 경인선 상행 단선철교는 완전히

폭파되지 않았다. 이의 실패는 적 전차의 도강을 허용하게 됨으로써 후일의 작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 동안 폭파 중지명령을 하달하기 위해 출발하였던 장 대령은 폭파지휘소 부근 언덕에서 일대 폭음을 들었으며, 이때의 시간이 02:30경이었다.⁹⁶⁾ 광진교는 이보다 약 1시간 반 뒤에 폭파되었다.

차량과 피난민들이 대교 위에 있는 상황에서 교량이 폭파되었으므로 약 500~800여 명으로 추정되는 피난민들이 희생되었다.⁹⁷⁾ 역시 북한강파출소 부근에서는 40~50여 대의 차량이 폭음과 과편으로 대파되어 많은 인원이 손상을 입었다. 적이 교량까지 진출하기 전 철수병력들 중 일부는 폭파되지 않은 철교에서 기동차로 도하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한강교의 폭파는 서울시민의 피난조치나 전선부대에 대한 철수명령조차 없는 상황에서 단행되었다. 이로써 150만 시민의 대부분이 적 치하에 들어가야 했고 국군 주력병력의 퇴로가 차단되었으며 수개의 사단을 지원할 수 있는 차량, 장비 및 보급품이 한강 이북지역에 갇혀 적 수중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한강교량 폭파

(2) 서울 市街戰

수도 고수를 최후까지 견지해 온 육군 총참모장 채병덕 소장이 용산의 육군 본부를 떠날 무렵 미아리방어선이 돌파되어 적 전차가 시내에 진입함으로써 무방비상태에 놓인 시가지의 운명은 풍전등화격이 되었다. 시내 요소에 긴급히 차량 등으로 방책을 치는 임시대책이 강구되긴 하였으나, 계획이 미리 수립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대비가 없었으므로 조직적인 시가지전으로 전환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시내에 있던 수도경비사령부 및 제1공병단의 일부 부대, 그리고 전선에서 철수한 일부 부대들이 부대별로 시가전을 수행하게 되었다.

미아리가 돌파될 무렵 공병감의 명령에 따라 편성된 제1공병단 소속의 전차특공대는 혜화동 쪽으로 진출하여 창경원 앞 도로에 바리케이드를 구축하고 저항하였으나 적 전차를 저지하는 데 실패하였다. 이리하여 적의 전차는 청량리·동대문·중앙청·종로입구·한국은행·마포 등지로 각개 약진하고 이날 08:00에는 서울역전을 통과하여 삼각지로 3대가 진출하고 있었다.

이 무렵 삼각지와 마포 방면에 수도경비사령부 예하 제18연대 제1대대가 적의 진출에 대비하고 있었다. 또한 중앙청, 남산, 마포에 대공사격반(0.5"기관총)도 운용하고 있었다. 삼각지에 배치된 부대가 57mm 대전차포로 접근하는 전차를 공격하였으나 전차는 파괴되지 않은 채 한강 쪽으로 빠져 나갔다. 그러나 대대는 그 뒤를 따라 접근하는 적의 차량을 공격하여 파괴하고 적 30여 명을 사살하였다. 이보다 1시간 후 적 전차 7대가 후속 진출하였다. 대대 장병들은 건물에 올라가 사격을 집중하거나 전차특공대를 조직하여 육탄공격을 전개하였으나 전차는 잠시 주춤하다가 한강으로 진출하였으며 결국 이들은 마포로 이동하여 철수준비를 갖추었다. 하지만, 이날 대대에서 파괴한 남산의 대공사격반 박명웅(朴明雄) 소위조가 기관총사격으로 적 전투기 YAK 1대를 격추시키는 큰 전과를 올렸다.

한편 이날 아침 무렵 미아리방어선이 붕괴되면서 제5연대 제3대대의 일부 병력은 철수하다가 청량리에서 적 전차 12대와 일부 보병병력이 시내로 진입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백복성(白福成) 상사 등 10명의 전차특공대가 은밀히 적 전차에 접근하여 기습적으로 수류탄을 전차 안으로 투척하였다. 그러나 전차의 파괴 여부는 확인되지 못하였고 대원 중 3명만이 집결지에 도착하였다.

또한 남산에서는 시가전을 벌이다가 이곳으로 모여든 장병들(중대규모)이 참모학교 이용문(李龍文) 대령의 지휘하에 백호부대라는 별칭으로 뭉쳐 끝까지 항전하다가 장렬한 전사를 하였으며, 이 중 일부 생존자는 뒷날까지 유격전을 벌이기도 하였다.¹⁶²⁾

특히 서울대학병원에서는 적이 침입하자 1개 경비소대가 마지막까지 적을 저지하다가 전원이 장렬하게 전사하는가 하면 약 100명의 입원환자 중 80여 명이 뒷산으로 올라가 저항하다가 모두 전사하였다. 병원을 장악한 적은 입원 중인 부상병을 난사하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이와 같이 일부 부대나마 국군의 끈질긴 저항으로 적은 미아리방어선을 돌파하고서도 10시간이 넘어서야 한강선에 진출할 수가 있었다.¹⁶³⁾

시가전이 전개되는 동안 미아리방어선의 부대들은 밤새 분산되어 철수하기 시작하였고, 한강교량이 폭파되었음을 알게 되자 서울 외곽지대로 빠져 나가 광나루, 마포, 그리고 행주와 이산포 지역에 모여들었다. 적이 뒤쫓아오는데 교량은 파괴되었고 도하장구도 없이 넓고 푸른 한강물에 조우한 장병들의 심경은 어떠했을까. 병사들은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반드시 강을 건너 적을 방어하고 반격으로 서울을 다시 회복해야만 했다.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하수단이라고는 한강상의 민간인 나룻배뿐이었다. 인간이 최악의 순간에 고안할 수 있는 두뇌를 짜내어 급조로 갖가지 부유물을 만들어 강을 건너야 했다.

(3) 서울의 失陷과 各界의 動向

인민군이 서울의 중심부에 돌입한 것은 28일 11:30경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이날 한밤중이 되어서야 서울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었다. 서울은 적색의 세계로 일변하였고 거리에는 적 전차가 그 위세를 과시하고 있었다. 서울을 장악한 적은 곧 마포형무소와 서대문형무소를 비롯하여 각 경찰서에 들어가 정치범은 물론 죄수들을 모조리 석방시켰다. 이들은 죄수들을 인민의 영웅으로 추켜올리며 인민군을 환영하는 선봉에 내세웠고 소위 반민족주의자들의 색출에 앞장세웠다. 이들은 “인민군이 이미 대전, 김천, 군산, 원주 등지를 점령하고 계속 남진 중이다.”라는 유언비어를 살포함으로써 많은 피난민들이 다시 귀가하기도 하였다.

적이 서울을 점령하자 시민들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 중 적기를 들

고 인민군을 환영하는 무리가 있었다. 이들 중에는 이전부터 공산주의를 지지 또는 동경한 자들도 있었고 또 적이 점령한 이상 자포자기하여 적에 동조하는 자들도 있었다. 이들 가운데는 국회의원과 정부고위층에 종사하던 정치인들까지도 적지 않게 끼여 있었다.

한편 어떤 시민들은 집안에 숨어 있거나 산중으로 대피하였다가 위험을 고려하여 마지못해 적을 환영하는 양 가장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미처 철수하지 못한 국군의 낙오병이나 경찰관들은 줄곧 숨어서 은신하였는데 적의 점령초기에는 이들에 대항하여 싸우기도 하였다. 청년방위대 고문 안병범(安秉範) 대령의 경우는 군인으로서 시민을 방치한 채 철수할 수 없다고 분개하여 29일 세검정 부근 인왕산에서 활복자결하기도 하였다.

인민군은 서울을 점령한 당일부터 사전에 계획된 점령정책을 내놓고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김일성은 28일 서울점령의 축하연설을 방송하고 서울에 인민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위원장에 사법상 이승엽(李承燁)을 임명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어서 적은 중앙청, 서울시청, 유엔한국부흥단(UNKRA), 주한 각국 대사관, 각 신문사, 방송국, 운수 및 통신기관 등 공공기관을 장악하고 서울에 남아 있던 각 정당 사회단체 등 각계 각층의 대표자들을 강제 동원하였으며 국유재산과 정부요인 및 자본가들의 사유재산을 모두 몰수하였다.

북한의 군사위원회는 점령지역에서 군수물자를 구입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북한의 중앙은행권과 남한의 한국은행권을 병용한다는 포고문을 발표하였다. 환율은 북한권 1원에 남한권 8원으로 결정하고, 남북한 물품교역을 금지시키는 동시에 6월 27일 이전에 예금된 금액은 지불정지하였다. 이들은 그 후 남한권을 무제한으로 남발함으로써 화폐가치가 급락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물가가 폭등함으로써 시민생활에 위협과 타격을 초래하였다.

적은 시민들의 생계에 절실한 식량을 일반 시민들에게 동등하게 배급한다고 발표하여 수급대상자를 등록시켰으나 각 기관원이나 소위 의용군 유가족을 제외하고는 배급을 받지 못하였다.

서울시내에서 발간 중인 각 신문을 모조리 폐간하는 대신 소위 해방일보, 조선인민보 등 공산계 신문을 등장시켜 사회여론을 동조하도록 조작하였으며, 관영언론기관을 동원하여 기만선전을 되풀이하였다. 그러나 시민들은 오히려 날로 늘어나는 약탈행위와 기만술책에 증오심과 적개심이 깊어질 뿐이었다.

이들은 서울을 빠져 나가지 못한 각계 인사들을 이른바 반동분자로 몰고 또 이를 색출하기 위해 정치범들은 자수하라는 포고문을 발표하는가 하면, 사회 각계의 인사들을 전향시키기 위해 자수한 일부의 인사들을 앞세워 방송과 연설에 나서게 하였다.

결과적으로 서울은 인민군 제1군단에 의해 점령되었다. 인민군 제3사단과 제4사단이 제105전차연대(-)와 협동으로 철원에서 의정부, 미아리, 창동방어선을 돌파하고 서울로 진입하였다.

이 무렵 문산으로 공격을 해온 인민군 제1사단과 제6사단(-)은 봉일천 선에서 서울로 압박을 가하고 있었으나, 국군 제1사단의 방어선을 돌파하지 못하였으며, 김포반도로 남하한 인민군 제6사단의 1개연대는 김포비행장 부근까지 진출하고 있었다. 한편 조공인 인민군 제2군단은 제2사단과 제12사단이 국군 제6사단의 선방으로 춘천 점령이 늦어지고 홍천 북방에서 저지당하여 그들의 계획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서울 실험시 전선은 김포-봉일천-서울-홍천-대관령-강릉 선에 형성되었다. 인민군은 당초 남침계획대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였으나 국군의 포위에는 실패하였고 또 그들이 믿었던 인민봉기가 일어나기는커녕 국군과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쳤으며, 유엔의 제재가 가해지는 등 그들의 남침계획은 초기단계부터 차질을 빚어 전략의 대수정이 뒤따르게 되었다.

반면에 국군은 불의의 기습을 받아 전쟁지도의 혼선 가운데서 서울 고수전략으로 항전하였으나 전방방어선이 붕괴되고 결국에는 서울을 실험당하였다. 군 지도부는 전쟁이 발발하자 재경부대와 예비사단을 서울북방으로 부대별로 투입하고 축차적 방어선에서 최후까지 버티다가 미아리방어선이 붕괴되자 한강교량의 피탈을 우려하여 교량을 파괴하였다. 당초부터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서울철수계획도 없었는데도 교량의 파괴로 서울시민 대부분이 피난하지 못해 적치하에 들어갔고, 국군은 비록 포위를 당하지 않았으나 조직적인 철수를 할 수 없어 지상군과 지원부대의 와해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이때 미군이 유엔군의 일원으로서 국군을 도와 참전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정부와 국군 수뇌부도 새로운 전쟁지도지침을 수립하고 전략을 수정해야 했다. 서울의 실험은 한국전쟁상 최대의 비극이었으며 정치·군사·사회 등 많은 교훈을 남기고 있다.

第5節 美國의 支援과 유엔의 決議

1. 유엔의 人民軍 撤收 要請 決議

인민군의 불법 남침으로 한반도에 불안하게 유지되어 온 평화가 파괴되자 미국과 유엔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하여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하였다.

북한의 남침소식은 주한 외교사절이나 특파원들에 의해 세계로 전파되었으며, 미국으로는 주한 미대사관 및 무관, 군사고문단 그리고 외신기자들을 통하여 대체로 전쟁발발 5시간 후인 6월 25일 09:30(6. 24, 20:30 현지)에 전달되었고 무초 대사의 보고서는 24일 21:26(현지시간)에 국무성에 도착하였다. 이 보고서의 요지는 6월 25일 09:00 개성피탈 상황까지 포함하여 “북한의 공격은 그 양상으로 보아 대한민국에 대한 전면공격임에 틀림없을 것 같다.”¹⁶⁵⁾는 것이었다.

국무성은 이 사태를 국방성 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 유엔에 제기하기로 방침을 굳히고 유엔사무총장 리(Trygve Lie)에게 통고하는 한편, 애치슨 국방장관은 25일 13:20(24, 23:20 현지)에 주말 휴가 중인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결집을 받아 안전보장이사회(安全保障理事會)에 소집 요청을 하였다.¹⁶⁶⁾

이 소식은 대부분 주말 휴가 중에 있던 워싱턴의 관리들로 하여금 제2차 세계대전시 일본제국에 의한 진주만 피습사건을 회상케 하고, 유엔사무총장은 본국인 노르웨이가 나치 독일에 의해 기습받았던 때와 같은 느낌을 가질 정도의 충격이었다.¹⁶⁶⁾ 이 보고를 받고 휴양지에서 백악관으로 복귀하던 트루먼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발발 당시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며 공산 침략을 자유세계의 힘으로써 단호히 응징하여 제3차 대전으로의 진전됨을 예방하고 나아가 유엔의 권위를 수호하겠다고 결의를 다음과 같이 다졌다고 하였다.¹⁶⁷⁾

……만일 남한이 붕괴되도록 내버려 둔다면,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거기에 힘입어 우리 자신의 해안에 보다 가까운 국가들도 전복시키려 할 것이다. 만일 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자유세계로부터 아무런 저항도 받음이 없이 대한민국을 강제로 뚫고 들어가게 허용한다면, 약소국은 보다 강력한 인접 공산

국가에 의한 위협과 침략에 저항할 용기를 갖지 못할 것이다. 만일 이것이 도전을 받음이 없이 허용된다면, 그것은 유사한 사건이 제2차 세계대전을 유발했던 것과 똑같이 제3차 세계대전을 의미할 것이다. 한국이 도발하지 않음이 공격을 저지할 수 없다면 유엔의 창설과 원칙이 위태롭게 될 것이라는 점도 나에게서는 역시 분명하였다.

한편 이 무렵 서울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25일 11:35에 무초 대사의 방문을 받고 사태에 관한 의견 교환을 하였으며, 특히 이 자리에서 “국군이 보유한 탄약은 10일 이내에 떨어질 것이다. 우리 국민은 남녀노소 모두 일어나 몽둥이와 돌맹이를 들고라도 싸울 것이다. 충분한 탄약이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국민의 사기를 더욱 올려 줄 것이다.”라고 결전 의지를 다짐하고 탄약 지원을 특별히 요청하였다.¹⁶⁸⁾ 미 대사와의 요담 후 이 대통령은 13:00경 주미대사관 한표 옥(韓豹頊) 참사관과 장면(張勉) 대사를 전화로 불러, 자력으로 북한의 남침을 격퇴할지에 우려를 표명하며 미국 정부에 직접 원조요청을 하도록 지시를 내렸다.¹⁶⁹⁾

저놈들이 쳐들어 왔어. 우리 국군은 용맹스럽게 싸우고 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격퇴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하든 미국의 원조가 시급히 도착하도록 적극 노력해야겠다.

뿐만 아니라 이날 국회도 미국 대통령과 의회에 북한의 남침사실을 통고하고 “이러한 세계평화 파괴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유효하고 즉시적인 원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¹⁷⁰⁾

대통령으로부터 지침을 받은 장면 대사 일행은 25일 15:00(25, 01:00 현지)에 국무성을 방문하고 본국의 지원요청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미국은 이 문제를 유엔에 제기하기 위해 안보리 소집을 요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다.¹⁷¹⁾

또한 서울 주재 유엔한국위원단도 25일 14:00-18:00에 회의를 갖고 대응 정책을 논의한 다음, 21:00에는 중앙방송을 통하여 “북한군은 즉각 군사행동을 중지하고 38도선으로 철수한 다음 평화회의를 통하여 사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유엔사무총장 앞으로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는 이날 24:00경(25, 10:00 현지)에 유엔사무총장에게 도착되었다.¹⁷²⁾

대한민국은 6월 25일 04:00경 북한군이 38도선 전역에 걸쳐 공격하였고 보고하였다……. 모든 공격은 38도선을 기점으로 한 서울 근접도로를 통하여 자행되었다……. 위원단은 사태가 심각하게 전개되어 전면전쟁의 성격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줄 것을 바라는 바이다. 위원단은 사무총장이 이 문제를 안전보장이사회에 통고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여 줄 것을 권고한다.

한편 미극동군사령관은 25일 09:25에 주한 미대사관 무관 및 연락장교단으로부터 남침보고를 받았으며, 21:35(25, 10:35 현지)에 그때까지 상황을 요약하고 ‘한국으로 탄약수송은 촉진하고 있으며, 예비조치로써 제7함대를 한국 해역으로 이동시키도록 건의한다.’는 내용의 그의 상황보고서가 미 육군성에 도착하였다.¹⁷³⁾ 당시 맥아더 장군은 주한 미대사관과 군사고문단에 대한 군수지원과 유사시 비전투원 철수계획 시행 이외에 한반도 작전에 관한 어떤 임무도 부여받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사태의 진전을 예의 주목하며 상황을 판단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서울로부터의 지원요청, 유엔한국위원단의 상황보고, 미대사관 및 미극동군사령부의 보고 등 사태는 북한에 의한 전면 남침공격이며 긴박하므로 미국과 유엔의 지원이 시급히 요구된다는 내용의 전문이 답지하는 가운데 유엔에서는 미국에 의해 공식으로 요청된 긴급 안전보장이사회가 6월 26일 04:00(25, 14:00 현지)에 개최되었다.¹⁷⁴⁾

개회와 더불어 유엔사무총장 리가, 유엔한국위원단의 보고서를 인용해 “유엔은 침략에 직면한 한국의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다음에는 미 대표 그로스(Ernest A. Gross)가 무초 대사의 보고서를 토대로 사태를 설명하고 결의한 초안을 낭독하였으며, 이런 중대사태에 피해당사자인 한국 대표를 참석시켜 직접 호소를 듣자고 제의했다. 북한 대표도 참석해야 한다는 유고의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결국, 장면 대사가 우리의 입장을 호소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장 대사는 미리 준비해 온 “북한의 우리에게 대한 침략은 인류에 대한 죄악이다. 한국정부 수립에 유엔이 큰 역할을 했는데 평화유지에 기본 책임을 지닌 안보리가 침략을 적극 저지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라는 요지의 성명문을 낭독하였다.¹⁷⁵⁾

이후 표결에 부쳐진 결의안은 약간의 수정을 거쳐 찬성 9, 반대 0, 기권 1(유고)로써 가결되었다. 당시 안보리는 미국, 소련, 중국, 영국, 프랑스 등 거부권을

가진 5대 상임이사국을 비롯하여 11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소련 대표가 불참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가결될 수가 있었다. 소련 대표는 1950년 1월부터 자유중국인 중국의 유엔 대표권을 보유한 데 대한 항의로써 회의를 보이콧하고 있었다.

이 결의는 한국전쟁에 있어 유엔이 집단안전보장 조치로 침략을 제재하고 평화의 회복을 달성하려는 첫 번째 유엔 결의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 결의의 초점은 북한으로 하여금 침략을 중지하고 38도선 북으로 군대를 철수시키도록 하는 데 있었다.¹⁷⁶⁾

공산침략행위 정지요청에 관한 결의문

안전보장이사회는……이러한 행동이 평화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1. 적대행위의 즉각 중지를 요구하고 북한당국이 그들의 군대를 즉각 38도선으로 철수시킬 것을 촉구하고
2. 유엔한국위원단이
 - 가. 충분히 검토된 사태에 대한 보고를 가능한 한 지체 없이 보낼 것과
 - 나. 북한군의 38도선으로의 철수를 감시할 것과
 - 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이 결의안의 집행에 대하여 계속 보고할 것을 요청하고
3. 모든 회원국들은 유엔이 이 결의안을 집행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말며 북한당국을 지원하는 것을 삼가도록 촉구한다.

The Requestment of the Cessation of Hostilities in Korea. June 25, 1950

The Security Council...Determines that this actions constitutes a breach of the Peace,

1. Calls for the immediate cessation of hostilities; and calls upon the authorities of North Korea to withdraw forthwith their armed forces to the thirty-eighth parallel;
2. Requests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Korea
 - (a) To communicate its fully considered recommendations on the situation with the least possible delay;

- (b) To observe the withdrawal of the North Korea forces to the thirty-eighth parallel; and
- (c) To keep the Security Council informed on the execution of this resolution;
3. Calls upon all Members to render every assistance to the United Nations in the execution of this resolution and to refrain from giving assistance to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미국은 이 결의에 따라 주소 미국대사를 통하여 소련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도록 요청하는 각서를 전달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2. 美國의 制限的 軍事措置

미국 정부는 한반도 사태를 안전보장이사회에 제기하고 절차를 밟는 한편, 트루먼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복귀한 시간에 맞추어 서울 시간으로 26일 정오경(25, 19:45 - 23:00 현지)부터 블레어 하우스에서 대통령 임석하에 국무·국방·각군장관 및 합참의장·각군 참모총장 등이 참석한 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였다. 미국으로서 군사대응방책을 강구하기 위한 회의였다. 여기에서는 이미 합동참모본부 가 극동군사령관에게 준비명령으로 하달한 바 있는 제한적 군사조치, 즉 “사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반을 파견하고 탄약 지원과 자국민의 철수를 보호하기 위한 범위의 해·공군을 운용하라는 지시”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으며, 이는 곧 정식명령으로 하달되었다.¹⁷⁾

1. 이날보다 앞선 텔레타이프회담에서 요약한 그 목적을 위하여 한국에 조사반을 파견하도록 인가한다.
2. 서울-김포-인천지역의 상실을 예방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탄약과 장비를 안전하게 도착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해·공군의 엄호하에 한국으로 수송하도록 인가한다.
3. 미국인 가족과 주한 미대사관이 결정하는 다른 미국 비전투원의 안전한 철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김포-인천지역이 유린되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해·공군에 의한 조치를 취하도록 인가한다.
4. 제7함대는 즉시 사세보(佐世保)로 진출하여 극동해군사령관의 작전통제하

에 들어가도록 명령한다.

이 명령수령에 앞서 맥아더 장군은 26일 03:00 한밤중에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로 “오늘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은 누구의 책임이요. 당신 나라에서 좀더 관심과 성의를 가졌더라면 이런 사태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요. 우리가 여러 차례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어서 한국을 구하십시오.”라는 항의조의 지원 요청을 받은 바 있었다.¹⁷⁸⁾

이와 같은 이(李) 대통령의 지원요청, 미 합동참모본부의 지시에 따라 맥아더 장군의 군사조치가 시작되었다. 맥아더 장군은 무초 대사의 결정에 따라 26일 01:00부터 철수하기 시작한 미국인 비전투원을 해·공군을 동원하여 수송 및 호송하였다. 이들은 그 외 주한 외국인들과 함께 29일까지 일본으로 철수를 완료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어난 북한 공군기와의 교전에서 미군 전투기가 YAK기를 격추함으로써, 당시 미 해·공군이 국군의 지원임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지는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전쟁초기부터 적의 제공권 확보를 거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맥아더 장군은 비전투원 철수작전 시행과 더불어 해·공군의 지원하에 탄약지원도 서둘렀으며, 사태를 파악하고 지휘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6월 27일에는 처치(John h. Church) 준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사반(Survey Party)을 구성하였으며, 이날 주한미군에 관한 작전통제권을 부여받음을 계기로 이를 전방사령부(ADCOM: Advance Command and Liasion Group in Korea)로 명명하고 수원으로 파견하였다. 수원 농업시험장에 지휘소를 개소한 전방사령부는 다음날 채병덕 총참모장을 만나 작전을 조인하는 등 국군이 인민군의 남침을 저지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기 시작하였다.¹⁷⁹⁾

한편 주한 미군사고문단도 27일부터 29일 사이에 대부분 일본으로 철수하고 라이트(Wright) 대령을 비롯한 지휘부와 일부만이 잔류하였는데, 27일부터는 맥아더 장군의 작전지휘하에 들어갔으며 다음날 한강을 도하, 수원으로 이동하여 전방지휘소에 그간의 상황을 보고한 후 국군작전의 지원을 계속하였고, 이 미 철수한 요원들도 후에 지상군 전개시 재투입되어 작전을 지원하였다.¹⁸⁰⁾

이와 같이 미국의 첫 번째 군사조치는 한국으로부터 자국민의 안전한 철수를 지원하고, 한국군에 탄약을 지원하는 한편 유엔결의의 이행여부를 지켜보면서 국동군사령관에게 주한미군에 대한 지휘권을 부여하여 장차 작전에 대한 준비

를 갖추는 것이었다.

3. 美 海·空軍의 支援

인민군은 ‘6·26 유엔결의’에도 불구하고 침략을 계속, 27일에는 서울 외곽까지 진출하여 서울을 위협하고 있었고, 주한 외국인들과 군사고문단도 철수 중에 있었다.

상황이 이러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27일 02:00경(26, 12:00 현지) 주미 한국대사관 한(韓) 참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일이 맹랑하게 되어 가고 있다. 우리 국군이 용감히 싸우긴 하나 모자라는 게 너무 많다. 즉각 장(張) 대사를 모시고 트루먼 대통령을 만나 군사원조의 시급함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라.”고 지시했다.¹⁸¹⁾

장면 대사는 백악관을 방문, 대통령의 지시사항과 국회가 서울을 떠나기 전 미국 국회와 유엔에 보내도록 승인한 “북한의 침략을 패배시키는 데 효과적이고 적시적인 원조”를 요청하는 긴급 호소문을 전달하였으며, 트루먼 대통령을 예방하고 이 대통령의 뜻을 설명하면서 간곡한 지원요청을 하였다.¹⁸²⁾

이때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 독립전쟁시 프랑스로부터의 지원사실과, 1917년 독일의 침공을 받은 유럽을 미국이 지원한 역사적 교훈을 들려 주며 지원의지를 천명하였다.¹⁸³⁾

한편 워싱턴에서는 6월 27일(6월 26일 현지) 서울이 적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곧 실패할 것이다.’는 맥아더 장군의 보고를 포함하여 불길하고 경악스러운 상황보고가 쇄도하고 한국정부와 국회로부터 긴급지원 요청을 받자, 북한이 ‘6·26 유엔결의’를 따를 의도가 없다고 판단하고 다음 단계의 대응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이날 10:00(26, 21:00 현지)에 두 번째로 블레어 하우스 안전보장회의를 열었다.¹⁸⁴⁾

이들은 미국이 미 해·공군에 가해진 제한사항을 철회, 38도선 이남의 북한군 부대·전차·포병에 대한 공격을 포함하여 한국군에게 가능한 지원을 최대한 제공하도록 결정하고, 곧 맥아더 장군에게 아래와 같이 훈령으로 하달하였다.¹⁸⁵⁾

극동 해·공군부대에 가해진 모든 제한조치를 해제한다. 그들은 한국군에게 재편성할 수 있도록 최대의 지원을 제공한다. 상기 조치의 목적은 6월 25일

에 승인된 유엔의 결의안에 따라 한국군부대를 지원하는 데 있다. 그 밖에 제7함대는 타이완에 대한 중공의 침입을 예방하고, 또 포모서가 중국 본토에 대한 공격기로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곳에 정박한다.

해·공군에 언급한 세부훈령은 아래와 같다 ;

한국 영토의 방위를 지원하고 돕는 데 있어 극동 공군의 완전한 운용을 막아 온 종전까지의 모든 제한사항을 38도선 남쪽 작전에 대하여 제거한다. 38도선 이남에 위치한 모든 북한의 전차·대포·부대 및 군사목표물에 대한 공군의 공격이 허용된다. 그 목적은 남한에서 북한의 군사력을 제거하는 데 있다. 이와 똑같이 해군은 38도선 이남의 연안이나 해상에서 한국에 대한 공격에 참여한 부대에 대하여 제한 없이 운용한다.

미국은 다음날 트루먼 대통령이 “북한이 적대행위 종결을 요구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무시함으로써” “나는 미 해·공군부대가 한국군부대에 엄호와 지원을 하도록 명령하였다.”라고 직접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이 결정을 내외에 천명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6·26 결의’에 토대한 2단계 군사조치인 해·공군의 참전 결정을 내렸고, 이는 극동군사령관에 의해 즉각 시행에 옮겨졌다.

4. 유엔의 對北韓 軍事制裁 決議

6월 27일 한국정부와 국회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엔사무총장에게도 같은 내용의 지원을 요청하였고, 유엔한국위원단은 ‘6·26 유엔결의’ 후 그 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북한과의 접촉노력이 거부되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 당국이 침략을 중지하지 않고 군대를 철수시키지 않으므로 ‘6·26 결의’가 비현실적임을 지적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한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유엔으로 제출하였다.¹⁸⁶⁾

이러한 시점에서 미국정부가 6월 27일(6월 26일 현지) 블레어 하우스에서 해·공군의 지원을 결정하면서 비록 이 조치가 ‘6·26 유엔결의’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에 관한 국제적 인정을 얻음과 동시에 한국이 적의 공격을 격퇴하는 데 필요한 원조를 다른 회원국에게도 권고하는 결의안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하였다.¹⁸⁷⁾

이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가 6월 28일 04:00(27일, 14:00 현지)에 열렸다. 회의 벽두에 미국의 오스틴(Warren R. Austin) 대표가 한국 사태의 진전상황과 미국이 취한 조치를 자세히 설명하고 북한이 계속 남침하고 있으므로 유엔에서 군사조치를 가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결의안 제안 배경을 설명한 다음, 이어 장면 주미대사가 안보리가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호소했다.¹⁸⁸⁾ 이번에도 유고 대표가 북한 대표의 초청을 골자로 하는 대안을 내놓아 파란을 일으켰으나 무산되었다.

8시간의 마라톤회의 끝에, 28일 13:45(27일, 11:45 현지) 결의안은 찬성 7, 반대 1(유고), 기권 2(인도·이집트)로 가결되었다. 소련은 역시 불참하였다. 이때의 결의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¹⁸⁹⁾

한국군사원조에 관한 결의문

안보이사회는 북한 군대의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평화의 파괴행위로 규정하였으며, 북한 당국에게 전투를 즉각 중지하고 그들의 군대를 즉시 38도선으로 철수시킬 것을 촉구하였으며,

유엔한국위원단으로부터 북한 당국이 전투를 중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군사적 조치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대한민국이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효과적인 조치를 즉각 취하여 줄 것을 유엔에 호소하였음을 감안하여,

대한민국이 무력침략을 격퇴하고 그 지역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원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유엔회원국에게 권고하는 바이다.

The Military Assistance to Republic of Korea

“The Security Council,

“Having determined that the armed attack upon the Republic of Korea by forces from North Korea constitutes a breach of the peace.

“Having called upon the authorities of North Korea to withdraw forthwith their armed forces to the 38th parallel, and

“Having noted from the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Korea that the authorities in North Korea have neither ceased hostilities nor withdrawn their armed forces to the thirty—eighth parallel and that urgent military measures are required to resto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Having noted the appeal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for immediate and effective steps to secure peace and security,

“Recommends that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furnish such assistance to the Republic of Korea as may be necessary to repel the armed attack and to resto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e area.”

이와 같이 ‘6·28 결의’의 핵심은 유엔회원국이 북한의 침략을 격퇴하는 데 필요한 군사원조를 대한민국에 지원하도록 요청한 데 있다. 미국은 역시 주소 미대사를 통하여 소련정부에 각서를 전달하고 소련이 북한에 영향력을 발휘하여 남한에 대한 공격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하였지만 예상대로 거부되었다.

‘6·28 결의’는 ‘6·26 결의’와 더불어 제2차 세계대전 후 유엔이 창설된 다음 국제평화 파괴행위에 대한 군사적 제재를 가하여 평화를 회복하려는 최초의 집단안전보장조치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과 동시에, 국군이 유엔군과 함께 공산 침략에 대응하게 됨에 따라 전쟁이 북한군(공산군) 대 국군과 유엔군의 전쟁으로 확대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 결의에 따라 우선 미국은 6월 29~30일에 미 해·공군의 작전지역을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하였고, 그 후 지상군도 참전하게 되었으며 그 밖에 유엔군도 이에 근거하여 지원되었다.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북한의 김일성은 정권수립 후부터 스탈린의 지도와 지원하에 전한반도의 공산화를 목표로 남침전쟁계획을 극비리에 추진하였고, 이 과정에서 모택동과도 긴밀하게 협의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스탈린의 승인과 모택동의 동의하에 확정하였다.

이 계획은 속전속결로 서울을 점령하고, 이에 따라 유발될 인민봉기로 한국 정부를 전복하는 한편, 미군이 부산에 상륙하기 전에 신속히 전진하여 남해안 지역까지 점령한다는 기본전략에 기초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50년 6월 25일에 38도선을 돌파, 1개월내에 전쟁을 끝내고 해방 5주년 ‘8·15’까지 서울에 통일인민정부를 수립한다는 목표하에 기습남침을 감행하였다.

남한은 여러 차례의 정보관단을 통해 북의 침략기도를 간파하고 뒤늦게 방어 계획까지 수립하였으나 상대적 전력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준비태세도 미비한 상황에서 경계태세마저 소홀한 틈에 기습공격을 허용하였다.

인민군은 선제타격작전계획에 따라 1단계로 '3일내에 한강 이북에서 국군주력을 포위격멸하고 서울을 점령'하기 위하여 주력을 수도권으로 집중하면서 전전선에 걸쳐 압박을 가하였다. 반면에 국군은 서울 '고수와 철수'를 놓고 전쟁 지도상의 혼선을 빚는 가운데 서울방어에 총력을 기울이며 응전하였으나 결국 3일 만에 서울을 실함하고 전방방어지역을 피탈당하였다. 그러나 이때 미국의 주도로 유엔이 '인민군의 철수요구에 이어 한국을 위한 군사지원결의'를 함으로써 북한의 침략행위에 대한 집단안전보장조치가 취해지게 되었다.

결국 북한은 계획대로 서울을 점령하였으나 국군의 포위에는 실패하였고 인민봉기는커녕 강한 저항에 부딪쳤으며 유엔군(미국군)의 참전으로 기본전략에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된 반면, 남한은 서울의 실함에다 국군이 심한 피해를 입어 전쟁수행의 중대한 고비에 처하였으나 유엔군의 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피아 공히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주 기

- 1)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史」 제1권(구판), 1976, p. 705.
- 2) 외무부, 소련자료(2), p. 4.
- 3) 외무부, 소련자료(2), p. 2; 소련자료(3), p. 2, p. 8
- 4) 외무부, 소련자료(3), pp. 9~10; 소련자료(4), pp. 28~31.
- 5) 國防軍史研究所, 소련자료, 1993. 4.
- 6)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史」 제1권, 1977, p. 130; 「스탈린」, p. 369;
외무부, 소련자료(3), pp. 8~11.
- 7) 외무부, 소련자료(2), pp. 6~7; 소련자료(3), pp. 19~22.
- 8) 외무부, 소련자료(2), pp. 10~11.
- 9) 외무부, 소련자료(2), p. 11; 소련자료(3), p. 31
- 10) 외무부, 소련자료(2), p. 12; 소련자료(3), p. 32.
- 11) 외무부, 소련자료(3), pp. 51~53; 소련자료(2), p. 17.
- 12) 외무부, 소련자료(3), p. 53; 소련자료(2), p. 18.
- 13) 외무부, 소련 외교문서(2), p. 20.
- 14) 國防軍史研究所, 「中共軍의 韓國戰爭」, 1994, p. 93.
- 15) 외무부, 소련자료(2), p. 9, pp. 23~24.
- 16) 외무부, 소련자료(2), p. 25.
- 17) 외무부, 소련자료(2), p. 25; 소련자료(3), p. 72.
- 18) 외무부, 소련자료(2), p. 26.
- 19) 외무부, 소련자료(2), pp. 24~27.
- 20) 외무부, 소련자료(2), p. 26.
- 21) 외무부, 소련자료(2), pp. 27~28; 볼코그노프, 「스탈린」, 세경사, 1993, pp. 372~373; 유성철, 나의 증언(8)~(9), 한국일보, 1990, p. 119.
- 22) 유성철, 나의 증언, 한국일보, 1990. 11. 9.
- 23) 북한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제25권, 1981, p. 85.
- 24) *Khrushchev Remembers*, p. 145; 「흐루시초프 회고록」, p. 352.
- 25) 유성철, 나의 증언(10), 한국일보, 1990. 11. 13; 나의 증언(2), 한국일보, 1990. 6. 18; 김창순, 「북한 15년사」, 지문각, 1961, p. 145; 박갑동, 「한국전쟁과 김일성」, 바람과 물결, 1990, pp. 80~84.

178 第2章 北韓의 奇襲南侵과 對應

- 26) 「조선전사」 제25권, p. 83.
- 27) 「韓國戰爭史」 제1권, p. 145 ; 육군본부, 「북괴 6·25 남침분석」, 1970, p. 318 ; 유성철 나의 증언(10), 한국일보, 1990. 11. 13.
- 28) 「韓國戰爭史」 제1권, p. 167 ;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9 ; 「조선전사」 제25권, p. 66.
- 29)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9 ; FEC, *History of the North Korean Army*, p. 4.
- 30) 유성철, 나의 증언(8), 한국일보, 1990. 11. 9.
- 31) 「조선전사」 제25권, p. 107 ; 유성철, 나의 증언(8), 한국일보, 1990. 11. 9 ; 인민군 공격작전의 정보계획 인민군총사령부, 1950. 6. 20. 國防軍史研究所 소장.
- 32) 이 문서의 원본은 러시아어로 작성되었다. 國防軍史研究所는 이 원본의 사본과 영문번역본을 소장하고 있다. 인민군 공격작전의 정보계획, 인민군총사령부, 1950. 6. 20.
- 33) 인민군 경찰명령 끝 쪽 추가사항 ; 인민군 제2·제4사단 전투명령 제1호(1950. 6. 22) ; 조선인민군 선제타격계획 작전지도(사본) : 유성철, 나의 증언(9), 한국일보, 1990. 11. 11 ; 「북괴의 남침분석」, p. 131.
- 34) 인민군총사령부, 인민군 공격작전의 정보계획, 1950. 6. 20 ; 「조선전사」 제25권, pp. 85~86.
- 35) 조선인민군 선제타격계획 작전지도(사본), 연합통신자료실, 1992. 8. 29. 이는 연합통신이 러시아 군역사연구소 수석연구원, 코르트코프 박사로부터 입수한 실제 상황도의 사본임. 이 연구원에 따르면 이 작전상황도의 원본은 모스크바와 평양에 각각 1부씩 보관되어 있다고 함.
- 36) 조선인민군 선제타격계획 작전지도(사본). 이 작전지도의 제1단계 작전계획은 노획된 인민군 제2·제4사단 전투명령과 일치하므로 정확성이 검증되며, 따라서 그 후의 기동계획도 신뢰성이 인정된다. 소련 외교문서 및 정보계획과 비교분석을 통하여 이를 2, 3단계로 구분하였다.
- 37) 「韓國戰爭史」 제1권, p. 180.
- 38)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80 ; *History of the North Korean Army*, pp. 41~43.
- 39) *History of the North Korean Army*, p. 91 ; 유성철, 나의 증언(9), 한국일보, 1990. 11. 11.
- 40) 「조선전사」 제25권, p. 162.
- 41) 유성철, 나의 증언(9), 한국일보, 1990. 11. 11.
- 42) 공산권문제연구소, 「북한총람 45~68」, 1968, p. 524.

- 43) 앞의 책, p. 524 ; 「조선전사」 제25권, pp. 98~99.
- 44) *History of the North Korean Army*, p. 91 :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科學院歷史研究所, 「祖國解放戰爭史」(1), 1961, p. 41. 여기에 人民軍最高司令部가 김일성 주도하에 수립한 전략적 방침에 의거 남침계획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1950년 6월 25일에 인민군이 급속한 반공격으로 이전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인민군의 평시 지휘체제에는 인민군최고사령부라는 기구가 조직되어 있지 않다.
- 45) 「韓國戰爭史」 제1권, p. 190. 여기에는 이 지시를 작전국장 김광협이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유성철은 본인이 당시 작전국장이었으며, 이는 총참모장이 지시한 것이라 증언하였다. 외무부, 소련자료(2), p. 28.
- 46) 「북괴 6·25 남침분석」, pp. 108~109 ; 「韓國戰爭史」 제1권, pp. 180~181 ; 「韓國戰爭史」 제1권 부도 제4호. 제10사단은 전선에비로서 숙천에 위치하였다.
- 47) *Enemy documents, GHQ FEC, Allied Translator & Interpreter Section, Issue No. 6, Copy No. 11, Item 2 200564* 이는 극동군사령부의 적 노획 문서철로서 III급비밀로 분류하여 미국국립문서보존소에서 보관해 오다가 1987년 4월 28일에 보통문서로 등급저하되었다. 여기에 인민군총사령부가 각 사단에 하달한 정찰명령이 영문으로 번역되어 합철되어 있다.
- 48) *General Staff of the North Korean Army, To ; The Chief of the 4th Division, Reconnaissance Order No. 1, 18 Jun. 50.*
- 49) *General Staff of the North Korean Army, To ; The Chief of the 2nd Division Reconnaissance Order No. 1, 18 Jun. 50.*
- 50) 이 명령의 명칭은 노획문서(한글 필사체)에는 '전투명령'으로 되어 있다. 영문 번역에는 'Operation Order'라고 표기하고 있어 작전명령으로 번역된다. 전투명령 또는 작전명령, 어느 것으로 표기하든 내용은 공격명령이다.
- 51) *General Staff of the North Korean Army, Intelligence Plan of the North Korean Army for an Attack Plan, Chief, 20 Jun. 50 ; 유성철, 나의 증언(8), 한국일보 ; 朱榮福, 「朝鮮人民軍の南侵と敗退」, pp. 244~245. 주(朱)는 러시아 통역관이었고 남침시에는 제2군단 공병부 부부장이었다.*
- 52) 제4보사 참모부, 전투명령 No. 1, 옥계리에서, 1950. 6. 22.
- 53) 제2사단사령부, 전투명령 제1001호, 214고지 동북협곡에서, 1950. 6. 22.
- 54) 「조선전사」 제25권, p. 69, p. 72.
- 55) 「韓國戰爭史」 제1권, p. 567.
- 56) 위의 책, p. 752.
- 57) 「국제연합한국위원단보고서(1949·1950)」(입법참고자료) 제35호, 1965, p. 304.
- 58) 위의 책, p. 306.

- 59) 「韓國戰爭史」 제1권, p. 567.
- 60) 위의 책, p. 568 ; 「국제연합한국위원단보고서(1949·1950)」, pp. 306~307.
- 61) 「韓國戰爭史」 제1권, p. 17.
- 62) 육본작전계획 제38호(1950. 3. 25). 國防軍史研究所는 후군의 기본방어계획(육군작전명령 제38호)과 이에 따른 부록 1 군대구분, 부록 4 육군작전계획, 부록 6 통신계획을 소장하고 있다.
- 63) 陸軍本部, 「陸軍發展史」(上), 1969, pp. 278~279.
- 64) 위의 책, p. 279 ; 「韓國戰爭史」 제1권, p. 247, p. 319, p. 397.
- 65) 「韓國戰爭史」 제1권, p. 195, p. 247, p. 319, p. 397.
- 66) 위의 책, p. 247.
- 67) 위의 책, p. 285, 396.
- 68) 위의 책, pp. 198~217, pp. 396~398.
- 69) 육본일반명령 제43호(1950. 6. 1) ; 「韓國戰爭史」 제1권, p. 318.
- 70) 병력기준 :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1, 15. 다만, 인제지구 독립전차 연대병력은 「韓國戰爭史」 제1권 p. 245 참조. 제549부대의 병력은 정확한 자료가 없어 육군대 병력의 1/3로 계산하였다. ()는 국군의 외출·외박 휴가자를 제외한 병력수와 비율이다.
- 71) 「韓國戰爭史」 제1권, p. 569.
- 72) Sawyer, *KMAG IN PEACE AND WAR*, p. 104.
- 73) 「陸軍發展史」(上), p. 215.
- 74) Sawyer, *KMAG*, p. 78. 여기에는 고문단이 훈련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그것은 육군본부를 통하여 실시되는 것이므로 표현을 바꾸었다.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國防史」 제1집, 1984, pp. 356~357.
- 75) 「韓國戰爭史」 제1권, 1977, p. 172 ; 「북괴 6·25 남침분석」, p. 49.
- 76) 朱榮福, 「朝鮮人民軍の南侵と敗退」, 1979, pp. 170~171.
- 77) 「韓國戰爭史」 제1권, p. 172 ; 「북괴 6·25 남침분석」, p. 49 ; 위의 책, p. 199.
- 78) 「朝鮮人民軍の南侵と敗退」, pp. 203~205.
- 79) 「韓國戰爭史」 제1권, p. 173 ; 「북괴 6·25 남침분석」, p. 50.
- 80) 「朝鮮人民軍の南侵と敗退」, pp. 207~208.
- 81) 「韓國戰爭史」 제1권, p. 758.
- 82) 위의 책, p. 573.
- 83)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p. 40.
- 84) 「국제연합한국위원단 보고서(1949·1950)」, pp. 332~335.
- 85) 위의 책, p. 335.

- 86) 「韓國戰爭史」 제1권, p. 575.
- 87) 위의 책, p. 575.
- 88) 위의 책, p. 575.
- 89) 「조선전사」 제25권, pp. 115~116.
- 90) 「韓國戰爭史」 제1권, p. 576.
- 91) 위의 책, p. 576.
- 92)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83호(1950. 6. 25. 06:00).
- 93) 「韓國戰爭史」 제1권, p. 577.
- 94) 위의 책, p. 578.
- 95) 위의 책, p. 608.
- 96) 육본작전명령 제84호(1950. 6. 25) : 육본작전명령 제85호(1950. 6. 25).
- 97)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譯), 「美國合同參謀本部史 韓國戰爭」(上), 1990, p. 56 ; Appleman, *ibid.*, pp. 21~22 ; 「조선전사」 25권, pp. 69~72.
- 98) 합동참모본부, 「한국전사」, p. 787.
- 99) 「韓國戰爭史」 제1권, 1977, p. 495 ; Appleman, *ibid.*, p. 21.
- 100) 위의 책, p. 580. 당시 국군이 보유한 대전차 화기로써는 T-34 전차를 파괴할 수 없었다. 다만, 전차의 취약부위에 포탄이 명중될 경우에 가동이 불가능하게 될 수는 있었다.
- 101) 위의 책, p. 610 ; 중앙일보사, 「민족의 증언」 제1권, 1973, p. 18 ; 프란체스카 비망록, 6·25와 이승만 대통령(1), 1983. 6. 25.
- 102) 위의 책, p. 611.
- 103) 위의 책, p. 611.
- 104) 위의 책, p. 611.
- 105) 위의 책, p. 614.
- 106) 「韓國戰爭史」 제1권, pp. 770~771.
- 107) 위의 책, pp. 804~805 ; 합동참모본부, 「한국전사」, p. 788.
- 108) 「韓國戰爭史」 제1권, pp. 336~338.
- 109)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38度線 初期戰鬥」(西部戰線篇), 1985, pp. 74~75.
- 110) 「북괴 6·25 남침분석」, p. 122 ; Appleman, *ibid.*, p. 23.
- 111) 「韓國戰爭史」 제1권, p. 465.
- 112)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史」 제1권, pp. 358, 370, 380~381, 429~431, 505, 582, 664. 육본장교연대는 육군본부 장교 약 10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공국진 증령이 지휘하였다. 육본작전명령 제84호(1950. 6. 25. 08 : 00) ; 육본작전명령 제85호(1950. 6. 25. 11 : 00) ; 육본작전명령 제87호(1950. 6. 25. 16 : 00) ; 육본작

182 第2章 北韓의 奇襲南侵과 對應

- 전명령 제90호(1950. 6. 25. 12 : 00) ; 육본작전명령 제94호(1950. 6. 25. 12 : 00) ; 육본작전명령 제96호(1950. 6. 25. 17 : 00).
- 113) 「韓國戰爭史」 제1권, pp. 356, 429~431, 517, 519, 534, 589, 591, 592, 675, 676 ; 육본작전명령 제84호(1950. 6. 25. 08 : 00) ; 육본작전명령 제97호(1950. 6. 27. 10 : 00). (1) 제2사단 제5연대 제3대대는 보병학교 교도대대와 함께 문산지역으로 투입되었으며, 제16연대 제3대대는 26일 밤에 서울에 도착되어 창동에 투입되었다. 그리고 제16연대 제1대대와 제25연대 제1대대는 공비토벌작전을 계속하였다. (2) 제3사단의 2개연대 중 제23연대는 부산에서 후에 동해안 울진 방면에 투입되었다. (3) 제5사단에 먼저 도착한 제15연대 제3대대와 제20연대 제3대대는 제15연대장 최영희 대령의 지휘하에 제1사단으로 투입되었으며 후에 도착한 제15연대 제2대대와 제20연대 제1대대는 제20연대장 박기병 대령의 지휘하에 미아리지구로 전개하였다. 그리고 제15연대 제1대대, 제20연대 제2대대는 공비토벌작전을 계속하였다.
- 114) 「38度線 初期戰鬪」, pp. 77~78.
- 115) 육본작전명령 제91호(1950. 6. 26. 08 : 00)
- 116) 「韓國戰爭史」, 제1권, p. 359.
- 117) 육군본부 및 제2사단, 제7사단은 25일 오후에 투입된 제3연대가 송우리에서 격파되어 분산된 상황을 그때까지 모르고 있었다.
- 118) 위의 책, p. 92.
- 119) 위의 책, pp. 587~588.
- 120) 위의 책, p. 588.
- 121) 위의 책, p. 84.
- 122) 당시 생도대는 임관을 2주 앞둔 1기생 263명과, 입교한 자 25일밖에 되지 않은 2기생 33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경찰대대는 수도경찰국 산하의 전투경찰대대로서 300명이 출동하였다.
- 123) 심일 소위는 1951년 1월 26일 중부전선에서 산화하였으나, 1951년 9월 17일에 춘천에서의 무공으로 태극무공훈장을 추서받았다.
- 124) 박정채의 증언(1977. 4. 14), 國防軍史研究所 자료실 소장.
- 125) Appleman, *ibid.*, pp. 26~27 : 「북괴의 남침분석」, p. 126 ; 「朝鮮人民軍의 南侵と敗退」, p. 283 : *History of the North Korean Army*, p. 70. “인민군 제12사단은 25일 38도선을 돌파하고 내평리 부근에서 육군 제6사단과의 충돌 후 최초 공격계획을 바꾸어 인제-춘천으로 이동하였으며, 이들은 27일에 그들 제2사단과 협조하여 춘천을 공격하였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위 자료의 26일 춘천도착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인제 방향으로 투입된 독립전차연대는 30대 규모이나 27일 춘천

으로 진입한 전차수는 9대이므로 1개중대로 판단된다.

- 126) *History of the North Korean Army*, p. 70.
- 127) 「韓國戰爭史」 제1권, pp. 262~263.
- 128) 위의 책, pp. 537~538.
- 129) 제6사단 작전명령 제32호(1950. 6. 27).
- 130) 「韓國戰爭史」 제1권, p. 289 :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전투상보(53), p. 26 ; 「한국전란 일년지」, 6월 27일 전황 ; *History of the North Korean Army*, p. 47 ; 「민족의 증언」 1권, p. 117 ; 김중수(당시 제7연대 제2대대장) 증언, 1993. 10. 26, 國防軍史研究所 소장. 적의 춘천 돌입시간은 자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제6사단 전투상보에는 제7연대가 27일 17 : 30에 춘천을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한국전쟁사 제1권에는 18 : 00에 적이 춘천을 점령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당시 대대장 김중수 소령도 대대가 6월 27일 저녁 날이 저물 무렵 춘천에서 물러나 원창고개와의 중간지점 고지에서 연대장으로부터 원창고개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 131) 「韓國戰爭史」 제1권, pp. 264~266.
- 132) 신만진(申萬鎭), 원승진(元承鎭) (당시 흥천군 화촌면 철정리 한계마을 주민)의 증언. 이들은 피난을 가지 못하고 산속에 숨어 있다가 기관총 사수와 부사수의 용맹스러운 전투행동을 보았으며 적의 보병부대를 격멸한 무명의 두 용사를 양지바른 곳에 안장시켰으나, 1959년 미 2사단 공병대대가 말고개 도로확장시 비석도 없는 묘를 밀어붙여 흔적이 없어졌다.
- 133) 위의 책, p. 167 ; 정춘옥(鄭春玉) 대한청년단 흥천군단(團) 방위소위는 탄약운반도중 말고개 적 전차 파괴상황 목격증언(1980. 5. 25).
- 134) 김성(金聖) 제16포병대대장의 증언(1977. 7. 1), 國防軍史研究所 소장.
- 135) 한국전쟁사료(53), 제6사단 전투상보 p. 28. 목동-가평에서 고군분투하던 제7연대 제3대대의 제10·제11중대는 육군본부로부터 연락을 받고 28일 가평을 철수 원주로 향발, 후에 본대와 합류하였다.
- 136) 유성철, 나의 증언(1), 한국일보, 1990. 11. 13.
- 137) 「韓國戰爭史」 제1권, pp. 197~199.
- 138) 「對非正規戰史」, p. 138.
- 139) 신채란(당시 정동진리 동명동 주민)의 증언(1990. 5. 25) 동부전선 전적지 답사결과(앨범), 國防軍史研究所 자료실 소장. 동명동에 적의 상륙현장을 목격한 자는 없으나 주민의 증언에 의해, 여기에는 주민들이 마을에 나타난 인민군을 목격한 시간을 기록하였다.
- 140) 「韓國戰爭史」 제1권, p. 199, p. 209 ; 「38度線 初期戰鬪」, p. 203 ; 한국경찰사, 내무

184 第2章 北韓의 奇襲南侵과 對應

- 부 치안국, 1973, p. 254.
- 141) 「韓國戰爭史」 제1권, pp. 207~208 ; 「38度線 初期戰鬥」, pp. 214~216.
- 142) 「38度線 初期戰鬥」, p. 218
- 143) 「韓國戰爭史」 제1권, p. 207 : 「38度線 初期戰鬥」, p. 233.
- 144) 「韓國戰爭史」 제1권, p. 591.
- 145) 중앙일보사, 「민족의 증언」 1, p. 154.
- 146) 「韓國戰爭史」 제1권, pp. 594~595.
- 147) 프란체스카 비망록, 6.25와 이승만 대통령(1), 1983. 6. 25.
- 148) 이는 최초 조사반(Survey Party)으로 명명되었으나 곧 총사령부 전방사령부 및 연락단(GHQ ADCOM & LG), 간략히 전방사령부(ADCOM)로 호칭되었다.
- 149) KMAG, pp. 125~126, 미고문단은 그들의 철수계획에 따라 6월 27일 수원에서 철수하고 33명만이 잔류해 있었다. 미대사관도 이날 09 : 00에 수원으로 이동하였다.
- 150) 「민족의 증언」 1, p. 158, 신 장관 비서실장 신동우 중령은 신 장관의 지시를 암기하여 구두로 전달하였다고 증언하였다.
- 151) 김정열 공군참모총장 증언, 1977. 2. 10, 전쟁이 발발하니까 대통령은 통수권자이고 그 다음은 국방장관인데 장관은 군정권자이므로 육·해·공군의 작전을 통괄하는 한 사람의 군령권자가 있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였다. 6월 26일 자신이 채 총장에게 “형님이 육·해·공군 총사령관이요.” 말함으로써 채 총장이 육·해·공군 총사령관이 되어 버렸다. 그 후 포고문이나 담화문 그리고 방송보도가 육·해·공군총사령관 명의로 나갔다고 증언하였다.
- 152) 혼성연대는 제3연대, 제5연대, 제16연대, 제25연대의 낙오병으로 편성하였으나 대대규모에 지나지 않았다.
- 153) 이때 제7사단장 유재홍 준장은 의정부지구전투사령관, 제2사단장 이응준 소장은 미아리지구전투사령관이라고 호칭되었다.
- 154) 「조선전사」 제25권, p. 108.
- 155) 제15연대 : 제5사단 예하부대로서, 제15연대 제3대대와 제20연대 제3대대의 혼성부대로 제15연대장(대령 최영희)이 지휘하여 제1사단에 배속된 부대이다.
- 156) 「韓國戰爭史」 제1권, pp. 213~214.
- 157) 구두명령 26일 오전, 육본작명 제97호 1950. 6. 27. 10 : 00.
- 158) 김포지구전투사령부는 5개대대 규모의 병력을 확보하였으나 건제가 유지되지 못하고 통신망이 준비되지 않아 지휘체계마저 확립할 수 없었다. 이 중 보국대대는 인민군 귀순병 174명으로 편성되어 전쟁 전에 주로 선무공작임무를 수행한 부대였으며, 보병학교 후보생대대 병력은 사격훈련조차 받지 못하였다. 제12연대

- 제2대대(-)는 개성 남쪽에서 영정포로 집결하여 김포반도의 강령포로 철수하였다.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38度線 初期戰鬪」(西部戰線篇), pp. 260~262.
- 159) 1950년 6월 당시 한강상의 교량은 노량진과 용산을 잇는 한강대교(인도교) 1개, 경부선 복선철교 1개, 경인선 철교 상행선, 하행선 각각 1개와 광나루에 가설된 광진교(인도교) 1개 등 모두 5개였다.
- 160) 한강교의 폭파시간은 문헌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1950. 9. 15. 최창식 대령의 군법회의 판결문에서 여러 사람의 증언을 토대로 6. 28. 02 : 30으로 공식확인하였으므로 이에 따랐다.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史」 제2권, pp. 558~559. 판결문 참조.
- 161) 「韓國戰爭史」 제1권, p. 547 ; Appleman, *ibid.*, p. 33.
- 162) Appleman, *ibid.*, p. 34 ; 「韓國戰爭史」 제1권, p. 550.
- 163) 미공간사에 의하면, 만일 인민군이 이곳에 도달할 때 교량을 폭파했다라면 적어도 6~8시간 이상 국군은 부대와 중장비를 도하시킬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Appleman, *ibid.*, p. 34.
- 164) 「美國合同參謀本部史 韓國戰爭」(上), pp. 58~59. 제5절의 시간은 서울시간을 기준으로 하였고 워싱턴과 뉴욕시간은 'EDT' 또는 'EST'로 표시하였다. EDT로는 13시간, EST로는 14시간의 시차가 있다.
- 165) 위의 책, p. 61 ; 「韓國戰爭史」 제1권, p. 870.
- 166) James Barros, *Trygve Lie and The Cold War*, 1989, p. 274.
- 167) 「美國合同參謀本部史 韓國戰爭」(上), p. 60.
- 168)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史」 제1권, p. 614.
- 169) 한표옥, 「한미외교요람기」, 중앙일보사, pp. 76~78.
- 170)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史」 제1권, p. 948.
- 171) 「한미외교요람기」, pp. 76~78.
- 172)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史」 제1권, p. 875 ; 「한미외교요람기」, p. 81.
- 173) 「美國合同參謀本部史 韓國戰爭」(上), p. 62.
- 174) 「한미외교요람기」, p. 81.
- 175) 위의 책, pp. 80~84.
- 176)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史」 제1권, pp. 942~945.
- 177) 「美國合同參謀本部史 韓國戰爭」(上), pp. 70~72.
- 178) 프란체스카 비마룩, 6·25와 이승만 대통령(1), 중앙일보, 1984. 6. 24.
- 179) Appleman, *ibid.*, p. 43.
- 180) *Ibid.*, pp. 42~43.
- 181) 「한미외교요람기」, p. 86.

186 第2章 北韓의 奇襲南侵과 對應

- 182) 앞의 책, pp. 86~87.
- 183) 위의 책, p. 87.
- 184) 「美國合同參謀本部史 韓國戰爭」(上), p. 78.
- 185) 위의 책, pp. 80~81.
- 186) 「韓國戰爭史」 제1권, p. 950.
- 187) 「美國合同參謀本部史 韓國戰爭」(上), p. 79.
- 188) 「한미외교요람기」, pp. 89~90.
- 189) 「韓國戰爭史」 제1권, p. 954.

第3章 遲延作戰

第1節 漢江線防禦

1. 漢江防禦線 形成

(1) 人民軍의 作戰企圖

개전 4일째인 6월 28일 새벽, 인민군은 국군에 의해 한강교가 폭파되고 이어 서울 방어의 마지막 미아리방어선이 무너지자 국군 주력을 서울 일대에서 포위 섬멸하려는 기도로 총공격을 감행하였다. 적 제1군단(金雄 중장)은 제105전차여단(柳京洙 소장)과 함께 한강 도하지점을 폐쇄하는 한편, 전략목표인 서울 시내의 주요 기관, 즉 중앙청, 국방부, 육군본부, 방송국, 중앙전신국, 마포형무소 및 서대문형무소 등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서울 점령에도 불구하고 이승만(李承晩) 대통령 등 정부가 대전으로 이동하여 국군의 항전이 여전히 계속되고¹⁾ 또 유엔 해·공군의 개입이라는 예상 밖의 상황에 접하자 유엔 지상군의 참전을 의식하여 그전에 남한을 석권하려는 기도하에 황급히 미리 계획된 남진명령을 하달하였다. 따라서 인민군은 “미육군이 증원되기 전에 한강을 강습 도하하여 국방군의 주력을 격멸, 소탕한 후 평택·충주·울진 선의 지역을 점령하며, 이를 위하여 주공을 영등포-수원-평택 방면으로 지향하는 동시에 다른 몇 개의 방향에 대해 조공을 둔다.”는 작전방침을 결정하였다.²⁾

한강을 도하하여 평택 방면으로 진출한 인민군 제1군단은 군단 주공인 제4사단(李權武 소장)을 신촌 일대에서 영등포 방면으로, 조공인 제3사단(李英鎬 소장)을 용산-한남동 일대에서 말죽거리로 지향하여 도하 준비를 서둘렀다. 한편, 문산 쪽에서 합류한 제6사단(方虎山 소장)은 수색 부근에 집결하여 이미 김포비행장 부근까지 진출한 제14연대의 전황을 지켜보면서 그에 대한 지원태세를 갖추었고, 또 제1사단(崔光 소장) 주력은 서대문 쪽으로 입성하여 제3·제4사단을 후속할 예비대가 되었으며, 제105전차여단은 시가지 경계와 보병부대

의 도하를 지원하면서 도하기회를 엿보고 있었다.³⁾

인민군 제1군단은 서울을 점령하자마자 그들 공군이 제공권을 거의 상실하게 되고 미 지상군의 참전도 점차 우려되어 도하를 한층 서두르게 되었고, 한강선 돌파에 선두부대가 된 제3, 제4사단이 포병연대를 남산 기슭과 신촌 일대에 배치하여 화력 지원태세를 갖추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남침을 계속하는 데는 도하 준비와 아울러 서울 점령에 따른 정세 판단, 우발상황에 대비한 대응책의 모색 등 선택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으므로 인민군의 그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의 모색에는 자연히 시간이 필요하였다.⁴⁾

한편, 중동부전선의 인민군 제2군단 지역에서는 제2사단이 가평을 거쳐 용인 방면으로, 제12사단(崔忠國 소장)이 홍천을 장악한 후 서부전선과 보조를 맞추어 중앙축선을 따라 남진하고 그 뒤를 후속하는 군단예비인 제15사단(朴成哲 소장)은 장차 여주·장호원 방면으로 진출을 기도하고 있었다. 동해안 방면에서는 적 제5사단(馬相喆 소장)이 국군 제8사단의 철수로 인하여 별다른 저항 없이 삼척을 점령한 다음 동해가도를 따라 남진하고, 정동진·임원진에 상륙하여 강릉-삼척간 도로를 차단한 비정규전 부대 제766부대(吳振宇 총좌)⁵⁾와 육전대 제549부대는 중부전선에서 남하하는 제2군단을 지원하고 내륙으로의 침투를 기도하였다.

(2) 國軍의 渡河撤收

정부나 국군은 사전에 서울 철수의 필요성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철수계획도 수립하지 못하여 서울 철수를 체계적으로 통제할 수 없었다. 서울은 적의 압력이 가해지자 공포와 혼란에 휩싸이게 되었고 서울 이북지역으로부터 내려온 피난민들에 의해 시내는 더욱 혼잡하였다.

마찬가지로 서울-수원간 국도에서도 군경(軍警)이 피난민의 이동을 통제할 수 없었으므로 모든 도로상의 군 수송작전이 방해를 받았다. 또한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한강은 적의 전면 남침시에 자연 장애물로써 양호한 지연진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 언급되었을 뿐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었다.⁶⁾ 이와 같은 복합적인 상황의 악화는 국군의 전술적 철수에 따르는 신속한 전장 이탈의 장애요인이 되었고 또 적시에 한강을 도하하여 재편성하는 데도 어려움

을 주었다.

이러한 극도의 혼란 속에서 국군은 6월 28일 아침 한강을 건너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교량을 이용할 수 없어 야포·차량·박격포 등 중장비를 이동시키지 못하였다. 철수 병력은 겨우 소총만을 휴대한 채 뗏목이나 나룻배를 타고 소부대 단위 또는 개인별로 도하하였다.

대체로 미아리 정면에서 적을 저지하던 혼성병력은 마포·하중리(서강)·서빙고·한남동·독섬·광나루의 각 도선장과 나루터에서 철수하였고, 문산 정면에 투입된 병력은 행주와 이산포 나루터에서 도하하였다. 이 중 광나루를 거친 병력은 곧장 수원으로 집결하고 서빙고와 한남동 그리고 독섬을 경유한 일부는 시흥과 수원으로, 행주와 하중리 및 마포로 건넌 병력은 대부분 시흥으로 집결하였다.⁷⁾ 그리하여 철수 병력의 집결이 대강 끝난 것은 28일 밤과 29일 아침 사이였다.

병사들은 거듭된 전투와 철수로 말미암아 극도로 피로한 상태였고 수습된 인원도 1개연대의 실병력이 대대 규모로 줄어들었다. 군수 면에서 국군이 직면하였던 실정은 더욱 어려운 상태였다. 한강교 폭파로 사단에 지급될 보급품을 실은 1,318대의 차량들이 전부 한강 북쪽에 갇혀 적의 수중으로 넘어갔다. 강 남안에서는 적절한 교통통제소의 부재로 인하여 후방 지원의 어려움을 가중시켰으며 통신망의 두절로 상하는 고사하고 인접 부대와의 연락마저 곤란하여 지휘계통 및 협조체제가 원활치 못하였다.⁸⁾

당시 국군으로서는 방어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책을 강구할 정황이 없었고, 다만 적의 주공이 노랑진 정면을 돌파하여 시흥-안양-수원의 경부 국도로 지향되리라는 판단 아래 병력이 수습되는 대로 그곳으로 투입하는 고식책(姑息策)만으로 일관할 뿐이었다. 이러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강선은 국군이 적을 어떻게 방어하느냐에 따라 국가 존망이 결정될 만큼 중요한 생명선으로 부각되었다.

(3) 漢江防禦線 形成

한강은 서울 부근의 강폭이 700m에서 1,500m, 수심이 평균 3m에 달하여 서울을 상실한 국군에게는 방어에 가장 양호한 지형이었다. 그 반면 적이 도하작전을 전개할 때 강안의 수개의 도선장은 차량의 집결이 가능할 정도로 규모가

크므로 유용한 도하지점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

한강교량 폭파시 인도교와 경인 하행선 철교 및 광진교(廣津橋)는 모두 절단되었으나, 경인 상행선 철교와 경부선 철교가 완파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다. 따라서 전차를 도하시킬 도하장비를 구비하지 못한 적은 이를 이용할 것이 분명하였으므로 철교의 확보는 쌍방간 작전의 긴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⁹

서울이 실패되기 직전 총참모장 채병덕(蔡秉德) 소장은 한강을 연한 방어선에서 인민군을 저지하기로 결심, 육본을 수원농업시험장으로 이동 개설한 후 육군참모학교 교장 김홍일(金弘壹) 소장을 시흥지구전투사령관으로 임명하여 한강선 방어 임무를 부여하였다. 당시 그곳에 개소한 극동군사령부 전방지휘소(ADCOM, GHQ)¹⁰의 처치(John H. Church) 준장도 총참모장에게 한강선을 방어하도록 조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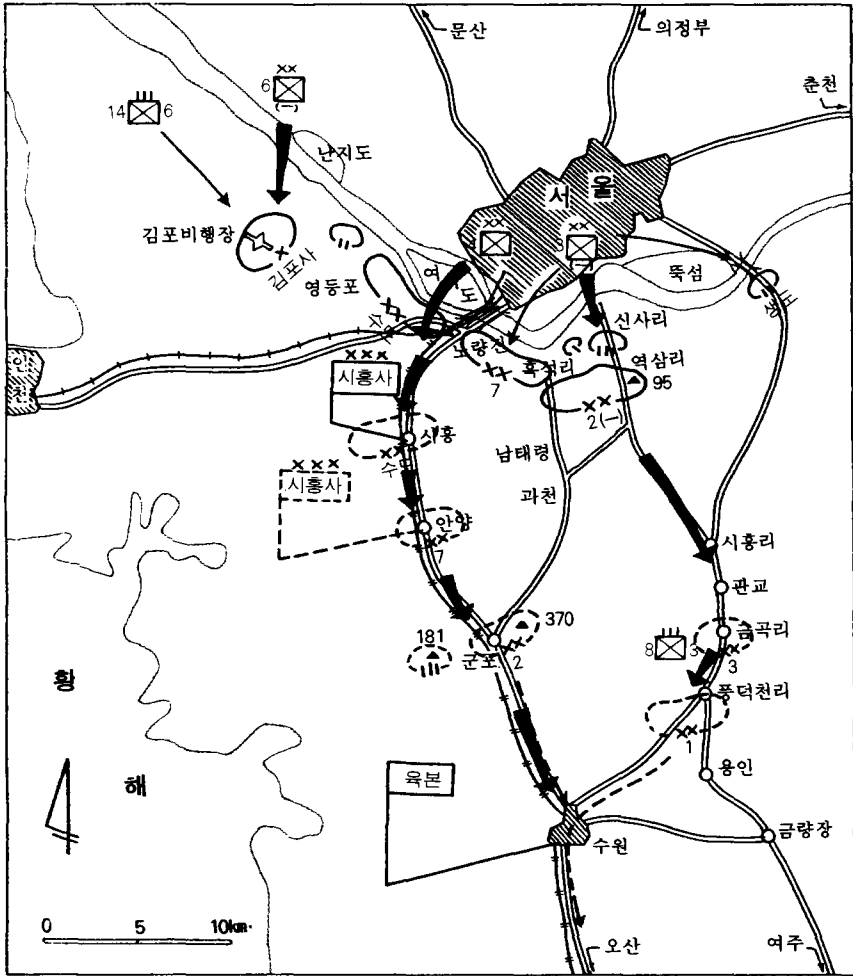
김홍일 소장은 일찍이 1918년 상해로 망명, 중국 강무학교를 졸업한 뒤 독립군으로 활약하다가 한국의용군 사령관이 되었다. 그는 1925년부터 국부군에 가담하여 사단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광복군 참모장으로 있다가 해방을 맞이하였다. 그 뒤 귀국하여 1950년 6월 육군참모학교 교장으로 재임하던 중 전쟁을 맞았다. 그는 당시 국군 간부 중에 사단급 이상 대부대의 지휘 경험이 있는 유일한 인물로서 서울이 함락된 날부터 다시 시흥지구전투사령관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받고 한강선 방어 부대를 지휘하게 되었다.¹¹

김 소장은 즉각 시흥에 사령부를 설치하고 참모부를 구성하는 한편, 제7사단장 유재흥(劉載興) 준장을 혼성제7사단장, 수도사단장 이종찬(李鍾贊) 대령을 혼성수도사단장, 제2사단장 임선하(林善河) 대령을 혼성제2사단장에 임명하고 안양천에서 광진교에 이르는 한강 남안 24km 정면의 방어 편성에 들어갔다.

이때 군의 방어개념은 한강선을 고수한다는 것이었으며, 시흥사(始興司)는 미 지상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들이 가능한 한 북쪽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고수한다는 작전개념으로 한강선 방에 임하게 되었다. 당시 사령부가 하달한 한강선 방어작전의 명령요지는 다음과 같다.

- ① 전투사령부는 한강선을 방어하려 한다.
- ② 혼성제2사단은 신사리-동작리 정면을 고수하라.
- ③ 혼성제7사단은 동작리-대방리 방면을 고수하라.
- ④ 혼성수도사단은 신길리-양평리(안양천) 정면을 고수하라.
- ⑤ 김포지구전투사령부는 현 위치(김포)에서 적을 저지하라.
- ⑥ 각 사단은 적의 도하수단을 적극

한강선 방어(1950. 6. 30~7. 4)



분쇄하라. ⑦ 각 사단은 피난민에 대한 검색을 철저히 하여 적색분자의 침투를 저지하라. ⑧ 지휘소는 시흥(보병학교)에 위치한다.¹²⁾

시흥사는 방어명령을 하달한 즉시 시흥에서 병력을 수습하여 그 병력이 500명 선으로 채워지면 곧바로 혼성제 몇 대대로 명명하여 한강선으로 투입하는 한편, 새로이 한강 방어 편성지역을 분담한 각 혼성사단으로 하여금 지역 내에서

도하한 병력을 수습하여 강안에 재배치토록 진지 편성을 독려했다. 특히 김홍일 장군은 적이 교량을 이용할 것에 대비 노량진 부근을 방어하는 혼성제7사단에 우선권을 두고 혼성대대들을 투입하였으며, 각 사단도 제각기 책임지역에 있는 나루터 방어에 중점을 두고 방어 편성을 서두른 결과 6월 29일에 가서야 간신히 방어선을 형성할 수가 있었다.

29일 오후 혼성제7사단은 혼성 7개대대 병력으로서 노량진-영등포간 강변 지역과 동작동-노량진간 고지대의 확보에 주력하였고, 혼성수도사단도 3개대대 병력과 1개 장갑대대 그리고 57mm 대전차포 2개소대로써 김포 방면과 영등포 방면에 각각 배치하여 적의 도하에 대비하였다.¹³⁾

이날 혼성제2사단은 신사리-말죽거리 일대의 방어 준비에 주력하였고, 김포 방면에는 혼성병력 총 2천여 명으로 구성된 김포지구전투사령부가 배치되어 있었다.¹⁴⁾ 혼성제3, 제5사단¹⁵⁾은 수원에서 낙오병을 수습하였으며, 이산포·행주에서 도하 철수한 제1사단은 시흥에 집결하여 시흥사의 예비대가 되었다.

그 밖에 중부전선의 제6사단은 춘천-홍천에서 효과적인 방어작전을 수행하여 적에게 큰 타격을 주면서 충주로 철수하고 있었으며, 동부전선의 제8사단은 육군본부의 명령에 따라 대관령에서 제천 방향으로 철수 중에 있었다. 동해안 축선은 사실상 개방되어 거의 방어 공백상태가 되었다.

시흥사는 29일까지 예하 혼성사단으로 진지 배치를 일단 완료하였으나 혼성사단은 이름만 사단이지 병력은 1개연대 규모에 불과하였고, 그나마 보유하고 있는 공용화기관 연대당 고작 박격포 2~3문, 기관총 5~6정에 지나지 않는 소규모 소총부대에 지나지 않았다.¹⁶⁾ 시흥사가 방어진지 편성을 완료한 6월 29일 현재 쌍방의 전투부대를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당초에 시흥사는 한강선방어부대에 대한 모든 지휘책임을 맡게 되었으나 통신망의 미비로 혼성제7사단과 혼성수도사단만을 주로 지휘하여 노량진-영등포의 방어에만 치중하게 되었고, 혼성제2사단은 가로막힌 관악산으로 인하여 사실상 육본의 직접 지휘통제를 받고 있었다. 또한 김포사(金浦司)도 29일 현재 예하 6개대대 병력으로써 김포 방면에서 거의 독자적으로 방어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한강선방어부대의 지휘체제의 통일성은 일사불란하게 갖추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사령부예하 각 지휘관들은 이와 같이 지휘체제의 미비와 견제와 병과가 무시된 혼성병력으로는 역습이나 기습에 의한 조직적인 전투력을 발휘하기

(표 1) 한강선의 전투부대 편성 비교(1950. 6. 29)

국군 시흥지구전투사령부(김홍일 소장)	
혼성수도사단(이종찬 대령)	제8연대(-), 제18연대(-2), 기갑연대 제1장갑대대
혼성제7사단(유재홍 준장)	제1연대(-), 제9연대(-), 제15연대(-), 제20연대(-2), 제25연대(-2)
혼성제2사단(임선하 대령)	제3(-), 5(-), 16연대(-), 보병학교혼성연대, 기갑연대 제2기병대대
혼성제3사단(이준식 준장)	제22연대, 제25연대(-), 육사 생도대대
제1사단(백선엽 대령)	제11연대, 제12연대, 제13연대
김포지구사령부(임충식 중령)	제18연대(-) 및 제8·기갑·제12·제22연대의 일부
인민군 제1군단(김웅 중장)	
제3사단(이영호 소장)	제7연대, 제8연대, 제9연대, 포병연대
제4사단(이권무 소장)	제5연대, 제16연대, 제18연대, 포병연대
제1사단(최광 소장)	제14연대, 제2연대, 제3연대, 포병연대
제6사단(방호산 소장)	제1연대, 제13연대, 제15연대, 포병연대
제2사단(이청송 소장)	제4연대, 제6연대, 제17연대, 포병연대
제105전차여단(유경수 소장)	제107전차연대, 제109전차연대, 제203전차연대

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다만 강에 연하여 병력을 배치하여 방어으로써 정면에서도 하접근하는 적을 결사적으로 격퇴시키기로 하였다.¹⁷⁾

2. 美國의 支援 擴大

(1) 地上軍의 投入決定

정부와 국회는 대전으로 이동하기 전에 미국과 유엔에 대해 인민군의 침략을 격퇴할 ‘즉각적이고도 효과적인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으며, 유엔안보리는 7월 27일까지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인민군의 군사행동이 계속되자 28일 한반도의 평화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원조를 대한민국에 제공할 것을 결의하였다. 미 대통령은 미 지상군이 투입(7월 1일)되기 전까지 미 해·공군의 참전, 유엔안보리에 상정, 미 제7함대의 대만해협 봉쇄 등을 결정하였다.

유엔안보리 1950. 6. 28. 결의문

The Military Assistance to the Republic of Korea June 27, 1950.

“The Security Council,

“Having determined that the armed attack upon the Republic of Korea by forces from North Korea constitutes a breach of the peace.

“Having called for an immediate cessation of hostilities, and

“Having called upon the authorities of North Korea to withdraw forth with their armed forces to the 38th parallel, and

“Having noted from the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Korea that the authorities in North Korea have neither ceased hostilities nor withdrawn their armed forces to the thirty-eighth parallel and that urgent military measures are required to resto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Having noted the appeal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for immediated and effective steps to secure peace and security,

“Recommends that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furnish such assistance to the Republic of Korea as may be necessary to repel the armed attack and to resto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e area.”

처치 장군은 28일 국군이 한강방어선 편성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을 무렵 채병덕 소장을 만나 한강방어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작전에 관한 조언을 하는 한편, 전반적인 전황을 주시한 결과 마 저창군을 투입하지 않고는 침략자를 38도선 북으로 구축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맥아더 장군에게 보고하였다.¹⁸

맥아더 장군은 전황의 중대성을 인식, 기상조건의 악화와 적으로부터의 공격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직접 전선을 시찰하기 위하여 6월 29일 수원비행장에 도착하였다. 비행도중 그는 ‘38도선 이북에 대한 폭격’을 명령하였다.¹⁹ 사령관 일행이 도착할 당시 아직도 적기의 공습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활주로 끝에서는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었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무초 대사·처치 장군과 인사를 나누고 전방지휘소에서 전황을 청취한 뒤, 피난민과 군인들이 늘어선 국도를 따라 한강방어선의 혼성수도사단 제8연대 제1대대 진지까지 나아가 강 건너 서울을 정찰하고 간헐적으로 적이 쏜 포탄이 작렬하는 현장을 목격한 후 도쿄로 복귀하였다.²⁰

이 무렵 워싱턴에서는 미국이 지상작전에 직접개입을 회피한다는 제한개입 방침이 공허(空虛)하게 되자 그러한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합동참모본부가 극동군사령관의 권한을 대폭 확대할 계획을 수립, 대통령의 결심을 받아 극동군사령부로 지시를 내렸다.

이 지시는 6월 30일자로 도쿄(東京)에 수신되었으며, 그 내용은 ① 통신 등 긴요한 근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육군근무부대 운용, ② 부산-진해 지역의 항구와 비행장 확보를 위한 육군 전투 및 근무부대 운용, ③ 북한 내의 군사목표에 대한 해·공군의 운용, 한·만, 한·소국경지역은 안전지대로 유지, ④ 맥아더 장군에게 제7함대의 작전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이었다.²⁰⁾

이는 첫째, 미국의 지상군부대를 운용하되 1개 연대전투단 규모로서 한강선이 아닌 부산지역에, 전선투입이 아닌 후방경계에 국한시킨다는 것이며, 둘째, 해·공군의 작전지역을 전 한반도로 확대한 것이며(실질적으로는 맥아더 장군이 전선시찰차 수원으로 가던 기내에서 자신의 재량으로 이를 명령함으로써 이미 시행되고 있었다), 셋째, 해상전력을 크게 증강시킨 조치였다.

한편, 이 지시가 극동군사령부에 도착한 수시간 후 6월 30일 03:00경 맥아더 장군의 전선시찰 보고서가 워싱턴에 도착하였는데, 그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한국군은 전적으로 반격할 능력이 없으며 추가적인 돌파의 중대한 위협을 안고 있다. ……현재의 전선을 유지할 유일한 보장과 상실된 지역을 후에 회복할 능력은 지상군전투부대를 한국의 전투지역에 투입하는 데 달려 있다. ……만일 허가한다면, 1개 연대전투단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한강방어선)에 즉시 증원하고 조기반격을 위하여 일본에서 2개사단 규모를 가능한 대로 증파할 예정이다.²¹⁾

대통령은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고 1개 연대전투단의 전선투입을 즉시 허가하였으며, 그 다음 곧 열린 국무·국방·각군 장관회의에서 “일본에서 한국으로 2개사단을 파견하라. 북한의 해상봉쇄를 실시하라.”는 두 명령을 승인하였다.²²⁾ 이로써 6월 30일에 지상군 투입이 결정되었다.

이와 같이 미국은 해·공군의 38도선 이남지역 작전참가-해·공군의 38도선 이북지역으로 작전확대-지상군의 참전순으로 단계별로 참전부대와 작전지역을 확대하면서 한국을 지원하게 되었다. 이는 전장의 전방사령부-도쿄의 극동군

사령부—워싱턴의 합동참모부—국가통수기구 간의 유기적이며 신속한 상황보고의 흐름과 판단에 의해 이루어졌다.

(2) 地上軍 戰鬪部隊의 展開

맥아더 장군은 6월 30일 지상군 투입결정이 이루어지자 지체 없이 제8군사령관에게 주일미군 중 규슈(九州)에 주둔한 제24사단을 파견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때는 한강선에서 공방전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서 전개시간의 단축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한국에 가장 가까운 이 사단이 제일 먼저 투입명령을 받았다.

제8군사령관 워커(Richard L. Walker) 중장은 제24사단장 딘(William F. Dean) 소장에게 “① 대대장의 지휘하에 2개 소총중대와 4.2” 박격포 2개소대, 75mm 무반동총 1개소대로 지연임무를 수행할 부대를 편성하며, 공수로 부산에 도착 후 처치 장군에게 보고하고 명령을 받도록 한다. ② 사단의 나머지 부대는 함정으로 후속한다. ③ 조기 반격작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 ④ 사단장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주한 미육군의 지휘권을 행사한다.”라는 요지의 전개명령을 하달하였다.²⁰⁾

이에 따라 선견대로 지명된 제21연대 제1대대장 스미스(Charles B. Smith) 중령은 대대의 B, C중대를 중심으로 밤새 스미스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였다. 이 부대는 이다츠케(板付) 비행장에서 사단장으로부터 “부산에 도착하면 대전으로 향하라. 우리는 가능한 한 부산에서 먼 북쪽에서 적을 지연하려 한다. 될 수 있는 대로 보다 북쪽으로 올라가 주도로를 차단하라. 처치 장군을 만나라.”는 명령을 받고 출발하여, 7월 1일 08:45에 부산에 도착하였으며 부산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²¹⁾

이들은 이날 20:00에 기차로 부산을 출발하여 7월 2일 08:00 대전에 도착하였다. 스미스 중령은 전방지휘소에 도착하여 처치 장군에게 신고하고 상황설명을 들은 후 오산 북방 죽미령까지 지형정찰을 실시하고 대전으로 복귀하였다. 그는 처치 장군으로부터 평택·오산을 점령하라는 명령을 받고, 그날 밤 기차로 다시 부대이동을 하여 오산과 평택에 1개중대씩 배치하고 대대지휘소를 평택에 설치하였다. 그리고 4일에는 사단포병 제52포병대대장 페리(Millero Perry) 중령이 A포대를 인솔해 와 합류하게 됨으로써 보·포병을 통합한 하나의 특수임무부대가 구성되었다.

이 선전대에 후속하여 일본 사세보(佐世保)항을 출발한 제24사단 주력은 우선 제34연대가 7월 2일 부산에 도착하여 4일에는 북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고, 그 다음 제21연대(-), 제19연대순으로 4일 부산에 도착하였다.

이날로 던 사단장은 처치 준장을 부사령관으로, 그리고 전방사령부 요원을 참모요원으로 하여 주한 미육군사령부(USAFIK)를 설치하였으며, 같은 날 부산에는 가빈(Crump Garvin) 준장을 사령관으로 하는 제8군의 부산기지사령부가 창설되어 주한미군의 군수지원체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²⁶⁾

이로써 국군이 한강방어선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 미군은 지상군 투입 결정이 내려진 4일 만에 주일미군 제24보병사단의 전개를 완료하였으며, 다른 사단도 전개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점령군 임무를 수행 중인 주일미군 총 4개사단은 전후의 군축계획(軍縮計劃)에 따라 각 연대가 1개대대씩 부족한 2개대대로 감소 편성되어 있었고, 포병 및 전차부대도 모두 감소 편성을 유지하고 있었다.²⁷⁾

3. 漢江-水原線 防禦作戰

서울을 점령한 인민군 제1군단은 6월 28, 29일 양일간 한강대안의 국군의 방어선을 탐색하면서 산발적인 포격을 실시하는 한편, 주공 제4사단을 여의도 방면으로, 조공 제3사단을 흑석동 및 신사리 방면으로 도하시킬 부대정비를 완료하였다.

인민군 제3, 제4사단은 29일 밤부터 먼저 전차포와 화포의 집중적인 지원하에 여의도와 흑석동, 신사리 일대에 정찰대를 투입하여 탐색전을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흑석동 방면의 국군수도사단은 57mm 대전차포 소대를 여의도로 추진하여 적을 급습케 하였으나, 소대는 적 포진지로부터 집중적인 포화를 받아 전원이 장렬하게 전사하는 희생을 치렀다.²⁸⁾ 이날 밤 적은 밤섬과 흑석동 차안(此岸)에 중대규모 정도의 병력으로써 도하 발판을 마련하는 데 그쳤다.

혼성수도사단은 30일 미명부터 밤섬에서 여의도비행장으로 진출하려는 적 제4사단과 수차례 혈전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격퇴하였다. 적은 여의도 방면으로의 정면공격이 여의치 못하자, 일부 병력을 노량진 대안에 투입하여 아직 절단되지 않은 경인 상행선 철교의 복구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마침 서울근교 교통망을 차단폭격하던 미 제5공군 제3폭격전대가 교량을 폭격함으로써 그러한 기

도마저 무산되었다.

적 제3사단은 전날 밤 확보한 도하지점을 발판으로 이날(30일) 미명 흑석동 일대와 신사리 방면으로 본격적인 도하를 개시하였다. 일부는 수영으로, 일부는 20~30명이 승선할 수 있는 뗏목과 나룻배 등을 이용하여 도강을 시도하였다.²⁹⁾ 그러나 차안의 혼성제7사단은 흑석동 제9연대 병력의 결사적인 도하저지사격과 미공군 제19폭격전대의 지원으로 적의 도하를 저지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날 국군은 한강 장애물로 인해 적 전차의 기동이 억제되는 가운데 미 제5공군의 근접 항공지원을 받게 되자 이에 크게 고무되어 결사적으로 적의 진출을 저지하였다.

한편, 이날 오후 방어력이 취약한 신사리 일대에서는 적 제3사단의 일부 병력에 도하를 허용하였다. 신사리에 배치된 기갑연대 제2기병대대는 포병의 지원을 받고 있는 적 제3사단 일부 병력에 의해 돌파되었고, 지원부대인 제3연대(-)마저 위태롭게 되었다. 결국 혼성제2사단장은 방에 용이한 말죽거리 일대에서 적을 저지하기로 하고 재편 중인 제5, 제16연대를 95고지 일대에 배치하고 제3연대(-)는 예비(과천)로 전환하여 남태령-우면산-95를 잇는 방어선에서 적을 저지하였다.³⁰⁾

도하개시 첫날 6월 30일 인민군의 작전기도는 노량진 부근의 고지군을 일단 장악하면 그 엄호 아래 파괴되지 않은 경인 상행선 철교를 이용하여 전차를 도하시켜 한강선을 돌파하는 것이었으나, 국군의 필사적인 도하저지작전에 의해 좌절되었다.

적의 도하공격 이틀째인 7월 1일에는 영등포 대안의 적 제4사단이 미명부터 본격적인 도하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들은 아직 유일하게 완파되지 않은 경부선 철교를 확보할 목적으로 먼저 아군복장을 한 편의대(便衣隊) 1개소대를 노량진 방면으로 침투시켜 아군을 교란하면서 예비대인 제5연대를 선두로 마포와 하중리 나루터에서 대규모 도하공격을 개시하였다. 여의도에 거점을 확보한 적이 영등포 지역의 혼성수도사단 제8연대 진지로 육박하여 한때 아군의 방어선이 돌파될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으나, 참호 속의 제8연대 병사들은 지형의 이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진지에 접근하는 적에게 소화기와 수류탄을 집중함으로써 적의 돌파기도를 분쇄하였다.

적 제4사단은 이날 중으로 영등포 지역을 장악하겠다는 의지로 하루종일 집요하게 공격하였으나, 혼성수도사단이 맞서 필사적으로 저지함으로써 그들의 진출기도는 실패하였다. 이들은 여의도 정면으로의 도하작전이 여의치 않자, 전

와 남태령 일대의 진지를 계속 방어하면서 제25연대를 투입하여 침투한 적을 격멸하도록 하였다.

이날 육군 총참모장 겸 육·해·공군 총사령관으로 임명된 정일권(丁一權) 소장³²⁾도 한강방어선에 대한 전체 전황을 분석한 후 적의 주공을 방어하고 있는 혼성수도사단 및 혼성제7사단의 퇴로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말죽거리-수원선이 고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혼성제3사단이 제22연대 병력으로써 판교 남쪽 금곡리 일대에서 제2저지진지를 편성하였다.

7월 2일도 전날에 이어 쌍방의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었다. 노량진 대안의 적 제3사단은 교두보를 확보한 병력의 부족으로 과감한 공격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반면 여의도 대안의 적 제4사단이 다시 비행장을 점령하면서 혼성수도사단 제8연대 진지를 돌파하려 하였다. 제8연대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수차례의 혈전을 거듭한 끝에 적을 격퇴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결국 적 제4사단은 이날까지 끝내 제8연대 진지를 돌파하지 못함으로써 여의도 방면의 전황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같은 날 말죽거리 정면에서는 위기상황을 맞았다. 적 제3사단 제8연대가 신사리로 한강을 도하하여 이미 판교로 침투한 병력을 따라 후속하기 위하여 제5연대의 저지선을 돌파하여 말죽거리 부근 95고지로 진출하였다. 이들은 때마침 출동한 미 공군기의 부단한 폭격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진출을 유보한 채 부대를 정비하였다. 이 무렵 시흥리 부근에서는 예비부대인 보교(步校)연대가 우연히 판교 방향으로 남진하고 있는 적의 보급차량 30여 대를 발견하여 기습공격에 성공함으로써 판교를 장악한 적의 보급을 차단시켜 적의 남진속도 지연에 크게 기여하였다.

7월 2일 적의 1개연대가 말죽거리로 진출한 상황에서 혼성제2사단이 시흥사령부로부터 주력병력이 철수하게 될 1번국도를 엄호하기 위해 과천-군포 도로를 확보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말죽거리 지역에서 철수함으로써, 그 후방 금곡리에 배치된 혼성제3사단이 말죽거리-판교 축선 방어임무를 전담하게 되었다.³³⁾ 한편, 판교를 장악한 적의 일부 병력은 보급지원이 두절되고 미 공군기의 계속적인 공습으로 인하여 더 이상 진출하지 못한 채 주력의 도착을 기다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적의 도하작전 나흘째인 7월 3일 미명부터 국군의 방어선이 적의 주공에 의해 돌파되면서 전황은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즉, 적의 주공인 제4사단이 이를

전인 7월 1일 야간부터 유일하게 완파되지 않은 경부선 철교의 복구작업을 은밀히 실시하여 결국 이날 04:00 최초로 전차 4대를 도강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그들은 계속하여 후속병력을 영등포 방면으로 우회시키고, 뒤이어 열차를 이용하여 전차 13대와 병력을 남안으로 진출시킴으로써 노량진과 영등포 일대를 석권하기 시작하였다.

노량진 방면으로 도하한 적 제3사단의 일부 병력이 영등포의 배후를 위협하고 동시에 적 제6사단 제14연대의 일부 병력이 오류동을 돌파하여 전차 2대의 엄호하에 영등포로 진출하였다. 여의도 정면의 적도 배후를 찢린 혼성수도사단 제8연대의 전열이 무너지는 틈을 이용하여 일제히 도하하여 영등포 방향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영등포 지역은 한강 남안의 교통의 중심지로서 전체 한강방어선의 고수 여부가 결정되는 곳이었으므로, 수도사단 병사들은 포위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영등포 시내 도처에서 공장과 건물 등 유리한 지형지물을 이용하면서 결사적으로 시가전을 전개하였다.³⁴⁾ 그러나 이미 전세는 완전히 기울어 결국 영등포는 적에게 장악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영등포의 실패가 목전에 다가오자 김홍일 소장은 국군주력을 철수시킬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계획된 철수명령을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한강방어선상의 국군주력은 또다시 부대별로 분산되어 일부는 안양으로, 일부는 과천으로 각각 집결하였다. 적은 이날 영등포 일대에서 다시 부대정비에 들어갔으며, 말죽거리의 적 제8연대는 판교 방향으로, 김포 일대를 장악하고 있던 인민군 제6사단은 저녁 무렵 6대의 전차를 선두로 인천으로 기동하였다.³⁵⁾

한편, 7월 3일 아침 한강방어선 와해를 보고받은 총참모장 정일권 소장은 이미 7월 1일 부산에 도착한 미 지상군 선견대가 평택-안성선으로 진출한 상황이었으므로, 미군의 전투준비를 위한 시간을 얻기 위해 현 전선에서 적의 진출을 최대한 지연하기로 하고 영등포-수원간 축차진지에 의한 지연전을 전개하라는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³⁶⁾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18호(구두명령 2일, 문서명령 3일) “군은 부원군의 전투참가를 위한 시간을 얻기 위하여 현 전선에서 지연전을 실시한다.” 그는 군예비인 제1사단을 투입하여 금곡리 일대에 전개한 적의 공격을 저지하게 하는 한편, 육군본부의 명령에 따라 이천지구로 전진한 제6사단 제19연대로부터 “적 제2사단(李靑松 소장)의 선두부대가 용인군 금량장 부근으로 진출 중”이라는 보고를 받고 수원에 있던 제8연대 제2대로써 지원하였다.

사령관 김홍일 소장은 이날 중 혼성수도사단을 시흥 일대의 제1저지선에서, 혼성제7사단을 안양 일대의 제2저지선에서 적을 방어하게 하고, 김포사령부는 해체하여 제15연대와 제18연대를 혼성수도사단에 배속 및 원대복귀시켰다. 또 혼성제2사단(李翰林 대령)은 군포장 일대에서 시흥전투사의 철수엄호 임무를 부여받았다. 따라서 혼성수도, 제7, 제2사단 총 3개사단이 적의 주공이 지향될 시흥-수원 사이 경부국도상의 저지선에 배치되었고, 각 사단은 전차특공대를 조직하여 교량과 애로 곳곳에 투입하여 결전태세를 가다듬었다.

한편, 금곡리-수원 축선상에는 저지선이 형성되어 혼성제3사단이 관교를 장악한 적 제8연대를 금곡리 부근에서 저지하고 있었고, 제1사단이 금곡리 후방 풍덕천으로 진출하여 제2저지선을 급편하고 있었다.

적 제4사단은 7월 4일 새벽 제105전차여단 소속의 전차를 영등포 일대에 집결시킨 뒤 경수가도를 따라 남진하여 국군의 저지진지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제1선인 수도사단은 야크기 3대의 엄호를 받는 적의 선두전차와 보병부대에 의해 각각 양개 방향에서 공격을 받아 각개 분산되어 수원 방면으로 철수하였고, 정오 무렵에는 제2선인 혼성제7사단 진지도 적 전차에 의해 돌파되었다. 적은 미 공군기 편대에 의해 진출속도가 잠시 둔화되기도 하였으나, 결국 압도적으로 우세한 전차의 충격력으로 밀어붙여 결국 제3선인 군포장의 혼성제2사단 진지마저 돌파하였다.³⁷⁾

한편, 적 제3사단 제8연대도 4일 새벽 같은 시간에 공격을 개시, 금곡리 부근의 혼성제3사단을 밀어붙이고 풍덕천-수원도로를 따라 남진하였으며, 풍덕천에 배치한 국군 제1사단은 한때 이들의 선두부대인 2개대대를 일제사격으로 격퇴하기도 하였으나 곧 이어 계속된 적의 공격으로 인해 방어선 중앙이 돌파되었다.³⁸⁾

더 이상 적의 저지가 어렵다고 판단한 총참모장 정일권 소장은 7월 4일 14:00 시흥지구전투사령관에게 사령부를 평택으로 철수하도록 명령하였다. 따라서 수원으로 집결한 한강선방어부대는 평택을 향하여 각각 철수하게 되었고, 이에 앞서 육군본부도 평택으로 이동하였다. 이날 오후 늦게 적의 전차와 제4사단 제5연대 병력이 수원 시내에 진입하였고 이때까지 잔류한 엄호부대도 마지막으로 철수하였다. 비록 적의 전차부대에 밀려 철수하였으나 시흥지구전투사령부는 혼성부대로 1주간이나 한강방어선을 지탱하여 적의 진출을 크게 지연시킨 반면, 미 지상군의 전개를 보장함은 물론 국군과 미군이 연합전선을 펼쳐 지연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함으로써 적의 전략에는 큰 차질을, 아군의

전략에는 새로운 전기를 부여하였다.

第 2 節 遲延作戰으로의 轉換

1. 韓·美聯合戰線 形成과 國軍의 再編成

시흥사가 수원에서 평택으로 철수한 7월 4일은 한국전쟁의 전개과정에서 한미연합전선의 형성이라는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 이를 계기로 평택-안성선에 전개한 미 지상군이 경부국도를 중심으로 한 서부전선을 담당하고, 국군은 그 이동에서 동해안까지 전선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작전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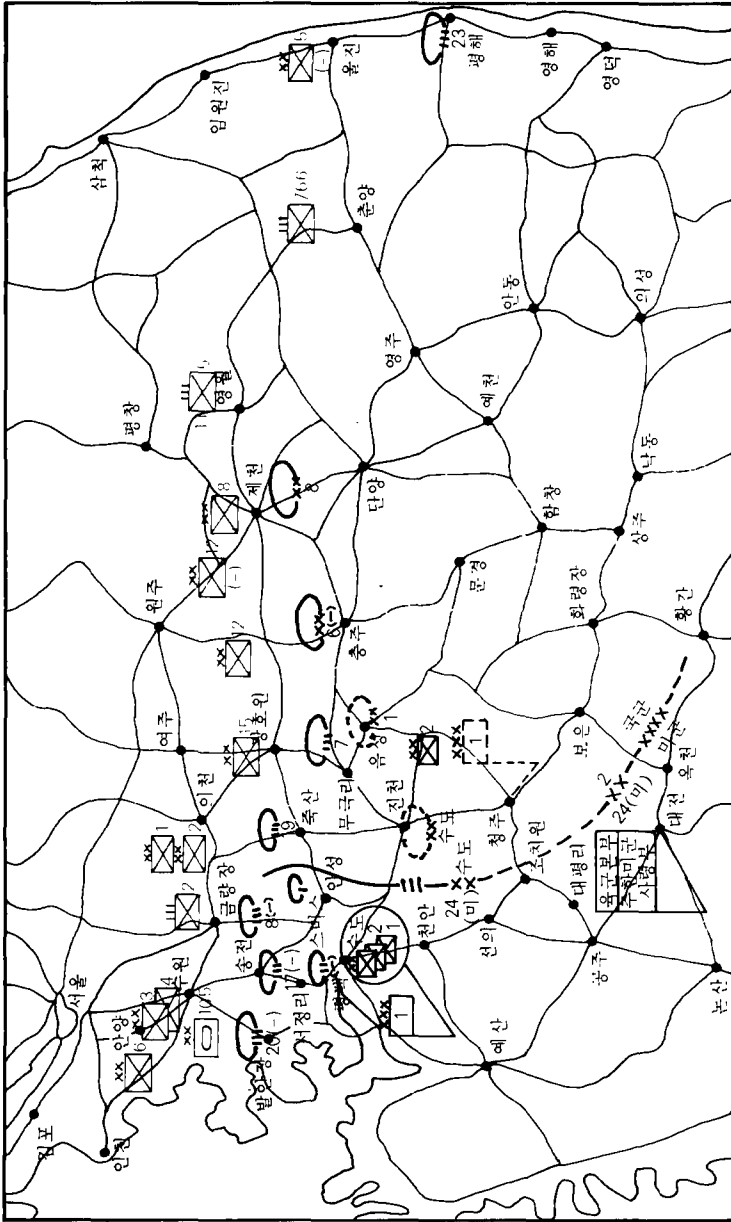
이것은 미 지상군의 투입이 결정되고 그 선두부대인 스미스특수임무부대가 부산에 전개한 7월 1일 총참모장 정일권 소장이 대전의 미 극동군사령부 전방지휘소에서 가진 처치 준장과의 작전협의를 근거한 것이다. 이들은 첫날 미 공군의 지원강화와 국군의 재정비, 탄약 및 장비의 긴급보충 등에 관한 협의를 가진 데 이어, 다음날에는 스미스부대의 수송 및 배치, 국군과의 작전지역 분담, 장차 작전의 구상 등 한·미간 협동 및 연합작전과 관련된 광범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를 보았다.

- ① 한국군은 가능한 한 오래 한강선을 지탱한다. ② 한국군은 경부국도 연변에서 적을 저지하면서 미 제24사단의 진출을 엄호한다. ③ 미 제24사단이 경부국도를 중심으로 서부지역을 맡고, 한국군은 그 이동지역을 분담한다. ④ 한·미군의 최초 저지선은 남한에서 가장 폭이 좁은 평택-안성-충주-울진선으로 한다.³⁹⁾

이에 따라 국방부는 스미스부대가 평택-안성에 전개한 7월 4일, 시흥사령부 예하 병력이 수원에서 철수하여 평택 남쪽으로 집결하는 상황을 맞게 되자 이 부대들로 제1군단을 창설하는 등 육군병력을 전반적으로 재편성하여 한미연합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기로 하였다.

여기에는 시흥사가 접적(接敵)을 단절하고 전선을 이탈해야 하며 또 적과의 전투를 벌이는 전선 직후방에서 재편성을 한 다음 신속히 전선에 재투입해야

한·미연합전선 열성(7. 4. ~7. 6)



하는 위험이 수반되었다. 하지만 서울방어전과 한강선방어전에서 이들 부대가 입은 인원, 장비의 손실이 너무나 크고 편성이 혼성되어 있어, 새로운 작전으로의 전환에 앞서 우선 부대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이 개편계획은 7월 5일부로 시흥사로써 제1군단사령부를 창설하고 그 예하 혼성된 수도·제1·제2·제3·제5·제7사단을 수도·제1·제2사단의 3개사단으로 재편성하여 육군을 1개군단, 5개사단 및 3개연대로 개편하는 것이었다.⁴⁰⁾

총참모장 정일권 소장은 7월 4일 시흥사가 수원에서 철수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구두로 개편명령을 하달하고 또한 철수 및 재편성 간에 적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철수부대에 의한 오산-안성선 엄호부대 배치와 중부 이동부대의 죽산-장호원-제천선 점령을 강조하는 내용의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⁴¹⁾ 총참모장은 이날의 재편성에 관하여 뒷날 “당시 제1군단장은 사단급 이상의 부대를 지휘한 경험이 있는 유일한 인물인 김홍일 장군을 임명하였고, 수도사단 및 제1·제2사단은 일부 부대가 분산되기는 하였으나 비교적 대대급 이상의 지휘조직이 건재하였기 때문에 재건사단으로 지정하였고, 제3사단과 제5·제7사단은 지휘조직이 완전히 상실되었기 때문에 해체하여 그 병력으로써 재편된 사단에 보충케 하였다.”고 회고하였다.⁴²⁾

제1군단장에 임명된 김홍일 소장은 지체 없이 개편명령과 작전명령을 구두로

(표 2) 육군개편계획(1950년 7월 5일, 구두명령 7월 4일)

부 대	지 휘 관	연 대	편 입 연 대
육 군 본 부	정 일 권 소 장		
제 1 군 단	김 홍 일 소 장		
수 도 사 단	이 준 식 준 장 (김석원 준장 7월 7일부)	제1·제8·제18연대	제3·제9연대
제 1 사 단	백 선 엽 대 령	제11·제12·제13연대	제15·제22연대
제 2 사 단	이 한 립 대 령	제5·제16·제20연대	제25연대
제 6 사 단	김 중 오 대 령	제2·제7·제19연대	
제 8 사 단	이 성 가 대 령	제10·제21연대	
제 17 연 대	김 희 준 중 령		
제 23 연 대	김 종 원 중 령		
기 갑 연 대	유 흥 수 대 령		

우선 하달하고 7월 4일부터 부대가 평택에 집결되는 대로 군단사령부를 편성하는 한편 각 사단의 재편성을 서둘렀다.

군단장은 부대가 한창 재편성 중이던 7월 5일 오후 육군본부의 제1군단 재배치명령을 받고 아직 재편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사태의 급박함을 인식하여 부대를 배치하였다. 6일 이른 아침부터 수도사단을 진천으로, 제1사단을 음성으로 전개시켜 각각 그 전방에서 엄호작전 중인 제6사단 제19연대와 제7연대를 작전통제하여 적을 지지하도록 하고, 제2사단은 증평으로 이동시켜 예비로 확보하는 한편, 군단사령부를 청주에 설치하여 중부전선의 방어를 담당하였다.

제1군단이 평택에서 재편성을 시작하여 재배치될 때까지 각 사단의 병력 현황은 급속도로 증가되어 3개사단의 병력은 전쟁 전 수준에 거의 육박하였다. 이는 재편성간 분산되었던 병력이 원소속부대를 스스로 찾아 모여들고, 또 낙오자를 수집하여 충원하는가 하면 대한청년단원 및 학도병들이 자원하여 현지 입대하는 등 여러 보충원에 의해 신속하게 증원되었기 때문이었다.

(표 3)

제 1군단 재편성간 병력증가 실적(1950. 7. 6)⁴³⁾

사 단	재 배 치 이 전	재 배 치 이 후
수 도 사 단	2,500명	7,855명
제 1 사 단	4,000명	5,063명
제 2 사 단	1,600명	6,845명

이러한 국군의 신속한 재편성에 대하여 후에 인민군 최고사령관인 김일성(金日成)도 “우리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적을 완전히 포위섬멸하지 못하고 그들이 퇴각하는 동안 부대를 재편성하고 병력을 증강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는 것이다.”라고 평가하였다.⁴⁴⁾

그러나 국군은 보급 장비면에서는 병력과는 달리 대단한 어려움에 놓여 있었다. 육군본부는 7월 5일부터 부대별 보급계획표를 작성하는 등 후방군수지원체제의 정비에 착수하여 점차 지원 마비상태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 전시 동원이나 징발 등 국민총력전 체제를 구비하기엔 시간이 더 소요되었다.⁴⁵⁾

국군은 7월 3일까지 미군으로부터 105mm 곡사포 12문, M1소총 990정, 탄약 등을 보급받아 제1군단에 지급하는 등 미 군원보급과 장비를 일부 수령하기도 하였지만, 그들의 군수지원부대도 이제 겨우 전개단계에 있고 그나마 우선 순위가 자국군(自國軍)에 있어, 재편성 당시 국군에 대한 군원장비의 보급은 극

히 제한되어 있었다.⁴⁶⁾

연합전선 형성시 국군의 책임지역에는 제6사단 제19연대가 안성 동측방 송전-죽산에, 동 사단 제7연대가 그 동쪽 무극리-동락리에, 동 사단 제2연대가 충주를 점령하고 있었고, 제천에는 제8사단이, 그리고 동해안 울진 부근에는 제23연대가 작전 중이었다. 이때 연합전선은 제천 부근을 제외하고는 대대-연대 단위의 부대가 중요 예상접근로를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부대규모가 작다는 것뿐만 아니라 부대간의 간격이 넓어 방어력이 대단히 취약하였다.

반면에 인민군 전선사령부⁴⁷⁾는 이 무렵 후속하던 예비사단을 전방으로 투입하고 내무성 소속의 3개 국경경비여단을 제7·제8·제10사단의 전투사단으로 개편하는 한편, 전시동원령을 발동하여 그들의 남침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하였다. 서부전선에서는 제4사단이 제105전차사단(7월 5일 사단으로 승격)을 후속하여 공격을 선도하고 그 뒤를 제3사단과 제6사단이 후속하여 남진 중이었다. 중부전선에서는 제2사단이 이천에서, 제15사단이 장호원에서 남진 중이었으며, 충주 방면으로는 제12사단과 제1사단이 집중하고, 제천 방면으로는 제8사단⁴⁸⁾이, 그리고 동해안 지역에서는 제5사단이 각각 남진 중이었다.

이처럼 절박한 때인 7월 5일 미 제24사단의 제34연대가 오산으로 진출한 스미스부대의 뒤를 이어 다시 평택-안성에 전개하고, 다음날에는 국군 제1군단의 3개사단이 진천·음성·증평으로 투입됨에 따라, 연합전선은 이때 이르러 어느 정도 골격을 갖추게 되었다.

지상군의 재편성 및 연합전선의 형성과 때를 같이하여 해·공군도 전력을 보강하고 지상군과의 합동작전 및 유엔 해·공군과의 연합작전체제를 정비해 나갔다. 공군은 7월 2일 F-51 전투기 10대를 보유하게 됨에 따라 6일에는 비행단과 정찰비행단으로의 기구개편을 단행하여 군단에 대한 정찰지원과 미 공군과의 연합작전으로 근접항공지원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비행단장 이근석(李根皙) 대령은 7월 4일 안양 상공에서 적 전차를 저지하다가 장렬히 전사하였다. 미 공군은 7월 5일 대전에 공지(空地)합동작전본부를 설치하고 6개의 전술항공 통제반을 운용하기 시작하여 점차 이를 증강시킴으로써 공지작전의 효율성을 기함은 물론, 작전간에 발생하는 오폭사고⁴⁹⁾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

해군은 실질적으로 6월 27일부터 미 해·공군과 연합작전에 들어가 동서 양해안에서 해상작전 및 지상군 지원작전을 실시하였고, 6월 30일부터는 해상을 봉쇄함에 있어 37도선을 경계로 그 북부를 미 해군이 담당함에 따라 그 남쪽은

한국 해군이 분담하여 작전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아직 함포연락장교(NGLO) 등이 파견되지 않아 지원의 효율성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그 대신 고문관들이 임시로 그 역할을 대행하기도 하였다.⁵⁰⁾

한편, 정부는 전시하의 작전수행을 적극 협조하기 위해 7월 8일 전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고,⁵¹⁾ 국방부는 국군과 미군 간 협동작전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모색하던 중 7월 7일 유엔군사령부의 창설을 계기로 7월 10일에 이르러 국제연합장교단을 창설하였으며, 이들은 국군과 유엔군 및 유엔한국위원단과의 연락(외교업무 제외)업무를 담당하였다.⁵²⁾

국방부는 유엔군의 지원 및 미 지상군의 참전, 육군의 재편성 그리고 연합전선의 형성 등 일련의 상황변화를 계기로 삼아 조기반격작전으로 이전하기 위한 기회 포착에 강한 의지를 표방하고 부대의 작전을 지도하였다. 그러나 상대적인 전력의 약화로 미군과 더불어 지연작전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지연작전은 인민군의 주공인 제1군단이 경부축선과 중서부축선 및 서해안축선으로 압박을 가하고, 제2군단이 중부 및 중동부축선과 동해안 도로로 남진하는가 하면, 이를 저지하려는 국군과 유엔군이 차령산맥과 금강-소백산맥선에 연하여 차례로 지연선을 형성함에 따라 이 공간에서 축선별로 전개되었다. 이제 최소의 공간을 양보하고 최대의 시간을 획득하며, 그 동안 적에게는 최대의 손실을 가하면서 아군의 전력을 신속히 회복하는 일이 당면과제가 되었다.

2. 京釜軸線 遲延戰

(1) 烏山 부근 戰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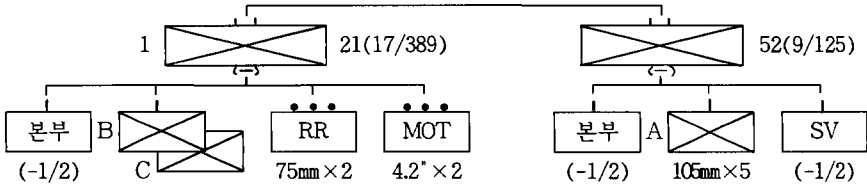
7월 4일 시흥사가 수원에서 평택으로 철수하자, 스미스부대는 서부전선의 최전선부대가 되어 수원을 점령한 적이 공격해 올 것에 대비한 전투준비를 서둘렀다. “가능한 북쪽에서 적을 지연하라.”는 임무에 따라 2회의 정찰까지 실시한 후 평택을 출발, 7월 5일 03:00에 죽미령(竹美嶺)에 도착하였다.

죽미령은 오산 북방 약 5km 경부축선상의 조그마한 횡격실 능선으로서 중앙에 주봉인 반월봉(117m), 서측에 무명고지(90m), 동측에 92고지의 3개의 고지군으로 되어 있다. 90고지와 117고지 사이로 경부국도가 지나가고 92고지 동측에는 경부철도가 있다.

죽미령에 도착한 스미스부대는 B중대가 경부국도를 가로 타고 90고지와 117 고지를, C중대가 92고지를 점령하고, 105mm 포대(탄약 1,200발)는 죽미령 후방 수청리에 포진하였고, 그 중 5번포 1문은 대전차고폭탄 6발과 함께 죽미령까지의 중간지점으로 추진하였다. 이 무렵 복상한 국군 제17연대⁵³⁾도 제2대대를 포병진지 우측 88고지에 배치하였다.

스미스부대는 비가 내리는 새벽의 어둠 속에서 즉각 진지 구축에 들어갔지만, 해 뜰 무렵까지도 완료하지 못하고 다만 보병화기의 시험사격과 포병의 기점사격을 끝낼 수가 있었다. 이때의 스미스부대 전투편성은 다음과 같다.

<표 4> 스미스특수임무부대 전투편성



07:00경 수원 부근에서 인민군 제4사단이 제107전차연대를 앞세우고 긴 행군제대를 이루어 1번국도를 따라 남진하는 것이 관측되었다. 그들이 8대의 전차를 선두로 죽미령고개 1.8km까지 접근하자 스미스특수임무부대는 105mm 곡사포의 포격을 개시로 선제공격을 가하였다. 그러나 포탄의 집중에도 불구하고 적 전차는 고개 방향으로 계속 전진하였다. 전차가 보병진지 전방 630m까지 들어왔을 때 75mm 무반동총이 전차를 향해 공격을 가하였으나, 적 전차는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않고 85mm 주포와 7.62mm 기관총을 쏘면서 고개로 기어오르기 시작하였다. 전차가 보병진지선에 도착하자 2.36" 로켓조가 대전차공격에 나서 10여m 거리에서 적 전차의 궤도 및 후미의 취약부분을 가격하였으나 역시 소용이 없었다.

전차가 보병진지를 지나 죽미령 마루에 이르렀을 때 5번 포로부터 발사된 대전차고폭탄에 명중되어 선두전차 2대가 정상에서 정지하였다. 이는 2.36" 로켓 공격에 궤도가 파괴되었는지도 모르지만 105mm포에 직접 맞아 정지된 것 같기도 하였다. 09:00경 후속하던 적 전차는 파괴된 전차를 길 옆으로 밀어 치우고 미 보병과의 교전을 피하면서 4대씩 무리를 이룬 가운데 도합 33대가 모두 죽미령을 통과하여 포대 쪽으로 내려갔다.⁵⁴⁾

포병들은 전차가 그렇게 빨리 포진지 전방에 출현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적이 미 지상군 참전을 알게 되면 퇴각하거나, 최소한 전방의 보병이 모두 처리할 것으로 믿었다. 포병들은 각 포를 도로 방향으로 돌려 적 전차에 직접 조준사격을 가하고 2.36" 로켓조도 대전차사격에 가담하였으나 적 전차를 저지하지는 못하였다. 선두전차군이 응사를 하며 오산 쪽으로 내려간 10여 분 후 더 많은 전차가 접근해 오자, 포병들은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전장공포증으로 진지를 이탈하기도 하였지만, 지휘관의 훌륭한 지도력에 의거 다시 포에 복귀하여 후속전차와 사격전을 벌였다. 포진지를 정확히 발견하지 못한 적의 전차가 모두 오산 쪽으로 내려갔을 때 궤도에 포탄을 맞아 파괴된 전차 2대가 도로변에 서 있었다.

전차가 통과한 후 보병부대의 공격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 스미스부대는 비가 오는 데도 불구하고 호를 더 깊이 파는 등 진지를 강화하였다. 11:00경 전차 3대를 선두로 긴 차량중대가 뒤따르고 또 그 뒤에는 수킬로미터에 늘어난 도보 부대로 된 적 주력부대의 선봉이 진지전방 900m까지 접근해 왔다. 스미스부대는 세계 최강국의 전투원이었지만 수적으로 우세한 적과의 교전을 앞두고 자신 만만한 모습은 사라지고 모두가 겁에 질려 있었다.

대대장의 사격명령으로 야포·박격포·기관총 및 소화기 등 각종 사격이 집중되자 적의 보병은 산개하고 선두전차가 능선 200m까지 다가와 전차포와 기관총사격을 가하였다. 그 동안에 적 보병부대의 일부가 반월봉에서 북으로 뺀은 능선을 점령하고 지원사격을 하는 동안 주력부대는 죽미령 좌우로 우회하였다.

보병전투가 벌어진 지 약 1시간이 지났을 때 B중대의 서측방이 위협을 받자 대대장은 반월봉을 중심으로 전면방어로 전환하여 저항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얼마 후 동측방의 C중대가 또 위협하게 되었다. 스미스 중령은 철수를 결심하였다. 부대는 포위될 상황에 있고 적 전차의 남진시 보·포통신망의 두절로 포지원도 못 받고 기상 불량으로 항공지원도 받을 수 없으며 더군다나 증원 희망도 없었다.⁵⁵⁾

거의 12시간 동안 진지를 지킨 스미스부대는 14:30 죽미령에서 철수를 개시하였다. 대대는 B중대의 엄호하에 철수 순서에 따라 92고지를 경유 오산 방향으로 철수하였다. 스미스 중령은 B중대와 같이 철수하다가 포병과 합류하여 오산으로 철수하였고, 국군 제17연대는 평택을 경유하여 철수하였다.⁵⁶⁾

죽미령에서 철수시 스미스부대는 동측방으로부터의 적 공격에 병력은 분산되

었고 모든 공용화기를 유기하는 등 많은 인원, 장비의 손실을 입었다. 이 부대들이 안성을 거쳐 천안에 집결했을 때 스미스 대대원의 전사, 부상, 실종을 합하여 총 손실은 150여 명에 달하였다. 적의 손실은 전사 42명, 부상 85명, 전차 파손 4대였다.⁵⁷⁾

죽미령 전투는 미군과 인민군의 첫 전투로, 인민군으로서는 미 지상군의 참전이 확인된 전투였다. 당시 적 제2군단의 작전참모였던 이학구(李鶴九)는 후에 낙동강전선에서 포로가 된 후, “그때 미국이 전쟁에 개입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고, 미국의 참전 가능성에 관해서 들은 바도 없었으며, 오산에 미군이 와 있다는 것을 알고 몹시 놀랐다. 그것은 우리로서는 하나의 충격이었다.”고 하였다.⁵⁸⁾ 미군도 이 전투를 통해 비로소 인민군의 전력을 과소평가했음을 인식하고 적을 바로 알게 되었다.

(2) 平澤-天安 부근 戰鬪

오산전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미 제24사단 제34연대가 오산 후방 평택-안성에 새로이 제2저지선을 형성하였다. 제1대대가 평택 북방에서 경부국도를 중심으로, 제3대대(-)가 안성에서 역시 남쪽으로 지나는 도로를 중심으로 하여 진지를 편성하고 연대본부는 제3대대에서 차출한 L중대와 함께 성환에 위치하였다. 연대는 포병, 전차 등 지원부대를 갖추지 못한 채 전개하였으며 총 병력은 1,981명이었다.

평택-안성 지역은 한미연합전선상의 서부지역으로서, 서로는 아산만(牙山灣)과 이어지고 동으로는 산악지대로 연결되어 서부전선 방어의 주요 길목에 해당되므로, 이곳에서 남으로 통과하는 경부국도를 포함한 두 개의 도로망을 방어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였다. 따라서 사단장은 제34연대가 이곳의 방어를 훌륭히 수행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지형을 점령한 연대는 주로 경부도로상에 2.36" 로켓조를 추진하여 적의 전차공격에 대한 대비에 중점을 두고 방어태세를 다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날 7월 5일 오후에 서정리 부근에서 2.36" 로켓조가 이미 오산을 통과하여 그곳까지 진출한 적의 전차와 사격전을 교환한 상황 이외에는 쌍방간의 큰 접전이 없이 밤을 맞게 되었고, 제34연대는 스미스부대의 소식을 듣지 못하여 몹시 불안한 상태에 있었다.

자정이 조금 지나자 스미스부대의 철수병력과 낙오병이 안성과 평택을 경유 성환을 거치면서 연대는 전방상황을 파악하게 되었고, 특히 주접근로를 담당한 제1대대는 적 전차에 대비하여 진지전방의 교량을 파괴하는 등 밤새워 대전차 방어에 중점을 두고 진지를 강화하였다.⁵⁹⁾

6일 날이 밝자, 대대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안개 속으로 13대의 전차를 선두에 세운 적 보병들이 2열중대로 도로변을 따라 접근하는 것을 관측하였다. 이들은 적 제4사단 제16·제18연대와 제105전차사단 예하부대였다. 적의 접근을 확인한 제1대대가 4.2" 박격포로 선제공격을 가함으로써 평택전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대대의 사격은 적 전차의 공격에는 무력하였고 도리어 적의 보병부대가 대대의 진지를 양측방으로 우회공격하였다. 대대장은 이미 바스(George B. Barth) 준장으로부터 “가능한 한 오랫동안 방어하라. 그러나 부대가 포위차단될 위험에 처하면 철수하라.”는 명령을 사전에 받은 바 있어, 대대를 평택으로 철수시키기 시작하였다.⁶⁰⁾

천안에서 제1대대장은 연대 작전주임으로부터 위와 비슷한 내용의 명령을 받고 철수를 계속하여 초저녁까지 천안 남쪽 3.2km 지점으로 철수하였다. 대대는 철수 도중에 많은 장비를 유기하고 병력도 분산되어 지휘체제가 혼란하였다.⁶¹⁾ 이곳에는 이미 이날 오전 중에 도착한 제21연대 제1대대(-)가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있었다. 안성의 제3대대는 접적이 없는 가운데 열차와 자동차로 철수하여 저녁 늦게 천안에 도착하였다.

이날 저녁, 천안의 연대본부에서는 이러한 상황보고를 받고 달려온 사단장 주재하에 작전회의가 열렸는데, 사단장은 화를 내며 “누구의 승인하에 철수하였는가?”라고 책임을 추궁하였지만, 철수 당시 유·무선이 단절되어 사단장에게 보고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사실상 천안으로의 철수는 지금까지 사단장을 대리하여 전방작전을 지휘한 바스 준장이 병력을 평택과 안성으로 분리하는 것보다 천안에 집결시키는 것이 방어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연대장에게 지시함으로써 시행된 것이었으나, 이는 사단장의 의도와는 상치되는 것이었다.

사단장의 지시에 따라 연대장은 다음날인 7일 아침 연대 정찰 및 수색소대를 선두로 제3대대를 평택 방향으로 추진, 접적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들 부대가 수많은 국군이 남하하고 있는 도로를 거슬러 천안 북방 6~8km 지점까지 진출하였을 때 적의 소화기와 박격포사격을 받게 되었으며, 사단에서는 항공정찰에 의해 밝혀진, ‘많은 적 부대가 제3대대의 동쪽에 출현하였고 안성에는 30~40대

의 전차가 집결하고 있다.'라는 대부대의 측방 우회공격 징후를 연대에 연락기로 통보하고 신중한 전진을 명하였다.⁶⁰⁾

한편, 이날 오후 제34연대장의 지휘책임을 물어 제2차 세계대전시 딘 소장과 같이 싸운 마틴(Robert R. Martin) 대령이 새로 부임하고 러브레스 대령(Jay B. Loveless)이 물러나는 야전에서의 지휘관 교체가 있었다. 이 무렵 제3대대에서는 침병중대에서 교전이 벌어졌고 얼마 후 본대도 측방공격을 받자 진지에서 임의로 철수하였다. 신임 연대장은 즉각 제3대대를 원진지로 되돌아가라고 명령하였다. 연대 및 대대 정보장교가 제3대대의 복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던 중 적 정찰대의 피습으로 전차는 포로가 되고 후자는 전사하는 등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결국 제3대대는 병력이 분산되어 장비를 유기한 채 천안 남쪽으로 철수하였다.⁶¹⁾

제3대대장은 부대를 수습하여 천안역을 중심으로 방어진지를 점령하고 도로에 대전차지뢰를 매설하면서 적의 공격에 대비하였다.⁶²⁾ 밤이 되자 적의 공격이 시작되었고, 제34연대도 새로 지원된 사단 포병 제63포병대대의 화력을 요청하여 고풍탄과 백린연막탄을 적 부대에 집중하면서 전투를 벌였다. 그러나 적은 자정 직전 방어선을 뚫고 시내로 침투하였다.⁶³⁾

날이 밝기 전에 또 다른 적 전차들이 지뢰를 매설한 도로를 따라 시내로 진입하였다. 어떤 연유인지 대전차지뢰가 폭발하지 않았다. 시가전은 밤새 계속되었으며 5~6대의 전차가 무리를 지어 공격해 오자, 제3대대는 수류탄, 2.36" 로켓포로 이에 대항하였고, 연대장도 직접 2.36" 로켓포를 들고 전차공격에 나섰다. 그러나 그는 전차와 대결하다가 적 전차의 사격에 맞아 전사하였다. 그는 한국전쟁에서 최초의 십자무공훈장을 추서받았다. 날이 밝아 적의 전차 및 보병부대가 점점 증원되면서 제3대대는 천안을 지탱할 수 없게 되자 하는 수 없이 포병 백린연막탄의 차창하에 시내에서 물러나 천안 남쪽 제1대대 쪽으로 철수하였다.

이 무렵 제8군사령관 워커 장군과 사단장 딘 장군이 천안 남쪽까지 올라와 대대의 철수를 지켜보았다. 사단장은 금강선에서 방어할 불안하에 경부국도의 방어는 제21연대에 부과하고 제34연대는 공주 방향으로 철수시킴으로써 제34연대의 평택-천안 전투는 막을 내렸다.

제34연대는 천안전투에서 많은 손실을 입었다. 특히 제3대대는 천안 남쪽으로 탈출한 병력이 그 당시에는 175명에 불과하였고 대대 병력의 2/3가 전사하

거나 실종되었으며, 박격포 등의 공용화기는 물론 많은 개인화기도 상실하였다.⁶⁶⁾

한편, 이 전투의 결과로 인해 극동군사령관 맥아더 원수는 개전초 적에 대한 과소평가를 불식하고 7월 5일과 7월 7일 양차에 걸쳐 워싱턴에 병력증원을 강력히 요청하였으며, 딘 소장도 천안전투가 끝나고서야 인민군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적으로 분명히 인식하여 105mm 대전차포탄과 3.5" 로켓포를 긴급요청하였다.⁶⁷⁾

(3) 全義-鳥致院 부근의 戰鬪

7월 8일에는 제34연대의 뒤를 이어 제21연대가 전의-조치원의 경부국도에서 적을 지연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전의는 천안 남쪽 20km 지점의 소부락이며 조치원은 경부·충북선이 합류하는 철도와 도로 교통의 중심지였으며 금강까지는 16km 거리였다.

제21연대장은 이미 전날에 제3대대를 조치원 북방 미곡리에 배치한 데 이어 이날은 천안 남쪽에서 제34연대 작전을 지원한 제1대대(-)⁶⁸⁾로 하여금 제3대대 북쪽 전의의 동쪽과 남쪽 고지에 경부가도를 가로질러 방어진지를 편성시켰다. 제21연대는 제11포병대대 1개포대(155mm), 제78전차대대 A중대(M24 경전차), 제3전투공병대대 B중대의 지원을 받았다.⁶⁹⁾

이때 사단장은 연대장에게 “조치원을 고수해야 하고, 중부의 국군이 철수할 수 있도록 측방을 방호해야 하며, 4일간은 추가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지시를 전하였다. 사단장의 의도는 제21, 제34연대로 금강 북쪽에서 최대로 적을 지연한다는 것이었다.

연대는 9일 오전까지 진지구축을 끝내고 제3대대는 81mm와 4.2" 박격포의 기점사격을 완료하였으며 공병은 적 전방의 교량을 폭파하였다. 정오경에 적이 전차를 앞세워 전의 방향으로의 남하를 재개하여 오후 중반에는 11대의 전차와 200~300명의 보병이 추진된 저지진지로 접근해 왔고, 전방 관측자의 요청으로 이들에 대한 항공폭격과 포격이 집중되었다. 이로 인해 5대의 적 전차가 파괴되고 전의가 불길에 싸이는가 하면 천안-전의간 도로상에서 200여 대의 차량 중 100여 대가 불타면서 적의 공격이 일단 저지되었다.⁷⁰⁾

연대장의 예측대로 다음날 10일 아침 짙은 안개가 걷힐 무렵 적의 전차가 도로를 따라 진지를 돌파하려고 기동하는 동시에 보병부대가 중앙과 좌우측방으

로 각각 공격해 왔다. 연대장의 진두지휘하에 4.2' 박격포, 포병, 항공기의 지원을 받아가며 제1대대가 강력하게 맞서자 치열한 접전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곧 미군의 박격포진지가 안개 속으로 보병진지선을 통과한 적의 전차에 의해 유린되었고, 적의 포격에 보·포간 통신망도 두절되어 포지원이 불가함은 고사하고 보병진지가 피탈된 것으로 판단한 포병의 진내사격이 실시되는 등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특히 도로 서측 고지를 점령한 빅슬러(Bixler)소대는 적의 집요한 공격을 받아 위기에 처하여 철수를 건의하였지만, 교대부대가 도착할 때까지 진지를 고수하라는 명령을 받고 끝까지 싸우다가 소대원 전원이 호 속에서 최후를 맞았다. 연대장은 진두지휘를 하였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됨으로써 대대와 더불어 철수하였다. 설상가상으로 눈으로 철수도중 우군 항공기에 의한 오인사격까지 받아 또 한 번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 했다.⁷¹⁾

연대장은 1/5의 병력을 잃은 제1대대(-)를 조치원으로 철수시키는 한편, 제3대대로 하여금 적이 재편성되기 전에 상실한 진지를 회복하도록 명령하였다. 제3대대는 제78전차대대 A중대(-)의 지원하에 역습을 실시하여 제1대대 진지를 회복하였다. 연대장은 적의 또 다른 공격을 우려한 나머지 제3대대를 야간을 이용하여 원진지로 복귀시켰다.

제3대대 진지에서는 다음날인 11일 아침 일찍부터 다시 전투가 벌어졌다. 이번에는 전의에서 인민군 제4사단을 초월한 제3사단이 치밀한 공격준비를 하여 공격을 가해 왔다. 그들은 후방을 차단하고 대대지휘소를 공격하여 대대를 붕괴시켰다.

대대는 스피어(Paul R. Spear) 일등병이 적의 기관총진지를 무력화시키는 등 필사적인 저항을 하였으나,⁷²⁾ 대대장과 정보장교가 전사하고 인사장교와 작전장교가 실종되어 지휘체제가 무너지고 667명의 대대원 중 반수 이상의 인원, 장비의 손실을 입고 조치원을 향하여 후퇴하였다.

이 무렵 조치원 북방 3.2km 지점에는 전날 오전에 투입된 제21연대 제1대대가 적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다. 제1대대는 대대(-)가 조치원에서 집결 중 대전에서 정비를 마치고 올라온 스미스부대원과 재편성을 하여 비로소 완전한 대대 건제를 유지하게 되었다. 제1대대도 12일 아침부터 제3대대를 추격 남하한 적과 교전을 벌이다가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철수하였다.⁷³⁾ 이로써 제21연대는 3일간 계속된 적 제3·제4사단과의 전의-조치원 전투를 끝내고 사단장 명령에

따라 다음 저지선인 금강 남안으로 향하였다.

이 전투는 미 제21연대(-)가 인민군 최정예부대인 제3, 제4사단을 맞아 그들의 진출을 3일간 지연시켰으며, 동시에 우측방 조치원-청주의 국군 제1군단에 대한 주보급로 확보에도 크게 공헌하였다. 전투 중 10일 오후 미 제5공군은 가용전투기를 총동원, 평택 도로상에 대규모 공중공격을 감행하여 적 전차 38대, 반궤도차량 7대, 트럭 117대, 그리고 다수의 병력살상의 전과를 올렸다. 이는 단일작전에서 적의 기갑부대를 파괴한 최대의 전과임과 동시에 적으로 하여금 야간기동으로 전환케 하는 영향을 미쳤다.⁷⁶⁾ 한편, 인민군은 전의에서 부대교대를 실시하여 제3사단이 경부축선으로 제21연대를 후속하는 한편, 제4사단이 공주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3. 車嶺山脈線 遲延戰

(1) 鎭川-淸州 부근 戰鬪

한미연합전선의 형성 결과에 따라 미 지상군이 평택-안성선에서, 국군이 차령산맥선에서 방어준비를 갖추고 있을 무렵, 7월 6일 진천으로 이동한 수도사단장은 이미 인민군 제2사단이 국군 제6사단 제19연대를 밀어제치고 남하함에 따라 신속한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단장은 이곳에 도착한 제1연대를 재편성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진천 복단 백곡천에 투입하여 방어편성을 하도록 하고, 후속할 제8·18연대는 도착하는 대로 진천 남쪽 봉화산과 문안산을 점령하도록 하였다.⁷⁷⁾

인민군 제2사단은 초기 춘천전투에서 입은 전투손실을 전시동원령에 의해 보충받아 병력 12,000여 명과 전차 10대, 자주포 12문, 122mm 곡사포 26문 등 각종 포를 장비하고 진천-청주 방향으로 남진할 기도로 7일에는 선두연대가 진천 북방 송림리까지 진출하고 본대는 광혜원리에 집결하고 있었다.⁷⁸⁾

진천-청주 축선은 중서부 지역에서 대전 또는 보은 방향으로 이어지는 대단히 중요한 접근로이며, 이 축선에서의 작전은 서측의 경부축선상의 작전에도 큰 영향을 주는 중요 축선이다.

7월 7일 이준식(李俊植) 준장과 교대한 신임 사단장 김석원(金錫源) 준장⁷⁹⁾은 제1연대장에게 주력이 도착할 때까지 진천을 고수하도록 강조하고, 진두지

휘까지 서슴지 않았으나 제1연대가 다음날 아침 적 제2사단의 전차를 동반한 압도적인 공격을 받아 적을 저지하지 못하고 잣고개로 물러났으며, 이로써 진천이 적의 수중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제1연대가 잣고개에서 정비하는 동안 제8·제18연대가 도착하고 군단예비 제2사단 제20연대와 군으로부터 제17연대(-), 독립기갑연대, 제1포병단 1개중대(M-2곡사포 4문) 등을 지원받음으로써 사단의 전투력이 크게 보강되었다. 사단장은 제18연대를 문안산에, 제8연대를 봉화산에, 그리고 독립기갑연대는 중앙의 잣고개에 투입하여 문안산-잣고개-봉화산의 고지 일대에 주저항선을 형성하고 제17연대(-)를 상계리에 사단예비로 두었다. 또 배속된 제2사단 제20연대를 봉화산 우측방으로 추진하였다.⁷⁶⁾

그러나 9일 아침 수도사단은 미처 부대정비와 진지편성을 마치기도 전에 적 제2사단 주력의 보·전·포 협동공격을 받았다. 사단은 그 동안의 장거리 행군으로 인한 누적된 피로도도 불구하고 사단장의 진두지휘에 따라 적의 공격을 향어하였으나, 결국 수차례의 교전 끝에 주저항선을 돌파당하였다. 적은 청주로의 진출요지인 문안산-봉화산 일대를 점령한 후 다음 공격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인지 더 이상의 추격을 보류하고 부대정비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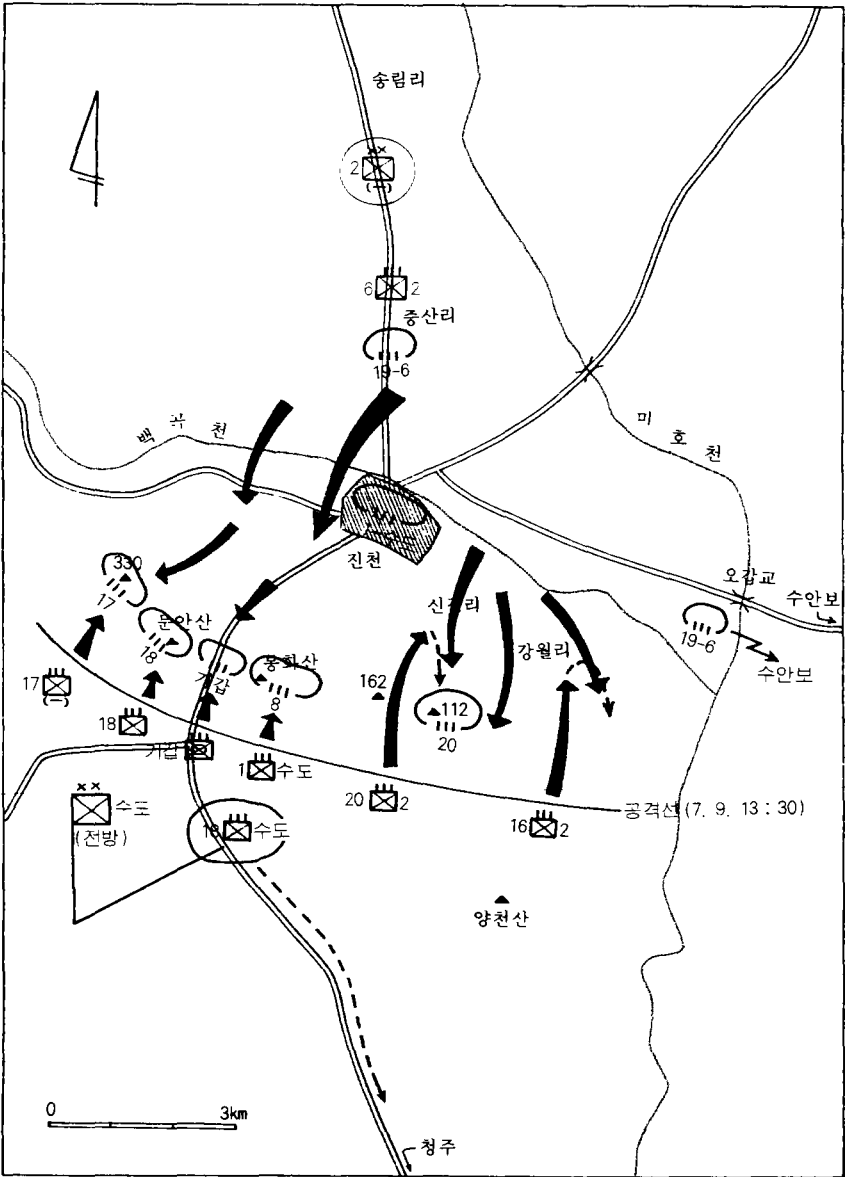
김석원 준장은 작전의 주도권을 가름하는 문안산-봉화산을 상실하자, 현재의 상황에서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신념으로 오히려 현 위치(주저항선 남쪽 2~3km)에서 정면공격을 실시하여 진천까지 탈환할 것을 결심하였다. 사단장은 제8연대를 좌, 제1연대를 우, 기갑연대를 중앙으로 투입하고, 제17연대(-)와 제20연대를 양측방에 전개하고 제18연대를 예비로 공격을 실시하였다. 이때 사단 우측방에서는 제2사단 제16연대가 병행공격하여 측방을 방호하였다.

공격부대는 일제히 사단장의 진두지휘에 따라 적의 탄막지대를 돌파하면서 부대정비 중이던 적을 공격하였고, 마침내 원래 사단의 주저항선인 봉화산, 문안산을 회복하였다. 봉화산에서는 적의 역습을 받아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으나 사단예비인 제18연대를 투입하여 탈환하였다.

곧 이어 자정 무렵부터는 다시 적 제2사단의 집요한 반격이 시작되었다. 봉화산에 배치된 제18연대는 적 1개연대의 3차에 걸친 공격을 막아 끝내 진지를 확보하였고, 제17연대는 적의 기습으로 일시 문안산을 빼앗겼으나 예비대인 제1연대와 함께 야간 역습을 실시하여 재탈환하였다.⁷⁷⁾

수도사단장은 이어 진천탈환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군단의 동서측의 전선이

진천-청주 전투(1950. 7. 6~7. 12)



남하함에 따라 전선의 균형을 위해 청주로 철수하라는 명령에 따라 10일 저녁 예하부대에 배속부대인 제17연대(-)와 제20연대의 엄호하에 청주의 미호천 남안으로 철수하도록 하였다.

수도사단이 철수를 서두르고 있을 무렵 적 제2사단장 최현(崔賢) 소장은 작전을 전환하여 우회기동으로 수도사단의 배후차단을 기도하였다. 적은 일부 병력으로 문안산을 양공하면서 주공부대로 진천남동 신정리와 장월리에 배치된 제16연대(-)와 제20연대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때마침 유엔공군 B-29, B-26 편대가 출동하여 진천읍과 신정리 일대를 1시간 이상 맹폭하여 적의 공격대열을 와해하였고, 또 F-51 전투기가 후속하여 와해된 적에 대해 네이팜탄을 투하하였다. 수도사단의 철수는 유엔공군의 엄호를 받았고, 적이 다시 병력을 수습하고 양천산 일대로 공격을 재개하였을 땐 이미 철수엄호를 맡은 제20, 제17연대(-)도 철수한 후였다.

수도사단은 미호천 남방 오근장역을 중심으로, 좌로부터 제8·제1·제18연대를 배치하여 새로운 진지를 급편하는 한편, 제2사단 제20연대는 청주에 예비로 보유하였다. 그러나 이날 제2사단 병력은 조치원이 위기에 처함으로써 군단 좌측방으로 이동하였다.⁸⁰⁾

수도사단의 철수를 뒤늦게 알아차린 적 제2사단은 양천산을 경유 남진, 11일 아침 무렵 미호천 북방까지 진출하였다. 미호천 교량을 폭파한 후 진지보강에 주력하고 있던 수도사단은 적의 선두부대가 접근하는 즉시 야포로써 제압하고 항공지원을 요청하여 적 집결지를 강타하고, 다음날에는 군단 포병의 지원을 받아 적의 예상집결지를 집중사격하는 등 적의 공격을 사전에 철저히 분쇄하였다.⁸¹⁾

한편, 군단지휘소에서는 청주 고수 여부를 놓고 군단장(김홍일 소장) 임석하에 수도사단장, 육본 작전참모부장(金白一 대령), 연대장 및 참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작전회의를 열었다. 최종적으로 군단장은 청주보다는 그 남쪽에서 방어하기로 결론을 얻고 청주에서 철수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이미 경부축선에서는 미군이 조치원에서 철수하여 금강선으로 이동하였으므로 전선정리가 필요하였고, 또 청주가 교통의 요지이기는 하지만 시가전을 치르기에는 많은 희생이 뒤따를 것이었으므로 보다 유리한 지형에서 적의 남진을 방어하겠다는 의도였다.⁸²⁾ 이에 따라 수도사단은 13일에 미호천에서 접적이탈을 단행하여 청주 남쪽으로 철수하였다.

(2) 陰城-槐山 부근 戰鬪

음성은 충북 북서부 차령산맥의 중앙부에 형성된 분지로서 도로망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특히 장호원-음성-괴산, 장호원-음성-진천으로 이르는 도로망은 중서부지역에서 중요한 적의 남진 접근로로 판단되었다. 국군이 진천 이동의 차령산맥선을 방어하게 됨에 따라 음성 방어는 재편성한 국군 제1사단이 맡게 되었다. 제1사단이 도착하기에 앞서 음성 전방에서는 제6사단 제7연대가 엄호 부대로서 적 제15사단과 접촉 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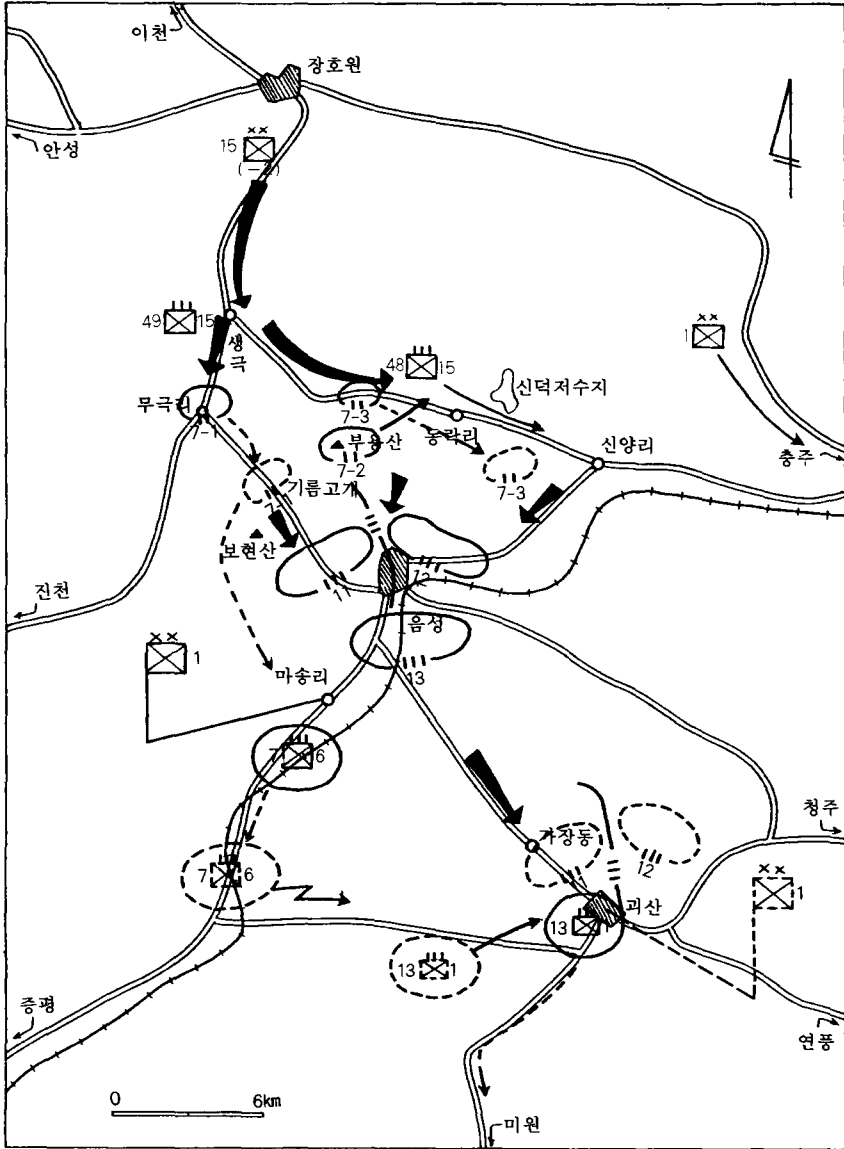
제7연대는 7월 4일 충주, 장호원 방면으로 남진하고 있는 적 제15사단을 저지하고 장호원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받고, 우선 이날 밤 제2대대를 선발대로 출발시켰다. 연대장은 제2대대로부터 동락리 부근의 조우상황을 보고받고 적이 이미 무극리, 생극까지 진출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다음날 아침 연대(-)가 출발할 무렵 급히 1개대대를 진천으로 투입하여 이천 방면에서 철수하고 있는 제19연대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또 받게 되었다. 이에 연대장은 5일 제2대대를 진천으로 전환토록 하고 제1대대로 무극리를, 제3대대로 생극을 공격하도록 명령하였다. 한편, 상황의 변화로 제2대대는 증평에서 음성으로 다시 돌아와 연대에 비가 되었다.⁸⁹⁾

인민군 제15사단(朴成哲 소장)은 개전초 제2군단 예비대로 있다가 3일 원주에서 처음으로 장호원으로 투입되어 무극리에 제49연대, 생극에 제48연대를 전개하고 제50연대를 예비로 확보하여 음성 돌파를 기도하고 있었다. 이들은 10,000여 명의 병력과 장갑차 20여 대, 122mm 곡사포 12문 등 각종 포를 장비하고 있었으나 비교적 훈련 정도는 낮고 전투경험이 없는 부대였다.⁹⁰⁾

5일 쌍방은 기름고개와 동락리에서 조우하게 되었고, 제1대대는 다음날 무극리를 점령하였으나 곧 강력한 화력지원을 동반한 적 연대규모의 반격을 받고 무극리 남동 백야리로 물러났다. 제3대대는 조우전에서 적의 압력이 강해지자 철수하여 다음날에는 가염산 남쪽 290고지를 점령하였다. 연대장은 예비대인 제2대대를 동락리 남쪽 부용산 일대에 투입하여 중앙지역의 방어력을 강화하고, 제1대대에는 사단으로부터 추가로 배속받은 제19연대 제2대대를 지원하여 백야리에서 양개 대대가 연계하여 적을 저지하게 하였다.

한편, 적 제48연대는 정찰대가 제3대대의 철수에 뒤따라 동락리에 진입한 후 주민들로부터 국군이 차량을 타고 철수했다는 제보를 받고 또 그들 스스로 신

음성-괴산 전투(1950. 7. 5~7. 11)



덕저수지 남쪽까지 정찰을 실시한 결과 부대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제3대대가 철수한 것으로 판단한 듯, 6일 밤부터 이동대형을 취하지 않고 경계대책도 소홀히 하였다.⁶⁵⁾ 제3대대는 밤새 이러한 상황을 정찰대로부터 보고받고 즉시 부대를 310고지, 용원리 부근으로 이동시켜 새벽에는 이들을 공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었다.

날이 밝을 무렵 정찰활동을 하던 제3대대 제9중대가 용원리 부근에서 적의 선두를 공격하자 적의 차량대열은 밀집대형으로 정지하게 되었다. 적은 소규모의 국군이 저항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참병중대만을 공격에 투입하였으며 주력 부대는 여전히 차량에 탑승한 채 대기하고 있었다. 이를 기회로 제3대대 주력은 일제히 눈앞의 적을 측방에서 공격하였다.

한편, 제3대대의 공격과 거의 때를 같이하여, 그 옆의 동락리 일대에서도 제2대대가 적을 기습공격하고 있었다. 제2대대는 부용산 일대에서 신덕저수지 주변으로부터의 총성을 듣고 경계를 강화하던 중 동락리 앞 도로에 병력을 가득 태운 적의 차량을 관측하였다. 제2대대의 임무는 본래 부용산 일대를 방어하는 것이었으나, 호기를 놓칠 수 없다고 판단한 대대장은 즉각 공격명령을 하달하였다. 일제 약진으로 공격을 개시한 대대원은 모처럼 유리한 상황에서 적을 공격하게 된 탓인지 사기가 충천해 있었다.

방심하고 있던 적은 제2, 제3대대의 기습공격을 받자 저항 한 번 해보지 못하고 일순간 큰 혼란에 빠져 차량과 장비를 유기한 채 분산되었다. 도주하던 적의 병력 가운데 상당수가 추격을 받아 사살 및 생포되었으며, 그들이 버린 차량에는 박격포, 기관총 등 많은 공용화기와 탄약 등이 그대로 탑재되어 있었다. 정오 무렵 적이 역습에 나서자 제2·제3 양 대대는 명령에 따라 동락리 남쪽으로 철수하였으며, 적은 이날 밤 보복으로 많은 부락민을 학살하는 잔학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동락리 전투에서 제7연대는 적 제48연대를 기습공격하여 치명적인 타격을 입혀 군수참모를 포함한 132명을 포획하고 각종 포 54문, 차량 75대 등 많은 장비를 노획하였다.⁶⁶⁾ 이 전공으로 제7연대는 대통령 부대표창과 전 장병 1계급 특진의 영예를 안았으며, 이것은 개전 후 처음 있는 일로서 열세한 병력과 장비로써도 적을 섬멸할 수 있다는 신념을 심어 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 무렵 음성에 도착하여 전열을 정비한 국군 제1사단이 7월 8일 15:00부로 전선을 인수하였다. 제1사단장 백선엽(白善燁) 대령은 음성을 중심으로 서

쪽에 제11연대, 동쪽에 제12연대를 배치하여 외곽방어선을 형성하고, 제13연대는 음성 남쪽의 저지선에 배치하고 제7연대는 후방에 집결시켜 예비로 확보하였다.

제7연대의 후위부대가 음성 쪽으로 철수하자 예상한 대로 적의 선두부대가 뒤따라 접근하였다. 이들은 국군이 모두 철수한 것으로 알았는지 기름고개에서 음성 쪽으로 2열중대 대형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제11연대 지역 내로 들어설 때 또 다른 일단의 적이 후속하고 있었다. 연대는 적의 행군대열의 절반이 방어정면으로 들어섰을 때 105mm 곡사포의 지원사격하에 각종 화기를 일제히 집중함으로써 적의 남진을 분산시켰다. 이 전투에서도 적 제49연대는 100여 명의 손실을 입고 많은 장비를 상실하였다.⁸⁷⁾

그 동안 적 제15사단은 연전연패로 전진이 늦어지자 좌우 인접부대와 보조를 맞추는 등 9일 다시 무극리-음성, 신양리-음성 양측방 도로 접근로와 중앙 산간 접근로의 3개 방향에서 공격을 개시하였다. 새벽 무렵 적은 음성에 포격을 집중하면서 2개연대 병력을 각각 8대의 장갑차의 지원하에 제11연대와 제12연대 정면으로 공격하였으나 제1사단의 집중적인 저지사격과 역습에 의해 다시 저지되었다. 그러나 다음날 새벽 무렵 적이 공격을 재개하여 돌파를 기도함으로써 국군 제1사단은 점차 위험한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고 제11연대 정면이 적의 주공에 의해 돌파되기 시작하였다.

때마침 제1사단은 제1군단으로부터 군단전선의 균형을 위해 적을 최대한 저지시키면서 “괴산을 경유하여 미원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접수하였다. 이때 이미 인접부대의 상황이 악화되어 서측에서는 청주, 동측에서는 수안보 부근으로 전선이 남하함으로써 제1사단이 음성에 더 머물게 될 경우 도리어 고립을 자초할 상황이었다. 사단장은 음성 남쪽의 제13연대의 엄호하에 10일 낮부터 부대철수를 단행하여 괴산 북쪽에 새로운 방어진지를 점령하였다. 이날까지 함께 전투를 해 온 제7연대는 철수작전에서 원대복귀하였다.

적 제15사단은 11일부터 괴산의 신방어진지 정면으로 육박하였으며, 12일에는 사단 좌전방에서 진지가 돌파되느냐 적을 격퇴하느냐 할 정도로 격전이 전개되었다. 제1사단은 이날 밤까지 적을 지연하다가 이미 하달된 군단명령에 따라 미원으로 철수하기 시작하였다.⁸⁸⁾

(3) 忠州-水安堡 부근 戰鬪

평택-충주-울진의 한미연합전선이 형성될 무렵 충주에는 국군 제6사단 제2연대(-)가 단독으로 방어준비를 하고 있었다. 흥천에서 철수한 제6사단을 7월 3일 충주에 집결하였으나 제1군단의 이동에 앞서 제19연대(+)와 제7연대가 이천-여주 방면으로 전개, 엄호작전에 투입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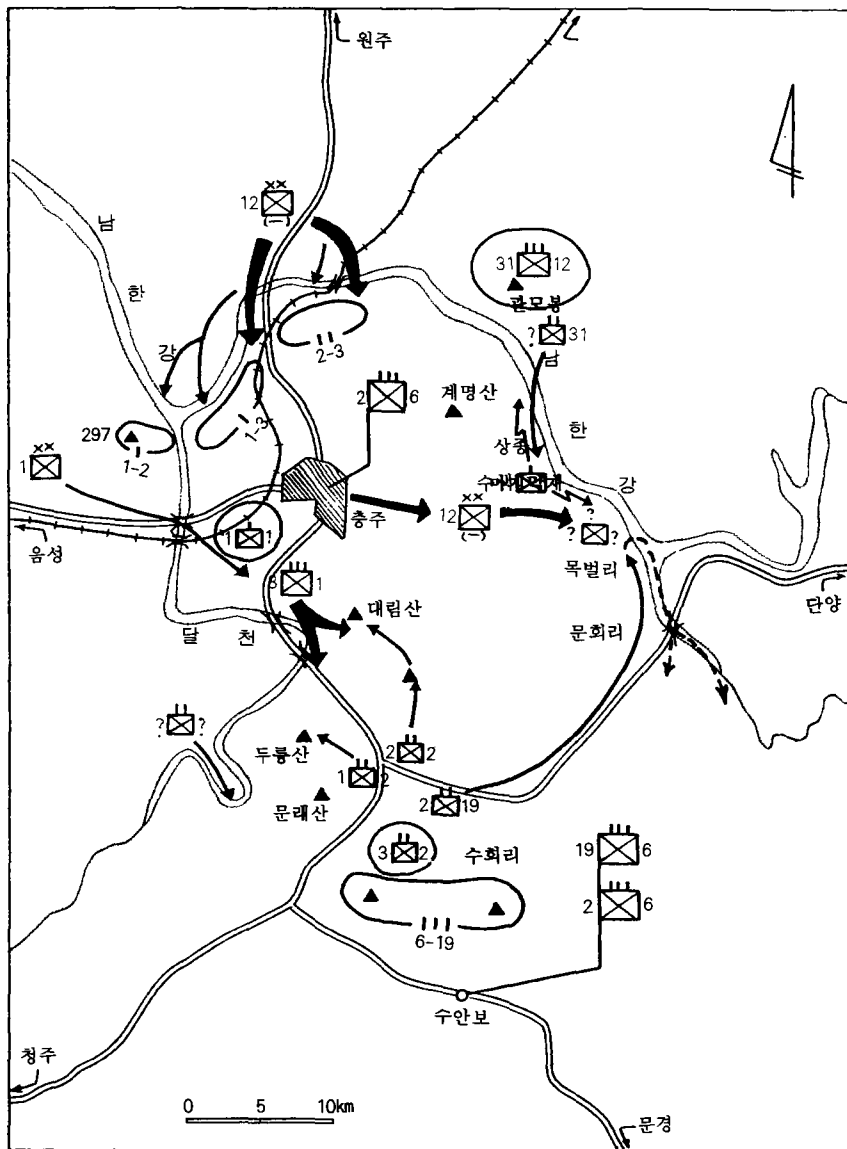
충주는 충북 북부지방의 교통의 중심지로서 북쪽에 남한강과 서쪽에 달천강이 흐르고 있었다. 남한강의 수폭은 200~250m이며 수심은 도섭이 불가능하고 동쪽의 계명산은 충주를 감제함은 물론 남한강을 감제관측하는 매우 중요한 지형지물이었다. 도로망 중 충주-수안보 도로는 중동부전선에서 가장 양호한 적의 예상접근로였으며, 충주-장호원, 충주-단양 도로는 횡적 부대이동에 중요하다.

제2연대는 원주-충주 접근로 방어에 중점을 두고 남한강 차안에 제1대대를 서, 제3대대를 동으로 배치하고 수색중대를 계명산 동측에 경계부대로 운용하는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그러나 연대의 방어 정면이 약 21km로서 예비대 없는 일선 배치이었으며, 병력은 자체병력 1,800명, 포병 89명, 경찰 187명 등 총 2,076명이었다. 부대간격이 넓고 좌우 인접부대와 연결되지 않아 방어상 많은 취약점이 있었으나 춘천-흥천에서의 선전(善戰)으로 장병들의 사기는 대단히 높았다.

반면에 충주로 남하하고 있는 인민군 제12사단(崔忠國 소장)은 제30·제31·제32연대로 구성되었으며, 그간의 전투손실로 병력은 약 9,000명이었다.⁸⁹⁾ 제2연대가 방어진지를 구축할 무렵 제30연대가 제3대대 정면으로 도하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그 뒤에서 1개연대가 후속태세를 갖추었고 또 다른 1개연대가 남한강 북안에서 연대의 동측방으로 우회하고 있었다. 한편, 적 제1사단도 이천-여주를 거쳐 충주로 향하고 있었으며, 전차 1개연대, 기병 1개대대, 오토바이(Side Car)중대도 충주공격에 투입되었다.

국군 제2연대는 정찰활동을 전개하던 중 7월 7일부터 적 제12사단 정찰대 및 선두부대와 접촉을 이루게 되자 준비된 진지를 점령하고 전투태세에 들어갔다. 적은 자정부터 요란사격을 시작하더니 갑자기 강도 높은 공격준비사격으로 전환하여 주로 제3대대 진지를 강타하였다. 연대는 적이 도하할 때 일제사격을 가하기로 하였으나, 적의 포격으로 피해가 속출하였고 질게 깔린 안개 때문에 경계가 어려웠다.⁹⁰⁾ 이윽고 적이 소대-중대 규모로 제3대대 각 중대 전면에 안

충주-수안보 전투(1950. 7. 6~7. 11)



개를 뚫고 갑자기 나타났다. 적은 전날 미리 준비해 놓은 강가 도선장의 배로써 안개를 이용하여 강을 건너 기습적으로 공격해 온 것이다.

연대는 즉각 계획된 화력을 집중해 가며 적의 공격을 몇 차례 격퇴하였다. 그러나 제2제과, 제3제과의 적이 도강하여 제3대대와 원주-충주도로 서측의 제1대대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아침 무렵 제3대대의 좌일선 일각이 무너지기 시작하였다.⁹⁾ 한편, 동측방으로 우회하던 일부의 적은 판모봉에서 강을 건너 계명산을 우회하여 측후방으로 침투 중이었는데 때마침 강안(江岸)경계를 위해 진출하던 수색중대가 상종-마지막재에서 가까스로 이를 저지하였다. 이는 적이 제2연대 후방을 차단하여 충주에서 포위격멸하려고 기도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연대장은 증평의 사단장에게 병력증원을 요청하는 한편, 제3대대를 포대의 지원하에 2km 남쪽 저지진지로 물리고, 제1대대로 하여금 서측방 접근로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도록 하여 또다시 충주 북방에서 적을 저지할 결의를 다지고 진지조정에 들어갔다.

이러한 경황 중 연대장은 사단장으로부터 연대를 충주 남쪽으로 철수시켜 적을 저지하라는 구두명령과 더불어 12시간 내에 제19연대를 증원 중인 제2연대 제2대대를 원복시킴과 동시에 제19연대의 1개대대도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통보를 받았다.

이때 이미 충주 북쪽의 제3대대는 적의 공격으로 분산된 채 충주 쪽으로 밀려들고, 동측방 마지막재에서의 수색중대와 직할대도 충주 쪽으로 밀리고 있었다. 연대장은 지체 없이 접촉이 경미했던 제1대대로 하여금 충주 남쪽 단월동-대림산에 엄호진지를 편성하게 하고 나머지 병력은 모두 그 후방 수회리로 집결하도록 명령하였다.

연대장은 충주-수안보 축선방어에 보다 유리한 지형인 수회리 바로 뒤 326-적포산에 저지진지를 편성하고 이를 발판으로 증원부대가 도착하면 충주로 반격할 복안을 세웠다. 때마침 저녁 무렵 제2대대와 제19연대 제2대대가 도착하자 연대장은 9일 05:00를 기해 제1-제2대대는 북으로 정면공격하고, 제19연대 제2대대는 목벌리로 우회하여 충주를 탈환하는 반격작전을 준비하였다.

그런데 이 무렵 적측에서는 부대교대가 이루어져 충주를 점령한 제12사단은 작전지역을 서울-충주로 남동진한 제1사단에 인계하고 단양을 목표로 마지막재를 넘어 목벌리 쪽으로 향하였고, 충주에 이날 늦게 도착하여 전선을 인수한 제1사단은 제109전차연대의 지원하에 남진하였다.

이러한 적정을 모른 채 제2연대는 제1대대가 서에서 두릉산 방향으로, 제2대대가 동에서 대림산을 목표로 병행공격하고, 동측방으로 우회한 제19연대 제2대대는 공격개시 1시간 전에 목벌리에 도착하였다.

북쪽으로 공격한 2개대대는 두릉산과 대림산을 점령하고 계속 진출하던 중 남진하던 적과 조우하여 교전에 들어갔으나 장갑차를 동반한 적이 양개 대대 사이의 도로를 돌파함으로써 퇴로가 차단되는 상황에 접하게 되었다. 연대장은 적의 진출에 앞서 철수한 제1대대로 하여금 제3대대와 함께 수안보 방어를 강화하게 하고, 퇴로를 차단당한 제2대대는 최선책을 택해 수안보로 철수하도록 명령하였다.

한편, 제19연대 제2대대도 적정을 모르고 목벌리에서 식사를 하던 중 마침 단양을 목표로 그곳을 지나던 적 제12사단 제32연대의 기습공격을 받아 대혼란에 빠졌다. 이리하여 대대는 부득불 남한강으로 뛰어들어 강을 역류해 위기를 모면하고서 각개별로 수안보로 복귀하였다.⁹⁰⁾

연대가 다시 수안보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을 무렵, 다행히 이곳에 도착한 제19연대에 방어진지를 인계하고 수안보로 집결하여 재편성에 들어갔으며, 이때 마침 유엔공군 1개편대가 1시간 간격으로 두 차례 출격하여 적 집결지를 강타하였다. 적도 이날 새로운 공격을 준비하기 위해서인지 접촉을 단절함으로써 전투는 중단되었고 쌍방간에 대치된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4) 堤川-丹陽 부근 戰鬪

국군이 지연전을 전개하기 시작할 무렵, 제천에는 강릉에서 철수한 제8사단이 배치되어 단양에 이르는 중앙선 축선 방어를 하고 있었다. 이 축선은 원주-안동을 잇는 동부전선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기동로서 철로와 5번도로가 나란히 산악지대를 횡단하고, 단양 부근의 중요 장애물인 남한강은 폭이 100~150m, 수심이 평균 2m에 달하여 도섭이 불가능하였다. 제천은 원주와 평창에서 내려오는 도로의 교차점이며, 그 남쪽 20km 지점의 단양은 남한강 남안에서 충주와 영월에서의 측방도로가 합류하는 요충지이다. 육군본부는 적이 제천-단양으로 남하할 것으로 판단하고 제8사단에 대관령을 횡단, 이곳으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당초 제8사단장 이성가(李成佳) 대령은 7월 2일 이곳에 도착한 후 제10연대

(+)를 제천 북방 신림으로 추진하여 원주로부터의 적에, 제21연대(-)를 평창-영월로부터의 적에 대비하고 있던 중, 7월 4일 오후 갑자기 “제8사단은 충주로 이동하라.”는 육군본부의 전문을 수신하였다.

사단장은 중앙선 축선을 방지하고 약 40km 서측방에 위치한 충주로 이동하라는 명령에 의문을 품었지만, 당시 지휘통신체제의 미비로 직접 확인할 수가 없었으므로 명령대로 이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사단장은 최초 부대를 단양에서 충주로 이르는 측방 산간도로를 이용하려 하였으나, 적이 이미 이 기동로를 차단한 것을 알고 지친 병사들로 하여금 싸워서 통로를 개척하는 것보다 기차로써 안동-대구를 경유하여 이동시키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하였다.⁹³⁾

5일 02:00 철도 편으로 이동을 개시한 사단은 15:00경 선발대가 대구에, 본대가 영천·안동에 도착하였다. 사단장은 대전 육군본부에 들러 의문의 명령을 확인한 결과 “그 명령을 하달한 적이 없다. 즉각 복상하여 제천을 확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⁹⁴⁾ 그는 곧장 대구로 돌아와 기차를 되돌려 6일 18:00에는 단양까지 복귀하였다. 이때 단양의 남한강 교량이 공병에 의해 폭파되었고,⁹⁵⁾ 영월 방면으로부터 남하한 적 제8사단의 전위(前衛)가 남한강 대안까지 진출하고 있었다.

사단은 지휘소를 단양에 설치한 다음 제21연대를 남한강변 324-도담리 간에 배치하고 제10연대를 단양에 집결시켜 사단예비로 보유하였다. 당시 사단의 총병력은 청년방위대원 500명을 합하여 총 6,000여 명이었으며, 장비는 M-3포 13문을 비롯한 개전 초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반면, 단양으로 지향하고 있는 인민군 제8사단(吳白龍 소장)은 7월 초 강릉에서 38경비 제1여단을 기간으로 창설된 사단으로서 제81·제82·제83연대와 포병연대로 구성되었으며, 병력은 10,000여 명이었고, 주요장비는 122mm 유탄포 10문, 120mm 박격포 12문을 비롯하여 각종 포 다수를 보유하고 있었다.⁹⁶⁾ 이들은 남한강을 신속히 도하하여 죽령 일대에서 국군 제8사단을 격멸하고 조기에 안동을 점령하려는 기도하에 7월 6일 현재 이미 평동리에 사단지휘소를 설치하고 1개연대가 남한강을 향하여 진출하였다.

사단장은 남한강 대안의 적에 대비하면서, 사단이 단양에 진입할 무렵 수령한 “제8사단은 1개연대로써 원주를 공격하고 사단(-)은 현 전선을 고수하여 적의 남하를 저지하라.”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던 중, 이 명령은 틀림없이 사단이 제천에 도착한 것을 전제로 한 명령이라고 판단하고, 현 상황

에서는 우선 1개연대로 제전을 공격하여 상황의 진전을 보아 나머지 1개연대도 공격에 투입하기로 결심한 후 예비인 제10연대로써 공격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피난민으로부터 적 제8사단의 전방지휘소가 매포리에 추진되어 있고 경계도 소홀하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자 우선 1개대대로 이를 공격하기로 계획을 수정하였다.

이에 따라 제10연대 제1대대는 7일 23:00에 단양을 출발하여 증방리에서 남한강을 도하한 후 04:00에는 평동리 바로 남쪽의 267고지까지 진입하여 적의 지휘소를 관측하였다. 대대는 적의 지휘소가 증강된 1개중대만으로 경계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제2중대를 주공으로 하여 일제히 삼면공격을 감행하였다.

적의 지휘소가 위치한 매포국민학교에는 100여 필의 말과 10문의 소구경포, 소형 장갑차와 보급품을 만재한 수대의 트럭이 즐비하였고, 적은 전선인 남한강에서 12km 떨어져 있다는 안도감에서인지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잠에 빠져 있었다. 불의의 기습을 당한 적은 군장도 갖추지 못한 채 저항 한 번 해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쓰러졌고, 고지 쪽으로 도주하던 적도 대대의 박격포 사격에 휘말리었다.

그러나 대대는 뜻밖에 영천리 방면에 집결해 있었던 예기치 못한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20여 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분산철수하여 21:00경 단양의 본대로 복귀하였다. 매포리 기습전투에서 제1대대는 적병력 100여 명을 살상하고, 포 10문, 트럭 3대를 파괴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과를 거두었다.⁹⁷⁾

사단장은 적의 도하가 임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제10연대의 제3대대를 단양 남쪽에 투입하여 강안 방어력을 증강시켰다. 저녁부터 빈번한 정찰활동을 벌이던 적은 포격을 강화하더니, 비가 내리어 지척을 분간하기 어려운 야간에 제21연대 정면 상진리와 도담리 양 방향으로 남한강을 도하하기 시작하여 강 남안에 진출 발판을 확보하였다.

다음날 새벽 적은 강남에 확보한 발판에 의지하여 일제히 도하공격을 개시하고 전정면과 동측방에 공격을 지향함으로써 숨가쁜 근접전이 시작되었다. 중앙의 제1대대는 상진리에서 도하한 적에 의해 전방진지가 돌파되기에 이르렀고, 우전방의 제2대대는 도담리로 철선과 뗏목을 이용하여 도하하는 적 대대병력의 계속적인 공격을 받아 방어선 우측이 위기에 처하였다.

결국 제21연대장은 방어선이 돌파될 위기를 맞자 양개 대대를 비음산, 664고

지로 철수시켜 적을 저지하였으나 다시 연대 우일선인 664고지가 피탈되면서 324-비음산-674고지를 연하는 새로운 저지선을 구축하였다.

이때 사단장은 제21연대의 전투력이 저하된 점을 고려, 예비인 제10연대와 교체하기로 하고 야간기도비닉과 제18포병대대의 집중적인 엄호하에 진지교대를 시킨 다음, 제21연대는 장림리 부근에 집결시켜 사단예비로 확보하였다. 또 적의 일부가 금곡리까지 진출하자 사단장은 이들이 동측방으로 우회하여 퇴로를 차단할 것에 대비, 마침 북상리에 도착한 삼척·정선 경찰 약 300여 명을 소백산 일원에 배치하였다.⁹⁸⁾

진지교대가 완료된 즉시 10일 새벽 제10연대는 사단장의 664고지 탈환명령에 따라 공격으로 전환하여 동 고지를 탈환한 후 324고지-비음산-664고지를 연하는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적 제8사단은 저녁 무렵부터 총공격을 재개하여 주력으로써 제10연대 정면을 견제공격하는 가운데, 일부의 병력을 단양 정면으로 투입하여 324고지를 점령함으로써 단양이 실함되었다.

당시 단양은 제10연대 제3대대의 책임지역이었으나, 324고지는 배속된 제21연대 제9중대가 교대하지 않고 계속 잔류하여 방어하고 있었다. 중대장은 진지가 돌파당하자 스스로의 상황 판단에 의해 324고지에서 철수하였으며, 그 후 통신두절로 예천까지 계속 후퇴하였다고 하였다.⁹⁹⁾

사단장은 예비인 제21연대 주력을 북하-북상리 간에 투입하여 적을 저지하고 제10연대의 서측방을 방호하게 한 후 상황에 따라 단양을 탈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제21연대는 야간에 2개대대를 북상시켜 북상리에 진지를 편성하여 단양으로부터 남하하는 적에 대비하였다.

11일 주간에는 소강상태를 유지한 가운데 저녁에 사단의 좌일선 제21연대는 미 공군 F-51 2개편대의 근접항공지원을 받아 적의 공격기도를 사전에 분쇄하였으나, 적은 야간부터 다시 2개연대 병력으로 사단의 우일선을 총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제10연대는 제21연대 1개대대의 지원을 받아 격전을 수행하였으나 결국 방어선이 돌파되어 자정 무렵 장현리-마조리선으로 철수하였다.¹⁰⁰⁾

사단장은 전황이 급박해지자 야간에 항공지원을 긴급 요청하는 한편, 양개연대로 하여금 현 방어선을 고수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적은 다음날 아침부터 출격한 미 F-51 2개편대의 폭격에도 불구하고 다시 전날의 공격에 이어 사단의 전정면에 걸친 대규모 공격을 개시하였다. 적은 일부 병력으로 제21연대 정면을 견제하면서 주력으로 제10연대의 저지진지를 돌파하려 하였고, 또 1

개대대로 퇴로를 차단하려고 금곡리-풍기 방향으로 우회기동하였다.

사단장은 장현리-마조리 방어선을 더 지탱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체할 경우, 적의 동측방 우회부대에 의해 험난한 애로지역에서 5번도로가 차단되면 부대가 더욱 큰 위협에 처할 것으로 판단하여 부대를 죽령 부근으로 철수하도록 명령하였으며, 이로써 제8사단의 단양전투도 종료되었다.¹⁰⁰⁾

기간 중 국군 제8사단은 군지휘통신망의 마비로 작전지도에 큰 혼선을 빚었으며, 이로 인해 제천에서 단양까지 약 24km의 공간을 좀더 지탱하지 못하고 적에게 내주어 중앙선 축선과 동부전선 방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단장의 신속한 지휘조치로 이를 극복하고 매포리의 적 사단전방 사령부를 기습하는 한편, 단양에서 조직적인 하천선 방어로써 적의 진출을 6일간 방어하였다.

인민군도 이 축선을 중시하여 제8사단 외에 제12사단을 충주전투 후 단양 방향으로 전환하여 전투력을 배가하고 그간의 지연을 만회하려 함으로써 이 축선 상에서의 주도권 다툼은 더욱 치열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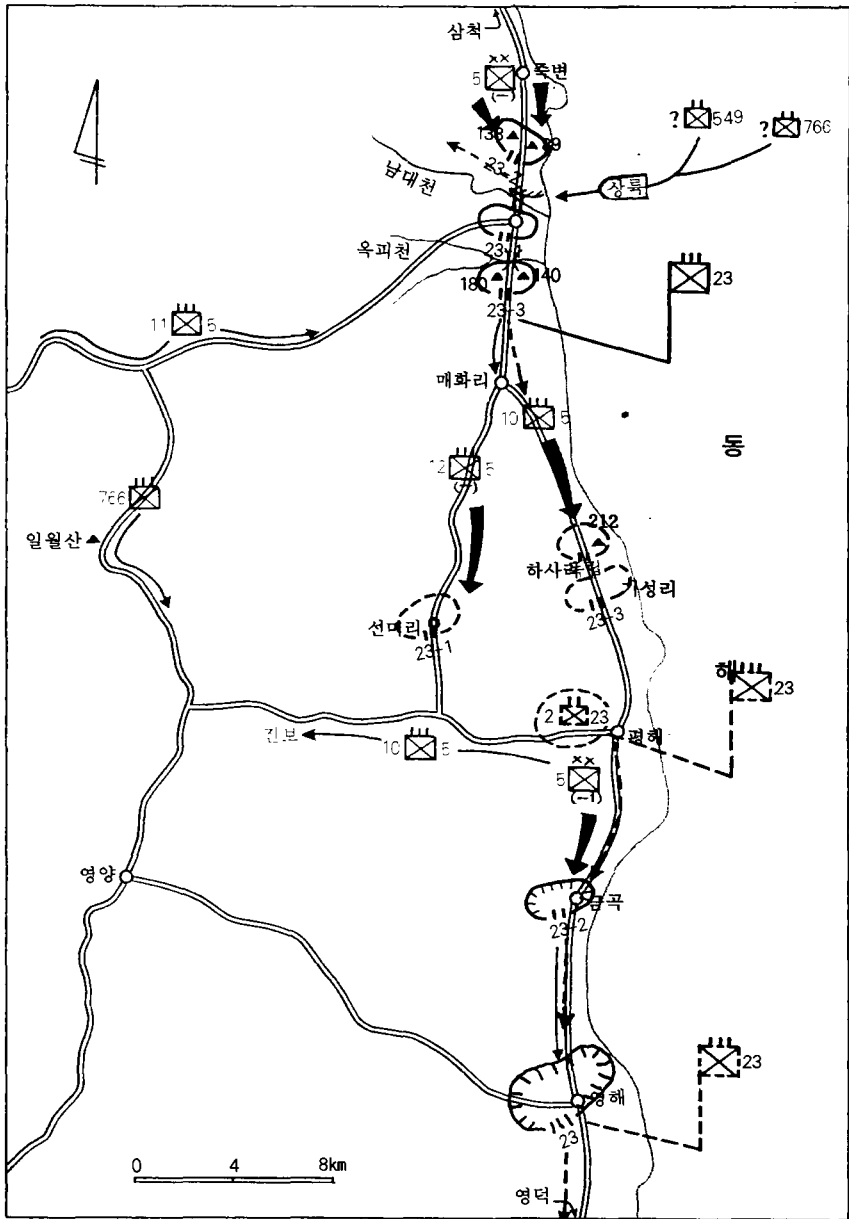
4. 蔚珍-寧海 遲延戰

동해안 지역은 태백산맥의 험준한 지세의 영향으로 인하여 내륙과 단절된 별개의 전선을 형성하였으며, 지역 내에는 해안선에 연한 동해안 도로가 유일한 기동로였다. 그러나 이 도로는 태백산맥에서 동해로 향한 크고 작은 하천선에 의해 잘리고 많은 교량이 놓여 있어 군사적으로 큰 취약점을 안고 있었다.

이 중 강릉 남쪽의 울진은 평택과 연한 한미연합전선상의 동쪽 끝지점으로서 동해안 도로에서 내륙 춘양-영주 방향으로의 횡적 소로가 갈라지는 곳이기도 하였다. 이곳에는 육군본부가 6월 28일에 제8사단을 강릉에서 제천 방향으로 전환시키고 그 대신 부산 주둔의 제3사단 제23연대(김종원 중령)를 투입하여 지연전을 전개하도록 하였다.¹⁰¹⁾

강릉을 점령한 인민군 제5사단(마상철 소장)은 제11연대로써 내륙으로 이동하는 국군 제8사단을 추격하는 한편, 제10·제12연대로써 제549육전대를 흡수하여 해안도로를 따라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고 남진하고 있었으며, 울진에서 태백산으로 잠입한 제766부대(오진우 총좌)는 남파된 유격대와 지방 공비와의 연계를 꾀하면서 대구-부산 간 통신선 차단임무를 띠고 일월산-영양-청송 쪽으로

울진-영해 전투(1950. 6. 29~7. 11)



남진하였다. 이들의 기도는 포항-경주선을 신속히 점령하여 적 제2군단의 기동을 지원하고 나아가 부산으로 진출하려는 것이었다.¹⁶³⁾

국군 제23연대는 최초 6월 28일 사단장 유승렬(劉升烈) 대령으로부터 ‘울진에서 적을 저지하라.’는 명령을 수령하고 기차로 대구를 경유 포항에 도착한 다음, 29일 차량 행군중대로 영덕-영해-평해를 거쳐 울진 남쪽 옥피천까지 진출하였다. 연대는 언제 어디에서 적과 조우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동하던 중 정찰활동을 통해 울진에 제549부대 약 250여 명이 진출해 적 제5사단의 엄호부대로서 활동하고 있음을 포착하였다.

제23연대장은 예하 3개대대로 7월 1일 새벽 이들을 공격하여 분산시킨 후, 울진 북쪽 해안도로와 울진 시가지 확보에 주력하면서 남대천, 옥피천을 이용하여 제2, 제1, 제3대대순으로 중심방어진지를 편성하여 적의 남하에 대비하였다.

주변에 집결한 적 제5사단은 그들의 엄호부대 제549부대의 피습상황을 접하자 제10연대를 해안 본도로, 제12연대를 남대천 지류변으로 진출시켜 국군 제23연대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최북단의 제2대대는 적이 SU-76 자주포를 앞세워 압도적인 2개연대 병력으로 포위공격을 가해 오자 남대천 이남으로 철수하였다. 적의 추적이 계속되자 연대장은 열세한 병력으로는 남대천, 옥피천의 방어도 불가능하며 지금까지의 전투손실을 고려하여 시급한 부대 재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울진방어를 포기하고 1일 오후에 다음 저지선인 평해 북방으로 철수할 것을 결정하였다.

연대장은 울진을 포기하면서 사단장의 승인을 얻어 약 31km 남쪽 평해 부근에 저지진지를 편성할 계획으로 밤새 장거리 철수를 계속하여 7월 2일 05:00에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이때 포항의 독립제1대대와 영등포학원 병력이 제23연대에 배속되었으며,¹⁶⁴⁾ 연대장은 독립제1대대를 기성리 북쪽 무명고지에 추진 배치하여 적의 남진에 대비하는 한편, 영등포학원 병력을 제2대대에 편입시키는 등 연대를 평해에서 재정비하였다.

한편, 적 제5사단은 추격을 서둘러 3일 미명 매화리에서 주력을 양분하여 제10연대가 계속 동해안 도로상으로, 제12연대가 서측 산간으로 각각 진출하였다.¹⁶⁵⁾

독립제1대대가 적 제10연대의 공격을 받아 기성리에서 철수하게 되자, 그 동안 재편을 마친 제23연대는 제2대대를 예비로 확보하면서 즉시 제1대대를 선미리에 추진배치하여 서측면 방어에 대비하였고, 제3대대를 기성리 남쪽에 배치하여 독립제1대대를 엄호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들 대대는 곧 이은 적 제12연

대와 제10연대의 공격을 받아 병력과 장비의 압도적인 열세로 인하여 다시 평해로 밀리게 되었다.

연대장은 평해 북방진지가 돌파되어 상황이 급박하게 되자 다시 장거리 철수 작전을 단행하여 전선을 수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연대는 3일 밤부터 예비인 제2대대의 엄호하에 28km 후방 영해까지 철수하였고, 제2대대는 철수엄호 중 적의 선두병력과 평해-영해간 금곡동에서 조우한 후 영해로 집결하였다.¹⁰⁶⁾ 이로써 제23연대 및 독립제1대대는 4일까지 영해로 집결을 완료하여 부대를 재편성하게 되었다.

이날 사단장은 제23연대에 병력을 보충하여 부대를 정비하도록 하는 한편, 육군본부에 제22연대¹⁰⁷⁾를 신속히 복귀시켜 줄 것을 건의하고, 영등포학원 병력을 독립제1대대에 배속시키는 등 전력정비에 주력하였다. 한편, 적의 주력인 제10·제12연대는 영해 방면으로 추격을 계속하고, 강릉에서 국군 제8사단을 추격한 제11연대는 평창-영월-춘양 방면으로 남진한 다음 다시 울진으로 나와 본대를 후속하였다.¹⁰⁸⁾

이 전투에서 제23연대는 사단을 비롯한 상급부대의 지원을 받지 못한 가운데 독립적으로 적 제5사단과 제766부대 및 제549부대의 일부와 울진에서부터 영해까지 60km의 공간에서 지연전을 수행하였다. 이는 사단의 주력이 한강방어선에 투입되었고 더구나 7월 5일에는 국군의 재편성 계획에 따라 제3사단이 해체되어 연대는 단독작전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런데도 신속한 기동력으로 북상하여 울진에서부터 적을 저지함으로써 포항의 조기실함을 막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적은 동해안 접근로에 대한 국군의 방어력이 취약한 상황을 몰라서인지 강릉에서 1개연대를 산악으로 기동시키며 병력을 분산 운용함으로써 충격력의 약화를 가져왔다. 우회한 1개연대는 8일간 280km의 산간협로로 기동하였으나 성과 없이 전력의 약화만을 초래하였으며, 제766부대와 제549부대도 마찬가지로 주공의 작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간 중 유엔 해·공군이 동해안을 따라 남하하는 적에 대한 저지 및 차단작전에 나서, 함대가 해안에 접근하여 측방에서 적의 보급로와 집결지를 포격하는가 하면, 영일비행장에 전개한 전투비행단을 비롯한 항공기도 이 작전에 참여하여 적부대·주요시설·교량 등에 폭격을 가함으로써 적의 전진속도를 점차 둔화시켰으며, 이때 연대의 미고문관이 관측장교를 대행하여 직접 포

격과 폭격을 목표물에 유도하기도 하였다.¹⁰⁹ 특히 적 제5사단의 남하로 포항에 대한 위기가 점점 고조되자 7월 7일 미 극동군사령관이 이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영덕방어와 영일비행장 경계를 강조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유엔 해·공군의 지원은 강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군 제23연대와 인민군 제5사단은 7월 13일경부터 쌍방이 내륙지역의 금강-소백산맥선 방어선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임과 때를 같이하여 또다시 영해에서 격돌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한·미 양군은 7월 5일부터 차령산맥의 평택-충주-울진에 연한 연합전선상에서 12일까지 약 1주일간 적을 지연하였으며, 금강-소백산맥을 잇는 방어선으로 작전상 철수를 단행하여 미군이 금강선을, 국군이 소백산맥선을 도맡아 지연작전을 계속하게 되었다.

第3節 유엔軍司令部의 創設과 支援體制의 定立

1. 유엔軍司令部의 創設

국군은 7월 초순, 유엔의 1, 2차 결의에 따라 전개한 미군과 평택-충주-울진을 연하는 선에서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적의 공격을 저지한 다음 조기에 공세 이전한다는 계획하에 결전을 시도하며 지연전을 전개하였으나, 상대적인 전력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여 축차적으로 물러나 7월 12일 서부전선의 미군은 금강연안에 배치하기에 이르렀고, 중부 및 동부전선의 국군은 소백산맥선에서 방어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이 무렵 국군과 유엔군은 한편으로 이처럼 지연전을 전개함과 아울러 다른 한편으로는 유엔군사령부를 창설하고 제8군사령부를 이동시키며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부로 이양하고 그리고 국군을 2개 군단체제로 재편성하는 등 참전부대의 지휘통일조치를 단행하여 작전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개전 초 한국정부는 유엔에 강력한 지원요청을 하였으며, 유엔의 여러 회원국들이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원을 결정하고 미국의 참전에 이어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의 해·공군이 국군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이미 7월 3일 유엔에서는 이 문제를 검토하여 사무총장 리(Trygve Lie)가 미

국이 유엔군을 지휘하되 한국지원협조위원회를 통하여 시행하자는 결의안을 제시하였는데, 이 위원회는 모든 지원을 협조하고 회원국에 지원을 촉구하며, 현지 지휘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¹¹⁰⁾ 그러나 미국정부와 현지 지휘관 사이에 이러한 성격의 위원회를 둔다면 작전지휘상에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는 미국측의 반대로 이는 결심을 보지 못하였다.

한편,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유엔군의 지휘구조는 미국이 유엔을 대신하여 한국의 작전을 통제하고, 유엔과 현지 사령관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배제하며, 정책적인 결정사항은 작전사령관이 아니라 미국정부가 결정하도록 형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결의안을 작성하여 제시하였다.¹¹¹⁾

결국 7월 7일 개최된 유엔안보리에서 미국이 작성하고 영국과 프랑스가 제안한 다음과 같은 유엔군사령부 설치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유엔문서 S/1588)됨으로써 한국을 위하여 싸우는 유엔군을 지휘하게 되는 통합군사령부(統合軍司令部)의 발족을 보게 되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인민군이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공격한 것을 평화의 파괴행위로 확정하고…… 군사력과 기타 지원을 제공하는 모든 회원국이 미국 책임하의 통합군사령부가 그러한 군사력과 기타지원을 운용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며; 미국이 그러한 군사력을 지휘할 사령관을 지명하도록 요청하며; 통합군사령부가 그의 재량으로 인민군에 대한 작전 중 유엔기를 여러 참전국의 국기와 함께 사용하도록 인가하며; 미국이 통합군사령부의 책임하에 취해진 작전경과에 관한 적절한 보고서를 안전보장이사회로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이 결의안의 주요 골자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대신하여 한국에서 침략자와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트루먼 대통령에게 위임하고, 회원국들이 파견한 군대는 미국의 통일된 지휘체제하에 둔다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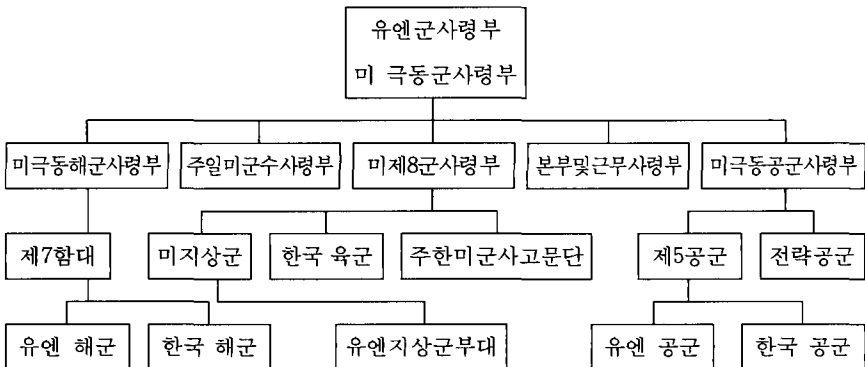
트루먼 대통령은 곧 합동참모본부를 그 자신의 대행기구로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육군참모총장 콜린스(Lawton J. Collins) 대장이 한국에서의 작전임무에 관한 합동참모본부의 대표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합동참모본부가 유엔을 대신하여 한국에서의 군사작전을 계획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핵심체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유엔 회원국으로부터의 전투 및 지원부대의 파견제외는 국무성, 국방성을 거쳐 합동참모본부로 조회되었으며, 합동참모본부가 이의 적부(適否)를 심사하여 수락여부를 건의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¹¹²⁾

‘7·7 유엔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유엔사무총장은 당일 유엔주재 미 대사에게 유엔기를 수교하였다. 합동참모본부는 유엔군사령관에 맥아더 장군을 추천하여 다음날 7월 8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였으며, 10일에는 정식으로 임명하는 지시서를 발송하였다. 곧 이어 미 육군성도 12일 맥아더에게 상세한 지침을 하달하여 “미국의 작전임무는 국제정치상 어디까지나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지원하에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강조하였다. 유엔군사령관에 임명된 맥아더 장군은 우선 극동군사령부를 통해 유엔군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다가 7월 24일에 정식으로 유엔군사령부(UNC)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인력의 제한상 유엔군사령부의 참모는 극동군사령부의 참모진이 거의 그대로 임명됨으로써 미 극동군사령부가 이중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¹¹⁴⁾

따라서 유엔군사령관은 미 극동군사령부의 각 구성군(構成軍)인 미 제8군사령부(지상군), 미 극동해군사령부, 미 극동공군사령부를 통하여 유엔 지상군·해군·공군의 작전을 통제하였다.

유엔군사령부의 설치에도 불구하고 1950년 7월 중 아직 미국 이외 여타 회원국들은 해·공군만이 참전하고 지상군 병력은 참전하지 않고 있었다. 지상군의 참전은 결정 자체뿐만 아니라 수송에도 어려움과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여러 회원국의 지원은 병력의 규모 면에서보다 유엔군이라는 명분에서 의의가 있었으며, 유엔 현장의 정신에 따라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자유세계가 공산침략자를 응징하기 위하여 유엔군의 기치하에 결속되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의미가 있었다.

〈표 5〉 유엔군사령부의 지휘체제¹¹⁵⁾



맥아더 원수는 유엔군사령부 창설의 대동과 거의 같은 시기인 7월 6일에 전선상황을 수습하고 전개되는 지상군을 효과적으로 작전통제하기 위하여 미 제 8군사령관 위커 중장으로 하여금 한국에서의 지상군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도록 계획하였다. 이에 위커 장군이 한국으로 건너와 전선을 시찰함과 동시에 대구에 미 제 8군사령부를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선발대를 파견하여 지휘소를 설치할 준비를 하였다.

위커 장군은 7월 12일 맥아더 장군으로부터 “13일을 기하여 주한 미지상군의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라.”는 구두명령을 전달받고, 7월 13일에 도쿄에서 대구로 이동하여 지휘소를 개소하고 미 지상군의 작전지휘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이날 저녁 지금까지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역할을 수행해 온 처치 준장을 비롯한 극동군사령부 전방지휘소 구성원들은 그 임무를 중단하고 도쿄로 복귀하였다. 이로써 미 제 8군사령관은 주한 미육군사령관으로서 예하의 미 지상군부대는 물론 한국전선에 참전하는 유엔지상군부대들을 통합지휘하게 되었다.

1950년 7월 중 유엔군의 육·해·공 참전상황은 <표 6>과 같다.

<표 6> 유엔군의 참전상황(1950. 7. 31)¹¹⁷⁾

군	국 가 별 참 전 상 황
육 군	미국 제24사단(제19, 21, 34연대), 제25사단(제24, 27, 35연대), 제1기병사단(제5, 7, 8연대)
해 군	미국(1개함대 및 지원함대), 영국(항공모함 1척, 구축함 2척, 소형함 3척), 호주(구축함 1척, 소형함 2척), 프랑스(소형함 1척), 네덜란드(구축함 1척), 캐나다(구축함 3척), 뉴질랜드(소형함 2척)
공 군	미국(1개전술항공비행단, 2개전폭비행단, 1개비행수송부대), 영국(1개전투비행대대, 1개비행수송중대), 캐나다(1개비행수송대대), 호주(1개전투비행대대, 1개비행수송중대)

한편, 유엔 사무총장이 미국 유엔대사에게 전달한 유엔기는 7월 13일 미육군 참모총장 콜린스 대장이 도쿄를 방문하여 유엔군사령관에게 전달하였으며, 제 8군사령부에는 그 4일 후인 17일에 전달되었다.¹¹⁸⁾

2. 國軍의 作戰指揮權 移讓

유엔군사령부의 발족으로 극동군사령부가 유엔군사령부로서 국군을 지원하는

모든 유엔군을 통합지휘하게 되었고, 아울러 제8군사령부도 7월 13일부터 대구에서 지상군작전을 직접 담당하는 군사령부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자, 정부는 국군의 작전지휘권 이양문제를 검토하게 되었다. 그 동안 국군은 군별로 이미 미군의 각군과 연합작전을 실질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당시로서는 국군의 중추인 육군본부가 13일 대구로 이전하여 다음날 미 제8군사령부 인접에 개소(開所)하여 합동회의를 가짐으로써 사실상 이때부터 국군도 극동군의 각 구성군과 통합작전체제에 들어갔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한 이승만 대통령은 이날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전 시하의 정책적인 조치로서 구두로 먼저 정일권 총참모장에게 유엔군사령부의 지휘를 받으라는 명령을 하달한 다음, 주한 미대사를 통하여 맥아더 원수에게 정식으로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현 작전상대가 계속되는 동안 이양한다는 다음과 같은 서한을 전달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한 유엔의 공동군사노력에 있어 한국 내 또는 한국 근해에서 작전 중인 유엔의 육·해·공군 모든 부대는 귀하의 통솔하에 있으며, 또한 귀하는 그 최고사령관으로 임명되어 있음에 비추어 본인은 현 적대행위의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대한민국 육·해·공군의 모든 지휘권을 이양하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는 바이다.....¹¹⁸⁾

이리하여 7월 14일부로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맥아더 사령관에게 이양하였으며, 이승만 대통령의 서한을 접수한 유엔군 총사령관 맥아더 원수는 먼저 17일 미 제8군사령관에게 한국 지상군의 작전지휘권을 재이양하였다. 해·공군도 각각 극동해·공군구성군사령관에게 이양함으로써, 지상군은 미 제8군사령관, 해·공군은 미 극동해·공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정식으로 받게 되었다. 이로써 한국에서 공산군과 싸우는 모든 부대의 지휘통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맥아더는 18일 무초 대사를 통하여 “대한민국 육·해·공군의 작전지휘권 이양에 관한 이승만 대통령의 결정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이며, 유엔군의 종국적인 승리를 확신한다.”는 요지의 답신을 보내 왔다. 이승만 대통령의 서한과 맥아더의 회한내용은 25일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달되어 안보리에 제출됨으로써 사후 공식화되었다.

한편, 총참모장 정일권 소장은 즉시 육군본부 참모회의를 소집하여 제1군단장 김홍일 장군과 제2군단장 김백일 장군에게 작전지휘권 이양은 유엔군과의

연합작전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강조하였고, 이를 각 사단장들에게도 일제히 하달하였다.¹¹⁹⁾

실제 작전에 있어 육군의 작전통제는 통상의 경우 육군의 지휘계통에 의해 이루어졌다. 즉, 미 제8군사령관이나 그의 참모장이 부대에 어떤 작전통제를 요청하면 육군 총참모장이 예하부대에 명령과 지시를 하였다. 그러나 미군부대에 배속된 경우에는 미군지휘계통으로 통제가 되었다. 전쟁간 군사적인 면에서 육군의 작전통제에 문제가 된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전쟁의 중요한 단계에서 정치적 관심이 상충되었을 때는 작전통제체제의 존속 여부가 의문시되기도 하였지만 그대로 유지되었다.¹²⁰⁾

3. 戰線 調整과 國軍의 再編成

국군은 7월 초 제1차 재편성에서 제1군단의 창설과 더불어 8개사단에서 5개사단으로 감소 개편한 다음 미 제24사단과 평택-충주-울진선에서 전선을 분담하여 지연전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담당정면이 너무 넓은 관계로 5개사단을 모두 전선에 투입함으로써 예비부대가 없어 우발상황에의 대응이나 후방지역방어에 큰 문제가 수반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사단에 대한 병력도 급변하는 전선에서 전투 중에 시급히 보충하고 전력화해야만 하였으므로 많은 어려운 문제가 뒤따랐다.

따라서 신성모(申性模) 국방장관은 개전 초와 같은 총 8개사단을 확보하기 위해 해편된 사단의 재건과 아울러 부대의 추가창설문제를 검토하게 되었다. 이 문제는 육본 임시지휘소가 평택에서 대전으로 옮긴 다음날인 6일부터 정식으로 거론되었다. 당시 군은 사단의 증강문제에 관하여 주한 미 지상군사령관 처치 준장과 협의¹²¹⁾한 다음 해편한 3개사단을 재건하고 1개사단을 신설하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후방지구에 지역방위와 병력보충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편성관구를 두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7월 7일 해편한 사단의 고유명칭을 살려 먼저 제3사단(이준식 준장), 제5사단(이형석 대령), 제7사단(민기식 대령)의 3개사단을 재건하고 이와 병행하여 부산에서 제9사단(대령 이종찬)을 창설하기로 하여 일반명령을 하달하였으나,¹²²⁾ 가용인원과 장비는 기존사단에 대한 보충에도 부족한 실정이었으므로 당시 사단의 재건이나 창설이란 실현을 보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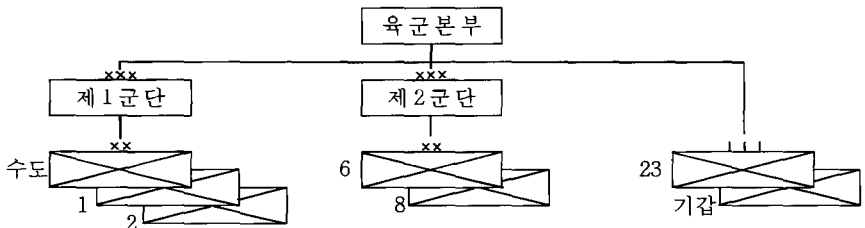
17일에는 서해안지구전투사(申泰英 소장)를 신설하여 전남 및 전북 편성관구와 기타 부대를 관장하게 하는 한편, 영남편성관구도 경북·경남편성관구로 분리하여 4개의 편성관구로 개편하였으나, 유명무실한 이들 기구는 해체되거나 다른 부대 창설시 흡수되고 말았다.

한편, 사단의 재건 및 관구의 신설 노력과 아울러 지연전의 전개에 따라 중동부의 제6, 제8사단이 이화령-조령-죽령선으로 물러나자, 이들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가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적 제2군단의 주력이 지향됨에 따라 또 다른 군단사령부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국방부는 사단과 편성관구의 창설계획과 함께 추진해 오던 군단창설계획을 서둘러 마무리하여, 7월 12일 함창에서 제2군단을 창설하고 제6, 제8사단을 배속함과 동시에 군단장에 육본 참모부장 김백일 준장을 임명하였다. 이때부터 육군은 2개 군단체제로 지휘체제를 정비하고 소백산맥에서 금강선의 미군과 함께 작전을 펴게 되었다.¹²³⁾ 당시 육군의 전투부대 편성은 <표 7>과 같다.

국군은 새로 정립된 제2군단체제로 지연전을 치르던 중 추가로 전개한 미군 2개사단이 추풍령을 중심으로 상주-영동지역에 투입됨으로써 한·미군간에 전선조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결과 국군은 상주 이동의 중부-동부전선을 방어하게 되었다. 이미 한·미간의 작전협의를 거쳐 전선의 조정과 개편작업을 준비해 온 국방부는 7월 20일을 기하여 지금까지 병력손실이 심한 제2사단을 해체하는 한편, 새로이 2개군단, 5개사단 체제로 제2차 재편성을 하기로 하였다.

군은 이날 제2군단장 김백일 준장을 다시 육본참모부장으로 복귀시키고, 제1군단 부군단장 유재홍 준장을 제2군단장에 임명함과 동시에 제1군단에 제1·제3사단을, 제2군단에 제6·제8사단을 배속하고 수도사단을 예비로 하는 지휘체제를 정리한 후 개편을 단행하였다. 동시에 제1군단은 작전지역을 미군에게 인계

<표 7> 제2군단의 창설과 지휘체제(1950. 7. 12)



하고 사령부가 의성으로, 수도사단과 제17연대는 안동으로, 그리고 제1사단은 춘양으로 이동해야 했다. 이에 따라 육군은 제1군단이 동부와 동해안에서, 제2군단이 중동부에서 적을 저지하면 조기에 반격작전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었다.¹²⁴⁾

그러나 이 명령에 따라 제1군단사령부와 예하사단이 전선이동을 시작하려 할 때 전선의 상황급변으로 인하여 사단이 계획된 대로 이동하지 못하고 또 제1군단이 태백산맥을 사이에 두고 양개 사단을 통제하는 데는 지휘통신이 문제가 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7월 24일에 육군의 지휘체제를 재조정하여 제1군단이 수도사단과 제8사단을 지휘하여 영주-안동 축선을, 제2군단이 제1사단과 제6사단을 지휘하여 문경-함창-상주 축선을 방어하도록 하고, 동해안의 제3사단은 육군의 직접지휘하에 두었다. 결과적으로 실시된 육군의 제2차 재편성 현황은 <표 8>과 같다.

<표 8> 제2차 국군의 재편성과 병력현황

부대구분	재 편 상 황	병력수
제1군단본부		3,014명
수 도 사 단	제1, 제8(해편), 제18(제8연대 편입), 제17연대(배속)	6,644명
제 8 사 단	제10, 제16(제2사단에서 편입), 제21연대(제25연대 제1대대 편입)	8,864명
제2군단본부		976명
제 1 사 단	제11(제5연대 편입), 제12(제20연대 편입), 제13연대	7,601명
제 6 사 단	제2, 제7, 제19연대	5,727명
육 군 본 부		3,020명
제 3 사 단	제22, 제23연대, 기갑연대	8,829명
직 할 부 대		11,881명
보 총 대		9,016명
전 주 훈 련 소		8,699명
광 주 훈 련 소		6,244명
부 산 훈 련 소		5,356명
부상및비전투병력		8,699명
총 병 력		94,570명

4. 戰爭支援體制의 定立

국군은 개전 초의 혼란으로 병적관계(兵籍關係) 서류와 많은 양의 보급품을 유실하였기 때문에 후방에서 빠른 시간 안에 인사 및 군수지원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국방부는 병력동원을 위해 임시방편으로 병역법 제58조를 적용한 제2국민병 소집으로서 가두소집이나 각종 단체의 집단소집으로써 병력을 보충하다가 7월 22일 ‘비상항토방위령’이 공포됨으로써 만 14세 이상의 장정을 소집할 수 있게 되었다.¹²⁶⁾ 그 후 병력의 보충은 급속히 강행되어 소집행정업무가 증가됨에 따라 병사기구도 점차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육군본부는 병참지원체제의 정비를 위해 7월 5일 서울지구보급창을 김천에 설치하여 대전지구창과 더불어 보급의 원활을 기하였으며, 동시에 각 사단의 병참부도 개편하여 보급부대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도모하게 되었다. 7월 중 미군의 군수지원이 활발해짐에 따라 국군의 보급창에도 많은 양의 미군보급품이 축적되기 시작하였다.¹²⁷⁾ 통신기재장비가 점차 보급되었고, 공병 역시 지금까지 입하된 대전차지뢰, 폭약 등의 범위에서 확대되어 다양한 공병기재가 지원되었다. 의무지원도 7월 20일부터 미군약품이 다량으로 입하됨으로써 최전선에 보급되기 시작하였다.¹²⁸⁾

군수조달 면에서도 한·미간의 전선정리 후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7월 26일에는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이 공포되어 군작전에 필요한 모든 공장시설은 물론, 가정용 시설에 이르기까지 총동원함으로써 점차 국민총력전 체제가 갖추어지기 시작하였다.¹²⁹⁾

그러나 군량 면에서는 여전히 부족을 면치 못하였다. 국방부가 확보하고 있던 경인 이의 지역의 보관분(민수용 포함)과 정부미가 절대량에 있어서 부족하였고,¹³⁰⁾ 주식과 부식(1인 1일 20환)마저 제때에 일선에 도달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군수지원 면에서 미군에 의한 지원체제가 점차 정립되어 갔다. 7월 1일부터 미 제8군이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유엔군 및 한국군에 대한 군수지원을 수행하였다. 제8군사령부가 대구로 이동하자 요코하마(橫濱)에 잔류한 제8군 후방지휘소가 부산의 군수지원사령부를 통해 이들 부대에 대한 군수지원을 담당하였다.¹³¹⁾ 그러나 제8군은 한국에서의 전투지휘기능과 일본으로부터 군수지원기능 이중의

기능을 가짐으로써, 전자의 기능에만 전념할 수 없어 무거운 지휘부담을 안고 군수지원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체제는 주일 미 군수지원사령부가 창설되는 8월 25일까지 계속되었다.

제8군은 주로 재일(在日)재고품으로써 각종 지원을 시작하였고, 부족한 것은 미 본토와 일본에서 생산하여 지원하기도 하였다. 7월 10일경 3.5" 로켓포와 4.2" 박격포탄을 부산으로 이동시킬 준비를 갖추었으며, 18일에는 일본에서 생산한 대전차지뢰 3천여 개를 부산으로 수송하였다. 한편, 동경 병기창에서는 재고장비의 수리와 아울러 변형제작도 하여 구형 전차를 M4A3 전차로 변형하고, 105mm 야포의 포차와 M15A1 반궤도차량을 한국지형에 적합하도록 개조하였다.¹³⁰⁾

남한에서 가장 규모가 큰 부산항이 유엔군의 병참기지인 일본과 가까운 전선 남단에 위치해 있어 군수지원 면에서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부산의 항구시설은 내항에 24척의 선박이 정박할 수 있고, 14척의 LST가 동시에 하역작업을 할 수 있으며, 일일 부두능력은 45,000톤이었다. 특히 부산을 중심으로 뻗어 있는 철도와 도로는 각 전선에 보급을 지원하기에 유용한 병참선이었다. 7월 한 달 동안 부산에 총 309,314톤이 양륙됨으로써 1일 평균 10,666톤에 달하였으며, 230여 척의 선박이 입항하였다.¹³¹⁾

第4節 錦江-小白山脈線 遲延戰

1. 錦江線의 遲延戰

(1) 公州·大平里 부근 戰鬪

7월 13일에 대구에 지휘소를 개소(開所)하고 지상작전을 지휘통제하게 된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유엔군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공세이전의 시기가 조성될 때까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금강-소백산맥 일대에서 적을 저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였다.

워커 중장은 이때 “제8군은 적을 저지하고, 현 방어선을 확보하며, 군사상황을 안정시킴과 아울러 차기공세를 위하여 필요한 전력을 증강한다.”는 작전목표를 설정하고, 제24사단은 금강선에 배치하여 군의 좌익 공주-대전지역에서

적의 전진을 저지하며, 제25사단은 중부 산악지대의 중요 도로상에 저지진지를 점령하고 국군을 지원하여 적을 방어하고, 1개대대로써 영일비행장과 포항을 확보하라고 임무를 부여하였다.¹³⁴⁾

이로써 미 제24사단은 금강선을 연하여 방어배치를 완료하였고, 미 제25사단은 10일~15일 사이 이동완료하여 제27연대를 의성, 제24연대를 상주에 진출시켜 국군을 지원하도록 하였고, 제35연대를 예비로 확보한 후 제35연대 1개대대를 영일비행장에 투입하였다. 국군은 제1군단(수도사단 : 제17연대 배속, 제1·제2사단)이 괴산-미원 일대에서, 제2군단(제6·제8사단)이 이화령-죽령 간에서, 제3사단 제23연대가 영해 남방으로 몰려나 적을 방어할 준비를 갖추었다.

반면, 인민군은 속전속결을 서둘러 “적의 기본집단을 대전과 소백산맥 줄기의 동남부에서 각개 소멸한다.”¹³⁵⁾는 계획하에 예비대마저 총동원하여 제1군단(제2·제3·제4·제6사단)에 제105전차사단을 배속하여 금강선에 투입하고, 제2군단(제1·제5·제8·제12·제13·제15사단)을 소백산맥선과 동해안 방면으로 투입하고 있었다.

금강은 소백산맥에서 발원하여 주로 충남지역을 관류하다가 서해로 유입하는데, 특히 대전을 둘러싸고 반월형으로 흐르고 있으며 강폭이 500~1,000m, 평균수심이 2.5m나 되어 도섭이 불가능하여 적을 방어하기에 중요한 장애물이다.

12일 오후 미 제24사단은 금강의 각 도선장과 나룻배 및 모든 교량을 폭파하였다. 사단장은 경부국도가 통과하는 대평리에 방어중점을 두면서 가능한 한 오래 지연하기로 작전방침을 굳힌 다음, 남북전쟁시 명성을 떨친 바 있으며 지금까지 군예비임무를 수행한 제19연대(벨로이 대령 : Guy S. Meloy)에 기대를 걸고 이 연대를 대평리 부근으로 추진, 이곳의 제21연대와 부대교대를 단행하였다. 사단은 참전 이래 3개연대를 운용, 대평리 정면에 제19연대, 공주 정면에 제34연대를 배치하고, 제21연대를 예비로 하는 방어체제를 갖추었다. 그러나 사단의 방어 정면이 너무 넓고 연대는 2개대대의 감소편성인데다 병력마저 부족하여 부대간 간격이 넓었으며, 더구나 통신장비가 부족하여 부대간의 연락도 원활하지 못하였다.

반면, 인민군 제1군단은 대전을 차기작전의 공격목표로 정하여 제4사단이 공주로, 제3사단이 대평리로 진출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양 사단은 12일 야간부터 전차 50여 대의 지원을 받으며 금강도하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그 동안의 전투에서 약 30~40%의 병력손실을 입고 강제 징집자로서 병력을 보충하였으

므로 사기는 저조한 편이었다.¹³⁶⁾

쌍방은 7월 13일까지 금강선에서 공방전 준비에 주력하고 있었다. 제34연대는 공주 정면으로 적이 도하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제3대대(랜트론 소령)를 공주 정면에 배치하고 제1대대(아이레스 중령)를 예비로 하여 진지편성을 완료하였으며, 제63포병대대(제11포병대대 A포대 1개소대 포함)를 제1대대와 제3대대의 중간에 두어 연대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제3대대는 공주 북쪽 금강 차안에 좌로부터 L, I, K중대를 배치하고 연대수색중대를 공주 남서 금강변에 경계부대로 운용하였다.

도하준비를 마친 적 제4사단은 드디어 14일 새벽부터 주력 제18, 제5연대로 정면에서 제1대대를 포격하면서 제16연대로 측방도하를 시도하여 퇴로차단을 기도하였다.¹³⁷⁾ 적 제16연대의 일부가 검상리로 도하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제3대대 L중대에 의해 최초로 목격되었으며, 포병대대 항공관측장교에 의해서도 관측되었다. 연락기로부터 적의 도하상황을 보고받고 포병은 더 좋은 표적의 출현을 기다리며 우선 155mm 곡사포 2문으로써 저지사격을 가하였으나, 적 야크기의 위협으로 연락기의 사격유도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때 공주전방의 제3대대는 전날 밤 K중대원 전원이 그간의 전장피로증에 의한 심신쇠약으로 후송됨에 따라 L중대와 I중대만이 공주 정면을 담당하고 있었다.¹³⁸⁾ 좌일선인 L중대는 적의 집중포화를 받자 오전에 자의로 철수하였고, I중대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홀로 진지를 지키고 있었다.

적은 이러한 사실도 모르고 공주 정면으로는 도하하지 않음으로써 전방에서는 큰 접전이 없었으나 후방포병진지에는 우회도하한 적에 의해 일대 위기가 고조되었다. 포병관측소에서 오후 적의 접근을 보고할 무렵 이미 공격이 시작되고 있었다. 결국 포병대대의 진지는 유린되었고, 탄약을 적재한 트럭의 연쇄 폭발로 혼란이 가중되었다. 대대는 마침 진출한 국군 기병중대의 지원¹³⁹⁾에도 불구하고 10문의 곡사포와 차량 60~80여 대의 손실을 입고 진지를 탈출하였다.¹⁴⁰⁾

제34연대장 대리 웨드링톤(Robert L. Wadlington) 중령은 지연진지 선정을 위한 지형정찰에서 돌아와 뒤늦게 포병의 피습상황을 보고받고, 즉시 예비인 제1대대에 일몰 전까지 역습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적의 완강한 저항과 일몰로 인해 철수하고 말았다. 공주전방을 방어하고 있던 I중대도 명령을 받고 철수길에 올랐다.

결국 제34연대는 일선보다 포병진지가 먼저 유린되어 퇴로가 차단됨으로써

15일 아침까지 논산으로 철수하였으며, 다음날에는 대전으로 이동하였다. 적은 공주를 점령한 이날 저녁 논산으로 진입하였으나 도선관의 조립이 늦어져 16일 오후까지도 중장비를 도하시키지 못하고 있었다.¹⁴¹⁾

한편, 대평리 방면에서는 7월 15일부터 적 제3사단의 포화가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제19연대는 12일부터 제1대대(원스테드 중령)를 대평리 정면과 괴화산 일대의 예상도하지점에 배치하고 제2대대(백그레일 중령)를 예비로 하는 진지편성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동측방 경부철도 쪽에는 E중대를 경계부대로 배치하고 서측방 제34연대 쪽으로도 경계부대를 파견하여 측방경제초치를 하였다.¹⁴²⁾ 사단 포병은 제52포병대대가 제1대대 후방 두만리에, 제11(-)·제13포병대대가 두만리 후방에 배치되어 지원태세를 갖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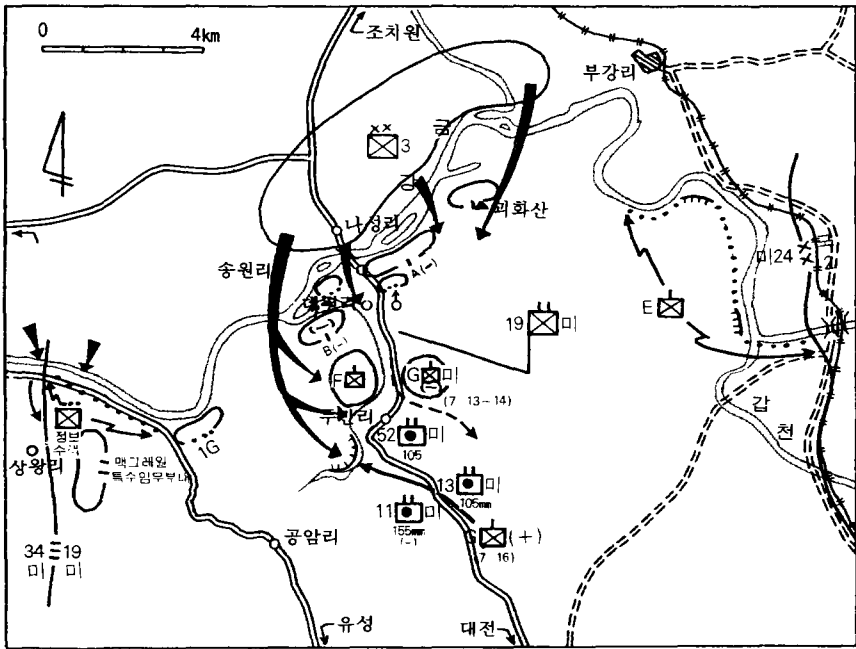
그러나 연대장은 14일 좌측방에서의 적의 도하시도 상황을 보고받은 데다가 공주의 제34연대가 돌파되어 좌측면이 노출되자, 제2대대장의 지휘하에 G중대를 포함한 특수임무부대를 구성하여 좌측방 방어력을 강화하였다.¹⁴³⁾ 그러나 이로써 예비는 F중대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저녁 무렵 적 제3사단이 대평리 정면에 야포와 11대의 전차포로써 포격을 개시하였으나, 이때 유엔 전폭기 2대가 출격하여 적 전차의 집결지를 강타하여 제압하였다. 이날 밤 적은 주력의 도하에 앞서 소수병력으로 대평리와 괴화산으로 도하를 시도하였다.

다음날인 16일 미명, 적은 야크기의 조명탄 신호와 함께 포병의 공격준비사격 후 도하공격을 개시하였다. 제19연대는 사단포병의 포병지원하에 전 화력을 집중하여 적의 공격을 저지하고 있었으나 갑자기 조명지원이 두절되면서부터 적의 진출을 허용하고 말았다. 개화산 전방으로 도하한 일부의 적이 C중대를 우회공격하기 시작하였고, 대대 정면의 적도 B, A중대 사이를 공격하여 아침 무렵 진지가 돌파되고 말았다. 이에 연대장은 연대본부와 제1대대 본부중대 장교·취사병·운전병·기술병·행정병·경비소대까지 포함된 가용병력을 총동원한 역할을 감행함으로써 일단 적을 격퇴하고 위기를 모면하였다.¹⁴⁴⁾

이와 동시에 좌측방 일대로 도하한 적이 예비인 F중대를 견제하면서 중심깊이 침투하여 제52포병대대를 공격한 다음 그 남쪽 도로 굴곡부분의 무명고지를 점령하였다. 이에 따라 그 남쪽의 2개 포병대대를 제외하고 대평리로 투입된 모든 부대의 퇴로가 차단되고 말았다.¹⁴⁵⁾ 결국 제19연대는 제34연대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전투도 수행하지 못한 채 적에게 포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대평리 전투



이 보고를 접한 연대장은 현장에 도착, 그곳의 병력으로 공격대를 편성하는 동안 적탄에 맞아 부상을 입었으며, 연대지휘권을 인수한 제1대대장은 철수명령을 하달한 후 전방부대의 진지이탈을 지휘하기 위해 부상하던 중 전사하였다. 사단장이 제2대대장에게 전차 2대와 장갑차 6대를 지원하여 도로개통임무를 부여하는 등 온갖 노력을 집중하여 도로개통을 시도하였으나 번번이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이러한 가운데 제1대대와 연대 본부병력이 적의 배후로부터의 압력을 받아가며 이곳으로 모여들고 있었다. 결국 연대참모들은 최후의 방법으로 부상당한 연대장을 전차에 태워 강행돌파하고, 병력은 연대 작전보좌관이 지휘하여 야지로 철수하기로 하였다. 이 돌파작전으로 연대장은 가까스로 적의 화망(火網)을 벗어나 탈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곳에 남게 된 부상자는 물론, 이들과 함께 잔류한 의무병 및 군목들이 적에 의해 모두 사살되는 참상을 겪게 되었다.¹⁶⁰ 그리고 연대의 철수병력은 100여 대의 차량을 파괴한 후 야음을 이용하여 능선을 타고 유성방향으로 철수하였다. 결과적으로 제19연대는 이 전투에서 1,753명

중 481명의 손실을 입었으며 대전으로 철수하여 재편성에 들어갔다.

대평리에서 인민군 제3사단은 전방에 압력을 가하면서 양익으로 기동하여 미군 좌익을 돌파한 부대가 퇴로를 차단포위하였다. 제19연대는 적의 전방공격과 돌파는 구축하였으나 적절한 예비의 미확보로 측후방 돌파와 도로봉쇄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없었으며, 당시의 사기저하와 무더운 날씨도 도로봉쇄 돌파공격부대의 전투력을 이완시키는 원인이 되었다.¹⁴⁷⁾

(2) 大田 부근 戰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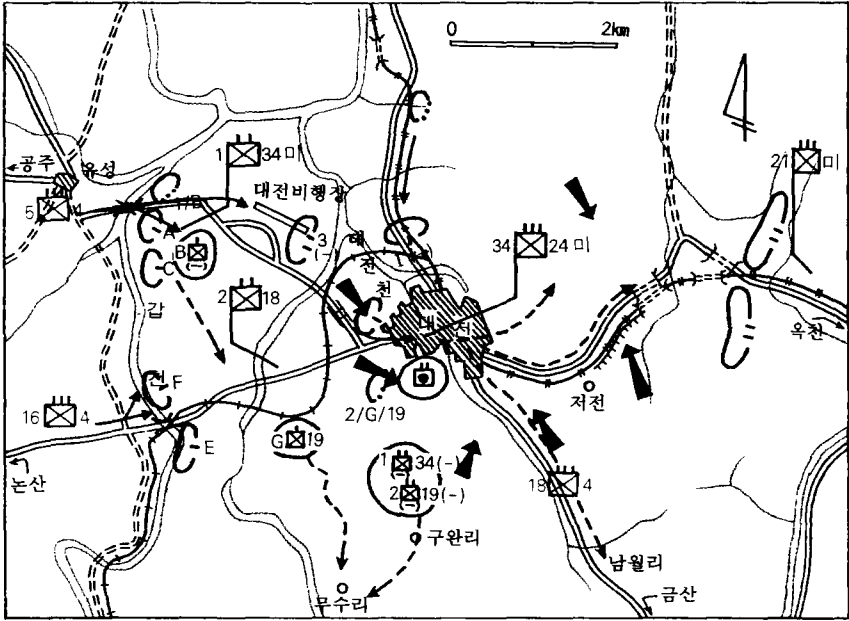
대전은 충남 도청소재지로서 유성·논산·금산·옥천·조치원 방향과의 5개 도로가 방사선형으로 연결되어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남동쪽으로는 소백산맥이 병풍처럼 둘러쳐 있고, 서북쪽에는 금강의 지류인 갑천과 유등천 및 대전천이 흐르고 있다. 시내 서북 방향에 대전비행장이 위치하고, 대전과 옥천 간의 경부선상에 2개의 터널이 있다.

제24사단장은 금강방어선이 붕괴되자 대전에서 적을 최대한 지연하기로 결심하고 제34연대에 대전방어임무를 부여하였다. 적 제2사단의 우회기동을 우려하여 제21연대를 경부도로의 확보 목적으로 대전 동측방 마달령에 배치하고 사단 수색중대를 금산가도상에 경계부대로 배치하였으며, 전투력이 약화된 제19연대는 영동으로 이동시켰다.

제34연대 신임연대장으로 부임한 뷰챔프(Charles E. Beauchamp) 대령은 즉각 제1대대(아이레스 중령)를 유성 쪽의 갑천선에 배치하고, 제3대대(랜트론 소령)를 비행장 동단에 예비로 확보하되, L중대 1개소대는 논산 방향의 갑천에 배치하고 I중대(-)는 대전 북쪽 경부철로선에 경계부대로 추진하였다. 사단포병은 4개대대를 혼성포병대대로 재편성하여 비행장에 배치함으로써 방어편성을 17일 야간까지 일단 완료하였다. 그러나 연대는 적은 병력으로 광정면을 방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부대간에 연결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더구나 통신장비의 부족으로 제대로 연락이 이루어지지도 못하였다.

인민군 제1군단은 대전공격을 위해 3개사단을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제2사단이 진천-청주에서 국군 수도사단에 의해 지연되자 제3·제4사단만으로 대전을 공격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제3사단이 전차부대와 함께 대전 정면으로, 논산 일대를 점령한 제4사단이 1개연대를 남측으로 우회시켜 금산가도를 차단한

대전 전투



다음 유성, 논산 방향에서 공격을 집중포위한 계획이었다.¹⁴⁸

최초 단 소장은 대전에서 지연전을 전개하다가 적에게 돌파되기 전 19일에 철수한다는 작전방침을 세우고 있었으나, 18일 워커 중장으로부터 “포항에 상륙중인 제1기병사단의 영동 투입을 위해 향후 2일간의 대전고수가 요망된다.”는 지침을 받음으로써 20일까지 대전을 방어할 계획이었다.¹⁴⁹ 이에 따라 사단장은 제34연대장에게 대전지역의 모든 부대에 대한 지휘권을 부여하는 한편, 영동의 제19연대 제2대대와 금산가도상의 사단수색중대도 배속시켜 방어력을 강화하였다.

이때 최초로 야전에 보급된 신형 대전차화기인 3.5" 로켓포도 연대에 지급하여 적 전차에 대응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연구개발된 것으로서 맥아더의 긴급요청에 따라 7월 10일에 대전으로 긴급 공수되었다.¹⁵⁰

인민군은 7월 19일 아침 야크기 6대로써 영동철교와 대전비행장 일대를 강타하면서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날 전투는 논산가도 쪽으로 파견된 수색중대의 1개 소대가 적과 접촉을 함으로써 시작되었으며, 곧 갑천에 배치된 L중대 1개 소

대진지가 적에 의해 유린되자, 연대장은 때마침 도착한 제19연대 제2대대(맥그레일 중령)를 투입함으로써 상실된 진지를 회복하고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였다. 또한 유성 방면에서도 강도 높은 포격과 더불어 공격이 전개되자 제1대대는 갑천선 전방으로 추진된 전초중대를 철수시켰다.

야간에 이미 적 전차가 유성 부근에 출현하였으며, 금산도로가 차단되고 옥천가도에도 적이 출현하였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지만, 연대에서는 이를 적의 교란작전 정도로만 판단하고 있었다.

다음날 미명부터 금산가도에 적의 출현이 확인되고, 유성가도에서도 적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적은 갑천을 건너 도로 양측 제1대대 진지를 일제히 공격하여 적 전차의 중심 깊은 침투와 아울러 대대본부 지역으로 들이닥쳤다. 대대는 적의 압도적인 충격력에 의해 불과 몇 시간 만에 진지가 붕괴되었고, 대대장은 이러한 상황을 보고하였으나 미처 철수보고는 하지 못한 채 독단으로 남쪽인 제19연대 제2대대 쪽으로 부대를 철수시켰다.

연대장은 비행장 쪽으로 정찰에 나섰다가 새벽 무렵 남하하는 적 전차를 발견하는 즉시, 직접 3.5" 로켓포조와 함께 추격하여 전차 1대를 파괴하였다. 이 무렵 연대장은 제1대대가 여전히 진지를 지키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예비인 제3대대로 하여금 지원하도록 하였으나, 이들 선두중대가 비행장 부근으로 진출도중 6대의 전차를 앞세운 적 1개대대와 조우함으로써 무산되었다.¹⁵¹⁾

더구나 이미 06:30부터는 제1대대 진지를 돌파한 적 전차가 보병을 만재한 채 대전 시내로 침입하였고, 로켓포조는 사격을 가하여 적 전차를 격파하는 등 시내가 혼란에 빠졌다. 단 사단장도 직접 3.5" 로켓포 사수를 대동하고 전차를 추격하여 1대를 격파하였다. 이날 적 전차는 3.5" 로켓포에 의해 8대, 야포에 의해 2대 총 10대가 파괴되었다. 항공지원은 피아구별이 어려워 주로 적 전차와 포병진지에 집중적으로 강타하였는데, 20일 오후만도 유성 근방에 집결한 적 전차 15대를 격파하였다.¹⁵²⁾

한편, 논산가도의 제19연대 제2대대도 갑천을 사이에 두고 사격전을 전개하였으나, 적의 공격을 받아 진지를 고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대대장은 이미 적의 포탄이 지휘소 주변에 날아들고 또 제34연대 제1대대 병력이 대대본부를 지나가자 철수를 명령하였다. 대대장은 무전차량의 고장으로 전령을 파견하는 등 온갖 노력을 하였으나 연대로 철수보고를 할 수가 없었다. 철수과정에서 마지막 G중대 화기소대가 박격포탄을 전부 소모하기 위해 사격을 하다가 적

에게 노출되어 소대장 이하 전원이 전사하는 희생을 치렀다.

대대는 시내 방향으로 철수하려 하였으나 시내로 들어가는 교차로상에 적 전차 3대가 위치해 있으며 또 시내에는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는 상황으로 비추어 보아 대전이 이미 실패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대대장은 그 전차가 이미 전날 밤에 파괴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대대는 제34연대 제1대대를 후속하여 남쪽 보문산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13:00경까지 대전외곽진지가 완전히 적의 통제하에 들어가게 되었다.¹⁵³⁾

사단장은 전방부대의 철수상황은 보고받지 못하였으나 전방으로부터 적의 전차가 시내에 돌입한 데다 후방의 옥천가도와 금산가도가 차단되어 시내로의 압력이 가중되자, 야간으로 계획된 예정시간을 앞당겨 철수하도록 명령하였다. 이 무렵 연대장은 대전 동쪽에 적의 대열이 접근 중이며, 또 금산으로부터 20여대의 적 차량이 부상 중이라는 보고를 접수하였으나, 이들을 사단수색대와 제21연대의 철수병력으로 오관하여 포격하지 않도록 지시하였다.

15:30 연대장으로부터 영동으로의 철수명령이 하달될 무렵 영동에 전개한 제1기병사단의 전차 1개소대(5대)가 철수를 엄호하기 위해 대전에 도착하였다. 전차의 엄호하에 영동으로 출발한 선발대가 도중 대전 동단에서 적의 공격을 받아 분산되었고, 연대장과 연락이 두절된 상황하에서 사단장은 영동사령부에 전차를 보내도록 타전하는 한편, 본대로 하여금 17:30 옥천가도를 따라 철수하도록 명령하였다.

한편, 연대장은 옥천가도의 철수로를 정찰하던 중 15:30 도중에 만난 수색중대 전차 4대로써 세천터널을 확보하도록 조치한 후 마달령의 제21연대로부터 경전차 1개소대를 지원받아 복귀하였으나, 이미 터널은 적이 장악하였으며 이의 탈환전(奪還戰)도 탄약의 부족으로 실패하였다. 이 무렵 대전역에서는 사단장이 보급화차를 구출하기 위해 두 차례 이원역에서 기관차를 추진하도록 하였으나, 세천터널에서 적의 사격을 받아 실패하고 말았다.¹⁵⁴⁾

마지막으로 철수하고 있던 본대의 일부는 길을 잘못 들어 대전역 동남쪽으로부터 적의 포화를 받게 되어 50여 대 차량의 대부분을 버리고 옥천 방향으로 철수하였다. 또 일부는 국도로 들어섰으나 옥천가도를 차단하고 있던 적에 의해 적지 않은 손실을 보았다. 이 과정에서 짐머맨(Charles T. Zimmerman) 일등병은 초인적인 용감성을 보였으며, 리비(George D. Libby) 중사는 부상자를 실은 차량 운전병의 방패막이 역할을 수행하여 자신은 전사하고 많은 부상자를

구출하는 살신성인(殺身成仁)의 수범을 보이었다.¹⁵⁵⁾

결국 보문산으로 올라선 제34연대 제1대대는 금산도로로 북상 중인 적을 관측하였지만 저지하지 못하였으며, 제19연대 제2대대 주력은 보문산에서 금산동쪽으로 산길을 따라 영동으로 탈출하였다. 시내에서 철수하다가 분산된 부대는 부연대장 등 일부가 옥천을 지나 영동에 도착하고, 일부는 세천터널 차단선을 돌파하여 옥천과 영동으로 향하였다. 그때까지 마달령에 배치된 제21연대 제1대대(스미스 중령)는 적의 차단선과 불과 2km 지점에서 진지를 지키고 있었다.

한편, 부사단장은 옥천과 영동에서 철수병력을 수습하면서 22일에 가까스로 도착한 제1기병사단에 작전지역을 인계하고 대구로 이동한 후 재편성에 들어갔다. 사단장 일행도 옥천가도를 찾아 남진하다가 금산도로로 잘못 진입함으로써 도로를 차단한 적의 사격을 받아 분산되어 보문산으로 은신하여 활로를 찾고 있었다. 사단장은 보문산에서 야간에 부상병의 물을 구하던 중 낭떠러지로 떨어져 실신하여 철수대에서 이탈되었고, 그 후 36일 동안 산야를 헤매다가 적의 포로가 되었다.¹⁵⁶⁾

후일 사단장은 당초의 계획대로 하루 앞서 부대를 철수시키지 못한 점과 금산도로에서 정찰 중이던 사단 수색중대를 연대에 배속 운용한 점을 지휘상의 큰 실수였다고 후회하였다.¹⁵⁷⁾ 최후까지 본대를 엄호한 제34연대 제3대대 L중대는 철수도중 시가 도처에서 적의 사격을 받아 금산도로로 잘못 빠져 사단장 일행이 만났던 도로차단 지점에서 유기된 차량과 장비 및 병력을 수습하여 돌파하였다.

적 제4사단은 대전을 점령한 뒤 강제징집자들로 병력을 보충하는 등 부대정비에 들어갔으며,¹⁵⁸⁾ 적의 최고사령부는 대전점령에 수훈을 세운 제3·제4사단, 제105전차사단, 제1추격기연대에 친위부대 칭호를 부여하였다.¹⁵⁹⁾ 적 제3사단은 22일 경부도로를 따라 대구를 목표로 동남진하고, 제4사단은 23일 금산도로로 무주-거창 방면으로 기동하여 낙동강 서부지역으로 향하였다.

(3) 永同-金泉 부근 戰鬪

금강방어선이 붕괴되자 맥아더 장군은 제24사단과 제25사단이 국군과 함께 적을 방어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고 제1기병사단을 상륙부대로 운용하려던 당초

의 계획을 바꾸어 이 사단도 전선에 투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워커 장군은 중동부전선에 투입하였던 제25사단을 화령장-상주로 전환하고, 제1기병사단을 영동-김천 축선으로 전개하여 화령장-추풍령 일대의 방어력을 강화하고 그 대신 상주 이동의 전선을 국군이 전담하도록 하였다.

제1기병사단의 전개시 사단장 게이(Hobart R. Gay) 소장은 군사령관으로부터 “영동을 방어하라. 후방엔 우군이 없다. 후방통로를 확보하라. 식량 없이는 살 수 있어도 탄약 없이는 오래 지탱할 수 없다.”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기병사단은 7월 18일 포항에 먼저 상륙한 제5·제8연대가 19, 20일 영동에 도착하여 22일 제24사단으로부터 방어지역을 인수하고 철수를 엄호하였다.

한편, 제1기병사단이 영동 일대로 진출할 무렵 우측 황간에는 제25사단 제27연대가 투입되었다. 당시 제25사단(킨 소장 : William B. Kean)은 제27연대가 안동에서 국군 제8사단을 지원하고 제24연대는 상주 북쪽에서 국군 제6사단을 지원하였으며 제35연대는 예비로 상주에 집결하고 있었다.

제27연대(마이켈리스 대령 : John H. Michaelis)는 전선정리계획에 따라 안동에서 상주로 이동 중에 황간으로 집결하라는 수정명령을 받고 안동-황간 180km를 단 하루 만에 기동하여 황간에 도착하였다. 이는 보은-황간으로 동남진하는 적 제2사단의 진출을 저지하고 영동-김천가도를 방어 중인 제1기병사단의 측후방을 엄호하려는 조치였다. 7월 23일 제27연대는 황간 북방 삼릉리로 진출하여 제1대대를 전방, 제2대대를 그 후방에 배치하고 국군 제2사단과 교대하여 방어태세를 갖추었다.

당시 안민군 최고사령부는 금강-소백산맥선을 돌파한 후 신속히 마산-대구-영천-포항선을 점령하도록 독전함으로써 제1군단이 제3사단을 영동으로, 제4사단을 거창 방면으로, 제2사단을 황간으로, 제6사단을 진주 방면으로 진출시키고 있었으며, 제2군단은 제1사단을 예비 제13사단의 지원하에 문경으로, 제15사단은 상주로, 제12사단과 제8사단을 안동과 예천 일대로, 제5사단을 영덕 남쪽으로 진출시킬 준비를 갖추었다.

제1기병사단(-)은 제8기병연대(팔머 대령 : Raymond D. Palmer)의 제1대대를 경부도로에, 제2대대를 무주도로에 배치하고, 제5기병연대(크롬베즈 대령 : Marcel B. Crombez)를 영동 동쪽의 예비진지에 투입하여 22일까지 방어배치를 완료하였다.

적 제3사단은 영동을 목표로 22일부터 제8연대와 전차 일부를 옥천-영동가도

로, 제7·제9연대를 금산-무주로 남진시키고 있었다. 23일 아침 적 제8연대가 이미 금강 도하공격을 시작하자 제8기병연대 제1대대는 포병의 지원하에 전차 3대를 격파하면서 이틀간이나 도하를 저지하였으나, 우측으로 우회한 적으로부터 후방위협을 받아 영동으로 철수하였다. 이날 무주도로상의 제2대대는 우회한 적 제7·제9연대의 공격을 받아 혈전을 전개하였으나 퇴로가 차단되는 위기에 봉착하였다.

후방이 차단된 제2대대는 자체로 통로개척에 실패하였으나 제5기병연대 1개대대를 지원받아 전투력을 보강한 후 25일에 차단망을 강행돌파하였다. 하지만 후위 2개중대와 전차소대는 철수하지 못하고 전차 7대를 포함한 공용화기를 유기한 채 분산탈출하였다. 이때 제5기병연대 제2대대도 돌파작전을 지원하려다 1개중대가 적의 배치지역으로 잘못 들어가 많은 인원과 장비의 손실을 입었다. 양 연대는 영동 동쪽에서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적은 25일 야간 영동읍내로 진입하였으나 포로진술에 의하면 “24~25일간의 포격으로 2,000명의 손실을 보아 편제병력의 50%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여 많은 인명손실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¹⁰⁰⁾ 이 전투에서 적은 피난민을 가장하여 후방으로 침투, 포진지의 기습과 통로차단을 획책하는가 하면 무전기를 지니고 피난민 대열에 섞여 정보수집을 하다가 발각됨으로써 피난민의 통제와 오열의 색출에 관한 교훈을 남기었다.¹⁰¹⁾

뿐만 아니라 26일 새벽에는 수백 명의 피난민들을 기병사단이 설치한 지뢰지대로 몰아넣고 전진을 강요하였으며, 그 뒤에는 4대의 적 전차와 보병이 총을 겨누어 이탈자를 사살하고 있었다. 피난민으로 지뢰지대가 개통되었으나 기병사단은 포병의 탄막사격으로 적의 접근을 저지하였다.¹⁰²⁾

한편, 황간 북방에서는 23일 야간부터 제27연대의 정찰대와 적 제2사단의 선두부대 간에 교전이 시작되었다. 다음날 아침 적이 전차 8대를 동반하고 안개의 은폐하에 제1대대 정면으로 육박해 옴으로써 격전이 전개되었으나, 대대는 3.5" 로켓포와 항공지원으로 적 전차 6대를 격파하고 진지를 고수하였다. 연대장은 적이 포위를 시도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날 밤 제1대대를 은밀히 철수시킨 다음, 제2대대로 하여금 포병과 전차화력으로써 그 적을 공격할 준비를 갖추도록 하였다.

25일 아침 이를 전혀 알지 못한 적은 연대장이 예측한 대로 2개대대 병력으로써 텅 빈 제1대대 진지의 후방차단을 기도하면서 접근하였고, 제2대대는 준

비된 105mm 포 12문 및 전차포 9문으로써 일제히 집중사격을 가하여 대대적인 타격을 가하였다. 자정 무렵 적이 또 다른 부대를 투입하여 좌우측방으로 우회 기동을 하자, 연대는 황간 북동쪽에 신진지를 편성하고 제35연대 제1대대까지 지원받아 방어진지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27일 적의 공격재개로 연대의 철수가 불가피하게 되자 연대장은 제1기병사단과 협조하여 29일 황간의 제7기병연대의 엄호하에 김천으로 철수하였다. 기병사단의 후발대인 제7기병연대(니스트 대령 : Cecil W. Nist)는 태풍 관계로 22일에 상륙하여 제1대대로 포항비행장 경계를 인수하고 25일 추풍령으로 진출하였다가 27일 다시 황간으로 진출하여 사단의 후방과 제27연대를 엄호하고 있었다.

제1기병사단(-)은 영동 동쪽의 진지를 고수하였으나 좌측에서는 적이 지례 방향으로 우회하고 있고 우측에서는 제27연대의 진지가 돌파되자 후방차단이 우려되어 29일에 제27연대가 철수한 다음 김천으로 철수하였다.

제1기병사단과 제25사단 제27연대는 영동·황간 전투에서 추풍령을 넘어 김천-상주로 진출하려는 적 2개사단을 1주간 지연시켰다. 특히 제27연대는 323명의 손실을 입었으나 제1기병사단의 후방을 방호하고 적에게 3,000여 명의 대손실을 가하는 전과를 달성하였다.¹⁶³⁾

제1기병사단은 우측으로는 제25사단과 넓은 공간이 형성되어 있고 또 서측으로는 적의 우회기도를 고려하여 작전상 김천으로 철수하여 제8기병연대를 상주 쪽 남산리, 제5기병연대를 지례, 제7기병연대를 영동 쪽의 접근로에 각각 배치하여 김천으로 들어오는 3개 방면의 도로를 봉쇄하였다.

29일 아침 사단장은 국립경찰로부터 지례에 적이 이미 들어왔다는 보고에 접하자 수색중대를 투입, 적정을 파악한 후 배속받은 제21연대 제3대대와 제5기병연대 제1대대를 지례로 추진배치하여 제99포병지원하에 적을 방어하도록 하였다. 적 제3사단은 후속부대를 지례에 먼저 당도한 제7연대와 합류시킨 다음 제1기병사단의 후방으로 우회하여 일거에 김천을 포위하려 기도하고 있었다. 포위부대의 일부가 김천에 진입함과 때를 같이하여 31일에는 전차 25대를 앞세우고 영동 쪽에서 김천 정면을 향하여 제7기병연대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기병연대는 포와 항공지원을 받아 전차 19대를 파괴하면서 적을 저지하고 있었으나, 김천이 포위될 위험은 시시각각으로 더해 갔다. 이날까지 제1기병사단은 적 제3사단 병력 2,000여 명을 살상하고 제203전차연대를 격멸시키는 전과를 기록한 반면 919명의 손실을 입었다.¹⁶⁴⁾

2. 小白山脈線 遲延戰

(1) 米院-尙州 부근 戰鬪

국군 제1군단장 김홍일 소장은 진천-청주에서 지연전을 전개하던 중에 한·미 양군이 금강과 소백산맥을 연한 새로운 방어선에서 적을 지연하기로 결정하고 미 제24사단이 금강 남안으로 철수하자 이와 협조된 전선을 형성하기 위하여 보은-미원 간에서 적을 저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7월 13일 제1군단은 청주-보은에서 철수를 단행하여 제2사단¹⁶⁶과 수도사단(제17연대 배속)이 고은리 일대에, 제1사단이 미원 북방에서 방어준비를 갖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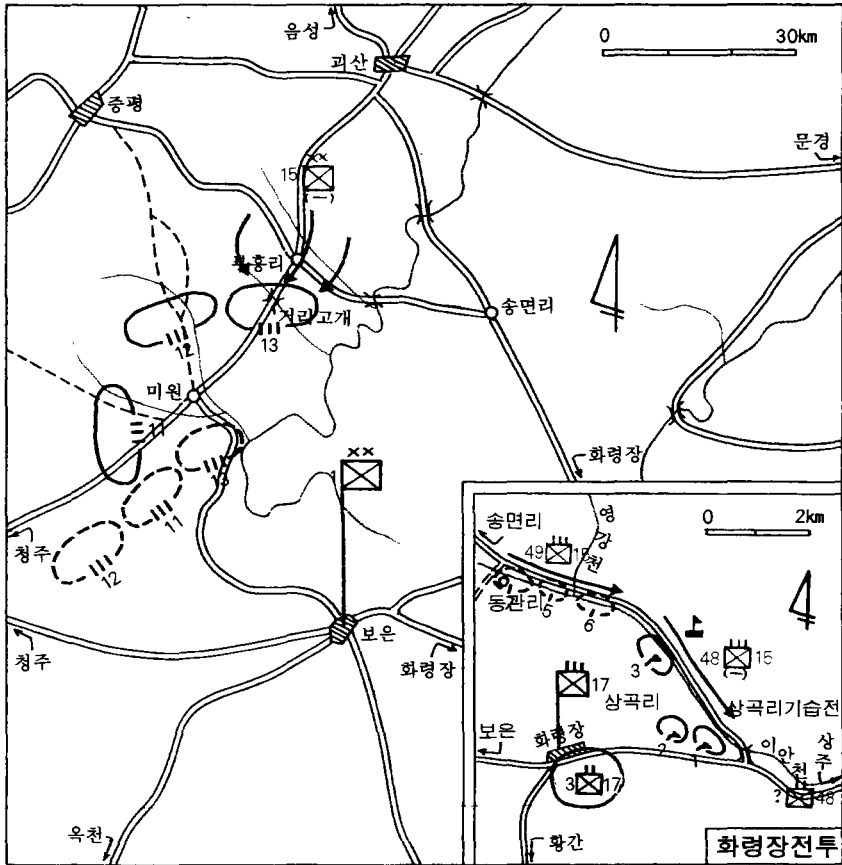
이때 국군 정면에 집중하고 있는 적 제2군단은 갈령·화령장·이화령·조령·죽령에서 소백산맥을 신속히 돌파하고 상주와 안동 방향으로 진출할 계획이었으며, 이에 따라 국군 제1군단 지역으로는 청주를 점령한 제2사단이 수도사단 정면으로, 괴산으로 진출한 제15사단이 제1사단 정면으로 공격을 계속 중이었다.

적 제15사단은 괴산에서 부대정비를 마치고 16일 미명 미원 북방으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국군 제1사단은 부흥리 일대에 배치된 제13연대가 적으로부터 포위 위협을 받아 한때 위기를 맞이하였으나, 거리고개에서 적의 진출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고 저지하였으며, 다음날에도 전차 3대와 장갑차 12대로 전력을 증강하여 공격을 재개한 적을 격퇴하였다.

이 전투에서 13명으로 편성된 대전차 특공조는 그 전공을 높이 평가받아 전원이 1계급 특진하였으며, 특히 김재일 중사는 적 전차에 뛰어올라가 전차 2대를 파괴하는 용맹을 보임으로써 2계급 특진하는 영예를 안았다.¹⁶⁶ 그러나 17일 국군 제1군단은 적 제2군단의 집요한 공격에 밀려 제2사단과 수도사단이 고은리에서 문의와 보은 일대로 철수하고, 제1사단은 미원 남쪽으로 진지를 전환하였다.

이 무렵 적의 작전에 큰 변화가 있었음이 후일 밝혀졌다. 적 제2사단은 청주를 거쳐 적 제1군단의 대전 공격에 동측방 포위부대로 기동하려는 계획이었으나, 진출이 늦어지자 보은-황간 쪽으로 진로를 바꾸었다. 적 제15사단은 이미 괴산에서 제48연대를 국군 제1군단과 제2군단의 공간지역인 갈령-화령장으로 통하는 산간협로로 은밀하게 투입하였는가 하면, 미원을 점령한 제15사단 주력

미원-상주 전투



도 소규모 탐색전을 실시하다가 19일 저녁 무렵 접촉을 단절하고 동으로 방향을 바꾸어 제48연대를 후속하여 화령장 방면으로 우회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도 소규모 탐색전을 실시하다가 19일 저녁 무렵 접촉을 단절하고 동으로 방향을 바꾸어 제48연대를 후속하여 화령장 방면으로 우회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반면, 육군본부는 우측방 이화령-조령의 전선이 무너지자 문경-함창 축선이 돌파될 경우 국군전선이 서부와 동부로 분리되어 각개격파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이 방면에 전력을 증강하기로 결정하고, 우선 수도사단에 배속된 제17연대를 제1군단에서 제2군단으로 배속전환하여 함창으로 진출하도록

명령하였다.

수도사단과 더불어 보은으로 집결 중에 함창 진출을 명령받은 제17연대장 김희준 중령은 7월 16일 자정, 먼저 제1대대를 차량으로 보은-상주 도로로 이동시켰는데, 다음날 아침 화령장 일대에 도착한 대대는 지난 밤 적 1개대대가 갈령 쪽에서 이 일대를 지나 후방지역 상주 쪽으로 침투하고 있다는 주민의 제보(提報)를 군경 정보대를 통하여 확인한 뒤 즉각 행군을 중단하고 적정파악 및 지형정찰에 나섰다.¹⁶⁷⁾

이곳은 산간도로인 보은-화령장-상주 도로와 괴산-갈령-화령장-상주 도로의 합류지역으로 소백산맥에서 상주로 가는 중요한 요충지역이었다. 그러나 국군 제1군단은 지금까지 괴산-상주 도로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¹⁶⁸⁾

정찰을 나간 제1대대는 적의 전령 1명을 포획하여 “대대는 상주를 바라볼 수 있는 273고지를 점령하였음”이라는 연대장에게 보내는 문서를 입수하였으며, 이 적은 제15사단 제48연대의 1개대대임을 알게 되었다.¹⁶⁹⁾ 이에 대대장은 곧 이어 적의 후속부대가 진출할 것임을 간파하고 즉각 병력을 상곡리 일대에 배치하여 기습을 위한 준비를 갖추었다.

이날 오후 드디어 적 제48연대(-)의 접근이 관측되었다. 이 무렵 적 제2군단장은 “국방군이 산악로나 협곡 좌우측에서 매복을 기도하고 있으니 경계를 강화하라.”는 전투명령을 하달하였으나,¹⁷⁰⁾ 이들은 상곡리 일대에 도착하자 바로 행군을 중단하고 휴식에 들어가 일부는 도로 옆 이안천에서 목욕하기도 하고, 일부는 마을과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휴식하였다. 바로 대대가 매복하고 있는 정면에서 벌어지는 장면이었다.¹⁷¹⁾

천재일우의 기회를 맞은 대대는 19:00 대대장의 사격명령에 따라 400여 명의 총구가 불을 뿜었고 박격포와 기관총도 무차별 사격을 가하는 등 1시간 이상 전투가 계속되었다. 무방비상태로 있던 적은 기습사격에 속수무책으로 혼란에 빠져 많은 병력이 사살되었으며, 요행히 도주한 자들도 상당수가 부상을 입었다. 날이 어두워지자 대대는 명일 연대주력이 도착하면 소탕전을 전개하기로 하고 우선 적의 퇴로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였다.

제17연대장은 연대 주력을 다음날 새벽까지 화령장으로 이동시켰으며, 이러한 상황보고를 받은 육군본부는 이 일대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제17연대로 하여금 제1군단 지휘하에 작전을 계속하도록 하였다.

한편, 18일 오후 연대 수색대는 갈령을 넘어 남하하는 적 전령 2명을 포획하

여 그들이 소지하고 있던 중요한 작전문서를 입수하였다. 이 문서는 사단장이 제48연대장에게 중간보고를 독촉하는 내용과 곧 제49연대와 함께 김천 방면으로 진출할 준비를 갖추라는 내용이었다.¹⁷²⁾ 따라서 제17연대는 적의 사단장이 아직 제48연대가 기습당한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불원간 제49연대도 이곳을 통과할 것을 알게 되었다.

연대장은 즉시 제2대대를 동관리로 전진시켜 기습준비를 명령하였다. 대대는 이날 야간 각 중대를 도로를 따라 배치하고 기관총 및 박격포의 설치도 완료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대기하였으나, 다음날 오후 무렵 적의 보급 우마차 10여 대를 격파한 것 외에 특별한 걱정이 없었다.

이날 저녁 예비인 제3대대가 제2대대 좌측으로 추진되어 방어력을 강화하였다. 연대는 여기에서 보급을 추진받았고, 화령강 주민과 청년단원들로부터 적정 수집·탄약운반·취사·의료·경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 사기가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¹⁷³⁾

제2대대가 동관리 일대에서 기습준비를 갖추고 대기한 지 약 이틀이 지난 7월 21일 05:30 드디어 적의 접근이 탐지되었다. 이들 역시 특별한 경계 없이 안개가 짙은 도로를 따라 4열중대로 접근함으로써, 매복전술에 각별히 유의하라는 그들 군단장의 전투지령을 무시하고 있었다.¹⁷⁴⁾ 제2대대는 적의 대열이 화망 깊숙이 들어오도록 기다린 다음 사격명령에 따라 일제히 집중사격을 가하였다.

근거리에서 사격을 받은 적의 대열은 순식간에 분산되어 제대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쓰러졌고 사방으로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적은 산과 논으로 심지어 도로변 배수관까지 숨는 자도 있었으나, 대부분이 소탕되어 도로변과 주위 논 바닥에는 적의 시체로 가득하였다. 당시 연대장과 함께 당도한 미고문관도 30년 군생활에서 이처럼 통쾌한 전투는 처음 보았다고 하였다.¹⁷⁵⁾

제2대대는 전장정리를 마무리하던 오후부터 적의 포탄이 날아들기 시작하자 고지대인 봉황산으로 이동하여 적의 반격에 대비하였다. 이때 연대장은 22일 제1사단이 화령장으로 투입될 것이며, 미 제25사단 제24연대가 다음날 투입될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국군 제1사단은 전선정리계획에 따라 춘양으로 진출하려던 중 화령장의 상황이 확대되자 21일에 “즉각 화령장으로 이동하라.”는 수정명령을 받고 보은에서 이곳으로 투입되었으며, 미 제24연대는 역시 전선정리계획에 따라 상주지역을 방어하게 된 미 제25사단이 국군 제1사단 작전지역을 인수받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7월 22일 적 제15사단은 제48·제49연대가 와해된 후 잔여병력으로 국군 제17연대 측방을 위협하였다. 연대는 먼저 도착한 미 제24연대 지원포병대대의 지원하에 적을 저지하다가, 국군 제1사단이 연대의 양측방으로 진출함에 따라 작전지역을 제1사단에 인계하였다.

국군 제1사단은 작전책임을 인수받은 후 24일까지 적을 저지하다가 상주 북쪽에서 미 제25사단 제24연대가 화령장에 도착하자 다음날 작전지역을 인계하고 제17연대와 함께 상주로 이동하였다. 이후 제1사단은 군단 재편성계획에 따라 제2군단으로 전환되어 제6사단이 고전하고 있는 함창으로 전진하였으며, 제17연대는 대구를 경유하여 합천 부근 권빈리에 투입되었다.

미 제24연대(화이트 대령 : Horton V. White)는 7월 25일 화령장 일대의 작전지역을 인수한 후 낙서리(상주 서쪽 16km)에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연대는 연대장과 대대장을 제외하고는 전원 흑인(黑人)으로 구성된 부대로서 비교적 전의(戰意)가 부족하여 적의 소규모공격에도 후방으로 도주하고 또 접적 없이 임의로 후퇴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29일 연대는 적의 박격포 사격을 받고 진지를 무단철수하여 10km 이상 후퇴하였다. 이에 사단장이 30일 전장 군기를 확립하기 위해 제35연대 제1대대를 후방에 배치하여 독전임무를 부여하는 한편, 진지이탈자를 군법회의에 회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다음날 적의 압력을 받고 또다시 후퇴하여 제35연대 제1대대 진지로 집결한 다음 상주 남쪽으로 철수하였다.¹⁷⁶⁾

(2) 梨花嶺-咸昌 부근 戰鬪

수안보에서 적을 지연하다가 철수한 국군 제6사단은 금강-소백산맥선 방어계획에 따라 소백산맥의 요충인 이화령과 조령을 포함한 문경 정면을 전담하였다. 이 일대는 평균 700~1,000m의 소백산맥 준봉들이 뻗어 있어 충주-함창을 잇는 도로 이외에는 대부분이 산간 소로로서 도로망이 매우 빈약하다.

사단장 김종오(金鐘五) 대령은 도로상의 관문인 이화령과 조령에 주안하여 험준한 지세를 이용한 거점방어태세를 취하기로 하여 제2연대(威柄善 대령)를 이화령에, 제19연대(閔丙權 대령)를 조령에 배치하고, 제7연대(林富澤 중령)를 예비대로 삼았으며, 제16포병대대 및 공병대대 등 전투지원부대들도 일선 양연대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반면, 수안보에 집결한 인민군 제1사단은 문경-함창-상주 축선으로 진출하고자 공격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적 제2군단장은 배속된 제13사단(-)을 이화령 서측방으로 침투시킬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¹⁷⁹⁾ 적은 주간기동에 큰 장애를 받고 있었으며, 소백산맥을 넘기 전까지는 제대로 전차를 투입하지 못하였다. 적 제1사단의 선두부대는 7월 13일 2개 포병대대와 함께 이미 연풍지역에 집결하여 공격준비를 갖추고 있음이 정찰 결과 밝혀졌다.

다음날 적 제1사단 제2연대가 드디어 이른 새벽의 짙은 안개를 틈타서 국군 제2연대를 돌파하고자 공격을 개시하였다.¹⁷⁹⁾ 제2연대는 적의 우세한 병력과 화력으로 인하여 방어선 일부가 돌파되어 한때 밀리게 되었으나, 다행히 이화령 우전방에 제2대대가 축차적인 진지를 점령하면서 적의 진출을 저지하고 있었으므로, 포의 지원하에 제1·제3대대가 지형적인 이점을 이용하여 적시에 역습함으로써 전황을 크게 역전시켰다.¹⁷⁹⁾ 적은 오히려 퇴로가 차단되자 야포 및 장갑차, 보병화기까지 유기한 채 분산도주하였으며, 제2연대는 연풍삼거리까지 추격전을 전개하여 이날 전투에서 사상 800여 명, 포로 7명, 장갑차 3대, 트럭 10대, 포 3문 등의 전과를 달성하였다.¹⁸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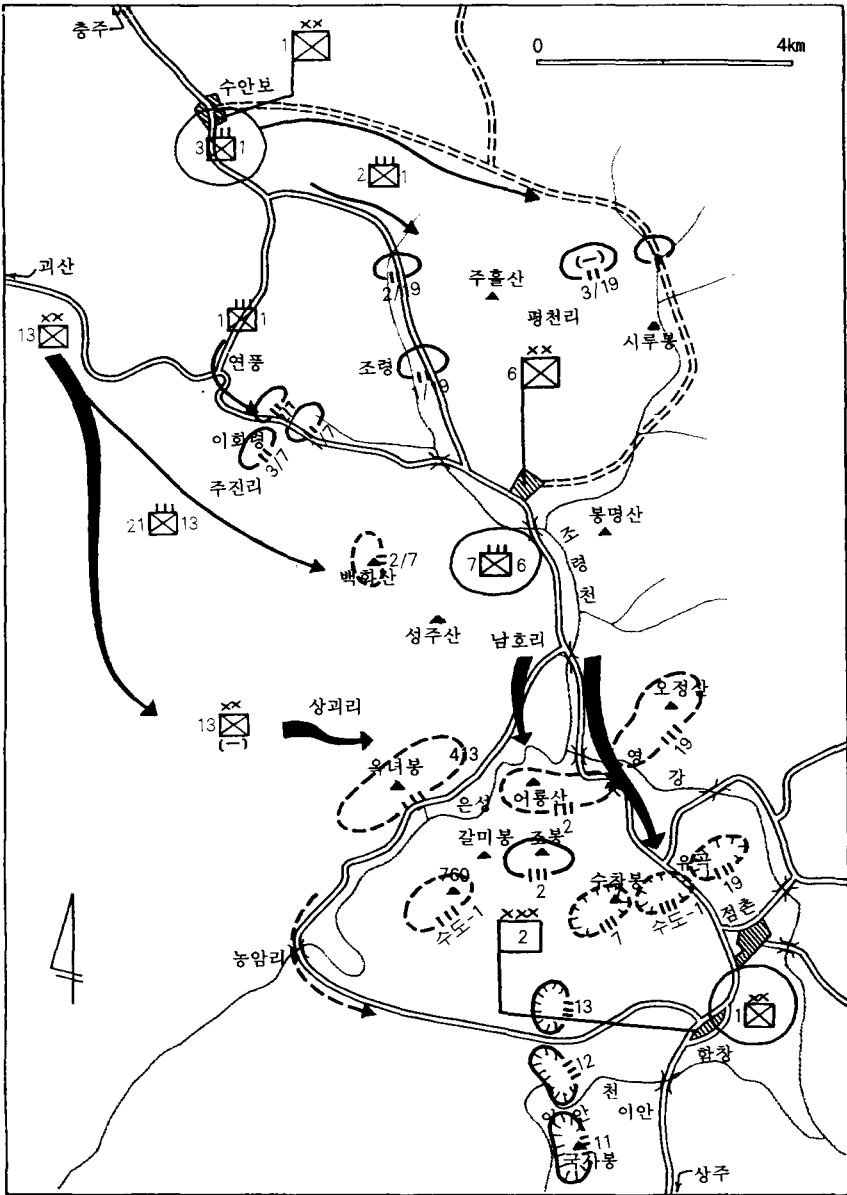
그 동안 조령 돌파를 목표로 산악으로 기동한 적 제1사단 제3연대는 15일 미명부터 제19연대 주력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조령관문에 중심으로 배치된 제2, 제1대대가 치열한 백병전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시간 간격으로 축차 돌파됨으로써 조령관문이 적의 수중에 넘어갔고,¹⁸⁰⁾ 제19연대 주력이 문경 외곽고지 일대로 철수함에 따라 제2연대가 적중에 돌출되었다.

한편, 이화령 서남방 주진리에서도 적의 출현이 확인됨으로써 예비인 제7연대가 진출하여 적의 선봉부대를 격퇴하고 차후의 공격에 대비하였으나,¹⁸⁰⁾ 이들의 주력인 적 제13사단(-)이 이미 문경 점령을 목표로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조령을 점령한 적 제1사단은 7월 16일 주공을 문경 정면으로, 조공을 사단의 양측방으로 지향하여 총공격을 감행하였다. 이에 제2연대와 제19연대는 적을 맞이하여 혈전을 거듭하였으나 방어진지가 돌파됨으로써 문경 남쪽 남호리 일대로 철수하기에 이르렀으며, 다만 제7연대가 포병대대의 지원하에 성주산, 옥녀봉으로 물러나면서 서측방으로부터의 적을 저지하고 있었다.¹⁸⁰⁾

이날 오후 유엔 공군이 두 차례 출격하여 적의 집결지를 강타하였으나 제19연대에 오인사격을 가하여 한때 혼선을 빚기도 하였다.¹⁸⁰⁾ 문경 남쪽에서 부대를 수습하던 제6사단장은 군단으로부터 전선의 조정과 적 제13사단의 진출

이화령-합창 전투



을 고려한 철수명령을 하달받고, 17일 미명 다시 점촌 북방 영강 일대로의 철수를 명령하였으며, 이때 함창에 배치된 미 제35연대도 전차를 동반한 1개의 특수임무부대를 급파하여 엄호태세를 취하였다.

영강 일대의 신진지로 철수한 국군 제6사단은 즉시 정면의 적 제1사단과 서측방의 적 제13사단(-)의 공격에 대비하여 제7연대를 옥녀봉, 제2연대를 어룡산, 제19연대를 오정산 일대에 각각 배치하여 진지편성에 주력하였다. 쌍방의 작전상 문경-유곡-함창으로 이어지는 도로의 확보가 대단히 중요하였다.

이 무렵 인민군 제2군단은 점촌을 목표로 제1사단을 문경에서 점촌 쪽으로, 제13사단(-)을 상괴리에서 은성 쪽으로 진출시키면서 진출속도를 재촉하고 있었다.

상괴리로 우회한 적 제13사단(-)이 19일 먼저 돌출된 제7연대 진지를 공격하였다. 이들은 주공으로 제7연대를 공격하면서 조공으로 제2, 제7연대의 전투지경선을 뚫고 돌입함으로써 연대의 우측방의 진지 일부가 돌파되었다. 제7연대장은 예비인 제2대대마저 투입하여 적을 저지하려 하였으나, 다음날 옥녀봉이 피탈됨으로써 결국 영강 남안으로 철수하고 말았다. 이날 유재홍 군단장이 사단지휘소를 방문하여 전 전선상황에 비추어 점촌-함창 축선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곧 수도사단 제1연대와 미 제25사단의 155mm 포가 지원될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하였다.¹⁸⁰⁾

인민군 제1사단과 제13사단(-)은 21일부터 포병, 전차의 지원하에 주저항선으로 총공격을 감행하였다. 제7연대와 제19연대는 각각 적 1개연대 규모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있었으나, 중앙의 제2연대가 2개 방향으로 공격을 받아 어룡산이 피탈되었고, 이와 동시에 또 다른 일단의 적이 전차 4대를 앞세워 문경-유곡 도로를 따라 영강을 도하하여 문경탄광 부근까지 진출함으로써 사단 주저항선마저 돌파될 사태를 맞게 되었다.

사단장은 즉각 포병 및 항공지원을 요청하였고, 군단장도 미 제25사단장에게 전차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미 공군 편대(F-80)가 즉각 출격하여 적의 집결지와 전차를 폭격함과 동시에 미 155mm 포 6문이 추진되어 대대적으로 적을 포격하였다. 제2연대는 미 전차 1개소대(M2 5대)를 지원받아 역습을 가하여 적을 축출하고 다시 어룡산을 탈환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다.

22일까지 각 연대는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치른 끝에 대체로 현 전선을 유지하였으며, 이날 특기할 것은 제7연대의 옥녀봉 탈환전에 학도의용군(180명)이

참전하여 전투를 수행하였다.¹⁸⁶⁾ 제7연대는 연일의 격전으로 부대정비가 시급하였으므로 어제 도착한 제1연대와 교대하고 예비대로 전환하였다.

7월 23일 새벽 적 제1사단은 문경-유곡간 도로로 전차 7대를 선두로 연대규모로써 진남교 부근에서 도하공격을 개시하였다. 제2연대는 전차 3대와 155mm 곡사포 및 대전차포중대까지 동원하여 화력을 집중하였지만 방어선의 일각이 돌파되고 말았다. 적은 전차 4대가 진남교를 통과하자 2개대대로써 문경탄광의 제1대대 진지를 공격하여 발판을 확보한 다음 일부는 계속적인 돌파를 기도하였다. 이때 서측방 조봉마저 적에게 피탈됨으로써 사단장은 불가피하게 유곡리 일대로의 부대철수를 명령하였으며, 이를 엄호하기 위해 제7연대가 즉각 공병대와 미군전차중대로 증강하여 유곡으로 복상하였다.

사단장은 다시 유곡리를 중심으로 반월형 진지를 편성하는 한편, 이 일대의 중요한 감제고지를 탈환할 것을 결심하고 다음날 24일 미명 제7, 제2연대로 반격을 개시하였다. 제2연대는 7시간의 연속적인 공격으로 마침내 조봉을 탈환하였으나,¹⁸⁷⁾ 제7연대는 유곡 부근의 제19연대가 적의 역공을 받기 시작하였으므로 서측방이 노출되어 다시 반전하였다. 제19연대는 격전을 수행하다가 때마침 유엔공군 2개편대의 지원을 받아 적을 격퇴하였다. 이날 전투에서 국군 제6사단은 적 병력 약 500여 명을 살상한 것으로 보고되었다.¹⁸⁸⁾

인민군 제2군단장은 그 동안 제1사단의 진출이 부진하자 25일 제13사단(-)마저 동북으로 이동시켜 정면돌파를 개시하였다. 이에 국군 제6사단은 사단 서측방의 제1연대를 유곡으로 이동시켜 유곡-점촌 축선의 방어력을 강화하고 가용한 전 화력과 유엔 공군의 지원을 받아 맞서 제19연대가 대전차특공대로써 선두전차 4대를 육탄공격하면서 방어하였고, 제2연대도 조봉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결국 중앙의 수도사단 제1연대가 격전 끝에 유곡을 상실하고 말았다.

제6사단은 다음날 점차 적 전차의 위협이 가중되고 적의 포화가 점촌의 사단 지휘소까지 미치고 있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었으나, 때마침 국군 제1사단 주력이 함창으로 진출함으로써 제6사단의 돌파위기를 극복하게 되었다.

국군 제1사단은 함창에서 해체된 제2사단 제5연대와 제20연대를 제11·제12연대에 각각 통합 재편성한 후 제13연대를 함창 서북에 배치하여 제6사단 좌일선과 연계하고, 즉각 제11·제12연대로 반격준비에 들어갔다.¹⁸⁹⁾ 따라서 26일부터 이 일대의 작전은 군단규모로 발전하였고, 제6사단의 방어선은 조봉이동으로 축소되었다.

마침내 영강 동쪽으로 추진한 제1사단(백선엽 준장 25일부 승진)은 군단명령에 따라 제6사단 정면의 적을 차단포위하기 위해 27일 미명부터 즉각 반격에 나서 오정산 일대를 탈환함으로써 적의 퇴로를 위협하였다. 적 제1사단과 제13사단(-)은 퇴로차단의 위협을 받아 일시에 와해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동시에 제6사단도 유곡 남쪽에서 전면적인 반격에 나서 제19연대와 제1연대는 신기리와 유곡 일대를 탈환하였으며 동시에 제7연대와 제2연대도 조봉 일대의 적을 완전히 격퇴하였다.

적 제1사단과 제13사단(-)은 병력과 장비 면에 많은 손실을 입으면서 영강 북쪽 고지 일대로 철수하였으며, 특히 제13사단(-)은 태반의 병력손실을 입어 사단의 기능을 거의 상실하게 됨으로써 7월 말까지 부대재편에 들어갔다.¹⁹⁰⁾

한편, 반격작전 후 국군 제6사단이 유곡에서 방어진지를 강화하고 있는 동안, 국군 제1사단은 군단명령에 따라 함창으로 철수하여 제6사단과 연결하여 함창 서북방을 방어하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았다. 제13연대는 함창 서북방 도로와 이안천변을 중심으로 방어진지를 점령 중이었고, 제11·제12연대는 함창에서 부대를 정비하고 있었다. 이 무렵부터 보급지원체제도 점차 정상화됨으로써 각종 장비의 보급이 이루어져 사기가 크게 제고되었다.

반면, 인민군 제2군단장은 제1사단과 제13사단(-), 제109전차연대가 많은 손실에도 불구하고 유곡 정면돌파에 실패하자, 28일부터 작전을 크게 변경하여 제1사단을 서측 도로로 우회시켜 함창 서북방면으로 진출시키고 있었다. 적정 분석과 주민 제보에 의하면, 적은 지난밤부터 장갑차를 동반한 연대규모 병력이 농암리 일대로 침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국군 제1사단장은 함창 서북방에서 적정이 확인되자 즉시 모든 지원화력을 그곳으로 지향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정비 중인 제11·제12연대를 즉각 투입하여 도로와 이안천을 중심으로 방어력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우일선 제13연대가 도로 우측 고지에, 중앙일선 제12연대가 도로 좌측 고지에, 좌일선 제11연대가 이안천 남안 국사봉 일대에 배치되어 진지를 편성하였다.

7월 29일 미명, 적 제1사단은 제13연대 정면과 제6사단과의 접경지역으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13연대 제1대대는 즉각 제6사단 포병으로부터 지원사격을 받아 적을 저지하였고, 제2대대는 4대의 장갑차를 선두로 적 1개연대가 도로상으로 접근해 오자 미리 계획된 화력으로써 집중사격하여 격퇴하였다.¹⁹¹⁾ 포로진술을 통해 정면의 적은 제1사단이며, 그들 병력의 태반이 강제징집 청소년으로

편성되어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인민군 제1사단은 결국 수차례의 공격실패와 설 새 없는 공습 및 포격으로 인하여 전투력의 태반을 상실하여 제13사단(-)에 뒤이어 접촉을 단절, 은척산 일대로 잠입하여 부대재편에 들어갔다.

이처럼 인민군 제1사단과 제13사단에 심대한 손실을 가하고 상주로의 진출을 차단한 국군 제2군단은 7월 31일 육군본부로부터 낙동강선으로 철수하라고 명령을 받음으로써 이 지역의 작전을 종결하고, 제6사단이 제1사단의 엄호하에 성주 용기동으로 철수하고 이어 제1사단이 낙동리로 철수하게 되었다.¹⁹⁰⁾

(3) 竹嶺-安東 부근 戰鬪

국군 제8사단은 단양이 실함된 후 죽령에서 적을 방어하고 공세이전한다는 복안¹⁹¹⁾하에 촉차적으로 적을 지연하다가 7월 12일 야간에 죽령 일대로 도착하였다. 그러나 이때 사단장은 적의 추격을 고려하여 죽령보다는 오히려 풍기에서 적을 유인하여, 격멸하기로 작전방침을 변경하고 다시 부대를 풍기로 철수시켰다.

풍기는 단양-안동 간의 국도와 중앙선이 통과하고 사방이 고지군으로 둘러싸여 분지를 형성하고 있다. 사단장 이성가(李成佳) 대령은 7월 12일 자정 무렵 사단이 풍기에 도착하는 즉시 양동작전을 전개하기로 결심하고, 모든 차량에 불빛을 밝혀 영주로 기동시켜 철수하는 것처럼 기만하는 가운데 신속히 부대를 정비하여 풍기를 중심으로 중앙선 축선도로 좌우측에 부대를 배치하였다. 제21연대(김용배 중령)가 우측 고지군에, 제10연대(고근홍 중령)가 좌측 고지군에 진지를 급편하였는데 그 지형으로 인하여 부대배치가 ‘V’자형을 이루었다.¹⁹²⁾

반면, 인민군 제2군단장은 중동부전선상의 국군의 일반적인 전술에 대하여 “주력부대를 협곡 좌우측 고지에 매복하고 도로전방에는 소수병력을 배치하여 중심 깊이 유인한 후 기습을 기도하고 있다.”고 분석하여, 예하 각 사단에 신속히 대처할 것을 지시하고 있었다.¹⁹³⁾ 죽령까지 추격한 인민군 제8사단은 그 동안의 전투손실로 인하여 12일 밤부터 14일 아침까지 약 이틀간의 재편성을 한 후 죽령을 넘기 시작하였다.

적 제8사단의 1개연대는 14일 오전 풍기 북쪽 창락동 일대에 집결한 다음 먼저 선발대 1개대대를 투입하여 도로를 따라 V자형 살상지대 안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국군 제8사단은 적이 중심 깊이 진입하자 약정된 신호와 동시에

집중포격과 일제사격으로써 적에게 대대적인 타격을 주어 격퇴하였다.

다음날 미명, 적은 여전히 1개연대의 병력으로써 국군의 탄막지대를 정면 돌파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역시 제10, 제21연대의 계획된 화망에 걸려 1개대대 이상의 손실을 입고 격퇴되었다. 오후 무렵 적은 방어선 전정면에 포격을 집중한 후 대대규모의 병력으로 제10연대의 좌전방 일대를 우회공격하였으나 역시 격퇴되었다.

결국 적은 지금까지의 손실 때문인지 이후부터 접촉을 단절하였고, 국군 제8사단도 잠시의 소강상태를 이용해 부대를 정비하고 육군본부로부터 1개 포병중대(신형포 M-2, 105mm 곡사포 6문)를 배속받는 등 차후작전에 대비하였다.

이 무렵 인민군 제2군단은 작전을 크게 전환시키고 있었다. 군단장은 풍기돌파에 실패하자 전력이 약화된 제8사단을 단양-예천-안동으로 우회하도록 하고, 단양에서 정비 중인 제12사단에 풍기-안동 축선으로 공격하도록 임무를 부여하였다.¹⁹⁶⁾

적 제12사단은 제8사단의 포병연대까지 작전통제하에 둠으로써 화력을 증강하였으며, 이들의 작전기도는 먼저 강력한 집중포격으로써 국군의 지원화력을 무력화시킨 후 주력을 투입, 일거에 영주까지 진출하려는 것이었다.

공격준비를 갖춘 적 제12사단이 7월 18일 미명 드디어 국군 제8사단의 주저항선인 장군봉과 노인봉 일대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국군 제8사단은 적의 집중적인 포격으로 진지가 붕괴되고, 방어선 중앙인 제21연대의 좌전방이 돌파되자, 마침 출격한 유엔 공군의 지원을 받아가며 축차진지로 전환하여 적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한편, 이날 사단에는 개전 이후 최초로 민간인 노무자가 배치되었다. 이로써 전방부대에 식량과 탄약 등 보급추진의 원활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¹⁹⁷⁾

적 제12사단은 7월 19일 미명에 주공을 제10연대 정면에 두고 공격을 집중하였다. 제10연대는 결국 이 공격에 방어선상의 주요 고지군이 피탈되어 영주 방어를 위한 거점을 상실하게 되었다.

사단장은 적극적인 역습으로써 주저항선을 회복하기로 결심하고 양 연대에 역습명령을 하달하였다. 공격부대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다음날 미명 적으로부터 반격을 받아 사단방어선 남쪽 고지 일대까지 피탈됨으로써 영주의 확으로의 철수가 불가피하였다. 다행히 때마침 유엔 공군이 1개편대가 출격하여 적을 강타하였으며, 또 우연히 제21연대 제3대대가 매봉산에서 영주 방향으

로 접근하는 일단의 적을 발견하고 기습격퇴함으로써 일시 적의 공격속도를 둔화시켰다.

결국 국군 제8사단은 7월 20일 야간 풍기-영주 도로를 중심으로 영주 외곽의 서측 고지 일대에 제10연대를, 동측 고지 일대에 제21연대를 배치하여 진지를 급편하였으며, 이날 재편성계획에 의거하여 도착한 제2사단 제25연대 제1대대를 제21연대에 편입하였다. 이날 자정 무렵 제10연대는 제2대대의 2개중대 병력으로써 매복작전을 전개하여 적 1개대대를 격퇴하고 추격전까지 전개하였다.¹⁹⁰⁾

이 무렵 적 제2군단은 제12사단이 8일간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진출이 부진하자 전차와 자주포를 증원함과 아울러 적 제8사단을 예천을 경유 영주 남쪽으로 우회시켜 협공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영주지구의 전투양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면의 적 제12사단은 7월 22일 폭우에도 불구하고 주공을 사단방어선의 중앙으로 투입하여 제21연대의 좌전방 고지를 장악한 후 계속적인 진출을 기도하였다. 영주실함을 목전에 둔 제21연대장은 오히려 제25연대 제1대대에 대전차포중대를 배속시켜 기습적인 반격을 가함으로써 상실한 고지를 탈환하였다.¹⁹¹⁾

자정 무렵 적 제12사단은 다시 전차 5대와 자주포 4문을 앞세워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사단은 영주로 물러나면서 힘겹게 저지하고 있었으나, 전선상황과 사단의 여건을 고려하여 작전상 철수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사단은 유엔 공군편대가 적을 강타하는 틈을 이용하여 철수를 개시함으로써 23일 오전 영주읍을 상실하였다. 육군본부는 영주실함 보고와 아울러 예천 북방의 적이 영주 방향으로 북상하고 있다는 항공관측 보고를 받고 즉각 수도사단 제18연대 일부를 제8사단 지역으로 투입하였다. 국군 제8사단은 이의 엄호하에 철수, 옹천북방 내성천에서 방어진지를 편성하였고, 여기에서 국군의 재편성에 따라 도착한 제2사단 제16연대(김동수 중령)를 편입함으로써 비로소 완전한 3개연대 편성을 갖추게 되었다.

국군 제8사단은 24일부터 수도사단과 더불어 제1군단에 편성되었으며 추격하는 적 제12사단을 맞이하여 내성천 일대에서 지연하고 있었으나, 이때 서측에서는 적 제12사단이 의성-안동으로, 동측에서는 적 제5사단 일부와 제766부대가 청송-안동 방향으로 압박하고 있었다.

안동은 낙동강 상류에서 중앙선 축선상 교통의 중심지로서 대구·영천·포항 방면으로 이르는 도로의 분기점이기도 하다. 드디어 피아는 안동공방전에 들어

가게 되었다. 국군 제8사단은 군단계획에 의거 안동을 방어하기 위해 용천에서 철수, 29일 안동 외곽에 중앙선 축선을 중심으로 방어편성을 하였다.

제8사단과 아울러 안동방어임무를 부여받은 수도사단은 보은에서 이동한 후 제18연대가 제8연대 병력을 흡수하여 예천에서 이곳을 장악하고 있던 일부의 적을 격퇴한 후 적 제8사단과 대치하고 있으며, 제1연대도 제6사단에서 배속 해제되어 예천-안동 사이 풍산으로 진출하였다.

30일 미명부터 적 제12사단은 주력을 중앙 일선인 제21연대 정면으로, 조공을 좌우의 제10연대와 제16연대로 지향하여 3개 방면에서 공격을 개시하였다. 국군 제8사단은 수시간에 걸친 치열한 접전 끝에 유일선 제16연대가 많은 손실을 입으면서 진지가 돌파되었고, 더 이상 방어선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안동 방어의 최후방어선인 오산동 일대로 축차적인 철수를 하였다.

사단은 오후에 3개연대 모두를 전방에 배치하여 급편방어진지를 편성하였고, 적 기갑부대의 진출을 지연시키기 위해 공병대대로 하여금 전방의 도로를 파괴 및 봉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단방어선은 안동에서 6km 거리에 불과하였으므로 안동읍내에는 이미 적의 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하여 위기가 고조되고 있었다.

한편, 이날 수도사단도 예천의 제18연대가 적 제8사단에 의해 퇴로가 차단되어 포위망 속에서 고전하다가 제2군단에 배속되어 함창으로 이동함으로써 예천이 실함되었으며, 군단장은 풍산의 제1연대를 안동으로 이동시켜 제8사단을 지원하게 하였다.

31일 새벽 적 제12사단은 전차를 선두로 주공을 중앙의 제21연대 정면에, 조공을 좌우의 제10·제16연대에 지향하여 대대적인 공격을 재개하였다. 제21연대는 전차 4대를 앞세운 적 1개연대의 공격을 받고 일시 진지가 피탈되었으나, 병력을 수습한 후 유엔 공군기의 근접지원하에 다시 역습을 감행하여 진지를 회복하였다. 제10연대는 정면으로 전차를 앞세워 진출하는 적을 격퇴하기는 하였으나 최초로 보급받아 맥현 일대에 배치한 5문의 3.5" 로켓포는 조작의 미숙으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다.²⁰⁰⁾

이 무렵 육군본부는 낙동강방어선 형성계획에 따라 7월 31일 24:00에 안동을 철수하도록 명령하였다. 국군 제1군단은 철수시간이 임박한 20:00부터 제8사단과 수도사단 참모들을 소집하여 작전회의를 개최하였고, 회의시간도 8월 1일 01:00까지 지체됨으로써 작전에 매우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결국 군단은 7월 31일 24:00 제8사단이 먼저 수도사단의 엄호하에 철수한다는 내

용을 하달하였고, 사단으로 복귀한 참모들은 유무선이 통제된 관계로 연대 작전주임을 소집함으로써 더욱 지체되어 04:00에서야 철수를 개시하였으며 미처 명령이 전달되지 못한 부대도 많았다.²⁰¹⁾

제8사단장은 접적이 경미한 제10·제21연대순으로 철수하도록 하고, 제16연대는 수도사단 제1연대의 엄호하에 후위로서 철수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제10연대가 방어선을 이탈하기 시작하여 06:30-07:30에 인도교를 통과하였고, 그 즉시 인도교와 철교는 폭파되었다.

교량폭파는 최초 8월 1일 06:00에 폭파하기로 계획되었으나 현지협조를 위해 군단참모장 최덕신 대령이 현장에서 직접 통제하였다. 최 대령은 이미 제21연대가 미처 당도하기 전에 적의 추격을 받고 있고, 또 이미 교량은 적에 의해 강제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제8사단장과 협의하에 07:30경 두 개의 교량을 폭파하도록 명령하였다.²⁰²⁾

제21연대는 미처 강안에 당도하기 전에 교량이 폭파됨으로써 추격한 적과 강을 등지고 사격전을 전개하였다. 결국 병사들은 적의 기관총사격이 집중되자 장비를 모래 속에 묻고 강으로 뛰어들으로써 적의 조준사격으로 인한 사상자와 익사자가 속출하였다.²⁰³⁾ 설상가상으로 수도사단 제1연대 병력마저 후속하여 혼합됨으로써 혼란상은 극에 다다랐다. 제1연대는 아침 무렵 진지가 돌파되기 시작하고 또 철수부대를 목격한 병사들이 진지를 이탈하기 시작함으로써 결국 분산철수하였다.

철수과정에서 제16연대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 연대는 적 1개연대와 치열한 접전 중이었으므로 06:00 무렵에야 철수명령을 받았다. 연대는 제1연대 진지의 돌파로 적에게 포위되어 각개로 철수하였고, 포위망 돌파와 도하과정에서 연대병력 중 장교 21명, 사병 814명이 전사 또는 실종되는 손실을 입었다.²⁰⁴⁾

도하철수를 완료한 제8, 수도사단 병력은 이날 군단의 명령에 따라 낙동강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계획된 구미동-상아동에 이르는 낙동강 방어진지로 철수를 개시하였다.

3. 寧海-盈德 遲延戰

7월 10일 국군 제3사단장에 임명된 이준식(李俊植) 준장은 육군본부로부터 제23연대와 독립제1대대로써 영해-영덕 간을 방어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²⁰⁵⁾

이때 제23연대는 평해에서 철수하여 영해에서 재편성 중에 있었다. 사단은 유엔 함대, 항공기 및 야포 등의 지원 아래 적을 축차적으로 지연한다는 작전방침을 세워 12일까지 영해남방 목골재-가마실재에서 진지편성에 주력하였다.

반면, 인민군 제5사단은 그 동안 유엔 해·공군의 폭격과 병참선의 신장으로 기동속도가 현저히 둔화되어 뒤늦게 영해로 진입한 후 영덕을 목표로 제11연대와 제12연대를 해안도로로, 제10연대를 진보-청송 방향으로 우회시킬 준비를 갖추고 있었으며,²⁶⁶⁾ 태백산으로 잠입한 제766부대는 이미 청송 방면으로 진출 중에 있었다. 이들은 다른 부대와 마찬가지로 보급품을 운반할 노무자나 병력을 강제로 징집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큰 반감을 사고 있었다.²⁶⁷⁾

이 일대의 작전지역은 영덕-강구 간의 해안도로가 강구를 정점으로 역삼각형으로 이루어져 방어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고 있으며, 영덕에서 포항까지 45km의 거리는 병력의 열세를 해·공군의 지원으로써 만회하여 지연전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였다.

적 제5사단은 제10연대를 진보 방면으로 우회시키고 14일부터 양개 연대로써 영해 남쪽진지에 대한 본격적인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23연대와 독립제1대대는 병력과 화력의 열세로 인하여 방어진지가 돌파되기 시작하자 명령에 따라 축차진지로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연대는 철수시 영해-영덕 간 교량과 터널 및 도로를 파괴하였고, 유엔 공군기와 함대가 적의 집결지와 접근로를 강타하여 적의 진출을 지연시켰다.²⁶⁸⁾

적은 유엔 해·공군의 폭격으로 인하여 많은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진출부진을 만회하려는 듯 야음을 이용하여 계속적인 추격을 시도하였고, 결국 연대는 새로운 저지선에서 진지를 강화할 틈도 없이 적의 공격을 받아 16일 자정 무렵 진지가 돌파될 위기에 처하였다.

17일 오전 사단장은 현 전선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 일단 연대를 영덕 이남으로 철수시키되 적의 주력이 영덕으로 진입하면 즉시 해·공군의 화력을 지원받아 영덕을 탈환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철수명령을 하달하였다.²⁶⁹⁾ 이에 따라 제23연대는 주력을 영덕 남쪽 181고지, 207고지에, 독립대대를 208고지에 배치하고 탈환을 위한 준비를 갖추었다.

이날 저녁 적 제5사단(-)이 영덕으로 진입하자 다음날 미명부터 사단장의 요청으로 출동한 포항의 전투비행대대와 유엔 함대가 7월 18일 미명 영덕 시가지 및 주변 일대를 강타하기 시작하였다. 적은 이 포격과 폭격으로 많은 손실을

입은 채 영덕 북방으로 퇴각함으로써 제23연대는 무난히 영덕을 탈환할 수 있었으나,²⁰⁾ 다음날 곧 이은 적의 공격으로 다시 상실하였다.

이와 같이 영덕을 상실하고 동해안 방면이 위기에 처하자 20일 워커 중장이 제5공군사령관 패트리지 소장과 제25사단장 킨 소장을 대동하고 포항에 도착하여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받았다. 그는 영덕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공군의 화력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총 2개 전투비행대대와 6척의 함대로 증강되었다. 또한 이 무렵 포항에 경계부대로 배치되어 있던 제7기병연대 제1대대가 제23연대의 화력지원을 위해 영덕 남쪽으로 진출하였다.

21일부터 다시 영덕탈환을 위한 작전이 전개되어 유엔 해·공군 및 포병의 지원화력이 집중되었다. 적 제5사단(-)은 병력과 장비 면에서 많은 손실을 입었으나, 군단장의 독전으로 23일 저녁부터 영덕 이남으로 공격을 재개하였다.

제23연대는 181고지, 207고지에 적의 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혈전에 혈전을 거듭하였다. 이 무렵 공방의 초점은 진퇴를 가름짓는 중요한 요충이라 할 수 있는 181고지로 집중되었다. 쌍방은 고지를 둘러싸고 주간에는 주로 국군이 유엔 해·공군의 지원을 받아 공격하고, 또 야간에는 인민군이 공격하는 근접전을 수일간 계속하였으며, 하루에도 수차례씩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었다.

마침 24일 제22연대(강태민 중령)²¹⁾가 대구에서 재편을 마치고 강구에 도착하였고, 뒤이어 해군의 포항경비부에서 편성한 육전대도 강구에 도착하여 제3사단 작전을 지원함으로써 사단의 전투력이 크게 증강되었다.²²⁾ 사단장은 제22연대를 영덕 탈환전에 투입하려 하였으나 181고지, 207고지가 적중에 들어가자 부득이 이의 탈환을 위해 투입하기로 작전방침을 수정하였다.

이에 앞서 제23연대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다. 181고지상의 제3대대 진지 일부가 적에게 기습을 당하여 돌파되자, ‘백두산의 호랑이’라는 별명의 김종원 연대장이 그 책임을 강력하게 추궁하여 소대장 1명과 사병 1명을 즉결처분한 것이었다. 이것은 당시 전장 군기를 확립한 강력한 일면이었으나, 이로 인하여 전장에서 연대장이 해임되고 독립제1대대장이 지휘권을 승계하는 사건으로 발전되었다.²³⁾

25일 저녁 사단장은 먼저 유엔 해·공군의 지원요청과 함께 제22연대에 탈환 명령을 하달하였다. 다음날 12:00부터 함포사격이 시작되어 1시간의 강력한 화력이 집중되자 적의 주력은 퇴각하기 시작하였다. 제22연대는 가벼운 저항을 물리치고 제3대대가 181고지, 제2대대가 207고지를 재탈환하였다. 연대는 이날

야간 적으로부터 수차례 공격을 받았으나 모두 격퇴하였으며, 특히 이 과정에서 제3대대 제12중대 제2소대장 이명수 상사는 12명의 특공대와 함께 적진으로 침투하여 적의 자주포를 파괴하고 1개소대 병력을 섬멸하는 빛나는 전과를 올림으로써 한국 최고의 금성태극무공훈장을 수여받았다. 181고지에 투입된 미군 관측반은 영덕과 그 주변 일대에 포격을 유도하였다.

이들 고지군을 확보한 사단장은 곧 이어 영덕까지 탈환할 것을 결심하고 먼저 유엔 해·공군의 지원을 요청하자, 27일부터 제7함대와 비행대대 및 미 제159야포대대의 1개중대가 영덕 주변을 집중강타하였다. 곧 이어 제23연대가 제22연대를 초월공격을 개시하였으나, 적 제5사단(-)이 전 화력을 동원하여 완강히 저항함으로써 치열한 접전이 전개되었다. 이때 유엔 공군기의 폭격과 아울러 유엔 순양함이 영덕시내를 강타하고, 구축함들이 후방차단사격을 계속하였다.²⁴⁾

이 무렵 워커 장군도 영덕의 전황을 크게 우려하여 매 시간마다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등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었다. 국군 제3사단은 영덕탈환을 위한 삼면합동작전을 수일간 계속하였으며, 마침내 적이 영덕 북방으로 후퇴함으로써 국군 제3사단은 8월 2일 18:00 영덕을 재탈환하는 데 성공하였다.²⁵⁾ 적 제5사단(-)은 지금까지 40% 이상의 손실을 입고 영덕 북방 산간계곡으로 은신하여 부대정비에 들어갔다.

한편, 영덕전투가 한창 전개되고 있을 무렵인 28일 영덕 서측방 진보 방면에는 적 제5사단 제10연대가 제766부대를 후속하여 진출 중이었으며, 청송 동남 주왕산 일대에는 제766부대 병력과 공비가 준동하고 있었다. 진보와 청송은 안동과 영덕의 중간지점이며 태백산맥 서측 산간도로상의 요지로서, 영양-진보-청송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영덕으로 우회하거나 포항, 영천으로 진출하는 데 중요한 접근로이다. 특히 이때 수안보에서 적의 최고사령관이 “산을 타고 측배를 우회하여 진공속도를 높이라.”고 힐책하고 있어 이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었다.

따라서 육군본부는 이 일대의 적을 저지, 격퇴하기 위해 26일 독립기갑연대를 제3사단에 배속하여 진보로 투입하였다. 연대장 유홍수 대령은 연대주력과 장갑차 5대를 진보 반변천 남안에 배치하고, 이 일대에서 공비를 토벌 중이던 강원 경찰대대(김인호 경감)를 통제하여 동측방에 배치하였다. 연대는 장갑차의 엄호하에 경찰 1개중대로써 주왕산에 집결한 제766부대 병력과 공비를 소탕하면서 진지편성에 주력하고 있었다.

적 제10연대는 그 동안 계속된 유엔 공군기의 폭격으로 인해 공격을 중지하

고 있다가 29일에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들은 주력을 반변천의 연대 정면에 집중하고 1개대대로 경찰대대 진지를 우회공격하였다. 연대 주력은 최후 저지사격까지 실시하면서 적을 격퇴하였으나, 8월 1일 미명 경찰대대 진지가 돌파되는 위기에 처하였다.²⁶⁾

독립기갑연대는 장갑차 4대의 지원하에 다음날까지 격전을 전개하였으나, 퇴로차단의 위협을 받아 진보 남쪽 비봉산 일대로 물러남으로써 진보를 상실하였다. 연대는 그 동안 영덕의 제3사단과의 연결을 위한 4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끝내 성공하지 못하여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 이 무렵 안동 남쪽을 방어하던 수도사단이 좌측 길안으로 진출함에 따라 이들과 연결을 이루고 수도사단으로 배속변경되어 적을 계속 방어하게 되었다. 결국 이 작전으로 적 제5사단 제10연대의 영덕으로의 우회기동을 저지하였음은 물론 제766부대의 침투를 차단하여 아군 전선이 절단되는 위기를 방지할 수 있었다. 국군과 유엔군측에서 영덕 부근 전투에 큰 관심을 둔 것은 포항항구와 영일비행장의 확보를 위해 더 이상 후퇴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었다.

4. 西南部 방면의 遲延戰

(1) 西南部戰線의 狀況

인민군 제1군단은 7월 11일에 제3·제4사단을 공주-대전 축선으로 투입하면서 후속하던 제6사단을 호남지역으로 우회하도록 임무를 부여하였다. 천안에서 서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제6사단은 13일에 예산을 지나 2개제대로 나누어, 7월 16일 제4사단의 논산 장악과 때를 맞추어 금강을 도하하여 17일 강경을 점령하고 이리-전주로 남진하는 한편, 제13연대가 군산으로 우회함에 따라 전북지구가 위기에 휩싸이게 되었다.

국방부는 호남방어를 위해 17일 서해안지구사령부(신태영 소장)를 편성하였으나 예하부대인 전북·전남편성관구 및 기타 부대가 병력과 장비 면에서 거의 유명무실하여 방어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17일 신편 제7사단 예하의 독립대대(김병화 소령) 300여 명과 경찰 700여 명이 강경 방면으로 진출하였고, 해병 고길훈부대가 군산에서 장항으로 진출하여 적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고길훈부대는 선제공격으로써 다소간 적을 저지하면서 철수하였

으나,²¹⁷⁾ 강경 부근으로 진출한 부대는 일방적으로 밀리게 되었고 특히 강경경찰(서장 정성봉 경감) 67명 전원이 장렬하게 전사하는 희생을 치렀다.²¹⁸⁾ 제13연대는 19일 장항에서 금강을 건너 군산을 점령하고 다음날에는 전주에서 강경으로부터 남진한 부대와 합류하였다.

정부는 적 제6사단이 전주를 장악한 다음날 21일 전남북도에 계엄령을 선포하였고, 적은 기동을 계속하여 23일까지 정읍-남원-광주 일대를 석권하였다. 이날부터 서해안지구사령부 및 예하 편성관구는 자체 해산하고 그 대신 남원에서 운봉으로 물러난 민부대(민기식 대령)가 육본의 직접통제하에 이영규·김성은·오덕준·김병화 부대 등 군소부대²¹⁹⁾를 통합하여 이 지역의 작전을 수행하게 되었다.

적 제6사단은 광주에서 각각 나누어져 제13연대가 목포로, 제14연대가 보성으로, 제15연대가 순천으로 진출하여 25일 순천에서 다시 합류, 하동 방면으로 지향하였다. 이제 전선은 경남지역으로 옮겨졌다. 이때 적 제6사단장 방호산(方虎山)은 “동무들, 적은 와해되었다. 우리에게 부여된 과업은 진주와 마산의 해방과 잔존 적부대의 섬멸이다. ……진주와 마산의 해방은 적의 숨통을 끊어 버리는 마지막 전투를 의미한다.”라고 선언하였다.²²⁰⁾

한편, 미 제8군은 대전을 점령한 인민군 제4사단의 전진에 대하여 불안해 하였다. 그들은 금산을 지나 지리산 골짜기로 이동하고 있었다. 7월 23일 항공정찰에 의해 이들 부대가 안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당시 이 지역에는 아군부대가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 적은 제6사단이 호남지역을 석권한 다음 마산 방향으로, 제4사단이 안의-거창 방면으로 기동하여 미 제8군의 서측과 후방을 위협하고 있었으나, 미 제8군은 인민군 제6사단의 기동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고 있어 이때까지도 서남부 방면에 적의 2개사단이 진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미 제8군은 서남부전선이 위기에 처하자 24일 예비로 부대재편 중이던 미 제24사단을 진주-함양-거창선으로 투입하였다. 제24사단은 25일 제19연대(제29연대 2개대대 배속)를 안의-진주 일대에 배치하였으며, 제34연대는 거창으로, 제21연대는 합천으로 이동하였다.

육군본부도 25일 채병덕(蔡秉德) 소장을 영남지구전투사령관으로 임명,²²¹⁾ 민부대를 통합지휘하여 영남지역을 방어하도록 조치하였다. 이 무렵 민부대는 적 제6사단과 접적을 유지하며 남원-운봉-함양 일대로 철수 중이었다. 이제 이곳

에도 한·미군이 함께 서남부전선을 방어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2) 河東-晉州 부근 戰鬪

하동은 영·호남의 관문인 동시에 사천과 진주로 통하는 전략적 요충지였으나,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었다. 7월 26일 야간 와해된 국군 혼성부대가 인민군 제6사단의 공격을 받아 진주로 철수함으로써 하동이 적중에 들어갔다.²²²⁾ 이때 채병덕 소장은 육군본부로부터 하동방어명령을 받았으나 예하에 부대가 없는 관계로 진주의 미 제19연대장을 만나 하동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제19연대장 무어(Ned D. Moore) 대령은 즉각 제29연대 제3대대로 하여금 이를 탈환하도록 하였고, 하동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던 채병덕 소장이 안내차 동행하였다. 대대는 하동으로 진출하던 도중 27일 아침 쇠고개에서 아군 복장을 한 대대규모의 적과 조우하자 피아를 확인하려는 순간 기습적인 공격을 받아 채 소장이 전사하는 등 많은 피해를 입고 분산철수하고 말았다.²²³⁾ 후에 반격작전시 하동을 재탈환할 때 이곳에서 313구의 미군시체를 찾아내었으며, 적의 포로진술에 따르면 미군포로도 100여 명에 이르렀다.

제19연대는 열세한 병력으로 진주를 방어해야 했다. 연대장은 제2대대를 하동-진주 도로간 유수리 부근 고지에 배치하고, 제1대대(-)를 사천비행장 서측 구호리에, 제29연대 제3대대 잔여병력과 민부대를 진주 주변에서 수습하였으며, 29일 새벽 전쟁발발 후 최초로 지원된 M26 퍼싱 중형전차 3대를 시내에 배치하였다. 항공관측에 의하면 하동에는 적 2개연대와 전차가 집결해 있었다.

29일 오전 적 제6사단은 선두 공격부대를 하동-진주 도로를 따라 투입하여 정면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날 적은 제19연대 제2대대의 매복작전과 유엔 공군 편대의 공습으로 진출이 저지되자, 다음날 주력으로 제2대대 정면을 공격하면서 일부 부대를 우회시켜 좌일선 제1대대를 차단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제2대대는 남강 북안으로 물러나면서 격전을 수행하였으며, 제1대대도 유리한 지형을 이용하여 적과 격전을 수행하였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속출하여 진주 남쪽 외곽으로 철수하였고 마침 도착한 김성은부대와 함께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²²⁴⁾

31일 미명 적이 3개 방면으로 공격을 재개하였다. 제2대대는 연대규모의 적과 각축전을 벌이다가 주저항선이 무너지면서 진주로 철수하였다. 곧 이어 적

이 6대의 장갑차를 앞세워 진주를 공격하자 연대장은 결국 무촌리(진주 동남)로 철수명령을 하달하였다. 제2대대는 교량이 파괴되었으므로 혹서(酷暑)에도 불구하고 의령도로를 따라 철수하였고, 제1대대와 국군해병대는 우회한 적의 공격을 받아 사격전을 전개하다가 마산도로를 따라 철수하였다. 지원전차 3대는 진주에서 부대철수를 엄호한 후 철수하던 도중 적에게 노획되었다.²⁵⁵⁾

진주가 함락되자 제24사단장 치치 소장은 즉각 마산으로 이어지는 두 개의 접근로를 차단할 계획을 하달하였다. 이에 진주에서 철수하는 제19연대, 제29연대 및 민부대 병력은 충암리 일대에서 부대를 수습하여 북쪽 접근로를 차단하였고, 이날 새로 배속된 제25사단 제27연대, 김성은부대는 진동리로 진출하여 개방된 남쪽도로를 차단하였다.

(3) 咸陽-居昌 부근 遲延戰

인민군 제6사단이 서남부지역으로 전략적 기동을 하는 동안, 적 제4사단은 대전을 점령한 후 함양-거창을 공격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들은 25일 대전과 금산에서 약 2,000여 명의 병력을 보충하였으나, 보급의 부진과 주요장비 및 병력의 손실로 사기는 저하되어 있었으며 전차연대도 더 이상 운용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제4사단은 7월 26일 전 차량을 동원하여 무주를 거쳐 진안-안의로 지향하는 한편, 일부 병력을 남원-함양으로 우회시키고 있었다.²⁵⁶⁾

25일 미 제24사단 제19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가까스로 한발 앞서 진주에서 안의 방향으로 북상한 제29연대 제1대대는 1개중대(B중대)를 안의 정면으로 추진시키고, 대대주력(-)을 함양 부근 남강 동측 고지에 배치하였다. 민부대는 남원으로 우회한 적과 접촉을 유지하며 함양으로 철수, 미군대대와 협조하여 남강 서측방에 진지를 편성하였다.

적 제4사단은 27일부터 1개연대 규모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안의의 B중대는 삼면으로 적의 우세한 공격을 받아 일격에 와해되었으며, 함양의 대대주력과 민부대는 우회한 적과 격전을 전개하다가 이날 야간 진주 방향으로 철수하였다. 안의를 점령한 적의 주력은 계속 거창 방향으로 진출하였다.

거창은 경남 서북지방에서 낙동강 서부로 이르는 도로망이 집중되어 있어 군사상으로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었다. 이곳으로 진출한 제34연대장은 안의가 적중에 빠지자 제3대대를 안의도로, 제1대대를 합천도로, 1개중대를 김천도로에

각각 배치하여 삼면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연대는 대전전투의 상처를 회복하지 못하여 병력도 부족하고 겨우 개인화기만 소지하고 있어 전력이 미약하였다. 28일 오후 적의 접근이 관측되면서 제3대대는 포격을 유도하고 도로를 봉쇄하는 한편, 부대를 거창에 보다 가까이 이동시켜 방어력을 강화하였다.

29일 미명 적 제18연대는 2개 방면에서 공격을 개시하였다. 적은 일부 병력을 우회시켜 김천통로의 1개중대를 차단공격하였고, 주력으로 거창을 북에서 우회하여 동측도로까지 돌파하였다. 제1대대는 이를 구축하였으나 거창 동측 보조진지로 이동하였고, 전날 철수하려다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다시 북귀한 제3대대는 싸우지도 않고 명령 없이 철수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제34연대는 거창 남쪽 산수리 일대에서 병력을 수습하였으며, 이때 공병대는 철수로상의 교량을 파괴하고 도로변 절벽을 폭약으로 폭파하여 장애물을 설치하였다.²⁷⁷⁾

거창 실패로 대구로 이르는 축선이 위기에 처하자 미 제8군의 명령에 따라 화령장전투를 치른 제17연대(2천4백여 명)가 30일 거창 동남쪽 권빈리에 도착하였다.²⁷⁸⁾ 연대는 다음날 제34연대가 다시 적 제4사단 제5연대의 추격을 받아 권빈리 외곽으로 철수하게 되자, 처치 소장의 명령에 따라 제34연대의 좌측방으로 진출하여 적에 대비하였다.

제17연대는 미 제24사단으로부터 105mm 포의 화력지원은 물론 전투장비를 지원받아 진지편성에 주력하는 한편,²⁷⁹⁾ 수색정찰 도중 적의 사이드카 1대를 포획하여 적이 곧 공격을 개시할 것이라는 사실을 간파하고 만반의 방어준비를 갖추었다.

예상대로 8월 1일 01:00 적 제4사단 제5연대가 방어 정면으로 접근하자 준비된 화력으로써 기습적인 사격을 집중하여 격퇴하였다. 공격에 실패한 적은 곧 이어 다시 2개 방면으로 공격을 재개하여 1개대대로 연대 정면을 견제하면서, 1개대대로 미 제34연대를 기습돌파함으로써 후방이 위협받게 되었다.

제34연대가 철수함에 따라 제17연대는 전선조정과 아울러 역습준비를 위해 병력을 철수시킨 다음, 곧 이어 제1·제2대대로 반격을 실시하여 권빈리 외곽의 주요고지를 탈환하였다. 적의 전투일지에 의하면 “권빈리 일대에서 적의 약 1개연대가 포병의 지원하에 견고하게 방어하였고, 때때로 반돌격을 감행하여 혈전이 수행되었다.”고 하여 제17연대의 작전상황을 기술하고 있다.²⁸⁰⁾ 연대는 이날 저녁까지 적을 물리치고 진지를 고수하고 있었으나, 낙동강선 현풍 일대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고 다음날 미명 유엔 공군의 엄호하에 이동을 개시하였다.

이처럼 국군과 유엔군은 7월 초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차령산맥과 금강-소백산맥의 지형을 이용하여 인민군의 공격을 저지한 후 공세이전으로써 적을 구축한다는 의지하에 지연전을 전개하였지만, 7월 말 국군은 낙동강 상류의 함창-안동과 동해안 영덕선까지 물러났으며, 미군은 김천-상주선에서 위기를 맞고 있었다. 더구나 서남부지역으로 우회한 적이 거창-합천-진주를 점령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빈약한 낙동강 서부전선에 대한 위협이 고조되었다.

결과적으로 국군과 유엔군은 이 공간에서 4주간 적을 지연하였으나 낙동강을 경계로 한 경상남북도를 제외한 전 국토를 상실하였다. 하지만 유엔군사령부의 창설과 더불어 유엔군이 지원되기 시작하였고, 국군은 비록 그간의 손실로 인하여 5개사단으로 감편되었으나 2개군단의 작전체제로 발전하였으며 미 지상군이 3개사단으로 증강된 데 이어 곧 미 제2사단과 해병여단, 보병 2개연대 등 추가 증원부대가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지상군 전투력의 상대적 균형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반면, 수안보의 인민군 전선사령부는 인민군이 낙동강까지 진출하였지만 작전을 1개월 내에 끝낸다는 당초 계획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엔군 및 미군의 증원에 초조한 나머지 그간의 손실로 인하여 일부 사단은 전력의 50% 수준으로 저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압박을 늦추지 않았다.²³¹⁾

이제 전쟁양상은 국군과 유엔군으로서는 더 이상 물러설 공간이 없고, 인민군으로서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는 결정적인 국면에 이르게 된 것이었다. 제8군사령관 워커 장군은 경부축선에서 영동이 파탈되고 소백산맥의 관문인 추풍령이 위협받을 때인 7월 26일에 그 동안 계획한 낙동강으로 군의 철수를 결심하고 준비명령을 하달하였다.²³²⁾

그는 한국판 덩키르크(Dunkirk)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극동군사령관 맥아더 장군의 작전지도 지침에 따라, 29일에는 상주의 제25사단사령부를 방문하여 아래와 같은 전선의 고수(固守), 후일 ‘사수(死守 : Stand or Die)명령’이라 일컬어진 생사기로의 훈령을 하달하였다.

……우리는 지금 시간을 얻기 위하여 싸우고 있다. 이제 더 이상의 후퇴나 철수, 전선조정 등 기타 어떠한 명목의 후퇴이동은 없다. 우리 뒤에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모든 부대는 적을 혼란에 빠지게 하며 균형을 파괴하

기 위하여 역습을 실시하라. 덩키르크나 바탄(Bataan)은 다시 없을 것이며 부산으로의 철수는 사상 최대의 살육이 될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²³³⁾

비록 병력은 열세한 상황이었지만 전 전선에서 물러서지 말고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라는 명령이었다. 워커 장군은 낙동강 서부지역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8월 1일에 상주의 제25사단을 급히 김천-삼랑진을 거쳐 마산으로 이동시키고 이와 아울러 전 부대에 계획된 불퇴전(不退戰)의 낙동강방어선으로 철수명령을 하달함으로써 지연전의 막을 내리고 사수방어(死守防禦)로 전환하게 되었다.²³⁴⁾

주 기

- 1) 정부와 국회는 27일 수원, 29일 대전으로 이동하였고, 전라남북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亂一年誌」, 1951, p. A74.
- 2) 북한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제25권-조국해방전쟁사 1(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 140 ; 인민군은 제2군단이 춘천 조기점령에 실패하여 수원으로의 우회기동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작전의 차질을 초래하였다. 合同參謀本部, 「韓國戰史」, 1984, p. 346.
- 3) 인민군 최고사령부는 7월 5일 최고사령관 명령 제5호로써 서울시내에 제일 먼저 돌입한 제3·제4사단에 ‘서울사단’의 명예칭호를 부여하였으며, 제105전차여단에도 사단승격과 동시에 ‘서울사단’의 명예칭호를 주었다. 「조선전사」 제25권, p. 128.
- 4) 위의 책, pp. 142~143. 북한은 “적들이 파괴한 한강 인도교는 짧은 시일에 복구하기 어려웠고 한강 철교의 경간복구공사도 일정한 시일을 요하였다.”고 하였다.
- 5) 인민군 제5사단의 임무는 영일비행장을 탈취하는 것이었으며(ATIS, Interrogation Rpts, N. K. 5th Div, 김요성 대위, 21 Sept. 50 ; 國防軍史研究所 소장자료), 제766부대는 인민총사령부의 작전통제를 받으며 동해안 교두보 확보 및 국군의 병참선 교란을 지시받고 있었다. HFEC G-2, *History of the North Korean Army*, Section 5, 1952, p. 60.
- 6) 8086th AU(AFFE) Military History Detachment, *Evacuation of Refugees and Civilians from Seoul*, Precis, 1956, 국방군사연구소 사료 No. 914, p. 4.
- 7) 당시 한강에는 하중리, 마포, 서빙고, 한남동, 독섬, 광나루 등 여섯 개의 나루터가 있었으며, 각 나루터에는 몇 척의 작은 목선이 있었다.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38度線 初期戰鬪」(西部戰線篇), 1985, p. 299.
- 8) *Evacuation of Refugees and Civilians from Seoul*, Precis, pp. 4~5 ; 제7사단 G-3 박원근 소령 증언(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史」 제1권, 1967, p. 761).
- 9) 「38度線 初期戰鬪」(西部戰線篇), p. 299.
- 10) 이것의 정확한 명칭은 ‘극동군 주한 전방지휘 및 연락단(Advance Command and Liason Group in Korea, GHQ)’이지만 전방지휘소(ADCOM)로 약칭한다.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Department of the Army, Washington, D. C. : GPO, 1961), p. 43.

- 11) 박경석, 「오성장군 김홍일」, 서문당, 1984, pp. 437~438(김홍일 연보).
- 12) 「韓國戰爭史」 제1권, p. 710.
- 13) 여의도 돌다리를 제한점으로 우측은 혼성제7사단이, 좌측은 양화(안양천)까지를 혼성수도사단이 맡게 되었다. 혼성수도사단장 대령 이종찬 증언(위의 책, p. 760)
- 14) 「38度線 初期戰鬪」(西部戰線篇), pp. 257~296. 육본은 적이 김포-영등포 축선으로 병력을 투입할 것으로 판단, 26일 오전 김포지구전투사령부(계인주 대령)를 편성하였다.
- 15) 제5사단장 이용준 소장이 수원지구전투사령관에 임명되어 수원에서 낙오병을 수습하였다. 合同參謀本部, 「韓國戰史」, p. 346.
- 16) 陸軍本部, 「陸軍發展史」(上), 1970, p. 447. 부대단위별 총포현황은 보병 1개연대에 겨우 소총이 약 300정, 경기·중기가 65정 정도에 불과하였다. 대전차포와 곡사포는 제6사단과 제8사단에서 도합 30문을 보유하고 있고 기타 사단은 전무하였다.
- 17) 陸軍士官學校 戰史學科, 「韓國戰爭史」, 日新社, 1988, p. 252 ; 혼성수도사단장 대령 이종찬 증언(「韓國戰爭史」 제1권, p. 760)
- 18) James F. Schnabel, Robert J. Watson, *The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Joint Chiefs of Staff : 1978) ;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譯), 「美國合同參謀本部史 韓國戰爭」(上), 1990, p. 80.
- 19) 맥아더는 6월 29일 오전 함참으로부터 승인받기 약 24시간 전에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다. 위의 책, p. 93 ; *The Secretary of Defense, THE TEST OF WAR : History of the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U. S. GPO : 1988), p. 31.
- 20) 丁一權, 「戰爭과 休戰」, 동아일보사, 1985, pp. 33~34 ; 맥아더 원수의 전선시찰시 수원비행장을 경비하기 위해 미 제507고사포대대 X분견대(병력 33명, M-55 고사포 4문)가 배치되었다.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46(Foots Note No. 112) ; *THE TEST OF WAR*, p. 53.
- 21) 「美國合同參謀本部史 韓國戰爭」(上), p. 96.
- 22) 위의 책, pp. 94~96 ;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 The First Year*(OCMH, U. S. Department of Army, U. S. GPO, 1972), pp. 77~79.
- 23) 「美國合同參謀本部史 韓國戰爭」(上), p. 101. JCS 84881에 의해 육군의 사용에 관하여 부과된 제한사항은 해제되었으며 56942의 제안대로 가용한 육군부대를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 24)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59.
- 25) *Ibid.*, p. 60 ; (Ed.)Charles E. Heller and William A. Stoff, *America's First Battle (1776~1965)- Roy K. Flint, T. F. Smith and the 24th Division : Delay and Withdrawal, 5-19 July 1959*(Univ. Press of Kansas : 1988), p. 274.

- 26)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113~116.
- 27) *T. F. Smith and the 24th Division*, p. 274.
- 28) 적 제4사단 포병연대, 제1사단 포병연대, 독립 포병연대가 도하부대를 엄호하였다. 「38度線 初期戰鬪」(西部戰線篇), p. 312; 日本陸戰史研究普及會, 朝鮮戰爭 1, 陸軍本部(譯), 「韓國戰爭」 제1권 1986, p. 120.
- 29) 당시 인민군은 도하시 주로 나룻배나 뗏목을 이용하였고 다른 도하장비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흔적이 없다. 「韓國戰爭史」 제1권, p. 763.
- 30) 제2사단 제3연대 제1대대장 임백진 소령 증언(위의 책, p. 761). 제3연대 병력은 말죽거리 정면을 맡았다가 철수하여 과천 남쪽의 진지를 점령하였다.
- 31) 「38度線 初期戰鬪」(西部戰線篇), p. 324.
- 32) 「戰爭과 休戰」, p. 38;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 要約」, 敎學社, 1986, p. 203. 정부는 전쟁지도체제를 일원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7월 1일부터 정일권 장군을 소장으로 승진시켜 총참모장에 임명함과 동시에 육군 총참모장을 육·해·공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 33) 제3사단 제25연대장 김병휘 중령 증언(「韓國戰爭史」 제1권, p. 762)
- 34) 陸士 戰史學科, 「韓國戰爭史」, p. 255.
- 35) ATIS, Interrogation Rpts, N. K. 6th Div, 홍성호전사, 11 Aug. 50. 제6사단은 영등포에서 1개 전차대대와 합류하였으며 당시 전차 17대를 보유하고 있다.
- 36)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18호(구두명령 2일, 문서명령 3일) “군은 부원군의 전투참가를 위한 시간을 얻기 위하여 현 전선에서 지연전을 실시한다.”
- 37) 제2사단 제3연대 제1대대장 임백진 소령 증언(「韓國戰爭史」 제1권, p. 762). 적의 전차가 안양에서 군포장으로 압도해 왔으므로 관교로 철수하다가 분산되고 말았다.
- 38) 제1사단 제13연대 S-3 최대명 소령 증언(위의 책, p. 762). “우리가 수원에서 정비 후 풍덕천으로 출동하였으나 역부족으로 평택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 39)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史」 제2권, 1979, p. 116.
- 40) 국본일반명령 제2호(1950. 7. 5); 육군본부특명 제9호. 국군의 군단창설은 6월 26일 의정부지구전투사령부가 호시이고, 29일 시흥지구전투사령부가 두 번째로써 제1군단은 동 사령부의 명칭을 바꾸어 놓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
- 41)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20호(1950. 7. 5); 제1군단 작전명령 제1호(1950. 7. 5)
- 42) 「戰爭과 休戰」, p. 50.
- 43) 「韓國戰爭史」 제2권, p. 122.
- 44) Order From Supreme Commander, NKA to All Forces, 15 Oct. 50. in ATIS Enemy Docsy Korean Opns, issue 19. 30 Jan. 51. Item 1.(Policy and Direction, p. 114)
- 45) 「陸軍發展史」(上), pp. 443~447; 陸軍本部 軍史監室, 「後方戰史」(軍需篇), 1953,

- pp. 293~295.
- 46) 「後方戰史」(軍需篇), pp. 66~67;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國防部史」 제2권, p. 109.
- 47) 적 최고사령부는 조정된 정세에 맞추어 전선사령부를 조직하고 7월 5일 사령관에 김책, 참모장에 강건을 임명하였다. 「조선전사」 제25권, p. 166; *History of the North Korean Army*, Section 5, p. 84.
- 48) 인민군 제8사단은 7월 초 38경비 제1여단을 기간으로 창설되었다. 「韓國戰爭史」 제2권, p. 160.
- 49) 7월 3일 오전 호주 F-51 전투기 4대가 평택역의 탄약 화차와 국군 제17연대를 오폭하여 큰 피해를 주었고, 이날 오후 미공군기가 수원비행장 및 수원 이남 1번국도상의 국군을 오폭하여 병력 200여 명, 차량 30여 대의 손실을 주었다. 위의 책, pp. 42~43.
- 50) 위의 책, pp. 845~924 참조.
- 51) 「韓國戰亂一年誌」, p. A74.
- 52) 「國防部史」 제2권, pp. 110~111; 국본일반명령 제5호(1950. 7. 7)에 의거하여 7월 10일 임선하 대령을 단장으로 잠정적으로 창설된 국제연합연락장교단이 국본일반명령 제35호(1950. 8. 2)에 의해 8월 6일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 53) 육본명령 제20호(7. 4), 제17연대장 백인엽 대령 증언(「韓國戰爭史」 제2권, p. 61)
- 54)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68~70.
- 55) *Ibid.*, pp. 70~73.
- 56) 제52포병대대 연락장교 윤승국 대위 증언(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史」 제2권, p. 63); 제17연대장(후임) 김희준 중령 증언(같은 책, p. 62)
- 57)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74-76. 스미스부대원은 이후에도 실종으로 처리된 자가 다수 복구하였으므로 실제 결과적인 손실은 이보다 적었다.
- 58) *Ibid.*, p. 70; 陸軍本部(譯), 「韓國戰爭」 제1권, p. 149.
- 59) *T. F. Smith and the 24th Division*, p. 282. 지휘관들은 스미스부대의 작전결과에 대하여 장병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 60) *Ibid.*, pp. 282~283;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79~80.
- 61) 陸軍本部(譯), 「韓國戰爭」 제1권, p. 155. 바스(George B. Barth) 준장은 처치, 딘에 이어 세 번째로 한국에 온 장군으로서 제24사단 포병사령관 대리임무를 수행 중이나, 당시 작전지역의 특징상 딘 소장은 그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여 전방작전을 지도하게 하였다.
- 62)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82~83.
- 63) *T. F. Smith and the 24th Division*, p. 285.
- 64) 陸軍本部(譯), 「韓國戰爭」 제1권, p. 175. 한국전쟁 최초로 일본으로부터 공수된 대

전차지뢰가 천안 북방 도로상에 매설되었다.

- 65)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83~86.
- 66) *Ibid.*, pp. 86~88.
- 67) 陸士 戰史學科, 「韓國戰爭史」, p. 265; 陸軍本部(譯), 「韓國戰爭」 제1권, p. 167.
- 68) 제1대대(-)는 A, D중대가 중심이 되었으며 B, C중대 가운데 스미스특수임무부대에서 제외되었던 병력을 통합하여 편성되었다.
- 69) *T. F. Smith and the 24th Division*, p. 286.
- 70)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88~90.
- 71) *Ibid.*, pp. 91~93; *T. F. Smith and the 24th Division*, p. 288.
- 72)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98.(Foots Note No. 43)
- 73) *Ibid.*, pp. 96~99.
- 74) *Ibid.*, p. 95.
- 75) 당시 진천으로 향한 수도사단의 총병력은 7,855명이었고, 이 무렵 제1포병단이 대전에서 창설되면서 수도사단도 신형 105mm 포 4문을 지원받았다.
- 76) *History of the North Korean Army*, Section 5, pp. 54~56; ATIS, Interrogation Rpts, N. K. 2th Div, 손대광 소좌, 19 Sept. 50.
- 77) 당시 김석원은 대전에서 의용군을 모집하고 있었는데 국방장관으로부터 수도사단을 맡아 달라는 요청을 받고 현역으로 복귀하였다.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鎭川-化寧場戰鬪」, 1991, p. 36.
- 78) 제20연대장 박기병 대령 증언(「韓國戰爭史」 제2권, p. 324)
- 79) 「조선전사」 제25권(pp. 172~173)에 의하면 “인민군은 진천 남쪽의 지배적인 문안산-소을산을 점령하였고, 적들은 7월 9일부터 2일간에 걸쳐 집요하게 반돌격을 거듭 자행하여 7월 10일 하루 동안에만 10여 차례…”라고 하여 국군의 반격상황을 기술하고 있다.
- 80) 「鎭川-化寧場戰鬪」, pp. 85~86.
- 81) 제18연대 제2대대장 소령 장춘권 증언(「韓國戰爭史」 제2권, p. 324)
- 82) 군단작명 제10호(7. 12) 김홍일 소장의 증언에 의하면 ‘이날 좌측의 조치원이 적중에 들어갔고, 또 청주는 삼면이 평지이므로 도로가 차단되면 시가전에 투입된 병력 전부를 잃어 버리게 되므로 철수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鎭川-化寧場戰鬪」, pp. 89~90.
- 83) 「鎭川-化寧場戰鬪」, p. 131.
- 84) *History of the North Korean Army*, Section 5, pp. 74~76; 제15사단은 식량과 탄약추진에 남한징집자들을 이용하였고 부대원 가운데 강제징집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부대사기는 낮은 편이었다(ATIS, Interrogation Rpts, N. K. 15th Div, 장기화 전

- 사, 20 Sept. 50).
- 85) 적 제15사단 제48연대 군수참모 진술(「鐵川-化寧場戰鬪」, p. 144 재인용)에 의하면 제3대대가 동락리에서 철수하게 되자 주민에게 국군이 도망가는 모습으로 비쳐졌으며, 적 제48연대는 주민의 제보만 믿고 경계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
- 86) 제7연대 전투상보에 의하면 양 대대의 전과는 사살 2,186명, 포로 132명 등이며, 적 제48연대 본부중대장의 진술(陸士 戰史學科, 「韓國戰爭史」, p. 279 재인용)에 의하면 전사자는 800여 명이다.
- 87) 「鐵川-化寧場戰鬪」, p. 149.
- 88) 위의 책, pp. 173~181. 제1사단은 11일 지금까지 사단에 배속되었던 제16포병 1개중대를 문경의 제6사단으로 복귀시키고, 군단으로부터 다시 1개 포병중대(105 mm 포 4문)를 배속받았다.
- 89) 인민군 제12사단은 한인계 중공군출신 사단인 제7사단을 모체로 창설된 사단이며, 이는 7월 3일 해주에서 창설된 제7사단(소장 이익성)과는 구분된다.
- 90) 제2연대장 대령 함병선 증언(「韓國戰爭史」 제2권, p. 231)
- 91) 제2연대 제1대대 제3중대장 대위 최희대 증언(위의 책, p. 232)
- 92) 제19연대 제2대대장 소령 김용기 증언(위의 책, p. 231)
- 93)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04; 陸士 戰史學科, 「韓國戰爭史」, pp. 282~283;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丹陽-義城戰鬪」, 1987, pp. 22~23.
- 94) 제8사단 추주이동 전문명령의 착오경위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 95) 제8사단 공병대대 S-3 중위 서정우 증언(「韓國戰爭史」 제2권, p. 201).
- 96) *History of the North Korean Army*, Section 5, p. 66.
- 97) 「丹陽-義城戰鬪」, pp. 38~43.
- 98) 위의 책, pp. 44~50; 제8사단 작전명령 제14호(7월 9일 20:00).
- 99) 제21연대 제9중대장 중위 최영구 증언(「韓國戰爭史」 제2권, pp. 183~184)
- 100) 「丹陽-義城戰鬪」, pp. 53~61.
- 101) 위의 책, pp. 62~66.
- 102) 국군 제3사단은 대구의 제22연대(중령 강태민)와 부산의 제23연대로써 영남지구의 공비토벌을 담당하고 있다가 전쟁이 발발하자 육군본부의 명령으로 제22연대를 서울 외곽선에 출동하게 하고, 제23연대로써 동해안 방면을 방어하게 하였다.
- 103) *History of the North Korean Army*, Section 5, p. 60; ATIS, Interrogation Rpts, N.K. 5th Div, 김요성 대위, 21 Sept. 50.
- 104) 독립제1대대와 영등포학원 병력은 1950년 6월 24일 영호남지역의 공비토벌작전에 투입될 계획이었으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6월 28일부로 제3사단에 배속되어 포항에 집결하였다.

288 第3章 遲延作戰

- 105) 적 제5사단은 민간인들로부터 주로 식량을 조달하였으며, 탄약은 사단까지는 트럭과 우마차로 공급하고 전선까지는 주로 점령지 노무자를 동원하여 운반하였다. ATIS, Interrogation Rpts, N. K. 5th, 정종엽 전사, 오상만 전사, 16 Aug. 50.
- 106) 「조선전사」 제25권, p. 197.
- 107) 제22연대는 7월 5일 국군의 재편성시 제1사단에 편입되었으나, 그 후 하달된 보류지시에 따라 통합하지 않고 제2사단의 통제하에 있었다. 그 후 국일명 제20호(7. 21)에 의거 원소속인 제3사단에 복귀하여 영덕전투에 투입된다.
- 108) 적 제11연대는 7월 10일경 제5사단과 합류하였으나 그 동안 험한 산악행군으로 1,800명의 병력손실을 입고 있었다.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105~106.
- 109) 合同參謀本部, 「韓國戰史」, pp. 623~625.
- 110) *Policy and Direction*, pp. 100~101. 한국지원협조위원회(Committee on Coordination of Assistance for Korea).
- 111) Ibid, pp. 115~117; 「美國合同參謀本部史 韓國戰爭」(上), pp. 109~110.
- 112) 「美國合同參謀本部史 韓國戰爭」(上), p. 110; 외무부, 「한국외교30년」, 1979, p. 185.
- 113) *Policy and Direction*, p. 103.
- 114) 「美國合同參謀本部史 韓國戰爭」(上), p. 111; *Policy and Direction*, p. 103.
- 115) 「韓國戰爭 要約」, p. 206.
- 116) 「美國合同參謀本部史 韓國戰爭」(上), p. 148.
- 117) 「韓國戰爭史」 제2권, pp. 127~128.
- 118) 서울신문사, 「駐韓美軍30年」, 1979, p. 169; 「韓國戰爭史」 제2권, p. 991; 국군 작전지휘권 이양은 1949년 8월 24일 이 대통령과 하지 장군 간에 이루어졌던 ‘주한미군이 철수할 때까지 미군이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보유한다.’는 내용에 이어 두 번째이다.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國防條約集」 제1집, 1988; pp. 34~38; Robert K. Sawyer & Walter G. Hermes, *Military Advisors in Korea: KMAG in Peace and War*, Washington. D. C. : U. S. Dept of the Army, 1962, p. 34.
- 119) 「戰爭과 休戰」, p. 78.
- 120)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12.
- 121) 陸軍本部, 육군역사일지(1950. 7. 7); 「韓國戰爭史」 제2권, p. 995.
- 122) 국본일반명령 제3호(1950. 7. 7); 육본특명 제11호(1950. 7. 7)
- 123) 「戰爭과 休戰」, pp. 67~68; 「韓國戰爭史」 제2권, p. 139.
- 124)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57호(1950. 7. 20)
- 125) 「韓國戰爭史」 제2권, p. 140;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91; 긴급명

- 령 제8호(7. 21) ; 국본일반명령 제20호(7. 24).
- 126) 「陸軍發展史」(上), p. 435.
- 127) 개전 후 3주 동안 국군에 대한 미군의 군수지원은 주로 미군사고문단(KMAG)의 소요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HQS USAFFE & Eight Army(Rear),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s*(San Francisco, 1954), Historical Manuscript File, call no. 8-5, Vol. 4, ch. 8, p. 16.
- 128) 「陸軍發展史」(上), pp. 450~454 ; 이 무렵 미 극동군사령부는 포병과 통신장비와 함께 한국군에 대한 장비를 확보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s*, Vol. 4, ch. 8, p. 17.
- 129) 「陸軍發展史」(上), p. 435.
- 130) 「國防史」 제2권, p. 288.
- 131) 부산군수사령부는 미군의 지원부대 편제표상 B형(10만 명의 전투부대를 지원하는 규모)에 해당된다. Draft Field Manual, *The Logistical Command*, C & GSC, 1950.
- 132)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113~116 ; James A. Huston, *The Sineus of War : Army Logistics 1775~1953*,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1966), p. 618.
- 133)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史」 제3권, 1970, p. 38.
- 134) 미 제8군 작전명령 제1호(1950. 7. 13)
- 135) 「조선전사」 제25권, pp. 169~170.
- 136)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122~123 ; ATIS, Interrogation Rpts, N. K. 4th, 김영호 소위, 28 Sep. 50, 최주영 소좌, 26 Sept. 50.
- 137) 인민군 전투일지(1950. 7. 13~14) SN792.
- 138) 7월 13일 제34연대의 정보 및 통신참모 그리고 K중대원 40여 명이 그 동안의 전투로 인한 과로 때문에 후송되었다. *Task Force and The 24th Division*, pp. 290~293.
- 139) 국군 독립기갑연대 기병 제6중대는 1950년 7월 9일 제34연대에 배속되어 수색정찰 임무를 수행하다가 12일 공주로 복귀하여 공주전투에 가담하였다. 제6중대장 박익근 중위 증언, 소대장 조돈철 소위 증언(「韓國戰爭史」 제3권, pp. 95~96, pp. 471~472).
- 140)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26.
- 141) 인민군 전투일지(1950. 7. 15~16) SN792.
- 142) 서측방의 경제병력으로 제2세대 I, R소대 등 70여 명과 G중대 1개소대가 배치되었다.
- 143) 맥그레일 특수임무부대는 G중대(-), H중대 기관총소대 및 81mm 박격포반, 제26고사포대대의 2개포대, 경전차 2대로 편성되었다.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290 第3章 遲延作戰

- Yalu*, p. 133.
- 144) *Task Force and The 24th Division*, p. 295 ; 陸士 戰史學科, 「韓國戰爭史」, p. 298.
- 145)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38.
- 146) *Ibid.*, p. 143.
- 147) *Ibid.*, p. 145.
- 148) 적 제4사단은 산악의 험로로 우회하여 금산도로를 차단하는 임무를 제18연대에 부여하였다. 「조선전사」 제25권, p. 192.
- 149)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48 ; 이 무렵 워커 중장은 미 제24, 제25사단, 미 제1기병사단 그리고 한국군으로서 최후 교두보인 낙동강선에서 적을 저지한다는 작전개념을 완성하였다. *Task Force and The 24th Division*, p. 296.
- 150)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156~157.
- 151) *Ibid.*, p. 157.
- 152) *Ibid.*, pp. 163~164.
- 153) *Ibid.*, pp. 158~159.
- 154) *Ibid.*, pp. 168~169.
- 155) *Ibid.*, p. 173.
- 156) *Ibid.*, pp. 176~177. 그 후 던 소장은 1953년 9월 4일 포로교환시 관문점으로 송환되었다.
- 157) *Ibid.* p. 181 ; 「韓國戰爭史」 제2권, p. 534.
- 158) 인민군 전투일지(1950. 7. 23) SN792 ; 제4사단은 7월 중순부터 남한지역의 강제 징집자로 병력을 보충하였으며, 이들의 탈주를 막기 위해 감시병을 배치하고 있었다. Interrogation Rpts, N.K. 4th, 김영호 소위, 28 Sept. 50.
- 159) 「조선전사」 제25권, p. 192.
- 160)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200.
- 161) *Ibid.*, pp. 197~198.
- 162) 陸士 戰史學科, 「韓國戰爭史」, p. 310 ; 「韓國戰爭史」 제2권, p. 551.
- 163)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200~203.
- 164) *Ibid.*, pp. 203~205.
- 165) 국군 제2사단은 미 제24사단(공주)과 수도사단(청주) 사이의 간격을 방어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았다. Periodic Operations Reports, Korean Army, No. 12, SN. 1266(이하 같음).
- 166) 「鎭川-化寧場戰鬪」, pp. 188~189(제13연대 제2대대 제5중대장 정점봉 대위 및 제3소대 제1분대장 김재일 중사 증언).
- 167) 화령장전투의 경위와 일자는 문헌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여기에서

- 는 공간사를 기준으로 기술한다(「韓國戰爭史」 제2권, p. 454 연구란 참조).
- 168) 제1군단장 김홍일 소장의 증언에 의하면 군단은 당시 대한민국 전도를 이용하여 작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대의 산간도로나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韓國戰 秘史」(下卷), p. 169.
- 169)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史」 제2권, pp. 426~427.
- 170) 인민군 제2군단 전투지령(1950. 7. 11) 국방군사연구소 SN818.
- 171) 제17연대 제1대대 작전장교 김희제 중위 증언(「韓國戰爭史」 제2권, pp. 450~451)
- 172) 「韓國戰爭史」 제2권, p. 434.
- 173) 제2대대장 송호림 소령 증언, 화령면 대한청년단원 어용선 증언(「韓國戰爭史」 제2권, p. 451)
- 174) 인민군 제2군단 전투지령(1950. 7. 11) SN818.
- 175) 「韓國戰爭史」 제2권, p. 452(제17연대장 김희준 중령, 제2대대장 송호림 소령, 제2대대 복진세 병장 증언) ; Periodic Operations Reports, Korean Army, No. 16.
- 176) 陸士 戰史學科, 「韓國戰爭史」, pp. 312~313 ; 「鎮川-化寧場戰鬪」, pp. 229~230.
- 177) 인민군 제13사단(제19, 제21, 제23연대)은 1950년 6월에 신의주에서 민청년을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7월 초 서울로 남하하였다. 제23연대는 인천으로 진출 7월 말까지 주둔하였으며, 사단(-)은 충주로 남하한 뒤 제2군단장으로부터 제1사단과 합류하여 문경-유곡을 공격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았다. *History of the North Korean Army*, pp. 72~73.
- 178) Periodic Operations Reports, Korean Army, No. 16.
- 179) 國防軍史研究所, 「忠州-店村戰鬪」, 1992, pp. 86~87.
- 180) 위의 책, p. 419.
- 181) 위의 책, pp. 97~104(제19연대 제2대대 정보장교 김영필 중위 증언).
- 182) 위의 책, p. 106.
- 183) 위의 책, pp. 116~119.
- 184) 위의 책, p. 116.
- 185) 수도사단 제1연대는 청주 남쪽 고은리에서 육군본부의 전선조정계획에 따라 동부전선으로 이동중, 화령장에서 육본작명 제55호(1950. 7. 19)에 따라 제2군단에 배속되었으며, 제2군단은 동시에 제1연대를 제6사단에 배속함으로써 영강전투에 참가하게 되었다.
- 186) 제2연대 제3중대장 최희대 대위 증언(「韓國戰爭史」 제2권, p. 704) ; 「忠州-店村戰鬪」, p. 156.
- 187) 「韓國戰爭史」 제2권, p. 168.

292 第3章 遲延作戰

- 188) Periodic Operations Reports, Korean Army, No. 31.
- 189) 국군 제2사단 제5연대와 제20연대는 7월 20일 국군의 재편성계획의 일환으로 제1사단에 편입되었으며(제3절 3항 참조), 제5연대는 이미 24일 안동에서 함창으로 진출하였다.
- 190) *History of the North Korean Army*, p. 73.
- 191) 제13연대 제2대대장 안광영 소령 증언(「韓國戰爭史」 제2권, p. 721)
- 192) Periodic Operations Reports, Korean Army, No. 49.
- 193) 국군 제8사단 작전명령 제16호(1950. 7. 11. 23 : 00)
- 194) 「韓國戰爭史」 제2권, p. 377.
- 195) 인민군 제2군단 전투지령(1950. 7. 11) SN818.
- 196) 「丹陽-義城戰鬪」, p. 86.
- 197) 제10연대 작전주임장교 은형원 소령(「韓國戰爭史」 제2권, p. 377); 「丹陽-義城戰鬪」, pp. 100~101.
- 198) 「丹陽-義城戰鬪」, p. 112.
- 199) 위의 책, pp. 116~118.
- 200) 위의 책, p. 150.
- 201) 위의 책, p. 153. 제1군단 작명 제40호에 명시된 철수개시시간은 7월 31일 24 : 00이다.
- 202) 제1군단 참모장 최덕신 대령 증언(「韓國戰爭史」 제2권, p. 662)
- 203) 제21연대 제8중대장 김광철 중위 증언(위의 책, p. 662)
- 204) 「丹陽-義城戰鬪」, p. 163.
- 205) 육군본부는 제3사단장 유승열 대령을 경남편성관구사령관으로 전보발령하고, 육군사관학교 교장인 이준식 준장을 신입사단장으로 임명하였다. 「韓國戰爭史」 제2권, p. 583.
- 206) *History of the North Korean Army*, pp. 60~61 ;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107~108 ; 이 무렵 인민군 제2군단장의 전투지령에 의하면, 인민군은 유엔 공군기의 맹렬한 주간폭격으로 인해 많은 손실을 입게 되었고, 공격속도가 지연되고 있었다. 인민군 제2군단 전투지령(1950. 7. 11) SN818.
- 207) ATIS, Interrogation Rpts, N. K. 5th Div, 이문옥 이등상사, 오상만 전사(16 Oct. 50), 정종엽(16 Oct. 50).
- 208)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84.
- 209) *Ibid.*, p. 184.
- 210) 이날 적 제5사단은 유엔 함대의 포격으로 약 400여 명이 손실을 입었다. U.S. Navy,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KOREA)*, 陸軍本部(譯), 美海軍韓國

- 戰參戰史, 1985, p. 159.
- 211) 제22연대는 제1군단에 배속되어 7월 22일 보은 외곽에 배치되었다가 제3사단에 복귀하였다.
- 212) *South to the Nakdong, North to the Yalu*, p. 185.
- 213) Foreign Service of The U. S. A., TIGER KIM VS. THE PRESS, 12 May 51, SN328 ; *South to the Nakdong, North to the Yalu*, p. 186 ; 제23연대 3대대장 허형순 소령 증언 (『韓國戰爭史』 제2권, p. 601), 김종원 중령은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되고, 김준순 중령이 그 후임으로 임명되었다.
- 214) 이 무렵 유엔 해군의 함포사격에 의해 적 제5사단은 700~800여 명의 병력손실을 입었다. *South to the Nakdong, North to the Yalu*, p. 185 ; Interrogation Rpts, N. K. 5th Div, 정종엽 전사, 15 Oct. 50.
- 215) Periodic Operations Reports, Korean Army, No. 56(1950. 8. 2. 24 : 00).
- 216) 劉官鍾, 『韓國警察戰史』, 現代警察文庫, 1982, pp. 118~119.
- 217) 해병대 작전명령 제1호(1950. 7. 14. 15 : 00) ; 고길훈해병대는 7시간의 전투 끝에 적 약 300여 명을 살상하는 전과를 달성하였다. 海兵隊司令部, 『海兵隊戰鬪史』 제1집, 1962, p. 43.
- 218) 『韓國警察戰史』, p. 97.
- 219) 사단재건계획이 실현을 보지 못하자 민부대(신편제7사단장 민기식 대령), 김부대(김병화 소령), 오부대(오덕준 대령), 이부대(신편제16연대장 이영규 중령) 등이 임시로 편성되어 호남방어에 임하게 되었고, 또 해병 1개대대(고길훈부대 : 7월 22일 김성은부대로 개칭)도 해군본부의 명령에 따라 군산에 투입되었다. 『韓國戰爭史』 제2권, pp. 726~729.
- 220) *South to the Nakdong, North to the Yalu*, p. 211.
- 221) 육군본부는 작명 제70호(1950. 7. 25)로써 전임 총참모장 채병덕 소장을 영남지구 전투사령관에 임명하여 남원-하동선에서 적을 저지하도록 하였으나 예하에 실병력은 전무한 상황이었다.
- 222) 신편제9사단참모 정래혁 중령 증언(『韓國戰爭史』 제2권, p. 805, p. 841)
- 223) 민부대 제30연대장 김용주 중령 증언(위의 책, p. 841).
- 224) 海兵隊司令部, 『海兵隊戰鬪史』 제1집, p. 55 ; 해병대 제7중대 염태복 중사 증언(『韓國戰爭史』 제2권, p. 842), 진주에서 미군으로부터 장비를 지원받았다.
- 225) *South to the Nakdong, North to the Yalu*, p. 232 ; 1950년 9월 반격작전시 진주에서 제25사단은 미군포로 12명이 팔을 뒤로 묶인 채 기총소사 당한 것을 발견하였다. 유엔작전보고서 제6호(『韓國戰亂一年誌』, p. C283).
- 226) 인민군 전투일지(1950. 7. 26~27) SN792.

294 第3章 遲延作戰

227)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226.

228) 제17연대장 유희준 대령, 제1대대장 이관수 중령 증언(「韓國戰爭史」 제2권, p. 818) ; *Ibid.*, pp. 226~227.

229) 위의 증언 ; 권빈리에 도착하여 처음으로 미군으로부터 카빈 M2를 보급받았다. 제17연대 제2대대 정보장교 이형주 대위 증언(「韓國戰爭史」 제2권, p. 819)

230) 인민군 전투일지(1950. 7. 30~8. 1) SN792.

231)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263.

232) 철수준비명령의 내용은 '전선을 안정시키며 공세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된 방어선으로 철수한다. 시간은 후달할 것이며, 이동안 특히 적과의 접촉을 유지하라.'는 것이었다. *Ibid.*, p. 205.

233) *Ibid.*, p. 208.

234) *Ibid.*, p. 250 ; 육본은 제1, 제2군단에 '7월 31일과 8월 1일 야음을 이용하여 낙동강 이남으로 철수하라.'고 명령하였다. *Periodic Operations Reports, Korean Army*, No. 49.

第4章 洛東江線 防禦作戰

第1節 洛東江 戰線의 形成

1. 洛東江防禦線

1950년 7월 말로 시간과 공간과의 싸움인 지연작전을 마감하고 8월 1일~4일 낙동강방어작전으로 전환함으로써 한국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최초 낙동강방어선의 구상은 금강-소백산맥 방어선이 돌파된 직후인 7월 17일부터 검토되었다. 이때 위커 장군과 참모들은 국군과 주한미군 및 증원부대의 상황, 해공군의 지원, 적의 상태, 지형과 부산항의 여건, 보급의 양육상태 등에 관한 각종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한 후, 낙동강선을 최후의 교두보로 선정하고 이 선에서 총반격을 실시한다는 작전을 계획하고 있었다.¹⁾

위커 장군은 국군과 유엔군이 적을 지연시키고 있는 동안 인근 주민의 협조를 받아 낙동강방어선을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7월 26일 전군에 낙동강선으로의 철수준비 명령을 하달하였다. 그는 “한국으로부터 철수하지 않는다. 한국판 덩키르크(Dunkirk)는 없다.”고 강조하고 전선 고수(戰線固守)의 필요성을 역설한 맥아더 사령관의 작전지도 지침에 따라 29일 “한치의 땅이라도 적에게 빼앗기면 수많은 전우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며 이른바 전선 사수명령(死守命令)을 하달하여 전의를 다졌으며, 8월 1일 전군에 최후의 보루인 낙동강방어선으로 도하철수를 명령하였다.²⁾

제8군사령관은 이 사수명령에서 적을 혼란에 빠뜨리고 균형을 파괴하기 위하여 각 부대가 반드시 역습(逆襲)을 실시할 것을 특히 강조하였다.

각 부대들은 적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아군진지에 대한 적의 조직적인 공격을 방해하기 위한 역습을 계속 시도하라. 최근 한국군 작전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역습은 잃었던 전투진지를 되찾고 적의 진격을 지연시키는 데 큰 효과가 있다. 역습은 방어의 결정적 요소이며, 그것의 성공 여부는 실시속도와 대담성 및 기습에 달려 있다.³⁾

낙동강방어선은 부산을 기지로 총반격을 위한 교두보라는 의미에서 일명 ‘부산교두보’라고 하며 또 워커 장군이 설정한 최후의 방어선이라는 의미에서 ‘워커 라인’이라고도 한다. 이 방어선은 전반적으로 낙동강에 연하여 설정되었으며, 남쪽의 마산으로부터 남지-왜관-낙정리-영덕을 잇는 동서간 약 80km, 남북간 약 160km의 ‘ㄱ’모양 방어선으로서 크게 세 지구로 나누어진다.

한 구간은 낙정리-왜관-남지를 잇는 낙동강을 이용한 방어선으로 당시 강폭은 400~800m, 수폭은 200~400m, 수심은 1~1.5m이었다. 또 한 구간은 남지-마산 서측 진동리를 잇는 낙동강과 남강의 합류지점으로부터 남해안까지로서, 이곳은 전투산(661m), 필봉(742m), 서북산(738m) 등 험준한 고지군으로 형성되어 있다. 나머지 한 구간은 낙정리-영덕-낙동강 상류의 남쪽 태백산맥의 험준한 산악지대를 방어선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방어선의 대부분은 하천과 고지군 등 천연장애물로 형성되어 외곽방어선의 유지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또한 부산을 중심으로 방어선상의 중요 지점인 마산, 남지, 왜관, 낙정리, 의성, 영덕 등지까지 도로망이 발달되어 있어 내선작전(內線作戰)을 수행하기에도 적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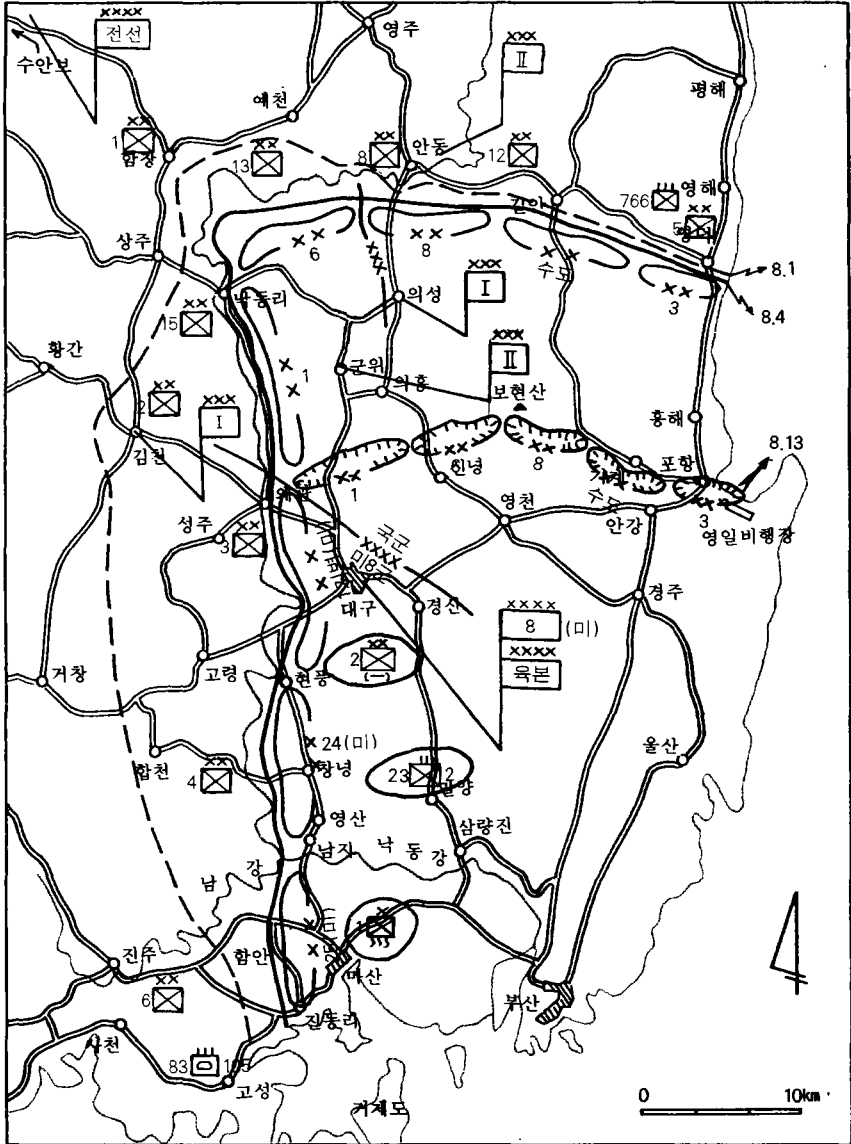
제8군은 낙동강선의 부대배치를 계획할 때 인민군이 산악지대의 침투, 근접전투, 우회기동 등에 뛰어난 반면, 기동공간이 넓고 각종 화력의 운용이 용이한 개활지 전투에서는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분석하고, 강력한 화력과 기동력을 보유한 미군에게는 낙동강변 일원의 개활지 정면을, 산악지대에서 노무자들의 지계로 보급을 받아가면서 적을 효과적으로 지연시킨 국군에게는 주로 낙동강 상류의 산악지대를 책임지게 하였다.

따라서 국군과 유엔군은 왜관 북쪽 작오산 복단에 협조점을 설치하고 그 남쪽 낙동강 연변과 남해안까지는 미군 3개사단이, 왜관 북쪽-낙정리-영덕까지는 국군 5개사단이 각각 낙동강전선을 분담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부대배치는 8월 2일 밤~3일 새벽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었다.”

낙동강방어선의 형성은 아직 전체 전선을 완전하게 연결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까지의 작전에서 최대 취약점이었던 부대배치상의 간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도 또한 큰 의의가 있었다.

맥아더 사령관은 8월 초 낙동강 교두보의 방어계획을 검토하면서 제8군에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부산 주변에 해안의 상륙거점을 방어하는 예비방어선을 확보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제8군 공병참모 데이비드슨(Garrison H. Davidson)

낙동강방어선(1950. 8. 1~8. 4)



준장이 소위 ‘데이비드슨 라인’을 선정하여 8월 11일부터 9월 1일까지 미 제25, 제2사단과 인근 주민의 협조를 얻어 울산 동북방 17km 지점 서동리, 밀양 북방 유천과 무안리를 따라 마산 동북을 잇는 90km의 예비진지를 구축하였다.⁵⁾

한편, 이 무렵 신성모 국방장관이 ‘최근의 전국과 우리의 각오’라는 성명을 발표하여 적을 반드시 몰아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데 이어, 낙동강선 형성에 즈음하여 8월 3일 국군 총참모장 정일권 소장은 국군과 유엔군의 전력이 적보다 우위에 있다는 내용을 전국 각지에 발표하여 군·관·민(軍官民)을 격려했다.⁶⁾

2. 韓·美軍의 防禦編成

8월 1일 낙동강방어선으로의 철수명령에 따라 각 군단 및 사단은 지정된 책임지역으로 철수하되, 8월 2일~3일까지 당시의 전선이던 낙동강 외곽선(X선)에서 적을 지연하면서 신방어선인 낙동강방어선(Y선)에 대한 정찰을 실시하고 진지를 전환하여 8월 4일부터는 Y선에서 적의 진출을 저지하도록 하였다. X선은 마산 서쪽 서북산 일대-합천 북쪽 산제리 일대-지례 동쪽-김천-상주-예천-안동-청송 북쪽 홍구동-영덕을 연하는 선이며, Y선은 강을 연한 낙동강방어선이였다.⁷⁾

이러한 작전명령에 따라 한·미군의 각 부대는 이동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진지전환은 적의 압력에 따라 숨가쁘게 진행되었다. 우선 8월 1일 새벽 상주의 미 제25사단은 명령에 따라 남쪽의 신방어진지로 이동하고 있을 때 갑자기 삼랑진으로 이동하라는 수정명령을 하달받았다. 이는 그때 뒤늦게 적 제4, 제6사단이 낙동강 서부로 접근해 오고 있다는 정보를 확인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응급조치에 따른 것이었다.

사단 선발대가 2일 밤 왜관 부근에서 출발하였을 무렵 다시 제8군사령부로부터 목적지를 마산으로 변경한다는 명령을 받았다. 그리하여 사단은 상주-김천-왜관까지 도보와 차량으로, 여기에서 마산까지는 열차로 이동하여 제35연대는 8월 3일 10:00에, 제24연대는 19:30에 각각 마산에 도착하였다. 제25사단은 중요한 시기에 전례 없는 기동을 완수함으로써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부대표창을 수여받았다.⁸⁾

이때 진주-마산 간에서 X선을 점령하고 있던 제24사단장은 7월 31일 사단사

령부를 함천에서 창녕으로 이동한 뒤 8월 1일 제25사단 주력이 도착하기에 앞서 적 제6사단의 진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진주-마산에 이르는 두 개의 접근로에 대해 위력정찰전을 전개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8월 2일 미명 사단에 배속된 제29연대 제2대대와 제27연대 제1대대가 전차와 장갑차 등으로 차량화 정찰대를 편성하여 중암리와 진동리에서 각각 진주 방향으로 위력수색을 실시하였다.

이날 제29연대 제2대대는 적의 기습을 받고 철수하였으나, 제27연대 제1대대는 진주고개에서 적의 차량보급부대와 조우하여 항공기의 지원하에 격파하였으며, 또 후방이 차단된 상황에서도 공세적인 철수작전을 전개하고 다음날 미명 진동리 국교에서 적 제14연대의 역습을 받고 적 병력 600여 명을 살상하면서 격퇴하는 전과를 달성하였다.⁹⁾

2일 아침에 철수명령을 받은 제34연대는 낙동강을 건너 영산에 집결하였으며, 이날 야간 제21연대와 국군 제17연대도 비교적 순조롭게 철수하여 대구-고령 간 교량을 건너 창녕으로 이동하였으며, 교량은 공병대대에 의해 폭파되었다. 중암리에서 적을 방어하던 제19연대도 3일 저녁 제25사단 제35연대가 도착하자 다음날 창녕으로 이동하였다.

이 무렵 지례-김천에서 왜관으로 이동한 미 제1기병사단은 후위부대인 제5기병연대가 적의 공격을 받아 거의 1개대대를 상실하였지만 왜관 남서쪽 성주도로에서 엄호부대로 있던 제8기병연대 제1대대를 제외하고는 3일까지 비교적 무난히 철수하였다. 사단은 대구에 이르는 왜관 교량과 철교를 엄호부대가 철수하는 대로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폭파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엄호부대의 뒤를 이어 피난민이 쇄도하면서 다소 지체되어 4일 밤 폭파되었다. 그 동안 대안의 엄호부대가 피난민을 건너오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신속히 차안으로 복귀하자마자 교량을 폭파하게 하였으나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건 피난민의 대열은 차마 막을 수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체되면서 다른 대안이 없어 교량은 폭파되었고 많은 피난민이 목숨을 잃는 비극이 연출되었다. 그리하여 낙동강상의 대부분의 교량은 4일까지 절단되었다.

한편, 왜관 북동쪽의 국군도 같은 시기에 도하철수를 개시하였다. 육군본부는 제1·제2군단에 적을 저지하면서 7월 31일과 8월 1일 야음을 이용하여 낙동강 남안으로 이동하라는 '작명 제91호'를 하달한 데 이어 3일 야간까지 낙동강 방어진상으로 철수하라는 '작명 제94호'를 하달하였다.¹⁰⁾

이에 따라 함창에서 적을 저지하고 있던 국군 제2군단 예하 제1사단은 1일

밤 적과 접촉을 끊고 당시 상주의 미 제25사단 엄호 아래 낙동리로 이동하였으며 다음날 제12연대의 엄호 아래 이곳 나루터에서 선박으로 낙동강을 도하하여 3일 저녁까지 신진지의 점령을 완료하였다. 국군 제1사단 우측에서 접전 중인 국군 제6사단은 함창-점촌에서 용기동으로 이동하여 방어하라는 군단명령을 받고 2일 미명 제19연대의 엄호하에 도하철수하여 용기동 일대에 도착하였다.

국군 제1군단 예하인 제8사단은 군단작명에 따라 안동에서 수도사단의 엄호 아래 안동대교를 건너 그 남쪽에 진지를 점령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촉박한 명령 전달과 수도사단의 엄호 미비로 인해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도하철수하였으며, 수도사단 역시 마찬가지로 길안 방면으로 이동하여 방어편성을 하였다. 동해안의 국군 제3사단은 현 작전임무를 계속 수행하라는 명령에 따라 영덕을 방어하기 위한 진지편성에 주력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국군과 유엔군은 대체로 8월 3일 야간까지 진지전환을 완료하고 방어편성에 주력하였다. 육군본부와 제8군사령부는 대구에 위치하였으며 국군 제1군단사령부는 의성에, 제2군단사령부는 군위에 각각 위치하여 부대를 지휘하였다.

국군 제2군단은 제1사단이 왜관에서 낙정리까지 도상거리로 42km 정면을, 제6사단이 낙정리에서 상아동까지 26km 정면을 담당하여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국군 제1군단은 제8사단이 상아동에서 구미동까지 20km 정면을, 수도사단이 구미동에서 청송까지 24km 정면에 진지를 편성하였으며, 육본직할의 제3사단은 영덕 정면의 16km를 담당하였다.

제8군은 제1기병사단이 왜관에서 현풍 북쪽에 이르는 35km 정면에 방어진지를 편성하였으며, 제24사단이 국군 제17연대와 더불어 현풍에서 남지까지 40km 정면을 담당하였다. 제25사단은 제5연대전투단 그리고 민부대 등과 함께 남지에서 진동리까지 37km의 방어정면을 담당하였다.

한편, 육군본부는 미 제25사단의 마산 이동의 결과 국군이 담당할 방어선이 너무 넓고 연결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8월 11일 국군의 전선을 축소시켜 국군 제1·제2군단에 ‘작명 제119호’를 하달함으로써 국군은 이후부터 왜관-포남동-수암산-유학산-군위-보현산을 잇는 수정된 방어선상으로 이동하여 적을 계속 방어하게 된다.¹¹⁾

3. 人民軍의 展開

1950년 8월 1일 인민군은 국군과 유엔군을 추격하여 대체로 진주-김천-점촌-안동-영덕을 연결하는 선까지 진출하였다. 전선사령관 김책(金策) 대장은 사령부를 수안보에서 김천으로 이동시킬 준비를 갖추었으며, 제1군단장 김웅(金雄) 중장이 김천에서, 제2군단장 김무정(金武亭)이 안동에서 각각 공격부대를 지휘하고 있었다.

김책은 낙동강선 외곽에 1개 전차사단으로 증강된 10개사단을 배치하고, 예비사단인 제10사단을 낙동강 전선을 목표로 남하시키고 있었으며, 제7·제9 2개사단을 서울에 집결시켜 전선투입을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그 결과 왜관 북방에서 영덕까지를 담당하게 된 적 제2군단은 제15사단과 제13사단 일부가 왜관 북방 국군 제1사단 정면에서 도하준비를 갖추었으며, 그 동쪽으로 제13사단(-)과 제1사단이 국군 제6사단 정면에 대치하고 있었다. 안동을 점령한 적 제8사단이 국군 제8사단 정면에, 그리고 제12사단이 수도사단 정면에 각각 대치하였으며, 동해안 방면에서는 적 제5사단과 제766부대가 국군 제3사단과 접전 중이었다.

(표 1) 8월 초 쌍방의 전투편성과 병력

작전지역	한 · 미 군		인 민 군	
영덕	육적	제3사단 6,469명	제2군단	제5사단, 제766부대 7,500명
청송-구미동	제1군단	수도사단 5,778명		제12사단 6,000명
구미동-상아동		제8사단 8,154명	제8사단 8,000명	
상아동-낙정동	제2군단	제6사단 6,570명	제1군단	제1사단 9,500명
낙정동-왜관		제1사단 7,660명		제13사단 9,500명 제15사단 5,000명
				제105전차사단(40여 대) 3,000명
왜관-현풍	제8군	제1기병사단 10,276명	제1군단	제3사단 6,000명
현풍-남지		제24사단 9,685명 국군 제17연대 1,762명		제4사단 7,000명
남지-진동리		제25사단 제5연대 전투단 16,928명		제6사단, 제83차량화연대 제104치안연대 5,000명
				예비 제2사단(김천) 7,500명

한편, 왜관에서 마산 정면까지를 담당한 인민군 제1군단은 제3사단이 미 제1기병사단 정면에서, 제4사단이 낙동강 돌출부의 미 제24사단 정면에서 각각 도하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마산 서부에는 제6사단과 제105전차사단 예하 제83차량화연대가 미 제25사단 정면에서 대치하고 있었다. 이 무렵 제105전차사단의 전차 약 40여 대는 2개군단에 나누어져 지원하고 있었으며, 제2사단은 김천에 예비로 집결되어 있었다.

이 밖에 인민군은 점령지 보안사령부 예하에 12개의 치안연대(연대당 2천여 명)를 편성하고 있었는데, 이들 부대는 기간요원을 제외하고는 90%가 현지 주민으로 편성되었고 무장력이 없었으므로 주로 전쟁지원임무를 맡고 있었으며, 다만 제102(전주), 제103(안동), 제104(사천) 치안연대는 직접 전투에도 투입되었다.¹²⁾

第2節 人民軍의 8月攻勢와 防禦線의 危機

1. 彼我的 作戰目標와 準備

(1) 敵의 作戰目標와 攻勢準備

1950년 7월 말 낙동강선 외곽에서 도하준비를 갖춘 인민군은 부산 점령을 목표로 국군과 유엔군이 강력한 방어진지를 형성하기 전에 신속한 추격작전으로 낙동강을 도하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이를 위해 대구 방면에 주공을 지향하면서 동시에 모든 접근로에서 공격하여 어느 축선에서든지 돌파구가 형성되면 이를 확대하여 후방 깊숙이 진출하도록 하였다.¹³⁾

그러나 북한의 공간사는 당시 상황을 “연속적인 타격과 대담한 기동작전으로 미군과 국군을 김천·함창·안동지역에서 포위소멸하고 빨리 낙동강을 강행도하하여 적의 기본집단을 대구 일대에서 포위소멸하여 마산-대구-영천-포항제선에 진출함으로써 미군들을 최종적으로 격멸소탕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는 것을 8월공세의 기본목표로 삼았다.”라고 기술하고 있다.¹⁴⁾

이러한 작전개념에 따라 인민군은 전선부대의 절반을 대구 방면에 투입하여 제2군단 예하 제15·제13사단을 다부동-대구 축선으로, 제1사단을 군위-대구 축

선으로 지향하였으며, 제1군단 이하 제3·제10사단을 왜관-대구 축선으로 각각 진출시킬 계획이었다.

이 밖에 제6사단이 마산-부산 축선으로, 제4사단이 영산-밀양으로 공격하고, 제8사단이 의성-영천으로, 제12사단이 기계-경주 축선으로, 제5사단이 영덕-포항 축선으로 돌파하도록 임무를 부여받고 있었다.

그러나 인민군의 전투사단들은 상부의 계획과는 달리 그 동안의 전투손실 때문에 신속한 추격작전을 전개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선으로 도하철수를 개시하는 취약한 시기에 차기작전을 위한 부대정비에 들어감으로써 전선돌파의 기회를 상실하고 있었다.

낙동강 전선에 전개한 인민군의 각 사단 전투력은 개전초기에 비하여 50~60%로 격감되었고 더구나 제공권이 없어 모든 부대의 주간행동이 제한되고 병력과 장비의 보충이 여의치 못하여 더욱 약화되어 가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적은 전선돌파를 위해 각 전투부대의 독전대(督戰隊)를 증가시키고 있었으며 아직은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한 상태하에서 작전을 펼치고 있었다.

8월 초 인민군의 병참기지는 만주와 블라디보스토크로 전선의 남하와 더불어 병참선은 크게 신장되었다. 교통망은 북한-남한간 수송이 주로 서울을 경유하고 있었으므로 적의 보급수송은 만주-평양-서울, 블라디보스토크-청진항-원산항-서울을 경유하여 보급되었다. 따라서 서울은 병참상 근거지가 되었으며 왜관에 이르는 전선까지 약 300km에 달하였다.¹⁵⁾

당초 적은 육상수송을 위해 수만 명의 서울시민을 강제 동원하여 한강교를 보수하고 서울에서 각 지역으로 이어지는 보급로를 통해 전선의 11개 전투사단을 지원하였다. 그나마 유엔 해·공군의 쉴새 없는 폭격으로 보급집적소가 파괴되고 야간에만 수송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인민군은 차량과 열차를 이용한 야간수송으로서 야포, 박격포, 기관총 등 최소한의 장비를 각 전투부대에 보충하고 있었으며, 전차부대도 큰 타격을 받아 초기작전에서와 같은 위용은 더 이상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¹⁶⁾

한편, 북한 내의 후방전략기지도 50여 회의 유엔 항공기의 전략폭격으로 마비되었다. 이 폭격으로 시베리아와의 통로가 봉쇄되었으며, 평양 조차장과 병기창, 원산항과 제유소, 홍남합성화학공장, 나진부두, 성진제철소, 진남포 알루미늄공장 등이 파괴되었고, 전쟁지원 능력이 한계에 달하였다.

당시 인민군이 8월공세를 위해 증원한 것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8월 15일

전차 21대와 전차병 200여 명을 전선으로 추진한 것이었으나 이것마저 도중에 유엔 공군기의 폭격을 받아 상당수가 파괴되었으며,¹⁷⁾ 또 8월 중순부터는 연료의 부족으로 기동에 많은 제약을 받았다.

(2) 我軍의 作戰戰略과 決戰準備

8월 중 제8군사령관 워커 장군의 임무는 부산교두보를 확보하며 현재 극비리에 추진 중인 인천상륙작전(仁川上陸作戰)에 호응하여 즉시 공세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작전방침은 아래의 훈시내용에 잘 나타나 있다.

우리는 항상 공세이전에 필요한 여건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공세에 필요한 능력과 전기의 파악이다. 그러므로 공세를 취할 수 있을 때까지 적에게 계속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공한다면 적에게 결정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는 호기(好機)가 도래할 것이며, 총공격으로 전환할 아군의 준비 또한 빨리 완료할 수 있을 것이다.¹⁸⁾

워커 장군은 낙동강선에서 국군과 유엔군이 반격준비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공세행동으로써 적을 교란하고 공세로 전환하기 이전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만들어야 하며 방어가기간에도 공세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교두보 내의 국군과 유엔군은 증원부대와 보급수송을 위한 병참선을 확보하고 우세한 포병과 항공기으로써 적의 사기를 저하시키며 적극적인 역습으로써 전세를 전환하여 장차 반격을 위한 준비를 갖추는 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이 무렵 피아의 총병력은 8월 4일 국군이 45,000명, 미군이 47,000명인 것에 비하여 인민군이 70,000~92,000명으로 판단되어 병력 면에서 여전히 적보다 열세에 있었다.¹⁹⁾ 따라서 낙동강선 방어작전에서 예비대 운용이 무엇보다 중요시되었으며, 예비대 투입의 시기와 장소 그리고 새로운 예비대의 편성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워커 장군의 중요한 일과가 되었다.

당시 제8군은 항공정찰, 포로와 투항자의 진술, 노획문서, 주민의 협조 등을 종합하여 정보판단한 결과 적이 낙동강선 각 지역으로 정면공격을 시도하되 대

구정면과 마산정면에 주공을 둘 것이며 어느 지역에서든 교두보가 돌파되면 즉각적인 전과확대를 노릴 것이라고 분석하였으며,²⁰⁾ 이러한 작전분석은 비교적 적중되고 있었다.

공세이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력증강이 선행되어야 했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취해진 미 본토로부터의 지상군부대가 증원되기 시작하였으며, 한편 현지에서 국군 신병(新兵)을 차출하여 미군부대에 보충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었으며, 이 무렵 영국 지상군을 비롯한 유엔 참전국의 일부도 내한 중이었다.

미 본토에서는 군비증강을 서두르는 한편, 증원부대와 군수물자를 신속히 한국전선에 투입하기 위한 노력을 갖추고 있었다. 8월 초까지 미 대통령은 주방위군 4개사단을 현역에 편입하고 250만 명까지 동원할 준비를 갖추었으며, 군사비도 연간 130억 달러까지 삭감된 것을 350억 달러 선까지 증액하였다.²¹⁾ 한편, 산업동원계획도 수립하여 3개 고무공장을 군수공장으로 전환하고 민간선박회사와 항공사에 수송을 계약하였다.

그 결과 7월 말부터 미 본토와 하와이에서 증원부대가 도착하기 시작하였다. 제5연대전투단이 7월 31일에, 제2사단 제9연대와 제23연대가 7월 31일에서 8월 5일 사이에, 임시 제1해병여단이 8월 2일에 각각 도착함으로써 유엔군은 방어력을 크게 보강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7월 말 미 항공모함 복서(Boxer)호가 145대의 F-51 무스탕기를 만재하고 태평양을 횡단하여 일본에 도착하였으며, 8월 초 미 극동공군은 F-80 전투기 625대와 F-51 전투기 264대를 보유하게 되어 일일출격능력 525기로 증강되었고, 이들은 주야로 지상근접지원과 근접차단, 전략폭격, 정찰 및 수송 등의 지상작전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²²⁾

미군의 증원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전차부대의 증원이었다. 최초로 제89전차대대(M4A3 50대)가 8월 3일 한국에 도착하여 제25사단에 배속됨으로써 점차 쌍방의 장비 면에서 불균형이 해소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병력증강과 표리의 관계라 할 수 있는 군수지원도 큰 성과를 달성하고 있었다. 이 무렵 유엔군사령부는 병사 1인당 1톤 기준으로 보급품이 일본에서 부산으로 수송되었으며, 제8군은 예비보급품을 최소한 45일분을 유지하고 점차 120일분으로 증가시키도록 계획하였다.²³⁾ 7월 한 달 동안 부산항에는 230척이 입항하고 214척이 출항하여 총 309,314톤의 보급장비가 양륙되었다.²⁴⁾

한국정부는 국내에서 자력으로 생산 및 조달할 수 있는 품목은 자체조달하고 나머지 장비와 물자에 대하여 미 군수지원계통으로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미 제8군과 합의하고,²⁵⁾ 제1차~제4차 사변수습(事變收拾) 비상경비에산을 편성하여 최초 일반예산의 27.7%(250억원)이던 국방예산을 72~75%로 책정하였다.²⁶⁾ 또한 국방부는 경남지구에 산재한 중요물자를 군수품으로 총당하고, 전남방직 공장의 재고품을 부산으로 수송하여 군복으로 대응하였으며, 대구와 부산 등지의 방직공장을 총동원하여 군의 소요량을 확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²⁷⁾

부산과 제주도에 조병기지(造兵基地)가 설치되어 탄약과 수류탄, 총기 부속품의 제조, 노획병기의 정비작업 등이 이루어졌으며, 한국 적십자사 자원봉사자들이 피난민의 수용, 구호물자 배급, 부상자 치료를 지원하였고 구국총력연맹의 자원봉사자들이 노력동원, 장비 및 국내생산물자를 조달하였다.²⁸⁾

한편, 국방부는 국군의 전투사단 증강을 위해 5개사단을 완편하고 신편사단을 창설하며 국군의 일부 보충병을 미군부대에 증원한다는 내용에 미군과 합의를 이루었으며, 육군본부도 비로소 8월 1일 대구에 육군중앙훈련소를 설립하여 신병보충을 체계화하기 시작하였다.

이 무렵부터 자원한 학도의용군과 노무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었다. 학도의용군은 각 지구에서 수십 명씩 국군부대에 입소하여 전투와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으며, 7월 중순부터 상당수가 현지입대하기도 하였다. 당시 대구의 신병 교육대인 제25연대에는 현지입대한 2천여 명의 학도의용군이 훈련을 받았으며 그중의 일부는 제주도에서 하사관 교육을 받았고 일부는 간부후보생으로 임관하기도 하였다.

7월 27일 대한학도의용대가 육군본부의 승인하에 대구에서 “죽음으로써 나라와 겨레를 지킬 것을 선서한다.”라는 출전선서(出戰宣誓)를 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육군본부 정훈감실은 8월 초 유격전을 전개할 목적으로 1천 5백명의 학도기간대를 편성하고 밀양의 유격대와 통합운용하였다.

한편, 노무자들이 전선 전후방에서 작전을 지원하고 있었다. 국군은 각 부대별로 피난민이나 인근 마을주민들 중에서 이들을 모집하였으며, 보국대로 호칭되던 노무자들은 적극적으로 응모하여 지원하였다. 8월 초부터 이들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어 각 연대 단위로 추가모집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국군 1개대대에 평균 50~60명의 노무자가 활동하고 있었다.²⁹⁾

노무자들은 미군부대에도 편성되어 지원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들은 항만 하

역업무와 전방으로의 보급추진을 주도하다가 7월 중 한국경찰을 통해 차출된 민간인 3개의 수송중대가 편성되어 미군의 보급수송을 지원하였으며, 이 밖에 비행기 급유, 비행장, 도로, 철도 건설과 유지 등의 임무도 수행하였다. 이 노무단은 8월 초 미 제8군사령부와 육군본부가 각종 노무와 근무를 지원할 목적하에 노무자를 미군부대에 지원한다는 내용에 합의함에 따라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³⁰

한편, 국군과 경찰이 미군에 배속되어 작전을 지원하였다. 최초 워커 장군이 고문단장 파렐(Francis W. Farrell) 준장을 통해 미군지원을 위해 대구훈련소 기간병을 요청한 바 있으며, 7월 23일 조병옥(趙炳玉) 내무장관과 워커 사령관이 7월 23일 미군작전지역에서 적 게릴라의 색출을 위해 한국경찰을 미군부대에 배속한다는 데 합의하여 15,000명의 경찰이 미군에 배속되었다.³¹

이들은 미군부대에 배속되어 용감히 전투를 수행하였는데, 일례로서 미 제7기병연대 제1대대에 편입된 국군경찰 133명은 전투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행군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송을 거부하고 전투를 계속하였다.³²

한편, 방어선의 형성시 피난민의 통제문제가 대두되고 있었다. 피난민은 7월 중순 약 380,000명이 남하하였고 매일 25,000명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되었으



낙동강변 피난민촌

며, 그 대열은 주로 경부간도로를 따라 집중되었으며 적의 공격이 심한 지역에서 더욱 많았다.³³⁾

이미 정부는 7월 10일 각 부처에 ‘피난민 분산에 관한 건’이라는 통첩을 하달하여 필요한 장소에 피난민 수용소를 설치하고 증명서와 양곡을 교부하며, 군경(軍警)이 검문과 안내를 담당하여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였다.³⁴⁾

그러나 간혹 피난민들이 작전도로를 메우고 있어 기동에 제한을 받았으며, 또 적의 오열(五列)이 피난민으로 가장하여 후방으로 침투하는 경우도 빈번하였다. 영동에서는 적이 지뢰지대를 통과하기 위해 피난민 대열을 앞세우기도 하였으며, 왜관 교량 부근에는 많은 피난민이 후미부대의 꼬리를 물고 쇄도하여 작전에 지장을 주었다.³⁵⁾

따라서 한국경찰이 피난민을 보호하고 통제하여 빠른 시간 안에 전투지역에서 피난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었다. 정부는 8월 4일 ‘피난민 수용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공포하여 작전의 편의를 제공하고 폭도화를 방지하며 전염병을 예방한다는 등의 취지로 지정 수용소에 피난민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³⁶⁾

2. 大邱 北方의 危機

인민군은 낙동강전선에서의 결전을 앞두고 후방에서의 전쟁지원능력은 상대적으로 적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균형의 파괴가 심화될 것임을 그들 자신이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의 판단대로 지구전은 그들에게 불리하였다. 이러한 기로에서 1950년 8월 초 인민군 전선사령부는 제2군단 예하의 제15·제13·제1사단 등 3개사단을 함창, 상주 일대에, 제2군단 예하의 제3·제10사단 등 2개사단을 왜관 서측에 집결시켜 총 5개사단으로 대구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반면 대구로 지향된 적의 주공에 대해 방어병력은 총 3개사단이 배치되었다. 대구를 중심으로 왜관 북방 328고지에서 낙정리까지는 국군 제1사단이, 왜관(303고지)에서 현풍까지 미 제1기병사단이, 그리고 낙정리에서 의성 서쪽까지 국군 제6사단이 각각 담당하였다. 국군 제1사단은 미 제25사단의 마산 이동으로 위천 하구에서 왜관 북쪽까지 정상방어의 4배인 42km의 강 연안지역에 제15, 제11, 제12연대순으로 배치하여 좌측 기병사단과는 연결을 이루었으나 우측

제6사단과는 4km의 간격이 있었다.

미 제1기병사단은 왜관에서 현풍 북쪽에 이르는 대구 서측면의 방어를 담당하여 강변에 제5, 제8, 제7(-)기병연대순으로 병행 배치하고 1개대대만을 예비로 확보하였다. 국군 제6사단은 제19연대를 용기동 정면에, 제2연대를 서측 장자봉에 배치하고 제7연대를 예비로 하는 방어편성을 하였지만 인접사단과는 연결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 무렵부터 신병과 학도병 등이 보충되고 많은 노무자들이 각 사단으로 지원됨으로써 장병들의 사기는 제고되었다.

인민군은 적 제13, 제15사단이 상주 및 김천 일대에서 부대재편을 마치고 낙정리와 그 남쪽 구미로 각각 진출하였으며, 왜관 서쪽 대안에는 제3사단이 대구를 목표로 성주 일대에 집결하고, 이와 협조하기 위해 제10사단이 고령 일대로 이동 중이었다.³⁹⁾ 함창 일대에서 부대를 재편한 적 제1사단은 국군 제6사단을 추격하여 일부 병력의 은밀한 도하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들은 강제징집병으로 병력을 보충하여 병력과 화력 면에서 여전히 국군보다 우위에 있었으나 보급의 제한과 항공기의 위협으로 사기는 저하되어 있었으며, 각 부대는 정찰대를 파견하여 도하점을 탐색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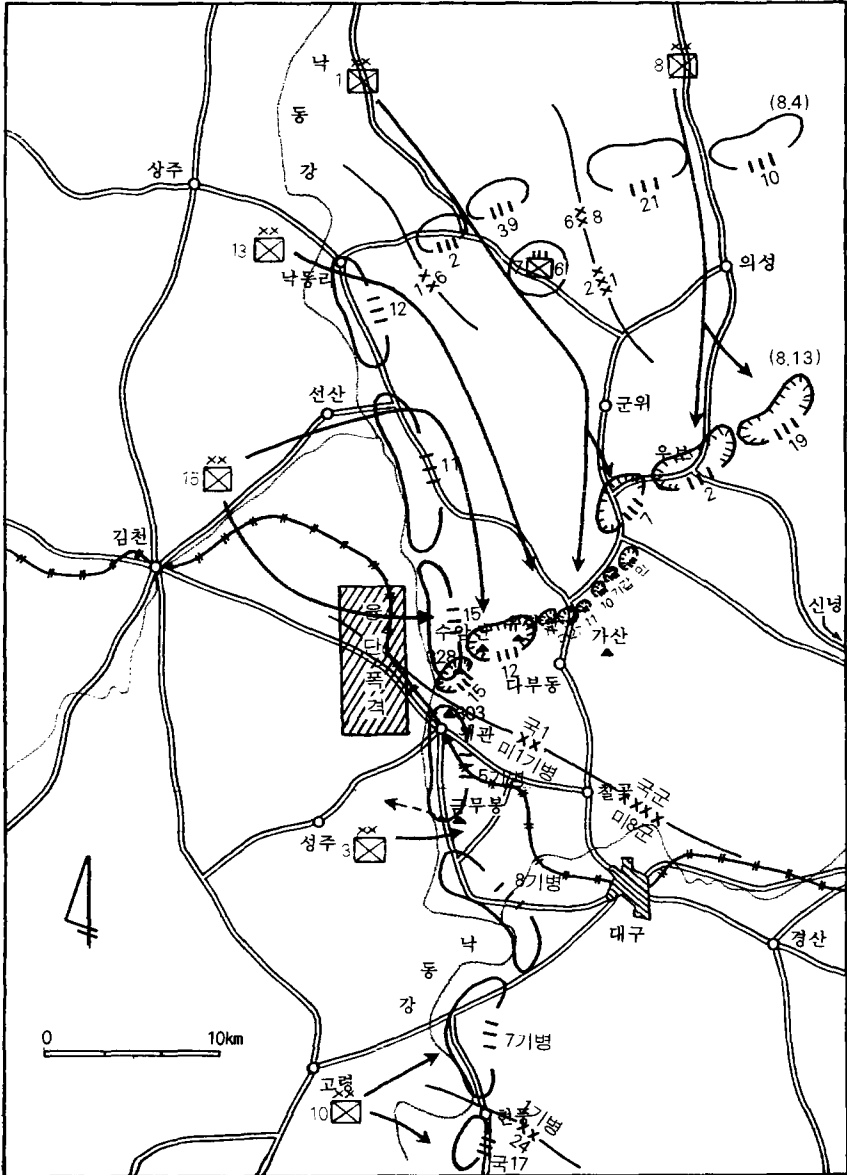
각 방어 정면의 강의 수심은 30년 만의 폭심한 가뭄으로 인해 수심이 1~1.5m로 격감되어 도섭이 가능하였으며 작전지역 내에는 고령·왜관·상주와 안동에서 대구로 이어지는 도로가 있어 도로망은 적의 양호한 접근로가 될 수 있었다.

적의 도하는 8월 3일부터 시작되었다. 주접근로를 담당한 국군 제1사단은 낙정리 부근으로 도하하는 적 제13사단을 몇 차례 격퇴시켰으나, 적의 도하가 본격화되자 방어정면이 너무 넓은데다가 북쪽이 돌출되어 있어 방어선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한 나머지 4일 정면을 축소조정하고 제12연대를 예비로 전환시켰다. 사단은 5일부터 적 제13사단 주력의 총공격을 받기 시작하였다. 제11연대가 제12연대 지역으로 도하한 적 1개연대의 공격을 받아 낙산동 일대의 고지가 일시 피탈되었으나, 때마침 배속받은 제12연대 제1대대로 과감한 역습을 전개함으로써 적을 격퇴하였다.

이 무렵 미 제1기병사단 정면에서는 여전히 도하탐색전만 계속하고 있었으나 좌인접 국군 제6사단도 함창-상주에서 도하한 적 제1사단과 접전 중이었으며, 5일부터 전차를 앞세운 이들의 공격을 받고 수차례 밀고 밀리는 혈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8일 미명부터 국군 제1사단은 적 제13사단과 더불어 제15사단의 도하공격을

대구 북방의 위기



받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전날부터 선산-구미에서 1.2m의 강을 도섬으로 건너기 시작하였다. 적은 마진나루에 은밀히 수중교(水中橋)를 부설하여 도하시킨 전차와 함께 1개 연대병력으로 제15연대 정면을, 1개 연대병력으로 강창나루에서 제11연대 정면을 각각 도하공격하였다. 수중교는 항공정찰로도 관측되지 않는 장점이 있어 제공권이 없는 적으로서는 최적의 도하방법이었다.³⁸⁾

제11연대는 즉시 유엔 항공기의 지원을 받아 적 전차 4대를 파괴하는 등 저지사격을 가하였지만 결국 도하를 허용하여 해평천선으로 물러나 적을 저지하기로 하였다. 연대는 다음날 적의 접근을 관측하고 준비된 탄막사격을 집중하는 동시에 대전차특공대를 투입하여 전차 5대를 파괴하는 등 큰 전과를 달성하면서 진지를 고수하였다.³⁹⁾

제15연대⁴⁰⁾는 일시 방어선이 돌파될 위기에 처하였으나 예비인 제12연대(-)의 지원으로 위기를 타개하였으며 공군기의 지원하에 역습을 실시하여 9일 새벽까지 방어선상의 상실한 고지를 탈환하였다.⁴¹⁾ 곧 이어 제12연대장은 대전차특공대를 투입하였으며, 현덕진(玄德鎭) 중위 외 11명이 4개조로 나뉘어 적진에 침투하여 적 전차의 포탑과 무한궤도에 로켓포 사격을 가하여 전차 4대를 파괴하는 데 성공하였다.⁴²⁾ 이에 연대는 10일 새벽 즉각 역습을 전개하여 적을 완전히 강 서쪽으로 격퇴하였으며, 유엔공군기 편대가 이틀간 마진나루에 설치된 수중가도(水中街道)에 집중적으로 폭격을 가하였다.

이 무렵 국군 제6사단은 적 제1사단과 공방전을 반복하다가 결국 9일 미명 제19연대의 진지 일부가 돌파되면서 용기동을 포기하고 위천으로 물러나 적을 저지하고 있었다.⁴³⁾

한편, 미 제1기병사단도 9일 03:00부터 적 제3사단의 도하공격을 받기 시작하였다. 적의 선두부대는 왜관교 남쪽 3km의 노촌에서 총을 머리에 받쳐 들고 강행도하를 시도하였다.⁴⁴⁾ 정면의 제5기병연대는 즉시 강을 향해 저지사격을 집중하였으나, 적을 발견한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이미 상당수가 도하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연대장은 즉시 적의 주력부대가 도하할 것이라 판단하고 만반의 대비를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곧 이어 예상대로 적 제3사단 제7·제9연대가 신기 부근에서 도하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즉각 조명탄과 예광탄으로 대낮같이 정면을 밝히고 노출된 적을 향해 보·전·포의 저지사격을 집중하였다. 도하 중인 적은 순식간에 대부분이 궤멸되었으며 일부만이 다시 강을 건너 철수하였다.

그러나 이미 적 1개대대가 금무봉으로 침투했음이 정찰대에 의해 밝혀졌다. 아침에 정찰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은 사단장은 사단예비 제7기병연대 제1대대장에게 이를 구축하도록 역습명령을 하달하였다.⁴⁵⁾ 대대는 강력한 공격준비사격 후 전차중대(5대) 지원하에 즉시 공격에 나섰으나 숲이 무성하고 또 극심한 더위로 인해 더 이상 진전을 볼 수 없었다. 다음날 화포와 항공기의 강력한 공격준비사격 후 공격을 재개하였다. 제1대대가 전차를 금무봉 후면으로 진출시켜 전후에서 협공을 개시함으로써 마침내 적을 격퇴하는 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이 전투간 금무봉 옆 왜관도로상에서 부사단장·참모장·정보참모 그리고 헌병이 적에게 매복기습을 당하여 부상을 입었으며, 또한 현장에서 사단장과 대화를 하던 제1대대 부대대장과 일단의 병사들도 적의 박격포 직격탄을 맞아 사단장과 부관을 제외하고 모두 죽거나 부상을 입었다. 후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 전투에서 적 제13사단 제7연대가 대과당하였으며 그중 제1대대는 300~400명이 사망하였다.

결국 서울사단이라는 칭호까지 받은 적 제3사단은 도하작전의 실패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패잔병 2,500여 명과 함께 잠시 전선에서 물러나게 되었다.⁴⁶⁾

따라서 적 제2군단장은 이날부터 대구 서측방의 공격임무를 제10사단에 부여하였다. 이들은 최초 제3사단과 협동하여 대구를 장악할 계획이었으나 8월 8일에야 왜관에 도착하였다. 사단은 낙동강을 도하, 대구-부산 병참선을 차단하려는 임무를 부여받고 11일에 고령에 집결하여 용포 및 현풍대안에 제25·제29연대를 추진하고 제27연대를 예비로 야간강습도하를 시도하였다.

적 제10사단은 제29연대 1개대대가 가장 먼저 미 제1기병사단과 미 제24사단의 접경지역으로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도하하여 현풍 일대의 감제고지를 장악하였다. 이 지역은 미 제24사단의 방어진역이었으나 국군 제17연대가 이동한 후 거의 무방비상태로 남아 있었다.

한편, 적 제25연대는 선두대대가 12일 미명 짙은 안개를 틈타 용포교 부근 제7기병연대 제2대대 정면으로 도하를 개시하였다. 지형상 강에서 약 2km 후방에 배치된 제2대대는 뒤늦게 도하사실을 알았으나 즉시 공군과 포병의 지원하에 역습을 전개하여 적을 무난히 격퇴하였다. 대대는 재차 적의 도하공격을 받았으나 공군의 지원폭격과 계획한 탄막사격으로 저지하였다. 이날부터 적 제10사단이 며칠간 공격을 중단하였고 전선에는 소강상태가 유지되었다.

한편, 이 무렵 육군본부에서는 전체 국군작전에 있어서 중대한 전환을 결정

하고 있었다. 미군은 낙동강을 장애물로 이용하여 적을 저지할 수 있었지만 국군은 제1사단을 제외하고는 이미 강을 장애물로 이용할 수 없는데다가 전체 방어정면이 너무 넓어 부대간 연결도 이루지 못하고 적의 돌파를 저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11일부로 육군은 그 동안 계획 중이던 축소된 방어선인 왜관 북방 303고지-다부동-군위-보현산을 잇는 선으로 이동하여 적을 저지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⁴⁷⁾ 이에 따라 국군 제1사단이 강변전투를 종결짓고 12일 야간에 철수를 개시하여 다부동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방어선으로 이동하였으며, 좌인접 국군 제6사단도 군위 남쪽으로 전면적인 이동을 개시하였다.

이제 국군 제1사단과 제6사단은 다부동-군위 일대에서 대구를 방어하게 되었다. 제1사단의 다부동지역은 좌로는 328고지, 수암산과 유학산 일대의 황격실능선과 우로는 가산, 팔공산에서 뺀 고지군으로 둘러싸여 대구에 이르는 관문에 해당되어 전술상 대단히 중시되었으며, 우인접 군위-의성 남쪽 국군 제6사단의 작전지역도 위천이 동서로 흐르는데다 그 전방에 응봉산, 국통산 등 고지군으로 형성되어 있어 방어에 유리한 편이다.

국군 제1사단은 13일 다부동지역에 집결한 후 새로운 방어선을 점령하기 위하여 제15연대가 328고지 일대, 제12연대가 수암산과 유학산 일대로, 제11연대가 신주막 일대의 계획된 진지로 진출하였다. 적도 13일 제3사단 일부 병력이 약목 일대에서 도하하여 328고지로 공격하고, 제15사단이 국군 제1사단보다 한 발 앞서 유학산에 진출하였으며, 제13사단은 도로를 따라 신주막의 제11연대 정면으로 접근하면서 일부 병력을 우회시켜 미처 제11연대가 병력을 배치하지 못한 674고지를 선점하였다. 이로써 국군 제1사단은 방어선의 중앙돌파와 다부동이 점령당하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는 부대가 진지를 전환하면서 전방에서 새로이 진지로 바로 진입하지 않고 후방에 집결한 후 역진입하는 전술적 우를 범함으로써 비롯된 결과였다.

제6사단은 위천 북쪽 고지에서 배수진(背水陣)을 형성한다는 방침 아래 제7연대를 적의 기갑부대 예상접근로인 군위-효령 접근로에, 제2연대와 제19연대 제1대대를 의성-의흥 접근로를 방어하기 위해 위천 북쪽에 배치하고, 그 동안 병력손실이 많은 제19연대(-)는 의흥 부근에 예비로 집결시켜 학도병 300여 명을 보충받는 등 부대정비를 실시하였다.⁴⁸⁾ 이 무렵(13일) 적 제1사단은 군위에 집결하였으며, 적 제8사단(제103치안연대 배속)은 의성에서 남하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⁴⁹⁾

대구 정면의 적은 당초 ‘남한 해방’을 목표로 한 날인 8월 15일부터 다시 총공격을 재개하였다. 국군 제1사단은 제15연대가 328고지를 빼앗기고 뺏은 쟁탈전을 전개 중이었고, 제12연대가 유학산을 탈환하기 위해 공격을 반복하였으며, 제11연대도 전차 7대를 앞세운 적 연대규모의 공격을 받아 복곡 일대로 물러나게 되었다.⁵⁰⁾

국군 제6사단도 제7연대가 적 제1사단의 공격을 받고 효령 일대로 물러났으며, 제2연대는 전날 야간부터 적 제8사단 정찰대와 접촉하였다.⁵¹⁾ 제7연대는 포병과 항공기의 근접지원을 받으며 과감한 역습을 전개하는 등 적의 공격을 수차례 격퇴하였으며, 특히 좌일선 제2대대는 밀고 밀리는 혈전을 반복하면서 끝내 진지를 고수하였다.⁵²⁾ 제2, 제19연대는 17일 미명부터 적 제8사단의 본격적인 공격을 받기 시작하였으나 대체로 우보를 연하는 선에서 진지를 고수하였다. 특히 이날 전투에서 제19연대 제1대대가 병력 절반을 상실하고 대대장이 중상을 입는 등 큰 손실을 입으면서 끝내 적을 저지하였다.⁵³⁾

한편, 왜관 방면의 미 제1기병사단 정면에서는 8월 11일~12일 도하공격에 실패한 적 제10사단이 14일부터 예비 제27연대마저 투입하여 공격을 재개하였다. 이날 적의 일부 병력이 다시 용포교로 도하하고 곧 이어 적의 주력이 그 남쪽 반성으로 도하를 기도하였다. 제7기병연대는 공중지원과 포지원 아래 도하를 차단하기 위하여 화력을 집중하였으며, 특히 포병은 최대발사속도로 총 1,860발을 포격하여 적을 저지하였다. 이로써 적 제10사단은 양개 연대가 입은 1,500여 명의 손실을 포함하여 총 2,500명의 손실을 입고 재기불능이 되어 후퇴하였다.⁵⁴⁾

이 무렵 적 제3사단 일부 병력이 국군 제1사단 좌측을 교란하면서 14일 미 제5기병연대 제2대대가 방어하고 있는 왜관 북쪽 작오산(303m)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이 고지는 왜관 일대를 감제함은 물론 경부국도 교량과 철교를 통제할 수 있는 지형이었다. 다음날 아침부터 고지정상에 배치된 1개중대와 박격포소대가 적으로부터 포위공격을 받고 있었다.

연대장은 전차로 증강된 중대규모의 증원병력을 17일까지 몇 차례 투입하였으나 번번이 적의 박격포사격에 의해 저지되었다. 그러나 이날의 공군 네이팜탄과 로켓탄에 이은 포병의 지원사격은 대단히 성공적이어서 마침내 작오산을 무혈점령하였다.

고지에는 200여 구의 적 시체가 즐비하였으며 생존자들은 철수하였다. 그러나 고지를 탈환한 제5기병연대는 적의 포로가 되었던 박격포 소대원 26명이 손

을 뒤로 묶인 채 학살당해 버려져 있는 현장을 목격하였다. 이들은 적에게 포위된 상황에서 8월 15일 미명 무전으로 국군 60명이 증원된다는 소식을 듣고 대기하던 중 침투 중인 적을 국군으로 오인하여 접근을 허용하였다가 포로가 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유엔군사령관은 즉시 잔학행위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나 전쟁 중 적의 비인도적인 처사는 계속되었다.⁵⁵⁾

한편, 대구 방면에서 적의 공세가 한창 전개되고 있을 때인 8월 16일 11:58-12:24에 한국전쟁에서 전무후무한 대량의 용단폭격이 실시되었다. 이 폭격은 대구전선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유엔군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출격한 B-29 폭격기 98대가 왜관 서북쪽 낙동강변 일대 5.6×12km 지역에 960톤의 폭탄을 투하한 것이다. 폭격의 결과는 목표지역 상공의 연기로 인해 공중관측으로는 확인되지 않았고 지상정찰대도 파괴할 수 없어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 그래서 제2차로 계획된 19일의 용단폭격은 취소되었다. 그 후 포로진술에 의하면 강 서쪽에 배치된 적의 포병과 공병, 통신, 전차, 탄약, 보급품 등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나, 그 부근 적의 보병은 이미 도하하여 아군 정면에 전개하고 있었다⁵⁶⁾고 한다. 따라서 용단폭격이 공격부대의 심리에는 큰 영향을 줄 수 있었지만 실제 도하공격부대의 전력은 약화시키지 못하였다.

용단폭격에도 불구하고 16일에는 가산으로 침투하려는 적이 741고지에서 다부동 바로 서측 466고지를 공격해 옴으로써 국군 제1사단은 돌파되느냐 고수하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었다.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제8군은 사단병력만으로는 방어선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8월 17일 군예비인 미 제25사단 제27연대를 다부동으로 투입하였다.⁵⁷⁾

반면 이 무렵 미 제1기병사단 정면에서는 그 동안 많은 손실을 입은 정면의 적이 접촉을 단절함으로써 소강상태가 유지되었고, 국군 제6사단은 제2연대가 18일 미명부터 전차 3대를 앞세운 적 제8사단의 공격을 유엔 전폭기의 지원을 받아 격퇴하였으며, 제19연대도 방어 정면으로 진출한 적을 진전에서 격퇴하고 있었다. 따라서 적의 대구 공격은 신주막-다부동 축선으로 집중되고 있었다.

18일 새벽에는 가산에서 침투한 일부의 적이 사격한 박격포탄이 대구역에 낙하하자 대구의 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이 충격으로 이날 정부가 부산으로 이동하고 피난령이 하달되어 대구는 일대 혼란에 휩싸였으나, 조병옥 내무부장관이 경찰과 함께 직접 가두에 나서 피난령을 취소하고 민심을 수습함으로써 가까스로 질서가 회복되었다.⁵⁸⁾

이와 같은 위기를 타개하고 계획된 방어선을 회복하기 위하여 국군 제1사단은 18일에 지원된 미 제27연대와 협동으로 적진돌파작전을 전개하였다. 미 제27연대는 대부동-돌머리 축선에서 전차중대를 도로상에, 보병 2개대대를 그 좌우 낮은 능선에 전개하여 보·전협동으로 공격을 주도하고, 그 좌우 고지에서는 제1사단이 미군부대와 협조된 공격을 실시하였다.

국군 제1사단 정면의 적도 전차를 새로이 보충받아 보·전협동으로 전면적인 야간공격을 개시함으로써 피야간에 치열한 전투가 계속 되풀이되었다. 제27연대는 천평 전방에서 3.5"로켓포로 적 전차 2대를 파괴하였으나 적의 공격은 계속되었다. 적은 도로상의 지뢰로 인해 큰 진전을 이루지는 못하였다.⁵⁹⁾ 제15연대는 328고지에서 적과 수차례의 수류탄 공방전을 전개하면서 쟁탈전을 거듭하였고, 제12연대는 쌍방간에 많은 손실을 낸 채 19일 수암산을 재차 피탈당하고 유학산 일대에서 밀고 밀리는 공방전을 반복하였으나 대체로 적의 돌파확대를 저지하고 있었다.

이날 제8군명령에 따라 미 제2사단 제23연대를 후방인 두전동에 배치하여 방어중심을 증가하였다. 육군본부에서도 제8사단 제10연대를 제1사단에 배속시켜 가산 일대에 배치하였다. 이와 같이 다부동의 전황은 국군 1개연대와 미군 2개연대가 지원될 만큼 위급하였다.

한편, 사단에서는 매일 평균 600명~700명의 손실이 발생하여 병력이 날로 감소하게 되자 신병과 학도병으로 보충하였으며, 또 이 무렵 1개대대에 평균 5, 60명의 노무자들이 배치되어 전투원의 식사를 비롯한 탄약과 기타 보급품을 지게로 최전방까지 운반하고 부상자를 후송하였다.⁶⁰⁾

그런데 우인접 국군 제6사단은 이 무렵 대체로 위천을 중심으로 한 방어선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적 제1사단 제14연대가 제6사단 서측방, 즉 국군 제1사단과의 전투지경선 부근으로 돌파하여 갈피-효령선까지 진출, 군위-다부동 도로를 점령하고 다부동 동측방을 위협하기 시작하였다. 육군본부는 전 전선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 무렵 포항지구의 위기가 해소되었다고 판단, 이 지역에 투입된 제7사단 제5연대(민부대)와 독립기갑연대를 제6사단에 배속하여 이에 대처하도록 하였다.⁶¹⁾ 이에 따라 제6사단장은 제1사단과의 간격을 보강하기 위해 제5연대를 효령 남쪽고지 일대에, 독립기갑연대를 가산동 일대에 각각 배치하여 효령-다부동-대구 또는 효령-가산-대구 방향으로 적의 돌파에 대비하는 한편, 사단편제부대로는 우보-신령 접근로의 방어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적측에서는 20일 밤 중대한 작전의 변화가 있었다. 적은 더 이상 다부동전선을 돌파할 수 없다고 판단했음인지 유학산 일대에 전개한 제15사단을 의성 방면으로 이동시킨 후 국군 제8사단 정면 영천 방면으로 공격하도록 임무를 부여하였으며,⁸⁰ 이로써 적은 제3사단 일부가 수암산 일대에, 제13사단이 유학산 우측면을 담당하게 되어 공격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국군으로서는 당시 적 제1사단의 위협이 가중되어 다부동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을 때였으므로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었다.

8월 21일부터 국군 제1사단의 전황은 점차 호전되어 갔다. 이날 야간 특기할 것은 다부동 계곡에서 한국전쟁 최초로 전차전(戰車戰)이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적은 전차와 자주포를 앞세워 조공을 제11연대로, 주공을 미 제27연대 정면으로 지향하여 대규모 야간역습을 감행하였다.

미 제27연대는 가용포를 총집중하여 적 전차와 보병을 분리하고 아군전차를 추진하여 적에 대응하였다. 다부동 계곡에서 쌍방간에는 전차포에 의해 발사된 철갑탄이 5시간 동안이나 교차되면서 불꽃을 튀기었다. 당시 이 광경을 바라보던 제27연대 장병들은, 불덩이의 철갑탄이 어둠을 뚫고 좁은 계곡의 도로를 따라 메아리치며 상대방 전차를 파괴하기 위해 곧장 날아가는 모양이 마치 불링



노 무 자

공이 맞은편에 세워진 목표로 핀을 향하여 재빠르게 미끄러져 가는 모양과 같다고 하여 볼링장(Bowling Alley)전투라고 하였다. 날이 밝자 진전에는 적 전차 9대와 자주포 4문과 수대의 트럭 그리고 1,300여 구의 시체가 확인되었다.⁶⁵⁾

더구나 다음날 오전에 적 제13사단 포병연대장(정복옥 중좌)이 제11연대 지역으로 작전지도를 갖고 귀순함으로써 적의 전투의지는 극도로 저하되었고,⁶⁶⁾ 그의 진술에 따라 유엔전폭기 편대가 대거 출격하여 122mm 곡사포 7문과 76mm 곡사포 13문이 은폐되어 있다는 적의 포진지와 집결지를 강타하여 파괴함으로써 적 제13사단의 화력지원은 무력화되었다. 또한 제12연대는 그 동안 8차례의 공격 끝에 이날 밤 최초로 야간기습을 시도하여 마침내 유학산 탈환에 성공하였다.⁶⁷⁾ 이날 미육군 참모총장 콜린스 대장과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이 정일권 총참모장의 안내로 다부동 일대의 국군과 미군장병들을 방문하고 노고를 치하하였다.⁶⁸⁾

육군본부와 군단의 조치에 의거 다부동 동측방의 방어력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3일에 적 제1사단 제1연대는 국군 제8사단 제10연대가 방어하고 있는 741고지를 점령하고 또 일부는 가산까지 침투하였으며 이들은 제11연대 지휘소의 기습에 이어 그 부근의 미군 지원포병진지를 공격하였다. 이에 따라 제1사단은 미 제27연대와 볼링장 계곡에서 신주막으로 공격을 계속하여 신주막을 점령하는 한편, 제10연대와 미 제23연대는 우인점 제6사단에 배속된 독립기갑연대, 제15연대와 동시작전을 전개하여 가산 일대로 침투한 적을 격퇴하고 다시 741고지를 점령함으로써 8월공세 마지막에 조성된 다부동 동측방의 위기를 수습하였다.

제1사단은 마침내 주저항선을 안정시켜 작전의 주도권을 행사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미 제27연대는 증원임무에서 해제되어 마산의 모체부대로 복귀하였다. 적은 전투력이 현저히 약화되어 거의 접촉을 단절하였으며, 귀순한 포병연대장의 증언에 의하면 제13사단은 유학산에서만 1,500명이 전사상되고 총 3,000명의 손실을 입고 있었다고 한다.

26일부터 제1사단은 육군본부의 명령에 따라 방어진지를 미군에게 인계할 준비를 갖추면서 수색정찰을 강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12연대 수색대 제1소대장 대리 배성섭(裵星攝) 특무상사 외 11명은 유학산 정면의 적정파악 임무를 띠고 적진으로 진출 중에 27일 미명 상림동의 적 제13사단사령부를 습격하여 다수의 적을 살상하고 군관 2명을 포함하여 3명의 적을 포로로 하였으며, 이 전공(戰功)으로 이들은 2계급 특진과 아울러 상금을 수여받았다.⁶⁹⁾

사단은 28일 수암산도 피탈 10일 만에 탈환하였다. 결국 제1사단은 8월 12일에 점령하게 되어 있던 방어선을 16일 후에서야 점령한 결과가 되었다. 제1사단은 방어선상의 가장 중요한 지형인 유학산을 적에게 선점당하여 그간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다부동 전선을 방어하였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인민군은 8월 초부터 고령에서 함창에 이르는 낙동강 전선에 제10·제3·제15·제13·제1사단 등 5개사단을 투입하여 대구로 집중하였으나, 미 제1기병사단, 국군 제1사단, 국군 제6사단의 저항에 부딪쳐 현풍-왜관-328고지-수암산-유학산-신주막 선에서 저지되었다. 특히 국군 제1사단은 적 3개사단의 집요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328고지-수암산-유학산-741고지의 방어선을 확보하고 다부동-대구 접근로를 방어하여 대구 고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3. 洛東江 突出部 攻防

낙동강방어선의 형성시 대구 서측방 현풍에서 낙동강과 남강의 합류점 남지에 이르는 하천거리 60km, 직선거리 37km 방어정면은 미 제24사단이 담당하였다. 이 일대의 지형은 낙동강이 하폭 300~400m, 수심 2~4m로 S자 모양으로 흐르고 있어 여러 곳에 돌출부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창녕과 영산 부근에는 서측으로 보다 크게 반월형으로 돌출되어 있어 전사에서 이곳을 낙동강 돌출부라 칭하고 있다. 합천-진주 서측에서 이곳으로 이르는 도로는 남지교를 제외하고는 교량이 없어 연결되지는 않으나 도섭장과 도선장은 여러 곳에 있었다. 그중에서 부곡-창녕, 박진-영산에 이르는 도로는 창녕, 영산을 지나 대구-부산 축선의 밀양으로 진출하기에 대단히 양호한 접근로가 될 수 있었다.

사단은 8월 2일~3일에 산제리 부근에서 지연전을 마감하고 낙동강을 도하여 제34연대가 영산, 제21연대가 창녕으로, 배속된 국군 제17연대가 현풍지구로 이동하여 강변고지를 중심으로 병력을 배치하였다. 그러나 당시 사단의 전투력은 40%에 불과한데다 광정면을 담당하여 부대간격이 4~5km나 되었고, 따라서 하천 및 도로의 정찰이 강조되었다.

처치 장군은 적 병력이 합천 일대에 집결해 있는 점이나 또 지형상 영산 쪽보다 창녕이 도섭가능지점이 많고 공격에 유리하다고 보아 적의 주공은 창녕 정면으로 지향될 것이라 판단하고 이 일대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사단수색중대와 마산에서 3일 복귀한 제19연대를 창녕에 집결시켜 예비대로 삼았다.⁶⁸⁾

사단장은 주민과 피난민에 의해 작전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였기 때문에 지역 내의 주민들을 소개하였으며 피난민의 도하도 엄격히 제한하였다. 정면의 적 제4사단은 군단으로부터 돌출지역을 돌파하여 신속히 대구 후방을 차단하면서 경부간 도로를 따라 부산으로 진출하라는 명령을 받고 합천 일대에 집결하여 도하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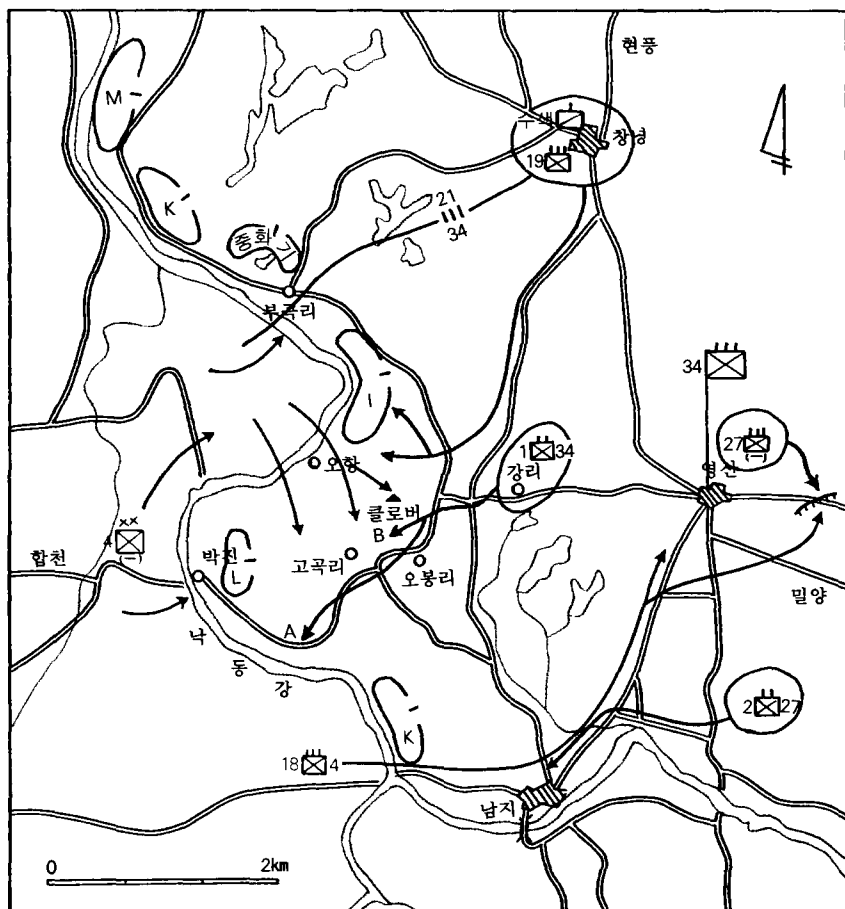
8월 5일 자정 무렵 적 제4사단이 탐색을 마치고 도하공격을 개시하였다. 사단장의 판단과는 달리 적 제16연대는 주력이 영산 정면 오항나루터로, 일부가 그 북쪽 부곡 일대로 적색 및 녹색 신호탄과 함께 기습적인 도하를 개시하였다. 그들은 대부분 옷을 벗어 장비와 함께 머리에 이고 어깨까지 미치는 강물을 건넜으며 일부는 뗏목을 만들어 피복과 장비를 운반하기도 하였다. 부곡 일대로 도하한 적은 제21연대의 기관총 및 야포사격을 받아 격퇴되었으나, 오항으로 도하한 적은 제34연대 제3대대 방어중대의 간격을 따라 침투하여 박격포 진지를 유린한 다음 후방침투를 기도함으로써 제3대대 본부가 위협을 받아 철수하였고 오봉리의 포대도 적에 노출되었다.

이에 연대장의 역습명령에 따라 다음날 연대예비 제1대대가 즉시 클로버고지에 침투한 적을 공격하였으나 대대 지휘부와 먼저 공격에 나선 C중대가 기습을 당하는 등 치열한 교전이 전개되었으며, 일부 병력은 도로를 따라 계속 전진하여 강변진지로 진출하였다.

사단장은 이날 오전 적의 주공방향이 영산 정면이라는 것을 감지하고 사단예비 제19연대로 하여금 오항 일대로 공격하게 하고 정오경에는 사단수색대로 하여금 부곡-창녕간 도로를 차단하고 I중대와 함께 부곡리의 적을 격퇴하도록 명령하였다. 제19연대(B중대)는 오항 동쪽으로 진출하여 적 300여 명을 포위격멸하면서 적을 저지하였으며, 제34연대 제1대대도 역습을 계속하여 클로버고지의 일부를 탈환하는 데 성공하였다. 사단수색대는 부곡리에서 적의 완강한 저항을 받아 물러나고 말았다. 적의 후속부대가 박진, 오항, 부곡리로 계속 도하를 시도하였으나 야포와 항공기의 집중사격에 의해 저지되었다. 적은 오항과 부곡리 일대에 여전히 공격거점을 확보하면서 야간에 후속도하로 2개대대의 병력을 증강시키고 있었다.⁶⁹⁾

8월 7일 아침 제19연대와 제34연대 B중대가 계속적인 역습을 실시하였으나, 혹심한 더위에 식량과 식수마저 부족하였고 설상가상으로 유엔 공군의 오인사격을 받아 실패하고 말았다.⁷⁰⁾ 적은 오히려 클로버고지를 점령한 후 오봉리

낙동강 돌출부 공방



능선으로 진출하였다. 이 고지 일대는 영산 주보급로를 감제함은 물론 밀양까지도 관측이 가능하였으므로 쌍방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한편, 이날 미명 적의 일부가 현풍 정면으로 도하를 시도하였으나, 국군 제17연대의 도하저지사격으로 격퇴되었다. 이날 국군 제17연대가 국군의 재편성계획에 따라 대구로 이동함에 따라 미 제24사단장은 하이저(Hyzer)특수임무부대⁷⁾를 편성하여 진지를 인수하게 하였다. 한편, 이 지역의 방어력을 보강하기 위해

이날 밤 제8군 예비 제2사단 제9연대 제1대대가 워커 장군의 명령에 따라 미 제24사단에 배속되어 6일 밤 창녕에 도착한 데 이어 제9연대(-)가 8일에 도착하였다.⁷²⁾

치치 장군은 즉각 제9연대장 힐(John G. Hill) 대령에게 돌출부의 적을 몰아내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제9연대는 사단의 지원포격하에 16:00 제1대대가 클로버, 제2대대가 오봉리 능선을 목표로 반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연대는 밤새의 행군으로 피로해 있었으며 적정이나 지형에 익숙하지 않고 전투경험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서둘러 투입되었기 때문에 많은 손실을 입고 실패하였다.⁷³⁾ 한편, 이날 밤 강변 중앙진지를 맡고 있던 제34연대 A, L 양개 중대가 적의 공격을 견제하며 철수하였다.

10일에 사단은 제9연대와 제19연대 제2대대로 공격을 재개하여 적과 격렬한 전투를 치렀다. 제19연대 제2대대가 오항 일대의 고지를 한때 탈환하고, 제9연대는 클로버의 일부 고지를 탈환하였으나 다시 적에게 통제권을 상실하였으며, 이 전투의 결과 제19연대의 소총중대는 병력이 100명 이하로 격감되었다.

사단장은 공격부대의 진출이 진전을 보지 못하자 10일 저녁 제9연대장에 돌출부작전의 지휘권을 부여하는 한편 제9연대, 제34연대, 제19연대, 제21연대 제1대대 및 기타 배속부대 등으로 힐(Hill)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여 돌출부지역 내의 적을 격퇴하도록 명령하였다. 한편 적 제4사단은 그 동안 야간을 이용하여 오항, 박진나루터 일대에 수중교 가설작업을 완료하고 다음날 새벽까지 대규모의 병력과 함께 전차와 박격포 및 야포를 도하시켰다.⁷⁴⁾

힐부대는 11일 아침 공격개시선에 대기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적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다. 포병지원사격까지 동반한 예기치 못한 이 공격으로 제21연대 제1대대가 집결지에서 와해되는 등 힐특수임무부대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힐부대의 공격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사단장은 즉시 계획을 변경하여 진지확보를 명령하였다.⁷⁵⁾

이 무렵 적은 주력으로 고지정면을 압박하면서 제18연대를 좌측방으로 우회시켜 영산으로 후방침투를 기도하고 있었다.⁷⁶⁾ 이날 남지교가 피탈되고 영산이 적의 포격을 받기 시작하였다. 얼마 후 사단수색대가 영산 남쪽으로 우회한 적과 조우하였다. 치치 장군은 즉시 제14공병대대를 영산으로 투입하였으며, 워커 장군은 즉시 예비로 있던 제27연대 제2대대를 남지교로 투입하였다.

제27연대 제2대대는 피난민 대열 속에 잠복한 게릴라의 습격으로 인해 오후

늦게서야 남지교에 도착하여 적을 격퇴하였다. 이 무렵 정면의 적과 공방전을 수행하던 힐부대는 고전하고 있었으며, 또 영산 동쪽의 주보급로가 적에게 차단되어 보급차량이 기습을 받았다.

힐 대령은 다음날 12일 아침 즉시 제9연대 1개중대와 박격포소대를 투입하여 적의 차단부대를 격퇴하도록 하였으나 오히려 역습을 받아 실패하였다. 한편 밀양의 사단본부에서는 본부중대장이 전차 2대, 행정병, 취사병, 헌병 등 135명을 지휘하여 영산-밀양간 심곡리에 진지를 구축하여 침투한 적을 격퇴하는 한편, 전투부대에 필요한 식수, 식량, 탄약 등을 장갑차로 추진해 주었다.⁷⁷⁾

워커 장군은 영산 남쪽과 동쪽 일대의 적이 약 2개대대 병력이라 판단하고 예비인 제27연대 주력을 투입하여 소탕하도록 하였다. 이날은 각 전선이 악화되어 어느 지역에서나 예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돌출부지역이 가장 위기를 맞고 있었다.

연대 주력이 도착하기 전날 제2대대가 먼저 항공기의 지원하에 영산 동쪽의 적의 차단부대를 공격하였고, 다음날 연대 주력이 합류하여 적을 격퇴하였다. 제27연대는 영산에 집결한 제14공병대대와 또 증원된 제2사단 제23연대 제1대대와 함께 영산 주변의 적을 완전히 소탕함으로써 위기를 타개하였다.

처치 장군은 영산 일대의 위기가 해소되자 14일 아침 다시 힐부대에 총공격 명령을 하달하였다. 힐부대는 일기불순으로 최초 계획된 전투기 100여 대 지원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강행하였다. 힐부대의 주공인 제9연대가 클로버고지 일부에 도달하였으나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다음날까지 수차례 뺏고 빼앗기는 백병전을 거듭하였다. 이 전투에서 각 중대의 대부분의 장교가 전사 또는 부상당하였으며, 오봉리 남쪽의 제21연대 제1대대는 적에게 포위되어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철수하였다.

힐부대는 근접전에서 너무 많은 손실을 입어 전투력을 거의 상실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34연대 제1대대 콜린스(Roy E. Collins) 중사의 소대 35명은 오봉리 능선상에서 수류탄전을 전개하여 25명의 손실을 입으면서도 고지로 돌입하는 용감성을 보였으며, 또 적의 역습을 받아 철수할 때 흑인병사 클리본(Edward O. Cleaborn) 일등병은 최후 순간까지 엄호사격을 가하는 감투정신을 발휘하였다.⁷⁸⁾

8월 15일에 처치 장군과 힐 대령은 당분간 전투력이 회복될 때까지 공격을 중단하기로 결심하였으나, 워커 장군이 즉시 밀양으로 달려와 계속 반격을 실

시할 것을 강조하면서 강력한 예비대인 해병여단을 제24사단에 배속시키기로 하는 어려운 결정을 하였다. 당시는 아군전선의 도처에서 위기가 조성되어 각 부대가 예비대를 필요로 하고 있을 때였다. 이날 “해병여단은 8월 17일 일찍 공격을 개시하여 돌출부 내의 적을 낙동강 서안으로 구축하라.”는 임무를 부여 받고 마산에서 밀양-영산으로 이동을 개시하였다.

반격이 계획된 전날인 16일 힐부대는 다시 적의 대규모 공격을 받았다. 제9연대가 클로버그지에서 많은 손실을 입고 철수하였으며, 제19연대와 제34연대도 격전 끝에 오항고지를 잃었다. 또 이때 사단 우일선 현풍 정면에는 전날부터 새로이 적 제10사단 제29연대의 2개대대가 도하하여 강변고지를 점령함으로써 위기가 고조되었다. 위커는 적 제10사단의 향방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으나 이들은 더 이상 진출하지 않고 있었다.⁷⁹⁾

처치 장군의 반격계획은 제1해병여단이 좌에서 오봉리 능선 정면으로, 제9연대가 중앙에서 클로버그지로, 제34연대와 제19연대는 우에서 클로버 우익과 오항고지를 공격하되 제9연대는 목표점령 후 적을 축출하도록 하였으며, 공격개시시간은 함재기의 지원이 가능한 8월 17일 08:00로 결정하였다. 이 계획의 핵심은 해병연대와 제9연대의 협조된 공격으로 오봉리 능선과 클로버그지를 우선 확보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해병연대장은 해병이 먼저 공격을 하여 오봉리 능선을 점령한 후, 이를 공격개시선으로 하여 본 작전을 전개하자고 주장하였다. 처치 장군은 제5해병연대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획을 변경하여 먼저 해병대로 공격하게 하였다.⁸⁰⁾

07:35 49문의 야포가 공격준비사격을 개시하였고 해병대 함재기 코르세어(Corsair) 전폭기 18대가 오봉리 일대를 강타하였다. 곧 이어 해병 제2대대가 전진하여 5부능선에 진입하면서 클로버그지 남단 두곡부락과 오봉리부락으로부터 적의 사격을 받기 시작하였다.

전진부대 중 신카(Michael J. Shinka) 소대의 20명만이 고지정상에 진입하였으며, 이들도 고지 측방과 후사면의 적으로부터 기관총 및 수류탄 공격을 받아 철수하였다. 코르세어 전투기의 폭격 후 해병대의 공격이 재개되었다. 신카 소위는 소대원 9명과 더불어 재차 점령하였으나 역시 적의 공격으로 정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후사면으로 내려갔다. 이때 소대장은 부상자를 구출하기 위해 고지정상으로 또 기어올라가다가 적탄에 얼굴과 팔에 부상을 입고 말았다. 해병 제2대대는 7시간의 전투에서 병력 60% 손실을 입었다. 해병연대장은 제1대대

로 부대를 교대하여 재공격 준비를 시켰다.⁸¹⁾

이 전투 후 처치 장군은 최초 계획대로 전 부대에 공격명령을 하달하였다. 오봉리와 클로버고지에 공격준비사격이 집중되었으며, 후사면 참호의 적을 살상하기 위해 일정한 지상 높이에서 폭발하는 VT신관이 사용되었다. 16:00 공격이 개시되어 제9연대가 클로버고지를 포병화력의 효과로 무난히 점령하였고, 해병연대는 제9연대의 측방 지원사격하에 우측방으로 적진을 공격하여 차례로 오봉리 능선상의 고지를 탈환하였다. 이 무렵 한국인 노무자들이 오봉리 능선에 보급품을 추진하고 사상자들을 후송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었다.

저녁 무렵 적 제4사단은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전차 4대를 투입하여 오봉리와 클로버고지 사이의 도로를 따라 전진하였다. 오봉리 북단의 해병대는 즉시 항공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M26 퍼싱전차를 전방진지로 추진하고 75mm 무반동총과 3.5" 로켓포를 도로가와 애로지점에 배치하였다. 전투기 3대가 즉시 출격하여 적 전차에 기총소사를 하였으나 그 효과는 어둠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적 전차에 대한 공격은 3.5" 로켓포, 75mm 무반동총, 퍼싱전차순으로 시작되었으며, 3대는 이들에 의해 파괴되고 네 번째 전차는 항공기에 의해 파괴되었다. 이날 황혼 무렵 제19연대도 항공기와 포병의 지원하에 공격하여 오항고지를 탈환하였다. 그러나 이날 전투에서 제19연대와 제34연대가 다 같이 많은 손실을 입었다. 결국 제24사단과 해병대는 다음날까지 전 지역에서 소탕전을 전개하고 낙동강에서 합류하였다.⁸²⁾

이 무렵 적은 완전히 궤멸되어 패잔병들이 포격과 폭격을 받으며 100여 명씩 무리를 지어 낙동강을 건너 철수하고 있었다. 결국 적 제4사단은 돌출부전투에서 입은 타격으로 끝내 인원과 장비를 회복하지 못하고 다시는 낙동강전투에 참전할 수 없게 되었다. 제1해병여단은 19일 작전이 종료되자 창원으로 이동하여 군예비가 되었다.

4. 馬山 西部의 反擊作戰

낙동강 돌출부 남쪽 남지에서 마산까지의 낙동강방어선은 급거 김천에서 마산에 도착한 미 제25사단이 담당하였다.⁸³⁾ 제25사단장은 이곳의 방어책임을 미 제24사단장으로부터 인수받고 8월 4일까지 제35연대를 중암리, 제24연대를 함안 부근, 제27연대를 진동리에 배치하고 이미 그곳에서 작전 중이던 제27연대,⁸⁴⁾

국군 민부대, 김성은 부대를 작전통제하여 적 제6사단과 대치하였다. 이에 따라 진주-중암리 축선에서 지연전을 수행하던 제24사단 제19연대는 이날 원복하였다.

이에 앞서 제25사단은 8월 2일 부산에서 마산으로 이동한 제5연대전투단을 배속받고 3일에는 제8군 예비 미해병 제1임시여단도 부산에서 마산으로 이동함에 따라 이곳의 전력이 크게 보강되었다. 대구에 대한 위협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으로 군예비를 투입한 것은 이곳의 전황이 대단히 위험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었다.

제25사단과 대치한 적 제6사단은 미 제8군의 남측방을 돌파하여 진주-마산-부산 축선으로 공격하여 부산을 신속히 점령할 기도하에 마산으로 공격력을 집중하고 있었으며 그 선두부대는 이미 중암리, 진동리로 진출하였다. 일부 부대는 함안 남쪽 서북산 등 미 제25사단의 후방지역까지 침투하고 있었다. 적 제6사단은 제105전차사단 제83모터사이클연대를 배속받아 기동력도 크게 보강되었다.⁸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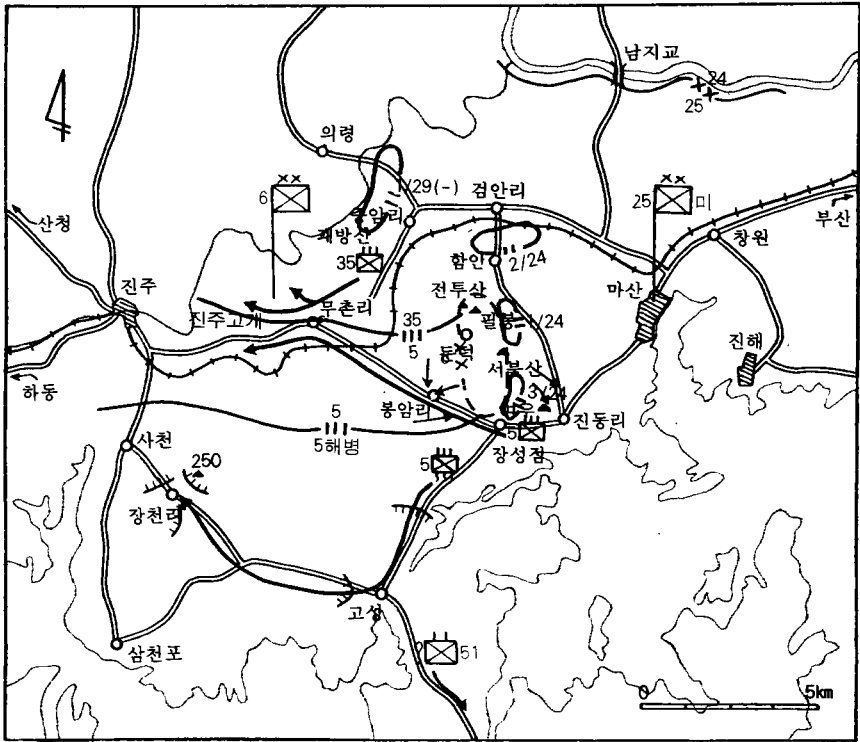
이와 같이 서남부전선의 전력이 강화되자 제8군사령관은 마산-진주 축선으로 역공격을 실시하기로 결심하였다. 이는 이곳에 집중되는 적의 위협을 격파함은 물론, 이를 통하여 적 예비대를 이곳으로 전환을 강요하여 대구전선에 대한 압력을 다소라도 완화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⁸⁶⁾ 이 역공격은 계속된 지연작전에서 최초의 사단급 공격작전이라는 큰 의의가 있었다.

이를 위하여 워커 장군은 먼저 제5공군사령관에게 5일부터 양일간 항공력을 이곳에 집중하여 전장을 차단하고 지역 내의 적을 저지하도록 요청하였으며, 또 제25사단(제27연대 : 제5연대전투단과 교대한 후 제8군예비로 전환)에 제5연대전투단, 제1해병여단, 제89중전차(M4A3)대대, 해병제1전차대대를 배속하여 사단장의 이름을 따라 킨(Kean)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고 7일 06 : 30에 공격하도록 명령하였다.⁸⁷⁾

킨 부대장은 제8군계획에 따라 제29연대를 해체하여 제27, 제35연대에 1개 대대씩 증편하여 이들 연대를 3개대대로 편성하고, 그 밖에 제87전차중대, 민부대, 해병 김부대, 경찰중대를 배속받아 총병력 20,000명, 전차 100여 대, 야포 100여 문을 보유하였다.

반격계획은 현 배치선에서 3개도로로 진주를 탈환하는 것이었다. 북쪽에서는 제35연대가 가장 양호한 남해안 간선도로를 이용하여 중암리에서 무촌리로, 제27연대와 교대한 제5연대가 진동리-봉암리-무촌리로 진출한 후 협동으로 진주

마산 서부의 반격작전



고개를 공격하며, 제5해병연대가 고성-사천로를 따라 진주 남동쪽을 공격하고, 제24연대(민부대, 김성은부대, 경찰 배속)가 서북산 일대로 침투하여 보급로를 차단하는 적을 소탕하고 함안도로를 확보하도록 하였다.⁸⁰⁾ 이 무렵 적 제6사단은 병력을 분산시켜 마산으로의 돌파구를 찾고 있었으며, 6일 밤 각 방면에서 공격을 개시하여 모든 보급로를 차단하고 진동리 주변 감제고지를 장악하였다.

킨특수임무부대는 예정대로 공격을 개시하였다.⁸⁰⁾ 제35연대는 괴방산을 탈환하고 항공기의 지원을 받아 부계리(富溪里) 부근의 적 1개대대를 격퇴하여 병력 350여 명을 살상하고, 전차 2대, 자주포 5문을 노획하는 전과를 달성하였고, 곧 이어 적 제6사단 지휘소가 있었던 곳으로 판단된 관송리를 거쳐 무촌리로 진출하였다.

제5연대전투단은 안개로 인해 항공지원이 취소되자 아침 일찍 제1대대가 진동리 도로를 따라 고성 방향으로 진출하였다. 그러나 야반산(여우고지)의 제2대대는 아침부터 적의 포위공격을 받고 있었으며, 이와 교대하기로 계획된 제5해병 제2대대가 고지로 이어지는 능선에 도착하여 교전이 이루어지면서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지 모를 정도’로 일대 혼전이 야기되었다. 항공기가 고지상의 제2대대에 식수와 보급품을 지원하였으나, 벌써 44도의 극심한 더위로 많은 일사병 환자가 속출하고 있었다.⁹⁰⁾

진동리 일대에는 주변고지를 점령한 적이 보급소와 포병진지에 박격포사격을 가하였고, 일부의 적이 진동리-마산 간 도로를 차단하였으며, 설상가상으로 아군전차가 이동하면서 통신선이 절단되었다.

8일 새벽 야반산 일대의 제5연대전투단 제2대대와 해병 제2대대는 항공기 편대의 지원하에 공격을 개시하여 악전고투 끝에 적을 격퇴하고 연결하였다. 곧 이어 제5연대 제2대대는 해병대의 고성 공격을 엄호하기 위해 적이 장악하고 있는 장성점 부근고지를 탈환하라는 명령을 받고 개전 이후 미군으로서는 최초로 야간공격을 감행하여 적을 격퇴하는 데 성공하였다.

반면 해병 제3대대와 제24연대 제2대대가 진동리 강제고지를 장악하고 있는 적에 대해 항공기·포병·전차의 지원을 받아 계속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었으나 큰 진전이 없었다. 양 대대는 계속적인 공격을 가하여 적 병력 약 600여 명을 살상하면서 공격 3일 만인 9일 정오 무렵에서야 탈환하여 마침내 진동리 일대의 적의 위협을 제거하게 되었다.⁹¹⁾

그리하여 킨부대는 다시 진주를 목표로 작전을 재개하였다. 제5해병연대가 고성을 향해 공격을 개시하였으며 항공모함으로부터 함재기의 직접 지원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중앙도로상 제5연대는 적의 저항이 점차 증강되면서 지연되고 있었으며, 무촌리 전방으로 진출한 제35연대가 합류하기로 계획된 제5연대의 진출을 기다리고 있었다.

해병의 진출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10일 봉암리에 진출한 제5연대는 야간에 적의 기습을 받고 접전을 벌였으며 11일 새벽 항공기의 지원하에 이들을 일단 격퇴하였다. 하지만 제3대대는 나머지 대대의 엄호하에 전날 오후 봉암리 전방고개를 지나 무촌리에 도착하여 제35연대와 함께 진주고개로 진출하였다.

해병대는 우연히 고성 근교에서 위장된 적 제83모터사이클연대의 대열을 발견하고 항공기의 폭격을 요청하였다. 전투기 편대가 즉시 출격하여 적의 차량

중대를 폭격함으로써 적 200명 사살, 차량 55대, 오토바이 45대 등을 파괴하는 전과를 달성하였다.⁸⁰⁾

이 무렵 제8군은 대구 북방에 대한 적의 공격이 강화되고 낙동강 돌출부의 전선상황이 악화되며 동해안의 국군도 제3사단이 장사동에서 포위되는 등 전선상황이 예측불허로 악화됨에 따라 예비대의 확보가 시급하게 되었다. 이에 워커 장군은 킨작전을 종료하고 여기서 기동예비대를 확보하기 위해 킨 소장에게 “진주고개와 사천선에 급속히 진출하여 확보하되, 민부대와 김부대는 배속 해제하여 한국군에 복귀시키며, 제1해병여단과 제5연대전투단은 제8군의 별명에 의해 배속 해제한다.”는 내용을 지시하였다.⁸¹⁾

이에 따라 봉암리의 제5연대장은 제1대대로 봉암리 서북고개를 점령하게 하고, 이의 엄호하에 제2대대·연대 치중대·포병순으로 이곳을 통과하며 그 후 제1대대를 후위로 하여 이 계곡을 돌파하기로 하였다. 사단장은 제8군의 지시를 고려, 신속한 이동을 원하였고 연대장은 피해를 고려, 야간이동을 주장하여 겨우 승인을 받았다. 제1대대가 본산고개를 점령할 무렵 사단장으로부터 “제2대대와 1개포대를 즉시 이동시키고, 나머지는 날이 밝을 때까지 현 위치에 대기하라.”는 무전이 연대장에게 전달되었다.⁸²⁾

연대장은 이 명령을 이행하는 데는 큰 재앙이 따를 것으로 판단하고 항의하려 하였으나 통신소통이 되지 않아 명령대로 제2대대의 이동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봉암리 계곡에는 지원병력이 없는 연대본부, 제555·제90·제159포병대대, 중박격포·근무·의무중대 등이 남게 되었다.

자정이 지나 본산고개 북쪽능선상에서 교전이 시작되면서 사방에서 총성이 들렸다. 제1대대장은 사방으로부터 적의 공격을 받아 철수를 건의하였고, 증원하기로 약속된 제24연대 제3대대는 서북산 남쪽에서 적의 공격을 받아 도착하지 못하였다.

연대장은 고개 일대가 적에게 포위되었다고 판단하고 날이 밝기 전 신속히 무촌리로 이동할 것을 결심하고 전진명령을 하달하였다. 연대본부의 차량중대가 앞서고 그 뒤에 포병이 따르며 제1대대가 고개에서 엄호한 후 후위가 되도록 하였다. 연대본부는 간신히 고개를 넘었으나 포병부대가 출발하자 3개방향에서 적의 공격을 받기 시작하였다. 둔덕 방향에서 진출한 적은 전차 2대를 앞세워 공격하였다. 포병이 적의 공격에 노출되어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소총과 기관총으로 자체방어를 하다가 새벽 무렵 생존자들은 함재기의 근접지원사격으

로 간신히 탈출하게 되었다.

한편, 고개를 점령한 제1대대는 적이 물러간 후 병력을 수습하여 무촌리로 향하였다. 이때 C중대의 경우는 180명 중 23명만이 복귀하였다. 제2대대가 포병의 구출명령을 받고 정오경 도달하였으나 전투는 이미 끝나 있었다.

상황을 보고받은 킨 소장은 즉시 해병 제3대대를 봉암리로 전용하였다. 대대는 항공기와 협동하여 곡안리의 적을 격파하고 봉암리로 향하였으나, 도중에 다시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고 철수하였으며 제24연대 제3대대는 끝내 봉암리에 도착하지 못하였다.

이날 포병은 봉암리계곡을 ‘괴의 계곡 또는 포병의 무덤’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이곳에서 많은 참상을 입었다. 제555포병대대는 2개포대에서 사상자 180명과 105mm포 8문과 제90포병대대는 사상자 190명, 155mm포 6문, 차량손실 26대의 피해를 당하였다.⁹⁵⁾

12일 제5해병연대 주력은 사천 동남 신촌리에 도달하여 적 제83모터사이클부대 패잔병과 제15연대 제2대대의 공격을 받았다. 대대는 즉각 함재기로부터 근접지원을 받아 역습을 전개함으로써 적을 제압하였으며, 이 전투에서 해병 함재기는 평소 해병대와 함께 실시한 상륙전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정확한 지원사격을 가하였다.

한편, 이 무렵 서복산 일대를 공격하고 있던 제24연대는 후방 진동리 부근의 보급로가 적의 지뢰와 소화기 사격에 차단되어 10여 일 간 계속 전차와 장갑차를 투입하여 통로를 개척해야만 하였으며, 결국 서복산 일대의 적을 소탕하지 못하고 있었다. 제24연대에 배속된 민부대·김부대·경찰대는 진동리 부근 감제고지에 배치되어 미군과 함께 적의 침투를 격퇴하는 한편, 보급로 확보작전을 펼치고 있었다. 이들은 이날 배속해제되어 김부대가 중암리, 민부대와 경찰대는 마산으로 이동하였다.

제8군은 12일 저녁 반격작전을 중지하고 킨부대를 서복산 일대로 전환하는 한편, 미 해병대를 기동예비대로 확보하기로 하였다. 다음날 자정 킨부대의 철수명령에 따라 예하연대는 서복산 동측으로 이동하고 제5연대전투단은 마산으로 철수하였으며, 해병여단은 돌출부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킨부대는 해병여단이 이동을 완료한 다음날인 16일 제8군 명령에 의해 해체되었다.

킨부대는 그 동안 7일간의 반격작전으로 진주를 탈환하고 대구 정면의 적을 유인한다는 목적은 이루지 못하였으나 일단 마산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성공

하였으며, 특히 이 공격작전을 통한 심리적 경험은 차후작전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해주었다. 적 제6사단은 지금까지 병력 4,000명~5,000명, 전차 13대의 손실을 입고 있었다.

제25사단은 14일부터 남지-검안리에 제35연대, 중앙의 서북산 일원에 제24연대, 그 남쪽 진동리까지 제5연대전투단을 배치하여 주저항선을 형성하였으며 제27연대는 예비로 전환하였다. 이때 서북산 남쪽 능선에는 국군 경찰(432명)이 배치되어 제24연대와 제5연대전투단의 간격을 메웠으며 한국인 노무자 500여 명이 험준한 산악지대에 지계로 보급을 추진하였다.

반면 적은 이 무렵 예비사단인 제7사단(李益成 소장)이 제6사단의 후방방호 임무를 부여받고 15일 진주에 집결하여 일부 병력을 통영과 여수로 진출시키고 있었으며,⁹⁶ 적 제6사단은 그 동안 강제징집병 2,000여 명을 보충하는 등 재편성과 아울러 작전을 재검토하여 대대급 이하병력으로 나뉘어 마산 정면의 각 고지를 탈취하고자 계획하고, 중암리에서 마산에 이르는 도로 양측방에 중점을 두고 정찰을 시도하였다.⁹⁷

미 제35연대는 17일부터 우측방 십이당사산(276m)과 도로변 진지로 접근하는 적 제13연대의 공격을 받았다. 연대는 적이 야간공격으로 진지 일부를 돌파하면 즉시 포격과 폭격의 지원하에 역습을 가하는 식으로 전투는 며칠간 밤낮으로 계속되었으며, 적은 많은 피해를 입고 결국 23일 후퇴하고 말았다.⁹⁸

한편, 제24연대도 18일 미명부터 적 제15연대의 공격을 받고 교전을 전개하였다. 적이 장악한 서북산 일대는 암석 절벽이 많고 기동공간이 제한되는 험준한 고지군으로 형성되어 적은 아군의 보급로를 감제하고 후방지역까지를 관측하였다. 적이 서북산 정상과 둔덕탄광 일대를 장악하여 요새화하고 있어 유엔 공군기의 네이팜탄 폭격도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다.

수일간 계속된 치열한 전투에서 제24연대는 제2대대가 진출한 서북산의 일부 능선도 지키지 못하고 전투산 북쪽 일부마저 상실하였으나, 무려 38회나 출격한 전폭기의 집중지원을 받아 전투산을 탈환하였다. 이 무렵 경찰은 정찰 중 적 제15연대장을 생포하는 행운을 얻었으나 그는 도주하려다 사살되었다.⁹⁹ 21일에는 서북산 탈환임무를 받은 제5연대가 공격에 나서 다음날까지의 혈전으로 마침내 서북산 정상을 점령하였다.¹⁰⁰

전투산과 서북산 일대에는 8월 말까지 연일 밤낮 똑같은 방식의 혈전이 되풀이되었다. 양 연대는 적의 야간공격으로 고지가 피탈되면 야포와 전차포, 박격

포사격을 집중하고 항공기의 지원폭격을 받아 즉시 기관총과 수류탄으로 돌격하여 고지를 탈환하곤 하였다.¹⁰¹⁾ 서복산 정상에 주인은 19차레나 바뀐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25일 서복산전투에서 핸드리치(Melvin O. Handrich) 상사는 포진지가 돌파된 후에도 마지막까지 홀로 남아 야포사격을 유도하다가 적과 교전, 전사함으로써 서복산의 영웅이 되는 수범을 보이었다.¹⁰²⁾

미 제25사단은 8월 말까지 검안리 정면, 전투산, 서복산 일대로 돌파하려는 적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전체작전에 크게 공헌하였다.¹⁰³⁾ 사단은 30일 군예비로 차출된 제27연대가 원대복귀하고 제5연대전투단이 제24사단으로 배속전환되자 이때부터 사단 건제부대로 차후작전에 대비하였다.

한편, 마산 정면 고지 일대에 격전이 전개되고 있을 무렵인 17일 적 제7사단이 제51연대 1개대대로 방어병력이 없는 고성을 무혈점령한 후 경찰중대를 제압하고 통영으로 진출하였다.¹⁰⁴⁾ 이에 진해에서 정비 중이던 국군해병 김(金)부대가 2척의 함정으로 이날 통영반도로 기습상륙하였으며, 다음날 미명 해병대가 통영 입구 원문고개를 점령한 후에야 비로소 적의 역습이 개시되었다. 이때 유엔 및 국군 공군기와 해군함정이 적 집결지와 보급차량을 강타하고 삼천포 해안에서 이동 중인 적선 4척을 격침시켰으며, 해병대가 적을 격퇴하고 1개중대로 추격전을 전개하였다.

원문고개에 진지를 편성한 해병대대는 19일 고개 북쪽에 집결한 또 다른 적으로부터 포격을 받아 진지의 일부가 돌파될 위기에 처하였으나 즉시 출격한 유엔 항공기 편대의 근접지원사격을 받아 격퇴하였다.¹⁰⁵⁾ 해병대는 이후에도 적의 공격을 몇 차례 격퇴하였으며, 적의 포로진술에 의하면 이들은 제104연대 제21·제22대대 소속이며 남한에서 강제징집된 학도병이었다.¹⁰⁶⁾ 이후 대대는 새로 보급된 대인지뢰로 진지를 보강하는 한편, 이 일대의 잔적을 소탕하면서 고성·통영·거제 등 해안에 숨겨진 적의 선박을 찾아내어 격침하였다.¹⁰⁷⁾

5. 杞溪-浦項의 爭奪戰

낙동강방어선 형성시 동부의 국군 제1군단은 제8사단이 의성 일대, 수도사단이 길안 일대에서 방어편성을 하였고, 동해안에서는 제3사단이 영덕을 놓고 제5사단과 각축을 벌이고 있었다. 아군은 적의 주력이 안동-의성-영천 접근로와 영덕-포항 접근로에 투입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곳의 방어에 중점을 두었다.

한편 적 제2군단은 예하의 제1·제13·제15사단 등 3개사단을 대구 정면으로 투입하고, 나머지 제8사단을 안동-의성-영천으로, 제12사단을 청송-안강-경주로, 그리고 제5사단을 계속 포항 방면으로 투입시켜 대구의 동부를 위협하며 부산으로 진출할 계획이었다.

국군 제1군단 예하 수도사단은 길안에 방어진지를 편성하여 제1연대를 추목동, 제18연대를 그 우측고지 일대에 배치하고 배속된 기갑연대를 진보 남쪽 비봉산 일대에 독립기갑연대와 강원경찰대대에 배치하였으며, 국군 제3사단은 영덕 남쪽 181, 207고지 일대에 제22연대와 제23연대를 배치하고 독립제1·제2대대를 측방경계 배치하였다.

수도사단과 제3사단은 8월 5일부터 적의 대규모 공격을 받기 시작하였다. 수도사단은 제1연대 후방이 적의 기습공격을 받아 사단 전술지휘소와 제1연대 지휘소가 피습되어 순식간에 방어선이 와해되었으며, 제1연대 병력은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의성 일대로 분산철수하고 퇴로가 차단된 제18연대와 독립기갑연대도 다음날까지 구수동을 경유하여 의성으로 철수하였다.¹⁰⁶⁾

수도사단이 의성으로 철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송-기계 축선이 무방비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적 제12사단은 방어공백지대를 이용하여 거의 저항을 받지 않은 채 기계를 향해 남진하기 시작하였으며, 9일 기계를 점령한 후 포항으로 전진할 때까지 거의 저항을 받지 않았다. 이들은 이미 보현산 일대에 침투한 제766부대와 연결을 지으면서 전차 및 지원포병으로 증강된 1개연대 규모의 병력을 투입하고 주력을 후속시키고 있었다.

한편, 국군 제3사단도 5일 야간부터 적 제5사단의 대규모 공격을 받기 시작하였다. 제3사단은 유엔 해·공군의 지원하에 영덕 남쪽 고지를 놓고 치열한 근접전을 반복하였지만 제23연대 진지 일부가 돌파되면서 방어선이 와해되기 시작하였다. 사단장은 분산철수 중인 병력을 수습하려 하였으나 일단 흩어진 전열을 정비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였다.

다음날 사단장은 철수간에 비교적 손실이 경미한 제22연대에 영덕 남쪽고지의 탈환명령을 하달하였으며, 계획대로 유엔 공군기가 출격하여 영덕 일대의 적 집결지에 대해 로켓탄과 네이팜탄을 집중하고 해군함대가 함포사격을 가하였다. 곧 이어 제22연대가 반격을 개시하여 치열한 접전 끝에 마침내 181고지, 207고지를 탈환하였다. 특히 이날 전투에서 181고지의 공방전이 치열하였다. 맹렬한 포화의 연속으로 고지의 형태마저 변형된 듯하였으며 쌍방간에는 많은 병

력손실이 있었다.

한편, 강구에 위치한 국군 제3사단 전술지휘소에서는 침투한 적의 일부 병력에 의해 박격포사격을 받아 지휘소 요원이 분산되고 한동안 지휘체제가 마비되는 혼란이 조성되었다.¹⁰⁹⁾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3사단장 이준식(李俊植) 준장이 물러났으며 그 후임으로 김석원(金錫源) 준장이 임명되었다.

저녁 무렵 강구에 도착한 신임사단장은 최전방 방어진지까지 순시하여 장병들을 격려하면서 영덕 남쪽 고지방어에 방어중점을 두고 그 좌측 지곡동 일대에 제23연대를 배치하여 적의 측방공격에 대비하였다.

8일 야간 적 제5사단은 181고지에 전투력을 집중하여 파상공격을 되풀이하였다. 고지를 점령한 제22연대는 제2대대가 교전이 거듭될수록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급기야 탄약마저 떨어져 철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곧 이어 207고지마저 피탈됨으로써 방어선이 붕괴되어 제22연대 병력은 남쪽으로 분산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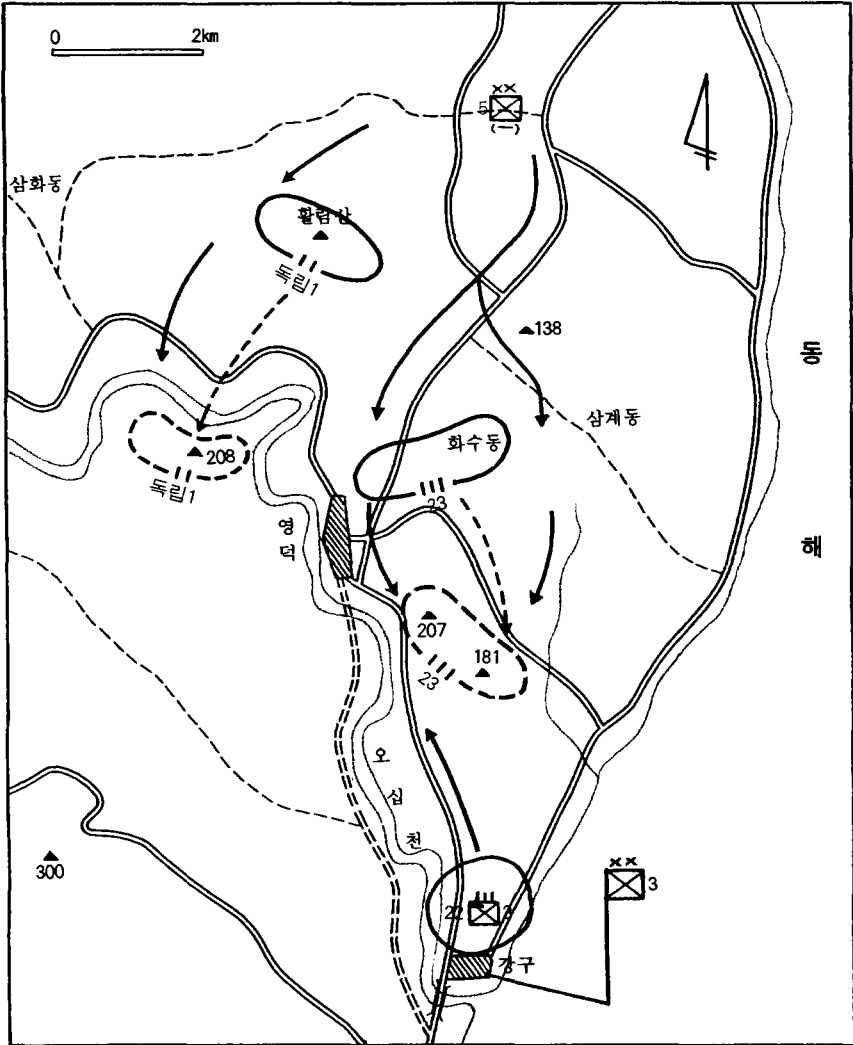
이러한 혼란 속에서 설상가상으로 제22연대장이 증대한 작전의 과오를 범하고 말았다. 강태민 중령은 병력이 미처 철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독단으로 8월 9일 05:00 오십천교(五十川橋)를 폭파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이로써 교량 북쪽고지에서 교전 중이던 제22연대 1개대대 규모의 병력이 일시에 혼란에 빠져 분산되었으며 강을 건너던 많은 병력이 익사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오십천교는 강구에 가설된 교량으로서 영덕에서 포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교량을 통과해야 가능하였고, 포항방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던 워커 장군도 교량의 조기폭파를 방지하기 위해 제3사단 미 고문관에게 폭파임무를 직접 관장하게 하고 사단장의 승인하에 폭파하도록 지시하고 있었다. 연대장의 오관은 작전에 결정적으로 차질을 빚게 하였으며 사실상 영덕-강구작전은 교량의 폭파와 동시에 종료되었다.¹¹⁰⁾

적이 강구로 진입할 무렵 유엔 해군함대가 함포사격을 집중하였으며, 국군 제3사단은 제23연대를 오십천 남안에 배치하여 방어선을 형성하고 제22연대를 남호동으로 철수시켜 부대정비에 임하도록 하였다.¹¹¹⁾ 그러나 10일 저녁 흥해 남쪽의 냉천동 일대에 적 1개연대가 출현하여 포항으로 접근함으로써 사단의 퇴로가 차단되는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사단은 워커 장군으로부터 적의 남진을 계속 저지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워커 장군은 비록 포항이 실함되더라도 적을 격퇴할 수 있으며 영일비행장

영덕-강구 전투



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앞서 그는 경산의 미 제2사단장에게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여 비행장을 방어하도록 하였으며, 육본도 예비인민부대를 포항지구출동시켜 미군과 함께 적을 격퇴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에 미 제2사단 부사단장 브래들리(Joseph S. Bradley) 준장이 즉시 제9연대

제3대대로 브래들리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여 10일 저녁 비행장 방어임무를 인수받았다. 그러나 주력보다 늦게 출발한 제3대대 K중대와 제15야전포병대대 C포대는 자정이 지나 새벽 중인 적의 기습을 받아 70여 명의 손실을 입고 경주로 철수하였다.¹¹²⁾

한편, 적 제5사단이 강구로 진입할 무렵 무방비상태에 있던 기계가 적 제12사단에 의해 피탈되고 있었다. 기계는 동부지역에서 포항이나 안강으로 이르는 도로상의 요지이므로 기계를 상실한 국군으로서는 동부전선의 일대 위기를 맞게 되었다.

육군본부는 이때서야 비로소 적 제12사단의 위협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으며, 즉시 제1군단 참모장인 이성가(李成佳) 대령에게 포항지구전투사령부를 급히 편성하여 신편부대인 제25연대(-)와 함께 기계로 진출하도록 하고 곧 이어 제17연대와 민부대, 그리고 신편 제26연대를 배속하였다.¹¹³⁾

아울러 국군 제1군단은 의성에 집결한 수도사단(-)을 안강으로 이동시키는 한편, 수도사단 제18연대와 독립기갑연대를 현동으로 진출시킨 다음 포항지구사와 협조하여 기계를 남북 양면에서 포위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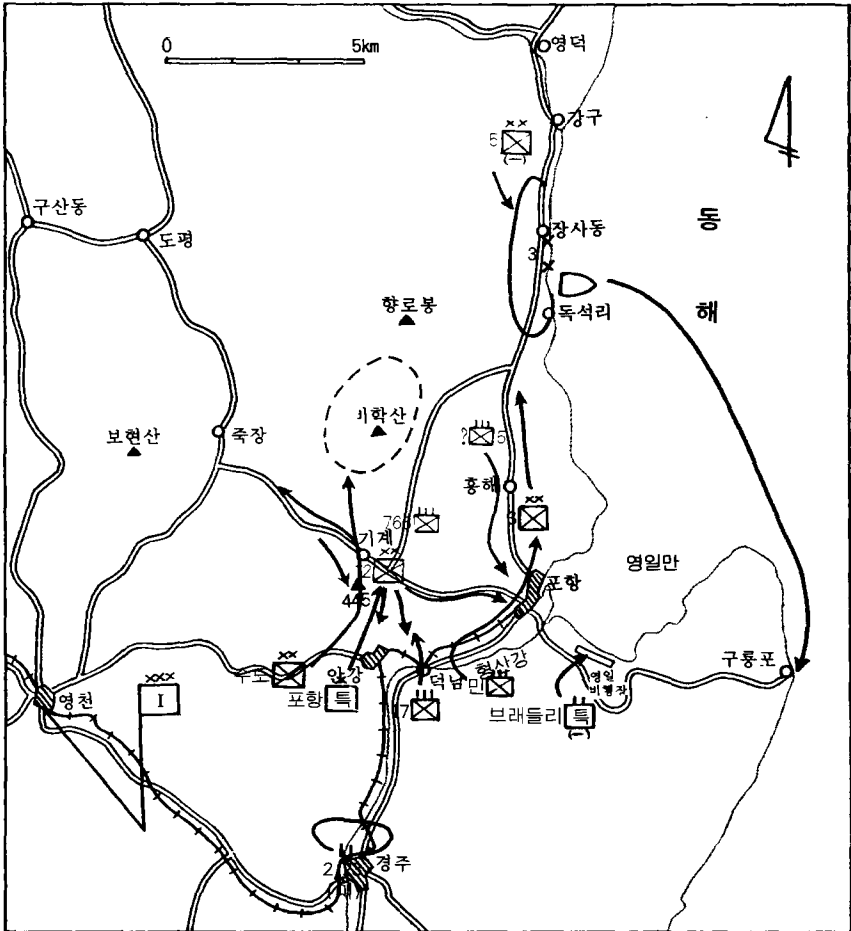
이 무렵 포항에서는 적 제766부대 일부 병력이 11일 미명 시내로 침투함으로써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었다.¹¹⁴⁾ 당시 포항시내에는 제3사단 후방지휘소·해군 경비부·공군지부대가 위치해 있었으며 경계병력으로 군경·학도의용군·청년방위대 등 2개소대만이 있었다. 이들은 포항여자중학교에서 적과 사격전을 전개하였고 곧 이어 적이 장갑차 5대를 선두로 공격함으로써 전투는 정오까지 계속되었다. 이 근접전에서 학도의용군은 47명이 희생하면서 격전을 수행하였다.

제3사단 후방지휘소에서는 전투병력이 없는 관계로 먼저 군수품을 구룡포로 철수시킨 다음 형산교에서 철수병력을 수습하였다. 이로써 거의 무방비였던 포항이 피탈되었으며, 유엔 공군기와 함대가 포항 일대에 사격을 집중하여 대대적인 타격을 가하였다.

포항실함을 보고받은 워커 장군은 제9연대 전차 1개소대를 영일비행장으로 진출시켜 브래들리부대를 증강하고 안강 일대에 투입된 국군 제17연대로 하여금 터널고지를 확보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때 제17연대 미 고문관 다리고 대위가 자진하여 전차소대를 지휘하였으며, 전투기 1개편대가 터널고지를 강타하였다.

영일비행장 확보를 위해 온갖 노력이 경주됨에도 불구하고 13일 미 제40전투비행대대(45대)와 이를 지원하던 미 공군부대는 지상군과 사전협조 없이 일본

기계-포항의 정탈



으로 철수하고 말았다. 이 무렵 후방이 차단된 제3사단은 장사동 일대에서 설
새 없는 교전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으며, 홍해 북쪽에서도 적이 출현함으로써
협공될 가능성마저 있었다.

한편, 기계가 피탈되기 이전, 보현산 일대로 진출한 독립제1유격대대(정진 소
령)가 적 제12사단의 보급부대를 공격하여 큰 전과를 달성하였다. 대대는 12일
밤 죽장에서 조명등을 켜 채 남하하는 적의 보급차량을 관측하고 기습공격하여

탄약·무기·보급품을 만재한 12대의 트럭과 야포 2문을 파괴하였다.¹¹⁵⁾

8월 13일 제1군단 명령에 따라 국군 제8사단이 보현산 일대에서 주저항선을 편성하는 동안 수도사단은 제1연대가 안강지구로 이동하였으며, 제18연대와 독립기갑연대는 적을 역포위할 태세를 갖추고 구산동에서 동남진하기 시작하였다.¹¹⁶⁾

이 무렵 안강 북쪽고지 일대로 진출한 제25연대는 공비를 토벌 중이던 해군 육전대 등과 함께 방어진지를 편성하였으나, 미처 진지도 편성하기 전에 적으로부터 기습공격을 받아 많은 손실을 입고 있었다.

13일까지 제17연대와 제1연대, 제26연대가 차례로 안강에 도착하자 이날부터 수도사단장이 군단명령에 따라 이 일대의 작전을 관장하게 되었다. 이미 전날부터 제17연대가 육전대와 함께 안강 북쪽고지로 공격을 개시하여 격전 중이었으며, 제26연대와 제1연대도 즉각 제17연대 좌우측고지로 진출하여 진지를 점령하였다.

남쪽에서 공격 중인 제17연대가 포병과 공군기의 지원으로 마침내 16일 저녁 기계 남쪽고지를 탈환한 후 기계를 향해 전진하였고, 제1연대 역시 기계 등남고지의 적을 격퇴하면서 제3대대로 우측 포항터널 부근에서 작전 중인 민부대와 연결하였다. 기계 북쪽에서는 제18연대가 제1대대 병력으로 전술상 유리한 용기동 일대의 고지를 점령한 후 기계 측방을 위협하기 시작하였다.¹¹⁷⁾ 적은 부분적인 역습을 시도하다가 퇴로차단의 위협을 느껴 비학산 일대로 퇴각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국군 제3사단은 적의 위협을 받게 되자 15일 미 제8군과 협조된 육군 본부의 해상철수명령(海上撤收命令)을 하달받았다.¹¹⁸⁾ 먼저 사단에 헬리콥터가 지원되어 약품을 보급하고 부상자를 후송하였다.¹¹⁹⁾ 사단장은 해상철수를 고려하여 제23연대를 지경동 일대에, 제22연대를 독석리 일대에 배치하는 방어편성을 하였다.

17일 06:00 사단은 최대한 기도비닉을 유지하여 독석리 해안에 접안한 4척의 LST를 이용하여 해상철수작전을 개시하였다. 사단병력 9,000여 명과 경찰 1,200여 명, 노무자 1,000여 명 등이 동일 10:30까지 한 명도 예외 없이 성공적으로 구룡포에 도착하였다.¹²⁰⁾ 적은 독석리 뒷산에서 박격포와 기관총사격을 가하였으나 유엔 공군기의 포격에 의해 저지되었으며, 제3사단은 철수 후 20일까지 신병을 보충받아 부대 재편성에 주력하였다.

한편, 제3사단이 철수할 무렵 포항 남쪽에서는 포항탈환임무를 부여받은 민부대가 포항 외곽으로 진출하여 형산강 남쪽고지 일대에 방어진지를 편성하였으며, 동쪽 영일비행장에는 브래들리 특수임무부대가 적의 침공에 대비하고 있었다.

민부대는 적이 그 동안 유엔해군의 함포사격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포항 외곽으로 도주하였음을 확인하고 다음날 미명 제2대대만으로 시가로 진입하여 적을 소탕하였다.¹²¹⁾ 포항을 탈환한 것이다. 이때 미 전차소대가 공격을 지원함으로써 장병들의 사기를 제고하였다. 민부대는 포로 180명, 야포와 박격포 53문, 기관총 160정, 소총 940정을 노획하였으며 19일 제3사단에 진지를 인계한 후 대구로 이동하였다.¹²²⁾

한편, 기계 부근에서는 마침내 18일 미명부터 총공격이 개시되었다. 특히 북쪽에서 제18연대가 적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면서 오후 무렵 기계로 진입하였으며 동시에 남쪽에서 제17연대 제1대대가 시내로 돌입하여 잔적을 소탕하였다.

적은 탄약 및 식량의 부족으로 전투의욕을 거의 상실한 채 많은 전사자를 시내에 남겨 두고 일부 패잔병만이 시급히 후퇴하고 있었다. 수도사단은 기계 일대에서 이날까지 1,245명 적병력을 사살하고 다수의 장비를 노획하는 전과를 달성하였으며, 기계 탈환소식을 접한 신성모 국방장관이 19일 직접 군단지휘소를 방문하여 장병의 노고를 치하하였다.¹²³⁾

적 제12사단은 기계전투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고 비학산 일대로 철수하였으며, 이들은 군단명령에 따라 제766부대를 해편하여 편입하고 아울러 신병 2,000여 명을 보충하여 부대를 재편성하였으나 총병력은 불과 5,000명에 지나지 않았다.¹²⁴⁾

수도사단은 20일까지 잔적소탕을 완료하고 기계 북쪽으로 새로운 진지를 편성하여 제18연대를 봉화봉-칠곡산 일대에, 제17연대를 가전동 일대에 배치하고 제1연대를 예비로 보유하였다. 이날 기계작전이 마무리되자 군단명령에 따라 제26연대가 제3사단에 배속되고 기갑연대가 영천으로 이동하였으며 해군육전대도 원대복귀하였다.

사단은 22일부터 제17연대로 비학산 일대로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지형을 이용한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실패하였으며, 오히려 좌일선 제18연대가 적의 역습으로 25일 인비동선으로 물러남에 따라 제17연대도 전선균형을 위해 기계 북쪽 외곽고지로 철수하였다.¹²⁵⁾

한편, 국군 제3사단은 제26연대를 배속받아 비로소 완전한 3개연대의 편제를 갖추어 부대 재편성을 실시한 후 21일 냉천동-양덕동 일대를 잇는 선에 사단 주저항선을 형성하였으며,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적은 제23연대 제1대대가 배치된 93고지에 대한 야간공격을 계속하였다.

이 고지는 비록 표고는 낮았으나 주변의 야산 일대와 개활지를 감제하며 홍해, 포항으로 연결된 접근로를 제압할 수 있는 중요지형이었다. 국군 제3사단은 수차례의 적의 공격을 방어하여 끝내 고지를 고수함으로써 포항으로 재침투하려는 적의 기도를 분쇄하였다.¹²⁶⁾

26일 야간부터 기계 정면의 적이 대규모 공격을 재개하였다. 이에 제17연대가 미처 진지를 점령하기도 전에 적의 공격을 받아 새벽 무렵 기계가 피탈되었다.¹²⁷⁾ 이 무렵 우측 포항 일대의 제3사단도 적의 공격을 받아 주저항선이 붕괴되고 있었다.

동부전선의 주저항선이 돌파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워커 장군은 제8군부사령관 쿨터(John B. Coulter) 장군에게 동부전선의 작전지휘권을 부여하여 위기를 타개하도록 하였다. 쿨터 장군은 즉시 잭슨(Jackson)특수임무부대¹²⁸⁾의 편성에 착수하고 경주의 제1군단사령부를 방문하여 작전을 협의하였다. 잭슨부대는 미 제24사단 제21연대를 기간으로 하여 영일비행장 경계임무를 수행 중인 제2사단 제9연대 제3대대와 제73전차대대(-)로 편성되었다.¹²⁹⁾

이에 수도사단은 27일 반격을 개시하여 제17연대가 일시 기계를 재탈환하였다가 적의 역습으로 남쪽고지 일대에서 격전을 전개하고 있었으며, 다음날 잭슨부대의 주력인 미 제21연대 제3대대가 안강에 도착하였다. 29일 새벽 제17연대가 잭슨부대의 전차와 포병의 근접지원을 받아 반격을 재개하여 기계를 재탈환하였으며, 그 우측 제1연대는 단구동 북서쪽으로 진출하였다. 그러나 제17연대는 적의 강력한 역습을 받아 다음날 야간 다시 기계 남쪽으로 철수하여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이 무렵 인민군은 비전투원까지 모두 전선에 투입하는 등 교두보 돌파를 위한 최종공세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¹³⁰⁾ 그 동안 큰 손실을 입은 적 제12사단은 제17기갑여단의 일부를 배속받아 전력을 증강하고 있었으며, 한편 대구 정면에서 이동해 온 적 제15사단이 국군 제8사단 정면으로 진출하여 동부전선 돌파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8월 말 기계-포항 전선은 소규모의 정찰전이 벌어지는 정도의 소강상태가 유

지되었으나, 유엔 공군기와 함재기가 수시로 출격하여 이 일대의 적을 강타하고 순양함, 구축함이 흥해 일대의 적 집결지에 집중포격을 가하였다.

적은 김일성 자신이 7월 20일 전선사령부(수안보)에 내려와 8월 15일 내 부산까지 점령하라고 독전하고, 인민군은 8월 한달간(사실상 8월 20일 종료) 총공세를 폈으나 서부에서는 낙동강 도하에 실패하고 북부와 동부에도 왜관-다부동-의흥-기계-포항선에서 저지되었으며, 당초의 목표달성이 어려워지는 국면을 맞고 있었다.

第3節 人民軍의 9月攻勢와 防禦線의 死守

1. 彼我의 最後 決戰態勢

(1) 人民軍의 最後攻勢 準備와 機動計劃

인민군은 8월공세의 작전목표였던 부산은 고사하고 대구도 점령하지 못한 채 공세 한계점에 이르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8월 21일~30일을 새로운 작전준비기간으로 설정하여 부산점령을 위한 최후 총공세, 9월공세를 준비하고 있었다. 9월공세를 위한 적의 작전방침은 “낙동강에 압축된 적을 두 개의 강력한 타격집단으로써 서쪽과 북쪽으로부터 강력히 타격하여 대구·영천 일대에서 한·미군을 포위 소멸하고 부산 근거지를 최종적으로 소탕하는 것”이었다.¹³¹⁾

이러한 작전방침에 따라 적은 낙동강방어선을 와해시키고 국군과 유엔군의 주력을 각개 분할하여 포위섬멸한다는 기도하에 서부의 제1군단이 먼저 8월 31일 23:00 공격하여 신속히 유엔군의 중요한 병참선인 대구-부산간을 차단하며, 제2군단이 9월 2일 18:00 후속공격하도록 계획하였다. 제1군단이 공격을 선도한 것은 우선 “서부에서는 낙동강을 도하하여 북쪽의 제2군단의 공격을 보다 용이하게 하며 궁극적으로 적의 기본집단을 각개 분할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¹³²⁾

9월공세에는 군예비까지 투입함으로써 제1군단이 6개사단, 제2군단이 7개사단으로 증강되었고, 군단은 이들 사단을 5개의 공격집단으로 나누어 전선에 배치하였다. 적의 최종공세를 위해 편성한 공격집단의 기동계획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적 제1군단은 왜관-마산까지를 담당하여 제1공격집단으로 편성된 제6·제7사단·제104치안연대가 마산 정면(미 제25사단)을 돌파하여 김해를 점령한 후 부산을 공격하며, 제2공격집단 제2·제4·제9·제10사단이 낙동강 돌출부(미 제2사단)를 돌파하여 밀양으로 진출한 후 대구-부산간 도로를 차단하는 임무를 각각 부여받았으며, 제1군단에 제105전차사단의 일부와 제16기갑여단(43대)이 배속되었다.

적 제2군단은 왜관-포항까지를 담당하여 제3공격집단으로 편성된 제1·제3·제13사단이 왜관-다부동 축선(미 제1기병, 국군 제1사단)을 돌파하여 대구를 점령하며, 제4공격집단 제8·제15사단이 영천 정면(국군 제6·제8사단)을 돌파하여 대구 또는 경주로 진출하고, 제5공격집단 제12·제5사단이 안강-포항(국군수도, 제3사단)을 돌파한 후 부산으로 진격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으며, 제2군단에 제105전차사단(-)과 제17기갑여단(40여 대)이 배속되었다.

김일성 최고사령관은 8월 22일 전선돌파를 위한 최종공세 준비기간 동안 가용한 총력을 경주하도록 독전하였으며, 전선사령부가 8월 중 모든 예비부대와 장비 및 보급품을 전선으로 추진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었다.¹³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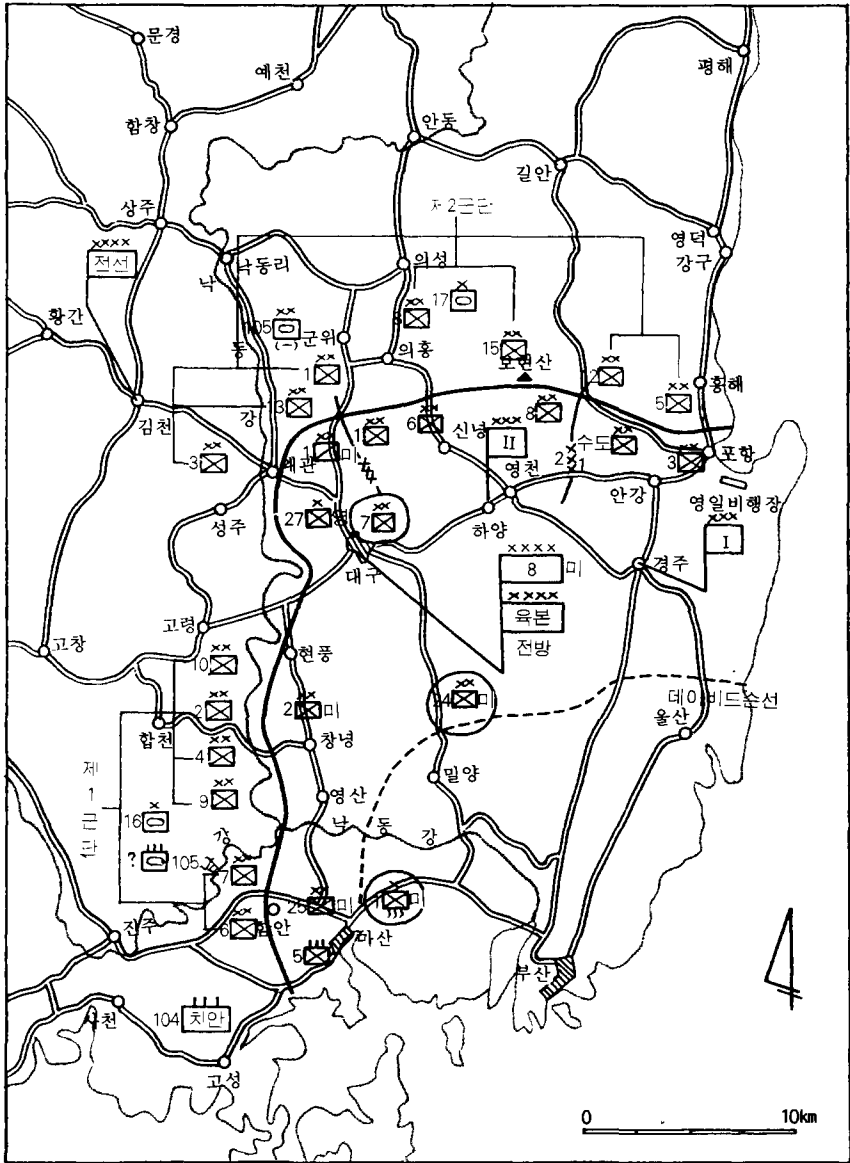
이에 예비사단인 적 제10, 제7사단의 전선 투입에 이어 마지막으로 8월 중순 제9사단(-)이 영산 방면으로 투입되었다.¹³⁴⁾ 이들 부대들은 병력 중 1/3을 남한에서 강제징집한 신병들로 보충하고 있었으므로 다른 사단에 비해 전투력은 낮았다.

전선에 투입된 제16·제17 2개의 기갑여단은 8월 23일에 소련에서 새로 도착한 T-34전차로 장비하였으며, 이들은 낙동강선 돌파를 위한 최종공세를 위해 8월 말 평양을 출발하여 주로 야간에 철도를 이용, 전선으로 이동하였다.¹³⁵⁾ 인민군으로서는 이들 부대가 낙동강선에 증원할 수 있었던 마지막 부대로서 이후 부대증원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8월 하순경 최고사령관 김일성은 민족보위상 최용건(崔庸健)에게 새로이 작전계획을 입안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전 장병에게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바쳐 싸우자.”는 요지의 담화문과 “전투력을 높이는 원칙에서 비전투부문을 줄이고 전투성원을 보충하라.”는 혹독한 독전을 계속하였다.¹³⁶⁾

한편, 전선사령부는 보급의 절대부족사태에 직면하자 8월 초 새로이 보급사단인 제36사단(이성근 총좌)을 김천에서 창설하여 점령지 주민을 강제동원한 원시적인 수송방법으로 보급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¹³⁷⁾ 이들은 주민 30만 명을 강제동원하여 전쟁지원에 투입하였으며, 보급을 추진하던 주민들은 유엔 공군

낙동강선의 최후결전태세(1950. 8. 31)



기 폭격하에서 많은 위협을 겪었다. 적은 동원된 주민들로 기후, 지형 등을 불문하고 1인당 하룻밤에 20kg의 보급량을 20~30km 거리를 운반하고 다른 마을 주민이 인계받는 릴레이식으로 총 400여 톤을 보급하였으며, 각 전투사단은 일일평균 15톤 정도의 최소한의 보급을 유지하면서 작전에 임하였다.¹³⁸⁾

적 제4사단 김영호 소위의 진술에 의하면 사단은 7월 중순 이후 주로 남한지역의 징집자들로 병력을 보충하였으며, 식량조달도 점령지 부여자들을 통하여 실시되고 있었다.¹³⁹⁾ 이 무렵 점령지 주민들이 대부분 인민군의 위협을 받아 마지못해 협조해야 하는 것이 당시 일반적인 상황이었다.¹⁴⁰⁾

그러나 적의 현지조달계획은 곧바로 한계를 드러내었다. 적은 인민위원회를 통하여 인력과 식량강탈을 가속화하였으나, 작전지역이 대부분 산악지대의 절악농가인데다가 주민들의 비협조로 강압적인 현지조달은 더 이상 어렵게 되었다.

결국 인민군은 한여름의 무더운 날씨에 식량마저 제한되는 상황에서 작전을 계속 강행하였으며, 8월 중순 무렵 급기야 탄약과 소총보급마저 부족하게 되어 전투력이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병사들의 사기는 극도로 저하되고 있었다.¹⁴¹⁾

이와 같은 열악한 상황에서도 적은 전선들과만 연두에 두고 있었고, 제8군의 정보관단에 의하면 9월 1일 기준으로 적 13개 전투사단을 포함한 전선 전개부대의 총병력이 97,850명이었으며 사단병력은 5,000명에서 10,000명 선으로 일정하지 않았다.¹⁴²⁾ 인민군의 병참선은 마치 최대한으로 팽창한 고무줄과 같이 곧 끊어질 운명으로 치달고 있었다. 9월 1일 현재 피아 지상군 전투부대의 전투병력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¹⁴³⁾

〈표 2〉 지상군 전투부대 병력 비교(1950. 9. 1)

구 분	부 대	병력수(지원병력 포함)	전차수
국 군	국군 수도, 제1·제3·제6·제7·제8 6개사단	57,000명 (91,700명)	500대
유 엔 군	유엔군 미 제2·제24·제25·제1기병 4개사단 미 제1해병·영 제27 2개여단	67,800명 (87,600명) 총 124,800명(179,930명)	
인 민 군	제1·제2·제3·제4·제5·제6·제7·제8· 제9·제10·제12·제13·제15 13개 사단 제105전차사단, 제16·제17기갑여단	총 98,000명(? 명)	

(2) 國軍·유엔軍의 戰線整理와 後方支援

국군과 유엔군은 적의 8월공세를 격퇴하는 동안 후방에서 총 반격작전을 고려한 전력증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8월 중 병력증강의 일환으로 미 본토로부터 제2사단 주력이 증원되어 7월 31일 제9연대에 이어 제23연대가 5일, 제38연대가 19일에 각각 도착하였으며, 8월 20일에는 영국이 홍콩의 보병 2개대대를 파한(派韓)할 것을 발표하고 29일 제27여단본부와 함께 병력이 도착함으로써 한국전쟁에서 두 번째 지상군 파견국이 되었다.

아울러 지원부대도 대폭 증강되어 각 전투부대를 지원하게 되었다. 8월 7일 중형전차 3개대대가 급파되어 제5전차대대가 제24사단에, 제70전차대대가 제1기병사단에 배속되고, 제73전차대대는 중대단위로 긴급한 부대를 지원하였다. 16일 제72전차대대(80대)가 부산에 도착함으로써 총 6개 전차대대가 한국전쟁에 투입되었다.

각 전차대대는 M46 패튼전차를 보유한 1개대대를 제외하고는 M26 퍼싱전차와 M3A3 셔먼전차를 균등히 보유하고 있었으며 평균 69대를 보유하였다. 따라서 9월 총 반격작전 이전까지 부산교두보 내에 전차가 약 500여 대로 증가되어 전차보유율이 적보다 5:1로 우세하게 되었다.¹⁴⁾ 30일에는 미 제714철도수송대대가 한국에 도착함으로써 공세이전에 대비한 보급수송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8월 하순경 워커 장군은 그 동안의 전투손실과 새로운 부대의 전선참가로 인해 부대재편이 필요하며 아울러 동부지역에서의 국군의 철수와 재배치로 인해 전투지경선을 조정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먼저 제8군은 미 제2사단 중 제38연대가 19일 마지막으로 도착하자 미 제24사단과 24일까지 교대시켜 제2사단으로 하여금 전선을 담당하도록 하고, 제24사단은 군예비로 경산 부근에 집결시켜 재편성하도록 하였다. 이때 제19연대와 이를 지원하는 제11야전포병대대는 제2사단에 배속되었다.

전투력이 현저히 저하된 제24사단은 26일 제34연대를 해체하여 병력과 장비를 제19·제21연대에 편입하고, 제34연대 지원 제63야전포병대대도 해체하여 제11·제13·제52야전포병대대 등으로 개편하였다. 동시에 제5연대전투단을 제24사단의 1개연대로 편입조치하여 제24사단을 3개연대로 완편하였다. 그리고 제6전차대대도 배속하여 군예비를 강화하였다.

미 제1기병사단은 8월 26일 본국으로부터 대대를 인수하여 3개대대로 편성

하였다. 미군 사단은 제1기병사단을 제외하고는 8월의 전투상황과 더불어 전투 서열이 빈번히 변경되어 부대운용이 혼란스러웠으나 8월 말에 군예비로 있던 제23연대는 제2사단으로, 다부동의 제27연대도 제25사단으로 원복조치하고, 제5연대전투단은 제24사단으로 흡수함으로써 1개사단을 예비로 확보하면서 부대 운용에 정상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미군의 전력증강에 따라 8월 하순 지금까지 국군이 담당하고 있던 적의 주공이 지향된 상주-다부동-대구 축선을 미군 책임지역으로 변경하여 부대를 재배치하였다. 그 결과 미 제1기병사단이 다부동 일대를, 국군 제1사단이 팔공산 정면을 각각 담당하게 되어 신녕 정면의 국군 제6사단의 방어정면이 축소조정되었다.

한편, 유엔군사령관은 그 동안 병력이 증강되어 복잡해지면서 일부 지휘체제를 개편하였다. 맥아더 장군은 8월 25일 주일군수사령부를 미 극동사령부의 주요 편제부대로 설치함과 동시에 주일 미군부대 및 주한 유엔군의 군수지원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제8군이 일본에서 수행해야 했던 무거운 후방지원 임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또한 8월 27일 미 극동공군과 해군을 유엔사령부의 예하기구로 통합하여 명실공히 지휘체제를 단일화하였다. 그리고 총 반격작전을 고려하여 9월에 제8군 예하에 제1·제9·제10의 3개군단을 편성하였다.¹⁴⁵⁾

한편, 국군은 중앙훈련소본부(이종찬 대령)의 통제하에 신병양성에 주력하여 8월 중 제1·제3훈련소를 창설하고 9월까지 제2·제5·제6·제7훈련소를 증설하였다.¹⁴⁶⁾ 이들 훈련소는 수용병력이 5~6천 명이며 1~2주간의 훈련을 실시하였는데, 9월부터는 하사관교육대를 별도로 설치하고 우수병사를 선발하여 화기별(火器別)로 전문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장교 충원도 이 무렵부터 체계화되기 시작하였다. 임시 폐교된 육사가 8월 7일 육군중앙훈련소 내에 재설치되었다가 15일 육군보병학교로 합병 개칭되고, 21일 육군제병학교로, 9월 7일 다시 육군종합학교로 각각 개칭되었다. 종합학교의 개교와 더불어 간부후보생을 선발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육군은 매주 250명의 초급장교를 배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아울러 국군 사단증편계획의 일환으로 8월 20일 민부대와 독립유격 제1·제2대대를 기간으로 제7사단이 재창설되고, 27일 제11사단의 신편작업이 착수되었으며, 차후 제2·제5사단의 재창설과 제9사단, 제3군단의 신편계획이 추진되었다. 이때 국군은 미 고문단으로부터 작전·부대재편·교육훈련·장비운용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지원을 받았다.⁴⁷

이 무렵 학도의용군이 증가되었으며 포항지구에서는 8월 중 제3사단을 지원하여 전투를 수행하고 9월 초 자원자 153명이 중화기 중대요원으로도 운용되어 중화기를 지급받아 영일비행장 경비임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⁴⁸ 일본에서는 재일교포 학도병 54명, 애국청년 25명이 미 제1기병사단에 편입하여 참전한 것을 필두로 641명의 자원자가 국군과 미군에 편입되어 9월 13일부터 전선에 투입되었다. 학도의용군은 대부분 계급과 군번도 없이 각 부대에 편입하여 직접 전투나 전투지원임무를 수행하였으며 그중에는 여학생도 있었다.⁴⁹

국군은 미 지상군 병력의 보충을 위해 카투스(KATUSA : Korean Augmentation To the U.S. Army)제도를 실시하였다. 카투스란 미군부대에 증원된 국군병력이란 의미로 1950년 8월 15일에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원수 간의 합의에 따라 공식화되었으며, 이것의 주목적은 미군 사단의 부족병력을 보충하여 전력을 유지시키는 데 있었다.⁵⁰ 당시 이 무렵 도착하는 주일미군사단이 평시 감소편성으로 병력이 부족한데다 전투손실이 발생하여 병력보충이 시급한 상황이었으나, 미국에서 보충병이 도착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우선 한국군(韓國軍)으로 대체한다는 착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여성 학도의용대 입영

육본은 8월 16일에 국군 313명을 일본으로 이동시켜 24일까지 총 8,625명의 국군을 미 제7사단에 배속하였으며, 20일에는 주한미군의 제24, 제25, 제2, 제1기병사단에도 최초로 각각 250명씩 보충하였다. 그 후 카투사는 소총중대 및 포대당 100명으로 기준이 책정되었으며, 각 사단은 매 4일마다 500명씩 인수받아 총 8,300명을 보충받았다. 카투사는 제도적으로 국군의 일원이었으므로 봉급과 행정처리는 한국정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급식과 일용품에 한해 미군으로부터 지원받았다.¹⁵¹⁾

극동군사령부에서는 최초 미군과 국군을 전우조(Buddy System)로 편성하여 운용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실제운용에서는 다양하였다. 미 제1기병사단과 제2사단에서도 전우조를 편성하여 운용하되 화기사용법을 비롯한 야전위생훈련과 병영관리교육은 미군이 담당하였으며, 제25사단의 1개연대에서는 한국군을 별도의 소대로 편성하여 미군장교와 하사관이 지휘하였고, 제24사단은 독립소대 및 분대별로 운용하되 한국군장교와 하사관이 이를 지휘하게 하였다.

카투사는 주로 경계, 정찰 그리고 많은 노력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특히 이들은 중화기 중대에서 기관총, 박격포, 무반동총 및 탄약 등을 운반하는 일을 하였으며, 방어진지의 위장, 진지구축 등 작전활동상 보조적인 임무를 수행하였다.¹⁵²⁾

한편, 국군과 유엔군을 지원하는 노무자의 수도 증대되었다. 국군은 각 부대별로 필요에 따라 피난민이나 인근 마을 주민들 중에서 노무자를 모집하였으며, 낙동강선이 형성된 후 이들의 역할은 더욱 부각되었다. 8월 중 미 부산군수사령부도 한국인 노무자의 역할과 규모가 점차 증대되자 사령부 내에 현지인 노무과를 신설하여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미군 사단에는 평균 500여 명의 노무자가 배치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보급소에서 전방부대까지 도로가 발달되지 못한 산악지대로 지게로 보급품을 운반하고 부상병을 나르기도 하였다.¹⁵³⁾

이 무렵부터 피난민 구호에 관한 문제도 체계화되기 시작하였다. 8월 중으로 정부는 피난민구호중앙위원회를 구성하여 대구와 부산 등지에 60여 개의 피난민수용소의 구호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유엔군사령부 예하 보건후생처가 유엔안보리의 ‘민간인 구호에 관한 결의안’에 따라 구호를 담당하게 됨으로써 지원체제를 갖추었다. 이 밖에 적십자 등 국내외 각종 기구나 자원봉사자들도 자율적으로 민간구호에 나서고 있었다.¹⁵⁴⁾

한편, 병력증강과 병행하여 국군과 유엔군은 각 전투부대의 군수지원을 위해



피난민 노천교육

만전을 기하고 있었다. 당시 정부는 국내조달품목의 양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국군 소요량의 90%를 미군으로부터 지원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9월까지 국군은 경찰, 노무자를 포함하여 205,000명 수준의 보급을 지원받았고 그중 일용품은 전적으로 군사원조에 의존하였다.¹⁵⁵

국군 각 전투부대는 8월부터 신장비와 보급을 지원받아 공세이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국군은 3.5" 보켓포를 보급받아 대전차공격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으며,¹⁵⁶ 국군의 취약점인 포병도 대폭 개선되어 개전 이래 6개의 105mm 포병대대를 개편하여 8월 12일 105mm 신형야포 30여 문을 보급받는 등 4개대대를 증설하여 9월 10일까지 10개대대를 보유하였다.¹⁵⁷

국군의 수송부대도 정리되어 대구지구 수송부가 포항·경주·영천선에 대한 수송을 조정하였으며, 부산기지에서는 일일평균 700량의 차량분(60개 열차)을 수송하였는데 부산-대구 간에 열차 30~50대, 포항에 10대가 배당되었다.

맥아더 사령부는 8월 25일 주일군수사령부(JLCOM)를 창설하였고, 이에 따라 요코하마(橫濱)의 제8군 후방지휘소는 지금까지 수행해 오던 일본에서의 기지, 철로관련 임무에서 해제되고 주한유엔군에 대한 모든 군수지원 임무에만 전념하게 되었다.¹⁵⁸ 지금까지 부산에서 국군과 유엔군의 보급, 피난민과 전쟁포

로 관리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고 있던 부산군수사령부는 9월 18일 제2군수사령부로 확대 개편되고, 아울러 제10군단을 지원하기 위해 8월 28일 제3군수사령부가 일본에서 창설되었다.¹⁵⁹⁾

8월경 유엔군사령부는 8개의 일본조병창에서 현지 기술고용인을 채용하여 병기물자를 대량생산하기 시작하여 3.5" 로켓포 900여 문을 보급하였고, 개전 초부터 4개월간 한국에 투입된 장비의 총 수량은 소화기 489,000정, 기관총 및 로켓포 등 중화기 34,316문, 야포 1,418문, 전투차량 743대, 일반차량 15,000대 등이었다.¹⁶⁰⁾ 8월 중 박격포 및 야포의 일일 탄약소모량은 미육군 교범상의 제한량을 훨씬 초과할 정도였으며, 재고가 부족한 야전용 식량이 미 본토에서 급송되어 각종 레이션 2만여 톤이 부산에 도착하였다.¹⁶¹⁾

이 무렵 극동군사령부는 보급품의 대량수송을 위해 긴급한 물자는 공수하고 그 밖의 품목은 소위 '레드볼 특급'이라 불리는 수송작전을 전개하여 요코하마에서 사세보(佐世保)까지 특급열차로 30시간, 다음 배로 옮겨 해상으로 부산까지 23시간 총 53시간을 지상과 해상으로 연계수송하여 매일 300톤을 수송하였다. 8월 중 입하한 총량은 밝혀져 있지 않으나 9월 14일까지 부산에 양륙된 군수물자의 총량은 약 86만 톤에 이르렀다.¹⁶²⁾

이렇듯 국군과 유엔군은 총 반격작전을 위한 8월의 여러 가지 조치로써 신속히 병력과 물자를 전방사단에 충원하여 우세한 예비병력을 보유하게 되고, 또 전차나 포병화력 면에서도 적을 훨씬 능가하게 되어 방어선을 유지하며 공세이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3) 大邱 固守의 決議

1950년 8월 하순 대구 정면의 전세악화로 한국정부와 국회는 부산으로 이동하였으며, 국방부와 내무부만은 제8군사령부와 더불어 여전히 대구에 남아 국군과 경찰의 작전을 통제하고 있었다.¹⁶³⁾ 그러나 적의 최종공세가 8월 31일부터 시작되어 다시 대구가 위기에 처하게 되자 제8군사령관 워커 장군은 9월 4일 신성모 국방장관에게 국방부를 부산으로 이동하도록 권고하였다.

국방장관은 내무부에도 이동을 제의하였으나, 조병욱 내무장관이 예하 각 경찰이 전선 각지에 배속되어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은 불가하다고 역설하는 한편, 워커 장군을 방문하여 내무부와 경찰은 최후 순간까지 대구에

잔류하여 적을 저지할 것이라는 점을 전달하였다.¹⁶⁴

그는 워커 장군에게 “적에게 빼앗기게 될 경우에는 부산교두보 또한 방어하기 힘들 것이고 따라서 유엔군은 덩키르크나 바탄 반도의 비운을 자아내게 될 것이다.”라고 강변하며 대구 고수를 역설하였다.

실제로 9월 4일 오후의 전황은 대단히 악화되어 있었다. 대구 북쪽의 미 제1기병사단과 국군의 제1·제2군단의 전선의 일부가 돌파 직전에 처하는 등 전 전선이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다. 이에 제8군사령부에서는 예비방어선인 데이비드슨(Davidson)선으로의 철수작전을 고려하고 있었고, 유엔군사령부에서는 상륙작전을 앞두고 현 전선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매우 근심스럽게 전황을 검토하고 있었다.¹⁶⁵

워커 장군은 이날 밤 부사령관, 참모 및 예하 각 사단장들을 긴급소집하여 작전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일부는 적의 공격이 2~3일간이 지나면 약화되는 것이 상례였으므로 현 전선에서 저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일부는 데이비드슨선으로 철수하였다가 전선을 정비한 후 다시 반격하자고 주장하는 등 의견이 분분하였다. 이에 워커 장군은 좀더 전황을 관망한 후 가부를 결정



전황 보고를 받고 있는 정부요인들

짓기로 하고 만약을 위한 대책으로 제8군 작전참모에게 데이비드슨선으로의 철수명령을 기안하도록 지시하였다.

즉시 작전참모 데이브니 대령 등 참모요원들이 밤을 새워 9월 5일 05:00부로 철수명령을 기안하였으나, 밤 사이의 전황을 분석한 워커 장군이 현 전선에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결심을 다시 굳히게 됨으로써 철수명령은 하달되지 않았다.

다만 워커 장군은 지휘통신 중장비인 텔레타이프를 보호하기 위해선 제8군사령부만은 이동이 불가피하다고 결정하고 이날 부산수산대학으로 이동시켰다. 그러나 사령관인 워커 장군을 비롯하여 여러 참모들이 대구에 설치된 전방지휘소에 그대로 남아 모든 작전통제를 계속하고 있었다.¹⁶⁶ 동시에 전선후방 부산에서는 미 제2군수기지사령관 가빈 준장이 만약을 대비하여 부산의 외곽고지와 요소에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결국 국방의 최고기관인 국방부와 육군본부도 9월 5일 24:00 부산으로 이동을 개시하였다. 이것을 보고받은 이승만 대통령은 즉시 대구로 올라와 더 이상의 철수는 절대 허용하지 못한다고 질책하였다. 그는 국방·내무장관으로부터 워커 장군과의 면담경위와 사수결의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보고받고서야 상황을 수용하였고, 대구시민에게 전국(戰局)을 설명하고 경솔한 행동을 삼가고 피난길을 멈추도록 촉구하라고 하였다.

국방장관은 즉시 정훈국장 이선근(李瑄根) 대령에게 대구 철수는 없다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확고히 알려 한치의 동요함도 없이 질서를 유지하도록 촉구하였으나, 이미 정부와 국회, 국방부, 육군본부가 대구를 떠난 상황이었으므로 시민들을 진정시키기가 용이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제8군사령관 워커 장군은 상륙작전에 호응하여 반드시 총 반격작전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대전제하에 낙동강선을 사수하겠다는 신념을 다시 확고히 하였다. 그는 행정부서와 주지휘소를 부산으로 옮긴 후 자신은 대구에서 계속 부대를 지휘하였으며, 이후 그는 예하지휘관들에게 “적이 대구시내로 쳐들어온다면 나는 거리에서 장병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니 귀관도 나처럼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도록 하게.” “나는 귀관을 전선 후방에서는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네. 관 속에 들어가 있다면 별문제이지만.”라고 하여 대구전선 사수의 의지를 전달하였다.¹⁶⁷

2. 大邱 부근의 決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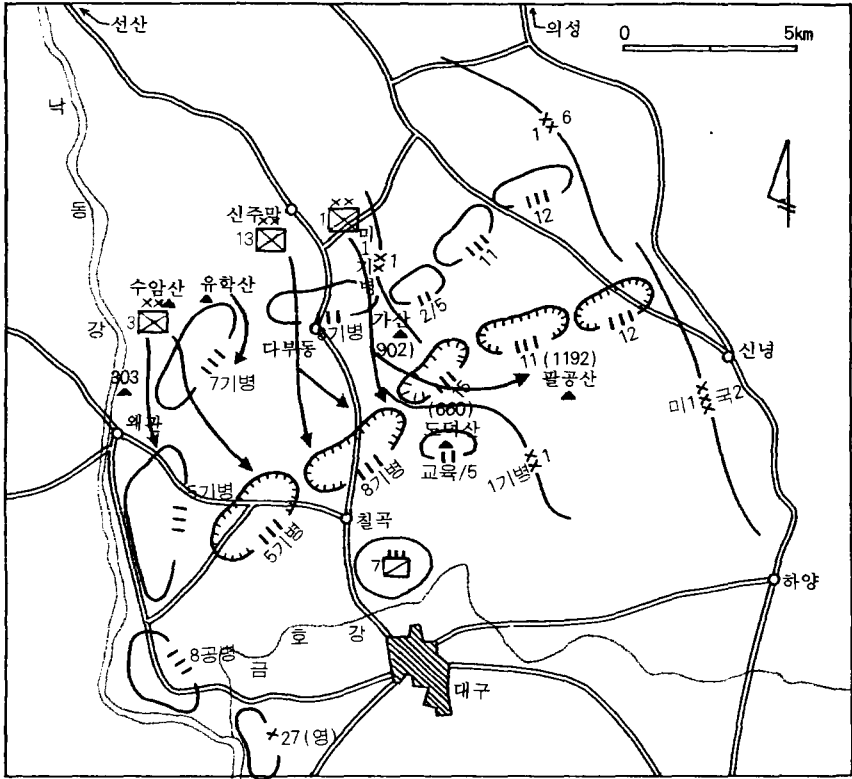
9월공세시 대구 정면으로는 인민군 제2군단의 제3공격집단에 편성된 제3·제13·제1사단 등 3개사단이 9월 2일 미 제1기병사단과 국군 제1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다부동-대구 축선으로 공격할 계획이었다. 이들은 8월공세시에도 역시 이곳을 공격하던 사단으로서 제3사단은 왜관 북쪽에서, 제13사단은 상주-다부동 축선의 서측 고지군으로, 제1사단은 이 도로 동측 고지군으로 공격하도록 되어 있었다. 미 제1기병사단과 국군 제1사단은 8월 30일 전투지경선을 조정하고 미 제1기병사단이 금호강과 낙동강의 합류지점-왜관-741고지까지, 국군 제1사단이 741고지-팔공산 북방 중앙선까지 담당하여 대구 북쪽의 방어진지편성에 주력하였다. 기병사단은 제5기병연대를 왜관에서 동남쪽에, 제7기병연대를 유학산 일대에, 제8기병연대를 다부동 북쪽 도로변 일대에 각각 배치하였으며, 우인점으로 국군 제1사단을 팔공산 북방 정면에 배치하였다.

그런데 이에 앞서 8월 31일 밤에 시작된 적 제1군단의 공격으로 낙동강 들출부지역이 위기에 처하자 9월 1일에 워커 장군은 미 제1기병사단장에게 북쪽 또는 북서방향으로 공격하여 서측의 적을 유인하라고 명령하였다. 기병사단장이 이 명령을 받고 개최한 사단작전회의 결과에 따라 제7연대가 수암산(518m)을 탈환하고 제8기병연대가 그 우측에서 견제공격하도록 하였다. 수암산은 왜관-다부동 도로 북방에 위치하여 그 남쪽 대구로 이르는 도로를 감제할 수 있는 중요 지형지물로서 당시의 적의 집결지로 알려져 있었다.¹⁶⁸⁾

제7기병연대가 공격개시하기 직전 9월 2일 새벽 갑자기 정면의 적 제13사단 예하 제19연대 작전참모 김성준 소좌가 귀순하였다. 그의 진술에 의하면 적 제2군단은 9월 2일 18:00를 기해 총공격을 개시할 것이며, 제13사단은 최후공세를 위해 병력 4,000명을 보충하여 총 9,000명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김소좌의 제보는 대단히 시기적절한 것이었으며, 제8군은 즉시 예하 전 부대에 적의 총공격에 대비하도록 지시하였다.¹⁶⁹⁾

이날 아침 기병사단장은 계획대로 수암산을 탈환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는 사실상 대구 북방에 대한 위력수색작전이었다. 유엔 전폭기 편대가 수암산 일대에 네이팜탄을 집중투하하는 동시에 사단포병이 일제히 사격을 집중하였다. 곧 이어 제7기병연대는 제1대대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능선기동로가 너무

대구 부근의 결전



좁아 공격부대가 중대-소대-분대 규모로 축소될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적의 강력히 준비된 진지로 1개분대로 공격하는 현상이 초래되어 공격이 실패되고 말았다.

이날 밤 우일선 제8기병연대가 전차를 앞세운 적의 공격을 받기 시작하여 다부동 계곡 서측 448고지에 배치된 제2대대가 돌파되었으며, 우측 가산성지(架山城趾)에 배치된 정찰소대와 국군경찰도 적에게 유린되고 있었다. 우인접 국군 제1사단도 적의 공격을 받았으나 다음날까지 적 전차 3대를 파괴하면서 격퇴하고 있었으며 이후 팔공산 정면에는 소규모 접전만이 유지되었다.¹⁷⁰⁾

가산(902m)은 대구 북쪽 16km에 위치한 중요한 감제고지로서 다부동-대구 간 도로와 대구까지도 감제하여 전술적으로 중요하였으므로 워커 장군은 즉시

가산을 탈환하도록 엄명하였다. 당시 기병사단은 3개연대 모두를 일선배치하고 있었으므로 공병대대가 그 임무를 부여받았다.

대구 위기를 실감한 기병사단장은 즉시 부사단장 앨런(Frank A. Allen Jr.) 준장에 사단 후방지원부대인 본부중대·근무부대·군악대·보충대까지 합하여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게 하고, 이를 대구 근교에 배치하여 적의 대구외곽 돌파에 대비하였으며, 다급한 나머지 이날 대구중앙훈련소의 국군 신병 1개대대(이상철 중령)도 제8기병연대 후방으로 추진하여 다부동-대구 돌파에 대처하였다.¹⁷¹⁾

제7기병연대는 제1대대에 이어 다시 3일 제3대대를 수암산으로 투입하여 다음날까지 혈전을 전개하였으나 제1대대와 같은 현상의 재현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포로심문에 의하면 당시 수암산에는 1,200명의 병력이 참호 속에 있고 120mm 포, 82mm 박격포도 보유하였다고 진술하였다.¹⁷²⁾ 사단 좌측에서는 제5기병연대가 제2대대로 왜관 북쪽 303고지를 공격하고 있었다.

이 무렵 제7기병연대가 적에게 포위될 위기에 처하였다. 폭격과 연대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전방에서는 수암산의 적 제3사단이 부대간격을 따라 왜관-다부동 도로 남쪽 464고지로 침투하고 있었으며, 좌측방 왜관도 무인지경이 되고 우측방에서는 적 제13사단이 다부동까지 진출하였던 것이다. 가산으로 진출하던 공병대는 다음날 5일까지 적 제1사단 1개대대의 완강한 저항을 받아 철수하고 말았다.

5일 전황을 보고받은 워커 중장은 기병사단에 야간을 이용하여 왜관-다부동 도로 남쪽의 방어진지로 철수하도록 명령하였고, 국군 제1사단도 이날 우측 영천의 제8사단이 돌파됨으로써 전선균형을 위한 군단장의 철수명령을 받았다.

기병사단은 6일 밤부터 제8, 제7, 제5기병연대순으로 철수를 개시하였다. 기병사단은 정면의 적과 접전 중이었으며 이미 적의 일부가 왜관 동남과 다부동 일대로 침투하고 있었으므로 철수가 용이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이날 밤은 폭우로 인해 행군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

특히 신방어진지인 465고지 일대를 적이 이미 점령하고 있어 제7기병연대의 진지전환이 더욱 어려웠다. 그러나 사단은 6~7일 사이에 새로운 진지로 철수하여 제5(제7기병연대 제1대대 배속), 제8기병연대로 왜관-대구간 도로 남쪽에 방어진지를 점령하고 제7기병연대(-)를 대구 부근에 사단예비로 확보하였다.¹⁷³⁾

국군 제1사단은 6일 오후까지 팔공산 전방으로 이동하고 군단명령에 따라 영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써 제11연대(-)를 제8사단에 증원하였다.¹⁷⁴⁾ 국

군 제1사단장은 좌로는 기병사단과의 간격을 봉쇄하고 우로는 제6사단과의 연결을 고려하여 좌일선 남산동에 제15연대, 우일선 대울동에 제12연대를, 사단의 좌측방 가산성 남쪽에 제11연대 제1대대를 배치하였다.¹⁷⁵⁾

6일 가산을 점령한 적 제13사단과 제1사단이 다부동 남쪽 도로를 차단하고 대구간 도로를 감제하는 570고지를 장악하였다. 다음날 기병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수색중대의 전차 5대가 진출하여 도로를 차단하고 있는 적을 분산시켰으며, 가산 및 570고지 일대에는 유엔 전폭기가 수시로 출격하여 폭격하였으므로 적은 이틀 동안 적극적인 공세행동을 하지 못하였다. 제8기병연대 제3대대가 8일 570고지로 역습을 전개하였으나 적의 완강한 저항을 받고 있었다. 이 고지에는 약 1,000여 명의 적이 집결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워커 중장은 전날부터 미군과 국군의 전투지경선을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가산공격의 임무는 우인접 국군 제1사단이 담당하였다.¹⁷⁶⁾

한편, 7일~8일에 제5기병연대를 303고지에서 밀어붙이고 왜관을 점령한 적 제3사단은 9일 왜관 동쪽 5km 지점의 미 제5기병연대의 신방어선상의 345고지를 공격하여 일진일퇴의 교전이 전개되었다.¹⁷⁷⁾ 제1대대는 진지 일부가 돌파되었으나 4차에 걸쳐 역습을 반복하여 적을 격퇴함으로써 마침내 진지를 회복하였다. 연대는 고지를 놓고 14일까지 많은 병력손실을 입으면서 7차례나 뺏고 빼앗기는 쟁탈전을 반복하면서 간신히 174고지를 고수하고 있었다.¹⁷⁸⁾ 이날 국군 제1사단은 좌일선부대가 하루종일 적의 강력한 공격을 받았으나 적을 격퇴하고 진지를 고수하였다.¹⁷⁹⁾

적 제1사단이 10일 미명 가산 일대에서 공격을 재개하여 일부 병력을 도덕산(660m) 일대로 남진시키고 일부 병력을 팔공산 일대로 진출시키고 있었다. 기병사단은 이 무렵 제5기병연대를 대구서북 낙산동 부근 고지에, 제8기병연대를 대구북방 칠곡 북쪽고지 일대에 각각 배치하고 제7기병연대를 예비로 보유하고 있었다.

11일부터 대구 북방고지 일대에선 치열한 접전이 전개되었다. 제8기병연대 우측진지가 돌파되어 그 남쪽 314고지마저 피탈됨으로써 대구방어의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 무렵 제8기병연대 우측 도덕산에 배치된 국군 제5신병대대는 전투경험도 없고 장비도 보잘것이 없었지만 적의 공격을 훌륭하게 저지하고 있었다.

제7기병연대 제3대대가 고지 탈환임무를 받고 다음날 역습을 개시하였다. 대대는 기관총과 박격포, 수류탄 등으로 완강히 저항하는 적과 수차례 치열한 접

전을 수행하여 2개중대의 장교 모두를 잃는 등 458명의 병력손실을 입고 마침내 고지정상을 탈환하는 데 성공하였다. 적의 포로진술에 의하면 적의 손실도 약 700여 명에 이르고 있었다.¹⁸⁰⁾

이후 9월 12일부터 대구 북쪽의 상황은 크게 안정되었으나, 아직 여러 고지에서 전투가 수행되고 있었다. 제8기병연대 2대대는 다부동 도로 동쪽 570고지에서 쟁탈전을 계속 중이었으며, 제3대대는 연대간격으로 침투하여 칠곡 서북쪽 401고지를 장악한 적을 격퇴하고 있었다.

국군 제1사단도 기병사단과 협조하여 적에게 큰 타격을 주며 9월 14일에는 가산성 가장자리까지 진출하였다. 제11연대 제1대대는 침투하는 적을 역습하여 가산성의 755고지를 점령하였으며, 제15연대도 일부 부대가 가산성 성벽까지 도달하였다. 사단은 13일 정오부로 대구방어의 지휘통일을 기하기 위한 조치에 따라 미 제1군단으로 배속변경되어 주로 적 제1사단과 작전을 계속하였다.¹⁸¹⁾

한편, 대구가 이와 같은 위협에 직면하자 경찰 14개대대가 대구시 주위에서 호를 구축하고 방어선을 형성하여 최후저지선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찰이 최후결전을 치러야 할 위기를 가까스로 넘기며 국군 제1사단과 기병사단은 14일까지 대구 북쪽의 약 10km 지점에서 적을 저지하였다. 인민군 제13, 제1사단의 패잔병들은 다부동, 가산성 북쪽으로 철수하고 있었으며 결국 대구 점령을 위한 적 제2군단의 9월공세는 좌절되었다.

3. 昌寧-靈山의 固守

낙동강 돌출부 창녕-영산에서는 미 제2사단이 인민군 제1군단 예하의 제2공격집단과 결전을 벌였다. 미 제2사단은 8월 하순 제24사단으로부터 작전지역을 인수받아 제9연대를 영산 정면의 부곡리에서 남지까지, 제23연대를 창녕 정면, 그리고 제38연대를 현풍 정면의 강안고지에 각각 배치하여 진지편성에 주력하고 있었다.

반면 적 제1군단 예하 제2공격집단은 제9사단(-)이 8월 말경부터 제9연대 영산 정면에, 김천에서 재편성을 완료한 적 제2사단이 창녕 정면에, 적 제10사단이 현풍 정면 낙동강 대안에 집결하였으며,¹⁸²⁾ 이들은 8월 31일 22:00를 공격개시 시간으로 정하여 최후공세를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미 제2사단장은 제8군으로부터 정찰명령을 받고 31일 제9연대장에게 즉시 증강된 중대규모의 전투정찰대를 편성하여 적정을 파악하도록 임무를 부여하였

다. 만주특수임무부대로 명명된 정찰대가 일몰 후 도하준비를 갖추고 있던 중 적의 대규모 기습공격을 받았다. 대안에 집결하고 있던 적 3개사단이 영산·창녕·현풍 정면으로 일제히 기습도하공격을 개시한 것이었다.

영산 정면의 제9연대는 적 제9사단의 기습공격을 받아 순식간에 많은 손실을 입은 채 강안진지가 돌파되었으며, 특히 정찰대의 일부로서 박진도선장에 배치된 증화기소대는 거의 저항도 못한 채 생포되고 좌일선 진지도 기항 일대에서 도하한 적의 공격을 받아 유린되고 말았다. C중대의 철수과정에서 화기분대장 스토리(Story) 상등병은 부상을 입고도 마지막까지 남아 엄호사격을 가하는 용맹을 보여 주었다.¹⁸³⁾

상황을 보고받은 사단장은 정찰계획을 취소하고, 제9연대장이 정찰대로 편성한 E중대를 즉시 클로버고지와 오봉리 능선을 봉쇄하도록 하였으나 이미 고지 일대의 주요거점은 적에게 장악된 뒤였다.

한편, 창녕 정면에 배치된 제23연대도 거의 같은 시간에 적 제2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방어진지는 순식간에 돌파되어 많은 병력이 사살되거나 포로가 되었으며, 퇴로마저 차단되어 철수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사단장은 즉시 제38연대 제3대대를 포병과 전차, 항공기의 근접지원 아래 창녕에서 모산리로 투입하였다.

현풍 정면에서도 적 제10사단이 도하공격을 개시하였다. 제38연대 제1대대는 현풍 일대로 물러나면서 적을 저지하다가 다음날 야간 남쪽으로 철수하였다. 이 무렵 제8군은 제10사단의 향방에 관해 깊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으나, 다행히 적은 현풍 부근에서 소규모 정찰전만을 수행하였을 뿐 15일까지 더 이상 진출하지 않고 있었다. 적의 작전문서나 포로신문에 의하면 적 제10사단은 적 제2군단이 대구를 점령할 때까지 현풍 일대에 집결해 있도록 명령을 받고 있었다.¹⁸⁴⁾

9월 1일 아침 무렵까지 미 제2사단은 거의 전 지역이 적에 의해 돌파되었으며, 사단장은 방어진역이 창녕과 영산으로 양분되자 지휘통제상 창녕과 현풍 일대의 부대는 사단포병사령관 하인즈(Loyal M. Haynes) 준장이, 영산 정면은 부사단장 브래들리 준장이 지휘하도록 하였다. 이 무렵 워커 장군도 직접 제2사단 전선에 나와 작전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예비대의 투입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었다.

그 동안 영산 정면에서는 만주특수임무부대가 고립된 상황에서 공중보급을 받아가며 3일까지 적을 저지하고 있었으며 수차례의 근접전에서 부대장 슈미트

(Edward Sohmitt) 증위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병력이 희생되어 22명만이 철수하였다.¹⁸⁵⁾

당시 사단장은 제9연대의 예비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영산에 보병 1개중대, 공병대대, 제72전차대대, 수색중대를 배치시켜 두고 있었다. 영산 북쪽도로에 배치된 공병대대는 적의 공격을 받았으며, 동시에 영산 남쪽도로에 배치된 전차대대와 수색중대도 적과 교전하고 있었다. 적은 전차 4대와 1개대대를 선두로 영산을 장악하였으나 외곽에서는 여전히 치열한 교전이 계속되었다.

다음날 제9연대장은 영산 동쪽 지휘소에서 철수부대로 재편성한 800여 명의 병력과 전차를 이끌고 영산을 공격하여 오후 무렵 탈환하였다. 전폭기 편대가 적의 증원을 차단하였으며, 공병대대가 영산 서방에서 적 전차 3대를 격파하면서 공격을 함께하였다. 이로써 잠시나마 밀양으로의 적 진출을 저지할 수 있었으나 돌출부의 위기는 여전히 심각하였다.

이에 앞서 9월 2일 13:15 워커 장군은 극동군사령부의 승인을 받아 미 제1해병임시여단을 제2사단에 배속시켜 제2사단과 협조된 공격으로 반드시 낙동강선을 확보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9월 3일 08:00 해병대가 중앙에서 영산 서쪽으로 공격하며, 해병대 북쪽에서는 제9연대(제72전차대 1개중대와 고사포대대 1개포대 배속)가 북서방으로 진출하여 제23연대와 연결하고, 남쪽에서는 제9연대 1대대 잔존병력·공병대대·제72전차대대(-)가 공격하여 제25사단과 연결하기로 공격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와 아울러 제8군은 또 하나의 예비 미 제24사단 사령부와 제19연대를 마산 남쪽 수산리로 이동시켜 투입준비를 갖추도록 하였다.¹⁸⁶⁾

해병대는 공군기 편대와 포병의 지원사격을 받으면서 공격을 개시하였다. 도로 남쪽의 제1대대는 퇴각하는 적을 추격하였고, 도로변의 제2대대는 적과 치열한 교전을 하여 적 전차 4대를 파괴하였으며 제3대대가 제2대대를 초월하여 타격을 계속 유지하였다. 한편, 제9연대도 영산 남서쪽으로 해병대와 협조된 공격을 수행하였다. 4일 아침 무렵 해병 제2대대는 영산 서측 116고지를 장악하였고, 제1대대는 적 제9사단 사령부가 설치되었던 지역을 탈환하였으며 그곳에 유기된 전차 2대를 노획하였다.

한편, 창녕 정면에서는 강진나루-창녕 접근로를 방어하고 있던 제23연대 제1대대의 퇴로가 차단되었는데, 대대장은 고립방어으로써 적의 진출을 차단하겠다는 각오로 3일간이나 적과 대치하였고, 다른 한편 사단에서는 제38연대의 1개

대대를 투입하여 이를 구출하기 위한 작전을 펴고 있었다. 결국 연결작전에 성공한 다음 하인즈 장군은 이 도로를 제38연대가 방어하도록 하고 제23연대는 부곡-창녕도로 축선만으로 방어책임지역을 조정하여 창녕 정면의 방어력을 강화하였다.

이 무렵 제38연대도 약 1개대대 규모의 적으로부터 연대본부가 공격을 받아, 연대본부 요원·박격포중대·전차중대·방공포대 등 지휘소 주위의 병력으로 이들을 구축하기 위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영산 정면에서는 역습을 개시한 지 3일째인 5일 폭우에도 불구하고 전진을 계속하여 해병대가 오봉리 능선을 점령하였으며, 곧 이어 제9연대가 클로버고지까지 전진하였다. 전방고지에는 적이 집결해 있었다. 오후 무렵에는 두곡 일대에서 전차를 앞세운 적 300여 명의 공격을 받았으나 적 전차 4대를 파괴하면서 격퇴하였다. 작전이 거의 마무리되자 해병대는 인천상륙작전에 가담하기 위해 워커 장군의 명령에 의해 9월 5일 00:01부로 제2사단에서 배속해제됨과 동시에 오봉리에서 부산으로 이동하였다.¹⁸⁷⁾

9월 5일부터 대체로 적의 공격은 중단되었으나, 창녕 정면의 적 제2사단이 8일 미명 마지막 공격을 재개, 미 제23연대를 돌파하고 본초리까지 진출하여 창녕을 약 5km 남겨 두고 있었다. 연대는 본부중대 및 특수지원병과부대까지 임시 예비대에 편성하여 여기에 투입하고 항공기의 지원폭격을 받아 적을 저지하였다. 교전은 다음날까지 지속되었으나 9일 낮부터 적의 공격이 중지되었다. 이후에도 적 제2사단은 중대규모의 부대를 후방 창녕까지 침투시켜 교란작전을 전개하였으며, 미 제2사단도 매일같이 정찰을 강화하였다.

이 전투에서 포로가 된 적 제2사단 제17연대 군의관의 진술에 의하면 적 제2사단은 그 동안 전사 1,300여 명, 부상 2,500여 명의 손실을 당하여 공격력을 상실하였으며, 반면 미 제2사단도 제1해병임시여단을 포함하여 많은 손실을 입었으며 가장 손실이 큰 미 제23연대의 전투력은 38%로 감소되었다¹⁸⁸⁾고 한다.

4. 咸安-馬山 부근의 攻防

8월 하순 마산 정면의 전선은 대체로 소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적의 후방지역에는 병력집결이 현저히 관측되고 있었다. 미 제25사단은 남지교에서부터 십이당산, 진주-마산간 철도를 따라 남쪽의 험준한 산악지대를 거쳐 진동리

해안에 이르는 48km의 넓은 방어선을 담당하고 있었다. 킨(Kean) 소장은 남강변과 검안리 일대에 제35연대, 전투산·필봉 등 함안 일대의 산악지대에 제24연대, 서북산 남쪽에서 진동리 해안까지에 제5연대전투단을 각각 배치하였으며 제27연대는 마산에 예비로 확보하였다.

반면 적은 제6사단이 진주에 집결하여 부대정비와 아울러 공격준비를 갖추고 있었으며, 제7사단이 의령 동북 일대에 집결하여 공격준비를 갖추고 있었다.¹⁸⁹⁾ 적은 후방지역에서 병력을 집결시키는 한편, 유엔공군의 계속적인 폭격에도 불구하고 남강에 수중교를 부설하고 있었다. 적의 작전계획은 제6사단이 진주-검안리-마산도로를 따라 돌파하고 제7사단이 남강 남쪽 도로를 차단하는 것으로서 두 개 도로가 주공축선이었다.

8월 31일 23:30 적은 2개사단 병력으로 총공격을 개시하였다. 적 제7사단은 일제히 남강을 도하하여 제35연대 진지를 공격하였으며, 남강변의 제35연대 제2대대가 적의 집중 도하공격을 받았다. 대대는 즉시 제64야포대대의 VT신관사격과 유엔전폭기의 지원을 받아 적에게 많은 손실을 주면서 저지하였으나, 검안리 북쪽 제1·제2대대 간격이 돌파되면서 적의 대규모병력이 칠원, 중리 등 후방지역으로 접근하였다. 제2대대는 후방이 차단된 상황에서도 고지를 중심으로 치열한 근접전을 수행하였으며, 유엔공군기 편대가 마치 ‘날으는 야포’와 같이 후방지역의 적에 대해 집중폭격을 가하여 저지하고 있었다.¹⁹⁰⁾

검안리 정면 고지 일대에 배치된 제1대대는 적의 공격을 격퇴하고 있었다. 특히 십이당산의 B중대가 적 제6사단 제13연대(-)의 집중공격을 받았다. 검안리 정면의 십이당산은 관측에 유리할 뿐 아니라 사단방어지역에서 중요한 지형이었다. 적의 집중공격을 받자 즉시 미 전차대가 추진되어 적 전차 1대를 파괴하였으며, 3.5" 로켓포조가 자주포와 대전차포를 파괴하였다.

적 제13연대는 보급로와 후방지역을 장악한 상황에서 정면공격을 개시하였으나, 진지전방에 매설된 철조망·대인지뢰·부비트랩에 의해 최초공격이 좌절되었으며 후속부대도 미 포병대의 지원화력과 중대의 저지사격을 받고 3차의 격전 끝에 퇴각하였다. 진전에는 적의 많은 장비와 시체들이 흩어져 있었으며, 그중에는 연대장 한일래의 시체도 발견되었다.¹⁹¹⁾

한편, 방어중앙을 담당한 제24연대는 적 제6사단 주력의 공격을 받아 함안 정면에 배치된 제2대대가 돌파되고 병사들이 분산후퇴함으로써 함안이 피탈되었다. 사단장은 즉시 제27연대 제1대대를 투입하였다. 대대가 공격하기 전에 야

포사격이 집중되고 전투기들이 출격하여 네이팜·로켓탄·기총소사를 가하여 함안 일대는 불바다를 이루었다.

대대는 전차 8대를 선두로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함안 서측고지에서 전차 1대가 파괴되는 등 많은 손실을 입고 저지되었다. 이날 하루종일 전폭기가 출격하여 적 진지를 강타하였으나 다음날 아침 적의 역습이 개시되었다. 대대는 전폭기의 근접지원사격을 받아 진전에서 격퇴하였으며 즉시 추격전까지 전개하여 마침내 최초의 진지를 회복하였다. 대대는 다음날에도 적의 역습을 받았으나 야포·전차·항공기의 지원하에 격퇴하였다. 적 포로진술에 의하면 이 일대에 4개대대 병력이 집결해 있었으며 양일간의 역습에서 1,000여 명이 손실되었다고 한다.¹⁹⁰⁾

한편, 강변진지에 고립된 병력을 구출하기 위해 2일 오후 제27연대 제2대대가 투입되었다. 대대는 완강히 저항하는 적을 격퇴하고 다음날 오후에야 진지에 도달하였다. 대대는 제35연대 제2대대 잔여병력과 함께 보·전·포·공 협동공격을 전개하여 마침내 진지를 탈환하였다.

사단장은 이날 중리에 위치한 미 제27연대 지휘소와 포 진지가 적의 침투병력에 의해 피습되자 제27연대에 적을 격퇴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제3대대가 포병진지를 장악한 적을 공격하여 다음날 아침 격퇴하였으며, 제2대대는 검암리 동쪽으로 진출하여 제24연대 후방을 위협하고 있는 고지(말굽)상의 적을 공격하였다. 대대는 오히려 적의 역습을 받아 13명의 장교를 잃는 등 많은 사상자를 내었으나 오후 보·전·포·공의 협동작전을 전개하여 고지를 탈환하였다. 4일 아침 대대는 공군기의 지원하에 검암리와 함안 사이의 적을 공격하여 300명 이상을 사살하면서 격퇴하였다.¹⁹³⁾

한편, 함안 일대를 탈환한 제27연대 제1대대는 4일 밤 제24연대 제1대대에 진지를 인계하였으나 다음날 아침 소규모 공격을 받고 철수하고 말았다. 사단장은 제24연대가 상주전투 이래 빈번히 전선을 이탈하여 작전에 큰 차질을 초래하였으므로 보병연대로서의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워커 장군에게 보고하기에 이르렀다.¹⁹⁴⁾

4일 오후 제27연대 제2대대는 제35연대 제2대대의 강변진지가 돌파되자 다시 북상하였다. 대대는 도로변 고지의 적으로부터 3개방향에서 기관총사격을 받아 진출이 저지되었으며, 설상가상으로 후방으로부터 적의 포위공격을 받아 치열한 전투를 수행하였다. 이날 밤 대대는 심한 폭우로 인해 시계가 불량하고 탄약마저 부족하여 고전을 면치 못하였으며, 다음날 아침 8대의 수송기로부터 채보급

을 받아 후방지역의 적을 격퇴하였다.¹⁹⁵⁾ 이 무렵 후방지역에서는 제35연대 병력이 중대 및 소대 단위로 분산되어 침투한 적과 전투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 무렵 사단 포병은 중암리 일대에 집결한 적의 병력과 보급에 대해 포격을 집중하였으며, 유엔공군기들은 수시로 출격하여 적 진지와 집결지를 강타하여 킨 장군으로부터 “근접항공지원으로 사단이 구출되었다.”고 평가받을 만큼 눈부신 활약을 하였다.¹⁹⁶⁾

한편, 사단 후방지역에서는 적 유격대 및 오열의 준동이 있었다. 적의 유격대가 창원의 무전중계소를 습격하였으며, 한국신문협회 마산지부장이 남로당 마산위원장으로서 또 마산형무소 7명의 간수가 공산당원으로 적에게 정보를 제공하다가 검거되었다. 이러한 사천으로 사단장은 마산시민에게 피난령을 하달하였으며 10일부터 양일간 12,000명의 시민이 LST로 이동하였다.¹⁹⁷⁾

5일부터 적의 압력은 현저히 약화되기 시작하였으며 다음날 제27연대 제1대대는 남강 하류지역에서 교전 중인 제2대대와 합류하여 많은 적을 소탕하였다. 이날 보고에 의하면 적은 16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져 분산 퇴각하고 있었으며 미 제25사단은 1일~7일까지 방어정면을 제외하고도 전선후방에서만 적 병력 2,000여 명을 매장하였다.¹⁹⁸⁾

적은 주력이 와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개대대가 전투산을 재장악하고 있었다. 제27연대 제3대대가 탈환임무를 부여받고 3일간 수차례 고지로의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번번이 적의 완강한 저항을 받아 저지되었다.

이에 연대장은 2개중대를 그 동쪽고지에 배치하고 지뢰지대와 탄막지대를 설치하여 적을 유인하도록 하였다. 이날 밤 예상대로 적이 공격을 개시하자 일제히 계획된 사격을 집중하여 대대적인 타격을 주었으며 곧바로 적을 추격하여 전투산마저 탈환하게 되었다.¹⁹⁹⁾ 그 동안 제5연대 작전지역에서는 제1대대가 서북산 탈환전에 실패한 후 큰 접전 없이 정찰전(偵察戰)만이 반복되고 있었다.

적은 공격력이 한계에 부딪쳐 수세로 전환하였으며 미 제25사단은 그 동안 공세적인 방어작전으로 적에게 소모전을 강요하다가 마침내 작전의 주도권을 탈취하여 총반격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5. 永川 奪還戰

8월 말 인민군 제2군단 예하 제4공격집단에 편성된 제8·제15사단은 국군 제

6사단과 제8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신녕과 영천을 목표로 최후공세를 준비하고 있었다. 적 제8사단은 의흥 일대에서 강제징집병으로 병력을 보충하고 또 제17기갑여단의 전차 21대를 배속받아 공격력을 강화하고 있었으며, 신녕을 목표로 조림산-갑령선을 돌파지역으로 계획하고 모든 전차와 주력부대를 집중시키고 있었다.

적 제15사단은 8월 20일 다부동 정면에서 의성을 거쳐 영천 동북방 입암리로 이동한 후 부대정비와 아울러 제73독립연대, 제103치안연대를 배속받고 이 밖에 각종 포 166문과 전차 12대의 지원하에 최후공세를 준비하고 있었다.²⁰⁰⁾ 이들의 목표는 영천을 점령한 다음 대구로 진출하는 것이었다.

이 무렵 국군 제6사단은 신녕 북쪽 산악지대인 산성-갑령-화산선에서 주저항선을 형성하여 제2연대를 군위-신녕 축선의 운산동 일대, 제19연대를 의성-신녕 접근로의 조림산 남쪽, 제7연대 1개대대와 배속부대인 제15연대를 화산에 각각 배치하고 제7연대(-)를 예비로 적에 대비하였으며, 제16포병대대가 3개포대(105mm 18문)로 각 연대의 지원태세를 갖추었다.²⁰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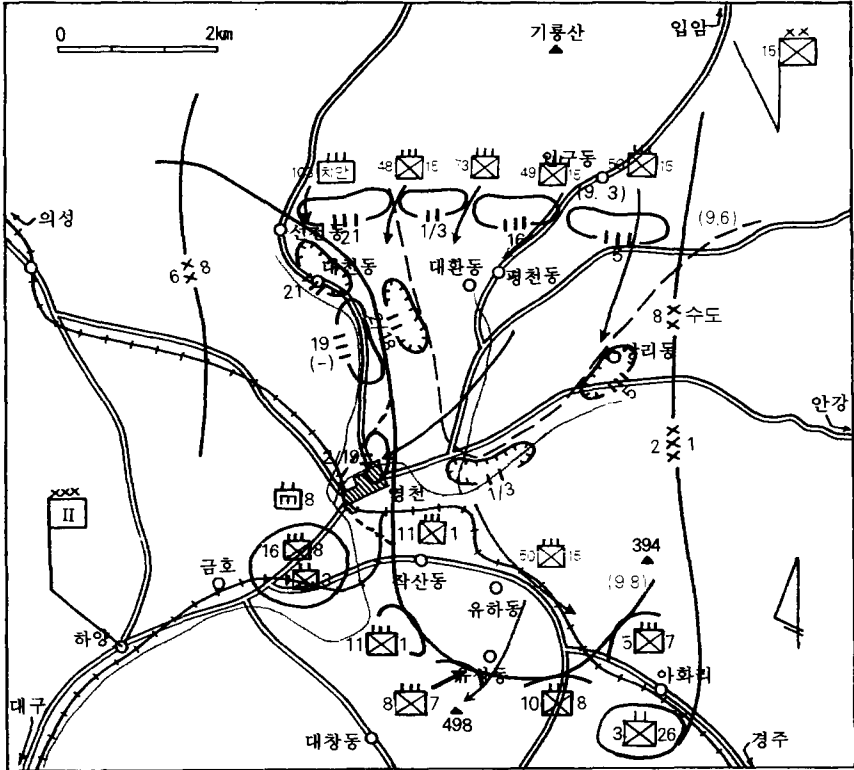
사단방어정면 적의 예상접근로와 침투로에는 공병대대가 대전차 및 대인지뢰지대를 설치하고, 조림산 남쪽의 제19연대 제1대대에는 3.5" 로켓포 4문이 보급되고 미 전방항공통제반이 파견되어 있었다.²⁰²⁾ 영천 북방의 국군 제8사단은 제21연대를 좌일선 노고재-보현산에, 제16연대를 우일선으로 입암 남쪽에 방어진지를 편성하여 이미 8월 말경부터 전초전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때 제8사단 제10연대는 제3사단에 배속되어 포항 일대에서 작전 중이었다.

영천은 신녕·구산동·입암으로부터의 도로교차점이며 대구 및 경주 방향으로의 횡적 도로망이 발달되어 있고, 중앙선·대구선·동해남부선 등 철도의 분기점이며 대구와 34km, 경주와 28km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이 돌파될 경우 대구와 경주 방면이 위협을 받게 되며 국군 제1·제2군단이 분리되는 동시에 동서간의 보급로가 차단된다. 따라서 이곳은 낙동강전선의 전략적 요충지였다.

9월공세가 시작되자 적 제8, 제15사단은 신녕과 영천을 목표로 9월 2일 야간에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적 제8사단은 집중적인 공격준비사격에 뒤이어 전차부대를 제19연대 제1대대 방어정면으로 투입하였으나 제1대대장의 적절한 지휘조치로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다.

방어정면으로 수 미상의 적 전차가 접근하자 대대관측소에서 즉시 예광탄 발사를 요청하여 전장을 밝히고 모든 화기를 집중하였으며 특히 제16포병대대의 일제사격이 큰 위력을 발휘하였다. 아울러 대대장은 즉시 대전차특공대를 투입

영천 탈환전



하여 전차를 제압하도록 하였다.

이에 변규영 소위 등 특공대는 적진으로 침투하여 먼저 3.5" 로켓포로써 후미전차를 파괴한 후 차례로 적 전차 7대를 파괴하고 승무원 5명을 사로잡는 경이적인 전과를 달성하였다. 특공대가 가까이 접근할 무렵 단 한 대만이 저항하였으며 나머지 다섯 대의 전차는 이미 유기되어 있었다. 이 전공으로 특공대는 1계급 특진과 아울러 상금 50만원을 수여받았다.²⁰⁹

새벽 무렵 대대는 전장에서 적 1개중대 규모의 적 시체를 확인하고 트럭 2대분의 각종 화기를 노획하였으며, 이 무렵 전방항공통제장교의 지원요청에 따라 출격한 유엔항공기가 감령 북쪽의 적 집결지와 또 다른 적 전차군에 대해 네이팜탄을 집중 투하하였다.

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제19연대 제1대대가 파괴한 8대를 포함하여 총 21대의 적 전차가 파괴되어 있었으며, 이로써 적 제8사단의 돌파계획은 한순간에 좌절되었다.²⁰⁴⁾ 제6사단은 이날 신편된 제7사단 제8연대를 배속받고 제15연대를 원대복귀 조치하였으며,²⁰⁵⁾ 산발적인 적의 공격을 격퇴하면서 진지를 보장하고 있었다.

한편, 국군 제8사단은 9월 2일 야간 적 제15사단의 공격을 받고 분전하였으나 다음날 우일선 제16연대의 방어진지가 무너지면서 영천북방 기룡산 일대로 철수하여 4일 오후까지 이곳의 횡격실 능선을 중심으로 좌일선에 제21연대를, 중앙일선에 제16연대와 제3연대 제1대대를, 우일선에 전날 배속된 제7사단 제5연대를 배치하였다.

이날 육군본부는 신령에서 작전 중인 제7사단 제8연대를 영천의 제8사단으로 배속전환시키고, 5일에는 제7사단 공병대대 200여 명도 추가로 투입하여 영천 지구의 전력을 강화하였다.²⁰⁶⁾

자정 무렵 적 제15사단은 각종 포의 지원하에 전차 5대를 선두로 입암과 영천 간 도로를 따라 남진하여 3개 방면에서 공격을 개시하였다. 국군 제8사단은 중앙의 제16연대와 제3연대 제1대대가 적의 주공을 맞이하여 수시간 만에 중심 깊이 돌파됨으로써 위기를 맞게 되었다. 좌우측 제21, 제5연대도 적의 공격을 저지하다가 부득이 영천 북방 선천동과 상리동 선으로 물러났다. 이날 사단은 육본의 영천지구전투 지휘권 일원화 조치에 따라 배속이 변경되어 이때부터 제2군단장의 지휘하에 영천전투를 수행하였다.²⁰⁷⁾

또한 적측에서도 5일 영천 점령의 지연책임을 물어 제15사단장 박성철(朴成哲)을 경질하고 부군단장 조광열을 임명하여 영천돌파를 재촉하였다. 이날 밤까지 계속된 전투에서 중앙의 제16연대가 적 주력의 진출을 방어하지 못하고 영천 외곽까지 밀리고 있었다.²⁰⁸⁾ 이때 사단장 이성이 준장은 즉시 대전차공격대대와 제7사단 제8연대로써 역습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제21연대가 영천 서북방 방어선을 지탱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부대는 5시간 만에 적을 조교동으로 격퇴시킴으로써 가까스로 적의 돌파구 확대를 저지하게 되었다.

이에 앞서 국군 제2군단장 유재흥(劉載興) 준장은 5일 오후 제8사단 진지가 돌파되어 영천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군단작전회의를 소집하였다. 여기에는 제6사단장 예하의 김종오(金鍾五) 대령·제1사단장 백선엽(白善燦) 준장·군단참모장 이한림(李翰林) 대령과 작전참모 이주일 대령이

참석하였다.²⁰⁹⁾

회의 결과 군단장은 적이 영천돌파에 주력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제1사단과 제6사단에서 1개연대씩 차출, 이곳의 방어력을 증강하여 기필코 영천을 고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당시 제1사단과 제6사단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는 대단히 어려운 결단이었다.²¹⁰⁾ 그리고 군단장은 당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차부대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직접 미 제1기병사단과 제8군사령부를 방문하여 전차지원을 요청하였다.

5일 야간부터 영천읍내에는 적의 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적의 주력은 조교동 부근에서 병력을 증원받아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다음날 미명 수대의 전차를 선두로 영천읍내로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기습을 당한 제16, 제8연대는 더 이상 적의 공격을 저지하지 못하고 영천 남쪽으로 철수하였으며, 영천을 점령한 적은 곧바로 경주 방면으로 진격을 계속하였다.²¹¹⁾

사단장은 즉시 오수동에서 철수부대를 재편성하라는 명령을 하달하고 군단에 증원부대를 요청하였으며, 이 무렵 양측방의 제21, 제5연대는 통신두절로 영천의 전황을 알지 못한 채 적과 교전 중이었다. 이날 오후 좌전방 제21연대를 공격하던 적 제15사단 예하 제45연대도 제103치안연대와 독립제73연대에 임무를 인계한 다음 영천 방면으로 남하하여 영천의 돌파구 확대를 기도하였다.

이날 오전 사단공병대대는 군단장의 요청으로 도착한 미군전차 1개소대(5대)의 지원하에 영천읍내로 돌입하였다. 공격부대는 영천역을 경비하고 있던 소수의 적을 격퇴하고 영천을 탈환하였으며, 이때 40여 대의 차량과 10여 문의 대전차포를 노획하였다. 공병대대는 전차의 지원하에 완산동으로 진출하였으나, 저녁 무렵 조교동 일대의 적으로부터 역습을 받을 위험이 있어 다시 물러났다.²¹²⁾

이날 오후 제2군단의 증원부대가 도착하여 제1사단 제11연대(-)가 영천 남쪽에서 방어준비를 갖추고 제6사단 제19연대는 제21연대 우측방 신기동으로 진출하였다. 이로써 제8사단은 영천 동북방에 북으로부터 제21·제19연대가, 영천에는 사단공병대대와 제5연대 일부가, 그 남쪽에는 제11연대가 배치되어 대구 방면으로의 돌파 저지선을 형성하고 제16연대와 제3연대 일부는 예비로 확보하였다. 이때 적은 영천 북동에서 대돌파구를 형성하고 국군전선을 절단하려는 기세로 제50연대가 임포동으로 진진 중이었으며, 그 뒤를 1개연대가 후속하고 또 다른 1개연대가 그보다 10km 위에서 남진하고 있었다. 적 제103연대와 제73연대는 돌파구를 확대하기 위해 제21연대를 공격 중이었다.

한편, 신녕지역의 국군 제6사단은 제19연대를 영천으로 투입하면서 방어진지를 조정하여 제2연대를 봉림동과 갑령 좌우측에, 제7연대를 화산 부근에 배치하였으며, 적 제8사단은 국군의 작전기도를 알아차리고 5일 오후부터 포격을 개시하며 전 방어정면에 걸쳐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었다.

6일 아침 적 제8사단은 영천 점령에 고무되어 신녕을 점령한 후 영천으로 돌파구 확대를 위해 화산 일대에 주공을 두고 일제공격을 개시하였다. 적은 이날 날씨가 흐려 항공기의 폭격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음인지 주간공격을 감행하였다. 국군 제6사단이 포격을 집중하여 적의 대열을 분산시키고 있을 무렵 유엔 폭격기와 전폭기 혼성편대가 출격하여 진지정면의 적에 대해 대대적인 맹폭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때의 폭격은 30여 분 간 계속되었으며 무방비로 노출된 적은 불바다 속에서 큰 타격을 받았다.

기회를 포착한 제2연대는 즉시 방어진지전방으로 반격하여 전과를 확대하였으며, 후에 포획된 적 제8사단 소속 병사의 일기에는 “9월 6일 전투에서 적 포격과 공중폭격으로 주력부대가 궤멸되었다.”라고 쓰여 있었다.²¹⁵⁾

적 제8사단은 이날 이후로는 공세작전을 감행하지 못하였다. 이들은 끝내 신녕지구를 돌파하지 못하고 오히려 큰 타격을 받아 겨우 전선만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주로 야간에 중대규모의 병력을 침투시켜 전초진지를 습격하는 정도의 소부대 작전행동을 반복하였다.²¹⁶⁾ 9일을 전후하여 갑령과 화산 일대에는 소규모 교전이 전개되었지만, 적의 병력 중에는 투항하거나 도주하는 병사가 날로 증가하고 있었으므로 적은 끝내는 수세로 전환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국군 제6사단은 신녕지구에서 영천을 우회공격하려는 적 제8사단의 기도를 좌절시켰으며, 특히 대전차특공대와 유엔 항공기가 적 전차부대를 격파함으로써 전차를 앞세워 전선을 돌파하려는 적의 작전기도는 분쇄되고 공세이전의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

한편, 영천 일대에서는 7일 미명 제21연대가 적 제103연대의 수차례의 공격을 격퇴하였으며, 특히 제6중대는 적 사살 300명, 포로 98명, 소화기 2대의 트럭분 노획 등의 전과를 달성하였다. 제19연대는 아침 무렵 적의 보급지원부대가 남하하는 것을 관측하고 즉시 기습공격을 가하여 적의 차량 30여 대를 파괴하고 적병 200여 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달성하였으며, 이 전공으로 육본으로부터 상금 300만원을 받았다. 공병대대는 영천 남동 8km 지점의 도로를 차단한 적을 공격하여 200여 명을 사살하면서 격퇴하였다.²¹⁵⁾ 제11연대는 적의 후속부

대를 차단하기 위해 완산동 일대를 점령하였으나, 조교동으로 진출한 적 제15사단 1개연대의 공격을 받고 다시 물러났다.

이날 육군본부는 적의 주력이 영천에서 경주 방면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안강 부근에서 전투 중인 제26연대 제3대대를 아화리에 투입하여 대비하였다. 제21연대는 8일부터 새로이 적 제73독립연대의 공격을 받았으나 강력한 화력을 집중하여 저지하였고, 제19연대는 14 : 45 영천을 장악한 적을 격멸하고 영천을 재탈환하였으며,²¹⁶⁾ 이날 밤 조교동으로 남진하여 제11연대를 포위 공격했던 적 제15사단 1개연대를 역습으로 격퇴하였다. 제11연대는 이날 미명 전차를 앞세운 적의 공격을 받고 영천 동남 작산동에서 재편 중이었다. 한편, 지금까지 제3사단에 배속되어 작전하던 제10연대가 원대복귀함에 따라 아화리로 북상하여 제26연대 제3대대의 진지를 인수한 다음 좌우측에 배치된 제8연대 및 제5연대와 협조하여 적의 남진을 차단하였다.

이처럼 영천돌파를 방어하려는 육군본부의 기민한 지휘조치에 의거 8일~9일 영천에는 전선이 돌파된 후 비로소 적의 돌파구를 봉쇄하기 위해 연결된 방어선이 형성되었다. 방어선은 영천을 중심으로 적의 진출로를 따라 북쪽의 선천 제21연대로부터 남쪽의 아화 제5연대까지 낚시바늘 모양으로 편성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대배치는 적의 돌파구 저지는 물론, 돌파구 침단의 후방을 차단하고 반격으로써 적을 포위섬멸하기에 적절한 것이었다.

국군 제2군단은 10일부터 총 반격전을 개시하였다. 군단은 영천 북쪽에서 제21·제19연대 양개 연대로써 적의 퇴로를 차단하고 영천 남쪽에서는 제5연대를 선봉으로 총 5개연대가 반격하였다.

제5연대는 포병과 공군기의 지원하에 임포동 부근의 적을 기습공격하여 차량 50대, 야포 10여 문을 파괴하는 전과를 달성하였으며, 제10·제8·제11연대도 미군전차의 지원하에 일제히 대구-영천-포항 도로 남쪽에 침입한 적의 가벼운 저항을 물리치고 유상동, 유하동 방면으로 진출하였다. 앞서 적의 돌파작전시 손실을 입은 제16연대는 재편성 후 작산동으로 진출하여 무질서하게 퇴각하는 적을 추격하고 일부 병력이 대의동 동쪽까지 진출하여 적의 유기된 소총 300여정을 노획하였다.²¹⁷⁾

10일 미명 제21연대는 사단장으로부터 영천-자천 도로를 따라 후퇴 중인 적 전차를 파괴하라는 명령을 받은 후 제2대대 제5중대 제2소대가 자천동 남쪽에서 적 전차 1대를 파괴하고 포로 5명과 제15사단이 군단에 증원부대를 요구하

는 작전문서를 노획하는 진과를 달성하였다.²¹⁸⁾

제8연대는 우측 제11연대가 제1사단으로 복귀하게 되자 그 지역까지를 담당하고 제5연대와 협조하여 서북진하였다. 제5연대는 임포동 부근의 적 제56연대 본부를 공격하여 전차 2대, 박격포 6문을 노획하면서 적을 격멸하였으며 이로써 5일간이나 차단되었던 영천-경주 사이의 도로가 완전히 개통되었다.²¹⁹⁾ 이 무렵 적은 퇴로가 차단된 상황에서 총 반격을 받아 거의 전멸된 상태에서 분산 철수하고 있었다.

영천 남쪽에서 적을 추격하던 제10연대는 11일 군단장의 명령에 따라 제21·제19연대 사이 신흥동 일대를 경유하여 곧바로 평천동으로 진출하였으며, 제21·제19연대도 월곡동, 운천동으로 각각 진출하여 적의 퇴로를 차단하였다. 다음날 제21·제10연대는 자천동-인구동선으로 진출하고 제8연대는 적 1개대대의 역습을 물리치면서 삼귀동까지 진출하였으며, 제5연대는 기계와 안강 방면으로 퇴각하는 적의 퇴로를 차단하고 적을 소탕하였다.²²⁰⁾ 각 공격부대는 12일 마침내 9월공세 이전 제8사단 주저항선을 회복하는 데 성공하였고, 반면 적 제15사단의 전투력은 완전히 상실되었다.

영천전투는 낙동강방어선에서 돌파되느냐 사수하느냐를 가름지을 만큼 전쟁의 전환점이 된 중요한 전투였으며, 특히 9월 5일~6일 대구, 경주가 위협받을 무렵에 영천이 돌파되어 그 위기는 더욱 가중되었었다. 적 제2군단은 5개연대를 투입하여 영천을 점령하고 경주로 진출하려 하였으나 국군은 이곳에 신편된 제7사단 3개연대는 물론 제1, 제6사단의 각 1개도 투입하여 3개사단으로써 방어조치를 취하는 등 육군과 군단의 시의적절한 지휘조치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낙동강방어선을 지키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

국군은 영천 부근에서 적 사상 3,799명, 포로 309명, 전차 5대 파괴, 장갑차 2대, 차량 85대, 소화기 2,327정 등을 노획하는 대전과를 달성하였으며, 후에 적의 지휘부가 평가한 바에 의하면 영천의 상실로 전체작전의 패색이 짙게 되었다고 분석하였다.²²¹⁾

6. 安康-浦項의 被奪

국군 제2군단이 인민군 제4공격집단과 영천 결전을 벌일 시 국군 제1군단은 안강·포항-경주 축선에서 제5공격집단과 최후결전을 치렀다. 적 제5공격집단

중 기계를 장악한 적 제12사단은 병력 일부를 보충하고 제17기갑여단의 전차 일부를 지원받았으며, 홍해 일대에 집결한 적 제5사단도 부대정비와 아울러 전차와 자주포의 일부를 지원받아 전력을 증강하고 있었다. 그러나 병사들은 식량과 화기, 탄약보급 등이 저조하였으므로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어 있었다.

반면 국군 제1군단 예하 수도사단은 기계 남쪽고지 일대에 제18, 제17(배속), 제1연대순으로 배치하여 진지를 편성하여 방어진지를 편성하였고, 국군 제3사단이 포항 북쪽 학천동-천마산 일대에 제10(배속), 제22, 제23연대순으로 방어진지를 편성하여 포항을 방어하고 있었으며 유엔 공군기와 함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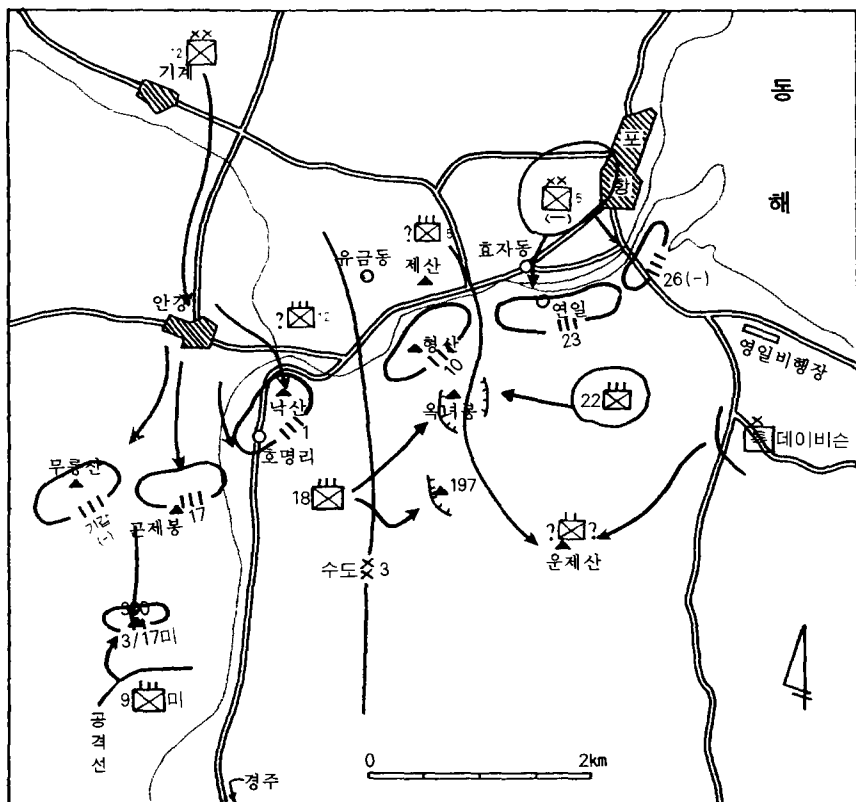
이 무렵 이 방면의 상황이 급변하고 불안하게 되자 제8군사령관은 부사령관에 임명된 쿨터(John B. Coulter) 소장을 현지에 파견하여 작전을 통제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부사령관은 이곳에 지원된 부대로 잭슨(Jackson)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여 상황에 대처할 준비를 하였다. 한편, 육군본부에서는 9월 1일부로 김백일(金白一) 준장을 제1군단에 보직하고, 수도사단장은 송요찬(宋堯讚) 대령으로 교대하고, 제3사단장에는 이종찬(李鍾贊) 대령을 임명하는 지휘조치를 단행하였다.²²¹⁾

9월 2일 03:00 그 동안 공격준비를 완료한 적 제5공격집단 양개 사단이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적 제12사단은 수도사단의 방어진지 양측에 조공을 두고 전차 4대를 선두로 기계, 안강도로를 따라 주공병력을 투입하였다. 수도사단은 최초 각 연대가 적을 저지하였으며, 특히 제17연대가 3.5" 로켓포와 항공기의 근접지원으로 적 전차를 모두 파괴하면서 기계 남쪽 445고지를 공격한 적을 격퇴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날 야간 적 제49연대의 일부가 제18연대의 서측방을 우회하며 운주산을 거쳐 후방으로 진출하고, 자정 무렵에는 좌일선 제18연대의 방어선이 돌파되는가 하면, 적의 일부 병력이 제17연대와의 부대간격으로 침투, 안강 서북어래산까지 진출함으로써 사단의 서측이 크게 위협받게 되었다. 이때 군단에서는 안강 정면의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해 즉시 재편 중인 제26연대를 수도사단에 배속시켜 옥산동으로 투입하였다.²²²⁾

한편, 국군 제3사단도 9월 2일 수도사단과 동시에 적 제5사단의 공격을 받았으며 동해안의 제23연대는 천마산(93고지)을 놓고 수차례의 쟁탈전을 전개하는 격전을 전개하였으나, 중앙의 제22연대 진지가 돌파되면서 포항 외곽 효자동-

안강-포항의 피탈



두호동을 잇는 선으로 물러서고 있었다.²²⁴⁾

제3사단장은 포항방어에 중요한 최초의 주저항선을 반드시 탈환할 것을 강조하면서 역습명령을 하달하였다. 이에 제22·제23연대가 전차소대로 증강된 미 제21연대 제3대대의 지원하에 공격을 개시하였으며, 제23연대 제3대대는 회복의 실마리를 마련하였다.

대대는 정면공격과 동시에 양측으로 특공대를 투입하여 공격함으로써 천마산을 탈환하게 되었으며, 제22연대도 9월 3일 실패를 거듭하다가 제23연대와 같은 방법으로 목표고지를 회복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다시 피탈되는 등 포항의 위기는 계속되었다.²²⁵⁾

한편, 수도사단장은 사단의 좌측 방어선이 돌파되자 부대를 4일 미명 안강 남쪽 곤제봉·호명리 일대로 철수하도록 명령하였으며, 부대가 남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안강이 실함되었다. 수도사단은 저녁 무렵까지 철수를 완료하여 제17연대가 안강 남쪽 갑산리에, 제1연대는 호명리에서 안강 방어진지를 편성하였으며, 제18연대는 경주에서 부대를 재편하였다. 이와 같이 안강에 대한 위기가 고조되자 육군본부는 대구의 제7사단 제3연대(-)²²⁶를 추가로 제1군단에 배속하여 투입하였으며, 잭슨특수임무부대 소속 미 제21연대도 콜터 소장의 명령에 따라 포항에서 경주로 진출하여 적 돌파에 대처하였다.

안강에 집결한 적 제12사단은 경주를 목표로 공격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며 이날 밤 전차를 앞세워 일부 부대를 남진시키고 있었다. 호명리·낙산 일대에 배치된 제1연대는 적 전차 5대가 접근하는 것을 관측하고 즉시 방어태세를 갖추는 한편, 대전차특공대를 투입하여 3.5" 로켓포로 전차 3대를 파괴함으로써 격퇴하였다.²²⁷

한편, 이 무렵 워커 중장은 경주 정면의 방어력을 증강하기 위해 군예비 미 제24사단을 경주로 투입함과 아울러 잭슨특수임무부대를 처치(Church)특수임무부대로 개칭하였으며,²²⁸ 육본도 대구에서 정비 중인 독립기갑연대를 추가로 투입하였다. 제1군단장 김백일 준장은 증원병력이 경주에 집결하자 무릉산·곤제봉을 중심으로 부대를 재배치하도록 명령하였다.²²⁹

수도사단장은 안강-경주 축선상 서측 종격실의 감제고지인 무릉산-곤제봉 간에 기갑연대와 제3연대를 추가로 투입하여 이곳의 방어력을 강화하였으며, 제1연대는 호명리에 그대로 유지하고 제18연대를 예비로 확보하였다. 한편, 방어중심을 증가하기 위해 미 제19연대 제3대대가 그 후방에 배치되었고 아울러 제26·미 제21연대(-)가 경주 서북 구미산으로 진출하여 적의 침투에 대비하였다.

국군 제3사단도 5일 미명부터 적의 대규모 공격을 받았다. 제22연대가 자주포 5대를 앞세운 적의 공격을 받고 고전하고 있었으나, 마침 비행장으로부터 미 전차 5대가 추진되고 전폭기 편대가 출격하여 지원함으로써 적을 격퇴하였다.²³⁰

이때 사단장 이종찬 대령은 작전지역을 직접 비행정찰한 결과 지형상이나 좌인접 수도사단이 안강 남쪽으로 철수한 상황에서 포항방어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형산강 남쪽에서 방어진지를 편성하도록 명령을 하달하였다. 형산강은 평상시의 수위가 80~90cm로서 도섭이 가능한 편이지만 강폭이 200~300m이며, 강

양쪽에는 제방이 있어 방어하기에 양호하다.

사단장의 작전방침은 해·공군의 지원 아래 영일비행장을 포함하여 중흥동-구룡포 도로 동쪽을 고수하는 것이었으며, 극한적인 상황에서는 구룡포에 정박 중인 LST 1척과 사단 보급선 26척을 이용하여 해상철수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날 사단은 적과 접촉을 유지하면서 도하철수하여 형산강 남쪽 강변에 제10·제23연대를 배치하고 제22연대와 배속된 제8연대 제3대대를 예비로 확보하는 방어편성에 주력하였다.

한편, 이 무렵 적 제12사단은 경주로 진출하기 위해서 곤제봉을 장악하지 않고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6일 미명 무릉산-곤제봉 일대로 병력을 집중하여 공격을 재개하였다. 수도사단은 적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수시간 만에 진지가 돌파되고 말았다. 중앙의 제3연대의 진지가 돌파되고 제17연대의 곤제봉이 피탈되었으며, 우회침투한 적 1개대대에 의해 후방에 배치된 미 제19연대 제3대대마저 돌파되었다.²³¹⁾

사단장은 즉시로 기갑연대 제3대대로써 과감한 역습을 전개하여 제3연대 진지를 회복하였으며, 제17연대도 역습을 전개하여 적의 돌파확대를 봉쇄하는 한편, 처치 장군의 명령에 따라 제19연대 주력이 후방으로 침투한 적을 격퇴함으로써 일단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쌍방은 이 전투를 계기로 곤제봉 확보 여부에 전체작전의 성패를 걸고 치열한 고지쟁탈전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이날 이후 적은 곤제봉 일대에 병력을 집중함으로써 무릉산 정면과 좌측 낙산 일대에서는 거의 전투가 없었다.

제17연대는 곤제봉이 피탈된 후 15회에 걸친 역습을 전개하여 7차례나 뺏고 빼앗기는 쟁탈전을 전개하는 소모전을 치렀다. 전투간에 대대장을 비롯하여 장교들이 거의 대부분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어 수시로 교대되었으며, 제2대대의 경우 2번이나 대대장이 교체되었다. 연대장은 많은 장교의 손실을 보충하기 위하여 연대 내의 하사관을 현지임관시켜 전선으로 내보내었다.²³²⁾

수도사단진지가 돌파되고 있을 무렵 국군 제3사단도 일대 위기를 맞고 있었다. 이날 사단장은 제10연대를 제8사단으로 원대복귀시키라는 명령을 받고 일몰 후 예비인 제22연대와 교대하도록 하였으나, 제10연대가 작전상의 심각한 과오를 범하고 말았다.

연대장은 미처 부대교대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병력을 철수시킴으로써 정면의 적 제5사단 병력이 꼬리를 물고 도하하여 후방으로 침투하였다. 제22연대

선발대가 제10연대 지역으로 진입할 무렵 침투한 적으로부터 사격을 받기 시작하였다.

사단장은 적 후속병력의 도하를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즉시 제23연대로 노출된 좌측방을 경계하도록 조치하고, 제22연대로 옥녀봉으로 진출하여 남하하는 적을 저지하도록 명령하였다.²³³⁾

이 무렵 적 제12사단이 8일부터 폭우로 인해 유엔공군의 지원이 제한되자 수도사단 전면에 걸쳐 공격을 재개하여 곤제봉을 재장악하였으며, 수도사단과 제3사단의 간격으로 침투한 적 제5사단 병력 1,600여 명이 계속 옥녀봉과 운제산으로 중심 깊이 진출하고 있었다.²³⁴⁾

적의 침투사실을 보고받은 워커 중장은 즉시 미 제24사단에 이를 저지하도록 명령하였으며, 처치 소장은 김백일 군단장과 협의하여 운제산 탈환은 미 제24사단이 수행하며 퇴로차단과 소탕작전은 국군이 담당하기로 결정하였다.²³⁵⁾

처치 장군은 부사단장 데이비슨(Davison) 준장에게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여 운제산을 탈환하도록 명령하였다. 데이비슨 장군은 전차로 증강된 1개연대 규모의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여 10일 오후 비행장 남쪽에 집결하였으며,²³⁶⁾ 김백일 장군은 제18연대를 군단예비로 전환시켜 운제산 서남쪽에 배치, 경주로의 진출을 차단하도록 하는 한편, 제8사단에 배속된 제26연대를 제3사단으로 원대 복귀시켜 운제산 우측방에 투입하여 적의 비행장 방면으로의 진출도 차단하였다.²³⁷⁾

한편, 제3사단은 제22연대가 옥녀봉 일대의 적을 공격하였으나 오히려 적의 역습을 받아 동쪽으로 밀리고 있었다. 사단장은 시간이 갈수록 전황이 불리해져 형산강방어선마저 지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8일 저녁 무렵 송정동-장동선으로 새 방어진지를 편성한 후 영일비행장을 방어하면서 군단이 역습할 수 있는 발판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 무렵 사단장은 적이 운제산으로 진출한 상황이 전해지면서 경주시민들이 크게 동요함으로써 경찰과 헌병을 동원하여 민심수습과 질서유지에도 배려를 해야 했다.

10일 군단장은 군단예비 국군 제18연대를 투입하여 제1대대로 운제산 북쪽 197고지를 탈환하고 제2대대를 그 북쪽 옥녀봉 서측고지 일대로 진출시켰다. 이에 고무된 제3사단 제22연대도 옥녀봉을 탈환하였다.²³⁸⁾ 이로써 운제산의 적은 자연히 후방이 차단되어 고립을 면치 못하게 되었고, 다음날 아침 데이비슨 부대가 제19연대 제1대대를 선두로 이 적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공격부대는

적의 기관총 저지사격으로 인해 진출이 저지되었으나, 다음날 호주 전폭기 편대가 출격하여 네이팜탄으로 적 진지를 강타한 후 제2대대가 초월공격하여 정오경 운제산을 탈환하였다.²³⁹⁾

12일 오후 제18연대는 형산을 탈환하고 강변 방어진지 일부를 회복하였다. 얼마 후 연대는 운제산에서 형산 서측 개활지로 퇴각하는 적을 포착하고 좌측 낙산 일대에 배치된 수도사단 제1연대와 협조하여 즉시 공격을 개시하였다. 양 연대는 박격포와 기관총 등으로 집중사격을 가하여 적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였고 곧 이어 추격전까지 전개하여 적을 소탕하였다.²⁴⁰⁾ 작전이 완료되자 이날 워커 장군이 데이비슨부대 지휘소를 방문하여 국군과 미군장병들을 격려하였다.

국군 제3사단에서 데이비슨부대가 공격을 개시하고 있을 무렵 11일 수도사단장은 돌파구를 회복하기 위한 결심을 하고 먼저 제17연대에 곤제봉을 탈환할 것을 명령하였다. 연대는 적의 완강한 저항을 받고 고전을 면치 못하였으나, 특공대를 투입하여 적의 기관총 진지를 제압한 후 일제공격을 가하여 다음날 야간 마침내 곤제봉을 탈환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안강 남쪽 주저항선을 회복하였다. 이날 애석하게도 특공대 12명이 곤제봉에서 우군의 오폭으로 인해 희생되었다.²⁴¹⁾ 이 무렵 호명리에서는 제1연대가 양측 인접부대의 돌파로 고립된 가운데에서도 낙산을 끝까지 지켜 경주로의 적 돌파를 저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 무렵부터 적 제5사단의 공격력이 현저히 약화되자 국군 제3사단에서 제23연대가 사단 우전방 강변 일대에 대치 중인 적과 이틀간의 혈전을 전개한 끝에 마침내 배후로 투입한 특공대의 기습이 성공하자 전후방에서 돌진하여 연일을 점령함으로써 형산강 일대의 주저항선을 완전히 회복하였다.²⁴²⁾ 이때 적 제5공격집단의 제12사단과 제5사단은 드디어 공격력의 한계를 드러낸 듯 모든 공격을 중단하고 수세로 전환하였으며, 항공관측 보고에 의하면 적의 패잔병력이 북쪽으로 퇴각하고 있었다.²⁴³⁾

국군 제1군단의 수도사단과 제3사단은 안강 남쪽 형산강 일대에서 적 2개사단을 격멸하고 간신히 경주로의 적 돌파를 저지하였다. 낙동강선 방어작전은 이와 같이 전 전선에 걸쳐 ‘적군이 전선을 돌파하느냐, 아군이 돌파를 저지하느냐’ 하는 대결과 위기의 연속으로 아슬아슬하게 전개되다가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내리었다.

7. 決戰과 戰場의 主導權 轉換

낙동강 방어작전은 결전의 연속이었다. 이 과정에서 아군, 특히 국군이 인민군의 집중적인 공세를 저지하고 백척간두(百尺竿頭)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작전이었다. 개전 후 국군은 인민군 기습공격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유엔군의 참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전력의 열세로 적의 남진을 저지하지 못하여 전쟁발발 45일이 지난 8월 1일에는 낙동강선까지 후퇴하였다. 국토의 약 90%를 상실하고 이제 대구와 부산을 중심으로 한 경상남북도의 일부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따라서 군사작전으로 반격의 기회를 갖기엔 공간적으로도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지형적으로 낙동강보다 방어에 유리한 지형이 뒤에는 남아 있지 않았다. 더구나 이 상황은 군과 국민의 자위수호와 반공의지 그리고 저항의지의 분수령이라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국군은 참전한 유엔군과 더불어 낙동강을 이용하여 최후의 낙동강방어선, 이른바 부산교두보를 구축하고 기필코 반격작전으로 이전하여 잃어버린 국토를 회복하며 침략에 응징하기로 굳게 맹세하였던 것이다.

반면, 적도 8월 15일, 해방 5주년이 되는 날까지 반드시 전 한반도를 공산화한다는 당초의 전쟁목표 달성을 위해 그들의 총력을 낙동강선에 투입하고 최후 공세를 준비하였다. 인민군은 8월과 9월 2차에 걸쳐 총공세를 실시하였다. 8월 공세에서는 13개사단 중 11개사단을 투입하여 주력을 대구-부산 축선에 두고 전 전선에 압박을 가하였으며, 9월공세에서는 신편 중인 사단을 제외하고 13개사단 모두를 5개 공격집단으로 편조하여 대구·영천·경주·창녕·마산 정면으로 각개돌파를 감행하였다.

이로써 서부에서는 함안-영산-창녕을 위협하고, 대구 정면에서는 왜관-다부동을 점령한 여세를 몰아 대구 북방 12km까지 접근하였으며, 동부에서는 영천-안강-포항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이때 인민군은 전투력이 약 53%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공세역량을 상실하였다.²⁴⁶⁾

결과적으로 국군과 유엔군은 마산·대구·경주 축선을 고수하여 국토의 약 10%에 불과한 부산교두보를 간신히 확보한 선에서 적의 전쟁목표를 분쇄하고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드디어 공세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전쟁국면의 극적인 전환은 여러 원인의 복합작용에 기인된 것으로서, 적으로서는 무엇보다 개전 후 계속된 80여 일의 전투를 치르는 동안 너무나 많은 전투손실을 입어 전력이 극도로 약화되었고, 남한에서 강제징집한 보충병은 전의가 결여되어 실질적인 전력회복의 방편이 되지 못하였으며, 특히 병참선이 신장되고 게다가 제공권이 없어 군수지원이 뒤따르지 못하여 전선에서 공세를 지속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이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속전속결에 의해 전쟁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오관한 나머지 장기전에 대한 대비가 없었고, 남침을 하면 민중봉기가 일어나리라는 환상에 젖어 국군과 국민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반공 저항의지를 과소평가하였으며, 또한 강력한 집단안전보장조치가 신속히 뒤따르리라는 점도 예상하지 못하고 무모하게 전쟁을 도발한 점 등이 지적될 수 있다.

반면, 아군으로서는 상대적으로 무엇보다 정신전력 면에서 침략자를 압도하겠다는 항전의지를 우선 들 수 있다. 대통령은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였을 때 최전방 대구에서 몸소 항전의지를 표명하였고 야전지휘관이 전선에서 사수의지를 스스로 행동으로 수범을 보이는가 하면 군과 경찰은 장·사병 구분 없이 전장에서 목숨 바쳐 진지를 지키었으며, 국민들은 스스로 자원하여 여러 형태로 전쟁을 지원하였다.

전술적인 면에서 군은 내선작전의 이점을 최대로 이용하여 병력을 절약하고 예비대를 확보하여 적기에 필요한 장소에 이를 투입함으로써 돌파를 저지하고 역습으로 적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소모시켰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의 지원, 특히 유엔의 집단안전보장조치에 대한 유엔군의 참전은 국군은 물론 국민으로 하여금 궁극적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고 전의를 고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실질적으로 상대적 전력의 우세를 역전시켜 공세이전(攻勢移轉)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유엔 해·공군에 의한 제공, 제해권 장악과 적 후방지역에 대한 차단작전 및 전략폭격도 적의 전쟁지속능력을 마비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제 방어에서 공격으로, 수세에서 공세로, 후퇴에서 반격으로의 대전환의 막이 오른 것이다.

주 기

- 1) (Ed.) Charles E. Heller and William A. Stofft, *America's First Battle(1776-1965)*-Roy K. Flint, *T. F. Smith and the 24th Division : Delay and Withdrawal*, 5-19 July 1959(Univ. Press of Kansas : 1988), p. 296 ; 낙동강방어선의 발전과정은 브래들리 장군을 위하여 준비한 '한국상황의 일일중점'의 한 부분으로서 1950년 7월 15일부터 작성한 일련의 상황도에서 추적할 수 있다. James F. Schnabel, Robert J. Watson, *The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Joint Chiefs of Staff : 1978) ;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譯), 「美國合同參謀本部史 韓國戰爭」(上), 1990, p. 507.
- 2) BG G.B. Barth, *TROPIC LIGHTNING AND TARO LEAF IN KOREA VOL. 6*(Library Armed Forces Staff College, 1955), p. 11.
- 3) W. G. Robertson, *Counterattack on the Naktong 1950*(Combat Studies Institute Leavenworth Papers, 1985), p. 10.
- 4) Ibid., p. 114.
- 5) 「美國合同參謀本部史 韓國戰爭」(上), p. 507 ; 日本陸戰史研究普及會, 「朝鮮戰爭」 2 ; 陸軍本部 軍史監室(譯), 「韓國戰爭」 제2권, 명성출판사, 1986, p. 66.
- 6) 國防部 政訓局, 「韓國戰亂1年誌」 1951, pp. A60~A62.
- 7)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94호(1950. 8. 2. 03 : 00)는 전 전선을 계획한 미 제8군의 작전명령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었으며, 8월 11일 육군본부가 작성한 작명 제119호에 설정된 X, Y선은 국군의 방어선만을 축소조정한 것이다. 따라서 작명 제94호에 계획된 Y선이 다부동-보현산을 잇는 선이라는 것은 해석상의 착오이다.
- 8) U. S. 25th Infantry Div., *The Tropic Lighting in Korea-25th Infantry Div.*(Atranta, Georgia : Albert Love Enterprises, 1987), p. 13.
- 9)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Department of the Army, Washington, D. C. : GPO, 1961), pp. 242~247.
제27연대 제1대대장 체크 중령은 이 정찰전에서 보·전·포·공의 탁월한 전투지휘를 인정받아 미정부로부터 십자훈장을 수여받았다.
- 10)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91호(1950. 7. 31) ; 제94호(1950. 8. 2. 03 : 00).
- 11) 육군본부는 작명 제119호를 하달하여 국군의 방어선을 축소조정하였으며, 8월 13일부터 국군은 왜관-다부동 북쪽-군위-보현산-강구 남쪽을 잇는 선에 배치되었다. 육본작전명령 제119호(1950. 8. 11) ; Periodic Operations Reports, Korean Army, No. 86.

- 12) 陸軍本部(譯), 「韓國戰爭」 제2권, pp. 78~79 ; ATIS, Interrogation Rpts, N.K. 102th R. 박홍식 중위, 5 Oct. 50(國防軍史研究所 소장자료, 이하 같음). 점령지보안사령부 예하 제102연대는 약 90%가 남한인으로 구성되었다.
- 13) 인민군은 8월 15일까지 부산을 점령하도록 독전하고 있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81호(1950. 8. 13) SN41, SN74 ; 인민군 전단(1950년 8월 6일자) SN797.
- 14) 북한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제25권-조국해방전쟁사 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 231.
- 15) 인민군은 징집병과 군수품을 서울에 집결시킨 후 이들을 영등포역을 통해 철도로 각 전선으로 보충하고 있었다. ATIS, Interrogation Rpts, N.K. 3th Div. Agent 조희석, 23 Aug. 50, 1th Corps 1th Rep. R, 황덕주 소위 5 Oct. 50.
- 16) 당시 유엔 해·공군은 야간에도 폭격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공군기는 7월에 4,635회, 8월에 무려 7,397회나 출격하여 적의 집결지, 차량, 도로 등을 쉰 새 없이 폭격하여 적의 야포와 박격포는 개전초의 1/3로 줄어 있었다.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264, p. 376.
- 17) *Ibid.*, p. 264.
- 18) *Ibid.*, p. 334.
- 19) *Ibid.*, p. 264.
- 20) *Ibid.*, pp. 292~303.
- 21) The Secretary of Defense, *THE TEST OF WAR : History of the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U. S. G. P. O. : 1988), p. 52 ; 「美國合同參謀本部史 韓國戰爭」(上), pp. 145~147.
- 22)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256~257.
- 23) HQS USAFFE & Eight Army(Rear),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s*(San Francisco, 1954), Historical Manuscript File, call No. 8-5, Vol. 1, ch. 2, p. 5, p. 15.
- 24)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260.
- 25)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s*, Vol. VI, ch. 4. p. 21.
- 26)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國防史」 제2권, 1987, p. 31, p. 439.
- 27) 위의 책, p. 111(일반명령 제40호), p. 290.
- 28) 위의 책, p. 292 ; 「韓國戰亂1年誌」, p. C277.
- 29)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多富洞戰鬪」, 1981, p. 41, p. 124.
- 30) 「國防史」 제2권, p. 305, p. 354. 이들은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1950. 7. 26)에 근거하여 동원되었고, 이들의 운영비는 미 제8군과 협의하여 유엔군 주둔비에서 지출되었다.
- 31) Bradley J. Haldy, *Korean Service Corps-Past and Present*, Army Logistician, July-

- August, 1987, pp. 22~23 ;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史」 제3권, 1970, p. 590 ; 1950년 8월 초 대구에는 경찰 5천8백명과 전투경찰 1만여 명이 배치되어 있었다. 劉官鍾, 「韓國警察戰史」, 現代警察文庫, 1982, p. 104.
- 32)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86.
- 33) *Ibid.*, pp. 251~252.
- 34) 「韓國戰亂1年誌」, p. C51.
- 35)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99, p. 252 ; 陸士 戰史學科, 「韓國戰爭史」, 日新社, 1987, p. 310.
- 36) 「韓國戰亂1年誌」, p. C57, p. C61.
- 37) HFEC G-2, *History of the North Korean Army*, 1952(국방군사연구소 사료 No. 856, Section 5, pp. 69~70). 적 제10사단은 7월 25일 숙천, 대전을 거쳐 8월 8일 왜관에 도착하였다.
- 38) 수중교 일명 수증가도는 수면 아래 30cm 높이로 하상에 암석과 목재 혹은 가마니에 모래와 자갈을 채워 수증가로를 만들어 차량과 중장비를 도하시키는 방식으로 써 소련군이 독소전쟁시 자주 사용하던 방식이었다.
- 39) Periodic Operations Reports, Korean Army, No. 73, SN. 1226 ; 「多富洞戰鬪」, pp. 73~75.
- 40) 제15연대는 1950년 7월 5일 증평에서 제13연대의 병력을 통합재편하여 사단건제인 제13연대로 편성되었으나 실제 작전상(사단작명 제20호, 제23호) 제15연대로 호칭되었다.
- 41) Periodic Operations Reports, Korean Army, No. 76(1950. 8. 9).
- 42) 「多富洞戰鬪」, p. 113.
- 43) Periodic Operations Reports, Korean Army, No. 73(1950. 8. 8).
- 44) EUSAK Periodic Intelligence Report No. 28(1950. 9. 9), No. 29(1950. 9. 10) 국방군사연구소 사료 No. 1119.
- 45) After-Action Interview with Lt. Col Peter D. Clainos, Commanding Officer, 1st Battalion, 7th Cavalry 국방군사연구소 사료 No. 1119.
- 46)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42 ; EUSAK Periodic Opns Report No. 83, No. 84(1950. 9. 12) 국방군사연구소 사료 No. 1119.
- 47) 육본 작전명령 제119호, 제2군단 작전명령 제12호(1950. 8. 12) ; 이때의 X, Y선은 육본작명 제94호의 내용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Y선은 왜관-포남동-수암산-유학산-신주막-군위-보현산을 연하는 선이며, X선은 Y선 후방에 위치한 부대집결지였다.
- 48)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新寧·永川戰鬪」, 1984, pp. 17~19, p. 79.
- 49) 위의 책, pp. 21~22.

- 50) Periodic Operations Reports, Korean Army, No. 94(1950. 8. 15).
- 51) 제6사단 제2연대는 이날 전투에서 적 제8사단의 작전문서를 노획하여 이들의 목표가 대구임을 알게 되었다. 「新寧·永川戰鬪」, p. 87.
- 52) 위의 책, pp. 30~36, p. 91.
- 53) 위의 책, pp. 97~100.
- 54)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342~345.
- 55) Ibid., pp. 345~347.
- 56) Ibid., pp. 351~353.
- 57) 미 제27연대에는 제73전차대대 C중대, 제8야포대대(105mm 야포) 2개 포대, 제37야포대대(155mm 곡사포) 2개 포대 등이 배속되어 있었다.
- 58) 「韓國戰亂1年誌」, p. B33 ; 「多富洞戰鬪」, p. 121.
- 59)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54 ; Periodic Operations Reports, Korean Army, No. 103(1950. 8. 18).
- 60) 「多富洞戰鬪」, pp. 123~125.
- 61) Periodic Operations Reports, Korean Army, No. 109(1950. 8. 20).
- 62)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54 ; 「多富洞戰鬪」, p. 122. 1950년 8월 20일 적이 유학산 일대에 전개한 제15사단을 추출하여 의성 방면으로 이동시킨 후 영천을 공격할 준비에 착수한 사실이 후에 밝혀졌다.
- 63)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355~360.
- 64) ATIS Interrogation Report No. 771 N.K. 13th Div., 13th Arty Regt 정봉욱 중좌, 26 Aug 50, 국방군사연구소 MF SN 267 ; 「多富洞戰鬪」 p. 122.
- 65) Periodic Operations Reports, Korean Army, No. 115(1950. 8. 22).
- 66) 「韓國戰亂1年誌」, p. B35.
- 67) 「多富洞戰鬪」, pp. 214~218 ;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63.
- 68) Ibid., p. 293.
- 69) Ibid., pp. 293~298 ; *Counterattack on the Naktong*, pp. 22~32.
- 70) *Counterattack on the Naktong 1950*, pp. 33~35.
- 71) 하이저특수임무부대는 제24사단 수색중대, 제3공병대대(-), 제78전차대대(-)로 구성되었다.
- 72)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298.
- 73) *Counterattack on the Naktong 1950*, p. 49.
- 74) Ibid., p. 57 ;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301~302.
- 75)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02.
- 76) 인민군전투일지(1950년 8월 13일자) SN792. 적은 대전전투시 우회기동임무를 수

384 第4章 洛東江線 防禦作戰

행하였던 제4사단 제18연대(제1, 제2대대)를 우회시켜 후방도로를 차단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77)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03.

78) *Ibid.*, pp. 306~307.

79) 적 제10사단 제29연대는 돌출부작전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도 현풍 일대의 고지를 떠나지 않았다. *Ibid.*, p. 309. 적 제10사단은 적 제2군단이 대구를 점령할 때까지 현풍 일대에 집결해 있도록 임무를 받고 있었다.

80) *Ibid.*, pp. 311~312.

81) *Ibid.*, p. 313.

82) 24th Div. Periodic Opns Report No. 42, OPERATIONS INSTRUCTIONS No. 26(1950. 8. 17) 국방군사연구소 사료 No. 1041 ;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313~315.

83) *The Tropic Lighting in Korea-25th Infantry Div.*, p. 13.

84) 미 제27연대는 왜관에서 군예비로 있다가 사단의 이동에 앞서 마산으로 이동, 미 제24사단에 배속되어 진동리 지역에 투입되었으며, 제19연대와 더불어 무촌리 지역 정찰전을 전개 중이었다.

85) *The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p. 79.

86) 25th Periodic Opn Rpt No. 55(031800 Aug 50), 국방군사연구소 사료 No. 1042.

87)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267 ; Hq. 25th Div. Periodic Opn Rpt No. 57 (041800 Aug 50), 국방군사연구소 사료 No. 1042.

88)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269.

89) Hq. 25th Div. Periodic Opn Rpt No. 66(071800 Aug 50) ; No. 70(082400 Aug 50), 국방군사연구소 사료 No. 1042.

90)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272 ; BG G.B. Barth, *TROPIC LIGHTNING AND TARO LEAF IN KOREA VOL. 6* (Library Armed Forces Staff College, 1955), p. 16.

91)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274.

92) ATIS, Interrogation Rpts, N.K. 105th Tank Div. 103th Motorrized R.(=83th R) 김기주 전사, 18 Aug. 50 ; 적 제6사단 작전명령 제42호(1950. 8. 17)에 의하면 '일전 고성에서와 같이 무질서하게 퇴각하는 부대는 엄벌에 처할 것이다.'라고 하여 당시 상황을 언급하고 있다. 국방군사연구소 SN796.

93) *TROPIC LIGHTNING AND TARO LEAF IN KOREA VOL. 6*, p. 21.

94)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277~278.

95) *Ibid.*, pp. 276~286 ; *TROPIC LIGHTNING AND TARO LEAF IN KOREA VOL. 6*, pp.

18~21.

- 96) *History of the North Korean Army*, pp. 64~66. 적 제7사단은 1950년 7월 3일 해주에서 국경·제7수비여단을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예하 제51, 제53, 제54연대로 편성되었다.
- 97) 인민군 제6사단 작전명령 제42호(1950. 8. 17), SN796.
- 98) *TROPIC LIGHTNING AND TARO LEAF IN KOREA VOL. 6*, p. 26.
- 99) 「韓國戰爭史」 제3권, p. 285. 한국경찰 경찰대는 미 제3대대 K중대에 배속된 병력으로 당시 경찰임무를 수행 중이었다.
- 100) *TROPIC LIGHTNING AND TARO LEAF IN KOREA VOL. 6*, p. 26.
- 101)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368~375.
- 102) *Ibid.*, p. 375.
- 103) 이 무렵 유엔 공군기가 대거 미제25사단을 지원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공군기는 1950월 8월 27일 이 일대에 단 하루 동안의 폭격으로 적 자동차 20대, 전차 4대, 야포 15문 등을 파괴하는 전과를 달성하였다. Hq. 25th Div. Periodic Opn Rpt No. 127(272400 Aug 50), 국방군사연구소 사료 No. 1042.
- 104) *The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pp. 64~66.
- 105) 「韓國戰爭史」 제3권, pp. 288~295 ;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66.
- 106) 인민군 점령지 보안사령부 예하 제104연대는 사천 일대의 치안을 담당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으나, 전선상황이 위급하게 되자 경기관총 등으로 장비하여 전투에 투입되었다. 陸軍本部(譯), 「韓國戰爭」 제2권, p. 79.
- 107) 「韓國戰爭史」 제3권, pp. 296~301.
- 108) 1950년 8월 7일 육군본부는 부대의 지휘책임으로 수도사단장 김석원 준장을 해임하고 그 후임으로 백인엽 대령을 임명하였다.
- 109)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24.
- 110) *Ibid.*, p. 324 ;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安康·浦項戰鬪」, 1986, p. 95. 제22연대장 강태민 중령은 오십천교의 폭파사건으로 인하여 군법회의에 회부되었으며 그 후임으로 김응조 중령이 임명되었다.
- 111) Periodic Operations Reports, Korean Army, No. 82(1950. 8. 11).
- 112)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25.
- 113)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116호(1950. 8. 10) ; Periodic Operations Reports, Korean Army, No. 81(1950. 8. 11) ; 포항지구사는 예하에 제25연대, 제17연대, 제26연대, 해군육전대 포항지구대, 육본직할 독립제1·제2유격대대, 미 제18야전포병대대 C포대로 부대를 편성하였으나, 제17연대 이외의 부대들은 학도병과 대한청년단원 등으로 구성된 신평부대로서 전투력이 미약하였다.

- 114) Periodic Operations Reports, Korean Army, No. 82(1950. 8. 11).
- 115) 「新寧·永川戰鬪」, p. 200.
- 116) Periodic Operations Reports, Korean Army, No. 88(1950. 8. 13), No. 91(1950. 8. 14).
- 117) Ibid., No. 95(1950. 8. 15); No. 100; No. 101(1950. 8. 17).
- 118)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134호(1950. 8. 15. 14; 30).
- 119)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30.
- 120) Ibid., p. 331(GHQ FEC G~3 Opn Rpt, 17 Aug 50).
- 121) Periodic Operations Reports, Korean Army, No. 101(1950. 8. 17).
- 122) 「安康·浦項戰鬪」, p. 118. 민부대는 이날부로 제7사단 제5연대로 개편됨과 동시에 신병으로 이동하기에 앞서 8월 26일까지 대구에서 부대재편을 실시하였다.
- 123) 「韓國戰亂1年誌」, p. B34; 「安康·浦項戰鬪」, pp. 57~59.
- 124)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32.
- 125) Periodic Operations Reports, Korean Army, No. 124(1950. 8. 25).
- 126) 「安康·浦項戰鬪」, pp. 167~168.
- 127) Periodic Operations Reports, Korean Army, No. 129(1950. 8. 27).
- 128) 미군의 특수임무부대 편성시 통상 명칭은 부대장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상례이지만, 잭슨특수임무부대는 미국 남북전쟁 당시 남군의 진격을 저지한 ‘돌벽의 잭슨’(Stone Wall Jacson)이라는 전사적 사실을 원용하였다.
- 129)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98.
- 130) 「조선전사」 제25권, p. 274.
- 131) 위의 책, p. 272.
- 132) 위의 책, p. 274.
- 133) 위의 책, p. 274.
- 134) *History of the North Korean Army*, Section 5, pp. 64~70. 제9사단은 7월 11일~8월 12일간 서울 경계임무를 수행하다가 제87연대는 인천경계를 위해 잔류하고 제 85, 제86연대는 영산 방면으로 이동을 개시하였다.
- 135)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95; ATIS Interrogation Rpts, N.K. 5th Tank Brig. 이종묵 대위, 5 Oct 50; 제17기갑여단의 이동기록, MFSN. 59.
- 136) 「조선전사」 제25권, p. 274(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1950. 8. 28).
- 137) 陸軍本部(譯), 「韓國戰爭」 제2권, p. 76; 「韓國戰爭史」 제3권, pp. 39~40. 인민군 제36사단은 후에 최고사령부로부터 근위사단의 칭호를 수여받았다.
- 138) ATIS, Interrogation Rpts, N.K. 15th Div. 장기화 전사, 20 Sep. 50, 5th Div. 오상만 전사, 16 Aug. 50, 4th Div. 김영호 소위, 3 Oct. 50.
- 139) ATIS, Interrogation Rpts, N.K. 4th Div. 45mm 대전차포대대, 김영호 소위, 3 Oct. 50.

- 140) ATIS, Interrogation Rpts, N.K. 6th Div. 13th R. 조경옥 전사, 20 Aug. 50 ; 6th Div. 윤영성 중위, 12 Aug. 1950 ; 6th Div. 1th R. 정형태 전사, 19 Aug. 50 ; 5th Div. 오상만 전사, 16 Aug. 1950 ; 13th Div. 황성일 전사, 17 Aug. 50.
- 141)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264.
- 142) *Ibid.*, p. 392.
- 143) *Ibid.*, pp. 198~210 ; 合同參謀本部, 「韓國戰史」, p. 414 ; 「韓國戰爭史」 제3권, pp. 307~319.
- 144)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81.
- 145) 미 제1군단은 8월 2일에 창설되어 사령부가 9월 6일 한국에 도착하였고, 제9군단은 8월 10일에 창설되었으나 참모와 지원부대 편성의 지연으로 9월 23일부터 작전에 참가하게 되었으며, 제10군단은 인천상륙작전을 위한 군단으로서 8월 26일에 창설되었다. 合同參謀本部, 「韓國戰史」, p. 424.
- 146) 위의 책, p. 413 ;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84.
- 147) 주한미군사고문단은 8월 현재 장교 175명 등을 포함하여 총 435명이었다. *Military Advisors in Korea, USA*, 1962, p. 161 ; 제7사단 제3, 제5, 제8연대는 국일명 49호(1950. 8. 20), 제11사단 제9, 제13, 제20연대는 국일명 54호(1950. 8. 27)에 의해 각각 창설되었다. 「國防史」 제2권, p. 334.
- 148) 남상선, 「학도의용군」, 효성출판사, 1975, pp. 63~70.
- 149) 여자의용군교육대는 9월 6일 육군제2훈련소에서 창설되었다. 「國防史」 제2권, p. 64 ; 兵務廳, 「兵務行政史」(上), 1985, p. 642.
- 150)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s*, Vol. 1VI, ch. 3. p. 25.
- 151)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86 ;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s*, Vol. 1, ch. 3, p. 25 ; 「國防史」 제2권, pp. 351~352.
- 152)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89.
- 153) *Ibid.*, p. 388 ;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s*, 1954, Vol. 1, ch. 3, pp. 11~14.
- 154) 「韓國戰亂1年誌」, p. C103, p. C277 ; 극동군사령부의 군수지원계획에 의하면 피난민의 이동과 보호에 관한 문제도 포함되어 있었다. *THE SINEWS OF WAR*, p. 639.
- 155)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s*, Vol. 2, ch. 4, p. 38, Vol. 4, ch. 8. p. 19, p. 21.
- 156) 「國防史」 제2권, p. 363.
- 157) 위의 책, p. 328 ;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260 ;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s*, Vol. 2, ch. 4, pp. 67~69.
- 158)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s*, 1954, Vol. 1, ch. 3, pp. 10~11.
- 159) *Ibid.*, pp. 15~35. 제3군수사령부는 1950년 9월 18일 인천에 선발대를 파견하여 인천기지사령부의 작전을 개시하였다.

- 160) Ibid., Vol. 4, ch. 8, p. 17 ;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261 ; *THE SINEWS OF WAR*, p. 641. 이것은 미극동군 군수품 재구축 계획에 의한 군수품이었다.
- 161)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s*, Vol. 2, ch. 4, pp. 38~40, p. 133. 미육군 교범상에 의하면 포 1문당 일일 탄약소모량은 81mm 20발, 4.2" 포 20발, 105mm포 45발이지만, 8월간 일일평균 소모량은 30, 25, 75발이었다.
- 162)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260, p. 380.
- 163) 1950년 8월 18일 대구시내에 적의 박격포탄이 떨어짐으로써 시민 소개령이 하달 되었으며 이날 정부와 국회도 대구에서 부산으로 이동하였다. 國防部 政訓局, 「韓國戰亂1年誌」, p. A37, p. B33.
- 164) 內務部 治安局, 「韓國警察戰史」, 1952, pp. 149~150.
- 165) 「美國合同參謀本部史 韓國戰爭」(上), p. 158, p. 165.
- 166)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415~417.
- 167) Ibid., p. 417.
- 168) 북한의 공간사에 의하면 ‘만일 수암산을 견지하지 못하면 부득불 다시 낙동강을 건너와야 할 위험이 있었다.’고 하여 적도 수암산을 전술적으로 대단히 중요시하였다. 「조선전사」 제25권, p. 262.
- 169)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411~412.
- 170) Periodic Operations Reports, Korean Army, No. 152 ; No. 153(1950. 9. 3).
- 171)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422 ; 「多富洞戰鬪」, p. 295.
- 172) Ibid., p. 414.
- 173) Ibid., p. 419. 철수시 한국인 노무자들이 보급품을 추진하기 위해 투입되고 있었다.
- 174) 국군 제2군단 작전명령 제31호(1950. 9. 5), 제32호(1950. 9. 6).
- 175) Periodic Operations Reports, Korean Army, No. 158(1950. 9. 5).
- 176)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430 ; Periodic Operations Reports, Korean Army, No. 167(1990. 9. 8).
- 177)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420.
- 178) Ibid., p. 421.
- 179) Periodic Operations Reports, Korean Army, No. 169(1950. 9. 9).
- 180)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432~435.
- 181) Ibid., p. 435 ; 국방부 일반명령(육) 제70호(1950. 9. 13) ; 국군 제1사단은 가산과 팔공산 사이에서 적 병력 800여 명을 포획하는 전과를 달성하였다. 「多富洞戰鬪」, p. 295.
- 182) *History of the North Korean Army*, pp. 67~69. 제9사단(~)은 1개포병대대, 1개고사포대대, 16기갑연대의 전차2개대대, 제4사단의 1개포병대대의 지원을 받고 있었

- 으며, 제3연대는 인천경계부대로 투입되어 있었다.
- 183)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455.
- 184) *Ibid.*, p. 470. ; 陸軍本部(譯), 「韓國戰爭」 제2권, p. 289.
- 185)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456~457.
- 186) *Ibid.*, p. 462.
- 187) *Ibid.*, pp. 465~467.
- 188) *Ibid.*, p. 469. 적 제17연대의 군의관은 적 제2사단이 매일 평균 300여 명을 부곡리 야전병원으로 후송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189) *History of the North Korean Army*, pp. 64~65.
- 190) *TROPIC LIGHTNING AND TARO LEAF IN KOREA VOL. 6*, pp. 28~29 ;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470~472.
- 191)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475~476 ; 적은 이 일대의 전투에서 전사 480여 명을 포함하여 약 1,500여 명의 손실을 입었으며, 제35연대는 총 250여 명의 손실을 입었다. *TROPIC LIGHTNING AND TARO LEAF IN KOREA VOL. 6*, p. 29.
- 192)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479~483.
- 193)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473~475 ; *TROPIC LIGHTNING AND TARO LEAF IN KOREA VOL. 6*, p. 31.
- 194)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486 ; 9월 6일 제24연대장 챔프니 대령이 진두에서 부대를 지휘하다가 적의 소총에 피격되어 전사하였으며, 그 후임으로 제3대대장 중령이 임명되었다. *TROPIC LIGHTNING AND TARO LEAF IN KOREA VOL. 6*, p. 30.
- 195)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474~475.
- 196) *Ibid.*, pp. 476~477.
- 197) *Ibid.*, pp. 477~478.
- 198) *TROPIC LIGHTNING AND TARO LEAF IN KOREA VOL. 6*, p. 30 ;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478.
- 199) Hq. 25th Inf Div. Periodic Opn Rpt No. 19(071800 Sep. 1950), 국방군사연구소 사료 No. 1042 ;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483~484.
- 200) 적 제15사단(예하연대는 전투서열이 자료마다 상이하나 제48, 제49, 제50연대로 기술한다)은 8월 20일경 다부동을 출발하여 25일 보현산 일대에 출현하였으며 그때까지 육본과 제8군은 적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 201) Periodic Operations Reports, Korean Army, No. 135(1950. 8. 28) ; 「新寧·永川戰鬪」, p. 129.
- 202) 위의 책, pp. 151~152, p. 159.

390 第4章 洛東江線 防禦作戰

- 203) 「韓國戰爭史」 제3권, p. 547.
- 204) Periodic Operations Reports, Korean Army, No. 153(1950. 9. 3).
- 205) 국군 제2군단 작전명령 제29호(1950. 9. 3)
- 206) 「新寧·永川戰鬪」, pp. 252~255.
- 207) Periodic Operations Reports, Korean Army, No. 158(1950. 9. 5).
- 208) 「新寧·永川戰鬪」, p. 258.
- 209) 제6사단장 김중오 대령, 제2군단 작전참모 이주일 대령 증언, 「韓國戰爭史」 제3권, pp. 584~585.
- 210) 국군 제2군단 작전명령 제31호(1950. 9. 5), 제32호(1950. 9. 6).
- 211) 「新寧·永川戰鬪」, p. 269.
- 212) 위의 책, pp. 269~271.
- 213) 위의 책, p. 172 재인용.
- 214) Periodic Operations Reports, Korean Army, No. 167(1950. 9. 8), No. 173(1950. 9. 10), No. 176(1950. 9. 11).
- 215) Periodic Operations Reports, Korean Army, No. 164(1950. 9. 7); 「新寧·永川戰鬪」, pp. 275~283.
- 216) Periodic Operations Reports, Korean Army, No. 167(1950. 9. 8).
- 217) Periodic Operations Reports, Korean Army, No. 169(1950. 9. 9).
- 218) 국군 제8사단장 이성가 준장 증언, 제8사단 제5중대 제2소대장 김재의 상사 증언 (「韓國戰爭史」 제3권, p. 575); 「新寧·永川戰鬪」, p. 313.
- 219) Periodic Operations Reports, Korean Army, No. 173(1950. 9. 10).
- 220) Periodic Operations Reports, Korean Army, No. 174(1950. 9. 10), No. 175(9. 11), No. 178(9. 12), No. 181(9. 13).
- 221)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정기대회(1950. 12. 4. 만포진 별천리), 「韓國戰爭史」 제3권, p. 581 재인용.
- 222)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98.
- 223) 「安康·浦項戰鬪」, pp. 150~163.
- 224) 위의 책, pp. 164~165.
- 225) 위의 책, pp. 165~168;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401.
- 226)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160호(1950. 9. 3); 국군 제3연대는 8월 22일 독립제1유격대대를 모체로 대구에서 재편성되었으며(육군본부 작전명령 제148호), 예하 제1대대는 제8사단에 배속되어 있었다.
- 227) 「安康·浦項戰鬪」, pp. 161~162.
- 228)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405.

- 229) 「安康·浦項戰鬪」, p. 173 ;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163호(1950. 9. 4).
- 230) 위의 책, pp. 169~170 ;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404.
- 231) 「安康·浦項戰鬪」, p. 178.
- 232) 위의 책, pp. 176~182.
- 233) 위의 책, pp. 182~185.
- 234) 위의 책, p. 185 ;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406.
- 235) 9월 7일 육군본부는 미 제8군으로부터 공세이전에 관한 내용을 전달받고 제1·제2군단에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적을 격퇴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특히 경주-영천 간의 도로를 적 포격권 밖에 확보할 수 있도록 강조하였다. 육군본부훈령 제58호(1950. 9. 7. 18 ; 00).
- 236) 데이비슨특수임무부대는 제19연대(~), 제9연대 제3대대 및 전차중대, 제13포병대대, 제15포병대대 C포대, 제3공병대대 A중대, M16고사기관총 2개포대로 편성되었다.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406.
- 237) 국군 제1군단 작전명령 제89호(1950. 9. 10)
- 238) 「安康·浦項戰鬪」, pp. 188~190.
- 239)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407.
- 240) 「安康·浦項戰鬪」, pp. 190~191.
- 241) 위의 책, pp. 176~180.
- 242) 위의 책, p. 192.
- 243)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408.
- 244) Ibid., pp. 545~546.

第5章 仁川上陸作戰과 反擊作戰

第1節 仁川上陸作戰

1. 作戰計劃 및 部隊編成

(1) 作戰計劃의 發展

낙동강전선에서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국가존망이 달린 백척간두의 위기를 넘긴 국군과 유엔군은 인민군을 일거에 포위격멸 및 구축할 전략목표하에 전쟁초기부터 비밀리에 추진해 온 인천상륙작전을 즉각 단행하고 이어 대반격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새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인천상륙작전은 전쟁이 채 일주일도 진행되지 않은 7월 첫 주에 맥아더 장군이 그의 참모장 알몬드(Edward M. Almond) 소장에게 하달한 “서울의 적 병참선 중심부를 타격하기 위한 상륙작전계획을 고려하고 상륙지점을 연구하라.”는 지시와 더불어 조기에 계획이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이 계획은 맥아더 장군의 작전참모부장 라이트(Edwin K. Wright) 준장이 이끄는 합동전략기획 및 작전단(JSPOG)에 의해 연구되었으며 ‘블루하트(Blue Hearts)’라는 암호명칭이 부여되었다. 연구된 상륙작전의 개략적인 개념은, 남부전선에서는 미 제24·제25사단이 정면에서 반격을 가하고 이와 병행해서 해병 연대 전투단과 육군부대가 돌격부대로 인천에 상륙하여 내륙으로 진출, 서울을 포위함으로써 적을 38도선 이북으로 구축한다는 것이었다.¹⁾

7월 4일 맥아더 장군 참석하에 극동군사령부에서 가진 이에 관한 첫 작전회의에서, 공격부대는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이미 승인받은 해병 1개 연대전투단 외에 육군으로서는 주일(駐日) 미 제1기병사단을 운용하기로 논의하였고, 상륙일자는 합동작전으로서 준비과정을 고려하여 7월 22일로 정하였다. 이리하여 미 해병기지에서는 7월 7일 해병 제1사단 예하 제5연대를 주축으로 제1임시해병여단을 창설하고 제1기병사단이 훈련에 들어가는 등 지상군의 상륙준비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블루하트계획은 7월 10일²⁾ 이 단계에서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것은 국군과 이미 전장에 투입된 미군이 적의 남진을 저지하지 못함으로써 상륙작전보다는 현 전선을 안정시키는 것이 다급하게 되어 제1기병사단도 전선에 투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인민군의 신속한 전진으로 블루하트계획은 일단 취소되었지만 맥아더 장군은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집념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전선상황이 악화될수록 적의 후방에 대한 상륙작전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고, 상륙지역으로 인천을 강조함과 동시에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그 가능성을 연구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를 재개하게 된 합동전략기획 및 작전단은 인천, 군산, 해주, 진남포, 원산, 주문진 등 해안지역을 상륙대상지역으로 검토하고 크로마이트(Chromite)라는 이름 아래 인천상륙계획(100-B), 군산상륙계획(100-C), 주문진상륙계획(100-D) 등 3개 안을 작성하여 그 개략계획을 7월 23일 미 극동군사령부의 관계참모부에 회람하였다. 이 중에서 인천을 상륙지역으로 하는 계획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계획은 이미 미국으로부터 한국에 이동 중에 있는 미 제1임시해병여단과 미국에서 일본으로 출발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미 제2보병사단을 상륙공격부대로 운용하고, 이들 부대의 상륙과 동시에 지상군이 남에서 반격으로 전환한다는 작전개념으로 되어 있었다.

맥아더 장군은 같은 날인 7월 23일에, 9월 중순경 이 계획대로 상륙작전을 실시하겠다고 육군성으로 통보하였다. 그러나 8월 초, 인민군의 공세로 낙동강 방어선의 서측이 붕괴직전에 이르자 상륙부대로 지정한 2개부대가 도착과 동시에 낙동강전선에 투입됨으로써 상륙작전계획의 실현은 어려운 실정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미 제1해병사단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이 사단과 일본에 남아 있는 마지막 사단인 미 제7보병사단을 가용부대로 하여 합동전략기획 및 작전단은 작전계획/100-B(인천상륙)를 완성하여, 8월 18일 예하 및 관련부대에 하달하였다. 이 계획은 본질적으로 그 동안 추진되어 온 상륙작전의 기본개념과 동일하나 미 제1해병사단은 돌격상륙부대로, 인천-서울을 목표지역으로 결정하고 상륙부대와 낙동강전선의 미 제8군과의 협조된 작전을 동시에 실시한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다만 이 계획은 후속상륙부대가 아직 명시되지 않은 채 극동미군사령부 예비병력이라고만 언급되었으며 잠정적인 상륙일은 9

월 15일로 결정하였다. 또한 맥아더 장군은 8월 15일에는 계획된 상륙작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러프너(Ruffner) 소장 주도 아래 ‘특별계획참모단본부 (Headquarters Group of the Special Planning Staff)’라는 새로운 참모진을 구성하였다. 이 기구는 ‘크로마이트’ 작전계획을 보다 구체화하여 극동미군사령부의 훈령을 작성, 하달하기 위한 작업을 전담하였으며, 이들은 후일 미 제10군단사령부 창설시 핵심 참모요원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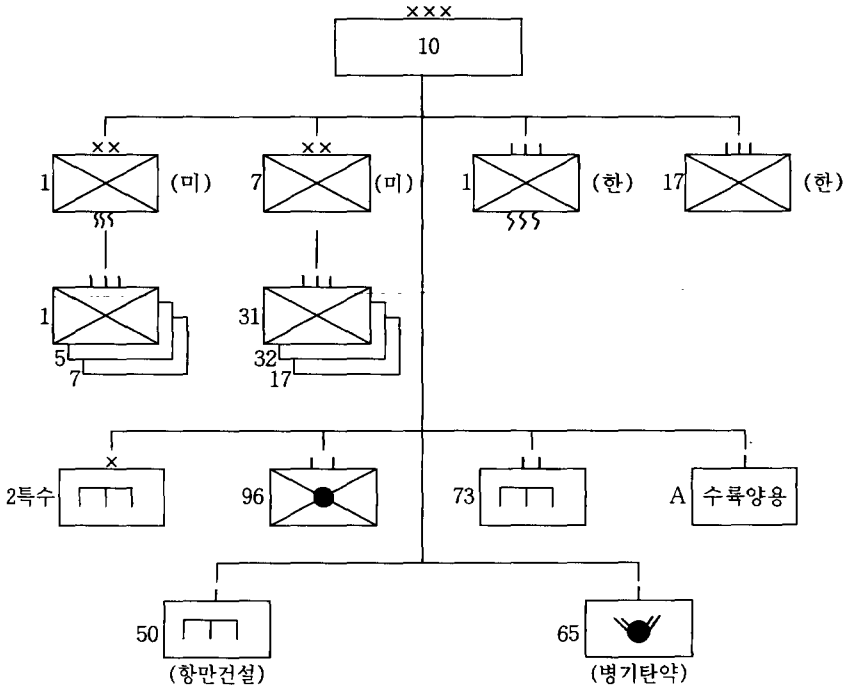
(2) 上陸軍의 編成 및 任務

상륙작전의 기본계획을 확정된 맥아더 장군은 즉각 상륙군 부대의 편성에 착수하였다. 그는 상륙부대를 제10군단으로 편성하기로 결심하고 8월 21일에 육

<표 1>

미 제10군단 편성표³⁾

1950. 8. 26.



군성에 군단사령부 창설을 건의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8월 26일에 참모장 알몬드 소장을 군단장에 임명하고 극동군사령부에서 차출된 참모장교들로서 군단사령부를 편성하였다.

군단에 편성된 주요부대로서는 미 제1해병사단, 미 제7보병사단과 국군 해병 제1연대, 국군 보병 제17연대이었으며 이 밖에 지원부대로서는 미 제2특수공병여단을 비롯하여 군단편성표와 같다.

그러나 당시 미국은 상비군을 감소편성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고, 또 7월의 전황이 위기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었어서, 상륙군 부대를 시간에 맞추어 완전편성으로 증편하는 과업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선 미 해병 제1사단의 경우, 7월 25일에 스미스(Smith) 소장이 사단장에 임명되어 즉각 사단의 전시편성작업에 착수하였는데, 그때 미국의 사단기지는 이미 지난 7월 14일 제5연대가 임시해병제1여단으로 편성되어 극동으로 이동한 후이어서 잔여병력이라고는 3,400여 명밖에 없었다.

사단장은 여러 함대에 편성된 해병과 타 기지병력을 차출⁴하거나 지원을 받고 그래도 부족한 인원은 동원된 자원으로 보충하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 2주 후인 8월 10일까지 제1해병연대와 사단의 직할부대를 증편하고, 그 후 다시 제7연대를 증편하였다. 이처럼 이 사단은 3차에 걸쳐 제5, 제1, 제7보병연대와 지원부대가 완편되었다. 이 사단은 창설뿐만 아니라 작전해역으로의 집결 역시 어려워 제1연대를 포함한 사단 주력은 9월 6일까지 일본에 도착하였고, 이날 낙동강전선에 투입되었던 제5연대도 간신히 부산으로 집결하였으며 제7연대의 주력은 9월 9일에 부산에 도착하였으나 일부 병력은 상륙작전 직전까지 도착하지 못하였다.

미 보병 제7사단은 주일 미 점령군으로서 보병 제17연대, 보병 제31연대, 보병 제32연대의 3개연대로 구성되었으며 미 극동군사령부 예비로 있었다. 이 사단도 감소편성을 유지하고 있던 차, 먼저 전장에 투입된 제24, 제25, 제1기병사단의 부족병력 보충을 위해 장교 140명, 사병 1,500명을 차출당하여 7월 27일 현재 사단의 병력은 완전편성의 약 50% 수준에 있었다. 사단은 9월 4일까지 장교 330명, 사병 5,400명의 보충을 받고 추가로 카투사(KATUSA)⁵ 8,637명을 충원하여 간신히 전시편성을 갖추었다.

국군 해병 제1연대는 이 무렵 제주도에서 약 3,000명의 신병을 모집하여 부대를 편성하고 훈련을 실시하던 중, 한·미간 작전협의에 따라 상륙작전부대에

편성됨으로써 8월 31일 갑자기 출동명령을 받았다. 연대는 해병대사령관 신현준(申鉉俊) 대령의 지휘하에 제주도를 출발, 9월 6일 부산해상에 집결한 다음 미 제5해병연대와 합동으로 상륙작전을 위한 단기간의 특수훈련을 받았으며 9월 11일까지 모든 출동준비를 완료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군 보병 제17연대는 수도사단에 배속되어 안강·기계전선에서 전투 중 인천상륙작전부대로 선발되었다. 연대는 9월 15일부로 수도사단에서 배속이 해제되어 전선으로부터 철수, 경주에 집결한 후 열차로 부산으로 이동하였다. 이곳에서 연대는 수도사단장을 인계한 백인엽 대령을 연대장으로 편제의 2/3에 달하는 부족한 병력과 장비 등을 보충받아 완전편성을 갖추고 상륙작전에 대비한 훈련에 들어갔다.

이와 같이 편성되어 있는 상륙군 부대는 총 70,000여 명에 달하였으며, 이들이 수행할 임무는 다음과 같았다.⁶⁾

- 인천항만의 확보와 해안두보(海岸頭堡) 점령
- 가능한 한 신속히 진출하여 김포비행장 확보
- 한강도하 및 서울탈환
- 미 제8군과 연결작전이 이루어지기까지 서울 근교의 진지점령

상륙군의 기동개념은 해·공군의 포격 및 폭격으로 상륙지역의 적을 무력화시킨 다음, 돌격부대인 미해병 제1사단으로 하여금 인천시가지를 점령하고 해안두보를 확보한 후 가능한 한 신속히 김포비행장을 탈환하고 한강 남안의 적을 소탕하며, 한강을 도하 서울을 탈환하고, 그 북쪽 고지군을 확보한다는 것이었다. 미 제7사단은 후속부대로서 해병사단의 우측방(남쪽)으로 기동하여 서울 남쪽 고지군과 한강 남쪽 제방을 점령하고, 일부 부대는 수원 방면으로 진출하여 낙동강전선에서 반격해 오는 미 제8군과 연결작전을 한다는 것이었다.

(3) 上陸地域 論爭과 確定

맥아더 장군이 계획을 발전시키는 동안 미 합동참모본부는 적 후방에 상륙하겠다는 상륙작전계획 자체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동의하였지만 상륙지역을 인천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결코 찬성하지 않았다.

주로 미육군 참모총장 콜린스(Lawton J. Collins) 대장과 해군 참모총장 셔먼

(Forrest P. Sherman) 대장 그리고 미 해병대의 대표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이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동의를 유보해 왔었다.

해군측 반대의 핵심은 인천지역이 조수, 수로, 해안조건에서 상륙작전에 많은 제한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륙의 적지(適地)가 못 된다는 것이었다. 즉 인천항에 이르는 수로는 협소한 단일수로로서 대규모 함정의 진입이 불가능하고 적이 기뢰매설시 많은 피해가 예상되며 인천해안의 간·만조 차는 10m 내외로 간조시 해안에는 2~5km의 광대한 갯벌지대가 형성되며, 수심이 얕아 상륙주정 및 상륙함의 해안접안이 곤란하고 겨우 상륙이 가능한 만조일수는 월 2~3일밖에 안 된다는 것이었으며, 또한 상륙해안으로 적절한 곳도 없고, 해안방파제와 해변은 그 높이가 5m 이상으로서 만조시를 제외하고 보조 사다리가 있어야만 상륙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상륙지역에 대한 의견대립이 계속되자 합동참모본부는 맥아더 장군 및 그의 참모들과 이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육군 및 해군 참모총장을 동경에 있는 극동군사령부로 보냈다. 이들 일행은 8월 21일 동경에 도착하였으며, 극동에 있는 상급 해군장교들과 맥아더 장군의 주요 참모요원들을 만나 먼저 개별적으로 회담하고, 그 이튿날 한국전선을 시찰한 뒤, 8월 23일 오후에 극동군사령부 회의실에서 인천상륙작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브리핑에 참석하였다.⁷⁾

회의에는 맥아더 장군과 콜린스 장군, 서먼 제독 외에 미 극동해군사령관 조이(C. Turner Joy) 중장, 제7함대사령관 스트러블(Arthur D. Struble) 중장, 알몬드 장군, 라이트 장군 그리고 약간의 합동전략기획 및 작전단 요원과 인천상륙작전을 실질적으로 지휘하게 될 제90기동부대 사령관 도일(James H. Doyle) 해군소장 및 해군 문제를 다룰 그의 참모요원이 참석하였다. 먼저 작전참모인 라이트 장군이 기본계획을 설명하고 이어 도일 제독이 1시간에 걸쳐 해군이 직면하게 될 어려움을 설명한 후, 비관적인 어조로 “인천상륙작전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나 나는 이를 건의할 수는 없다.”⁸⁾라고 결론을 지었다.

다음으로 콜린스 대장은 군산을 상륙지역으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는 인천상륙시는 거리가 멀어 제8군과 제10군단의 연결작전이 의문시되고 군산은 상륙시 자연장애물이 없어 상륙조건이 인천보다 좋을 뿐만 아니라 상륙 후 논산과 대전에 이르는 적의 병참선에 근접해 있다는 것이었다. 이 제의는 서먼 제독도 지지하였다.⁹⁾

끝으로 등단한 맥아더 장군은 왜 인천에 상륙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

“적은 그의 후방을 무시하고 있고 병참선이 과도하게 신장되어 있으므로 서울에서 신속히 이를 차단할 수 있으며, 그들의 전투부대는 사실상 모두 낙동강 일대의 제8군 정면에 투입되어 있는데 훈련된 예비병력마저 없어 전세를 회복할 만한 능력은 거의 없다.”¹⁰⁾라고 설명하였다. 맥아더 장군은 계속해서 전략적, 정치적, 심리적 이유를 들어 서울을 신속히 탈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때 그는 지도를 가리키면서 인천은 제8군이라는 ‘망치’가 인민군을 분쇄하는데 제10군단은 ‘모루’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콜린스 대장이 제의한 군산 상륙지점에 대해 “군산에 상륙한다면 적의 병참선을 차단하거나 적을 격멸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없을 것이다.”라고 대응하였다. 다시 그는 “인천상륙은 유엔군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전술방책이며 인천의 지리적 곤란성 때문에 적이 인천을 상륙지역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그 점으로 인하여 기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해군은 지금 그것을 해낼 것이다. 그것은 10만 명의 생명을 구할 것이다.”¹¹⁾라고 끝을 맺었다.

다음날 해군참모총장 서먼 제독은 극동해군사령관 조이 중장, 태평양 전구사령관 래드포드(Arthur W. Radford) 대장, 태평양함대 해병대사령관 셰퍼드(Lemuel C. Shepherd) 중장, 제1해병사단장 스미스(Oliver P. Smith) 소장과 해군 지휘관 회담을 가졌다. 그들은 상륙을 위한 보다 양호한 장소는 인천 남쪽 30마일 지점, 언제나 물이 깊어 상륙할 수 있는 아산만 해안의 포승면(浦升面, 지금의 아산만 방조제 지역)이라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셰퍼드 장군이 대표로 맥아더 장군을 만나 이를 제의하고 설득하려 하였으나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¹²⁾

워싱턴으로 복귀한 콜린스와 서먼은 존슨(Louis Johnson) 국방장관, 트루먼 대통령에게 방문결과를 보고하였다. 국방장관은 맥아더 장군의 계획을 확고하게 지지하였고, 그는 후에 대통령의 지지도 얻어냈다. 미 합동참모본부는 결국 8월 28일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맥아더 장군의 계획을 승인하였다. 그러면서도 군산지역에 대한 계획준비도 병행하도록 단서를 붙이고 금후의 진전상황에 대하여 적시에 구체적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맥아더 장군은 8월 30일에 인천상륙작전 명령을 하달¹³⁾하였으며, 9월 6일에 상륙작전일을 9월 15일(D일)로 확정 하달하였다.

(4) 機動部隊 作戰計劃

인천상륙작전에 있어서 해군의 과업은 상륙군의 임무에 못지않게 대단히 중요하였다. 상륙군 부대의 해상수송단계로부터 해두보 확보단계까지의 작전은 해군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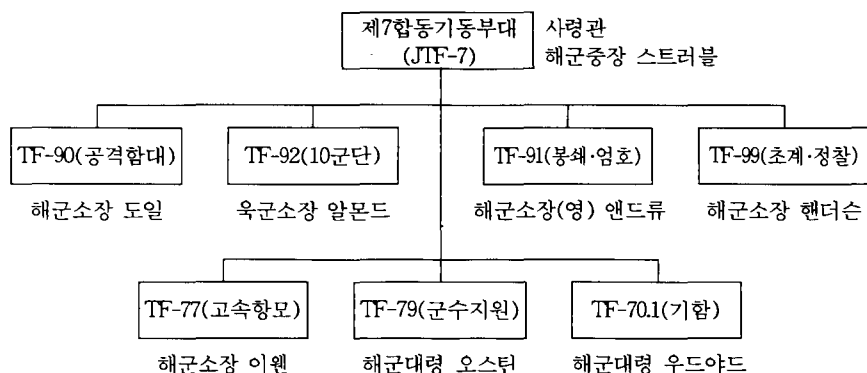
이 상륙작전 계획과정에서 해군분야는 극동해군사령관의 주도로 준비되었으며, 8월 30일에 하달된 극동해군작전명령에 따르면 해군의 과업은 북위 39도 35분 이남(평양-원산선)의 서해 봉쇄상황에 따라 상륙일 이전의 해군작전수행, D일에는 상륙돌격으로 인천해두보를 탈취·점령·확보하고, 후속부대와 전략예비를 지시에 따라 인천으로 수송·상륙·지원, 필요시 엄호 및 지원제공¹⁴⁾ 등이었다.

극동해군은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7합동기동부대를 구성하고 제7함대사령관 스트러블 중장을 기동부대 사령관에 임명하였다. 이 합동기동부대는 제90공격기동부대, 제92기동부대를 포함하여 임무별로 모두 7개 기동부대로 편성되었다.

이중 제90공격기동부대는 상륙군 부대를 수송하고 해두보 확보시까지 상륙군 부대의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며 상륙작전에 따른 해·공군의 근접합공지원과 함포지원을 통제하는 등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제92기동부대는 상륙군 부대인 제10군단으로 이루어진 기동조직으로서 상륙이 완료될 때까지 제7합동기동부대의 지휘를 받았다.

〈표 2〉

제7합동기동부대 편성표



자료 :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497.

400 第5章 仁川上陸作戰과 反擊作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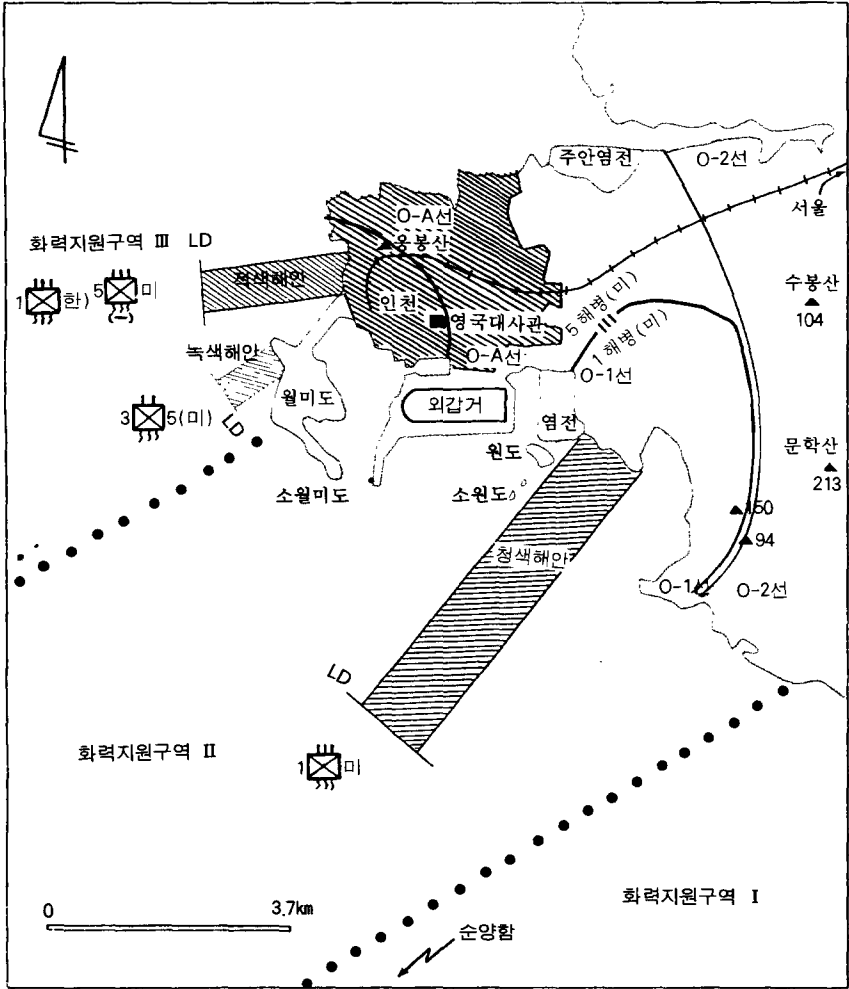
이 제7합동기동부대는 미해군 함정을 비롯하여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함정을 포함, 총 260여 척¹⁵⁾의 함정으로 편성되었으며 한국해군에서도 초계함(PC) 4척과 소해정(YMS) 7척 등이 참전하였다. 이중 함정은 소련 및 중국 영역에서 12마일, 항공기는 20마일 이내로의 접근을 금지하였다.

제7합동기동부대의 작전명령은 해군명령이 8월 30일에 하달됨으로써 시간에 쫓기어 9월 3일에 하달되었는데, 이는 제90기동부대 작전명령과 거의 동시에 하달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병 제1사단의 작전명령도 일부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들 일련의 계획의 골자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가 있다.

제7합동기동부대 기함(Rochester호)의 통제하에 해병사단 항공기, 미 공군기, 영국 공군기가 항공모함에서 최대의 항공지원을 제공한다. 상륙장소로부터 48km의 지역을 합동기동부대의 목표지역으로 한다. 해상작전단계에서 제7합동기동부대장의 지휘소는 로체스터호, 독일 제독(제90공격기동부대장)의 지휘소는 마운트 맥킨리(Mt. McKinley)호에 둔다. 상륙해안은 월미도 북단, 인천북단 해안벽 지역, 인천남단 갯벌지역 등 3곳을 선정하고 이를 순서대로 녹색해안, 적색해안, 청색해안으로 명명한다. 상륙시간은 9월 15일 아침 만조 시간 06:30을 L시, 오후 만조시간 17:30을 H시로 한다. 그리고 상륙돌격부대는 아래의 순서대로 작전을 전개한다.

- 미 제5해병연대¹⁶⁾ 제3대대 상륙단(BLT-3)은 D일 L시 녹색해안에 상륙하여 월미도를 확보한다.
- 미 제5해병연대 전투단(BLT-3)은 D일 H시 적색해안에 상륙하여 목표 O-A선을 확보하고 제1해병연대전투단과 연결을 유지하며 해안두보선(BHL)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해병연대전투단과 협조, 계속 동쪽으로 진격할 준비를 한다.
- 미 제1해병연대 전투단은 제5해병연대 전투단과 동시에 2개대대 병행돌격으로 청색해안에 상륙하여 목표 O-1선을 확보하고 해안두보선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5해병연대 전투단과 협조, 계속 동쪽으로 진격할 준비를 한다.
- 국군해병 제1연대는 최초 해병 제1사단의 예비로써 의명 적색해안에 상륙하여 미 제5해병연대 전투단과 협조, 시가지 소탕작전을 실시한다.

상륙작전계획



지상군의 이와 같은 11시간 시차를 둔 상륙작전은 목표지역에서 적에 의한 고립의 위험도 따르고 또 적의 증원에 대한 우려도 수반되는 계획이지만 인천이 갖는 조수의 실태와 수로조건에 의해 불가피한 것이었으며 합동기동부대는 이러한 위험을 해·공군의 항공기와 함포지원, 치밀한 계획, 그리고 기습공격으로 극복하겠다는 것이었다.

2. 上陸作戰 및 橋頭堡 確保

(1) 京仁地域의 敵 狀況

제10군단의 정보관단에 의하면 8월 말 인민군은 거의 모든 전투역량을 부산 교두보 확보를 위해 낙동강전선에 집중하고 있었고 서울을 비롯한 후방지역에는 지역경비부대와 병참선 경비부대 그리고 훈련이 미숙한 신편부대가 산재해 있었다. 북한에서 발행한 「조선전사」 제26권에는 인천상륙작전에 대비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김일성 동지는 적이 상륙을 시도하는 목적은 전선과 후방을 끊으려는 데 있으며 상륙지점은 인천-서울지구라는 것을 폭로하였다.……중략……상륙기도가 확실해졌을 때 이 지역의 방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서해안 방어사령부를 조직하고 인천-서울 방어부대들을 통일적으로 지휘하게 하였다. 그리고 군산-인천 사이의 서해안 지역에 배치된 경비대, 보안대들을 여기에 소속시키고 그 지역의 전투역량과 기재를 인천-서울지역에 집중하도록 하였다. 또한 서해안 방어사령관으로 민족보위상 최용건(崔庸健) 동지를 임명하였다.

인천지역에는 월미도에 제226독립육전연대 제3대대 소속의 400여 명과 제918해안포연대 예하부대가 방어임무를 수행¹⁷⁾하고 있었으며 인천시가지에는 신편 제9사단 예하 제87연대(연대장 대좌 김태모)가 8월 12일부터 인천지역 방어임무를 인수하여 담당¹⁸⁾하고 있었다.

한편, 인천시가지 중 월미도 제방으로부터 북동쪽 주안염전까지 5~6km의 해안방어는 단대호 미상의 여단인 제884군부대 예하 1개대대가 배치되어 방어하였다.¹⁹⁾ 이에 대한 적 884군부대 제5보대 대대전투명령(1950. 8. 29)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 ① 적은 공화국 인민군대의 맹렬한 공격으로 인하여 무질서한 퇴각을 하다가 다시금 군사적 모험으로써 인천에 상륙점령하고 계속 전진하여 우리 나라 수도서울을 점령할 목적으로 덕적도, 용유도(40-80), 영흥도 일대에 함선들을 입항 체류하고 있는바 적들은 기회만 있으면 인천항의 기습상륙을

기도하고 있으며 더욱 적은 항공으로 인천시 상공을 위협하고 있다.

- ② 본 대대는……중략……해안 일대에 상륙하는 적을 해상에서 결정적으로 격퇴분쇄하며 방어구역 우측은 염전으로부터 좌측은 월미도 제방까지이다.

이러한 그들의 1차자료를 분석해 볼 때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은 2주일 전부터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인천지역의 적 병력규모는 지역경비부대를 포함하여 약 2,000여 명에 달하고 있었다.²⁰⁾

또한 서울지역에서 경계 중이던 제9사단(-)은 8월 12일에 낙동강전선으로 이동하였으며,²¹⁾ 제18사단도 9월 중순경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 직전에 서울을 출발, 낙동강전선으로 이동²²⁾하고 있었다. 이때 서울지역의 적의 병력은 김포지역의 500명을 포함하여 약 5,500명이었다. 그 밖에 9월 4일까지 추가로 증원된 2,500여 명을 합하면 서울-인천지역에서 활동 중인 적의 총 병력은 약 10,000여 명²³⁾으로 판단되었다.

낙동강전선에서 미 제8군과 대치하고 있던 전투부대가 인천-서울지역에 증원될 가능성은 경부국도 가까이 대구 주변에 배치된 인민군 제3, 제10, 제13사단이 가장 빨리 증원될 수 있을 것으로 고려하였다. 미 극동군사령부는 북한 해군 역시 인천상륙작전을 방해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당시 정찰함정 수척으로 구성된 5개전대가 있었으나 이중 1개전대만이 진남포 부근에 있었고 나머지는 동해안 원산에 배치되어 있었다. 북한 공군은 성능이 저하된 19대²⁴⁾의 소련제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상륙작전에 영향을 주리라고는 판단되지 않았다.

(2) 仁川으로 航進

인천상륙일자가 다가오자 제7합동기동부대는 9월 초에 부산, 일본의 사세보(佐世保), 고베(神戸), 요코하마(橫濱)에서 상륙군 적재를 시작하여 9월 10일부터 인천으로 출항하기 시작하였다.

미 해병 제1사단(-)과 미 보병 제7사단은 각각 고베와 요코하마에서 9월 11일에 출항하였으며, 도중에 부산에서 출항한 국군 해병 제1연대와 국군 제17연대 등과 합류하였다. 제7합동기동부대 사령관 스트러블 중장은 기함 로체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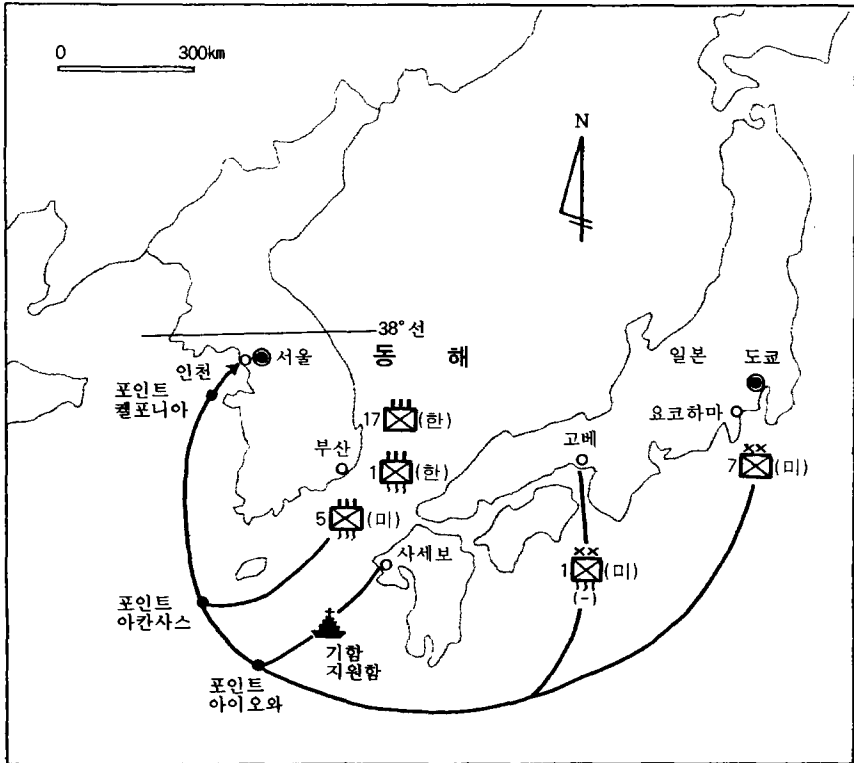
호로 9월 12일 사세보에서 출항하였고, 맥아더 장군은 제10군단장 알몬드 소장, 그의 작전참모 라이트 준장, 태평양함대 해병사령관 세퍼드 해병중장 등과 같이 제90공격기동부대 사령관 도일 해군소장의 기함인 마운트 맥킨리호에 승선하여 이날 밤 사세보항을 출항하였다. 이렇게 하여 모든 함정들이 9월 14일까지는 서해 중부 해상의 약정된 집결지인 덕적도 근해(Point California)에서 총 집결할 수 있었다.

한편,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첩보활동도 쉴새 없이 이루어졌다. 미 극동군사령부 소속의 클라크 해군대위는 통역관을 대동하고 9월 1일 밤에 한국 해군함정 PC703함(李成浩 중령)으로 영흥도에 잠입하여 정보수집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이곳의 주민들이 이에 협력하여 해안감시반을 조직하기도 하고 인천·서울지역까지 침투하여 적 포대의 수와 위치, 적의 집결지 및 이동 상황, 갯벌의 상태, 해변의 높이 등을 파악하였다. 이 정보장교의 보고를 받아 합동기동부대는 세부적인 정보를 가지고 상륙작전을 실시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한국 육군의 계인주(桂仁珠) 대령과 해군의 연정(延禎) 중령도 트러디 잭슨(Trudy Jackson)이라는 미 첩보대에 소속되어 인천에 관한 첩보를 수집하였으며 계 대령은 한국인 첩보요원 22명을 운용하여 첩보를 수집하였다.

상륙군 부대의 인천으로의 항진과 보조를 맞추어 목표지역을 제압하기 위해 제7합동기동부대의 공중폭격은 9월 4일부터 상륙시까지 계속되었다. 여기에는 해병의 자체항공기와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함재기들이 출격하여 월미도와 인천 시가지 폭격은 물론 상륙지역을 고립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공중폭격을 가하였다. 또 9월 13일부터는 4척의 항공모함(중 2, 경 2), 6척의 구축함, 그리고 5척의 순양함이 인천만의 어구에 들어서 월미도를 포격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엄폐된 진지에서 5문의 적 75밀리 포가 응사해 움으로써 바다와 해안의 포격전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맹렬한 사전폭격과 포격으로 월미도는 떠만 앙상하게 남은 나무들만이 불에 타고 있을 뿐 섬은 정적이 흐르고 있었으며 인천시내는 검은 불길의 하늘을 메우고 있었다.

한편, 제7합동기동부대의 인천으로의 항진과 사전폭격은 상륙계획의 작전보안을 유지하고, 특히 상륙지역과 일자를 기만하기 위한 작전과 병행 실시되었다. 그래서 사전 항공폭격은 마지막 일격이 어디에 가해질지를 적이 알 수 없도록 북으로는 평양으로부터 남으로는 군산까지 인천을 포함한 서해안의 상륙작전 가능지역에 고루 폭격을 실시하되 객관적으로 상륙이 가장 유력시되는 군

인천으로 항진



산에 맹폭격을 가하였고, 인천에 대한 본격적인 함포사격을 9월 13일부터 실시 하도록 계획한 것도 그때에는 적이 설사 인천이 상륙지역이라는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없으므로 기습은 가능하다고 판단한 데 있었다.

뿐만 아니라 9월 12일 밤에는 한·미·영 혼성부대가 군산에 양동작전을 감행 하였고, 동해안에서는 9월 14일과 15일 양일간에 걸쳐, 삼척 일대에 맹렬한 폭 격을 가하였는가 하면 영덕 남쪽 장사동에서는 이명흠(개명 이종훈) 대위가 지 휘하는 독립유격 제1대대(+)의 학도병이 9월 15일 새벽에 해안에 실제 상륙을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태풍 케지아(Kezia)의 영향으로 상륙용 주정(LSD)이 좌 초됨으로써 기습이 노출되어 적과 교전을 벌여가며 해안 근처의 고지를 탈취하 고 저항하다가 많은 희생자를 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인천상륙작전은 치밀한 기만작전하에서 진행되었고 또한 작전보안에 있어서는 미 합동참모본부로의 보고마저도 제때에 하지 않아 극동군사령관이 오해를 받을 정도로까지 철저를 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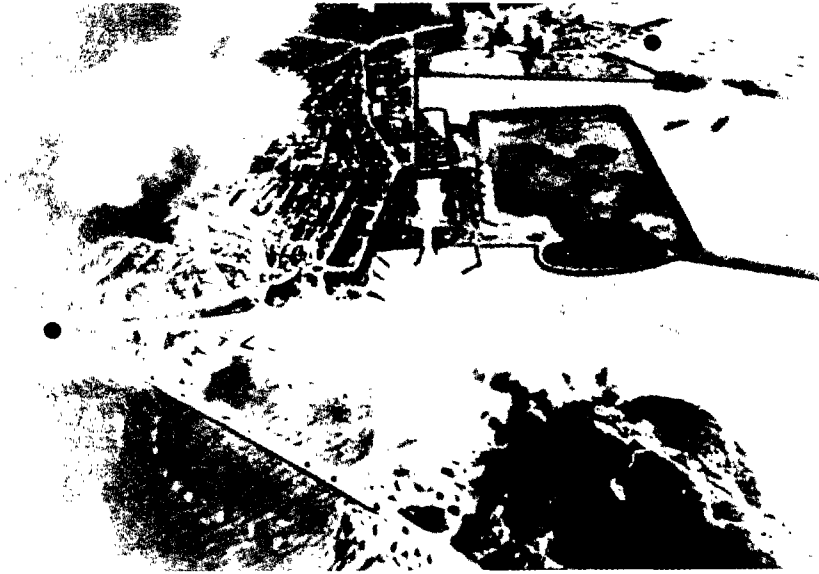
(3) 仁川 確保

월미도 점령 : 인천상륙은 9월 15일 새벽에 시작되었다. 이날 새벽은 구름이 잔뜩 끼어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은 음산한 날씨였다. 02:00, 월미도(月尾島)에 상륙돌격을 감행할 미 제5해병연대 제3대대 상륙단의 선견공격대(先遣攻擊隊)가 인천 수로로 진입하기 시작하여 얼마 후 미 해군정보장교 클라크(Clark) 대위가 밝혀주는 팔미도 등대의 안내를 받아 무난히 인천항에 이르렀다. 이들은 05:00 고속함모부대의 함재기들이 어둑어둑한 새벽 하늘로 날아올라 월미도와 인천 내륙지역에 맹렬한 공중폭격을 실시하고, 그 뒤를 이어 구축함의 첫 포탄이 월미도에 작렬하였고, 로켓포함이 녹색해안과 그 주변의 적진지에 대해 1,000여 발의 포탄을 퍼붓는 동안 상륙주정(LCVP) 7척에 분승, 제1파를 구성하여 해상에 설정된 공격개시선을 통과하였다.

L-2분 모든 포격은 일시에 중지되고 주정로(舟艇路)를 따라 전속력으로 전진하는 돌격파(突擊派)들 머리 위로 미 해병항공기들이 날아가 제1파의 바로 전방해안에 폭탄과 기총사격을 가하였다. G중대와 H중대의 소대들이 탑승한 제1파는 거의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적 해안에 예정보다 3분이 늦은 06:33에 상륙하였다. 그리고 곧 이어 2분 후에 제2파도 도착하였다.

G중대는 월미도 정상의 105고지를 향하여 공격을 개시하였고, H중대는 인천 내륙으로 이어지는 방파제의 출구에 도달하여 그 일대를 차단하였다. 2개의 돌격중대가 목표를 공격하는 동안 10대의 전차로 구성된 제3파가 해안에 도착하였다. 상륙한 10대의 전차는 6대의 M26 퍼싱전차와 2대의 도자전차, 1대의 화염방사용 전차, 1대의 구난전차로 구성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예비중대인 I중대가 뒤를 이어 상륙하였다.

06:50 예비대에 앞서 상륙한 대대장 태플리트(Robert D. Taplett) 중령은 약 5분 뒤에 G중대 선두인 제3소대가 105고지 정상에 도달, 성조기를 게양하였다는 무전보고를 받았다. 예비로 상륙한 I중대는 H중대 좌측으로 진출하여 월미도 복단을 소탕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중대는 진출간 참호 속에서 1개소대



인천상륙작전

규모의 적의 저항을 받았으며 투항을 권고하자 이들은 오히려 수류탄을 던져왔다. 이러한 적들에게는 부득이 전차가 대응하였다. 도자전차가 M26 퍼싱전차와 보병의 엄호를 받으며 적의 참호와 교통호를 밀어붙였다. 화염방사기 전차는 참호 안에 화염을 퍼부었다. 그제서야 혼이 빠진 적들은 비틀거리며 손을 들고 나왔다. 섬 안의 동굴화된 다른 진지에서도 일부 적들의 발악적인 저항이 있었으나 살아남은 대부분의 다른 적들은 이미 전의를 잃고 투항하였다. 그리고 105고지를 공격하던 G중대와 인천내항 쪽에 연한 건물지대를 소탕하던 H중대도 약간의 저항에 부딪치기는 하였으나 작전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렇게 하여 대대는 08:00에 월미도를 확보하고 섬 전반에 걸친 소탕작전은 정오쯤에 완료하였다. 월미도 상륙작전시 미 해병의 총 피해는 부상자 17명뿐이었다. 반면 제5해병연대 제3대대는 적 사살 108명을 확인하였고, 포로도 136명을 생포하였으며, 그 밖에도 150여 명이 참호 속에 매몰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해안두보 확보: 이날 만조가 다시 시작되는 오후로 접어들면서 적색해안과 청색해안에 돌격상륙할 미 해병 제5, 제1연대전투단 병력을 태운 함정들이 인천 수로를 따라 서서히 인천항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우중에도 불구하고 해병

대 및 해군 항공기는 인천 및 경인국도를 연하는 내륙지역에 대한 도로와 목표물에 대하여 계속해서 차단공격을 가하였고 해군 함포사격 지원전대는 인천항에 더욱 근접하여 맹렬한 포격을 가하였다. 이들이 폭격과 포격을 하는 동안 제5, 제1해병의 돌격상륙부대와 국군 해병 제1연대 제3대대는 수송선에서 내려 상륙주정에 옮겨타고 16 : 45에 제5연대의 상륙주정은 적색해안을 향하여 그리고 제1연대의 상륙주정은 청색해안을 향하여 각각 별도로 선정된 해상공격 개시선을 통과하였다.

17 : 33 제5해병연대의 제1과는 적색해안에 상륙하였다. 계획된 H시보다 3분이 늦은 시간이었다. 제1대대 A중대 병력이 미리 준비한 사다리를 타고 방과제로 올라갔으며 수척의 상륙정은 해군포격으로 방과제가 파괴되어 통로가 생긴 간격을 이용하여 해안에 상륙하였다. 상륙지역 좌측(북쪽)으로 상륙한 해병대는 해변 후면 교통호와 엄체호에 있는 적과 교전했는데 해병대는 지형적인 불리한 조건에서 8명이 전사하고 28명이 부상하였다.

A중대는 최초목표인 공동묘지 고지를 상륙 22분 만에 완전 탈취하였다. 한편, 제5해병연대의 우전방(남쪽) 돌격제대인 제2대대는 적의 저항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상륙 후 철로 남쪽으로 이동하여 내항부두 및 영국영사관이 있는 고지 쪽으로 진출하였다. 그중 E중대는 상륙해안에 17 : 40에 도착, 내륙의 응봉산을 향하여 진격하였다.

한국 해병 제1연대는 미 제5해병연대에 배속된 제3대대가 돌격상륙부대에 뒤이어 적색해안으로 상륙하였고 연대(-1)는 이날 해질 무렵에 같은 해안으로 상륙하여 해안가 공동묘지 부근에 집결, 숙영하였다.

제5해병연대는 좌측의 제1대대가 22 : 40에 O-A통제선을 확보하였고 우측의 제2대대가 자정(24 : 00)을 조금 넘어 O-A선에 배치가 완료됨으로써 D일 목표인 O-A선의 확보는 완료되었다.

한편, 청색해안의 미 제1해병연대는 H시보다 2분이 늦은 17 : 32에 제1과가 상륙을 시작하였으며 대부분의 병력은 높은 해변을 기어오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일부 부대는 길을 잘못 찾아 해변 좌측의 염전을 거쳐 해안에 올라갔다. 다행히 청색해안에는 적의 저항이 없었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었다. 해병 제1연대는 D일 목표인 O-1선을 그 이튿날 새벽(01 : 30)까지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렇게 하여 미 제1해병사단은 D일 아침 만조시간에 맞춰 월미도를 탈취한 데 이어, 오후 만조시간에 맞춰 인천시가지에 상륙하였고 인천을 완전히 통제

할 수 있는 O-A선 및 O-1선을 최초 계획대로 확보하였다. 이 작전에서 돌격상륙부대의 피해는 전사 21명, 실종 1명, 부상 174명이었고 상륙부대는 북한군 300여 명²⁶⁾을 생포하였다. 이날 인천에 상륙한 병력은 약 13,000명에 달했으며 450대²⁷⁾의 차량을 포함한 다량의 장비와 보급품이 양륙되었다.

9월 16일 아침 해병 제5연대와 제1연대는 07:30에 상호연결을 이룸으로써 인천의 방어선을 더욱 강화시켰고, 이들 양개 부대는 해안두보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쪽으로 계속 진출하였다.

미 해병 항공기 8대는 이날 아침 인천 동쪽 5km 지점에서 인천으로 진입하는 적 전차 6대를 발견하고 네이팜탄과 500파운드의 폭탄을 퍼부어서 전차 3대를 격파하고 보·전협동부대를 분산시켰다. 그러나 해병중조사 심프슨(William F. Simpson) 대위의 비행기가 적탄에 맞아 불타는 적 전차 옆에 추락되어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 그 후에도 전차에 대한 공중공격을 계속하여 모두 파괴하여 버렸다.

2개 해병연대는 항공기와 함정의 폭격과 포격의 지원하에 급속히 전진하여 해가 질 무렵에는 상륙지역으로부터 10km 지점까지 진출하여 이 일대의 주요 감제고지들을 완전히 탈취하였다. 이로써 인천에 상륙한 지 24시간 만에 해병 제1사단은 해안두보를 확보하였다. 해병 제1사단장은 사단지휘소를 인천시가지 동쪽에 설치하고 18:00에 공격함대사령관으로부터 작전지휘권을 인수하였다.

시가지 소탕작전: 인천시가지 소탕작전은 국군 해병 제1연대가 담당하였다. 9월 16일 아침 국군 해병 제1연대는 인천시가지 중앙을 통과하는 경인선 철도를 기준으로 남쪽지역은 제3대대가, 북쪽지역은 제1대대가 분담하여 소탕작전을 전개하였다. 제3대대가 담당한 지역은 용봉산 일대와 시가중심지였다. 상륙작전시 항공폭격과 함포사격 그리고 상륙부대의 돌격작전에서 살아남은 적은 대부분 인천지역으로부터 도주한 것으로 보였으나 도주의 기회를 놓친 상당수가 민간인으로 변장하여 주택가에 숨어 들어 있었다. 이들은 소탕작전 중 많은 수가 애국시민의 신고로 생포되었으며 일부는 전의를 잃고 자진투항하였으나 일부는 저항 또는 도주를 시도하다가 사살되기도 하였다.

전쟁초기 미처 피난하지 못한 채 집안에 숨어 있던 시민들은 파리한 얼굴로 국군을 알아본 뒤에야 밖으로 뛰쳐나와 국군을 얼싸안고 울기도 하고 큰소리로 만세를 부르기도 하였다. 시가지에는 태극기의 물결이 점점 불어나고 애국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적 치하에서 활동하던 부역자를 속속 찾아내는 등 소탕작

전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인천경찰서에 도착하여 해병들은 구치소 안에서 학살당한 무고한 시민들의 시체 100여 구를 보고 공산주의자들의 무자비한 만행에 치를 떨었다.

이날 14:30 도심지역 소탕작전을 마친 제3대대는 공설운동장 옆 도원공원에 집결하였으며, 이는 피배속부대인 미 제5해병연대의 진출에 따라 차후작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제1대대는 제3대대 지역에 비하여 주택가가 적고 대부분 공장지대로 되어 있어 소탕작전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제3대대와 거의 같은 시간에 소탕작전이 일단 종료되었다. 국군 해병 제1연대본부와 제1대대는 16:00 인천상업중학교로 이동하였으며, 제3대대는 17:30 대기 중이던 도원공원에서 동쪽으로 다시 행군하여 도화동 일대에 야간 숙영지를 잡았다.

연대는 이날 시내의 주요 공공시설을 장악하고 야간에는 시내의 요소요소에 대한 경비와 순찰을 강화하였다. 소탕작전 첫날 한국 해병 제1연대의 전과는 포로만도 181명에 달하였다.

3. 漢江으로의 進出

인천해안두보를 확보한 미 해병 제1사단은 9월 16일부터 한강으로 진격을 개시하였다. 경인국도를 기준으로 하여 북쪽지역은 제5해병연대가, 남쪽지역은 제1해병연대가 각각 담당하였다. 제5연대의 공격목표는 김포비행장이었고 제1해병연대의 공격목표는 영등포였다.

이들 양개 연대는 이날 밤 부평 일대를 감제할 수 있는 고지까지 진출하여 전투배치를 완료하였다. 그중 제5연대의 선두부대인 제2대대는 부평역 서쪽 원통이고개 일대에 배치되었다. 제2대대는 경인철도를 경계선으로 하여 그 좌측 131고지에 F중대가, 그리고 그 우측에 D중대를 배치하였다. D중대는 원통이고개 일대가 도로와 철도가 거의 직각으로 회전해야 하는 굴곡지점으로 대전차 방어에 유리한 점을 고려하여 그 전방 89고지에 중대 2.36인치 로켓포와 경기관총으로 증강된 제2소대를 전초소대로 배치하였다.

그리고 89고지 후방으로 도로를 따라 500m의 중심을 가지고 대대 3.5인치 로켓포, 연대 75밀리 무반동총, 그리고 M26 퍼싱전차가 적절한 중심을 가지고 대전차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인천상륙 3일째인 9월 17일, 아침 해가 뜨기 직전인 05:45 D중대의 전초소대는 부평 동쪽 경인국도상에서 인천 쪽으로 적 전차 6대가 접근하고 그 뒤를 보병부대가 따르는 것을 회피하게 관측할 수가 있었다. 이 소대원들은 T-34 전차 6대와 보병들이 점점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소대장의 사격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06:00 이들 보·전협동부대가 전초소대 앞을 지나 마지막 전차가 원통이오개의 직각으로 굽은 큰길을 막 꺾어 돌려고 할 때 도로와 약 70m의 거리에 자리 잡고 있던 2.36인치 로켓포조가 적 전차를 공격하였다. 뒤이어 중대의 대전차 화기와 해병부대의 전차가 적 전차를 향하여 맹렬한 기습사격을 가하였다. 앞과 뒤가 완전 차단된 상태에서 맹렬한 집중사격을 받은 적 전차는 전부 파괴되었고 전차와 같이 진출하던 적 보병들은 불의의 기습에 대응할 시간도 없이 얼떨결에 수없이 쓰러졌다. 약 250여 명의 적 보병 중 200여 명이 사살되었으며 원통이오개는 피로 물들었다. 그러나 미 해병의 피해는 단 1명이 부상하였을 뿐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

해병 제5연대는 9월 17일 아침 부평지역에서 적의 역습을 격퇴하고, 09:00경 김포비행장을 목표로 작전행동을 개시하였다. 제2대대는 경인국도를 따라 1km쯤 더 전진하다가 북쪽(왼쪽)으로 방향을 전환, 부평 동쪽지역을 거쳐 김포비행장으로 빠질 수 있는 셋길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부평을 빠져나온 보병과 전차부대는 휴대한 지도가 실제 지형과 달라 광활한 김포평야에서 진출로를 찾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였다.

대대가 E중대를 선두로 전차중대(-)와 같이 다시 김포비행장을 향하여 길을 찾아 진출하기 시작한 것은 오후 14:00였다. 대대는 전진을 서둘러 2시간 후인 16:00경 김포비행장 남쪽 5km 지점의 중간목표 106고지를 적의 별다른 저항 없이 점령하였다. 대대가 17일의 작전목표인 김포비행장을 탈취하기 위하여서는 신속한 작전행동이 요구되었다. 왜냐 하면 목표의 성질상 신속을 요하는 것이기도 하였지만 어둠이 깔리기 전에 탈취해야 되기 때문이었다.

대대장은 비행장을 향해 급히 중대를 전개시켰다. E중대가 전차 1개소대와 함께 비행장 활주로의 동쪽지역을 공격하고, D중대가 그 서쪽지역을 공격하며, 대대예비로 중앙에서 후속하는 F중대가 활주로 남쪽지역을 담당하였다. 또한 뒤늦게 합류한 전차 A중대(-)는 대대 서측방으로 보병보다 훨씬 깊숙이 진출하도록 하였다.

대대는 진격간에 활주로 남쪽 외곽지대에서 최초로 적의 사격을 받았다. 대대는 즉각 보·전협동으로 적의 자동화기 2정을 제압하였다. 비행장에 대한 돌격은 18:00쯤 되어서야 시작되었다. 돌격부대들은 여기저기서 적의 소화기 사격을 받았으나 위협적인 것은 못 되었다. 김포비행장의 적은 400~500여 명에 이르렀으나 미 해병의 신속한 진격으로 기습을 받고 활주로에 지뢰매설도 하지 못한 채 저항을 포기하고 도주하였다. 대대는 어둠이 짙게 깔리어 비행장 주변의 감제고지 등을 확보하지는 못하였지만 사실상 비행장 청사와 격납고(格納庫) 등 주요지역은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중대별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한편, 제2대대를 부천에서부터 후속하다가 비행장 못 가서 연대의 우전방으로 진출한 제1대대는 17일 19:00 소사 북쪽 5km, 비행장 동남쪽 3km 지점에 있는 71고지를 점령하고 여기에 야간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71고지를 비롯한 군소고지에 편성된 제1대대의 방어진지는 김포비행장과 김포-소사(素砂)를 잇는 간선도로를 감제할 수 있는 비교적 높은 지대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남쪽의 제1해병연대와 연결하여 군단통제선의 방어를 보강하는 역할도 하였다.

제5연대의 예비대인 제3대대는 제1대대 서쪽 4km 거리에 있는 삼정리(三井里)에 집결지를 잡았고 연대지휘소도 16:30에 부평역 북쪽으로 이동하였다.

미 해병들의 급속한 전진으로 김포비행장의 적은 황급히 별다른 저항도 못 해 보고 철수하였으나 밤이 되면서 이들은 전열을 가다듬고 역습을 시도하였다. 적은 18일 02:00부터 새벽까지 몇 차례에 걸쳐 소규모 부대로 비행장 주변 진지로 역습을 해왔다. 해병부대는 이들에게 많은 손실을 가하고 적을 격퇴하였다. 이 작전에서 전차의 역할이 컸었다.

9월 18일 오전 제5연대는 주변 수색작전을 펴 잔적을 소탕함으로써 비행장을 완전히 확보하고 연대지휘소도 비행장으로 옮기었다. 김포비행장 탈환작전간 주공을 맡았던 제2대대는 전사자 4명, 부상 19명의 손실을 입은 반면, 적 100여 명을 사살하고 10명을 생포하였다. 그리고 소제 야크기 1대를 비롯하여 3대의 적기를 노획하였다. 제5연대는 다음날까지 한강변의 개화산(131m), 118고지 등 감제고지를 모두 점령하고 한강 제방까지 진출하였다. 이 무렵, 국군해병은 인천지역 경제책임을 미 제2공병특수여단에 인계하고 부평을 거쳐 18일에는 김포비행장 서측 계양산을 점령하여 비행장 방호임무를 수행하는 한편, 미 해병과 더불어 한강을 도하할 준비를 하였다.

한편, 작전 3일째인 9월 17일 미 해병 제1연대는 제5해병연대가 부평지역을

벗어나 김포비행장으로 통하는 셋길로 들어선 후 경인국도를 따라 영등포를 목표로 한강을 향하여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연대는 북쪽에 제2대대를, 남쪽에 제1대대를 전개하고 제3대대를 예비로 하여 제2대대는 최초 경인국도와 208고지를, 제1대대가 176고지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2대대는 공격간 D, F 2개 중대가 208고지 일대에서 약 1개중대 규모로 추산되는 적의 저항을 받았으며 경인국도를 따라 공격하던 E중대는 부평 동쪽의 개활지 가운데에 있는 부개동(富開洞, 옛이름 馬墳里)²⁸⁾ 부근에서 적에 의해 진출이 둔좌되었다. 그러나 제2대대는 강력한 포병화력의 지원을 받아 208고지를 12:00경 탈취하였으며, 부개동 지역에는 연대에서 전차 B중대 1개소대로 증강한 제3대대의 G중대를 투입시켜 공격하도록 하였다. G중대를 제외한 제3대대(-)는 수륙양용 장갑차(LVT)와 수륙양용 트럭(DUKW)을 지원받아 전차 B중대(-)와 함께 기계화부대를 편성, 국도를 따라 G중대를 후속하였다.

미 해병들은 부개동 민가 사이에서 T-34 전차를 먼저 발견하고 선제기습사격으로 이를 격파한 뒤 16:00경 부개동을 확보하였다. 오후에도 제1연대의 공격은 계속되었다. 제3대대는 국도를 따라 전진하고 그 남측의 개활지로 진출한 제2대대는 철로를 중심으로 전진하였다. 이들은 국도상의 송내촌(松內村)이라는 작은 부락을 향하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적 제18사단 예비부대가 국도 주변에 대전차화기 10여 문을 배치하고 곡사화기의 지원도 충분한 양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다.

미 해병들이 송내촌 일대로 진격하자 적의 기습사격이 시작되었다. 이때 공교롭게도 미 해병 선두전차의 엔진 작동이 멎어 버렸다. 보병들은 산개하고 미 해병 전차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적과 치열한 교전을 계속하였다. 연대의 주력이 적과 교전을 하고 있을 때 항공지원을 요청받은 미 해병 항공기 편대가 송내촌 전방의 적전지를 폭격하고 로켓포와 기총사격을 가하였다.

공중지원을 받아 마침내 맨 북측의 제2대대가 먼저 송내촌 능선 끝부분을 점령하였고 경인국도상의 미 해병 전차들이 90밀리 포와 기총사격을 가하면서 돌격해 들어가자 적은 소사로 도주하였다. 제1해병연대는 18:30경까지 송내촌 능선을 완전 탈환하고 그곳에 야간방어준비를 시작하였다.

이 송내촌 전투에서 미 해병은 적의 대전차포 6문을 파괴하였고 많은 인원을 살상하였다. 한편, 미 해병도 3대의 전차가 손상을 입었다. 연대의 남쪽에서 소사방향으로 진출하던 제1대대는 208고지의 남쪽 176고지를 공격하여 이를 탈

취하고 별다른 저항을 받음이 없이 성주산 남쪽 능선까지 진출, 그곳에서 다른 대대와 같이 협조된 방어진지를 준비하였다.

9월 18일 이른 아침 제2대대와 기계화부대로 편성된 제3대대가 소사로 돌진하였다. 소사시내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적의 대전차 장애물에 봉착하여 한동안 지체하였으나 이를 신속히 제거한 뒤 적의 경미한 저항을 물리치고 오전 중에 소사를 완전히 탈취하였다.

12:00경 국도상에 전개한 전차중대의 엄호를 받으며 제2대대는 소사 동남쪽으로 진출하였으며, 제3대대는 소사 동북쪽으로 진출하여 원미산의 남쪽 123고지를 점령하였다.

소사를 점령한 후 19일에 미 해병 제1연대는 동쪽으로 진격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기동로상에 적이 매설한 지뢰로 인하여 진출이 늦어졌으나 해 질 무렵에는 영등포 바로 서측 갈천(지금의 안양천)까지 진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9월 19일에는 돌격부대로 상륙한 미 해병 제1사단과 국군 해병 제1연대는 계양산, 개화산, 갈천까지 진출하여 한강 남쪽 제방을 확보하고 서울탈환작전에 대비하였다.

후속상륙부대인 미 제7사단도 19일에는 전선에 전개하여 서울공격작전에 합류하였다. 9월 18일에 먼저 상륙한 제32연대가 19일 한강 쪽으로 진출하여 경인국도 남쪽지역의 책임을 제1해병사단으로부터 인수하였다. 당시 이 연대의 병력은 총 5,114명이었는데 이중 미군이 3,241명, 국군(KATUSA)이 1,873명이었다. 이는 인천상륙작전에서 국군 해병 제1연대, 국군 제17연대 외에 카투사가 얼마나 큰 비중을 점하고 있는가를 증명해 주는 것이다.

제31연대는 이날(19일) 인천항에 도착하였다. 제7사단의 주임무는 남쪽으로부터 서울지역으로의 적의 증원을 저지하고 낙동강전선에서 반격해 오는 미 제8군과 연결작전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한편, 미 해군은 함포로써 지상작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로체스터(Rochester)호 및 토레도(Toledo)호는 27km 사거리(김포비행장-오류동을 연하는 선)까지 좌측방의 미 해병 제1사단과 국군 해병대에 지원화력을 제공하였으며, 19일에는 미조리호가 동해안에서 인천항에 도착하여 우측방 미 제7사단을 화력으로 지원하였다.

반면에 적은 북쪽에서 일부 부대가 서울로 기동 중이었고 낙동강전선으로 향하던 제18사단도 경인지역으로 재투입하는 등 서울지역 방어태세를 강화하였다.

第2節 서울奪還作戰

1. 人民軍의防禦力強化

미 제10군단이 인천에 상륙하고 급속히 한강으로 진격해 들어오자 적군은 당황한 나머지 서울 주변의 잡다한 모든 부대들을 서울로 끌어들이고 심지어는 낙동강전선으로 이동 중인 병력을 끌어올리는 등 서울지역 방어력 강화에 동분서주하였다. 이는 김일성의 직접지시로 서해안지구 방어사령관 최용건(崔庸健)에 의해 조치되었다.²⁹⁾

이에 따라 인천상륙작전 직전 서울을 떠나 낙동강전선으로 남하 중이던 제18사단이 되돌아와 수원 부근에 잔류했던 제70연대와 더불어 경인지역 방어에 임하였다. 이때 사단은 9월 초순 신의주에서 이동해 와 서울에 막 도착한 제42전차연대를 배속받음으로써 T-34 전차 18대를 보유하였다. 또한 생포된 장교 2명에 대한 포로심문 결과 이중 1개연대 규모의 적 부대가 이미 영등포방어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³⁰⁾

또한 개성 남쪽에 위치해 있던 제107보안연대는 1개대대를 예비로 두고 부평, 김포읍, 그리고 강화 부근으로 각각 1개대대씩 전개하였다.³¹⁾ 이들의 이동상황은 9월 17일 미공군의 공중정찰에 의해 관측되었으며 9월 18일 이후 김포반도에서 체포된 포로에 의해 단대호가 확인되었다.

이 밖에도 9월 18일 이후 남쪽과 북쪽에서 서울방향으로 이동하는 다수의 적 부대가 공군에 의해 관측되었지만 주전투력이 낙동강전선에 투입된 상태여서 신편(新編) 또는 지역경비부대만이 서울에 집결할 수 있었다. 어쨌든 미 해병 제1사단이 한강도하를 준비하고 있을 무렵 서울 방어를 위해 동원된 적의 규모는 약 2만 명으로 판단하였다.³²⁾

2. 上陸軍의 서울奪還準備

(1) 漢江渡河 및 新村으로 展開

미 제1해병사단은 9월 19일까지 제5연대가 김포공항을 탈취, 확보하고 계획

대로 한강도하를 준비 중이었으며, 제1연대가 갈천까지 진출하여 영등포탈환을 준비 중이었다. 이에 앞서, 사단은 9월 18일 군단으로부터 한강을 도하, 서울 북쪽고지를 점령하라는 명령을 수령하고 같은 날 예하부대에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 작전명령의 요지는 19일 행주 부근의 도하지점을 확보한 후 20일에 한강을 도하, 125고지(덕양산; 행주산성)를 점령하고 서울로 진격하는 것이었다.

해병 제5연대에는 국군해병 제1대대를 비롯하여 사단수색중대, 전차대대 A중대, 제56수륙양용차대대 A중대가 배속되었으며, 사단공병대대, 해안대대, 수륙양용차대대가 연대를 직접 지원하며 화력의 우선권도 주어졌다.³⁰⁾

9월 19일 미 제5해병연대장은 도하작전에 앞서 대안을 정찰하기 위하여 사단수색중대에서 14명을 선발, 수영도강반을 편성하였다. 2척의 소형보트를 끌고 행주나루터를 개구리수영으로 도하하여 해안에 상륙한 것은 20:40이었다.

정찰조장 휴턴(Kenneth J. Houghton) 대위는 장교 1명과 사병 4명으로 정찰조를 편성하여 행주마을과 125고지를 정찰하도록 출발시켰다. 1시간 이상 실시한 정찰결과 적과의 접촉이 없자, 적이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정찰조장 휴턴 대위는 강 건너편 수색중대원에게 도강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잠시 후 수색중대를 실은 8척의 상륙용 주정이 도하를 시작하여 강 중간쯤 왔을 때 대안의 125고지로부터 적의 기습적인 맹렬한 사격이 가해졌다. 수영도강반이 적정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125고지를 올라간다는 것이 중간의 고지로 올라가 정찰하고 적정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던 것이다. 수색중대요원이 승선한 수륙양용주정은 갑작스런 적의 기관총사격과 박격포탄의 세례를 받고 일부는 좌초되고, 일부는 남안(南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미 해병 제5연대장은 야간 정밀도하작전이 실패하자 부득이 주간 강습도하를 결심하였다. 9월 20일 새벽, 연대는 125고지에 맹렬한 공격준비 사격을 한 후 06:45 제3대대 I중대가 선두로 도하하였다. I중대는 125고지의 자동화기와 소화기 사격으로 공격간 심한 피해를 입었으나 미 해병 전투기의 공중공격과 I중대가 혈투를 거듭한 끝에 09:40경 고지를 탈취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어 곧바로 도강한 제3대대(-1)는 수륙양용트럭을 탄 채로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고 내륙으로 진출 08:30에는 능곡(陵谷)에 도착하여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차단한 후 거기서 철도를 따라 서울을 향해 동남쪽으로 진격하였다. 이 제3대대에 이어 10:00를 기해 도강한 미 해병 제2대대는 제3대대를 초월하여 전진을 계속하였다. 이렇게 하여 이날 날이 어둡기 전까지 미 제5해병연대는 국군해병

제2대대와 배속된 전차중대까지 한강도하를 완료하였다.

국군해병 제2대대는 작일 인천시까지 경비책임에서 벗어나 김포비행장으로 이동한 후 도하준비를 하여 이날 오전 중에 도하를 완료하고 창능천 부근 95고지까지 진출하였다.

이날 공병대대는 행주나루 도하지점에 조립교를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9월 21일 아침 미 제5해병연대는 중대규모의 적의 역습을 격퇴하고 철도와 도로를 따라 수색을 경유하여 남동쪽으로 계속 전진하였다. 적의 저항은 처음에는 경미하였으나 서울로 근접해 감에 따라 점차적으로 증가되었다. 미 해병 제3대대는 신촌 북쪽의 백련산(216m)을, 미 해병 제1대대는 신촌 서남쪽의 68고지를 점령하였으며, 연대의 중앙으로 진출한 국군해병 제2대대는 신촌 서쪽의 104고지를 점령하였다. 이로써 한·미 해병대는 21일 저녁에는 백련산-104고지-68고지를 연하는 능선을 확보하고 서울의 심장부로 공격해 들어갈 태세를 갖추었다.

(2) 永登浦 奪還

미 해병 제1연대는 19일 현재 갈천까지 진출하여 제1대대가 한강과 합류지점 부근의 118고지를 중심으로 한 고지군을 미 제5해병연대로부터 인수하여 급편 방어 중이었고, 제2대대는 덕고개 일대에서 경인국도를 차단한 상태에서 영등포를 탈환하기 위해 공격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제3대대는 연대예비로써 제2대대를 후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9월 20일 새벽 이들 양개 전방대대는 영등포로 후퇴한 적으로부터 선제역습을 받아, 공격에 앞서 격전을 치러야만 되었다. 적은 이 고지들을 전날 미 제5해병연대에 괴탈당하였으며 빼앗긴 지역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강력한 전투력을 집중투입하였던 것이다. 제1대대 정면의 적 역습 부대는 갈천을 건너 대대가 미처 병력을 배치하지 못한 80고지 및 85고지를 점령하고 118고지를 향해 공격을 해왔다. 118고지에서 적을 격퇴한 제1대대는 80고지 및 85고지 재탈환을 위한 공격을 감행하였으며, 피 어린 격전 끝에 많은 희생자를 내고 85고지를 탈환하였다.

경인국도상의 제2대대 정면에 나타난 적은 1개대대 규모로서 T-34 전차 5대를 앞세워 역습을 가해 왔다. 그러나 덕고개 일대에서 도로를 중심으로 지형적인 이점을 잘 살려 중대를 배치하고 있던 제2대대는 적을 일시에 격멸해 버렸다. 날이 밝은 후 덕고개 일대에는 적 시체 300여 구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으며 적 전차 2대가 완파되고 작동이 가능한 전차 1대도 버려진 채 있었다. 이와 같이 격전을 치른 다음 미 제1해병연대는 영등포시가지를 감제할 수 있는 갈천 서방의 고지군까지 진출하였다. 해병 제1연대장은 역습을 격퇴한 직후 10:00경 연대를 방문한 군단장 알몬드 장군으로부터 영등포시가지에 대한 포격을 승인받았다. 미 제1해병연대는 사단 포병연대의 포격과 공중공격으로 인하여 영등포가 불타고 있는 것을 굽어보면서 내일의 공격을 위해 준비를 하며 그날을 보냈다.

9월 21일 새벽 영등포 공격을 위한 포병의 공격준비사격이 끝나고 06:30 영등포시가지에 대한 공격이 개시되었다. 제1대대는 85고지 일대에서 논과 갈천을 횡단하여 영등포 방면으로 진출하였는데 이때 적의 치열한 포병사격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으며, 적은 이 일대에 병력을 집중투입 논둑을 방어선으로 하여 방어진지를 편성함으로써 피아간에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다.

남쪽에서 진격하던 제2대대도 악전고투를 면치 못하였다. 노출된 우측방³⁴⁾ 고지로부터 적 박격포 및 포병화력에 많은 희생을 당하고 논과 냇가를 횡단할 때 85명의 희생자가 발생하면서 공격이 둔좌되었다.

제2대대의 전진이 둔좌되자 연대장은 이날 오후 늦게 예비인 제3대대를 투입하여 제2대대를 초월공격하도록 조치하였다. 영등포 서북단과 서남단에서 전방대대가 각각 치열한 격전을 벌이고 있을 때 제1대대 우전방의 A중대는 다행스럽게도 적에게 발견당하지 않고 갈천을 건너 정오경에는 도심까지 진입하였다.

얼마 뒤 A중대는 서울에서 영등포로 이동하는 적의 한 증원부대를 포착하고 기습사격으로 이들을 분산시키고 계속하여 영등포시가지 동쪽 적진 후방 깊숙이 진격해 들어갔다. 중대는 적 후방지역인 한강 남쪽 제방에 다다라 제방을 이용하여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해질 무렵 전방지역에서 싸웠던 적의 일부가 후방지역의 A중대에 신경을 써서인지 영등포쪽으로부터 적 전차 5대가 A중대를 공격해 왔지만 이들은 미 해병들의 3.5인치 로켓포의 사격을 받고 1대가 완파, 2대가 부분파손되고 나머지 2대만이 영등포쪽으로 사라졌다. 그 후 이날 밤에도 5차레나 적의 공격이 있었으나 모두 격퇴하였는데 익일 새벽 논둑과 도로변에는 275명의 시체와 50여 명의 자동화기가 흩어져 있었다. 적은 영등포 북단이 점령당하고 또 남단으로부터도 압력을 받자 포위를 두려워한 듯 날이 밝기 전 영등포를 포기하고 철수하였다. 미 해병 제1연대는 22일 아침 영등포시가지를 완전히 점령하고 파괴된

한강교를 감제할 수 있는 노량진 부근의 고지를 확보하였다.

(3) 安養 및 水原 確保

9월 19일 미 제7사단은 제32연대가 미 해병 제1사단 제1연대로부터 경인국도 이남의 책임지역을 인수받고 영등포 서측 6km 지점인 갈천 부근에 위치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의 임무는 미 해병사단의 우측방을 방호하고, 남쪽에서 서울로 북상하는 적을 차단 및 견제하여 서울탈환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9월 20일 연대는 동측 안양 방면으로 공격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첫날부터 적이 설치한 지뢰지대에 봉착하여 진출이 지연되었다. 이 지뢰로 인하여 연대에 배속된 제73전차대대 A중대 소속의 전차 3대가 파손되었으며 연대장의 지프차도 파괴되었다. 연대는 공병부대가 150여 개의 지뢰를 제거한 뒤에야 진출을 계속하여 9월 21일에는 독산리와 안양을 점령하였다.

이 무렵 미 제7사단 정보처 보좌관이 인솔하는 사단수색중대가 안양에 도착했을 때 “수원 남방으로 내려가 비행장을 확보하라.”는 전문명령을 받았다. 이들이 16:00경 전차 1개소대를 침병으로 하여 안양을 출발 18:00경 수원 입구에 도착하였을 때 사단작전참모가 제18전투공병대대 B중대 1개소대를 인솔하고 그곳에 도착함으로써 정찰대의 규모는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들은 곧 시내 중심부로 진입하였으며 곧 이어 벌어진 시가전에서 인민군 제105전차사단의 장교 2명을 포함하여 37명을 생포하였다. 그 후 이들은 다시 수원비행장을 찾아 남쪽으로 내려갔으나 지도를 휴대하지 않았던 탓으로 비행장을 지나친 채 수원 남방 5km 지점까지 진출하였다.

이곳에서 이들 부대는 경부도로를 중심으로 전면방어진지를 편성하여 적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그런데 이들 수색부대는 사단과의 통신이 두절되었다. 이렇게 되자 사단에서는 또 해넘(Hannum)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여 수원으로 파견, 앞서간 정찰대를 찾도록 조치하였다.

이 특수임무부대는 제73전차대대장 해넘 중령을 지휘관으로 전차 1개중대, 보병 1개중대, 포병 1개포대 및 의무대로 구성되었으며 사단정보참모도 이를 수행하였다.

이들은 이날 밤 안양을 출발, 때마침 달이 밝아 최고속도로 달려 수원으로 향하였으며 도중에 정보참모는 앞서간 정보처 보좌관과 무선접촉을 이루었다.

그러나 해남특수임무부대가 수원 성문에 도착하였을 때 잠복한 T-34 전차 2대의 기습사격을 받아 선두전차가 파괴되고 탑승했던 전차중대장이 전사하였다. 특수임무부대는 곧 반격하여 T-34 전차 1대를 즉각 격파하였으나 나머지 1대의 전차는 수원시내로 도주, 잠적해 버렸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자 해남 부대장은 야간에 다른 전차 매복의 위험을 무릅쓰는 것보다는 주간이동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이곳에서 전진을 멈추었다.

한편, 수원 남쪽에서 이들을 기다리던 사단작전참모와 정보처 보좌관은 이들과 연결하기 위해 지프차 4대에 편승하여 수원쪽으로 올라오다가 전차 4대를 발견하였다. 작전참모는 그들이 안양에서 남하하는 해남특수임무부대의 전차로 착각하고 전조등을 명멸하면서 신호를 보냈다. 그러자 그들 전차가 정지하면서 갑자기 기관총 사격을 가해 일행은 지프차에서 내려 개울가에 엎드렸으나 작전참모는 전사하고, 그 외에 많은 사상자가 속출하였다.

적 전차는 계속 남진하다가 정찰대가 배치된 지역에 이르러 정찰대 전차의 기습사격을 받아 2대가 격파되고, 2대는 수원쪽으로 도주해 버렸다.

이튿날 새벽(9. 22) 해남특수임무부대는 수원비행장에 도착하여 비행장을 확보하였다. 그 후 미 제7사단 제31연대가 수원에 도착하여 수원비행장 경계임무를 해남특수임무부대로부터 인수하였다. 정찰대는 최초 배치된 지점으로부터 수원 남쪽지역에 대한 정찰임무를 계속 수행하였고 해남특수임무부대는 안양으로 복귀하였다.

이로써 해병 제1사단은 9월 21일 제5연대가 216고지-104고지-68고지를 연하는 방어선을 점령하고 서울 심장 부근의 공격을 준비 중에 있었고, 제1연대는 22일 영등포를 점령하였으며, 보병 제7사단은 21일~22일에 안양, 수원을 점령하여 남쪽으로부터의 적의 증원을 차단하였다.

3. 서울奪還作戰

(1) 西側方 敵 主防禦線 突破

서울탈환의 주작전은 한강 남쪽에서 미 보병 제7사단이 안양과 수원을 점령하고 한강 남안에 저지진지를 편성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미 해병 제1사단의 주도로 전개되었다. 이 작전은 216고지-104고지-68고지선을 점령한 미 해병

제5연대와 국군해병 제1연대가 9월 22일에 적의 서울 서측방 방어선을 돌파하기 위하여 공격함으로써 시작되어 4일 동안 계속되었다.

당시 인민군은 서울 서측방 안산(296m)에서 56고지(연희고지)로 이어지는 능선과 의령터널고지(105m), 노고산(105m), 와우산(105m) 등 3개의 105고지로 이어지는 횡격실 능선을 중심으로 강력한 방어선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중 56고지 일대를 연희고지라 불렀으며, 이 능선 전면에는 300m~500m의 개활지가 형성되었다. 105고지는 각기 북쪽, 중앙, 남쪽 105고지라고 칭하였다.

이런 방어에 유리한 지형조건을 이용하여 적은 이곳에 서울방어를 위한 주 저항선을 구축하고 이곳에서 통과하는 경의선 철도, 경의국도를 통제하고 있었다.

여기에 배치된 적은 북한인민군 제25여단³⁹⁾과 제78독립연대⁴⁰⁾였다. 제25여단은 약 1개월 전 철원에서 창설하여 낙동강전선에 투입하기 위하여 훈련을 받고 있던 중 서울로 이동하여 19일부터 이곳에 투입되었다.

이 부대는 총 병력이 2,500명으로 보병 2개대대, 중기 4개대대, 공병 1개대대, 76밀리 야포 및 120밀리 박격포 각각 1개대대, 기타 근무부대로 된 특수편성부대였다. 또한 이 부대의 장교와 하사관의 대부분은 과거 중공군(中共軍)으로 근무한 전투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제78독립연대 역시 제25여단과 비슷한 편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9월 22일 07:00에 미 해병 제5연대는 국군해병 제1연대 제1대대를 중앙, 그 좌우측에 미 해병 제3·제1대대를 전개하고 제2대대를 예비로 보유하여 각각 의령터널고지, 안산, 와우산의 105고지를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한편, 중앙의 국군해병대는 의령터널고지 공격에 앞서 중간목표인 연희고지와 88고지를 탈취해야만 했다.

국군해병 제1대대는 공격개시선인 104고지에서 직선거리로 1km도 안 되는 연희고지를 향해 공격을 감행하였다. 적도 120밀리 박격포를 비롯하여 중기관총과 경기관총 등 온갖 화기를 총 동원하여 견고한 진지에서 해병부대에 대해 사격을 가해 왔다. 해병부대는 개활지를 횡단해야 했으며 우군항공기(友軍航空機)에 의한 폭격도 적의 방어진지를 파괴하지 못하였다. 이때 제3중대가 미 해병 전차의 지원하에 대대의 우측방으로 투입하였다. 그러나 이들도 연희고지로부터의 적 대전차화기와 기관총사격을 피할 길 없어 개활지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대대는 하는 수 없이 야음을 이용하여 공격개시선으로 물러나 다음날 다시 공격할 준비를 하였다. 이 전투에서 대대는 11명이 전사하고 45명이 부상하였

으며 후에 생포된 포로진술에 따르면 이날 적 제25여단도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좌인접 미 해병 제3대대는 이날 10:00경 296고지를 탈취하였으나 그 정상만 간신히 확보하였을 뿐 적의 병력이 집중되어 있는 그 고지 우측 능선을 점령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들도 고전하고 있는 국군해병대를 도와줄 수가 없었다.

남쪽의 미 해병 제1대대도 와우산 공격시 얼마동안은 적의 치열한 저지사격으로 공격이 둔화되었으나 가용한 포병과 박격포의 전 화력을 집중하여 이날 17:30에 많은 사상자를 내고 간신히 이 고지를 탈환하였다.

그 이튿날(9. 23) 국군해병대는 그들의 중간목표인 연희고지를 탈취하기 위하여 공격을 재개하였다. 이날은 3개중대가 모두 일선으로 나섰다. 적의 사격은 명예를 걸고 연희고지를 탈취하려는 해병부대의 각오를 간과라도 한듯 전날보다 더욱 극성스러웠다. 좌전방 제1중대(鄭滿鎭 중위)는 일부 부대를 안산 방향으로 우회시켜 개활지를 통과하려 하였고, 중앙의 제2중대(김광식 대위)는 은폐물을 찾아 개활지를 횡단하려 시도하였으며, 우전방 제3중대(이봉출 대위)는 연희고지 정면에서 공격함으로써 다른 중대보다 밀도 높은 적의 사격에 노출되었지만 각 중대는 일보일보 전진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대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이틀간의 전투에서 국군해병 제1대대가 15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진출이 둔화되자 미 해병 제5연대장은 연대의 예비로 있던 미 해병 제2대대와 임무를 교대하도록 명령하였다.

9월 23일 오후 국군해병 제1대대와 임무를 교대한 미 해병 제2대대는 국군해병 제1대대를 초월, 56고지와 연희고지를 중간목표로 보·전협동작전으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이들 역시 적의 탄막사격으로 진출은 부진하여 공격을 선도한 D중대는 많은 사상자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능선을 점령하지 못하였다. F중대의 어느 소대는 이날 저녁 총원이 7명으로 줄어들었을 정도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24일 날이 밝은 후 미 해병 제2대대는 공격을 재개하였다. D중대는 짙게 깔린 안개 속으로 기동하여 낮은 언덕을 지나 연희고지 와지선에 도달하였다. 그 순간 진지 속의 적과 조우하였다. 안개와 포연으로 인하여 그때까지 어느 쪽도 상대를 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긴장된 일순간이 지나고 격렬한 근접전투가 벌어지고 다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날 오후 D중대는 당시 총원 44명으로서 공중폭격의 지원을 받아가며 돌격을 감행하여 드디어 고지정상을 탈취하였다. 이 돌격에서 중대장은 전사하고 중대원 26명만이 결국 목표를 점령하였던 것이다.

연희고지를 점령하고 다음날인 25일 미 해병 제5연대는 공격을 계속하여 제2대대가 88고지와 중앙의 105고지인 노고산을 점령하였으며, 좌익의 제3대대는 안산에서 적의 끈질긴 역습을 격퇴하고 북쪽의 105고지인 의령터널고지를 점령하였다. 이로써 국군해병대와 미 해병 제5연대는 적의 서측방 방어선의 주요고지군을 모두 점령하였고 적의 주방어선은 붕괴되었다.

이 전투에서 국군해병과 미 해병은 다 같이 커다란 희생을 치렀지만 얻은 전과 역시 예상외로 막대하였다. 능선상의 호에는 1,200여 구 이상의 적 시체가 널려 있었다. 해병부대는 이 서울 서측방 전투에서 총 1,750명의 적이 사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미 해병 제1연대는 미 해병 제5연대가 연희고지 일대에서 치열한 전투가 전개 중인 9월 24일에 여의도 서북쪽에서 와우산을 점령한 해병 제5연대 제1대대의 엄호를 받으며 08:00부터 절두산(당산철교 북쪽) 방향으로 한강을 도하, 해병 제5연대의 작전지역으로 진출하였다.

이들은 해병 제5연대 제1대대로부터 노고산을 포함하여 서울 서측방 능선의 남단을 인수받아 해병 제5연대의 남쪽에서 마포 방향으로 공격하였다.

그리고 9월 21일 인천에 상륙한 해병 제7연대도 23일~24일에 행주나루에서 도하를 끝내고 서울 북쪽의 고지군을 가로질러 북으로의 적의 퇴로를 차단할 임무를 띠고 25일에는 해병 제5연대 좌측으로 진출하였다.

또한 이날 국군해병대는 통영지구에서 작전하던 김성은(金聖恩)부대가 25일 인천에 상륙하여 수색에서 연대본부와 합류한 후 제5대대로 개편됨을 계기로, 제1대대를 미 해병 제5연대에, 제2대대를 미 해병 제1연대에, 제5대대를 미 해병 제7연대에 각각 배속 운용하고, 제3대대는 미 해병사단의 예비임무를 수행하였다.

(2) 南東側으로부터 壓迫

미 해병 제1사단장은 최초 제5연대를 비롯하여 나머지 2개연대를 23일~24일에 도하시켜 서측방으로 전력을 집중, 적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계획대로 사

단이 서울을 점령할 태세를 갖추었다. 그러나 이 무렵 이 계획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는 미 해병 제5연대와 국군해병 제1연대 제1대대가 20일부터 실시한 서울 서측방으로의 돌파작전이 적의 완강한 저항에 의해頓挫되고 진척이 없자 초조하게 된 군단장이 서울 남측방으로 새로운 기동부대를 투입하여 양개 방향에서 포위기동으로써 신속히 서울을 탈환하겠다는 복안(腹案)을 수립한 데서 비롯되었다.

군단장은 9월 23일 해병 제1사단 사령부를 방문하여 사단장에게 자신의 복안을 설명하고 영등포를 탈환한 해병 제1연대를 서울 남쪽으로 투입하는 방안에 관해 사단장과 의견을 교환하였으나 사단장이 제1연대도 제5연대 지역으로 투입하여 사단의 계획대로 서측방에서 돌파하기를 원함에 따라, 사단장의 계획을 수용하되 24시간 내로 사단장이 돌파작전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때는 보병 제7사단 제32연대를 남쪽에서 투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해병 제1사단장은 예하의 제1연대와 제7연대를 제5연대 지역으로 집중하였지만 24시간이 지난 24일까지 서측방 방어선을 돌파하지 못하였다.

9월 24일 군단장은 오전에 미 제7사단장(David G. Barr 소장)을 만나 사단이 다음날 아침 한강을 도하 서울로 공격하게 될 것이라는 결심을 전하고 국군 제17연대장에게는 미 제32연대에 배속되어 서울을 공격하게 될 것이라고 통고하였다. 14:00 해병 제1사단장과 제7사단장이 참석한 영등포의 야전지휘관 회의에서 군단장은 “25일 06:00에 미 제32연대와 국군 제17연대가 한강을 도하하여 서울을 공격한다.”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양개 사단의 전투지경선도 변경시켰다. 따라서 25일부터는 서울의 서측과 남측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된 것이다.

이 무렵 미 제7사단 제32연대는 안양, 구룡산(292m, CS2847), 신사리(현재 신사동) 일대의 지역에서 잔적을 소탕 중에 있었다. 즉 제2대대는 22일에 한강 철교와 인도교로부터 남쪽으로 3km 지점까지 진출하였으며 사당동 부근의 무명고지(180m, CS1850)를 점령하였고, 23일에는 제1대대가 신사리에서 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구룡산을 탈취하였다. 이 고지는 한강은 물론 한강 남쪽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접근로를 감제할 수 있는 비교적 전술적으로 중요한 고지였다.

또한 24일에는 제2대대가 한강 남쪽 신사리 부근의 인민군 연대본부를 습격하여 많은 장비를 획득하였으며 한강 남쪽에서 서울로 접근하는 적 병력을 격파시키고, 한강 남안(南岸) 일대의 잔적을 소탕함으로써 그 이튿날 실시될 도하작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한편, 국군 제17연대(연대장 대령 백인엽)는 24일 08:00 상륙군 후속부대로 인천에 상륙하였으며 부평을 거쳐 흑석동 일대까지 진출하여 미 제7사단 제32연대에 배속되었다. 미 제32연대와 국군 제17연대의 임무는 먼저 남산(262m)을 탈취 확보하고, 다음으로 그 동쪽 응봉(121m)을 점령하며, 마지막으로 중앙선과 경춘도로를 감제하는 용마산(348m)을 탈취하는 것이었다. 이날 미 제187공수연대의 1개대대가 일본으로부터 김포로 공수하여 김포비행장 방어임무를 수행하였다.

9월 25일 06:00, 30분간 공격준비사격에 이어 신사리에서 서빙고로 미 제32연대 제2대대가 선두로 도하를 시작하였다. 마침 한강 일대는 짙은 안개로 대안의 적의 관측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제2대대는 인원, 장비의 손실 없이 무난히 대안에 도달하였으며 계속 남산의 중턱까지 진출하였다. 얼마 후 안개가 걷히고 시계가 확 트이자 남산과 응봉에 대한 맹렬한 공중공격이 시작되었다. 이때 제1대대가 제2대대를 후속하여 도하, 동쪽 제방을 따라 응봉 방향으로 기동하였다. 뒤이어 도하한 제3대대는 제1대대를 초월하여 정오가 조금 지나 응봉을 먼저 탈취하였다.

제2대대는 15:00경 경미한 적을 구축하고 남산 정상에 도달, 적의 역습에 대해 전면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약 1시간 뒤 제1대대가 남산과 응봉 중간지역의 낮은 고지대에 진지를 편성하였다. 미 제7사단의 한강도하작전은 분명히 기습을 달성하였고, 남산과 도하지점 일대에는 소수의 적이 평시와 같이 배치되어 있을 뿐이었다.

한편, 국군 제17연대는 미 제32연대의 도하에 이어 14:00경 신사리 도선장을 통해 보광동-한남동으로 도하를 실시하여 미 제32연대의 동측으로 기동하였다. 연대의 임무는 용마산(348m)을 점령한 다음 망우리 일대로 진출 경춘가도와 중앙선 철도를 차단, 봉쇄하는 것이었다. 연대는 제1-제2대대를 돌격제대로, 제3대대를 예비로 하여 한남동과 장충단 사이의 고개를 넘어 무학봉(93m)을 점령하고 26일 새벽 02:00에 하왕십리를 거쳐 중랑교에 이르러 중랑천 동쪽지역에 대한 소탕작전을 전개하였다. 이때 예비인 제3대대와 연대본부는 회양리로 진출하였다.

이튿날(26일) 새벽 04:30 인민군은 미 제32연대 제2대대가 방어 중인 남산에 대해 역습을 실시해 왔다. 동이 틀 무렵 방어진지 전면에서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다. 인민군의 규모는 1,000여 명이었다. 남산의 주봉은 견고한 방어태세

로 이상이 없었으나 동쪽지역이 적에게 피탈되었다. 제2대대장은 즉각 대대에 비대를 투입, 침투한 적을 격퇴시켰다. 그 이후에도 적은 한차례 더 역습을 시도해 왔지만 격퇴되었다. 이 전투 후 남산 부근에는 384구의 적 시체가 널려 있었으며 포로도 174명에 이르렀다.

(3) 市街地 戰鬪

9월 25일 미 제7사단 제32연대와 국군보병 제17연대가 서울 남쪽에서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는 동안 이날 주간까지 서울 서측방 적 방어선상의 적을 완전 소탕한 미 해병사단과 국군해병 제1연대는 일제히 서울 중심부로 돌입하였다.

이에 앞서 미 해병 제1사단은 서울 진입에 필요한 각 연대의 전투지경선과 목표표를 명시한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 이 명령에 의하면 국군해병 제2대대(대대장 金鐘淇 소령)는 미 해병 제1연대와 같이 시내 중심부를 거쳐 미아리를 점령하며, 국군해병 제1대대(대대장 高吉勳 소령)는 미 해병 제5연대와 같이 중앙청 일대의 지역을, 국군해병 제5대대(대대장 金大植 중령)는 미 해병 제7연대와 같이 서울 북쪽의 북악산 일대의 고지군을 점령하고, 국군해병 제3대대는 미 해병 제1사단의 예비로써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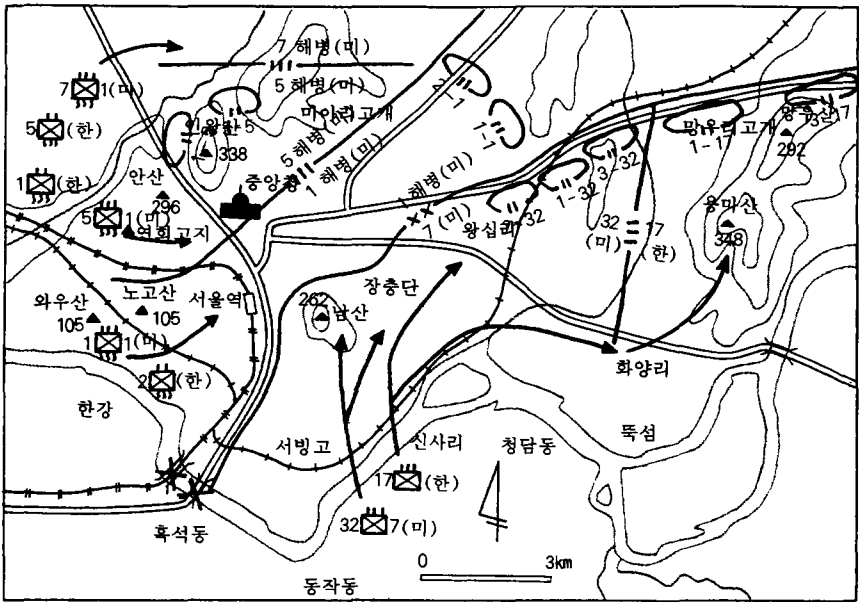
한편, 이날 저녁 군단장은 적이 서울 북방으로 퇴각하고 있다는 항공정찰정보가 입수되자 군단포병에게 미아리고개와 동대문-청량리지역에 대하여 퇴로 차단사격을 집중 실시하고, 공군에게는 야간공격을 요청하였으며 해병 제1사단에는 이들을 추격하는 야간공격 명령을 하달하였다.

그러나 해병 제1사단장 스미스 소장은 사단 정면의 적들로부터 전혀 퇴각의 징후를 찾아볼 수가 없고, 복잡한 시가지에서 상호지원 및 통제의 곤란과 불필요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야간공격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군단참모장을 통해 이는 군단장이 직접 명령한 것이므로 지체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사단장은 하는 수 없이 이날 밤 22:00경 제1연대장과 제5연대장에게 전화로 현 접촉선에서 야간공격을 실시하라고 명령하였다.

공격명령을 받은 제5연대장은 구서대문형무소 서측에서 인민군의 역습을 격퇴한 제3대대를 기간으로 하여 공격을 계속하도록 계획을 세운 다음 그 준비에 들어갔다.

그런데 바로 이때 적이 기선을 제압하려는 듯 약 200여 명의 병력으로 역습

서울탈환작전



을 가해 음에 따라 피아간에 전투가 벌어졌고 제3대대는 다음날(26일) 04 : 45 경에야 이 적을 격퇴하였다.

한편, 제5해병연대와 동시에 공격명령을 받은 제1해병연대는 26일 01 : 30부터 15분간의 공격준비사격을 가한 다음, 제3대대로써 마포 전차길을 따라 공격을 개시하도록 그 준비를 서두르게 했다. 공격준비사격이 끝나 제3대대 정찰대가 약간 전진하고 있을 무렵 이 근방에서 미리부터 역습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대규모의 적과 서로 마주치게 되었다.

01 : 53에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받게 된 연대장은 지원사격을 요청하였고 즉각 박격포와 전차 및 자동화기가 합세한 포병화력이 적의 머리 위에 약 15분간에 걸쳐 집중되었다. 이들 적은 12대의 전차와 2문의 자주포, 그리고 120밀리 박격포의 지원을 받는 약 700명 규모로 판단되었다.

적의 선두전차는 그들이 매설해 놓았던 지뢰의 폭발로 파괴되었고, 그 밖의 전차들은 미 해병의 75밀리 대전차포와 로켓포에 의해 격파되었다. 주변의 가옥과 건물들이 불길에 휩싸였으며 이 불길은 미 해병대의 전면까지 환하게 비춰 주었다. 피아의 불꽃 튀는 포격과 치열한 소화기사격은 고요한 밤의 적막을

개고 아비규환의 처절한 전쟁터로 변해 버렸다.

전투는 새벽까지 계속되었다. 날이 밝자 미 해병 제1연대는 4대의 전차와 2대의 자주포를 노획하고 적 진지에서 250여 구의 적의 시체를 발견하였다.

이와 같이 뜻하지 않은 적의 강력한 역습으로 미 해병 제1·제5연대는 밤새 야간공격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고 부대의 진출선은 전일 저녁과 변함이 없었다. 이러한 적의 강력한 저항은 그들의 서부방어선이 무너지고 남산이 점령당하자 서울의 운명이 다한 것으로 판단한 인민군사령관이 그날 밤 그들의 주력을 철수시키면서 잔류부대로 하여금 필사적인 지연작전을 펴도록 한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날 밤 남측방 국군 제17연대와 미 제32연대에 대한 적의 역습도 같은 의도에서 실시되었던 것이다. 이때 철수한 적의 주력은 제18사단이었다. 이들은 영등포지역에서 철수하여 서울에 집결 후 25일~26일 밤에 의정부 경유 철원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26일 날이 밝은 후 해병부대는 공격을 재개하였다. 미 제1연대는 마포가도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건물에서 저격병의 공격과 요소요소에 설치한 바리케이드에서의 저항 때문에 1.6km밖에 전진하지 못하였고, 미 제5연대도 안산에서 뺏은 낮은 언덕에서 버티는 적의 강력한 저항으로 조금밖에 전진하지 못하였다.

한편, 이날 제7연대는 서울 북쪽의 고지군 사이의 안부를 점령하고 서울-의정부 도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북악산을 거쳐 서울 동북쪽 미아리고개 방향으로 기동 중이었고, 일부 부대는 제5연대와 연결하기 위해 경의선 국도를 타고 남진하였다.

군단은 9월 26일까지 서울시가지의 약 반 정도를 점령하였다. 9월 27일에도 시내에서는 여전히 바리케이드를 둘러싸고 공방전이 전개되고 있었다. 바리케이드는 도심에 가까워질수록 그 간격이 좁아져 300m~350m이었으며 도로를 가로질러 설치되어 있었고 도로교차로상에는 거의 다 설치되었었다.

이 바리케이드는 마대와 빈 가마니 속에 흙을 넣어 가슴 높이 정도로 길을 막아 쌓아 올렸고 대부분 그 전면에는 대전차 지뢰가 매설되어 있었다. 그 후면에는 대전차포와 기관총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인접건물에도 적군이 배치되어 있었다.

이날 해병대의 전투는 이 바리케이드를 하나하나 격파하고 제거하는 것의 반복이었다. 해군 및 해병대 항공기가 바리케이드에 로켓과 기총사격을 가하고 보병이 박격포와 소화기 사격으로 엄호하는 동안 공병이 지뢰를 제거하며, 2~3

대의 퍼싱전차가 바리케이드로 전진하여 적의 대전차포와 자동화기를 파괴하고 바리케이드를 돌파하였다.

때때로 화염방사기 전차가 완강히 저항하는 진지를 유린하여 바리케이드 제거작업을 도왔다. 전차와 함께 또는 후속하는 보병이 전차를 방호하고 저격병을 사살하며 바리케이드가 설치된 지역을 소탕하였다. 하나의 바리케이드를 제거하는 데 1개대대의 전진이 한 시간 가까이 지연되었다.

미 해병 제1연대 제2대대는 마포에서 서울시가 중심부를 향해 진격을 계속하여 11:00경 프랑스대사관을 탈취하고 계속 전진하여 15:37에는 미국대사관에 성조기를 올렸다. 한편 동 연대 제1대대는 심한 격전 끝에 오전 중 서울역을 탈취하고 남대문 가도를 북상하던 도중 적이 구축한 수개 지역의 바리케이드에 봉착하였다.

이날 서북쪽에서 시가전을 편 미 해병 제5연대는 전날과는 달리 적의 저항이 경미한 상태에서 순조롭게 진격을 계속하였다. 북쪽의 제2대대는 아무런 저항 없이 서대문형무소를 점령하고 북쪽에서 진격해 오던 제7연대와 연결을 이루었다. 주공인 남쪽의 제3대대는 10:15에 서울중학교(현 경희궁터)와 바로 그 북쪽에 있는 79고지를 탈취하여 주목표인 중앙청을 향해서 진격하였다. 대대는



서울시가지 전투

중앙청으로 가기 위해 일단 광화문 네거리로 향하였는데 여기서 인민군은 마지막 저항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미 해병대의 화염방사기 전차는 적의 바리케이드에 접근하여 화염을 분사함으로써 그들의 끈질긴 저항을 종식시켰다.

광화문 교차로에서 전차가 바리케이드를 돌파한 후 미 제5해병연대 제3대대 G중대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서울의 심장부인 중앙청(현·박물관)을 향하였다. 27일 15:08 드디어 중앙청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미 해병 제3대대장은 중앙청에 대대지휘소를 설치하였다.

그날 오후 제3대대의 뒤를 따르던 제1대대는 서울중학교(경희궁터)에서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인왕산(338m)을 공격하여 19:00에 이를 확보하였다. 이 고지는 중앙청 일대와 서울 북단에서 서울-평양가도를 감제하는 중요한 지형 지물이다.

이 무렵 서울 북단에서 작전 중인 미 해병 제7연대는 성북동 북쪽의 343고지를 점령하고 1개대대는 북악산(342m)의 잔적을 소탕하였다.

한편, 미 해병 각 연대에 배속된 국군해병대대는 미 해병과 연합작전을 전개하면서, 특히 잔적소탕에 주력하였다. 국군해병 제1대대는 미 해병 제5연대에 배속되어 이날 서대문, 신문로, 효자동 일대를 소탕하면서 미 제3대대를 후속하여 중앙청을 점령하였고, 국군해병 제2대대는 미 해병 제1연대에 배속되어 이날 서울역을 소탕하고 미 해병과 같이 남대문을 거쳐 중앙우체국, 해군본부(회현동), 내무부(현 외환은행 본점), 시청, 덕수궁, 미국대사관(현 롯데호텔 건너편) 등을 점령 확보하고 조선히otel에 대대지휘소를 설치하였다. 또한 국군해병 제5대대는 미 해병 제7연대에 배속되어 서울 북쪽 고지군 일대에서 적의 퇴로를 차단하고 미 해병과 같이 미아리고개로 진출하였다.³⁷⁾

한편, 같은 기간에 서울 남쪽과 동쪽에서도 미 제7사단 제32연대와 국군 제17연대에 의한 시가지 전투가 전개되었다.

26일 새벽 미 제32연대 제2대대는 남산에서 적의 역습을 격퇴한 후 의곡도로를 따라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적과 조우하여 하루종일 치열한 전투를 치렀다.

제3대대는 용봉에서 용마산 방향으로 집결 중, L중대가 도로를 따라 철수하는 적의 큰 대열을 발견하고 이들에게 기습공격을 가하였다. 뒤따라 전개된 전투에서 L중대는 약 500명의 적을 사살하고 전차 5대를 파괴하였으며, 차량 40대, 포 3문, 기관총 7정 등을 노획하였고, 2개의 탄약고와 많은 피복 등을 노획 및 파괴하였다. 그리고 적의 군단급사령부로 예상되는 시설을 점령하였는데 이

는 그들의 서울 방어작전시 지휘소로 판단되었다.

한편, 26일 새벽까지 중랑천 일대에서 소탕작전을 벌인 국군 제17연대는 날이 밝아오자 연대목표를 향해 공격작전을 재개하였다. 제3대대를 주공으로 제1대대를 후속시켜 분산된 적을 구축한 후 용마산을 점령하고 오후 늦게 망우리 고개(292m)를 점령하여 경춘가도를 봉쇄하였다. 제1대대는 중랑천과 용마산 어간으로 기동하여 중랑교로부터 망우리고개 서측에서 서울—의정부 축선의 중랑천 동측을 봉쇄하였다.³⁰ 중랑천 서측에는 미 제32연대가 봉쇄하였다.

이날 밤 제1대대의 정면인 태릉 방향에서 증강된 대대규모의 적이 접근해 왔다. 이들은 아마도 서울에서 철수하는 적의 퇴로를 개척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대대는 전초(前哨)로부터 보고를 받고 적이 진전(陣前)으로 접근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적은 이곳에 병력이 배치된 것을 전혀 예기치 못하고 계속 전진하여 왔다. 23:00경 적의 대열이 화망 속으로 완전히 들어오는 순간 대대장의 사격명령이 드디어 내려졌다. 이로부터 시작된 전투는 우전방 제3대대 진지까지 확대되고 미 제32연대의 전차까지 동원되는 등 치열하게 전개되었으며 이튿날(9. 27) 새벽(03:00)까지 계속되었다. 적도 수차례 공격을 해왔지만 예기치 않은 기습을 당한 것이 치명적이어서 날이 밝자 도망하지 못한 상당수의 잔적들이 포로가 되었고 망우리 일대에는 적의 시체 500여 구가 흩어져 있었다. 이 전투에서 포획된 포로들은 대부분 17~18세 가량의 어린 학생들로서 서울에서 강제모집되어 단기간의 교육을 받고 인민군에 편입되었다는 것이다.

미 제7사단의 제31연대는 수원비행장을 확보하고 수원비행장 남쪽고지에 차단진지를 형성, 임무를 수행 중 9월 26일 22:26에 오산 북쪽에서 미8군 제1기병사단 제7기병연대 린치(Lynch)특수임무부대와 연결을 이루었다. 즉 낙동강방어선에서 반격을 시도한 미 제8군과 인천에 상륙하여 서울을 탈환 중에 있는 미 제10군단의 선두부대들이 연결작전에 성공한 것이다.

이와 같이 한·미연합부대는 상륙작전을 개시한 지 만 12일 만인 9월 27일에 중앙청을 비롯한 서울시가지의 대부분을 장악하였으며 이곳에서 끝까지 버티던 적들도 밤을 이용하여 서울에서 철수하였다. 이는 서울이 적에게 점령된 지 만 91일 만의 일이었다.

9월 28일 서울을 점령한 부대는 목표를 완전히 탈취하여 지역별로 소탕작전을 완료하고 경계를 강화하였다.

4. 政府 還都

9월 28일에 실시된 소탕작전으로 이날 낮부터는 서울은 국군과 미군에 의해 완전히 확보되었으며 서울시청은 시정(市政)을 재개(再開)할 수 있었다. 경찰은 그 기능을 점차로 발휘하기 시작하였으며 또 파괴된 건물을 정리하는 한편 공공시설을 급속히 복구하기 시작하였다.

이 당시 미 제10군단은 긴급수송된 50톤의 미곡과 적이 압류하였던 많은 양의 양곡을 풀어 굶주린 시민들에게 배급하기 시작하였다. 수복된 서울에 앞서 다투어 들어온 시민과 관료들은 자진 수복준비를 위하여 동원된 불도저로 길가에 버려진 전장의 상흔처리작업에 임하였고 또 한편 잃어버린 가족을 찾기 위해 시가지는 온통 들끓고 있었다.

9월 29일에는 서울 수복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환도식(還都式)이 거행되었다. 맥아더 장군과 그 일행은 동경을 출발 이날 10:00경 김포비행장에 도착하였으며 잠시 후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도착하여 맥아더 장군 일행과 같이 서울시내로 향하였다.

일행이 통과하는 연도에는 폭격으로 파괴되고 시가지전으로 불탄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어느새 시민들이 몰려나와 줄을 지어서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입성하는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장군 일행을 열렬히 환호하였다.

수복행사가 거행될 중앙청 식당 주변은 국군 제17연대와 해병 제1연대 그리고 일부 미 해병대가 배치되어 경비에 임하였으며 한강교로부터 서울시가지까지, 그리고 중앙청 주변의 주요고지 및 주요지역 등 외곽은 미 해병부대가 경계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수도서울의 수복 및 환도식은 당시 중앙청 중앙홀인 국회의사당³⁹⁾에서 이날 12:00를 기해 거행되었다.

식장에는 각 부처 관리와 시민대표 그리고 서울탈환에 참가한 전투부대 지휘관들로 메워져 있었다. 이 대통령은 맥아더 장군과 함께 식장에 들어와 단상에 자리를 잡았다. 식이 시작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 원수에게 태극무공훈장을 수여했다.⁴⁰⁾ 그 다음에 맥아더 장군이 유창한 목소리로 우리 군대가 인류 최대의 희망의 상징인 유엔의 깃발 아래서 싸워 한국의 고도(古都) 서울을 수복하였으며, 이제 한국정부는 이곳에서 헌법상의 책무를 보다더 잘 수행할 수 있

게 되었다고 말하고, 공산군의 침략에 분노하여 53개국이 대한민국을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요지의 연설을 하였다.⁴¹⁾

맥아더 장군의 연설이 끝나자 이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감격에 벅찬 이 대통령은 맥아더 장군의 지도력을 찬양한 다음, 연합군의 노고에 감사하고 전사한 장병의 유가족에게 위로를 보내며 승리자로서 적에게 관용을 보일 것을 바라는 내용으로 연설하였다.

연설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포성은 때때로 들려오고 있었다. 그 포성의 진동 탓인지 식장 천장에서 유리 조각이 떨어져 참석자들을 놀라게 하였으나 연설하는 이 대통령이나 맥아더 장군은 이에 개의치 않았다. 환도식은 악대도 의장대도 없었지만 참으로 감격적이고 의미심장하였다. 식이 끝난 이날 오후부터 정부는 서울에서 곧 집무를 개시하였다. 정부의 환도에 뒤이어 각 기관과 피난민도 속속 서울로 복귀하였다.

시민들은 한편으로 회복된 주권에 감사하고 해방된 기쁨에 넘치고 있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공산군에 점령당한 책임의 일부가 정부에도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적지 않았다. 즉, 납북된 사람들 가족의 심정은 매우 착잡하였으며 피난을 가지 못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공산군들에게 빼앗긴 사람도 많았다. 다행히 살아남은 시민들마저도 기아와 공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역경을 견디며 지냈었다.

第3節 洛東江線에서의 總反擊

1. 反擊計劃

(1) 敵 狀況

낙동강선에서의 반격작전은 인천상륙작전 다음날인 9월 16일에 시작되었다. 반격전야 낙동강전선의 인민군은 전선사령부를 김천에 두고 1개 전차사단 및 2개 전차여단의 지원하에 총 13개 보병사단이 마산 서측-남지-영산-창녕-현풍-왜관-다부동-영천-안강-포항선에 전개하고 있었으며, 그 병력은 약 10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미 제8군사령부는 판단하였다. 그중 왜관 남쪽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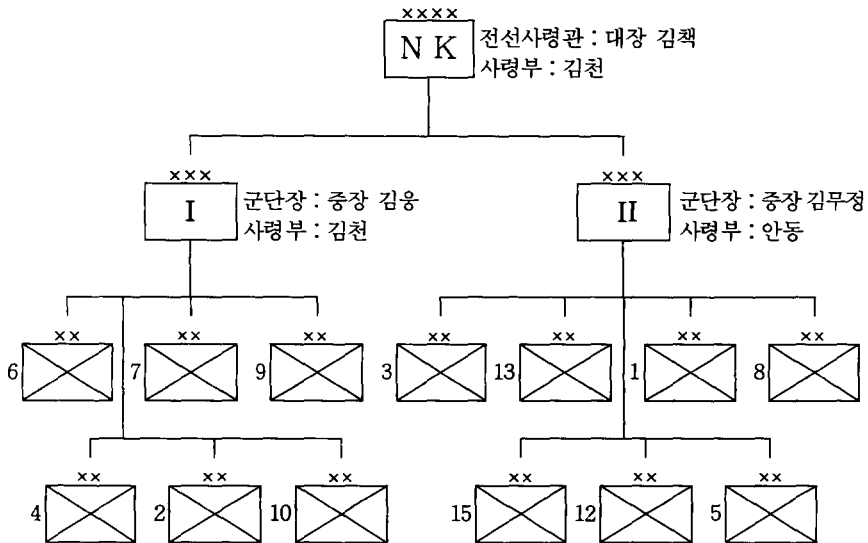
낙동강 서부지역에는 제1군단 예하 제10·제2·제4·제9·제7·제6사단 등 6개사단 47,400여 명이 배치되어 있고, 낙동강 동부지역에는 제2군단 예하 제3·제13·제1·제8·제15·제12·제5사단 등 7개사단 54,400여 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들의 병력과 장비는 약 75%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미 제8군사령부에서는 인민군이 경인지역 방어를 위해 3개사단 규모를 서울지역으로 전환배치하더라도 낙동강전선에서 그들의 진지를 방어할 능력이 있다고 믿었으며, 당시 적의 능력은 전 전선에 걸쳐 공세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고 단기간내에 그 능력이 저하되리라고는 예상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미 제8군사령부의 판단은 그 후 포로신문과 노획문서에 의해 너무나 과다하게 평가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그들의 실제병력은 7만여 명에 불과하였고 증화기 및 전차에 있어서도 편제의 50%를 넘지 못했다.⁴²⁾

또한 인민군의 사기는 아주 저하되어 있었고 사단의 원래(元來) 병력은 30%도 남아 있지 않았으며 대부분 남한에서 강제로 모집된 신병들로 채워졌는데, 이들은 기초훈련도 미숙할 뿐만 아니라 식량의 부족으로 영양실조상태에 놓여

<표 3>

북한 인민군의 전투편성표

1950. 9. 15.



있었고 아공군의 계속된 폭격으로 인한 전장공포증에 걸려 있기도 하였다. 9월 17일 창녕에서 생포된 인민군 제2사단 제17연대 군의관 손대광(35세) 소좌는 “하루 두 끼의 주먹밥으로 간신히 식사를 때우고, 탄약과 장비도 절대 부족하였으며, 수송수단도 마차를 이용하였다.”⁴³⁾고 진술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당시 인민군의 붕괴는 시간 문제임이 분명하였다.

반격 전 이들의 전투편성은 <표 3>과 같다.

(2) 我軍 狀況

9월 중순 미 제8군을 주축으로 한 유엔지상군은 대구로부터 마산까지 서남부에서, 국군은 대구로부터 포항의 형산강까지 동부에서 적군과 대치 중이었다.

유엔군은 미 제1군단이 미 제1기병사단·국군 제1사단·미 제24사단으로 대구를 방어하고 있었고, 그 남쪽으로는 미 제2사단이 창녕-영산에서, 미 제25사단은 마산에서 적을 방어하고 있었으며, 국군은 제2군단이 제6사단과 제8사단으로 신령-영천에서, 국군 제1군단은 제3사단과 수도사단이 안강-형산강에서 방어하고 있었다.

당시 이들 전투부대의 총 병력은 약 158,000여 명에 달하였으며 그중 국군은 6개사단의 약 60,000명을 비롯하여 72,730명이었고, 미 제8군은 4개사단 약 60,000여 명을 주축으로 84,478명, 영국군 제27여단의 1,693명이었다.⁴⁴⁾

미군은 참전 이후 전사자 4,280여 명을 포함하여 부상, 포로, 실종 등 2만 명에 육박하는 많은 손실을 입어 대체적으로 소총중대의 경우 고참병이 25%를 조금 넘는 정도였으며 카투사의 보충으로 병력부족을 다소나마 완화하고 있었으나 이들의 훈련미숙과 동화기간의 부족으로 전투효율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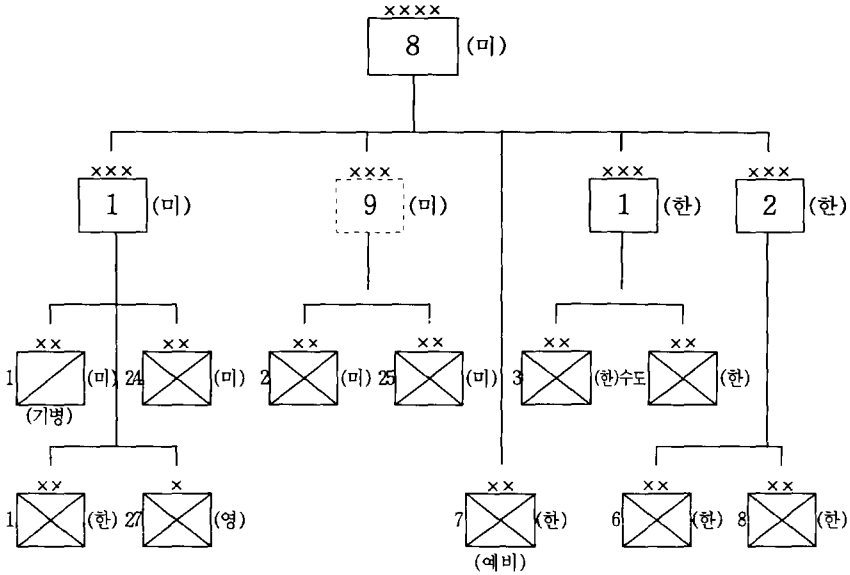
국군은 초기전투에서 많은 손실을 입고 부대의 재편과 보충을 통해 전쟁 전의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대부분 신병이어서 전투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그러나 아군은 인민군에 비해 병력 면에서 수적으로 2:1의 우세를 보였으며 기갑, 포병, 중화기 그리고 이들 화기의 탄약보급에 있어서 그들보다 6:1로 우세하였다. 또한 해·공군의 작전능력이 있어서도 비교도 안 될 만큼 우세하였으며 유엔군이 제공권과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9월 15일 당시 미 제8군의 전투편성은 <표 4>와 같다.

〈표 4〉

미 제8군 전투편성표

1950. 9. 15



* 미 제1군단

- 1950. 8. 2. 미국 Fort Bragg에서 창설.
- 1950. 8. 13. 초대 군단장(내정) 콜터(John B. Coulter) 소장이 군단참모부와 함께 도착.
- 1950. 9. 11.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제9군단과 함께 온 밀번 소장을 군단장에 임명.
- 지휘권 행사 : 1950. 9. 11.

* 미 제9군단

- 1950. 8. 10. 미국 Fort Sheridan에서 창설.
- 1950. 9. 5. 최초 군단장(내정) 밀번(Frank W. Milburn) 소장이 소수 참모만 대동하고 도착.
- 1950. 9. 11. 제8군사령관은 제1군단장 내정자 콜터 소장을 제9군단장에 임명.
- 지휘권 행사 : 1950. 9. 23.

* 국군 제7사단 육군본부 예비로 운용.

자 료 :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544~547.

(3) 反擊計劃

미 제8군은 미 제10군단의 인천상륙작전과 협조된 낙동강방어선에서의 반격 계획을 9월 6일 완성하여 도쿄의 유엔군 총사령부 승인을 얻었으며 그 후 그 계획을 일부 수정하여 작전명령으로 하달하였다.

이 반격계획은 현 접축선인 낙동강방어선을 공격개시선으로 하여 인천상륙 하루 뒤인 9월 16일 09:00에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는 것이었다. 반격개시일자를 하루 늦게 잡은 것은 인천상륙의 소식에 의해 적의 사기가 저하될 것이며 반대로 아군의 사기는 고양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미 제8군은 서부 및 서남부지역의 미군 1개군단과 4개사단이, 동부지역에서는 국군 2개군단이 일제히 반격을 개시하도록 하였으며 주공은 중앙지역의 미 제1군단에 두었다. 미 제1군단은 인천으로 상륙하여 포위기동을 실시하는 미 제10군단과 연결하는 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고, 경부국도의 양호한 도로망을 가지고 있어 기계화부대의 운용에 유리하고 보급지원이 용이한 점 등이 고려되어 주공으로 선정되었다. 미 제8군의 낙동강선에서의 반격계획 요지는 다음과 같다.⁶⁵⁾

- 8군은 현 접축선을 공격개시선으로 하여 9월 16일 09:00에 주공을 대구-대전-수원을 연결하는 축선에 두고 공세로 이전한 다음, 전진축선상의 적을 격멸하는 동시에 신속히 제10군단과 연결한다.
- 미 제1군단은 군의 주공으로서 중앙의 제1기병사단 및 제5연대전투단이 정면의 적을 격파하여 왜관 대안에 교두보를 확보한다. 이 공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좌익의 제24사단이 왜관 하류에서, 그리고 우익의 국군 제1사단이 왜관의 상류에서 각각 도하작전을 감행한다.
- 교두보를 확보하면 제24사단은 김천을 거쳐 대전으로 공격하며 제1기병사단은 제24사단을 후속하면서 보급로의 경비를 담당한다.
- 미 제2사단과 제25사단, 그리고 국군 제1군단과 제2군단은 각각 정면의 적을 공격하여 전선에 고착시키고 상황에 따라 국부적으로 돌파가 이루어지면 이를 확대하여 주공 정면의 공세를 용이하도록 한다. 특히 미 제2사단은 미 제1군단의 도하를 도울 수 있도록 도하작전을 실시한다. 돌파가 완성되면 군은 신속하게 제10군단과 연결을 유지하고 동시에 38도선으로

추격을 계속하여 남한지역에 침공한 적을 격멸한다. 이를 위하여 추격방향과 목표를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 미 제1군단은 왜관-김천-대전가도를 따라 추격하여 신속하게 제10군단과 연결하는 동시에 적 제1군단의 퇴로를 차단한다. 상황에 따라 대구-다부동-상주 축선을 사용할 수 있다. 상주에서 이 축선은 서로 방향을 바꾸어 대전 북쪽 금강에 이를 수도 있고 또는 대전을 우회하여 곧장 수원-서울로 향할 수도 있다.
- 미 제2사단과 미 제25사단은 지리산 부근을 거쳐 금강하류의 통제선을 향하여 추격한다.
- 국군 제2군단은 안동-원주를 거쳐 춘천을 향하여 추격하고 제1군단은 동해안을 따라 38선을 향하여 추격한다.

2. 洛東江線 突破作戰

(1) 大邱正面 突破作戰

낙동강에서의 역사적인 반격작전은 계획대로 1950년 9월 16일 09:00에 시작되었다. 가까스로 대구를 방어한 미 제1군단은 이제 역(逆)으로 적의 방어선을 돌파 후 군의 주공으로서 왜관-김천-대전-수원으로 진격하여 인천상륙부대와 연결해야 한다.

이때 군단은 미 제1기병사단이 대구북방 12km 지역에서 적 제3 및 제13사단과 대치 중이었고 국군 제1사단이 가산성-팔공산에서 적 제1사단 및 제13사단 일부와 접촉 중이었으며, 제24사단은 군단예비로서 경산에 집결하고 있었다. 그 밖에 전선에 갓 도착한 영국군 제27여단은 대구 서남쪽 금호강과 낙동강의 합류지역(죽곡동-신당동)에서 전투준비와 군단 서측방 경계를 하고 있었다.

군단장은 제1기병사단(제5연대 전투단 배속)으로서 대구북방 전선을 돌파하여 왜관을 점령하고 교두보를 확보한 후 예비 제24사단의 투입으로 타력을 유지, 김천 방향으로 진격하며, 제1사단은 현 접촉선에서 제1기병사단 우측방으로 공격하여 제1기병사단의 도하작전을 도울 수 있도록 낙동리 부근에서 도하를 실시 후 상주 방향으로 공격한다는 기동개념으로 돌파작전을 전개하였다.

9월 16일 아침 비가 많이 와서 예정된 공중지원도 취소되었지만 제1기병사단

은 제5기병연대가 왜관을, 제8기병연대가 다부동을 목표로 공격하였고, 배속된 제5연대전투단은 대구 서북측의 하산동 부근에서 강변도로를 따라 공격하였다. 제1기병사단장은 제5기병연대가 사단 중앙에서 북으로 공격하여 지대 내의 적을 고착시키며, 제5연대 전투단은 이의 동측방 엄호를 받아 왜관을 공격하고, 제8기병연대는 칠곡에서 다부동으로 돌파하며, 의명 사단예비 제7기병연대를 대구-왜관-다부동 도로를 따라 서측방으로 신속히 기동시켜 지대 내의 적을 포위 격멸할 복안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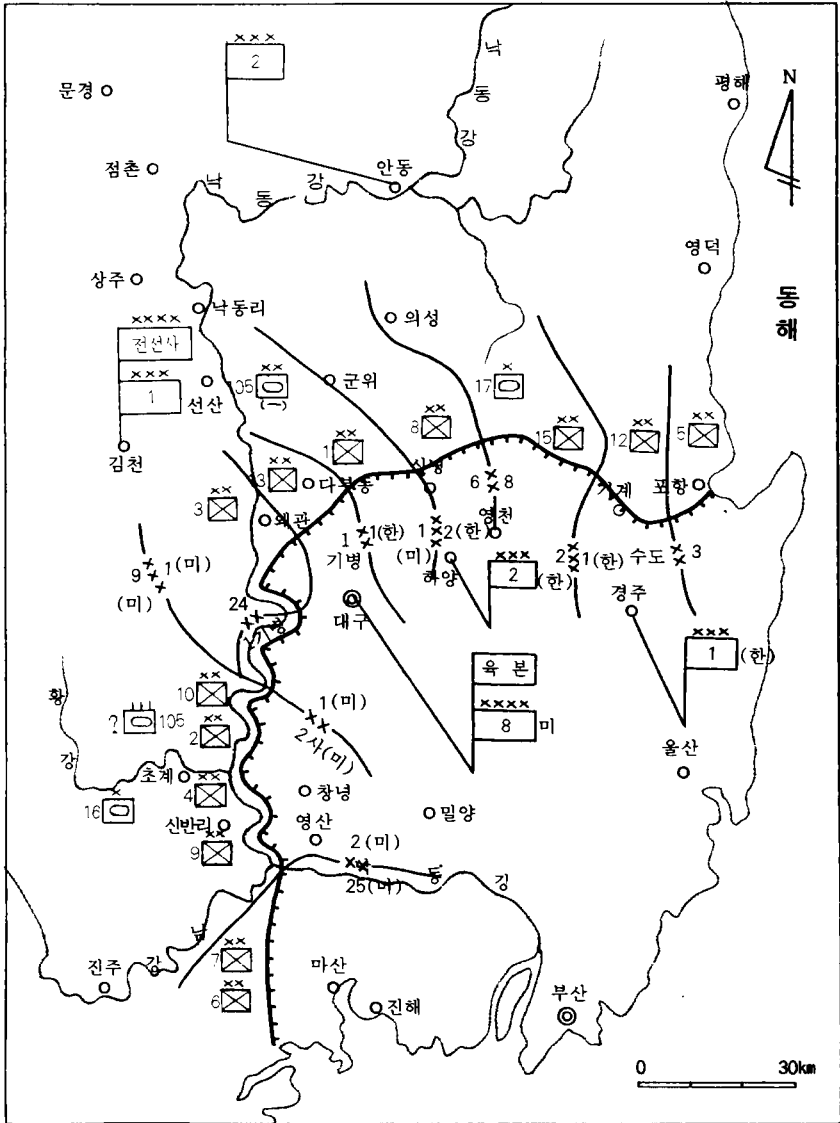
국군 제1사단도 이날 좌전방 제15연대(배속: 제11연대 제1대대)가 가산을 공격하는 동안 중앙의 제11연대(-1)는 대울동에서, 제12연대는 사단의 동측방 창평동에서 기동준비를 갖추었다.

사단장은 사단 좌전방 가산의 적을 접촉 중인 제15연대 일부로써 견제하는 한편, 사단주력은 중앙의 계곡 접근로와 동측방의 군위로 이르는 도로를 이용하여 신속히 북서쪽으로 기동시켜 다부동-군위, 다부동-상주 도로를 차단함으로써 사단작전지역의 적은 물론 군단과 접촉 중인 적의 후방퇴로를 차단, 포위할 야심적인 기동계획으로 작전을 지도하고 있다.

작전지역의 기상이 호전되자 9월 18일부터는 공중지원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날 왜관 서안 일대에는 B-29 폭격기 42대의 폭격이 실시되었으나, 주공인 제1기병사단의 전진은 진척이 없었다. 제5기병연대는 왜관 남서 5km 지점 253고지, 371고지 일대의 적의 주진지를 돌파하지 못하였고, 제8기병연대도 오히려 적의 공격을 받기도 하는 등 다부동 5km 남쪽 적의 강력히 편성된 진지에 직면하여 담보상태를 면치 못하였다. 그러나 좌익의 제5연대전투단은 왜관 남쪽 4km 금무봉(268m)으로 진출하여 이를 공격하기에 이르렀다. 이 고지는 대구-왜관 접근로상의 양측도로를 통제하며 왜관까지 관측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지형이였다.

반면 국군 제1사단은 작일 제15, 제11연대가 가산성 동측방의 횡격실 능선(583고지, 655고지)으로 진출하여 공격의 발판을 확보하는가 하면, 동측방의 제12연대는 수색작전 결과 예상전진로이며 적 제1사단과 제8사단의 전투지경선인 계곡에 적이 배치되어 있지 않음을 간파하고 신속히 작전을 전개해 나갔다. 이리하여 이날(18일) 제15연대는 가산의 적을 고착시키면서 그 우측으로 기동하여 중앙의 중요 감제고지 558고지를 점령하였고, 제11연대(-)는 이 고지 우측을 돌아 계곡접근로 중간지점 매곡동 일원으로 진출하여 배회하는 적을 격파

낙동강선 돌파작전(9. 16)



하였으며, 제12연대는 양일간에 10km를 기동하여 다부동—군위 도로상의 교차점 갈뚝을 점령하였다. 이 도로의 차단으로 가산성에 집중된 사단 전방의 적뿐만 아니라 대구 북방에 투입된 적 제1, 제3, 제13사단 전체의 동측 퇴로가 차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적진에서는 드디어 혼란이 초래되기 시작하고 철수가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다부동 남쪽에서 고착된 제1기병사단의 전진도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

제1사단의 이러한 놀라운 성과와는 대조적으로 주공인 제1기병사단의 진출은 부진했고, 특히 다부동 남쪽의 제8기병연대의 작전이 너무도 지지부진하자, 이날 제8군사령관은 군단장과 사단장에게 이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후자의 두 지휘관은 제8기병연대가 과감한 공격을 하지 않은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 이리하여 사단장은 전방 양개 연대에 사단예비에서 각 1개대대씩을 배속 조치하고, 특히 제8기병연대장에게는 다음날 19일 중으로 반드시 돌파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군단장은 제1기병사단의 진출 부진으로 인한 군단 목표달성의 지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기동계획상의 중요한 변경조치를 단행하였다. 예비인 제24사단을 군단 서측방으로 투입하고 제5연대전투단을 이 사단으로 배속전환시켜 이들로 하여금 신속히 전선을 돌파하고 김천 방향으로 전진하게 한다는 요지의 명령을 하달하였던 것이다.

제24사단장은 주간도하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손실을 피할 목적으로 야간도하를 계획하고 18일 아침 일찍 부대이동을 실시하였다. 이날 날이 저문 다음에 제5연대전투단 지역인 금남동과 하산동에서 낙동강을 도하한 다음 제21연대는 낙동강 서안도로를 따라 강을 사이에 두고 제5연대전투단과 병행하여 왜관대안으로 진격하고 제19연대와 사단수색중대는 적 제10사단의 위협에 대비하여 성주—대구 도로를 차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단이 집결지에서 도하지역으로 진입하는 데는 금호강을 건너야 하는데, 군단공병이 미리 교량을 준비하지 않아 계획에 차질을 빚어 자체 공병이 도하수단을 강구하는 동안 부대가 금호강 남쪽에서 긴 행렬을 지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초조하게 된 사단장의 독려하에 밤새도록 노력하여 앞서 제5연대전투단이 건넜던 수중교를 수리하고 또 공격단정을 획득하여 금호강을 건넜으나 부대가 낙동강 도하지점에 도착한 것은 19일 아침 05:30이었다.

안개 낀 어두운 아침, 대안에 걱정이 없는 듯하자 은밀히 도하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 대안의 고지로부터 적의 사격이 쏟아졌다. 도하는 강행되었고 날이 밝자 출격된 항공기의 지원하에 적의 진지를 공격하여 해질녘에는 강안 고지군들을 점령하였다. 사단의 도하는 모험이었으나 다행히 적의 저항이 경미하였다.

낙동강 동안(東岸)의 제5연대전투단은 이날 총력을 기울여 공지합동작전으로 금무봉을 공격하였으며, 병커를 구축하고 저항하던 인민군 제3사단 제7연대는 연대장을 비롯한 250여 구의 시체를 남긴 채 물러나고 말았다. 이로써 인민군 제2군단의 좌익이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제5연대전투단은 이 고지의 점령에 이어 속전속결로 북상하여 19일 14:15 왜관에 진입하였다. 계속된 공격에서 20일에는 왜관 북쪽의 주요고지 작오산(303고지)을 점령하고 도하지점을 확보하였다. 제1기병사단이 적에게 피탈한 지 18일 만에 되찾은 것이다. 이로써 적 제3사단의 주력을 격파한 전투단은 저녁부터 낙동강 철교 북쪽 1.6km 되는 지점에서 도하를 개시하여 왜관교두보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도하를 끝낸 제24사단은 20일 새로 배속받은 영국군 제27여단이 성주 방향의 도로를 봉쇄하고 있는 제19연대와 부대교대를 끝내자 사단의 3개연대가 강안도로를 따라 종대로 북상하여 왜관 대안의 170고지 및 그 북쪽의 고지군을 점령하였다. 드디어 제24사단과 제5연대전투단은 김천으로의 전진을 위한 교두보를 구축하였다.

한편, 이 무렵 군단의 동측 국군 제1사단지역에서는 가산성의 적이 방어를 포기한 듯 일부는 구미 방향으로, 일부는 군위 방향으로 분산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가산성의 적과 접촉 중인 제15연대는 일부 부대로 산성을 공격하는 한편, 주력은 사단의 중앙계곡을 따라 다부동-군위 도로상의 불동, 하판동까지 진출하여 조우한 적을 격파하며 남으로 방향을 돌려 다부동 방향으로 남진하였고, 중앙의 제11연대는 매곡동 부근에서 하평을 거쳐 적과 격전을 치르면서 다부동-상주 도로변 상장동까지 진출하여 적의 상주 방향 철수로마저 차단하였다. 또한 군단 우측방의 제12연대는 갈피에서 다부동-군위 도로를 감제하고 적의 철수엄호진지가 될 수 있는 서측고지(272고지, 392고지)를 공격하여 이를 점령하였다. 이로써 국군 제1사단은 적 제2군단 주력의 양개 철수로를 모두 차단함으로써 지대 내의 적을 포위 격멸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한 것이다.

이처럼 양측방에서 사실상 적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포위하며 추격작전을 펼칠 발판을 먼저 구축하고 있을 때 최초 돌파작전의 주공부대였던 중앙의 제1기병

사단은 19일 양개 연대가 각기 예비연대의 1개대대씩을 배속받아 돌격작전을 감행하였으며, 그중 제5기병연대는 격전을 벌여 광란적이며 죽음을 무릅쓰고 저항한 적을 잠재우고 253고지와 그 인접 300고지를 점령하였다. 비로소 왜관으로의 관문이 일부나마 개방되었고 이는 제5연대전투단의 왜관점령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제1대대는 207명이라는 엄청난 전투손실을 내었고 결과적으로 대대의 전투력이 30%로 저하되었다. 왜관으로의 진로가 열리자 20일에는 당초의 계획대로 예비인 제7연대가 모두 사단 서쪽으로 이동하여 왜관을 지나 그 동측도로를 개척하며 저녁에 왜관-다부동 도로상의 중간지점인 도개마을에 도달하였다. 험한 지형에 직면하자 연대장은 적이 배치되어 있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다음날 주간공격을 하기로 하고 이곳에서 야영에 들어갔다.

사단장은 제7기병연대가 신속한 전진으로 다부동 쪽의 적 후방을 공격하여 제8기병연대의 돈좌상황을 타개하고 돌파를 완결하며 지대 내의 적을 포위 격멸할 여건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차, 전진을 중단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대단히 노하였다. 그는 적전(敵前)인데도 연대장을 해임하고 제7포병대대장 해리스(William A. Harris) 중령을 새 연대장에 보직시키는 단호하고 이례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해리스 중령은 이날 밤 긴급작전회의를 통하여 작전명령을 하달하였으며, 이에 따라 21일 1개대대는 다부동에 이른 다음 남진하여 삼한동에서 제8기병연대와 연결하고 1개대대는 다부동에서 북쪽 도로를 중심으로 방어진지를 점령하였다. 제1기병사단은 당초의 계획대로 연결작전을 이루고 다부동을 점령하기는 하였으나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 포위의 성과와 작전의 기여도는 크게 부각되지 못하였다.

9월 21일 왜관에서는 제24사단 지원부대의 도하가 계속되었고 22일에는 수폭 230m, 수심 2.5m의 낙동강에 M-2 주정의 도보교가 가설되어 증장비와 차량들이 도하함으로써 제24사단은 김천으로의 진격을 선도할 태세를 갖추었다. 한편, 국군 제1사단은 9월 22일까지 제15연대가 가산을 완전 점령하고 적을 소탕하는 한편, 다부동에서 제1기병사단과 연결을 이루었고, 제11연대는 유학산 북방의 중요지형인 천생산을 점령하고 적을 소탕한 데 이어 대구에서 상주로 나아가는 도로상 옥골까지 진출하였으며, 제12연대도 대구-다부동-상주 도로상의 상림까지 진출하였다. 이미 제1사단도 지대 내의 적 제1사단과 일부 제13사단을 격퇴하고 상주 방향으로 진출할 태세에 있었다. 또한 다부동을 확보한 제

1기병사단은 부대를 재편성하여 진격작전을 준비하였다. 이와 같이 미 제1군단은 반격작전을 개시한 지 만 6일 만에 적의 방어선을 완전히 돌파하고 지대 내의 인민군 제1, 제3, 제13사단을 포위 격멸한 다음 이제 인천상륙부대와 연결작전을 위하여 진격할 만반의 준비태세로 돌입하였다.

이 작전의 결과 인민군은 9월 21일에 제1기병사단으로 투항한 제13사단 참모장 이학구(李學九) 총좌(대령)의 진술에 의하면, 방어선은 이미 붕괴되었고 전투력은 극도로 저하되어 조직이 와해 직전에 있음이 밝혀졌다.

제13사단은 전투부대로서의 능력을 상실하였고 사령부와 각 부대장과의 연락도 두절되었으며 병력은 제19연대 200명, 제21연대 330명, 제23연대 300명으로서 사단 전체가 1,500명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70~80%가 남한에서 징집된 것이다. 장비 중 전차는 전부 파괴되었고, 야포 9문, 120mm 박격포도 5문이 있을 뿐이며 차량은 30대가 가동된다. 보급품 중 식량은 1개월 전부터 반으로 줄어들었고 수송이 곤란하여 소화기 탄약조차 불충분하다. 사단은 붕괴상태에 빠져 지난밤부터 상주로 후퇴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다부동 부근에서 인민군 제13사단의 몰락 당시의 실상과 이학구 총좌의 귀순동기를 그때 인민군 제2군단 공병부부장으로 있던 주영복(朱榮福) 씨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⁴⁶⁾

사단장이 김일성의 명령을 너무 충실히 집행하다 보니까 인정 사정 없이 자기 부하들을 많이 희생시켰습니다. 이학구는 부하가 자꾸 죽는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최용진 사단장은 우리가 조금만 더 밀면 대구에 떨어지는데 전 장병이 일치단결해서 한 번만 돌격하면 뺏는다 그거죠. 부상병이 몇백 명이 널려 있어 후퇴해야겠는데 사단장의 명령이 없어요. 사단장은 물론 이학구도 유엔군이 인천에 상륙한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이학구는 사단장 보고 “이제 공격도 못 하고 그냥 앉아 있을 수도 없으니 후퇴하자.”고 하니 사단장이 “너 죽여버린다.”고 말하자 이학구가 “뭘 날 죽여? 너를 죽여야 몇천 명의 부하를 살릴 수 있다.” 하면서 이학구가 총을 쏘서 최용진 사단장의 팔에 맞았어요. “아이구 아이구” 하며 넘어질 때 이학구가 막사에서 나오면서 연대장한테 후퇴하라고 한 후 넘어왔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미군측에 귀순했어요.

이학구의 진술과 이 증언을 통해 김일성과 군수뇌부가 낙동강전선에서 무모한 독전을 강요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인민군과 남한에서 강제 징집한 의용군이

희생되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으며, 전쟁지도를 놓고 인민군 내의 내부 갈등이 폭발 직전에 이르렀음을 극명하게 증명해 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그들의 방어선을 급속하게 붕괴시켰던 것이다.

(2) 西南部地域 突破作戰

왜관 남쪽 낙동강 서남부지역에서의 반격작전은 미 제2사단과 미 제25사단에 의해 전개되었다. 이 양개 사단의 돌파작전은 제8군의 직접지휘하에 사단별로 수행되었으며, 그 후의 추격작전은 9월 23일 새로 창설된 미 제9군단의 통제하에 군단의 일부로써 실시되었다.⁴⁷⁾

창녕-영산 돌파작전 : 창녕(昌寧)-영산(靈山)에서 적의 9월공세를 저지한 미 제2사단(사단장 카이저 : Lawrence B. Keiser 소장)은 인민군 제2, 제4, 제9사단 및 제10사단 일부와 대치하였으며 쌍방 다 같이 그간의 전투손실로 전투력이 크게 약화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9월 16일 09:00 수세에서 공세작전으로 이전함에 따라 미 제2사단 장병의 사기는 왕성하였다.

사단은 우선 낙동강을 건너온 적을 구축하는 데 작전목표를 두고 현풍의 제38연대, 창녕의 제23연대, 영산의 제9연대를 그대로 공격으로 전환시켜 3개연대 병진대형으로 돌파작전을 실시하였다.

이날 아침 심한 비로 인하여 공중지원이나 화력지원 없이 공격은 개시되었으며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많은 사상자가 속출하였다. 오후부터는 날씨가 개이자 항공기의 강력한 공중지원을 받아 맹렬한 공격으로 적 진지를 파괴해 들어갔다. 드디어 이날 오후 늦게부터 적은 진지를 포기하고 낙동강을 건너 후퇴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들의 철수는 야간에도 이어져 적 제2사단사령부 및 3개 보병연대와 포병연대를 비롯하여 기타부대가 이튿날까지 계속 낙동강을 건너 서쪽으로 후퇴하였다.

17일에는 기상의 호전으로 미공군 폭격기가 베이팜탄 110갤런짜리 260개를 창녕 서쪽 낙동강 부근에 투하하는가 하면 도하하는 적에게 기총소사를 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적은 많은 중장비를 유기하고 도주하였다. 이리하여 이날 제8군 참모장은 도쿄의 유엔군사령부로 낙동강방어선 돌파에 중요한 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적이 철수하자 9월 18일 오전 제38연대의 정찰

대가 부곡리에서 강을 도하하여 대안을 정찰한 결과 적이 배치되어 있지 않음을 발견하자 본대가 도하준비를 갖추어 16:00에 폭 100m, 수심 4m의 낙동강을 기습적으로 도하하여 경미한 저항을 격퇴하고 대안의 강제고지인 308고지를 점령하는 등 교두보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이날 작전에서 제38연대는 소좌 1명을 비롯하여 132명의 포로를 획득하였으며 도하지점 모래 속에 숨겨둔 125톤의 탄약과 포장되어 있는 소총 등을 노획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 제2사단은 책임지역 내의 남단과 북단 일부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적을 제외하고는 적을 낙동강 대안으로 구축하고 동쪽지역을 전부 회복하였다.

미 제8군사령관은 미 제2사단이 도하작전에 성공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반격 3일째의 최대전과”라고 사단장에게 찬사를 보냈다. 그 이튿날 제38연대(-1)의 도하에 이어 미 제2야전공병대대가 창녕-부곡간 파괴된 교량 하류에 급히 설치한 부교로 전차 및 중장비의 도하가 가능하였다.

20일에는 두 번째 연대인 제23연대 제3대대가 낙동강 지류인 신반천(新反川)이 낙동강과 합류하는 부곡리 북쪽지점에서 공격단정을 이용한 기습도하에 성공하여 신반리 방향의 강제고지인 227고지를 점령하였으며 대안의 참호에서 잠자고 있던 인민군 중좌(중령) 1명과 그의 참모들을 생포하였다. 이때 노획한 적 지도에서 적 제2, 제4, 제9사단이 신반리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이날 오후에 낙동강을 도하한 제23연대 제1대대는 전진로상의 신반천에서 수시간을 보낸 후 이를 건너 최초 목표인 227고지 북쪽의 208고지를 점령하였다. 연대는 사전에 신반천이 있는 줄을 몰랐었다.

21일에는 제38연대가 합천으로 이르는 북쪽 전진로를 따라 초계(草溪) 부근까지 진출하였고, 제23연대는 남쪽 전진로를 따라 신반리로 전진 간 적의 강력한 저항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특히 이날 아침 제23연대 제3대대는 227고지에서 폭풍우가 내리는 가운데 식사를 하다가 1개소대가 기습을 받아 26명이 사상을 당하기도 하였다.

9월 22일에도 공격을 계속하여 미 제2사단은 제38연대 제2대대가 초계읍에 돌입하였으며 제23연대는 신반리를 목표로 전진하였으나 그 외곽에서 적 2개대대의 강력한 저지를 받았다. 이들은 적의 철수엄호부대로서 신반리에 집결 중인 그들 사단들의 부대를 정리하여 후퇴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하여 강력히 저항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미 제2사단은 이날까지 2개연대가 완전히 도하를 완료하고 교두보를 확보하여 추격작전으로 나설 수 있는 태세를 갖추었다.

마산 서부지역 돌파작전 : 낙동강방어선의 맨 남쪽인 마산(馬山) 서부지역의 미 제25사단은 인민군 제6사단 및 제7사단과 대치 중이었다.

사단은 미 제8군 반격계획에 따라 9월 16일 09:00에 최초 목표인 진주를 향하여 중앙의 필봉과 전투산 일대에 제24연대, 남쪽에 제27연대, 북쪽에 제35연대를 전개하여 3개연대 병진대형으로 진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중앙의 제24연대 지역 후방의 필봉과 전투산은 아직도 적의 점령하에 있어 8월의 킷수임 무부대 작전시 산에 은신하고 있던 적으로부터 후방을 포위당한 생생한 교훈을 안고 있는 사단으로서 이를 그대로 지나칠 수가 없었다.

이에 사단장은 제35연대 제3대대장(Robert L. Woolfolk 소령)을 지휘관으로 하는 혼성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여 진주 방향으로 전진하기 전에 전투산과 필봉을 공격하도록 하였다. 이 부대는 포병과 항공지원하에 17일~18일 양일간 맹공을 가하였으나 적의 강력한 반격에 부딪쳐 많은 희생을 입고 19일에 해체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날 아침 제24연대는 이곳의 적이 진지를 포기한 것을 발견하고 무혈점령하였다.

적은 최초 3일간 일보의 양보도 없이 완강히 저항하다가 18일 밤부터 철수를 개시하였으며 이들 중 제7사단은 제6사단의 엄호하에 남강 북쪽으로 철수하였고 그 다음 제6사단도 필봉 남쪽 서북산에서 철수하였다. 그러나 패잔병은 곳곳에서 출몰하고 있었다.

적의 철수에 뒤이어 9월 19일에 마산-진주 북쪽도로로 전진한 제35연대는 격전을 치른 후 중암리를 지나 진주 동남쪽 남강 능선까지 진출하였으며, 9월 21일에는 점령하고 무촌리를 지나 진주고개까지 진출하였다.

중앙의 야지와 남쪽의 도로를 따라 진주를 향하여 전진하는 제24연대와 제27연대는 전진로가 험하여 진출이 더디었다. 9월 22일 새벽 제24연대는 필봉 서측 둔덕 부근에서 A중대 숙영지가 적의 침투부대로부터 기습을 받아 일부 피해를 입었는가 하면 작전회의 중인 제1대대 본부에 박격포탄이 떨어져 부대 대장과 대대참모들이 부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진주고개-둔덕 일원에서는 적의 방어선을 돌파하려는 미 제25사단과 자신들의 부대를 진주 및 남강 북쪽으로 철수시키려는 적 제6사단 엄호부대 사이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3) 東部地域 突破作戰

동부전선의 국군 제1군단(군단장 김백일 준장)은 9월 15일 안강평야와 형산강(兄山江)을 사이에 두고 안강 남쪽에는 수도사단이, 포항 남쪽에는 제3사단이 경주 방향으로 돌파하려는 적 제12사단과 제5사단의 공격을 저지하고 반격으로 이전할 준비 중에 있었다.

군단은 육군본부 작명 제180호(1950. 9. 13)에 따라 제1단계 작전목표로 청송(德川洞)-영덕선을 점령하며 도평동(印支洞 남쪽 2km)-청하선을 그 중간 통제선으로 설정하였다.⁴⁸⁾

형산강(포항) 돌파작전 : 동해안의 제3사단(사단장 이종찬 대령)은 형산강 남안에 서로부터 제23, 제22, 제26연대를 전방에 나란히 배치하여 인민군 제5사단의 남하를 저지하고 있었다.

형산강은 당시 강우로 인하여 형산교 부근의 수폭이 200m에 달하여 도섭이 어려웠고 형산교 교량은 9월에 폭파되었으나 경간(徑間) 1개가 완전히 절단되지 않아 병력이 1렬로 통과할 수 있었다.

사단은 제23연대와 제26연대가 양 측방에서 먼저 도하하고 중앙의 제22연대는 제23연대의 도하를 지원한 후 도하할 계획이었다.

9월 16일, 제23연대와 제26연대에서 적정 탐색차 각각 1개소대 규모의 특공대를 형산강 북쪽 500m까지 진출시켰으나 적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철수하였다. 사단은 다음날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데도 불구하고 동해안의 함포지원하에 형산강 도하작전을 계획대로 강행하였다. 그러나 대안에 배치된 적의 주력이 도하부대에 집중사격을 가해 옴에 따라 도하가 불가능하였으며, 오후 늦게 일부 병력의 도하가 성공하였으나 적 중화기의 집중사격을 받고 견디어 내지 못하여 철수하였다. 그러나 18일에는 형산강 북안에서 완강히 저항하는 적에게 해·공군이 포격과 폭격을 하는 가운데 사단장의 진두지휘하에 실시된 도하작전에서 제23연대가 최초로 도하작전에 성공하였다. 이날 제26연대는 형산교를 건너 도하발판을 확보하였는데 교량을 건너기 위해 소대별로 측차 약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마지막에는 31명의 자원결사대가 죽음을 무릅쓰고 돌진하여 그중 19명이 교량 위에 쓰러지고 나머지가 간신히 교량북단 제방을 확보하였다. 이때 후속부대가 신속히 도하함으로써 교량북단의

적을 겨우 구축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항공기가 행한 모의 기총소사 등 공중위협도 도하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 도하의 선두에서 활약한 제26연대 제5중대 제3소대장 김관산(金判山) 소위는 교량북단 참호에서 수냉식 기관총에 발이 묶인 2명의 기관총수를 목격했는데, 그중 1명은 이미 죽어 있었고 나머지는 중상으로 의식불명이었다고 진술하였다.⁴⁹⁾

사단은 후속부대가 도하를 계속하는 한편 이미 도하했던 부대들은 치열한 격전을 치르면서 형산강 북방의 공격목표를 향하여 진출하여 20일에 제26연대가 포항을 탈환하였으며, 이때 이미 적 제5사단의 주력은 후퇴하고 일부 병력만이 주력부대의 후퇴를 엄호하기 위하여 집요한 저항을 계속하였다.

9월 21일 사단은 적 제5사단이 포항 서북쪽 5km 지점 덕순산(德順山) 일대에 지연진지를 점령하고 발악적으로 끈질긴 저항을 계속하자, 이를 우회하여 이튿날 새벽에 제22연대가 흥해(興海)를 탈환하고 중간목표인 청하(淸河)선에 진출하였다. 적 제5사단은 국군의 반격이 시작된 5~6일 동안에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타격을 입고 주력은 동해안 7번도로를 따라 울진 방향으로 후퇴 중이었으며 일부는 흥해 서북쪽 비학산(飛鶴山)으로 잠입하였다.

안강 돌파작전 : 안강(安康)의 수도사단(사단장 송요찬 대령)은 제1연대, 제1기갑연대, 제18연대의 3개연대로서 인민군 제12사단과 제5사단 제10연대의 남하를 저지하면서 반격계획에 의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수도사단은 제1단계 작전목표인 청송(덕천동)－길안(천지동) 방향으로 진격하되 우선 그 중간목표 도평동(인지동 남쪽)－대전동으로 진출하기 위해 먼저 안강·기계를 점령하여야 했다. 안강은 횡으로는 영천－포항, 종으로는 기계－경주에 이르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군사적으로 중요하며 비교적 넓은 평야가 형산강 하류를 끼고 발달되어 있다.

사단은 안강을 탈환하기 위하여 3개연대를 예비대 없이 전부 공격체대로 투입하여 안강 서측으로는 제18연대, 동측으로는 제1연대를 기동시켜 좌우측에서 협공하면서 중앙에서는 제1기갑연대로 하여금 강력한 기동력으로 직접 압박을 통한 정면을 돌파, 안강을 탈환하려고 기도하였다.

9월 16일 사단은 계획대로 반격으로 전환하였다. 제1연대는 호명리와 양동에서 안강 동북방을 공격하고, 제18연대는 감산리에서 서쪽으로 기동하여 안강평야를 굽어볼 수 있는 무릉산 북쪽의 무명고지군을 탈취하였다. 이로써 제18연

대는 안강 서북방으로 진출할 수 있는 양호한 발판을 마련하였음은 물론, 무릉산에 투입된 적을 차단할 수 있었다. 무릉산은 안강 남쪽에서 경주까지 감제 관측할 수 있는 중요 지형지물로서 적 제12사단의 주력이 배치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적이 무릉산의 방어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됨으로써 제1기갑연대의 공격 또한 순조롭게 되었다. 제18연대는 다음날 무릉산으로 진출한 제1기갑연대와 더불어 고립된 적을 포위 격멸하고 북으로의 진격을 준비하였다. 이와 같이 제18연대와 제1기갑연대가 안강을 서남쪽에서 압박하고, 제1연대가 안강 동북쪽을 점령함으로써 적은 아군에 의한 포위를 두려워한 듯 안강방어를 포기하고 그 북쪽 노당치(老堂峙) 부근으로 철수하였다.

한편, 이날 제7사단(사단장 신상철 대령)의 제8연대(연대장 김용주 중령)가 사단의 서측인 도덕산(道德山) 방면으로 진격함으로써 국군 제1군단과 국군 제2군단 경계지역의 간격을 매우게 되었다.

공격 3일째 되는 날인 9월 18일 제18연대는 버가 누렇게 익은 안강평야를 건너 서쪽에서, 제1연대는 동쪽에서 기계 방향으로 공격하였으며 이 동안 사단중양의 제1기갑연대가 안강읍에 돌입한 다음, 계속 북쪽의 기계 방향으로 진격함으로써 사단은 이제 기계탈환에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사단은 안강에서 철수한 적 제12사단 병력이 기계 남쪽의 횡격실 능선에서 강력히 저항하고 또 동측방에서는 적 제5사단 제10연대가 단구리(丹邱里) 일대에서 완강히 버텨므로 9월 21일에 가서야 좌익의 제18연대가 기계를 강제하는 이들 능선을 확보하고 도덕산(안강 북서 12km)까지 진출하였으며, 제1연대도 단구리 남쪽 고지군을 점령하였고 이에 힘입어 중양의 제1기갑연대가 노당리 북쪽 능선으로 진출하여 포병 및 항공화력의 지원하에 기계를 점령하였다.

드디어 사단은 적의 낙동강방어선을 돌파하였다. 적 제12사단은 환자들도 철수시키지 못한 채 서북쪽으로 도주하였으며 제5사단 일부 부대는 기계 북방 비학산(飛鶴山) 방향으로 사라졌다. 이날 때마침 기상이 청명하여 공지합동작전에 유리하였으며 사단장 송요찬 대령이 준장으로 진급된 날이기도 하였다.

한편 이보다 앞서 사단이 안강을 점령하고 기계로 진격하던 19일에는 신성모 국방장관이 김백일 군단장을 대동하고 경주의 사단지휘소를 방문하여 장병들을 격려했다.

6·25 이래 금일까지 불비한 장비로서 지연전을 계속하여 오늘날 이 총공격

의 태세를 갖추게 됨을 전 장병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바이다. 아군이 서울 근교에 돌입하였다고 해서 낙관은 금해야 할 것이다. 공산도배를 완전히 격멸할 때까지 용감하게 싸워 이기고 민족통일은 물론 인류평화에 공헌하여야 할 것이다.⁵⁰

(4) 中東部地域 突破作戰

중동부지역의 국군 제2군단은 9월 15일 제6사단이 신녕(新寧)에서, 제8사단이 영천에서 적 제8사단과 제15사단의 공격을 저지하고 반격작전을 준비 중이었다. 군단은 육본 작명에 따라 반격으로 이전하여 정면의 적을 돌파하고 제1단계 작전목표로 함창-예천-안동을 연하는 선을 점령할 계획이었으며, 도원동-구산동-의성을 연하는 선을 그 중간 통제선으로 설정하였다.

신녕 돌파작전 : 신녕에서 제6사단은 반격작전 제1단계 작전목표로 예천-함창선을 점령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았으며 그 중간목표는 도원동이었다.

사단은 그 동안 김종오(金鐘五) 준장의 지휘하에 적 제8사단의 공세를 필사적으로 저지하여 신녕을 방어하고 그 북쪽 갑령(甲嶺)-화산분지(華山盆地) 일대에서 공세이전의 반격의 발판을 구축하고 있었다.

사단은 반격작전을 위해 최초 갑령 서측에 배치되어 있는 제2연대(연대장 함병선 대령)와 그 동쪽 화산분지에 배치된 제7연대(연대장 임부택 대령)를 돌격 제대로 편성하고 제19연대(연대장 김익렬 대령)를 예비로 작전을 전개하되 우선 조림산(鳥林山, 638m)을 점령할 계획이었다. 조림산은 그 동쪽의 각석산(角石山, 572m)과 더불어 사단의 기동로를 가로막고 있는 지대 내에서 가장 중요한 지형지물이었다.

사단은 예정대로 9월 16일 공세로 이전하였다. 전일 조림산에 배치된 적의 공격을 격퇴한 바 있는 제2연대는 이날 08:00에 역으로 조림산을 공격하여 일진일퇴의 격전 끝에 17:30경 조림산 남쪽 349고지와 332고지를 탈환하였으며 제7연대는 21:40에 조림산 동측의 덕천까지 진출할 수 있었다. 이때 조림산에는 인민군 제8사단의 1개연대가 강력한 저항을 하고 있었다.

사단은 다음날(9. 17)에도 전날에 이어 조림산을 공격하였으나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진척이 없는데다 설상가상으로 18일에는 조림산 북쪽에 1개연대 규모

의 적 증원부대가 집결하고 있음이 포로 진술에 의해 밝혀졌다. 사단장은 예비인 제19연대를 조림산 서북쪽으로 우회기동시켜 적의 증원을 차단하는 한편, 제7연대와 협공으로 양측방에서 공격하고 제2연대는 정면에서 밀어붙임으로써 조림산을 사수하고 있는 적의 양익을 포위, 격멸하기로 하였으나 적의 저항 또한 만만치 않아 담보상태를 면치 못하였다.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자 사단장은 조림산의 지세적인 조건과 적의 완강한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 기동계획을 바꾸어 정면의 적에 대해서는 제2연대로 돌파를 시도하고, 좌측 제19연대와 우측 제7연대가 조림산 좌우의 현 진지를 확보하면서 화력으로 제2연대와 우측 돌파를 엄호하도록 하였다. 이 작전에 앞서 사단수색중대는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적정을 수집하고 적 후방을 교란 및 퇴로를 차단하기 위한 정찰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9월 21일 2개연대의 화력지원을 받으면서 실시된 제2연대의 조림산 공격은 역시 실패하였다. 조림산이 깎아 세운 절벽과 같아서 적에게 천연적인 방호력을 제공하여 주고 여기에는 적의 저항이 워낙 강하였기 때문이었다. 연대장은 정상적인 공격방법으로는 전투력의 손실만 가져올 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다른 방책을 강구하기에 이르렀다.

연대장은 이날 밤 연대 내에서 동원 가능한 차량 170대를 전부 집결시키고, 연대 기간요원을 맨 앞차와 뒷차에 나누어 승차시킨 다음, 차량 전조등을 켜 채로 군가를 소리 높여 부르도록 하면서 신녕 북쪽으로 얼마쯤 북상했다가 그곳에서 전조등을 끄고 조용히 남쪽 원지점으로 돌아온 다음 다시 전과 같은 차량행군을 반복케 하는 기만전법을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이는 적으로 하여금 아군이 조림산을 공격하기 위해 대규모 증원부대가 신녕 북쪽으로 전진하고 있는 것으로 오관하도록 하려는 양동작전이었다.

이때 좌측의 제19연대와 우측의 제7연대는 담당정면의 적이 조림산 쪽으로 증원하지 못하도록 고착 견제하고 있었다.

함병선(咸炳善) 대령이 지휘하는 제2연대는 양동작전이 끝나고 22일 날이 밝자 조림산을 공격하였는데 적은 이미 철수하고 없어 완강히 저항하던 진지를 무혈점령하였다. 연대장은 기발한 양동작전이 성공하여 더 이상 출혈 없이 신녕 북쪽의 중요지형인 조림산을 탈취한 것이다.⁵¹⁾

사단은 반격작전 6일 만에 단지 2~3km 밖에 전진하지 못하였으나 적의 주방어선을 돌파하고 전진로상의 최대의 장애물을 제거하였다.

구산동 돌파작전 : 영천을 탈환한 제8사단(사단장 이성이 준장)은 제2군단의 계획에 따라 반격을 개시하여 제1단계 작전목표로 안동을 탈환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으며 그 중간통제선은 구산동(九山洞)-의성이었다. 하지만 제8사단의 첫 과제는 기동로상 동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적 제15사단이 점령하고 있는 기룡산(騎龍山, 961m)과 보현산(普賢山, 1124m)을 탈취해야만 하였다. 이곳은 이미 앞서 8월~9월에도 격전이 치러졌던 곳이다.

9월 16일 사단은 제10연대를 기룡산 남쪽 고지군에, 제21연대를 영천-구산동 도로축선에 전개하고 제16연대를 사단에비로 하여 기룡산, 노고령(보현상 서측고개)을 최초 목표로 하여 반격작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쏟아지는 폭우로 말미암아 험준한 산악지대를 기동해야만 하는 공격부대들은 작전상 많은 지장을 받게 되어 그 이튿날까지 큰 진전이 없었다.

이 무렵 제21연대 제6중대 정찰조는 17일 새벽 하송동(下松洞) 일대로 침투하여 적정을 수집 중에 노고령을 향하여 달리는 1/4톤 차량을 습격하고 부상한 인민군 총위(대위) 1명을 생포하였다. 대대로 후송하여 그의 상처를 응급조치해 주려고 군복을 가위로 자르는 순간 그 속에서 문서가 나왔다.

이는 적 제73연대에서 그들 상급부대인 제15사단사령부로 보내는 공문서로 “병력과 장비 그리고 탄약이 부족하여 도저히 현 방어선을 지탱하기 어려우니 철수시키기를 결정하여 주기 바란다.”²²⁾ 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사단에서는 그 문서에서 얻은 첩보와 적정을 비교 분석한 끝에 지금이야말로 적을 격멸할 수 있는 호기로 판단하고 전방 2개연대로 하여금 즉각 공격을 재개하여 48시간 내에 부여된 목표를 탈취하라고 명령하는 한편, 사단에비인 제16연대도 기룡산 서북쪽의 보현산을 목표로 부여하고 전방 양개 연대의 간격으로 투입하였다.

이리하여 9월 18일 제10연대는 기룡산을, 제16연대는 보현산을, 제21연대는 노고령을 목표로 공격을 재개하였다. 그러나 동측의 제10연대는 기룡산에 배치된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백병전까지 벌였으나 끝내 적의 방어진지를 돌파하지 못하였다. 다음날 기룡산 주봉(主峰) 공격을 담당한 제1대대장이 기동계획을 수정하여 전방 2개중대는 전날과 같이 정면에서 공격하여 기룡산 남쪽 능선상의 적 주력을 고착 견제하도록 하고 예비중대를 적의 배치가 허술한 서측으로 우회 침투시킨 전술이 주효하여 이날 정오경 기룡산 주봉을 점령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날 오후 적이 스스로 철수함에 따라 좌·우측의 제2대대와 제3대대도

손쉽게 목표를 점령할 수 있었다.

사단의 서측에서 노고령을 목표로 공격하던 제21연대장은 우측방 보현산에 배치된 적 제73연대의 위협으로 진출에 부진을 면치 못하던 중 사단예비의 투입으로 적의 저항이 약화되는 기미를 포착하고 연대주력이 노고령 정면에서 교전하여 적의 주력을 고착 견제하는 동안 우측방으로 우회 기동시킨 제1대대(대대장 채명신 대위)의 기습이 성공하여 19일 아침에 목표를 무난히 탈취하였다.

한편, 사단예비로 있다가 투입되어 20일까지 보현산 남쪽 818고지를 점령한 제16연대는 노고령의 피탈소식을 전해 들은 보현산의 적이 퇴로차단을 두려워한 듯 그 북쪽으로 철수함으로써 21일에 보현산으로 진출하였다.

적 제15사단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노고령을 점령한 제21연대는 주변의 잔적을 소탕하고 주보급로에 대한 적의 위협을 제거하던 중 인접부대가 보현산으로 진출하자 북쪽으로 공격을 재개하여 22일 오전에 구산동을 탈취하였다.

이와 같이 제8사단은 영천 북쪽의 전술적 요지인 기룡산과 보현산을 탈취한 데 이어 작전의 중간통제선인 구산동을 점령함으로써 추격작전의 발판을 구축하였다.

3. 38線을 향한 追擊作戰

국군과 유엔군은 반격개시 1주 만에 인민군의 낙동강방어선을 돌파하였다. 인민군의 전선사령부는 최초 인천상륙에도 불구하고 대구 또는 부산 점령이라는 망상을 단념하지 못한 듯 낙동강전선에서 강력한 저항을 계속하였으나, 9월 18일 북쪽에서는 김포비행장이 상륙부대의 수중으로 들어갔는가 하면 남에서는 낙동강 서안에 유엔군의 교두보가 형성되고 다부동 서측방이 돌파되면서 방어선에 균열의 징후가 현저하게 나타남으로써 현 전선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중대국면을 맞게 되었다.

결국 김일성은 차후작전을 위한 주력부대의 보존을 목적으로 낙동강 전선부대를 축차적으로 철수시켜 금강과 소백산맥선에 새로운 전선을 형성하도록 지령하였고 예비대를 확보하여 경인지역과 낙동강전선의 연계를 이루도록 강조하였다. 전선사령관은 이에 따라 대전에 전선예비, 김천에 서부지역 예비를 확보하고 제2군단으로 하여금 왜관을 사수하고 동부전선에서 국군과 유엔군의 전진

을 견제하는 동안 제1군단을 포함, 서부지역 부대를 우선적으로 전환시킨다는 기도하에 9월 19일부터 주력부대의 철수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다음날에는 왜관이 완전히 피탈되고 포위되는가 하면 국군이 포항에 진입하면서 자신들의 제2군단 전선의 피탈이 급속히 진전되는 가운데 드디어 21일에는 인천상륙 소식이 전 전선에 전파되자, 그들의 전의가 극도로 상실되어 독전의 총부리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고 22일부터는 전선이 붕괴되어 갔다. 이제야 허황된 꿈을 깬 김일성은 새로운 전선형성 구상도 단념하고 9월 23일 전선사령부로 전 부대의 북으로의 후퇴명령을 내리었던 것이다.⁵³⁾

한편, 제8군사령관은 9월 22일 상황보고와 포로진술에 의해 적의 전선이 붕괴되고 있음을 간파하고 전선의 돌파에 이어 적의 부대를 추격하여 전과 확대를 작전을 전개해 나갈 결심하에 아래 요지의 총공격명령 이른바 ‘추격명령’을 하달하였다.

- 전 전선에 걸쳐 적의 저항은 현저하게 저하되었으므로 군은 총공세를 펴려 한다. 예하부대는 적진으로 중심 깊이 침투해 들어가고 적의 약점을 이용하여 포위기동을 통해 적의 계획된 후퇴를 차단하고 적을 격멸할 수 있도록 철수로를 봉쇄하여 적을 파괴하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 미 제1군단은 주공을 대구-김천-수원 축선에 두고 제10군단과의 연결을 이룬다. 제2사단은 합천-거창-안의-전주-강경 축선으로 무제한 공격을 실시한다.
- 제25사단은 군의 남측방에서 진주를 점령하고 의명 서쪽 또는 북서방향으로 공격을 준비한다. 한국군은 책임지역 내에서 중심 깊은 돌파와 포위기동으로써 적을 격파한다.

이 명령에서 “모든 지휘관들은 필요한 곳에서는 측방경계를 고려함이 없이 진격해도 좋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한편 이날 제8군은 제9군단(군단장 : John B. Coulter)이 다음날 부로 제2, 제25사단을 작전통제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명령도 하달하였다.

같은 날 육군본부는 제8군과 협조하여 다음 요지의 작전명령 제191호를 하달하였다.

제1군단 : 주공은 청하-영덕-평해 축선을 따라, 조공은 인지동-천지동-춘양 축선을 따라 무제한 공격을 실시한다. 그 후 의명 북방 혹은 서

북방으로 이동할 준비를 갖춘다.

제2군단 : 주공은 도원동-함창-충주 축선을 따라, 조공은 의성-안동-영주 축선을 따라 무제한 공격을 실시한다. 그 후 의명 북방 혹은 서북방으로 이동할 준비를 갖춘다.

육군본부와 제8군사령부는 이 명령에 의한 작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도하기 위하여 명령을 하달한 다음날인 9월 23일에는 부산으로부터 대구로 이동하여 지휘소를 개소하였다.

(1) 仁川上陸部隊와 連結作戰

반격작전의 주공인 미 제1군단의 임무는 신속한 전진으로 인천에 상륙한 미 제10군단과 연결하여 낙동강 서부지역에 투입된 인민군 제1군단을 포위하고 이로써 동·서로 양단된 적 지상군을 한·미군이 각개 격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미 제1군단은 당초 제1기병사단으로 하여금 왜관을 점령하고 교두보를 확보하게 한 다음 미 제24사단을 선봉으로 제1기병사단을 후속으로 김천-대전으로 진격할 계획이었으나 돌과작전시 초래된 상황의 변화로 먼저 왜관교두보를 확보한 제24사단(배속 : 미 제5연대전투단, 영 제27여단)을 김천-대전 방향으로, 제1기병사단을 이 축선의 동측 상주-보은-청주-천안-오산 방향으로 투입하며, 국군 제1사단을 군단예비로 기병사단을 후속하도록 기동계획을 바꾸어 추격작전을 전개하였다.

다부동 전선을 돌파하고 9월 22일 추격명령을 받은 미 제1기병사단장은 예하의 제7기병연대를 특수임무부대로 편성하고 이를 선두로 추격작전을 전개하기로 기동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제7기병연대장은 제1, 제3의 2개대대와 배속받은 전차 및 포병부대 등으로⁵⁴⁾ 제777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고 이중 린치(James H. Lynch) 중령의 제3대대에 전위임무를 부여함과 더불어 미 제70전차대대 C중대 2개소대, 제77야전포병대대(-1) 중박격포중대 제3소대, 제8야전공병대대 B중대⁵⁵⁾ 그리고 연대정보수색소대와 1개 전술항공통제반을 배속하여 별도의 린치특수임무부대를 구성하였다.

9월 22일 08 : 00, 제1기병사단은 린치특수임무부대를 선두로 다부동을 출발하여 북상하였다. 린치부대는 전차를 선두로 도중에 조우한 소규모 적은 거의

무시한 채 전진하여 15:45에 최초 도하하려던 선산에 도착하였다. 대대는 이에 못미처서 연락기로부터 낙동리 도하지점으로 계속 북상하라는 메시지를 받은 바 있어 이를 대구의 사단장에게 보고하였으며 18:00에 확인통보를 받았다.

하얀 달빛을 받으며 다시 행군을 계속하여 22:30경 낙동리 도하장을 굽어볼 수 있는 강가의 돌출부에 도착하였을 때 선두 전차병이 전방의 대전차포를 발견하여 전차포 사격을 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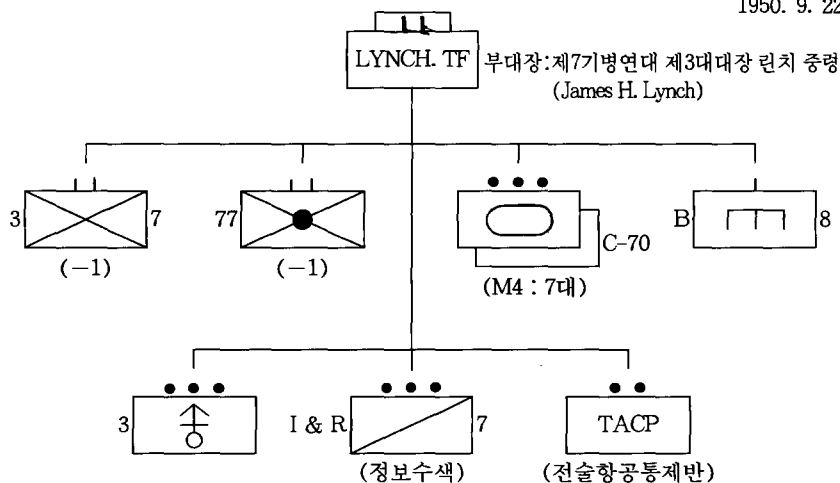
전차포탄이 은폐시켜 둔 적의 탄약차에 명중되어 포탄이 폭발하는 대화재가 일어났다. 이 우연한 일격으로 인한 화염은 주위를 밝게 비추었고 전차병들은 그곳에서 적이 버린 전차, 트럭, 기타 차량들이 산재해 있는 것을 보았는가 하면, 수백 명의 적군이 수중교를 건너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린치특수임무부대는 즉각 이들을 공격하여 약 200여 명을 수장시켰다. 이 부대는 도선장에서 가동 중인 적 T-34 전차 2대, 차량 50대, 포 10문 등 수많은 장비를 노획하였다. 포로진술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적 제3사단 소속이며 제1 및 제13사단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

〈표 5〉

린치특수임무부대 편성표

1950. 9. 22.



- 자료 : • Appleman, *South to the Nakdong, North to the Yalu*, pp. 590~591.
 • 국방부, *한국전쟁사*(4권), p. 209.
 • 제3대대장의 이름을 따서 '린치특수임무부대'라고 칭하였다.

9월 23일 새벽 린치부대는 낙동리 도하지점에서 허리에 차는 강물을 도섭으로 건너 교두보를 확보하였으며 적의 저항은 없었다. 이 부대는 다부동을 떠난 지 22시간 만에 적 전차 5대, 차량 50대, 야포 20문, 오토바이 6대 등을 노획하였고 500여 명의 적을 사살 또는 생포하였다. 이날 특수임무부대의 제1대대는 낙동강을 도하한 후 상주로 추격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적은 이미 철수한 다음이었다.

사단 공병대는 9월 24일 낙동리 도하장에서 전차 및 차량을 도하시킬 수 있도록 노무자 400여 명과 함께 적이 사용한 낡은 수중교를 개수하기 시작하여 이날 오후에는 전차통행이 가능했다.

전차부대가 도착하자 연대장 해리스 중령은 린치특수임무부대를 충북 보은으로 출발시켰다. 사단은 선두인 제777특수임무부대가 보은에 머무는 동안 24~25 양일간에 다른 부대를 상주 및 낙동리지역에 집결시켰다. 25일 황혼 무렵 사단장은 더 이상 진출하지 말라는 군단장의 전문지시를 받고 이에 항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군단과의 통신이 되지 않아 사단장은 연락기로 메시지를 군사령관에게 보내어 수원 남방의 미 제10군단과 연결을 위하여 주야 강행군으로 추격할 것을 승인받았다. 사단장은 9월 26일 정오에 진격을 재개하여 수원 부근에서 제10군단과 연결할 때까지 주야로 기동을 강행한다는 결심하에 아래와 같이 명령을 하달하였다.

제777특수임무부대는 보은-청주-천안-오산가도를 따라 다시 추격을 계속하고 사단사령부와 포병부대는 그 뒤를 후속한다. 제8기병연대는 충북 괴산을 거쳐 안성으로 진격한다. 제5기병연대는 사단 후위제대로서 조치원을 거쳐 천안에 진출하여 남쪽 및 서쪽에서 후퇴하는 적을 격파하면서 차기 명령을 대기한다.

제777특수임무부대의 선두인 린치부대는 최선두에 연대 수색소대와 제70전차대대 C중대 제3소대를 위치시켰으며, 제3소대장 베이커(Baker) 중위는 린치 중령으로부터 전차가 낼 수 있는 최고속력으로 전진할 것과 사격을 받지 않는 한 대응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는 계획보다 30분 앞서 11:30에 보은을 출발하여 전속력으로 전진을 계속하였으며 적의 저항은 없었다. 다만 질주하는 이 미군 전차부대를 구경하는 주민들은 환성을 울릴 뿐이었다.

베이커부대는 이날 오후에 청주를 지나 18:00에 충북 진천 서남방의 사암리

도로교차점 부근에서 휘발유가 떨어져 잠시 멈추었다. 계속 진격을 위해서는 부족한 전차연료를 조종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전차 6대 가운데 3대의 전차에서 휘발유를 거두어 다른 3대의 전차에 급유를 하였을 때 어둠 속을 3대의 적 트럭이 접근해 왔다. 미군 전차부대임을 알게 된 적은 트럭을 버리고 도주하였다. 전차병들은 적 트럭에 실려 있는 휘발유를 나머지 전차에 충분히 급유할 수 있었다.

해리스 연대장은 린치 중령에게 대대장의 판단하에 차량의 불을 켜고 야간에도 계속 전진하도록 지시하였다. 여기서부터 대대장은 베이커 전차소대를 연대 수색소대보다 더 앞으로 내세우고 또 다른 전차소대는 후위로 배치한 다음 20:00 진격준비를 마치고 출발하여 잠시 후 20:30에는 경부국도와 교차점인 천안삼거리에 도착하였다. 베이커 중위는 지형을 몰라 그곳 도로변에서 적병에게 “오산?” 하며 길을 묻기도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천안으로 물리고 있던 적병들은 모든 것을 체념하고 미군이 통과하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면서 저항도 하지 않았다. 베이커 전차대는 천안을 지나 중대병력의 적을 기관총으로 격파시키면서 계속 진격하였으며, 진격도중 나타나는 노상의 적 차량과 교량경계병 그리고 소부대들을 그냥 놓아두고 오산을 향하여 급히 진격하였다. 이처럼 선두 전차대의 신속한 전진으로 멀리 뒤떨어지게 된 린치특수임무부대장은 침병의 속도를 늦추도록 하려 하였으나 무선교신이 거리가 멀어 미치지 못하였다. 할 수 없이 대대장은 보병 1개소대와 3.5" RKT반을 차량화하여 새로이 침병을 편성하였다. 점차 적 소집단과의 교전도 심화되고 또 빈번해졌다. 이들이 오산 남쪽 16km 지점에 이르렀을 때는 전방으로부터 전차 및 야포의 사격소리도 들려왔다. 린치 중령은 부대에 소등을 하고 전진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베이커 전차대(3대)는 대대장의 지시도 받지 못한 채 최대속도로 전진하여 오산에 돌입하였다. 오산 북방에 진출하였을 때 본대가 뒤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무선교신이 안 되었다. 베이커 전차대는 오산 북방 5~6km 지점(죽미령 일대)에서 갑자기 사격을 받았다. 베이커 중위의 전차가 돌진하는 순간 미군전차인 M26 전차의 궤도가 눈에 띄었다.

이 순간 그의 전차에 대한 사격이 더욱 치열해졌다. 대전차 포탄이 3번전차의 기관총좌에 맞아 비껴 나가는 바람에 전차병 1명이 전사하였다. 베이커 중위의 전차대는 지금 미 제10군단의 우군 전선으로 진입하고 있는데, 우군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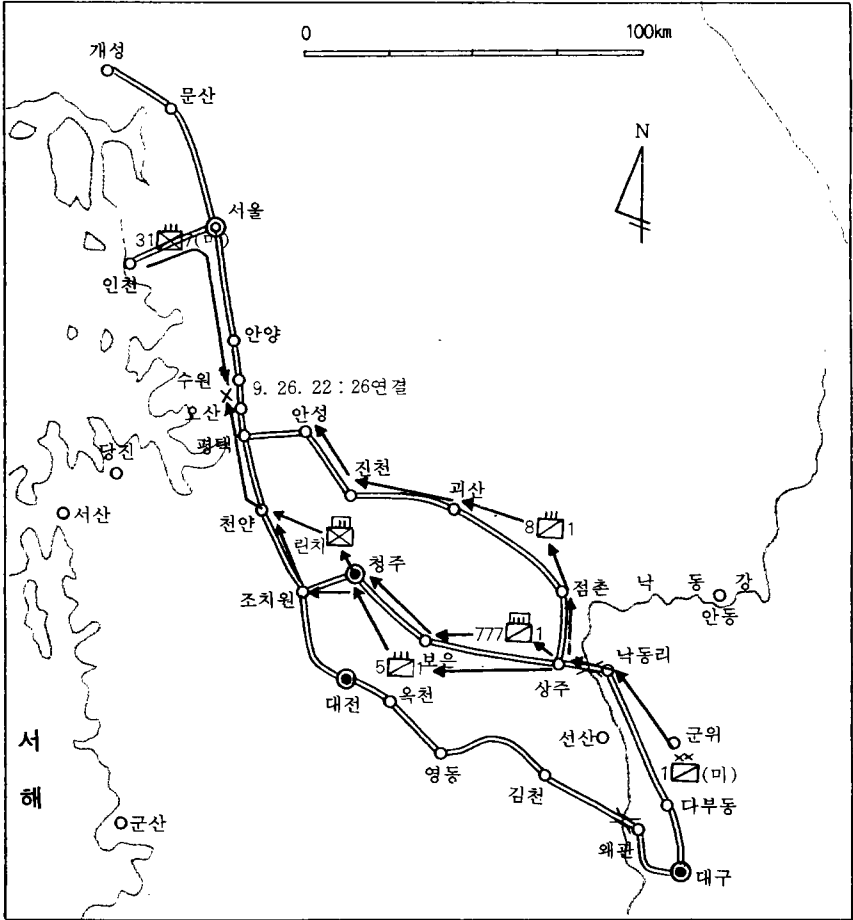
부터 소화기, 75밀리 무반동총 사격을 받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곧 전방에 배치된 미군이 사격을 중지하였다. 그것은 베이커 전차대의 과감한 돌진속도, 엔진 소리, 전조등의 불빛 등으로 적의 전차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전방의 한 전차장은 베이커 중위의 2번전차를 사격하기 위해 1번전차를 통과시키고 던진 백린수류탄이 터지는 순간에 흰별 표시(미군 표시)를 보고 우군임을 식별함으로써 가까스로 비극을 모면할 수 있었다. 드디어 베이커 전차대는 이곳에서 미 제10군단 예하 미 제7사단 제31연대와 접촉하게 된 것이다. 이때가 9월 26일 22:26,³⁰ 보은을 출발 장장 11시간 만에 걸쳐 170km를 달려 감격의 순간을 맞이한 것이다.

양개부대 장병들은 서로 부둥켜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으며, 제1기병사단은 낙동강방어선의 다부동을 출발한 지 5일 만에 미 제8군과 제10군단 간의 연결 작전에 성공한 것이다.

베이커 전차대의 돌진과 상륙부대와의 접촉은 대단한 행운이었다. 그때 적의 전선은 오산 북쪽에 형성되고 있었으며 죽미령의 미군진지와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았다. 베이커 중위는 오산 남쪽에서 적의 강력한 전차부대를 관통하고 적 전선을 지나 죽미령으로 진입하였던 것이다. 분명히 적은 야간이어서 부대식별을 하지 못해 이 부대를 자신들의 부대로 오인했음이 틀림없었다. 뿐만 아니라 죽미령에서 남쪽으로 방어하고 있던 제31연대는 전방도로에 설치해 둔 대전차화기와 대전차치뢰를 베이커 전차대의 접근 직전에 오산 북방의 적을 선제공격하기 위하여 제거하였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반격부대가 연결을 위하여 북상하고 있다는 통신을 받았기 때문에 방어부대는 접근하는 부대의 피아식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도 행운을 얻는 데 일조가 되었다. 양개부대간에는 교신이 되지 않았으나, 이날 오후에 제8군사령관이 수원비행장에 도착하여 제31연대 참모들과 작전을 협의하면서 36시간 내로 반격부대를 만나게 되리라는 점을 언급하였었다.

한편, 후속하던 린치특수임무부대의 본대는 차량등을 끈 채 전진을 계속하던 중 9월 26일 자정쯤 오산에 못미처서 적의 전차대를 만나 치열한 격전 끝에 이들을 격파시키고 9월 27일 08:00 오산에 도착하였다. 잠시 후 08:26 제1기병사단 제7기병연대 L중대 병사와 제7사단 제31연대 H중대 병사가 오산 바로 북쪽 교량에서 서로 만났다. 미 제1기병사단장도 이날 정오 전에 오산에 도착하여 미 제7사단 제31연대 지휘관을 만났다. 이리하여 미 제1기병사단은 인천상

미 제1기병사단의 인천상륙부대와 연결작전



육군과의 연결작전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으며 서남부지역에서 퇴각 중인 인민군 제1군단의 퇴로를 차단시켰다. 그 후 사단은 수원-청주-괴산-상주 일대에서 이들을 소탕하며 병참선 경계임무를 수행하였다.

(2) 大田 奪還作戰

배속된 미 제5연대전투단과 함께 왜관교두보를 확보한 미 제1군단의 주공 미

제24사단은 9월 23일 왜관—김천간 경부국도를 따라 제21연대를 선두로 3개연대 종대대형으로 북서쪽의 김천을 향하여 추격작전을 전개하였다. 이는 잦은 부대교대로써 전투부대의 추격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복안에서 나온 것이었다.

적 제105전차사단은 후퇴하면서 요소요소에 그들의 전차를 위장하여 매복시켰으며, 도로상에는 대전차지뢰를 매설하고 대전차포를 배치하여 아군의 추격을 방해하였다.

이날 사단에 배속되어 성주(星州)를 향하여 공격하던 영국군 제27여단은 적과 교전 중에 우군 항공기의 오폭을 받아 60여 명의 사상자를 내는 큰 피해를 입었으며 그 이튿날 성주지역으로 계속 공격하였다.

이튿날 새벽 미 제24사단 제19연대 제1대대는 왜관—김천 간의 국도상 부상삼거리에서 남쪽으로 공격하여 성주를 탈환하였고 시가지 아래쪽에서 영 제27여단과 연결하였다. 미 제19연대와 영국군 제27여단은 그 다음날인 25일까지 성주 부근의 잔적을 소탕하였다. 여기에서 영국군 제27여단은 미 제24사단으로부터 배속이 해제되어 미 제1군단의 직접지휘로 들어갔다. 이날 포로로 잡힌 군의관 진술에 의하면, 성주 부근의 적 제1군단은 탄약이 떨어지고 차량의 연료가 부족하자 포를 땅 속에 묻고 도주하였으며 사단의 병력은 총 병력의 25% 밖에 안 되며 적 제1군단장(김웅 중장)은 예하 전 부대에 후퇴명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한편, 미 제5연대전투단은 24일 새벽에 미 제21연대를 초월하여 김천으로 진격을 선도하였다. 연대전투단은 김천 외곽 월천동 140고지 능선에서 적과 조우하였다. 김천에는 인민군의 전선사령부와 제1군단사령부가 위치했던 곳이며 지금 후퇴하는 여러 부대가 집결 중이었다. 적은 이들 부대의 후퇴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9사단, 제105전차사단의 잔류부대, 제849독립대전차연대를 그 전방에 투입하여 강력한 지연전을 펴으로써 쌍방간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이 전투에서 미 제24사단은 M-46 중형 패튼전차 6대를 격과당하였고, 적 T-34 전차 8대를 격과시켰다. 또한 적 제849연대는 미공군의 공중폭격과 미군 전차의 공격으로 사실상 전멸되고 말았다. 제5연대 전투단도 100여 명의 사상자를 내었다.

9월 25일 미 제21연대와와의 협공으로 미 제5연대전투단이 김천에 돌입하여 시가지 전투를 전개하였다. 저녁에 제21연대는 국도를 따라 서쪽방향으로 공격을 계속하였다.

김천시가 피탈되자 저항은 사라졌고 적은 패주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 이튿날 후위의 제19연대가 선두로 나서 저항을 받음이 없이 영동에 돌입하였으며, 27일 새벽에는 옥천까지 진격하였다. 이날 아침 사단은 대전을 향하여 진격을 개시하자 곧 옥천 서쪽고지에 구축된 적의 강력한 지연진지에 봉착하였고, 선두전차는 적의 대전차지뢰에 의해 파괴되었다. 적은 대전 입구인 이곳에서 마치 김천 남쪽에서처럼 강력히 지연전을 전개함으로써 대전으로 모여드는 그들 패잔병들이 철수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려 하였다. 예상했던 대로 대전은 영남과 호남지방에서 후퇴하는 적의 집결지로서 여러 부대의 병력과 장비가 혼잡을 이루면서 패주하기에 바빴다. 대전 동남쪽 전투에서 이날 적 7개 사단 소속 패잔병 300여 명을 포로로 하였으며, 적의 전차는 13~20대를 파괴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되던 날인 이날 오후 16:30 제19연대 제2대대 정찰대와 미 제3야전공병대대 C중대가 대전 외곽에 도달하였고 한 시간 후에는 공병이 지뢰를 제거하자 연대 주력부대가 시가 중심부에 돌입하였다. 이들 양개부대는 10주 전인 7월 20일 대전을 철수할 때 가장 늦게 대전에서 철수하던 부대였으며 사단장을 잃고 패주하던 그때의 쓰라린 심정을 가슴에 새기면서 이제는 통쾌한 승리의 미소를 띠고 힘차게 들어갈 수 있었다.

대전의 탈환으로 제24사단의 추격작전 목표는 달성되었으며, 소탕작전에서 9월 말까지 이 사단은 정확히 헤아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포로를 획득하였고 다수의 장비도 노획하였다.

그러나 곧 장병들은 참극의 현장을 발견하고 승리의 기쁨보다도 잔악한 공산군의 만행에 치를 떨지 않을 수 없었다. 제24사단 장병들은 소탕작전 중에 대전비행장 부근에서 손을 뒤로 묶인 채 500여 명의 국군이 집단학살되어 매몰되어 있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또 9월 28일부터 일주일 동안 대전시내에서 5,000명 내지 7,000명으로 추산되는 민간인, 17명의 국군, 40여 명의 미군이 살해되어 매장된 것을⁵⁷⁾ 찾아내었다.

그들은 지난 7월 20일 대전을 점령하자 소위 그들이 말하는 반동분자, 즉 애국시민, 관리, 저명인사들을 대전형무소와 천주교 교회당에 집단수용하였다. 그 후 패색(敗色)이 짙어지자 유엔군이 낙동강을 도하하던 9월 21일부터 적은 후퇴에 앞서 양민학살지령을 집행하기 시작했으며 손을 뒤로 묶은 후 100명 또는 200명 단위로 미리 파놓은 호에 끌고 가서 총으로 사살하고 집단매장을 하였

다. 유엔군이 9월 26일 대전 부근에 근접하자 공산 내무서원들은 사태의 긴박함을 느껴 몸서리치는 집단학살을 더욱 서둘러 대전철수 직전까지 감행한 것이었다. 많은 희생자 중에서 미군 2명, 국군 1명, 민간인 3명 모두 6명이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그들의 이 만행을 증언하였다.

이들은 다행히도 죽지 않고 상처만 입어 산 채로 매장되었다. 푸석푸석한 흙에 얽게 묻힌 2명의 미군 생존자는 구멍을 내어 숨을 쉬었으며, 그중 1명은 연필로 구멍을 뚫고 숨을 쉬면서 버티다가 함께 묶이어 죽은 전우의 시신이 부분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바람에 수색요원에게 발견되어 죽기 전 구출된 것이다.

미 제24사단은 대전탈환 후 낙동강에 이르는 161km에 달하는 병참선 경계임무를 맡았다. 제19연대가 대전에서 금강선까지, 제21연대는 대전에서 영동까지, 제5연대전투단은 김천을, 사단수색중대는 왜관 교량을 경계하였다.

후방지역 소탕작전: 국군 제1사단은 추격작전간 미 제1군단 예비로써 낙동강을 도하하여 선산-상주로 전진하라⁵⁸⁾는 군단 명에 의하여 9월 25일 낙동리에서 도하를 완료하고 추격작전의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다.

사단은 미 제1기병사단을 후속하여 선산-상주-보은을 거쳐 미원(米院)으로 진출하면서 낙동강전선에서 소백산맥의 험한 준령을 따라 월북을 기도하는 적 제2, 제3, 제4, 제7, 제9사단⁵⁹⁾ 등 여러 사단들의 패잔병을 추격하여 그들의 퇴로를 차단하고 소탕하였다. 사단은 계속해서 증평, 괴산, 진천, 음성 등에서 잔적 소탕작전을 실시한 다음 청주로 집결하여 부대정비와 훈련을 실시하는 등 차후작전을 위해 준비를 하였다. 돌파 및 소탕작전 기간 중 사단의 전과는 적 사상 4,543명, 포로 5,211명, 각종 포 36문 등이었으며 피해는 전사 355명, 부상 1,023명, 실종 77명이었다.⁶⁰⁾

(3) 錦江線 遮斷作戰

낙동강 서남부 전선에서의 추격작전은 미 제9군단에 의해 전개되었다. 군단은 예하의 제2, 제25사단으로서 낙동강 서안에 확보한 교두보와 남강 남쪽에 구축한 공격의 발판으로부터 추격작전을 전개, 강경(江景)을 점령하고 금강선을 확보하여 경부축선 서부지역의 적의 퇴로를 차단한 후 지대 내에서 포위되고 양단된 적을 각개 격파한다는 계획이었다.

추격명령이 하달된 9월 22일 미 제2사단은 초계와 신반리 외곽에서 대치 중 이었고 미 제25사단은 진주를 목전에 두고 접전 중이었다.

강경 점령 : 미 제2사단의 추격작전 목표는 합천(陝川)－거창(居昌)－안의(安義)－전주(全州)를 거쳐 강경을 점령하는 것이었다. 이 사단은 9월 23일에 제23연대가 신반리를 점령하였으며 작일 초계를 점령한 제38연대는 합천을 목표로 진격도중 적의 지연 작전부대와 격전을 치렀다. 이때 신반리에서 저항하던 적 제2, 제4, 제9사단은 일부는 이미 합천을 통과하였고 나머지는 이곳으로 집결 중이었다.

그 이튿날 사단은 제38연대의 합천공격에 신반리를 점령한 제23연대를 그 동남쪽으로 투입하여 양익포위작전으로 합천을 공격하였다. 제38연대는 합천－김천도로를 차단하여 시내를 미처 빠져 나가지 못한 적을 격멸하였고 제23연대가 25일 낮에 합천에 돌입하였다. 이날 공군은 쫓기며 우글대는 적에게 53회의 출격을 가하였고 제38연대는 도로차단지점에서 300여 명의 적을 격멸한 후 야간에 시내로 진입하였다.

다음날 일출과 더불어 제38연대가 거창으로 진격하였다. 거창에 이르는 연대 정면에는 최현(崔賢) 소장이 지휘하는 적 제2사단이 차량과 증장비를 모두 버리고 무질서하게 급히 후퇴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병력은 약 2,500여 명 정도로 추산되었다. 제38연대는 노상에서 대전차포 14문, 야포 4문 등 다수의 장비를 노획하고 450여 명을 생포하는 등 많은 전과를 올렸으며 이날 무려 47km를 추격하여 거창 외곽까지 다다랐다.⁶¹⁾

9월 26일 08:00 제38연대는 거창에 진입하였으며 곧 이어 제23연대도 합류하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적 45명이 수용되어 있는 야전병원을 점령하였다. 포로 심문에 의하면 적은 이곳에 패주하는 제2, 제4, 제9, 제10사단을 집결시켜 최후의 반격을 시도하려고 계획하였으나 미 제2사단의 전진속도가 너무 빨라 그 계획이 좌절되었다는 것이다.⁶²⁾ 미 제23연대는 저녁에 진격을 계속하여 저항을 받음이 없이 안의에 도착하였다. 연대는 주변이 물에 잠긴 논이어서 부득이 마을 소로에서 숙영을 하고 있던 중 다음날 새벽 채 철수하지 못하고 주변에 은신해 있던 적이 쏜 야포와 박격포탄에 제3대대 지휘소가 명중되어 부대대장을 비롯한 대대참모 등 6명이 전사하고 대대장과 사병 25명이 부상하였다.

9월 28일 새벽 거창을 출발한 미 제38연대는 안의를 경유 소백산맥을 넘어

경미한 저항을 물리치며 무려 117km를 9시간 반에 걸친 차량행군을 강행하여 13:15 전주에 도착하였다. 미 제38연대는 전주에서 적 제102, 제104경비연대 300여 명 중 100여 명을 사살하고 170여 명을 생포하였다. 미 제38연대는 이동안 차량연료가 부족하여 고충을 받고 있었으나 마침 상공에 도착한 연락기의 조종사가 이를 간파하고 사단과 군단에 연락함으로써 연료보충을 받을 수 있었다.

9월 29일 미 제38연대는 전주를 출발 논산을 거쳐 다음날 새벽 03:00에 강경에 도착함으로써 사단의 추격작전 목표를 달성하였다. 이로써 사단은 금강선의 중요지점을 확보하고 이미 이룩된 연결작전에 의해 포위된 적 제1군단의 중앙을 돌파하여 적을 각개 격파할 수가 있었다.

사단은 9월 말 제38연대를 전주-강경지역에, 제23연대를 안의지역에, 제9연대를 고령-삼가지역으로 재배치하여 패잔병에 대한 소탕작전과 병참선 경계 등 후방지역 방어작전에 임하였다.

사단은 반격기간 중 적 사살 360여 명, 포로 757명과 야포 23문, 대전차포 32문, 자주포 1문, 박격포 22문, 오토바이 10대, 트럭 17대, 탄약 425톤 등을 노획하였으며 손실은 전사 32명과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였다.⁶⁵⁾

군산 점령 : 미 제25사단은 추격명령에서 진주를 탈환하고 의명 서측방 혹은 서북방으로 진격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따라서 사단의 1차목표는 진주를 신속히 점령하는 것이었다. 이에 사단장은 신임군단장의 작전방침에 따라 신반리를 공격 중인 제2사단과의 부대간격을 좁히면서 진주고개의 돈좌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9월 23일 일부 기동계획을 조정하여 남쪽에서 진주로 공격 중인 제27연대를 북쪽의 중암리(中岩里)로 이동시키고 그 대신 이 연대가 진출 중이던 배둔리에는 사단수색중대가 중심이 된 토만(Torman)특수임무부대⁶⁶⁾를 투입하였다. 사단장은 중앙지역의 제35연대가 정면돌파를 시도하는 동안, 제27연대와 수색중대로써 남북 양측에서 협공을 가하여 진주를 포위 점령할 복안이었다.

조정된 기동계획에 따라 사단은 공격을 계속하여 25일 오후에는 제35연대가 사단수색중대의 지원을 받아 진주를 점령하고 잔적을 소탕하였다. 이 과정에서 남강교량이 이미 파괴되어 있었기 때문에 3개부대 다 같이 수중교 구축작전으로 기동이 지연되었고, 특히 제27연대는 26일에 강을 건너 의령으로 진입하였다.

한편, 이 작전이 전개되고 있던 24일에는 미8군에서 “진주와 강경을 점령할 때까지 무제한 공격을 실시하라.”⁶⁷⁾는 수정된 작전명령이 제9군단으로 하달되었

다. 이에 따라 미 제25사단장은 제24, 제35연대를 중심으로 전차 위주의 2개의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였다. 그중 제24연대의 매튜스(Matthews)특수임무부대⁶⁰는 사단의 좌측(남)에서 진주-하동-구례-남원-순창-김제-이리-군산으로 진출하고, 제35연대의 돌빈(Dolvin)특수임무부대⁶¹는 사단의 우측(북)에서 진주-함양-남원-전주-이리-강경을 경유 금강선으로 진출하도록 하였다.

두 개의 특수임무부대를 선두로 진주를 출발, 지리산을 남북으로 우회하여 남원에서 금강선으로 진격한다는 계획이었다.

9월 26일 06:00 돌빈특수임무부대는 1개 전차중대와 1개 보병중대를 1개조로 한 2개 보·전 편성으로 보병은 전차에 탑승한 채 진격하였다. 이 부대는 도중에 적이 매설한 지뢰에 조우하고 또 파괴된 교량에 노무자를 동원하여 교량을 가설해야 했고 때로는 적의 저항을 공중지원하에 격파하면서 인민군 제6사단을 추격하여 지리산을 북쪽으로 우회하여 함양을 경유 28일 오후에 남원에 진입하였다. 그때 이곳에는 매튜스특수임무부대가 먼저 도착해 있었다.

매튜스특수임무부대는 진주 서측 남강교량이 파괴되어 이를 수리하느라고 돌빈특수임무부대보다 하루 늦게 진주를 출발, 지리산 남쪽도로로 하동을 경유 구례를 향하였다. 이들은 도중에 민간인 또는 포로로부터 미군포로가 끌려가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진격속도를 가속화하여 하동 북방 16km 지점에서 11명의 포로를 구출하였다. 그런가 하면 28일 정오 조금 지나 남원에 진입시 그곳에는 적이 운집되어 있었으나 당시 실시된 F-84 전투기의 공중공격에 주의를 하느라고 보병부대의 진입을 알아차리지 못함으로써 기습을 달성하여 적을 혼비백산시켰고 또한 그들이 수용하고 있던 86명의 미군포로를 구출하였다.⁶²

9월 29일 다시 작전을 전개한 돌빈특수임무부대는 앞서 미 제2사단 제38연대가 점령한 전주를 지나 이리를 거쳐 금강에 도달하였다. 이에 앞서 9월 28일 매튜스특수임무부대는 남원에서 머무는 동안 후속한 제24연대 제3대대(일명 블레이 특수임무부대)가 진격을 선도하여 다음날에는 정읍, 이리를 거쳐 금강에 도달하였으며 제24연대 제1대대는 목표인 군산(群山)을 무혈점령하였다.

사단은 서남부지역을 횡단함에 있어 4일간에 전자는 222km, 후자는 354km를 전진하였다.

사단은 군산을 탈환한 후 후방지역 병참선 방호임무를 맡았다. 제24연대는 군산지역을, 제35연대는 이리지역을 그리고 제27연대는 진주-함양-남원에 이르는 병참선을 경계하였다.

미 제9군단 예하 제2사단과 제25사단은 9월 16일부터 낙동강 서남부에서 돌파작전을 펴 적 제2, 제6사단을 비롯하여 제4, 제9, 제7사단 등 인민군 제1군단 예하 5개사단을 전격적인 속도로 추격하여 금강선을 확보하고 이들의 재편성을 불가능하게 함은 물론 지휘계통을 마비시켜 포위 및 각개 격파하였다. 그러나 차단된 많은 적이 개별적 또는 조직적으로 지리산 일대의 산악지역으로 잠입함으로써 후일 이곳이 적 게릴라전의 기지가 되었다.

(4) 東部地域 追擊作戰

동부지역 추격작전은 국군 제1군단에 의해 계속되었다. 군단은 9월 22일까지 적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기계-청하선까지 진출하였고 이때 육군본부로부터 “제한 없이 총공세를 펴 춘양-평해선까지 진격하며 의명 북방 혹은 서북방으로 이동할 준비를 갖추라.”는 요지의 명령을 수령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군단장은 흥해(興海)를 점령하고 청하로 진출 중인 제3사단을 주공으로, 기계를 확보한 수도사단을 조공으로써 태백산맥을 사이에 두고 동해안 축선도로와 산간도로를 따라 신속히 진격하여 지대 내에서 적의 퇴로를 차단, 각개 격파할 작전개념하에 9월 23일부터 추격작전을 전개하였다.

흥해-인구리 추격작전 : 동해안의 흥해를 점령한 국군 제3사단장은 9월 22일 청하-평해 축선을 따라 무제한 공격을 실시하라는 작전명령을 수령한 후 동해안의 양호한 7번도로상에 주력을 지향시켜 신속히 추격을 할 결심하에 기동계획을 수립하여 하달하였다.

사단은 제26연대를 선두부대로 그리고 제22연대를 후속부대로 청하-울진간 도로를 따라 신속히 추격하고 제23연대로 하여금 흥해 서쪽 토성동(土城洞) 일대에 집결한 적 제5사단 사령부 및 제10연대의 주력을 격파하도록 한 뒤 흥해에 집결, 사단예비가 된다.⁶⁹⁾

반면, 사단 정면의 적 제5사단은 지난 1주일 동안 국군의 돌파작전에 의해서 재기하기 어려운 정도로 타격을 입고 주력은 동해안 도로를 따라 울진 방향으로 북상하고 그 일부는 흥해 서쪽 비학산(飛鶴山)으로 잠입하였다.

9월 23일 05:30 사단은 제26연대를 선두부대로, 제22연대를 후속부대로, 제

23연대를 사단예비로 공격을 재개하여 청하를 탈환하였다. 제26연대는 진격을 계속 24일 강구 부근까지 진출한 데 이어 그 다음날 25일에는 영덕을 탈환하였다. 부대가 시내로 진입하였는데 시가지는 불바다가 되어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다. 한편, 적은 기습을 당하여 황급히 달아나느라고 많은 장비와 화기를 유기하였다. 시내에 버려진 적의 트럭들은 시동이 걸린 채 있었고 야포는 탄약과 더불어 진지에 그대로 있었으며 마차(통신용) 옆에는 발을 저는 몽고말이나마에 매달려 있었다. 이 무렵 적 제5사단의 병력은 1개연대 규모를 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후 이들은 도로를 이용 후퇴하지 못하고 주변의 산으로 도주하였다.⁷⁰⁾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이날 워커 제8군사령관은 “용맹스러운 한국군이 이 전쟁을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시키는 데 기여한 탁월한 성과는 말로써 다 표현할 수 없다.”고 국군을 극구 찬양하였다.

한편, 사단은 영덕에서 미 고문관의 주선으로 2.5톤 차량 25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기동력이 크게 강화되었다. 제26연대는 영덕 탈환 후 계속 북상하여 영해(寧海)를 경유 울진으로 향하였으며 제22, 제23연대는 영덕을 경유 영해선(寧海線)에 진출하였다. 사단은 공병대대를 각 연대에 1개중대씩 배속시켜 전방에서 지뢰탐지 및 도로보수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사단포병대대는 영덕으로 추진하였다. 한편, 경주에 있던 제1군단사령부도 이날 기계로 이동하였다.

9월 26일 제22, 제23연대는 각각 제26연대를 초월하여 추격명령상의 목표 평해를 점령하고 북진을 계속하였으며 다음날에는 2개연대가 협동작전을 펴 이미 F-51 전투기의 공습을 받아 불타고 있는 울진을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은 채 점령하였고 사단사령부도 이곳 수산리로 이동하였다. 이 작전에서 사단 포병대대도 신속히 진지를 전환하여 전방 보병부대에 화력을 지원하였다.

이와 같이 목표선을 확보하자 사단장은 강릉을 신속히 점령하여 퇴로를 차단하고 적을 섬멸할 계획으로 제22연대는 강릉으로 신속히 진격하고, 제23연대는 1개대대로 울진-죽변 부근 후방경계를 실시하고 아울러 주력으로써 강릉으로 진출하며, 제26연대는 울진에 집결 사단예비로 전환하도록 하는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9월 28일에 제22연대(-1)는 울진-죽변선을 돌파한 뒤 계속 진격하여 저녁 무렵 삼척 남쪽까지 진출하였으며 제1대대는 청송 방면으로 진출 중이었다.

제23연대(-1)는 울진으로부터 임원진으로 진출하였으며 제1대대는 죽변에서 경계에 임하면서 부대를 정비하고 있었고, 사단의 예비 제26연대는 임원진

으로 진출 중이었다.

이와 같이 제3사단뿐만 아니라 군의 작전이 호조를 보여 추격명령에 지시된 목표를 확보하자 육군본부는 9월 29일에 작전명령 제199호(1950. 9. 30)를 하달하여 “군이 38도선 남쪽의 지정된 지역에서 재편성하여 북진작전을 준비”하도록 조치하였다.

이 명령에서 제3사단의 임무는 “삼척-강릉 축선으로 주문진까지 전진하여 재편성한 다음 차후명령에 의하여 차기작전을 수행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다. 사단장은 이 명령을 하달하면서 특히 “추격부대는 소수의 적에 구애되지 말고 일로 북진하라.”고 진격을 강조하였다.

사단은 전날에 이어 제22연대를 선두로 진격하여 이날 새벽에 삼척을 탈환하였다. 삼척을 점령한 제22연대는 계속 북진하여 묵호를 점령하고 저녁 무렵에는 강릉 남쪽까지 진격하였다. 이어서 제23연대의 주력도 삼척을 지나 묵호에 집결 중이었으며 사단예비 제26연대 주력도 임원진까지 진출하였다.

울진에서부터 선봉으로 승승장구 진격해 온 제22연대의 제1대대와 제2대대는 전날 안인진에서 적의 가벼운 저항을 물리치고 9월 30일 08:00 강릉 남쪽 6km 지점 운산리로 진격하였다. 여기서 연대는 안인진에 자리잡은 포병대대의 지원을 받으면서 증원된 제23연대 제2, 제3대대와 협동하여 15:30 강릉탈환에 성공하였다. 이때 수도사단의 제1연대도 대관령을 넘어 강릉으로 진격하였다.

한편, 영덕에서 청송(靑松) 방면으로 진출한 제22연대 제3대대(대대장 정순민 소령)는 청송-진보-청리-영양-철암을 거쳐 삼척으로 나와 5일 만에 이날 강릉에서 본대와 합류하였다.

대대장은 기간 중 “산간 협로에서 3,000명~4,000명으로 추산되는 적 패잔병을 추격하여 많은 포로를 획득하였다. 특히 적이 박격포 운반 등에 이용하던 호마(胡馬) 50여 필을 노획하여 역으로 이를 기마수색대로 편성하여 작전에 효율적으로 이용하였다.”⁷⁾고 하였다.

강릉탈환 후 제22연대가 소탕작전을 펴는 동안 제23연대의 주력부대는 계속 북진하여 이날 20:00경에는 주문진 북쪽 4km 지점에서 적 300명과 조우하여 23:00까지 이를 격퇴시켰고 많은 전과를 얻었다. 연대는 계속 북진하여 38도선 남쪽 인구리에 진출하였으며 제3대대의 전초중대는 38도선을 넘어 양양 부근까지 진출하였다. 이 부대가 반격작전부대 중 국군과 유엔군을 통틀어 가장 먼저 38도선에 도달한 부대였다.

결과적으로 국군 제3사단은 미 해·공군의 지원하에 총 연장 260km에 달하는 포항-38선 축선상의 반격작전에서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에 걸쳐 1일 평균 17.3km의 경이적인 속도로 진격을 감행하였다. 국군 제3사단 정면의 적은 중공군 출신의 전투경험이 풍부한 제5사단이었으나 용맹스러운 국군 제3사단의 추격 앞에는 혼비백산, 태백산맥으로 잠입하거나 양양으로 패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기간 중 제3사단의 전과는 사살 1,351명, 포로 230명, 각종 소총 700여 정, 중화기 230여 문(정), 전차 2대, 각종 탄약 등 수많은 장비와 보급품들을 노획하였으며 사단의 손실은 전사 71명, 부상 477명, 실종 2명이었다.

기계-서림 추격작전 : 기계(杞溪)를 탈환한 수도사단은 9월 22일 하달된 추격명령에서 “군단의 조공으로 인지동(印支洞)-천지동(泉旨洞)-춘양(春陽) 축선을 따라 담당지구 내에서 무제한 공격을 계속 실시하라.”⁷²⁾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사단은 이에 따라 “제1연대를 추출, 도평동(道坪洞) 부근의 적 퇴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사단의 서측방 구산동(九山洞)으로 우회전진하고 제18, 제1기갑연대는 현 진지에서 적을 압박하면서 정면 추격을 계속한다.”⁷³⁾는 새로운 기동계획을 수립하였다.

사단은 9월 23일부터 제18연대와 제1기갑연대로써 기계에서 도평동-청송을 향해 계속 추격하고, 그 전날 구산동에 진출한 제1연대는 서북방에서 도평동을 공격하였다. 사단은 정면추격과 우회기동의 전법으로 적의 퇴로를 차단하여 적을 일거에 포위격멸할 계획이었다.

특히 이날 임시수도 부산에서 긴급문제에 관한 담화문 발표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38선이란 없다. 이제까지 참아 온 것은 국제관계 때문이었으나 이제는 38선을 인정하지 않는다.”⁷⁴⁾라고 선언하였다. 이 선언은 38도선을 인정하지 않음은 물론 국군의 북진을 강조한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 것이었다. 이는 노(老)대통령이 이 기회에 민족의 숙원인 남북통일을 실현하려는 충정에서 우리나라의 거족적(擧族的) 절규로서 국군장병에게 38도선 돌파의 굳은 결의를 다지게 하였으며 그 사기는 날이 갈수록 충천되어 갔다.

전방 각 연대가 연전연승하고 그야말로 파죽지세(破竹之勢)로 추격을 계속하자, 사단장 송요찬 준장은 9월 24일 종래의 군소고지 점령이나 국부적인 공격 방식을 지양하고 이날부터 주력부대는 진격로상의 주요거점을 신속히 돌파하면

서 38선을 목표로 오직 신속한 추격을 감행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돌파한 지역의 전과확대에 이어서 잔적을 격멸하는 임무는 모두 후속부대에 맡겼다.

제18연대(연대장 임충식 대령)는 도평동을 탈취하고 대전동(大前洞)까지 진출하였으며, 이렇게 신속히 복상을 하자 정면의 적 제12사단 주력은 보급품을 적재한 마차 10대와 군마 10필을 남겨둔 채 황급히 복상 도주하였고, 미처 후퇴를 하지 못한 패잔병들은 조직 없는 개별적인 저항을 하다가 태백산맥으로 흩어져 잠입하였다. 제1기갑연대(연대장 백남권 대령)는 이날 입암(立岩)－도평동(道坪洞)에 진출하고, 선두공격부대에 의해 생긴 간격을 이용, 전과를 확대해 가면서 추격을 계속하고 있었다. 제1연대장 한신(韓信) 중령은 도평동에서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에게 “우리는 지금부터 지난날 적이 밀고 내려오던 속도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진격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훈시하면서 신속한 추격을 독려했다.

제18연대는 9월 25일 청송을 점령하였으며 제1기갑연대도 이를 후속하여 청송으로 진출하였다. 사단 및 각 연대는 청송에 집결하여 지휘소를 각각 설치하였다. 사단장은 그 동안의 용전분투를 감안하여 제1연대와 제18연대에 부대표창과 상금 50만원씩을 지급하였다.

한편 우인점부대인 동측의 제3사단은 이날 영덕을 점령하였고, 좌인점부대인 서쪽의 제2군 예하 제8사단은 안동을 점령하였다. 이날 제1군단 지휘소는 안강 북쪽 기계로 이동하였다.

9월 26일 사단은 제18연대와 제1기갑연대를 추격의 주력부대로, 제1연대를 예비로 작전을 계속하여 제18연대는 청송에서 영양 경유 춘양 서남쪽 도천리까지, 제1기갑연대는 영양 북쪽 도계동(道溪洞)까지 진격하였으며, 제1연대도 영양까지 진출한 다음 부근에서 출몰하는 잔적을 격멸하였다. 한편, 급속한 속도로 추격작전이 이루어지자 보급로가 신장되어 보급차량의 기동화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9월 27일 제18연대는 전날의 진지인 도천리에서 봉성(鳳城)을 경유 잔적을 격퇴하면서 춘양으로 진출하였다. 제1기갑연대도 도계동에서 춘양으로 진출하였고, 제1연대도 영양에서 춘양으로 진출하였다. 사단은 이로써 추격명령상의 목표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예하 3개연대지휘소는 물론 사단, 군단 지휘소도 모두 이곳에 설치되었으며 반격작전이 개시된 이래 비로소 상하지휘관

이 감격적인 회동의 순간을 가졌다. 그리고 이곳에서 38선 진격을 위한 차기작 전계획에 대하여 진지한 토의를 하고 보급추진을 위한 대책도 강구하였다.

이 무렵 사단 정면에서 방황하던 적 제12사단 및 제5사단의 일부 병력은 영월-대화를 경유 오대산으로 도주하였고 그 일부는 영월 동북쪽 산악지대에 잠입한 후 산간 민가에 내려와서 식량과 피복 등을 약탈해 갔다.

인천상륙부대가 수도서울을 탈환하던 9월 28일, 제18연대는 춘양 집결지에서 새벽에 차량편으로 출발하여 영월에 진입한 다음 부대정비를 마치고 저녁때에는 평창읍까지 일거에 진출하였다. 제1기갑연대는 춘양에서 영월로 진입하였는데 진격도중 67명의 포로와 소총 45정, 사이드카 2대 등을 노획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이와 같이 전 전선에 걸쳐 추적이 가속화되자 육군본부에서는 추격작전의 추가지침으로 훈령 제78호를 하달하여 작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결전 방향에 계속 부단히 부대를 지향시켜 적이 재편하여 저항할 여유를 주지 말고 직접압박 및 우회 포위하여 적의 퇴로를 차단하는 동시에 야간에는 주간보다 일층 더 밀접한 접촉을 유지하여 적을 이탈하지 못하게 하면서 철저한 공격을 속행하라.

또한 이날 훈령 제79호로써 “38도선 선착부대에 대한 대통령상 수상에 관한 건”이 시달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은 공세이전을 계기로 하여 기습적인 인천상륙작전의 성공과 그 후 10일 만에 남북부대가 연결, 합세하였으며 전격적인 진공(進攻)으로 38도선 돌파는 목睫之間(目睫之間)에 있음. 이에 감(鑑)하여 대통령 각하께서는 38선 선착부대에 대하여 기념장(章) 혹은 표창장을 하사하신다는 유시가 있으니 각급 지휘관은 이 취지를 남득시키고, 영예의 상을 획득하여 부대전사(戰史)에 찬연한 사적(史蹟)을 기록토록 할 것.⁷⁾

9월 29일 사단 정면의 적 제12사단과 제5사단 일부는 계속 패주하여 그 주력이 대화-강릉을 연하는 경강도로를 횡단한 다음 오대산 산악지대를 경유 38도선 이북으로 물러가고 있었으며, 주력의 철수대열에서 이탈한 잔여부대는 대화에서 정북방향인 창촌-현리를 경유 인제 방향으로 패주하고 있었다.

이 무렵 사단은 육군작전명령 제199호로 “대화-창촌-후평까지 계속 전진하여 용포 근방에서 재편, 차후명령에 의거 차기작전을 준비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사단은 이날 제18연대 제1대대(대대장 장춘권 중령)가 평창-대화 진격로상의 산간 계곡에서 휴식과 아울러 식사를 하려던 중에 전화위복(轉禍爲福)의 사건이 벌어졌다.

그때 갑자기 사단장 송요찬 준장이 전방상황 파악차 대대에 도착하였다. 사단장이 대대장에게 선공대(先攻隊)가 어디까지 진출했느냐고 묻자 대대장은 대화(大和)까지는 채 못 갔는데도 얼떨결에 북쪽으로 5~6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대화까지 진출하고 있다고 가볍게 답변을 해 버렸다. 대대장은 설마 사단장이 최전방까지는 안 가리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사단장은 보고를 받고 즉각 차를 대화 방향으로 급속도로 달려갔다. 얼마 후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하였으니, 대화 못미처 도로에서 후퇴하는 적 1개중대 규모의 병력과 조우하게 된 것이다.

이 당시 아군의 복장이 가지각색이었으므로 사단장은 이들을 아군으로 오인하고 바짝 다가갔다가 적(敵)임이 확인되자 깜짝 놀라 급히 되돌아서는 순간 호위차량의 헌병들이 지프차에 가설된 기관총으로 적을 향하여 사격을 가하였다. 그런데 오히려 당황한 쪽은 적이었다. 그야말로 불시에 기습사격을 받은 적은 그 자리에서 손을 들고 투항하게 되었고 이어 본대가 진출하여 적병을 모두 포로로 압송하였다.⁷⁶⁾

이와 같은 정황 속에서 사단은 9월 30일에도 전날에 이어 진격을 계속하였는데, 제18연대는 장평리 북쪽에서 창촌을 경유하여 38선 직후방 서림리(西林里)까지 진출하였고 그 선두부대는 서림을 통과 이미 38선을 돌파하고 수색작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제1기갑연대도 속사리에서 서림 남쪽 광원리(廣原里)까지 진격하고 있었다. 한편 제1연대는 평창에서 대화를 경유 속사리까지 이동한 다음 대관령-강릉 방향의 적을 추격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수도사단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5일간에 걸쳐 안강-청송-영양-평창-서림에 이르기까지 태백산맥과 오대산을 연하는 험한 애로를 따라 38도선을 향하여 그야말로 파죽지세의 추격작전을 단행하였다.

인민군 제12사단과 제5사단 일부는 최초 안강-기계 부근에서 완강한 방어태세로 역공(逆攻)을 기도하다가 붕괴되자 계속 패주하였고, 사단은 적과의 접촉

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때로는 하루 40km 이상의 행군도 강행하였던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병참선이 길어지고 전진속도가 가속화되기에 이르자, 전방부대에 보급추진하는 후방부대가 오히려 많은 고충을 받기도 하였다.

(5) 中東部地域 追擊作戰

중동부지역 추격작전은 제2군단이 돌파작전에 이어 계속 전개하였다. 군단은 9월 22일에 수령한 작전명령 제191호에 의거 추격작전으로 전환, 무제한 공격을 실시하여 충주와 영주를 확보하고 명에 의거 북방 혹은 서북방으로 이동할 준비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군단은 9월 23일 제6사단을 주공으로 신녕, 제8사단을 조공으로 구산동(九山洞)에서 추격작전을 전개하였다.

신녕-춘천 추격작전: 신녕(新寧)의 제6사단은 조림산을 탈취하던 날인 9월 22일에 “군단의 주공으로 도원동-함창-충주 축선을 따라 추격작전을 전개하라.”는 작전명령을 수령하였다.

한편, 정면의 적 제8사단(사단장 오백룡 소장)은 조림산에서 철수한 뒤 전면적인 후퇴를 시작하였고, 그 주력은 안동-영주-단양 방향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이러한 전황을 판단한 사단장은 즉각 추격작전을 단행, 25일에는 제2연대가 조림산 북쪽의 의흥에, 제19연대가 의흥 북쪽 청로동에, 제7연대가 청로동 북쪽 탑동에 진출함으로써 사단은 신녕-의성에 이르는 28번도로를 따라 3개연대가 38도선을 향한 추격작전의 대열에 들어섰다.

그 다음날 사단은 군위 북쪽 도리원(일명 도원동, 의성 서남쪽 10km)으로 3개연대가 진출하여 집결하였고, 25일에는 각 연대가 도리원을 출발 낙동강변의 쌍오동(雙梧洞)과 낙산동(洛山洞)에 도착, 이곳에서 야간도하를 강행한 후 함창까지 진격하였으며 그 다음날에는 사단의 전 병력이 다시 점촌에 집결하였다.

27일에는 제2연대가 보은과 괴산으로 진출하였으며, 제19연대는 점촌 북방 유곡리에서 적 2개대대와 치열한 격전을 치른 끝에 이를 격파시켰고, 제7연대는 문경까지 진출하였으며, 사단지휘소도 점촌으로 이동하였다. 다음날 사단은 제7, 제19연대가 문경 서북쪽 이화령을 넘어 충주를 향하여 진출하였으며, 사단

지휘소도 점촌으로 이동하였다. 이와 같이 사단은 조림산 탈취 후 파죽지세로 패주하는 적을 격파하면서 계속 북상하였다.

이 무렵 사단은 38선 돌파에 대비한 준비명령인 육본작명 제199호에 의거 “제천-주포리(周浦里)-원주 축선을 따라 춘천까지 계속 전진하여 의명 차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라.”⁷⁶⁾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사단장은 제2연대, 제7연대 그리고 제19연대순으로 원주-춘천 축선으로 진격할 계획하에 추격작전을 전개하였다.

9월 30일 사단은 제2연대가 선봉으로 충주를 출발하여 적의 저항을 격파하고 원주에 진입하였으며, 그중 제2연대의 제3대대(대대장 송대후 소령)는 16:00경 황성까지 진출하였다.

10월 1일 제2연대는 원주를 떠나 홍천으로 진출하였으며 연대선봉대인 제3대대는 황성-홍천을 경유 춘천으로 진격하였다. 진격도중 춘천으로 넘어가는 원창고개(原昌高개, 春川 남쪽 10km)에서 적 1개중대의 완강한 저항을 받았으나 이를 격퇴하고 패주하는 적의 뒤를 따라 춘천시내로 돌입하였다.

한편 후속하던 제7연대와 제19연대도 이날까지 원주로 진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제19연대는 양평, 문막 일대에서 적 패잔병 2개대대와 격전을 벌여 이들을 격파하였다.

이 무렵 적 제2군단의 패잔병 2,000여 명이 국군 제8사단에 쫓겨 제천에서 원주에 이르는 신림고개 일대에서 고립되어 있다가 북으로 철수하였는데, 그 철수로상에 위치한 제6사단 전투지휘소와 제2군단 전투지휘소가 습격을 당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 중에는 제2군단에 배속되어 있던 미군 5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인민군 패잔병들은 원주에서 1,000명~2,000명으로 추산되는 주민들을 학살하였다.⁷⁸⁾

제6사단은 9월 16일 신녕에서 반격작전으로 전환한 이래 15일 만에 함창-문경-충주를 거쳐 9월 말 원주를 탈환하였으며, 그 후 10월 2일에는 춘천(春川)에 도착하여 차후작전에 대비하였다. 제6사단은 이곳에서 남침을 당하여 지연전을 벌이며 낙동강선으로 후퇴하였는데 반격시에는 그 2배의 속도로 진격하여 공교롭게도 제자리로 복귀하였다.

의성-동두천 추격작전 : 영천의 제8사단은 보현산을 탈취하고 구산동을 점령하던 날인 9월 22일 “군단의 조공으로 의성(義城)-안동(安東)-영주(榮州) 축

선을 따라 무제한 공격을 실시하라. 영주를 확보한 다음에는 명에 의거 북쪽 또는 서북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추격명령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사단으로서의 우선 목전의 의성을 탈환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9월 23일 사단은 구산동을 점령한 제21연대로써 정면에서 압박하고, 제10연대로써 북쪽으로 우회, 퇴로를 차단하여 의성을 점령한 후 안동을 포위하기로 하고 작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적은 구산동 일대에서 참패를 당하고 패주하면서도 지연전을 펴기 위해 의성 남쪽고지를 점령하고 완강한 저항을 시도하였다. 제21연대는 9월 24일 연대 전 병력을 돌격체대로 하여 치열한 사격을 가하면서 포연이 자욱한 적진을 정면에서 돌파하였다.

이때 제10연대가 의성 동쪽으로 우회하여 북쪽고지군을 점령함으로써 적의 퇴로를 차단하였다. 이로써 2개연대가 적의 정면과 후방에서 포위망을 형성하고 압축해 들어갔다. 적은 북쪽으로 철수하기 위해 포위망을 뚫고 혈로를 타개하고자 반격을 거듭함으로써 피아간에 치열한 백병전이 벌어졌다. 사단은 의성을 완전 점령하고 사단전투지휘소를 영천에서 이곳으로 이동하였다. 한편, 포로 진술에 의하면, 이곳 의성에는 인민군 제2군단사령부가 있었으며 군단장 김무정(金武亭)이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여기서 권총을 빼어 들고 사색이 되어 패주하는 자기 병사들을 모질게 독전하다가 먼저 도주하였다는 것이다.⁷⁹⁾

사단은 이곳 의성전투에서 100톤 이상의 쌀과 물자 그리고 1개사단 장비에 해당하는 많은 장비를 노획하였다.

의성을 점령한 사단은 안동을 공격하기 위하여 9월 25일 낙동강 상류의 안동교 부근까지 진격하였는데, 이 교량은 적이 전날 35개 교각 중 중앙부분의 5개를 폭파함으로써 아군의 진격을 지연시켰으며 도섭이 예상되는 얇은 수심지역에는 지뢰를 매설함으로써 진전을 지연시켜 탈출의 시간을 얻으려고 획책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사단장은 항공지원을 요청하여 집결 중인 적부대에 대한 집중 포격을 가하고 포병화력으로 지뢰지대를 포격하여 무난히 하천선을 점령하고 도하지점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다. 사단은 확보한 도하지점에서 최초 돌격파인 제10연대가 적의 산발적인 포격과 중화기의 집중사격을 받으며 허리까지 차는 물을 헤치면서 신속히 대안까지 진출하였으나 이곳에서 적의 지뢰지대에 봉착하여 교전 중, 지원공병의 통로개척으로 마침내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다. 곧 이어 제21연대와 제16연대의 순으로 뒤따라 도하를 감행하여 안동

읍내로 돌입하였다. 안동시내는 아군 항공기의 폭격으로 파괴된 적 전차 10여 대와 기타 수많은 차량 등이 버려져 있었으며 북쪽으로 도주하는 패잔병들의 저항이 가끔 있었다.

9월 27일 사단은 안동 주변의 패잔병을 소탕하였으며 적 제8사단이 4,00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예천으로 패주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제21연대로 하여금 영주-단양 쪽으로 급속히 우회시켜 죽령을 점령함으로써 그들의 퇴로를 차단, 섬멸하고자 하였다.

다음날 제10연대와 제16연대는 전날 밤부터 진격을 계속하여 이날 09:00에 영주까지 무난히 진출하였고 이곳에서 지체함이 없이 계속 풍기를 거쳐 죽령 정상까지 단숨에 진격하였으며 전날 이곳에 도착한 제21연대와 합세하였다.

9월 29일 제10연대는 사단의 선봉대로써 단양까지 신속히 진격하여 주변 일대에서 준동하는 1개중대 규모의 적을 격파하고, 특히 사주경계를 하면서 후속 부대인 제21연대와 제16연대의 진출을 엄호하는 한편 부대정비에 임하였다. 이 무렵 사단은 38도선 돌파에 대비한 준비명령인 육본작명 제199호에 의거 “충주-원주-횡성-용두리(龍頭里)-양평-양수리(兩水里)-수유리 축선으로 의정 부까지 계속 전진하여 부대를 재편, 명에 의거 차후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사단장은 제21연대와 제10연대를 공격제대로, 제16연대를 예비로 지정된 축선을 따라 기동하기로 결심하고 9월 30일 단양을 출발 제천을 경유하여 원주 남쪽 신림 부근까지 진출하였다. 다음날 이곳으로부터 원주로 진격하기 위해 험한 고갯길을 따라 좌우측방의 고지군을 경계하면서 서서히 전진을 시작하였다. 제21연대가 원주에 이르는 관문인 신림고개(일명 치악고개) 마루에 이르렀을 때 1개연대 규모의 적과 조우하였다. 이 적은 사단의 좌인접부대인 제6사단이 이미 원주를 점령함으로써 그 퇴로가 차단되어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야음을 이용하여 원주 북쪽으로 후퇴하기 위한 시간을 얻고자 완강한 저항을 하고 있었다.

사단장 이성가(李成佳) 준장은 이와 같은 상황을 제2군단장 유재흥(劉載興) 소장에게 보고하고 신림고개의 남과 북에서 제6사단과 협공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자 사단포병을 신림고개 직후방까지 추진하고 그 화력지원하에 제21연대를 신림고개로 진출시켰다. 연대는 이곳에서 적 차량 30대가 2열중대로 북쪽을 향해 있는 것을 노획하였으며 후속한 제10연대와 고개 양쪽고지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원주를 향하여 계속 북진하였다.

한편 제8사단의 공격에 밀려 도주하던 적은 원주를 통과하면서 제6사단사령부와 제2군단사령부를 기습한 후 도주하였다.⁸¹⁾

사단장 이성이 준장은 군단사령부에 들려 전날의 작전경과 보고와 아울러 차후 작명을 수령하기 위해 군단장(유재홍 소장)을 방문하였다. 이 자리에서 제8사단과 제6사단의 협조된 작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독 안에 든 2,000여 명의 적을 격멸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습을 당한 데 대한 언쟁이 있었는데, 이성이 준장은 당시의 상황을 아래와 같이 술회하였다.⁸²⁾

나는 군단참모장 이한림(李翰林) 준장이 “왜 8사단이 좀더 빨리 들어오지 못했느냐?”고 물기에 “누가 빨리 진격하고 싶지 않았겠는가. 적 패잔병의 주력이 신림-원주 사이에 집결되어 발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빨리 진격할 수 있겠는가.”라고 대답하고 이어서 “우리 사단에서 무전으로 적정을 보고하고 남북에서 협공을 하고자 하였는데 그 상황을 보고 받았느냐?”고 물으니 “보고를 받고 즉시 제6사단장(김종오 준장)에게 명령하여 신림고갯길 남쪽 주변에 병력을 배치하도록 조치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6사단의 병력 배치는 야간이기 때문에 도로 주변이나 개활지에 배치하여 적을 쉽게 발견하여 격과하여야 하나 병력을 좌우측방의 고지 위에 배치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적은 이와 같은 허점을 이용하여 원주를 경유 양개 전투지휘소를 기습해 가면서 북으로 도주하였던 것이다.

10월 2일 사단은 설 사이도 없이 원주에서 바로 양평으로 진격하였다. 그 이튿날 양수리-도농-미아리에 도착한 사단은 부대별로 집결, 부대정비를 실시하고 10월 6일 의정부를 경유 동두천으로 진격하였다. 사단은 이곳에서 100일 간의 공산치하에서 숨을 죽이고 있던 동두천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으며 또한 일부 낙오병들과 애국청년들도 조직되어 고립무원의 사면초가 속에서 반공투쟁을 하던 ‘마차산 유격대’를 비롯한 여러 조직의 유격대원을 만나 사단 특수유격대⁸³⁾로 편성운용하였다.

제8사단은 반격작전기간 중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5일간에 걸쳐 공세 이전의 충천된 사기로 보현산-구산동-의성-안동-영주-제천 선으로 추격하여 적 제8사단과 제2군단의 주력을 제천 북쪽으로 패주시켰다.

10월 1일 새벽 원주에 진입하였고 그 후 10월 3일에는 서울 미아리에 도착하

였으며 10월 6일 동두천까지 진격, 38선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한편, 제7사단은 경주에서 군예비로 집결하여 있다가 제6, 제8사단을 후속하여 9월말 문경으로 북상하였다. 이 무렵 사단은 육본명령 제199호에 의거 제2군단으로 배속이 전환(9. 29)되었고 수안보-충주-장호원을 거쳐 10월 7일 서울에 도착하였으며 그 다음날 포천으로 이동하여 차후작전을 준비하였다.

결과적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의한 서울 수복과 낙동강방어선에서의 반격작전에 의해 국군과 미군은 9월 말까지 38도선 이내의 인민군을 구축하고 사실상 전전현상(戰前現狀)을 회복하였다.

9월 15일부터 시작된 2주간의 전격적인 작전으로 인하여 인민군은 포위되고 돌파를 당하여 붕괴되었으며 북한 정권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전쟁을 더 지속할 능력마저 상실하였다. 인민군 전선사령관과 참모는 김천에서 철의 삼각지대로 도주하였고, 제1군단사령부는 조치원에서 해체되어 지휘관과 일부 참모가 태백산맥으로 잠입하였고, 제2군단사령부는 김화로 이동하였다. 또한 각 사단도 조직이 와해되어 분산 후퇴하였다.

전선에 투입된 부대 중 아군의 포위망을 탈출하여 38도선 북으로 도주한 병력은 25,000~30,000명으로 추산되었으며 낙동강선에서의 반격작전부대에 의해 포획된 9,294명을 포함하여 개전 후 총 12,777명이 포로가 되었고, 나머지 생존자는 지리산, 태백산 등지로 은신하였다. 또한 인민군은 기동로의 차단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연료의 고갈로 거의 모든 기동장비를 포기하고 도피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개전초기 인민군의 기습에 의해 국군이 입은 피해보다 더욱더 심각한 인원, 장비의 손실이었다. 물론 인민군의 해·공군도 세력과 기지 공히 철저히 파괴되었다.

이와 같은 승리는 전쟁지도부의 완벽한 상황판단과 작전계획의 수립, 절대적으로 우세한 제공권과 제해권의 장악, 지상전에 있어서의 미군의 우수한 기동력 등 여러 요소의 결합에 의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요인 중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국군의 기동이었다. 당시 국군의 작전지역은 태백산맥의 준령과 그 지맥으로 인하여 기동로가 극히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동장비도 부족되어 보병은 도로로 기동하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군은 밤낮으로 적을 추격하고 신속히 전진하여 기습을 달성하고 적의 퇴로를 차단하여 포위망을 형성하였으며 기동장비를 보유한 지원군보다 먼저 38도선을 확보하였던 것이다.

인천상륙작전과 반격작전은 적을 파괴하고 전의를 빼앗아 버린 전략전술적으로 거의 완전한 승리였다. 이는 기습·기동·공세·목표·집중·지휘의 통일 원칙은 물론 정보·창의·사기의 원칙 등 여러 전쟁원칙이 골고루 적용된 작전의 결과였다.

주 기

- 1)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1961, p. 488.
- 2) *Ibid.*, p. 489.
- 3)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인천상륙작전」, 1983, pp. 50~53.
- 4) 1950년 8월 미 해병대의 당시 병력현황은 다음과 같다.
해병의 현역 총 인원은 74,279명이었고 이 중 함대해병대 27,703명, 경비과견대 11,087명, 함상근무 1,574명이었다. 함대해병의 병력은 태평양함대해병은 11,853명으로 7,779명은 제1해병사단에 있었고 3,733명은 제1해병비행단에 배치되어 있었다. 대서양함대해병은 15,803명으로 제2해병사단에 8,973명, 제2해병비행단에 5,297명이 배치되어 있었다. 미 해병사령부, *Inchon-Seoul Operation(1950~1953)*, 1955, pp. 20~21.
- 5) 카투사(Korean, Augmentation, Troops to U. S. A.) 미육군에 과견 근무하는 한국군인, 이것이 카투사의 효시임.
- 6) 「인천상륙작전」, p. 77 ; 이극성, 국군 제17연대 9·28수복작전기, 1995. 4. 30.
- 7)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美國合同參謀本部史 韓國戰爭」(上), 1990, p. 162.
- 8) 위의 책, p. 162.
- 9) 위의 책, p. 163.
- 10) Appleman, *ibid.*, 1961, p. 493.
- 11) 「美國合同參謀本部史 韓國戰爭」(上), p. 163.
- 12) 위의 책, pp. 163~164.
- 13) 위의 책, p. 165.
- 14) Appleman, *ibid.*, p. 497.
- 15) 「인천상륙작전」, 1983, p. 107.
- 16) 위의 책, p. 183, pp. 80~83.
- 17) Appleman, *ibid.*, p. 506.
- 18) 극동군 정보참모부, 「북한군 역사」, 1952, p. 146.
- 19) 인민군 제884군부대 제5보대 대대전투명(1950. 8. 29). 국방군사연구소 소장.
- 20) Appleman, *ibid.*, p. 508.
- 21) 「북한군 역사」, p. 146.
- 22) 「한국전쟁사」 제3권, p. 618.

- 23) Appleman, *ibid.*, p. 500.
- 24) *Ibid.*, p. 500.
- 25) 미 극동군사령부 소속 해군장교로 인천상륙작전을 위해 영흥도에 기지를 두고 현 지주민의 도움을 받아 첩보수집 총 보고(9. 1~9. 14), 그는 9월 14일 자정에 팔미도 등대를 작동시켜 함정의 인천 진입을 유도하였다.
- 26) 「인천상륙작전」, pp. 165~167.
- 27) 위의 책, pp. 165~167.
- 28) 행정구역상 부천군 부내면(富內面)에 속한 때의 지명은 마분리(馬墳里)였다. 그러나 한자의墳(분)을項(항)으로 잘못 판독한 듯 당시의 지도 및 문헌에는 마항리(馬項里, Mahang-ri)로 잘못 표기되어 있다. 「인천상륙작전」, p. 199.
- 29) 북한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전사」 제25권, 1981, p. 26. “김일성 동지께서는 적들의 력량이 대대적으로 증강되는 정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서해안 방어사령부로 하여금 인천—서울지구 방어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여 주시었다……중략……락동강전선의 일부 부대들과 남포, 문천, 해주지역에 있던 땅크부대들, 중심 깊이에 있던 예비부대들 그리고 철원, 금천지역에 있던 연합부대들이 서울지구에 파견되었다.
- 30) 「인천상륙작전」, p. 220.
- 31) 「인천상륙작전」, p. 219 및 인민군 노획지도(1950. 9. 21). 인민군 제107보안부대 김포방어계획 노획지도는 국방군사연구소에 소장되어 있으며, 이 지도는 1950년 9월 21일 김포지역 제107연대지휘소 습격시 국군해병 제3대대가 노획하여 소장 중 대대장이 1980년 10월 31일 전편위에 기증한 것임.
- 32) 「인천상륙작전」, p. 220.
- 33) 위의 책, p. 211.
- 34) 우측방이 노출된 이유는 경인국도 남쪽지역을 담당한 미 제7보병사단의 공격작전이 미 해병들보다 뒤쳐져서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출방향마저 인천—안양간 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치우쳐 있어 협조된 공격작전이 못되었다. 「인천상륙작전」, pp. 250~259.
- 35) 미 극동군사령부 정보참모부, 북한군 전투서열, 1950. 10. 15, p. 157; 「한국전쟁사」(3), p. 745.
- 36) 미 극동군정보참모부, 북한군 전투서열, 연대장 대좌 박한린, 부대편성. 제25여단과 유사함.
- 37) 「인천상륙작전」, pp. 325~326.
- 38) 위의 책, pp. 315~317.

484 第5章 仁川上陸作戰과 反擊作戰

- 39) 국회의사당을 중앙청 중앙홀로 사용한 것은 1948년 5월 31일 국회 개원시부터 1950년 12월 8일까지였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89, p. 779.
- 40) 프란체스카 비망록, 6·25와 이승만 대통령(33), 중앙일보, 1983. 8. 8 ; 「인천상륙작전」, p. 335.
- 41) Appleman, *ibid.*, p. 537.
- 42) *Ibid.*, pp. 545~546.
- 43) 미 극동군사령부, 포로심문조서, 1950. 9. 19, 손대광 소좌 심문조서.
- 44) Appleman, *ibid.*, p. 547.
- 45) 미 제8군 작전계획 제10호(1950. 9. 11), 국방군사연구소 ; 「한국전쟁사」 제4권, pp. 22~23.
- 46) 한국방송공사, 다큐멘터리 「한국전쟁」(상), 1991, pp. 288~291.
이학구는 1950년 9월 21일 미 제1기병사단에 귀순하였다. 일본에 가서 심문을 받은 뒤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었다. 그는 귀순자 중 최고위급 장교였으나 귀순자로서 대우를 받지 못하였으며, 포로수용소에서 친공(親共)포로의 지도자로 변신, 폭동을 주도하기도 하였으나 북으로 송환 후 숙청되었다.
- 47) Appleman, *ibid.*, p. 545.
- 48) 육본작명 제180호(1950. 9. 30).
- 49) 「한국전쟁사」 제4권, p. 54.
- 50) 위의 책, p. 82.
- 51) 함병선 증언록(1968. 4. 21, 해외개발공사), 국방군사연구소.
- 52)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新寧-永川戰鬪」, 1984, p. 339 ; 인민군 제73연대는 제15사단의 편제부대가 아닌 신평독립연대로서 제15사단에 배속 운용된 것으로 추정됨. 미 극동군사령부 정보참모부, 인민군 전투서열, 1950. 10. 15.
- 53) 「조선전사」 제26권 p. 44 ;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572 ; 「한국전쟁사」 제4권, pp. 10~11.
- 54)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590~591 ; 「한국전쟁사」 제4권, p. 209.
- 55) 제777특수임무부대는 제7기병연대와 배속받은 제77야전포병대대, 제70전차대대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것으로 연대전투단의 부대였다. 또한 린치특수임무부대는 제3대대장의 이름인 린치(Lynch)를 따서 호칭한 것이다.
- 56) Appleman, *ibid.*, p. 595.
- 57) *Ibid.*, p. 887.

- 58) 「한국전쟁사」 제4권, p. 158.
- 59) 위의 책, p. 159.
- 60) 위의 책, p. 166.
- 61) Appleman, *ibid.*, p. 580.
- 62) *Ibid.*, p. 580.
- 63) 「한국전쟁사」 제4권, p. 242.
- 64) Appleman, *ibid.*, p. 574. 이 부대는 사단수색중대장 토만(Charles J. Torman) 대위의 이름을 따서 토만특수임무부대로 호칭하였다.
- 65) Appleman, *ibid.*, p. 575.
- 66) *Ibid.*, p. 576. 매튜스 특수임무부대는 미 제79전차대대 A중대장 매튜스(Charles M. Matthews) 대위의 지휘하에 이중대와 사단수색중대를 중심으로 공병소대, 의무, 전술항공통제반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토만특수임무부대의 지휘관 교체에 따라 새로 붙여진 명칭이다.
- 67) Appleman, *ibid.*, p. 578. 돌빈특수임무부대는 미 제9전차대대장 돌빈(Dolvin) 지휘하에 전차 2개중대 보병 2개중대, 중박격포소대, 공병의무소대 및 치중대로 구성되었다.
- 68) Appleman, *ibid.*, pp. 576~577.
- 69) 「한국전쟁사」 제4권, pp. 57~58.
- 70) Appleman, *ibid.*, p. 599.
- 71) 「한국전쟁사」 제4권, p. 65.
- 72) 육본작전명령 제191호(1950. 9. 22).
- 73) 「한국전쟁사」 제4권, p. 86.
- 74) 위의 책, p. 87.
- 75) 위의 책, p. 89.
- 76) 위의 책, p. 90.
- 77) 육본작명 제199호(1950. 9. 30). 이 작전명령은 군의 38도선 돌파에 대한 준비명령임.
- 78) Appleman, *ibid.*, p. 599.
- 79) 「한국전쟁사」 제4권, p. 104.
- 80) 위의 책, p. 135.
- 81) 이성가 장군 증언, 1965. 3. 3. 국방군사연구소.
- 82) 「한국전쟁사」 제4권, p. 116.

第6章 統一을 향한 北進

第1節 38線 突破論爭과 유엔의 決議

1. 38線 突破의 軍事的 決定

인천상륙작전과 낙동강에서 반격작전으로 국군과 유엔군이 서울을 수복(收復)하고 38도선으로 접근하자, 이 선의 돌파 여부가 초미(焦眉)의 관심을 끈 정책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현안의 핵심은 ‘국군과 유엔군의 북진을 허용하여 패주하는 인민군을 격멸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인민군의 격멸 후 통일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귀결되었다. 이 현안은 38도선 돌파가 중·소 개입의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서 더욱 어려운 선택의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이는 전쟁의 향방과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단히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이었다.

이 문제가 한·미 양국정부에 의해 검토되기 시작한 것은 정치외교적 현안으로 부각되기 훨씬 이전인 7월 중순, 국군과 유엔군이 대전(大田)으로 물러나며 지연전을 벌이고 있던 때부터였다. 우선 미국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으로부터 “인민군이 38도선 북쪽으로 다시 격퇴된 후에 채택할 정책을 제시하라.”는 임무를 받고 정책검토에 들어갔으며,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은 이 정책의 목표가 전쟁전 현상의 회복에 두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7월 19일 트루먼 대통령에게 “소련의 후원으로 수립된 북한정권이 무력으로 38도선을 파괴하면서 남침한 이상 이제는 38도선이 존속할 이유가 완전히 없어졌다. 전쟁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¹⁾라는 요지의 서한을 보내어, 38도선을 돌파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였다.

한·미 양국 수뇌의 지침과 요청에 기초하여 수립되고 있던 유엔군에 관한 새로운 정책은 8월 17일 미국의 주유엔대사 오스틴(Warren R. Austin)의 “안전보장이사회는 한반도에서 평화의 파괴행위를 종결시킬 것을 최우선목표로 결정하였다. 이 목표는 결코 또 다른 침략의 시도를 위한 어떠한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추구되어야 한다.”²⁾ “전 한반도를 통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

실시를 위한 총회의 결정이 비록 북한정권에 의해 저지되었지만 여전히 유효하다.”⁹⁾라는 연설요지를 통하여 외교가(外交街)에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적대행위 종결의 최소조건으로 북한의 완전한 패배를 암시하고, 그 후 유엔에 의한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정책방향의 우회적 표현이었다.

그 후 9월 1일에 트루먼 대통령이 발표한 정책연설에서 “한국은 그들이 원하는 만큼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통일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유엔의 지도지침’하에 다른 나라와 더불어 그들이 그러한 권리를 향유하도록 우리의 몫을 다할 것이다.”라고 천명한 데 이어 기자회견에서 “38도선 돌파는 유엔에 달려 있다.”¹⁰⁾라고 하였다. 이는 미국이 개전 초 ‘전전현상으로의 복귀’라는 당초목표에서 ‘38도선 돌파 및 한국통일’이라는 새로운 목표로 정책전환을 하면서 유엔의 테두리 내에서 추진하겠다는 그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 무렵 전선상황은 유엔군이 낙동강선에서 적의 최대공세를 저지하고 피아의 상대적 전투력 비율도 역전되어 계획 중인 인천상륙 및 반격작전의 실현 가능성에 관한 전망이 밝아지고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전술한 성명들이 발표되자 8월 후반부터 미국 내에서는 물론 자유진영 내에서도 38도선 돌파와 관련하여 찬반양론(贊反兩論)이 대두되었고 공산진영에서는 적극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우군진영의 찬성파는 “한국군과 유엔군이 38도선에서 중지하면 인민군은 와해된 군사력을 정비하여 재침할 수 있으므로 한국에서 전쟁상태는 계속될 뿐만아니라 유엔군은 무제한으로 주둔하게 된다. 또 38도선에서 정지함은 추격권의 보편성 원칙에도 배치된다. 그리고 해·공군은 이미 북한지역에서 작전을 전개 중인데 지상군만 제한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논리를 폈다. 한편 반대파의 논지는 38도선을 돌파하여 북진을 하게 되면 중국과 소련의 전쟁개입을 초래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찬반논쟁이 양립되는 가운데 미국의 공식입장은 9월 20일 애치슨(Dean G. Acheson)의 제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유엔군의 군사행동은 38도선이북으로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반도에 통일된 독립정부가 수립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유엔결의안의 정신을 수행하는 것이다.⁵⁾—에서 명백하게 천명되었다. 이로써 우군진영의 의견은 찬성 쪽으로 수렴되어 갔다.

공산진영에서는 주로 대만문제에 집착해 온 중공이 오스틴의 연설을 계기로

한국전쟁에 대응한 새로운 자세를 보이며 8월 20일 주은래(周恩來)가 한국문제 토의에 중공대표의 참석을 요구하는 전문을 유엔으로 보냈고,⁶⁾ 9월 25일에는 중공군 총참모장 대리가 38도선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로서, 주중 인도대사 파니카(K. M. Panikkar)에게 “중국은 미국이 38도선을 돌파하는 것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⁷⁾ 라는 뜻을 전하였다.

물론 8월 1일에 안전보장이사회에 복귀한 소련대표 말리크(Yakov A. Malik)도 전쟁이 “최초 자신들이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고 비관적 전망이 떠오르게 되자, 전쟁을 내전”으로 규정하고 조기종결을 주장하며, 8월 22일에는 “만일 한국전쟁이 더 오래 계속된다면 그것은 전쟁을 불가피하게 확대할 것이다.”⁸⁾라고 경고하면서 38도선 돌파문제를 사전에 봉쇄하려는 책략을 구사하였다. 나아가 9월 21일에는 외상 비신스키(A. Y. Vishinsky)가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에 있어 38도선을 정전(停戰)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평화선언’⁹⁾을 제안하기까지 하며, 전황이 불리해지자 38도선 돌파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였다.

한편 7월 중순에 38도선 돌파방침을 트루먼 대통령에게 통보한 바 있는 한국 정부는, 전황이 호전되자 국민과 더불어 이의 실현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내외에 천명하였다.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의 궤보에 이어 임시수도 부산에서 열린 통일축전 국민대회에서는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낼 메시지를 채택하고, “대한민국의 통일은 전 국민의 여망이요 유엔에서도 이미 진지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아직 그것을 실현하지 못하였던바 금차 공산군의 침입으로 평화적 해결은 도저히 불가능하게 되었으니, 유엔군은 이번 기회에 전격 돌진하여 완전통일이 실현되기를 3천만의 이름으로 요청한다.”¹⁰⁾고 결의하였다.

또한 9월 20일 인천상륙작전 경축대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38도선 돌파와 통일의 성취에 관한 소신과 당위성을 다음과 같이 국내외에 재삼 천명하였다.

지금 세계 각국 사람들이 38도선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으나 이것은 다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본래 우리의 정책은 남북통일을 하는 데 한정될 것이요... 소련이 한국내란에 참여하여 민주정부를 침략한 것은 민주세계를 토벌하려는 것이므로 유엔군이 들어와서 공산군을 물리치며 우리와 협의하여 싸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38도선에 가서 정지할 리도 없고 또 정지할 수도 없는 것이니, 지금부터 이북 공산도배를 다 소탕하고 38도선을 압록강, 두만강까지 밀고 가서 철의 장막을 쳐부술 것이다.¹¹⁾

이와 같이 이해 당사자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이미 미국은 트루먼 대통령이 정책연설을 하던 9월 1일에 성안(成案)한 정책시안(NSC 81)에서 “6·28 유엔결의가 38도선 후방으로 인민군을 격퇴시키거나 그들을 격멸시키기 위해 이 선 북쪽에서 군사작전을 실시할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결론짓고, “소련이나 중공이 북한으로 그들의 군대를 투입하지 않거나 그렇게 하려는 의도를 발표하지 않는다면 유엔군사령관에게 그러한 작전을 실시하도록 인가해야 한다. 만일 위와 같은 상황—중·소의 개입—이 발생한다면 맥아더 장군은 부대를 38도선에 정지시키고 안전보장이사회의 조치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정책을 입안하였다.¹²⁾ 즉, 38도선 돌파는 ‘6·28 결의’에 의거 합법적이며 결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북진작전을 실시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정책시안은 국무성·국방성 주로 합동참모본부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9월 11일에 트루먼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유엔군의 군사작전에 관한 정책(NSC 81/1)으로 확정되었으며, 합동참모본부는 9월 15일에 맥아더 장군에게 이의 중요한 결론 부분 “유엔군사령관은 38도선 이북에서 작전할 법적 권리를 가졌으며 소련 또는 중공과 연루되지 않게 피해야 한다.”¹³⁾는 내용을 통보하여 장차작전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그에게 하달할 정책의 세부지침 작성에 착수하여 9월 27일에 대통령의 재가를 받음으로써 후에 ‘9·27 훈령’이라 널리 알려지게 된 38도선 돌파 및 북진작전에 따른 군사작전지침이 확정되었다. 이날 즉시 유엔군사령관에게 하달된 훈령의 요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귀관의 군사적 목표는 북한군의 격멸에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귀관은 38도선 북쪽에서 상륙 및 공중작전을 포함한 군사작전을 실시하도록 인가되었다. 이는 그러한 작전시에 소련이나 중공의 주요부대의 북한진입이 없거나 진입하겠다는 의도의 발표도 없고, 또 북한에서 우리의 작전에 군사적으로 대응하려는 어떠한 위협도 없는 조건이어야 한다. 그렇지만 어떠한 환경에서도, 귀관은 만주나 소련의 국경을 넘어서는 안 되며, 그리고 정치적 문제로서 한국군이 아닌 어떠한 지상군도 소련에 접한 북동지역이나 또는 만주 경계선에 연한 지역에서 운용되어서는 안 된다. 나아가 38도선 남쪽에서나 북쪽에서 실시하는 귀관의 작전에 대한 지원이 만주나 소련영토에 대한 공중 및 해상작전을 포함해서도 안 된다.

소련군의 주요부대가 38도선 이남지역에서 공개적 또는 비공개적으로 군

사적 개입을 할 경우에 유엔군은 수세로 전환하여 사태를 악화시킬 일체의 조치를 하지 말 것이며 이를 즉각 워싱턴으로 보고한다. 38도선 이북에서 소련군의 주요부대가 공개적으로 운용될 때에도 같은 조치를 취한다.

중공군의 주요부대가 38도선 이남지역에서 공개적 또는 비공개적으로 군사적 개입을 해 올 경우 유엔군은 이에 대해 성공적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전투를 계속한다.

북한군의 조직적인 저항이 사실상 끝나게 되면 잔존 인민군의 무장해제와 항복조치는 국군이 앞장서 시행하도록 한다.

한국정부는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받고 있지만 38도선 북쪽에 대한 통치권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 38도선 북쪽에서의 군사작전과 점령에는 한국 및 국군과 협력해야 하지만 북한으로의 통치권의 확대와 같은 정치적 문제는 통일을 위한 유엔의 조치를 기다려야 한다.¹⁴⁾

‘9·27 훈령’은 유엔군의 38도선 돌파를 허용하되, 작전의 목표를 인민군의 격멸이라는 군사목표에 엄격히 한정하고, 특히 중·소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작전지침을 상술하고 있다. 특히 이 훈령의 확정과정은 미국의 군사전략 및 통일정책의 전환과정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이 변화는 전선의 군사상황과 직결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맥아더 장군은 한편에서 ‘9·27 훈령’에 의거 북진작전계획을 준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10월 1일 인민군총사령관에게 방송으로 항복 권유문을 보내어, “더 이상의 불필요한 유혈(流血)과 재산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무기를 버리고 적대행위를 중지하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

그대의 군대와 잠재적 전투능력이 불원간 전면적으로 패배되고 완전히 파괴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UN의 결의가 최소한의 인명손실과 파괴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그대와 그대의 지휘하에 있는 군대가 한국의 어느 지점에서든지 본관이 지휘할 군사적 감독하에 무장을 버리고 적대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며, 또한 그대의 지휘하에 있는 유엔군 포로 전부 및 비전투원 억류자를 즉시 석방하여…… 본관이 지시하는 곳으로 즉시 수송할 것을 요구한다. 유엔군사령부의 수중에 있는 포로를 포함한 북한군은 보호를 계속 받을 것이며 가능한 한 조속히…… 귀환하도록 허가할 것이다.

본관은 그대가…… 장래의 불필요한 유혈과 재산파괴를 방지할 결심을 조

속히 행할 것을 기대한다.¹⁵⁾

2. 10·7 유엔 統韓 決議

미국은 전황의 추이를 지켜보며 극비리에 9·27 훈령 및 이에 따른 북진작전을 준비함과 동시에 군사작전의 결과에 따라 수반될 북한지역 점령과 통일문제는 정치목표로 규정하고 군사목표와 분리하며 유엔의 테두리 안에서 결정한다는 방침하에 별도로 발전시키고 있었다. 그들은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 붕괴되고 소련과 중국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맥아더 장군으로 하여금 유엔의 이름으로 북한을 점령하게 한다. 북한의 중요지역은 주로 국군과 그 밖에 아시아 유엔회원국 군이 점령한다. 미군은 개입을 최소한으로 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철수한다. 점령 후에 당면할 주요문제, 즉 구호와 부흥, 정치적 통일, 안전보장을 다룰 유엔기구를 설치한다.”¹⁶⁾ 등의 방침을 수립하고 한국 및 우방국과 협의하에 유엔에 제안할 결의안을 작성하였다.

이 결의안은 9월 30일 영국대표에 의해 미국을 제외하고, 필리핀 등 8개국¹⁷⁾의 공동발의 형식으로 제5차 유엔총회에 상정되었다. 소련대표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복귀한 후로는 미국이 주도하는 한국문제와 관련된 제안이 소련의 거부권에 의해 부결된 것이므로 유엔총회에 상정한 것이다. 특히 영국정부는 앞서 중공을 승인한 국가이나 38도선 돌파문제에 있어 유엔군측 안을 지지하고 공동발의국이 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소련외상 비신스키는 10월 2일에 “한반도의 즉각적인 휴전, 외국군의 즉각 철수, 국회의원 선거, 통일수의 양측대표로써 남북한 공동통치위원회 구성”¹⁸⁾ 등을 골자로 하는 대안을 총회에 상정하였다. 같은 날 중공외상 주은래는 파니카에게 분명하게 “만일 유엔군이 북한으로 진공하면 중공군이 전쟁에 개입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군이 38도선을 넘는 데는 간여하지 않을 것이다.”¹⁹⁾라고 통고하였다. 이처럼 한국의 정치적 장래를 결정하는 결의안의 총회 표결을 앞두고 공산측의 반발과 압력이 최고조에 달하였다.

당시 한국은 유엔의 회원국이 아니어서 대표권도 발언권도 없었다. 그러나 임병직(林炳稷) 외무부장관과 장면(張勉) 주미대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유엔본부를 무대로 대통령의 유엔외교활동 지침인 ① 유엔군은 38도선을 돌파해야 한다. ② 한국은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이다. ③ 38도선을 넘은 다음 유

엔감시하에 총선거가 실시되어야 한다. ④ 38도선 이북에 신탁통치를 하는 것은 절대 반대다. ⑤ 다만 유엔군이 잠정 주둔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는 데 따라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유엔결의안이 상정되자 대표단은 “1947년 유엔결의안이 통일된 독립정부 수립을 유엔의 목표로 정한 이상 이제야말로 결의안을 관철시킬 때가 왔다.”고 회원국 대표들을 설득하였으며, 이에 찬성을 표시하는 나라가 상당히 많았다.²⁰⁾

결국 이들 안을 놓고 일주일간의 심의를 벌인 결과 유엔군측 안만이 총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며, 이는 10월 7일에 찬성 47, 반대 5, 기권 7, 불참 1표로서 가결되었다. 이 결의안에서 총회는, ‘총회의 모든 결의의 기본목적이 통일·독립·민주 한국정부를 수립함에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아래 요지의 통일의 실현을 위한 절차와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

1. (a) 전 한국에 걸쳐 안정상태를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b) 한국의 통일, 독립, 민주정부 수립을 위하여 유엔의 후원하에 선거 실시를 포함한 모든 합헌적 조치를 취한다.
- (c) 남북한의 모든 파벌과 주민대표를 평화의 회복, 선거의 실시 그리고 통일정부를 수립함에 있어 유엔의 기구와 협조하도록 초청한다.
- (d) 유엔군은 상기 (a), (b)항에 명시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한국의 어느 곳에도 잔류해서는 안된다.
- (e) 한국의 경제부흥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a) 오스트레일리아, 칠레, 네덜란드, 파키스탄, 필리핀, 타이, 터키로써 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설치하며, 이는
 - (i) 현재의 유엔위원단이 행사해 오던 모든 기능을 담당한다.
 - (ii) 전 한국이 통일되고 독립된 민주정부를 수립함에 있어 국제연합을 대표한다.
 - (iii) 한국에 있어서의 구호 및 부흥에 관련된 모든 책임을 수행한다.
3. 경제사회이사회는 전문기구와 협의하여 전쟁상태의 종결시에 구호 및 부흥계획을 작성한다.
4. 경제사회이사회는 한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발달을 촉진시킬 장기적 대책을 조속히 연구한다.²¹⁾

이것이 이른바 후일 ‘10·7 통한(統韓) 결의’라고 불리어진 유엔결의이다. ‘9·27 훈령’과 마찬가지로 이 결의 역시 힘의 논리가 반영된 것으로서, 이 결의안이 상정될 무렵 전황은 이미 북한의 전력의 와해되어 유엔군측의 군사적 승리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었다. 여하튼 미국과 유엔이 군사적 승리 후 앞선 결의²³⁾의 연장선에서 유엔의 주도하에 한국통일을 실현하겠다는 확고한 정책을 수립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결의에 대해 정부는 임병직 외무부장관을 통하여 “북한에서 선거실시는 환영하나 남한에서 새로이 선거를 실시함에는 반대한다.”²³⁾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한국정부는 유엔의 감시하의 선거에 의해 수립되었으며, 유엔의 승인을 받은 합법정부이므로 다시 선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 결의안을 맥아더 장군에게 통보하면서 미국정부는 이 결의가 38도선 북쪽에서의 군사작전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유엔군측은 38도선 돌파와 관련된 군사적 목표인 북한군의 격멸과 정치적 목표인 한국통일의 달성에 필요한 정책결정과 유엔의 결의를 모두 확정하였다.

유엔군측은 군사적으로 ‘9·27 훈령’에 따라 38도선 돌파작전을 전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추가적 조치인 ‘10·7 결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작전을 유보하고 있었다. 이는 ‘9·27 훈령’의 법적 근거를 보강하려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중·소의 개입이라는 우발상황의 발생에 대비하여 미국이 그 난관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정치적 안전판—미국은 어디까지나 유엔의 결의에 따라 그 목표를 실현하려는 것이었지 단독으로 통일을 추구하려는 것은 아니었다.—을 미리 마련해 두려는 책략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유엔군사령관은 10월 9일에, ‘10·7 유엔결의’를 인민군총사령관에게 라디오방송과 전단으로 알리고 동시에 “무기를 버리고 적대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로써 38도선 돌파와 관련된 필요한 절차와 준비를 모두 마쳤다.

3. 國軍의 38線 突破 決定

유엔군측은 9월 말 ‘9. 27 훈령’에 따라 은밀하게 38도선 돌파작전계획을 준비하는 한편 공개적으로 통한 결의안을 추진 중이었다. 그러나 이 무렵 정부는 9. 27 훈령에 관한 통보를 받지 못하고 복진명령이 하달되지 않자 대단히 초조

하였다. 맥아더 장군과 무초(John J. Muccio) 대사는 중공과 소련을 자극시키지 않기 위하여 이를 이승만 대통령에게는 미리 알리지 않고 38도선 돌파를 조용히 수행할 예정이었다²⁴⁾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9월 29일 오전 중앙청에서 거행된 환도식이 끝난 후 맥아더 장군과의 대화에서 심각한 얼굴로, “지체없이 북진을 해야 합니다.”라고 한 자신의 주장에 맥아더 장군이 “유엔이 38도선 돌파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명하자, “유엔이 이 문제를 결정할 때까지 장군은 휘하부대를 데리고 기다릴 수가 있지만 국군이 밀고 올라가는 것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 아니요? 여기는 그들 국군의 나라요. 내가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우리 국군은 북진할 것입니다.”라고 힘주어 말하였다.²⁵⁾

이승만 대통령 자신이나 정부 및 국회가 38도선을 돌파해야 한다고 이미 여러 차례 천명하였고 또한 이번 기회에 기필코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에 따라, 유엔군 계통으로 명령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북진을 단행하겠다는 결연한 뜻을 분명히 전달한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38도선 돌파결심은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능에 속하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날 워커 장군이 “제8군은 재편성을 위하여, 그리고 돌파명령을 대기하기 위하여 38도선에서 정지할 예정이다.”²⁶⁾라고 기자들에게 통지하였다는 보도가 나돌았다. 이는 이 대통령의 분노를 자아내었고 국민과 국군의 사기를 저상하고도 남았다.

이와 같이 38도선 돌파사안을 두고 피아간의 대립은 물론 한·미간에도 정략상의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을 때 전선에서는 국군의 추격전이 맹렬하게 전개되어 9월 29일에 국군 제3사단이 강릉으로 치달고 수도사단이 대화(大和)까지 진출하는가 하면 제6사단과 제8사단이 충주와 단양을 점령하여 38도선을 하루 진격거리에 두고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군이 지체없이 북진을 하려면 더 이상 이 문제로 시간을 끌 수 없다고 단안을 내리고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군통수권자로서 독자적인 주권과 통수권을 행사하겠다는 결심하에 이날 오후 2시 대구에 있는 육군본부에 들러 육군수뇌부²⁷⁾를 긴급소집하였다. 대통령 앞에 정일권(丁一權) 육·해·공군 총사령관을 비롯한 참모들이 모였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국군의 통수권자는 맥아더 원수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의 대통령이냐?”고 질문한 다음 “유엔은 우리가 38도선을 넘어가서 국토를 통일시킬 우리의 권리를 막을 권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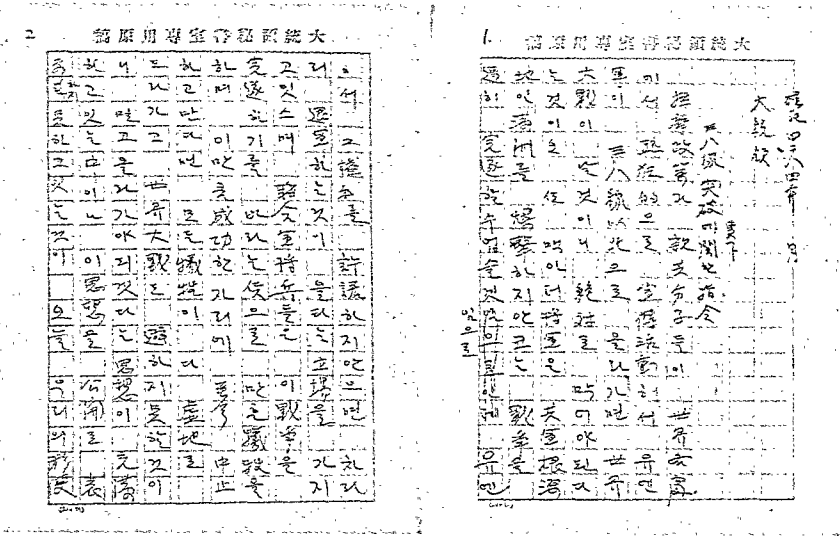
이 없다. 따라서 나는 우리 국군에게 복진을 시킬 생각인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라고 하면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하여 정일권 총사령관은 “이 문제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은 이미 대통령께서 서명하신 문서에 의해 유엔군 총사령관에게 이양되어 있으므로 지금 또다시 이중으로 명령을 하시게 되면 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복진에 관해서는 유엔에서도 조만간 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좀더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관(小官)의 의견은 단지 군사지휘계통과 관련시켜 말씀드리는 것이고 대통령께서 정치적으로나, 또는 국가의 대계(大計)로 보나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명령을 내리신다면 저희들은 오직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참모들도 총사령관의 의견에 동의하자 대통령은 품안에서 명령서를 꺼내어 정일권 총사령관에게 주면서 “복진을 하라.”고 명령하였다. 이 명령에는 “내가 이 나라의 최고통수권자이니 나의 명령에 따라 복진하라.”고 쓰여 있고 끝에는 “晚”자의 서명이 있었다.

사태가 이렇게 진전되자 정일권 총사령관은 단독으로 복진하기를 결심하고 우선 제8군사령관을 만나 일단 협의를 하기로 하였다. 38도선 돌파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만 했다. 그는 이미 강릉에 전진하고 있는 국군 제1군단장 김백일(金白一) 준장에게 연락하여 “38도선 북쪽에 어느 요지(要地)를 점령하지 않으면 아군이 진격하는 데 큰 손실을 입게 될 만한 고지가 없겠느냐?”고 물었다. 얼마 후 제3사단 정면 38도선 북쪽(하조대)에 그런 곳이 있다고 회전(回電)이 왔다.

이 보고를 받고 정일권 총사령관은 즉각 제8군사령관을 방문하여 제3사단이 38도선 바로 북방에서 적의 치열한 사격으로 큰 손실을 입고 있으니 부득이 이 고지를 점령하여야겠다고 말한 다음, “이 고지를 점령하였다고 해서 38도선에 기하학적으로 뚜렷한 선이나 어떤 장벽이 있는 것도 아니니 이를 공격하게 하여 달라.”고 역설(力說)하자 워커 장군도 쾌히 승낙하였다.

이리하여 9월 30일 정일권 총사령관은 강릉의 제1군단사령부를 방문하고, 38도선에 도달한 제3사단 제23연대의 진지에 나가 전선을 둘러본 뒤 38도선 돌파를 군단장에게 구두로 명령하였다. 복진명령은 최초 구두명령에서 성문화된 작명으로 작성되어 제1군단 작명 제103호와 제3사단 작명 제44호로 하달하였다.²⁸⁾

이에 따라 국군은 1950년 10월 1일을 기하여 역사적인 38도선 돌파작전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38선 돌파에 관한 이승만 대통령 지령(指令)

이와 같이 10월 1일의 38도선 돌파결정은 이 대통령의 결단과 복진명령, 정 일권 총사령관의 적절한 조치에 의해 한·미간에 큰 마찰 없이 잘 이루어졌으며 이로써 38도선 돌파의 선봉을 국군이 차지하게 되었다. 이는 다음날 하달된 유엔군사령부의 작전명령 제2호에 의해 뒷받침이 이루어졌고 유엔군은 '10·7 유엔 결의' 후에 복진작전에 돌입하였다.

第2節 元山—平壤 奪還作戰

1. 彼我的 作戰計劃

(1) 人民軍의 38線 防禦計劃

국군 및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과 서울탈환, 그리고 낙동강선에서 일대 반격으로 북한인민군은 패주를 거듭하여 9월 말까지 약 25,000~30,000여 명이 전력(戰力)이 소진(消盡)된 상태에서 겨우 38도선을 넘어갔고 나머지 3만여 명이

퇴로를 잃고 지리산과 소백산맥, 태백산맥 일대에 잠입하여 유격활동을 하거나 38도선 이북으로 북상을 시도 중에 있었다.

북한인민군 최고사령부는 38도선 일대에서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해 서부와 동부로 양분하여 서부지역은 최용건(민족보위상)이, 동부지역은 김책(부수상 겸 산업상)이 담당하여 방어선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최용건이 지휘하는 서해안 방어사령부는 배천—개성—고랑포—사미천 지역 일대에서 새로 편성된 북한인민군 제19, 제27, 제43보병사단과 제17기갑사단을 배치²⁹⁾하여 유엔군의 진격을 저지, 격퇴하고 서부전선으로부터 북상하는 북한인민군 패잔병들의 철수를 엄호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적극적인 방어를 기도하였다.

또한 김책 전선사령관이 지휘하는 동부지역은 사미천에서 동해안까지의 지역 일대에서 낙동강 전선에서 패주하여 북상한 제5, 제12, 제15사단³⁰⁾과 후방지역 예비부대들으로써 38도선 방어에 임하였다. 북한의 「조국해방전사」에는 북한군의 38도선 방어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³¹⁾

서해안 방어사령부로 하여금 이미 38도선 일대에서 방어를 준비한 예비부대, 해안방어부대, 땡크부대, 경비대, 보안대 및 기타 모든 무장력량을 동원하여 개성—남천(평산) 방향에 집중하고 예성강(禮成江) 어구로부터 사미천(장풍군—런천군)까지의 지상전선과 남포지구로부터 예성강 어구까지의 서해안을 방어하게 하였다. 그리고 전선사령부로 하여금 서울지구에서 방어하다가 38도선 계선으로 기동한 부대들과 전선동부에 이미 배치되어 있던 예비부대들, 낙동강 전선으로부터 기동하여 온 일부 부대들으로써 의정부—철원, 포천—김화, 춘천—화천 사이의 도로방향에 집중하여 전선 동부지역을 방어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들 북한인민군 패잔병들은 전반적으로 보급계통이 두절되고 지리멸렬된 상태에서 전의(戰意)마저 상실한 채 외부로부터 지원이 없는 한 38도선의 방어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2) 國軍과 유엔군의 北進計劃

‘9·27 훈령’에 의거, 미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북한인민군을 격멸하기 위해 38도선 이북으로 작전을 확대하여도 좋다는 승인을 받은 유엔군총사령관 맥아더 장

군은 북진작전에 대한 그의 구상을 명령화하여 10월 2일 유엔군 산하 전 부대에 북진명령을 하달하였다.

유엔군사령부의 작전명령 제2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³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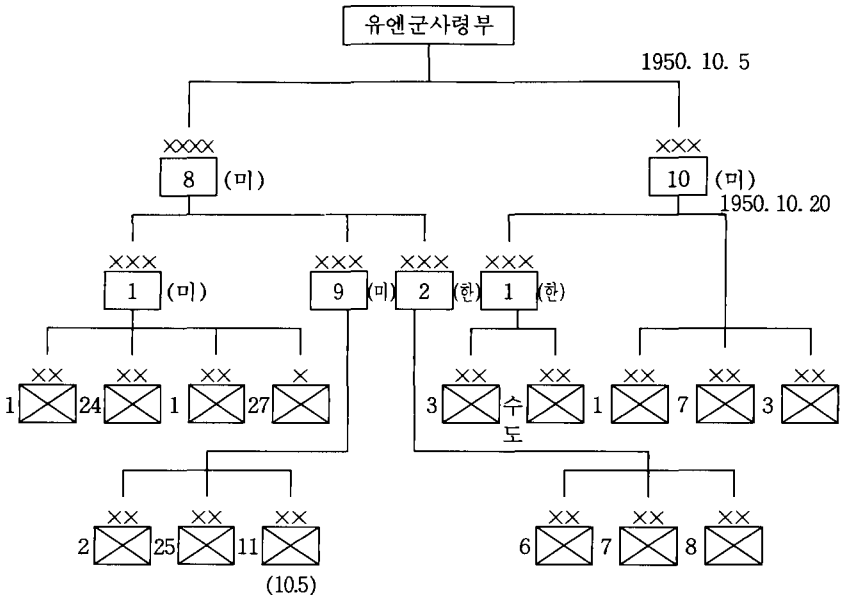
- ① 미 제8군은 주공으로써 38도선을 돌파, 개성-사리원-평양의 축선을 따라 공격하고,
- ② 미 제10군단은 주공이 공격을 개시하면 1주일 이내에 동해안의 원산에 상륙하여 교두보를 확보한 후 원산-평양 축선을 따라 서북으로 진출하여 미 제8군과 연결, 적의 퇴로를 차단 및 포위하며,
- ③ 유엔군은 정주(定州)-군우리(軍偶里)-영원(寧遠)-함흥(咸興)-흥남(興南)을 연결하는 선까지만 진격하고, 그 이북지역에 대한 작전은 한국군에 전담하게 한다.

유엔군사령부가 미 합참본부의 9·27 훈령을 토대로 수립한 유엔군의 북진작전 계획은 미 제10군단을 미 제8군에 배속시키지 않고 독자적인 작전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미 제8군이 서부지역에서 38도선을 돌파하여 평양을 탈환하는 사이에 미 제10군단은 서해에서 동해로 우회하여 원산에 상륙하며, 제8군과 제10군단이 북한에서 가장 협소한 평양-원산을 연결하는 지역에서 전선을 형성하여 북한인민군의 퇴로를 차단하고 계속 북진하여 유엔군이 정주-함흥을 연결하는 소위 '맥아더 라인'이라고 불리는 북진한계선에 도달하면 일단 정지하며 그 이북의 중·소 접경지대까지의 북진작전은 한국군만이 담당한다는 것이었다. 이 북진제한선은 북위 39도40분에서 50분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으며 압록강으로부터 90~170km의 남쪽에 있었다.

또한 맥아더 장군은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이 미 제10군단을 미 제8군에 배속시켜 한반도 내의 작전지휘의 통일을 기하도록 원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작전권을 분리하여 제10군단이 독립작전을 하도록 하였다.

- ① 태백산맥이 한반도를 남북으로 종단(縱斷)하고 그 북쪽에도 낭림산맥이 연결되어 있는 험준한 지세로 인하여 전선의 횡적연결이 곤란하고 통신연락과 작전협조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동서 양쪽에 분리된 독립작전이 불가피하다.
- ② 군수 지원면에 있어서 전선이 북상함에 따라 부산항의 보급기능이 감소되

〈표 1〉 유엔군 전투편성표



- * 국군 제11사단 : 1950. 10. 5. 미 제9군단이 작전통제
- * 국군 제1군단 : 1950. 10. 20. 이전 미 제8군이 작전통제
1950. 10. 20. 이후 미 제10군단이 작전통제

고, 인천항의 보급기능은 제한되므로 국군 및 유엔군 전 부대에 원활한 보급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원산항 사용이 불가피하며 이 항구를 사용시 동해 방면의 작전부대는 독립적인 작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한편 미 제8군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의 복진작전명령을 수령한 다음날인 10월 3일 다음과 같은 요지의 8군작전 명령을 하달하였다.

- ① 미 제1군단(제1기병사단, 제24사단, 국군 제1사단, 영국군 제27여단)
 - ㉠ 1개사단 이상의 병력으로 신속히 임진강 서안의 주요 방어진지를 탈취하여 군단의 공격준비를 엄호한다.
 - ㉡ 가급적 신속히 현 후방지역 경계임무를 미 제9군단에 이양하고 군단 주력을 서울 북방에 집결시켜 평양공격을 준비한다.

㉠ A일에 공격을 개시하며 미 제1기병사단을 주공으로 경의(京義)간선도를 따라 평양을 향해 진격한다. 이때 미 제24사단과 국군 제1사단으로 군단의 측방을 엄호하게 하는 동시에 일부를 예비로 보유한다.

㉡ A일은 후달한다.

② 미 제9군단(제2 및 제25사단)

미 제1군단의 경계임무를 인수하여 서울-부산 간의 병참선을 경계하는 한편, 한국경찰대와 협동하여 남한에 잔재해 있는 적(패잔병)과 게릴라(유격대)를 소탕한다. 10월 5일 남원(南原)에서 국군 제11사단(창설)을 배속받는다.

③ 국 군

제1군단을 주문진(注文津)-여운포(如雲浦) 지역에, 제2군단을 춘천(春川)-의정부(議政府) 지역에 각각 집결시켜 북진작전을 준비한다. 또한 제11사단을 10월 5일까지 미 제9군단에 배속하여 서남부지역에서 동군단의 작전을 지원한다.

이리하여 10월 2일~7일 사이에 서울 외곽에서 미 제8군에 경인지구에 대한 작전임무를 인계한 미 제10군단은 원산 상륙준비에 착수하고, 미 제8군은 제10군단의 책임지역을 인수하면서 38선에 전개하여 10월 9일 일제히 38도선을 돌파, 북진의 길에 들어섰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북진작전의 실시에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군수물자의 지원이 최대의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것은 항만능력의 제약과 병참선의 파괴로 인한 수송능력의 부족으로 전선이 급속히 북쪽으로 신장(伸張)됨에 따라 증가하는 제8군의 군수지원 소요를 충족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38선을 돌파, 북한으로 진출한 부대에게 보급품을 수송하는 방법은 부산이나 인천항으로부터 서울을 경유 자동차로 수송하는 방법과 일본이나 김포공항으로부터 공수하는 방법이 있었다.

당초에는 북진하는 미 제1군단에 필요한 1일 보급소요량은 각종 보급품 3천톤이었고 인천항의 1일 물동량은 4천~5천톤이었으므로 이곳을 최대로 이용하면 제8군의 보급소요를 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당시 인천항은 미해병 제1사단의 원산 상륙을 위한 승선작업(10. 6~10. 16)으로 말미암아 제8군을 위한 하역은 뒷전으로 밀려나 기대할 수가 없었

고 또한 공수방법도 1일 능력이 수백 톤에 불과하여 긴급보급에는 가능하지만 정상시의 보급운송수단이 되기는 곤란하였다. 결국 1일 1만톤의 양륙능력이 있는 부산으로부터 보급품이 수송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경부선 철도와 국도는 전쟁초기 및 낙동강 방어작전시 유엔공군의 폭격과 인민군의 철수시 파괴 등으로 여러 곳이 절단되어 사용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제8군에 대한 군수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를 긴급 복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이는 제8군의 공격개시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미 제8군은 복구작업을 위해 철도공병단, 제8건설공병단, 미 제1군단 예하 공병부대를 주축으로 하고 국군 공병과 현지 노무자의 도움을 받아 국도는 9월 말까지 대략 복구를 마치고, 철도는 왜관에서 영등포까지 복구작업을 10월 10일야야 끝냄으로써 이때부터 미 제8군의 군수지원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이들에 대한 보급소요는 일일 약 4,000톤으로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부산에서 매일 6.5개 열차를 발차시켜야만 하였다.³³⁾

2. 元山 奪還作戰

(1) 38線—元山外廓線 進擊作戰

원산탈환을 위한 북진작전은 유엔군, 제8군 계통으로 문서 명령이 하달되기에 앞서, 9월 말 38도선 돌파논쟁시 정부의 단독돌파 결정에 따라, 국군 제1군단의 제3사단과 수도사단이 10월 1일 38도선 돌파를 감행함으로써 이미 시작되었다.

9월 30일 육·해·공군 총사령관으로부터 38도선 돌파명령을 받은 제1군단장 김백일 준장은 “군단은 차기작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병력으로 북진하려 한다. 제3사단은 현재의 추격을 계속하여 양양을 점령, 확보하는 동시에 수도사단의 38도선 이북 진출을 용이하게 하라. 수도사단장은 즉시 예하부대 병력을 집결시켜 평창—광원리—서림가도를 전진하여 차기작전을 준비하라.”는 요지의 작전명령을 하달하였었다.

이 명령에 따라 국군 제3사단은 제23연대를 선봉으로 날씨가 화창하던 10월 1일 05:00에 인구리(仁邱里) 북쪽 진지에서 38도선을 넘어 양양을 목표로 진격하였다. 이것이 역사적인 최초의 38도선 돌파였다. 당시의 연대장 김종순

(金滄舜) 대령은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저주스러운 민족의 분단선은 영영 무너지고 꼭 통일이 되는 줄 알았어요. 모두 발걸음이 가벼워 뛰다시피 38도선을 넘었지요.”라고 술회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정하였다.

제23연대는 적 제5사단을 주축으로 하는 38도선 방어부대의 경미한 저항을 격파하고 10월 1일 14:00에 38도선 북쪽의 20km 지점인 동해안 가도의 양양에 돌입하였다. 같은 시간에 서림 북쪽에서 38도선을 돌파한 수도사단도 제18연대를 선두로 양양을 점령하였다.

이날 김백일 군단장은, “각 사단장병들의 신속한 추격으로 비로소 역사적 분단선인 38도선을 돌파하고 실지회복의 거보를 내딛게 되었다. 앞으로 우리는 장구한 시일 공산도배들의 억압 속에서 신음해 온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키며, 학수고대하던 두만강으로의 진격을 북전에 두고 있다. 전 장병은 더욱 분발하여 살신보국(殺身報國)의 명예로운 진승을 차지할 것이며……”라는 요지의 훈시로 장병들을 격려하였다.

10월 3일, 제3사단 제26연대가 제23연대를 초월공격하여 간성을 점령하고 다시 제23연대가 선두로 나서 적과 가벼운 교전을 벌이며 간성 북쪽 거진리로 진



38선 돌파 기념목비를 세우는 김백일 군단장

출하였고, 여기서는 사단에비로 후속하던 제22연대가 전방으로 진출하였다. 이때 수도사단은 선두 제18연대가 간성에 진출하는 등 동해안 도로를 따라 북상 중이었다.

군단장은 이날 사령부를 방문한 제8군사령관 워커 장군과 장차작전에 관한 협의를 가진 바 있다.

이 무렵 적은 간성방어마저 실패하자 고성-통천(通川)-고저(庫底) 선에서의 축차저항을 기도하였고, 일부 병력은 오대산·설악산 등 산악으로 잠입하여 후방 보급로를 차단하며 유격전을 전개할 기세였다.

선두로 나선 제3사단 제22연대는 10월 4일 역시 적의 경미한 저항을 격파하고 고성을 점령한 후 5일에는 한 차례 치열한 격전을 치르며 장전에 돌입하였다. 연대는 이 전투에서 적 1개중대를 포로로 하였고, 해상으로 철수를 기도하던 적도 모두 사살하였으며, 그 밖에 전차와 76밀리 직사포 등의 장비를 노획하였다. 한편 제3사단을 후속하던 수도사단 제18연대는 10월 4일 간성에서 진부령 방향으로 진격방향을 바꾸어 10월 5일에는 원통-양구로 공격하였고, 그의 연대는 동해안으로 진격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기동로의 전환은 동해안 도로상에 2개사단 6개연대의 부대가 집중되는 취약점을 조금이라도 덜고 태백산맥 동측에서 준동하는 패잔병을 소탕하기 위한 군단의 조치에 따른 것이었다.

이 무렵인 10월 5일에 육군본부는 미 제8군사령부 작전명령(10. 3)에 따라 작전명령 제205호로 다음과 같은 요지의 원산 점령명령과 철의 삼각지대로의 진격명령을 하달하였다.

제1군단 : 제3사단은 통천-구계리(九溪里)를 거쳐 최종목표 원산을 공격점령하고, 수도사단은 화천(化川)-안변을 거쳐 최종목표 원산을 제3사단과 협조하여 공격, 점령하라.

제2군단 : 제6사단은 화천(華川) -금화-창도리를 점령한 후 회양, 용지원리(龍池院里), 지경리(地境里)를 점령하기 위해 계속 공격하고, 제7사단은 제6사단과 협동으로 금화를 점령하고 금화 점령과 동시에 제2군단 지휘하로부터 해제되어 육군본부의 직접통제(군예비)를 받으며, 제8사단은 철원-평강을 점령한 후 제6사단과 협동으로 용지원리를 점령하라.

이어서 군단은 “제3사단과 수도사단은 원산을 공격하라”는 작전명령 제113호

(10. 6)를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10월 6일 장전을 출발한 제3사단 제22연대는 진출간 수차에 걸쳐 적의 강력한 저항을 물리치고 통천을 점령하였고, 제23연대와 제26연대가 이를 후속하였다. 그리고 양구로 진출하여 문등리(文登里) 계곡을 타고 회양(淮陽)으로 복진 중인 제18연대를 제외한 수도사단의 2개연대(제1기갑연대, 제1연대)는 계속 제3사단의 뒤를 따라 북상하였다. 이리하여 동해안 7번도로상에는 5개연대가 집중 운용됨으로써 많은 취약점이 노출되었다.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고 저항하는 패잔병을 소탕하기 위하여 “수도사단은 회양-신고산(新高山)-원산으로 진격하라.”는 작명³⁶⁾에 따라 수도사단은 통천에서 내륙의 태백산맥을 횡단, 화천(化川)으로 향하였다. 이것이 병력의 과다집중을 막고 태백산맥을 따라 북상하는 패잔병을 소탕하기 위한 두 번째 조치였다.

수도사단 선두의 제1기갑연대는 이날 태백산맥의 추지령(楸之嶺)을 넘어 화천까지 진출하였고, 그 뒤를 후속한 제1연대는 추지령까지 진출하여 때마침 내금강에서 태백산맥을 타고 북상 중인 적 400여 명을 발견하고 전투 끝에 이들을 생포하였다. 이날(10. 7) 양구에서 화천을 향하여 내륙으로 진격 중이던 수도사단의 제18연대는 말휘리(末輝里)까지 진출하였다. 사단은 그 이튿날(10. 8) 제1연대가 선두로 회양을 점령하였다. 한편 제3사단은 10월 7일 제23연대가 통천에 진출 중인 제22연대를 초월, 전진하여 고저(庫底)를 점령하고, 그 여세를 몰아 패주하는 적을 추격하여 송전리(松田里) 선까지 진출하였다.

수도사단의 주력이 전일 태백산맥을 넘어 금강산 동북쪽의 화천 일대로 진출할 때, 사단은 그곳에서 원산으로 이어지는 화천-도납리(道納里)-안변(安邊) 축선으로 제1기갑연대 제1대대를 진격시켜 사단의 우측방을 방호하게 하고, 사단의 주력은 화천에서 좀더 내륙 깊숙이 우회기동하여 경원선(京元線)상의 요충지인 신고산으로 향하였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넘어야 할 철령(鐵嶺)이 가로막고 있었다.

철령은 회양과 신고산 중간에 솟아 있는 해발 685m의 고개로서 굴곡부(屈曲部)만도 88개에 달하는 험준한 고개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단대호 미상의 적이 천연적인 요새를 이용하여 완강하게 버티고 있었다. 수도사단의 제1연대가 철령을 돌파하기 위하여 주간공격을 시도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뒤로 물러났고, 제18연대가 그 임무를 인계받아 제2대대로써 야간공격(19:00)을 실시하였으나 또다시 공격은 좌절되었다. 이렇게 되자 연대장 임충식(任忠植) 대령은 제1대대장 장춘권(張春權) 소령을 불러 이날 밤 안으로 철령을 돌파하여 신고

산으로 진출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대대장은 참모들과 돌파방법을 연구하였으나 묘안이 없어 고심하던 중 “인민군은 미군 전차부대를 보면 극도의 공포심에 사로잡혀 도주한다.”는 포로진술을 상기하고 노획한 소련제 지스트럭 5대와 기타 차량으로 기만작전을 실시하기로 결심하였다.³⁰⁾

배기통(마후라)을 댄 지스트럭의 소음은 전차소음과 비슷하였다. 이윽고 이날 밤 22:00에 제1대대는 지스차 5대를 앞세우고 그 뒤에 40여 대의 차량을 후속시킨 다음 전 차량의 전조등을 켜고 마치 전차의 엄호를 받는 기계화부대처럼 돌진하자 적은 전의를 상실하고 철령방어를 포기한 채 신고산 쪽으로 도주하였다. 제1대대는 이날 밤에 철령을 넘어 10월 9일 아침에는 신고산을 점령하였다.

한편 동해안 방면에서는 김종순(金淙舜) 대령이 지휘하는 제23연대가 이날 새벽 송전(松田)선에서 진격을 재개하여 자산(茲山)—쌍음리(雙陰里)를 거쳐 표고 200m 내외의 야산으로 이루어진 월포리(月浦里)를 점령하였다. 이곳 월포리에서 남대천 넘어 원산시가지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었다.

한편 제3사단 예비인 제22연대는 제23연대를 후속하여 통천으로 북상하고 있었으며, 제26연대는 자산 못미처 괴화리(槐花里)에서 진격로를 내륙 쪽으로 전환하여 패천리(沛川里)와 비운령(飛雲嶺)을 거쳐 안변으로 향하였다.

10월 9일, 철야작전으로 철령을 넘어 신고산으로 진출한 내륙의 수도사단은 경원선을 차단하고 그 부근 일대를 수색하던 중, 적 1개사단분의 장비와 물자를 노획하였다. 포장된 채 유기된 다발총 3,000여 정을 노획한 것을 비롯하여 철원 방면에서 화차에 실려 원산으로 수송 중이던 전차 6대, 야포 4문, 82밀리 박격포 11문, 중기관총 30정, 경기관총 500정, 소총 5,000정 그리고 1개 화차분의 의약품 등을 노획하였다.

수도사단의 최선봉 부대인 제18연대 제1대대는 지난밤의 철령 돌파작전으로 전 장병이 극도로 피로하였으나 그들의 동측방에서 20km를 앞질러 원산으로 진출하고 있는 제3사단에 선두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휴식을 취할 겨를도 없이 이날 아침 원산을 향하여 차량이동을 재개하였다.

대대는 안변 서북방 남산리(南山里)에서 적 원산경비 제2여단 소속 1개대대를 격파하고 계속 진격하여 16:00경에는 방화리(訪花里)에 구축된 적의 원산 외곽방어선을 돌파하였다. 대대는 계속 진격하여 원산 남쪽 12km 지점의 삼차

로의 배화리(培花里) 부근에서 적포병 1개대대를 후방에서 급습하여 1개대대본의 야포를 노획하였다. 이 무렵 화천(化川)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축선으로 진격의 길에 나섰던 제1기갑연대 제1대대(대대장 정세진 소령)는 계획대로 도납리(道納里)를 거쳐 안변까지 진격하고 있었으며, 칠령을 넘어 제18연대를 후속했던 제1기갑연대(-1)는 신고산에 진출한 후 잔적소탕작전을 전개하여 적 200여 명을 사살하고 소화기 1,500정, 탄약 2백만 발, 양곡 3트럭분을 노획하였다. 이때 예비로 후속하던 제1연대도 신고산으로 진출하여 전과확대 및 잔적소탕임무를 수행하면서 원산공격을 위한 부대정비에 들어갔다.

동해안 쪽의 제3사단은 제23연대가 10월 9일 남대천을 도하하여 원산시가의 동쪽 끝부분의 갈마반도에 있는 원산비행장과 서쪽의 원산시가지를 공격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하였으며, 예비로 후속하던 제22연대는 이날 오후에 상음리를 통과하여 남대천을 감제하는 야산까지 이동함으로써 이튿날 제23연대의 좌측에서 원산으로 진출할 태세를 갖추었다. 한편 비운령을 넘어 내륙 쪽의 우회기동로를 따라 진격 중이던 제26연대는 안변을 점령하였다.

이리하여 10월 9일 오후 늦게, 원산 약 4km 지역까지 육박한 국군 제1군단은 군단의 예하 6개연대 중 예비를 제외한 4개연대가 각각의 공격축선을 따라 원산으로 돌입할 태세를 갖추었다. 그리고 각 사단의 전방지휘소를 추진하였으니 제3사단은 고저에서 상음리로, 수도사단은 회양에서 신고산으로 각각 이동하였다. 이로써 원산탈환을 위한 제1단계작전은 종료되었다.

(2) 元山 奪還作戰

원산은 북한 동반부의 정치,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군사적 요충지로서 북한인민군은 원산을 요새화하고 각지에서 후퇴한 패잔병들을 합류시켜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원산은 경원선(京元線), 평원선(平元線), 원라선(원산-라진)의 시발지라는 점과 특히 원산-평양을 연결하는 공로(公路)의 기점이어서 이 지역이 붕괴되면 평원선의 횡적 작전망이 완전히 파괴되는 동시에 적의 동서부 전선이 분리되며 평양이 동쪽으로부터 압력을 받게 되는 전략적 요충이다. 또한 해상에서 보면 원산은 영흥만의 호도반도(虎島半島)에 둘러싸여 있는 동해안 최대의 천연적인 항구이다. 그리고 원산비행장은 평양까지 20~30분밖에 안되는 비행거리에 있으며, 북한지역의 제공권을 장

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지이다. 또한 원산항은 소련으로부터 들어오는 각종 전투장비 및 보급품 등 전쟁물자를 반입하는 모항(母港)³⁶⁾이기도 하다.

원산지역 방어를 위하여 북한은 「조선전사」(26권)에 “해군사령부(동해안방어사령부)로 하여금 관하에 있는 모든 역량과 기재를 광교천(통천군) 좌안으로부터 원산지역에 집중배치하고, 지상으로부터 침입하는 적과 해상으로 상륙하는 적을 소멸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원산 동남쪽 25~30km를 연하는 선에 제1방어계선을, 10~15km 지점을 연결하는 지역에 제2방어 계선을 설정,³⁷⁾ 진지를 편성하고 원산 주변 교외에 원형으로 진지를 만들고 시가지 방어를 미리 준비하였다.”³⁸⁾라고 기술하고 있다.

최초 원산지역 방어는 유엔군이 인천상륙을 단행할 무렵인 9월 중순경에는 제588보병연대가 담당하여 연대본부와 제3대대는 원산시가지에, 제1대대는 갈마반도의 원산비행장에, 그리고 제2대대는 흥남에 배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으나³⁹⁾ 많은 패잔병의 집결과 가용부대의 증가로 다음과 같이 방어부대를 대폭증가하고 재편성하였다.

- ① 제249여단으로 원산방어사령부 설치
- ② 제42사단 신편
(제588보병연대, 제599보병연대, 제590해안방위연대 등 약 8,000명의 병력과 직사포 28문으로 사단 신편)
- ③ 제12사단 재편(제5사단 일부 병력과 제101연대를 기간으로 재편)
- ④ 패잔병 3,000명 석왕사(釋王寺) 주변지구에 집결 재편
(철원, 김화, 춘천지구에서 후퇴한 제1, 2, 3, 4, 5, 7, 8, 15사단 소속 패잔병)
- ⑤ 함흥에 있는 증원부대를 원산에 집결
- ⑥ 기타 독립부대인 강릉여단 약 2,000명, 제947독립대대 약 1,000명과 해군사령부 직속 1개대대, 공군사령부 직속 1개중대 등이었다.

이상과 같이 재편성한 병력은 최소 2만여 명으로 추산되었으며 이들은 전차 12대, 122밀리 곡사포, 76밀리 곡사포 3개대대, 120밀리 박격포 8문, 82밀리 박격포, 76밀리 직사포 76문 등으로 장비되어 있었다.⁴⁰⁾

10월 10일 새벽, 드디어 국군 제1군단의 원산공격작전의 막은 올랐다. 원산을 점령,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시가를 감제하는 2개의 고지군(高地群)을 점령하여야만 했다. 그중 하나는 시(市)의 동쪽 끝의 좌우에 우뚝 솟

은 189고지를 비롯하여 136고지, 73고지 등 일련의 고지군이며, 다른 하나는 시의 서측방에서 거의 시내 중심부까지 뻗어내린 여왕산(女王山, 355m)으로부터 북망산(北望山, 143m)으로 이어지는 능선이었다. 길이 약 4km의 원산시는 중심부를 파고드는 영흥만과 반대쪽의 여왕산 능선으로 인하여 중앙지역은 협소하고 동서 양쪽으로 발달되었으며, 동쪽지역에는 원산 철도조차장, 원산 정유공장 그리고 원산비행장과 같은 산업시설이, 서쪽지역에는 시청을 비롯한 주요 행정관청, 원산역 그리고 원산항 등이 들어서 있었다.

이러한 지형특성과 양개 감제고지군을 고려하여 군단장 김백일 준장은 우일선의 제3사단에는 시가 동단(東端)의 고지군을, 좌일선의 수도사단에는 시가 중심부 서측방에 우뚝 솟아 있는 여왕산을 최초의 공격목표로 각각 부여하였으며, 양 사단이 이들 목표를 점령한 다음에는 원산시 중심가를 각각 동쪽과 서쪽에서 협격(挾擊)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공격작전의 진행과정에서 원산시내에서의 양개사단간의 전투지경선이 불투명한데다가 사단 상호간에 원산시를 먼저 점령하려는 경쟁심으로 말미암아 제3사단과 수도사단은 원산시가에서 두 번씩이나 서로 교차진출하게 되는 등 사단간의 전투지경선을 침범하는 일이 벌어졌다.

원산시 동단에 포진하고 있던 제3사단의 선봉 제23연대가 10일 05:30에 제일 먼저 공격을 개시하여 각종 구경의 야포, 박격포 사격과 76밀리 자주포 5대의 지원을 받아 완강히 저항하는 적의 방어선(원산조차장—73고지—원산비행장을 잇는 선)을 격파하고 07:00에는 시가전에 돌입하였다. 이때 이날 아침 신고산 쪽 배화를 출발한 수도사단의 기갑연대가 제3사단의 진격로를 횡단하여야만 진출할 수 있는 갈마반도의 원산비행장을 목표로 제3사단 전투지대 측방으로 접근하였다.

그러나 기갑연대는 189고지—136고지 산 속의 과수원 일대에 잠복하고 있던 적의 전차포 3문과 직사포의 포격으로 진출이 저지되었다. 때마침 이곳을 공격하던 제3사단 제22연대가 적의 포격위치를 발견하고, M1소총의 유효사정거리까지 벧단을 이용하여 적을 기만하면서 침투한 다음 화력을 집중시켜 적들을 제압하였다. 이에 힘입어 기갑연대는 진출을 재개하였으며, 원산 입구 도로에서 기갑연대장 백남권(白南權) 대령과 제23연대장 김준순 대령이 마주쳐 서로 격려했다.

여기에서 일산 도요다 트럭으로 장갑차량 기동타격부대로 가장하여 적진을

돌파해 온 수도사단 제1기갑연대의 제1대대(대대장 정세진 소령)는 원산비행장으로 돌진하고, 연대(-)는 제3사단 제23연대를 후속하여 시가전을 전개한 후 원산시 동반부를 확보하였다.

한편, 내륙 쪽 안변으로 우회기동한 제3사단의 좌일선 연대인 제26연대는 수도사단 책임지역의 여왕산을 목표로 진격하였다. 이때 수도사단의 선봉으로 전일 원산 외곽(배화)까지 진출한 제18연대 또한 여왕산을 목표로 진격하고 있었다. 수도사단장 송요찬(宋堯讚) 준장과 제26연대장 이치업(李致業) 대령은 여왕산 산록에서 만나 군사지도도 없이 일반지도상에 그려진 작전투명도를 서로 대조하면서 전투지경선 문제로 옥신각신한 끝에, 제18연대는 계속 여왕산을 공격하게 되었으며, 제26연대는 원산시의 서남쪽을 차단하기로 하고 춘산리(春山里), 장흥리(長興里)를 거쳐 여왕산 3km 좌측방에 있는 소재봉(小在峰 : 297m)으로 향하였다.

여왕산 공격에 나선 제18연대는 배화여자중학교에 위치한 제10포병대대의 지원하에 3개대대를 전부 투입하였으나 완강한 저항으로 진출이 좌절되었다. 이때 수도사단을 지원하던 모스키토기 폴리곤(Polygon)호의 유도로 미 해병비행단의 F-4u기 편대가 여왕산의 적 진지를 공중공격하여 수도사단의 진로 개척에 도움을 주게 되어 제18연대는 일거에 여왕산을 점령하였다. 연대의 일부 부대는 10:00 조금 지나 원산시 일각에 돌입하였다. 한편 수도사단의 예비인 제1연대는 이날 아침 신고산을 출발하여 원산 외곽 배화부근으로 진출하였다.

이렇듯 혼전을 이룬 가운데 시가 중심부를 거의 동시에 점령한 양 사단은 서로가 먼저 원산에 입성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원산 중심가로 진출한 각 사단 선두의 수색대들은 백묵으로 자기부대가 그 곳을 점령한 시간을 표시해 놓았으며, 원산시를 장악하는 데 절대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주변의 감제고지를 먼저 점령한 부대는 자신들이 원산을 먼저 점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양 사단의 주장에 대하여 군단장 김백일 준장은 “양 사단 공히 10일 05:00에 공격을 개시하여 10:00에 원산을 동시에 점령하였다.”라고 선언하여 양 사단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해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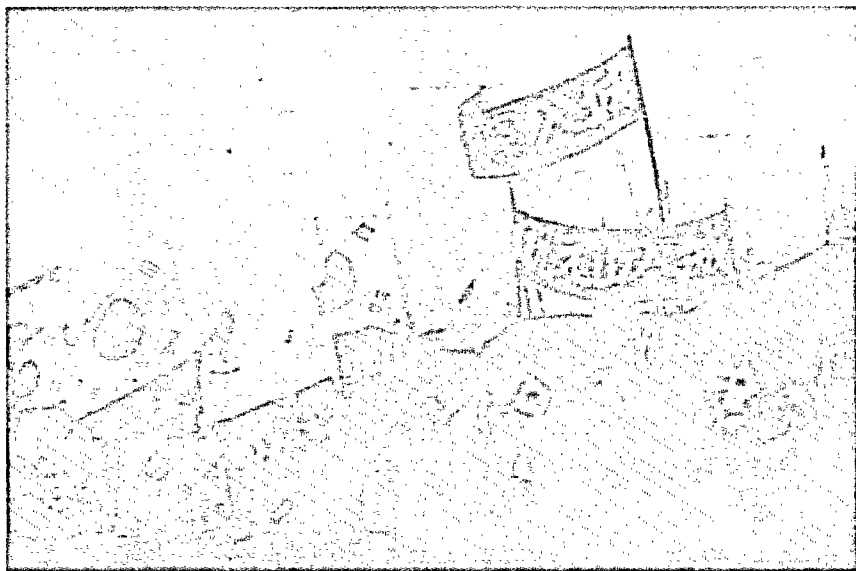
그러나 실제로는 10:00까지도 전 시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제3사단 고문관 에머리크(Emmerick) 대령이 제3사단의 선봉이었던 제23연대와 함께 원산 시내로 진출한 것이 이날 13:30경이었다. 인민군은 정오까지 시내 곳곳에 각종 포를 배치하고 치열한 포격을 가하다가 오후가 되자 모든 포를 시내로부

터 원산시가를 벗어난 북서쪽 외곽으로 철수시킨 다음, 그곳에서 시가지를 향하여 계속 포격을 가하여 국군의 소탕작전을 방해하였다.

양 사단의 잔적소탕작전은 일몰 후에도 계속되었는데, 이날 밤 22:00경 10대의 76밀리 자주포를 앞세운 적 기갑부대가 역습을 가해와 국군 제3사단장과 수도사단장은 병력을 일시 외곽고지로 각각 철수시켰다. 3대의 적 자주포는 기갑연대 제1대대의 경계선을 뚫고 원산비행장까지 들어와 대부분의 건물과 격납고를 포격, 파괴하고 도주하였다.

적의 기갑부대가 후퇴하자, 제3사단은 다음날(11일) 새벽 03:00에 공격을 재개하여 적의 야포, 박격포, 소화기 사격을 받으면서 시 중심가를 뚫고 저녁 때에는 원산역 북쪽의 적전천(赤田川) 제방까지 진출하였으며, 수도사단은 시내에 남아 있는 잔적을 소탕하는 한편 비행장 경비를 강화하였다.

이날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과 제5공군사령관 패트릿지(Earl E. Partridge) 소장이 원산비행장을 시찰하였다. 비행장의 활주로 상태가 양호한 것을 확인한 제5공군사령관은 다음날 전투화물수송사령부(Combat Cargo Command) 소속 수송기 22대를 동원하여 국군 제1군단이 필요로 하였던 긴요보급품 131톤을 원



국군 제1군단의 원산 입성

산비행장으로 긴급공수하였다.

한편, 국군이 원산시내에 들어갔을 때 무참히 학살당한 양민의 시체가 부둣가에 수십 구를 비롯하여 여왕산 기슭 신평리(新豊里) 방공호에 300여 구, 원산 앞바다에 230여 구 등 도합 600여 구의 시체가 덩굴고 있었으니 그들의 동족에 대한 만행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원산 인민교화소(교도소)에 소위 사상범으로 수감되었다가 신평리 방공호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한준명(韓俊明) 목사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증언⁴⁾하였다.

감옥에 4명씩 1개조로 묶인 채 신평리 방공호로 끌려갔을 때 영문도 모르고 혹시 대피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방공호에 들어가면서 학살이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다. 어두컴컴한 T자형 방공호 맨 끝부분부터 학살된 시체가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으며 나도 그 시체 위에 묶인 동료와 같이 요란한 총성과 함께 쓰러졌는데 천행(天幸)으로 살게 되어 굴 문의 폭파로 2일간 시체와 함께 있다가, 국군이 진주하여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다.

이 처참한 원산 학살시체 발굴작업은 당시 뉴스 영화 촬영대가 촬영하여 공개하였다. 약 9만 명에 달하는 원산 잔류시민들은 그 동안의 학살, 피랍 등 엄청난 곤욕을 당하면서도 국군의 원산 입성을 기다렸으며, 원산이 탈환되자 국군을 열렬히 환영하였던 것이다.

3. 中部戰線 38線 突破

중부전선에서 38도선 돌파 및 진격작전은 국군 제2군단이 담당하였다. 제2군단은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205호(10. 5)에 따라 제6사단이 화천-회양-지경리(원산 외곽)로, 제8사단은 철원-평강-용지원리(신고산 북쪽)로, 제7사단은 제6사단과 협조하여 금화를 점령한 후 예비로 후속하도록 되었다.

국군 제2군단의 예하 3개사단은 10월 3일부터 8일 어간에 38도선에 도달하였다. 군단의 우익인 제6사단이 제일 먼저 10월 3일에 춘천 북방의 모진교(毛津橋: 일명 38교) 남단의 38도선에 도달하였고, 군단의 좌익인 제8사단이 10월 7일에 동두천 북방 38도선 2km 남쪽의 초성리(哨城里)로 진출하였으며, 당시 군예비이던 제7사단이 10월 8일 포천 북방 38도선상에 있는 양문리(梁文

里)로 진출하였었다.

이러한 가운데 북진명령이 하달되자 제2군단(군단장 유재홍 소장)은 10월 6일에서 8일 사이에 38도선을 돌파하고 진격을 계속하였다. 제일 먼저 진격을 개시한 우측의 제6사단(사단장 김종오 준장)은 10월 6일 모진교에서 38도선을 돌파한 다음 그 일대에서 저항하던 인민군 제9사단 예하 2개연대를 격파하고 10월 8일 오후 늦게 화천을 점령하였으며 북진을 계속하여 10일에는 금화(金化)를 점령하였다.

좌측의 제8사단(사단장 이성가 준장)은 10월 8일 사단의 선두인 제10연대가 초성리 북쪽에서 38도선을 돌파하고 적 제27여단의 일부 병력을 격퇴하면서 한탄강을 건너 전곡(全谷)에 진출하였다. 전곡을 점령한 사단은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공격체대로 하고 제16연대를 예비로 하여 추격을 재개하여 10월 9일에 연천을 탈환하고 10일에는 철원을 탈환하고 평강으로 도주하는 적을 바짝 뒤쫓았다.

한편, 10월 9일 뒤늦게 양문리(梁文里)에서 38도선을 돌파한 군단 예비인 제7사단(사단장 신상철 준장)은 그 다음날 금화부근 지경리까지 진출하였다.

이와 같이 38도선을 돌파한 국군 제2군단이 예상보다도 순조로운 진격을 계속하자 육군본부는 10월 8일 오전(11:00)에 제2군단을 원산으로 이동시켜 그곳에서 제1군단과 교대한 후 원산을 경비하도록 하고, 제1군단은 그곳에서 평양을 목표로 서측으로 공격하여 미 제1군단과 연결하도록 하는 육본 작명 제211호를 하달하였다. 그러나 이 명령은 이날 밤(20:00)에 다시 212호로 수정되어, 제1군단이 계속 전진해 원산을 확보하고 제2군단은 원산을 경유하여 평양을 목표로 진격하도록 하였다. 이는 군단 교체에서 오는 혼잡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잠시나마 작전에 혼선을 빚었다.

결국 10월 10일에 제1군단이 원산을 점령하게 되자 육군본부는 미 제8군과 협의하에 작전명령 제212호(수정)로써 장차작전과 관련하여 양개 군단의 임무를 명확히 정리하였다.

제1군단 : 미 제10군단이 도착할 때까지 원산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변, 용포리, 용탄리 및 용탄강 입구를 주저항선으로 하고 영흥을 확보함으로써 적의 보급로를 차단, 문천, 영흥, 정평, 함흥 및 파춘장, 홍남 축선을 따라 진격, 적을 섬멸하라.

제2군단 : 가능한 한 신속히 원산으로 계속 전진, 원산 경유, 미 제1군단과 합세하기 위하여 담당지구 내 양덕-장림리-강동리 선을 따라 평양을 향하여 공격 전진하되, 적을 분쇄하고, 그 지구에서 남방 및 북방으로 이동하는 적을 차단 섬멸하라.

따라서 10월 10일에 추가령지구대(楸哥嶺地溝帶)의 북단인 원산과 남단인 철원을 확보한 국군은 제1군단이 동북부전선에서, 제2군단이 평강작전에 참여하고 중부전선에서 북진작전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4. 平壤 奪還作戰

(1) 機動計劃

10월 3일 미 제8군의 작전명령에 따라 주공군단으로써 38도선을 돌파하여 북한정권의 수도 평양을 공격, 탈환하게 된 미 제1군단(군단장 Frank W. Milburn)은 패주한 인민군이 재정비를 하고 견고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기 전에 목표를 탈취하기 위하여서는 신속히 진격할 것을 결심하고 개성-평양 축선에 우세한 화력과 기동력을 갖춘 미군 2개사단을 교대로 투입, 공격기세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그는 잔존하는 인민군의 주력이라 할 수 있는 4개사단 규모의 인민군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개성 북방의 38도선 방어진지만 격파한다면 그 후의 평양으로의 진격작전은 비교적 용이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들 적에 대해 정면돌파보다는 기갑부대의 막강한 충격력과 기동력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게 된 우회이동에 의한 포위작전을 실시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군단작명⁴²⁾을 예하사단에 하달하였다.

- ① 미 제1기병사단(배속 : 영연방 제27여단)은 군단의 주공으로써 개성 정면의 38도선을 돌파하여 금천(金川) 일대의 인민군을 포위섬멸한 다음 계속 남천점(南川店)-사리원(沙里院)-황주(黃州)-평양 축선으로 진격하라.
- ② 미 제24사단은 일부 병력으로 군단의 좌측방을 엄호하고 주력으로써 하더라도 미 제1기병사단을 초월공격할 준비를 하라.
- ③ 국군 제1사단은 군단의 우익으로써 고랑포(高浪浦) 정면의 38도선을 돌파한 다음 군단의 우측방을 엄호하면서 시변리(市邊里)-신계(新溪)-평양

축선으로 진격하라.

미 제1군단장은 북진작전을 위해 10월 4일에 각 사단의 당시 후방작전지역을 미 제9군단에 각각 인계하고 미 제1기병사단을 개성 일대로 진출시켜 군단의 집결을 엄호하도록 하는 한편, 미 제24사단과 국군 제1사단도 각각 임진강 서안과 임진강 북안의 고랑포 부근으로 이동 집결하도록 지시하였다.

군단의 명에 의거 10월 5일 이동을 개시한 미 제1기병사단은 문산리에서 임진강을 도하하여 10월 8일까지 모두 개성 일대로 진출함으로써 군단의 집결지를 점령하였다.

이 무렵 군단의 예비로써 충북 보은지구에 잔류하여 잔적을 소탕 중이던 국군 제1사단은 10월 7일 이동을 개시하여 안성—서울을 거쳐 10월 10일에 임진강 북안의 고랑포로 진출하였으며, 미 제24사단은 10월 8일 천안—대전지구로부터 서울—봉일천 일대로 이동, 집결하였다.

한편 10월 7일 미 제8군이 유엔군사령부로부터 ‘준비되는 대로 공격하라’는 메시지를 수령하고 공격개시일을 10월 9일로 결정함에 따라 미 제1군단은 10월 9일 평양을 목표로 38도선을 돌파하고 북진의 대열에 올라섰다.

(2) 38線—平壤外廓線 進擊作戰

미 제1군단의 주공인 제1기병사단은 평양공격을 위해 도로망이 양호한 개성—평양에 이르는 1번도로 축선을 따라 진격하게 되었다.

제1기병사단장은 38도선에 3개연대를 모두 병행 배치하고 사단에 배속된 영연방 제27여단을 예비로 두었다. 사단은 최초 목표로 38도선 24km 북쪽의 금천을 공격하기 위하여 제8기병연대(연대장 : Raymond D. Palmer)가 사단의 중앙에서 개성—금천간 도로(1번도로)를 따라 정면공격을 실시하고, 그 우측에서 미 제5기병연대(연대장 : Marcel B. Crombez 대령)가 금천을 배후에서 공격하기 위해서 동쪽에서의 우회기동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미 제7기병연대(연대장 : William A. Harris 대령)는 사단 좌측에서 예성강을 도하한 후 배천(白川)을 거쳐 개성—평양도로(1번도로)가 예성강과 교차하는 금천 북방 10km 지점인 한포리(汗浦里)로 진출하기 위해 예성강 도하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미 제7기병연대가 금촌 북쪽 한포리에 진출하여 적의 퇴로를 차단하면 제8기병연대와 제

5기병연대가 금천을 양익포위형태로 공격함으로써 후퇴하는 적을 한포리 전방에서 이중으로 포위 격멸시킨다는 것이 미 제1기병사단장의 작전기도였다. 10월 9일 09:00를 기하여 사단장의 공격명령이 하달되었으며 예하 전 부대들은 계획된 공격축선을 따라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좌일선의 제7기병연대는 작일의 정찰결과에 의해 예성강 철교의 파괴되지 않은 부분을 이용하여 도하가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이날 도하를 강행하게 되었다. 예상대로 적의 화력이 도하지점에 아침부터 집중되었고 아군은 정오부터 시작하여 장장 3시간에 걸친 공격 준비사격을 실시한 뒤에 동 연대 1대대의 C중대가 제일 먼저 도하를 시작하였다. 중대의 1개소대가 철교의 양쪽 난간을 방패삼아 대안을 향하여 돌진하자, 적 제43사단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들을 향하여 집중사격을 가해 왔다. 비오듯 쏟아지는 적탄을 뚫고 철교 위를 돌진한 소대는 수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예성강 대안의 도로까지 진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 뒤를 이어 미 제8전투공병대대의 B중대가 철교 보수작업을 하는 가운데 C중대의 잔여소대가 도하하여 철교 남쪽에 있는 고지를 점령하였다. 이리하여 제1대대는 해가 질 무렵에야 도하를 완료하였는데, 적은 계속해서 박격포탄을 철교와 제1대대 지역에 집중투하했고 연대도 가용한 화력을 총동원하여 대박격포사격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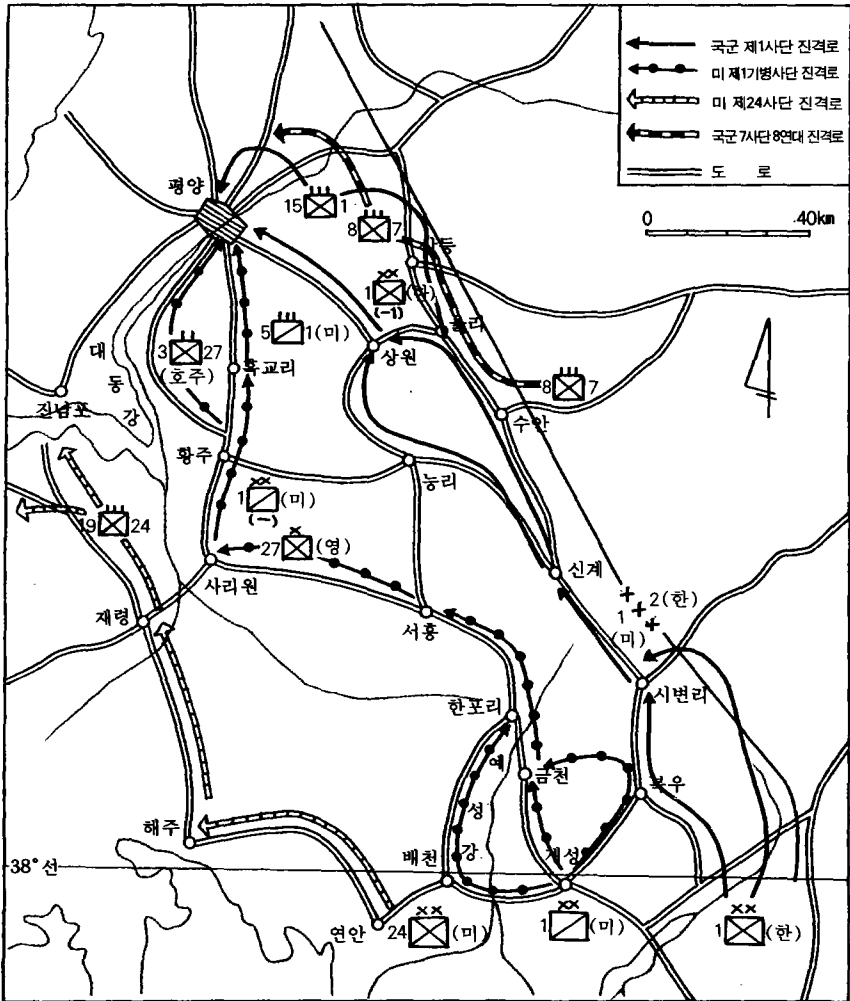
대대가 도하를 완료하자 대대의 도하를 지원하던 야포 및 박격포가 사정(射程)을 연신함으로써 적의 화기진지에 대한 사격이 중단되자, 적은 이때를 이용하여 제1대대 지역에 집중포격을 가해 옴으로써 대대는 많은 손실을 입었다. 대대는 이 도하공격에서 78명의 사상자를 내었으며 대부분 C중대 소속인원이었다.

날이 저물자 제1대대에 대한 인민군의 반격이 또다시 시작되었다. 연대장은 제1대대를 증원하기 위하여 제2대대를 신속히 도하시켜 제1대대의 남쪽 지역을 점령하게 함으로써 제7기병연대의 예성강 도하작전은 성공을 거두었다.

한편 사단의 중앙에서 개성-금천 간 국도를 따라 정면공격을 개시한 제8기병연대는 전차를 선두로 이날(10. 9) 12:00에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적이 많은 지뢰를 매설해 놓음으로써 이를 제거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어 개성 북쪽 3.5km 지점의 송악산을 탈취하는 데 그쳤다.

또한 사단 우일선의 제5기병연대는 장단(長湍)으로부터 동북쪽으로 크게 우회기동을 하면서 포위공격을 개시하여 이날(10. 9) 19:30에야 겨우 38도선까

38도선-평양 진격작전



지 진출하였으며, 그곳에서 진격을 멈추고 야간 자체방어로 전환하여 다음날의 공격준비를 하였다. 그 이튿날(10. 10) 예성강을 도하한 제7기병연대 제2대대는 02:00에 배천도로를 따라 서쪽으로 공격을 계속하여 전진하다가 적으로부터 측방공격을 받고 진격이 저지되었고, 그 후 3차에 걸친 적의 역습과 화력의 열세로 고전을 면치 못했으나 중상을 입고도 후송을 거절하고 끝까지 지휘한 대

대장 허프(Gilmon A. Huff) 중령의 탁월한 지휘능력과 장병들의 분투로 이를 격퇴하고, 날이 밝자 배천을 목표로 진격을 재개하였으며, 이날 오후에 배천과 그 북쪽 고지를 점령 확보하였다.

사단 중앙의 제8기병연대는 전날에 이어 적의 대전차 지뢰제거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진출이 부진하였으나, 다만 연대 우측의 제3대대가 1번 국도 상에 편성한 적 제19사단의 강력한 방어진지인 봉명산(鳳鳴山, 411m)을 탈취하고, 이 고지에 대해 야간역습을 시도해 온 적에 대해 포병의 화력지원을 받아 격퇴하였다. 사단 우측의 제5기병연대는 개성 동북방에서 38도선을 돌파하고 개성-북우(北隅)를 잇는 5번도로를 따라 진격하였다. 연대는 적의 큰 저항 없이 38도선 부근의 중요고지를 점령하였으며 5번도로 주변의 주요 감제고지인 국사봉(國師峯, 764m), 천마산(天摩山, 560m), 극락봉(極樂峯, 471m) 그리고 그 우측의 화장산(華藏山, 560m)도 적 제27사단이 강력한 진지편성으로 저항이 심할 것으로 판단했으나 의외로 미약하였다. 연대는 산발적인 적의 저항을 격퇴하면서 화장산 북쪽 10km까지 진출한 뒤 날이 어두워지자 진격을 멈추고 야간 급편방어에 들어갔다. 10월 11일 사단의 좌익 포위부대인 미 제7기병연대는 배천에서 진로를 북쪽으로 바꾸어 한포리를 목표로 철야행군을 계속하였는데 적의 저항이 전혀 없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앙의 제8기병연대는 적의 완강한 저항을 받아 이날 2km도 진출하지 못하였다. 게다가 봉명산 북서쪽 5km 지점에 우뚝 솟아 있는 두석산(豆石山)에 연대가 접근하려 하자 인민군의 저항은 마치 진지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그 화력이 막강하였다. 이렇게 중앙지역 1번도로 축선상의 제8기병연대 정면에서는 많은 지뢰와 적 병력의 집중배치로 아군의 평양으로의 진출을 강력히 저지하였다.

한편 사단우측의 제5기병연대는 이날 화장산 북쪽에서 공격을 재개하여 고미성(古美城) 일대에 매설한 지뢰들을 제거하면서 개성 동북쪽 25km 지점의 174고지, 175고지와 179고지를 잇는 능선을 점령하고 이들 고지에 의해 감제되는 북우 근처에서 선두의 제1대대가 적의 저지사격으로 전진이 둔화된 가운데 후속 중인 제3대대의 진출을 기다리면서 이날 밤을 보냈다. 이날(10. 11) 사단장 게이(Hobart R. Gay) 소장은 사단 예비인 영연방 제27여단에 진격이 부진한 사단의 중앙과 우익 연대 사이로 진격하여 금천의 우측방을 공격하도록 명령하였다.

한편 이날(10. 11)은 미 제1기병사단의 동측에서 평양을 목표로 병행·공격하

는 국군 제1사단이 38도선을 돌파하고 북진의 장도에 들어서는 날이었다. 국군 제1사단은 전날 밤 늦게 고랑포 일대에 도착하여 집결을 완료하였었다. 이때 사단 좌인접의 미 제1기병사단이 이미 38도선을 돌파하고 금천 포위작전을 진행 중에 있었다.

다른 부대에 비하여 공격개시가 늦어진 것을 걱정한 백선엽(白善燁) 장군은 사단의 주력이 38도선상에 도착하면 즉시 공격을 개시할 수 있도록 사단이 집결을 완료하기 하루 전인 10월 9일 15:00에 먼저 도착한 제15연대 제1대대로 하여금 인민군의 38도선 방어상황을 탐색하도록 하였다. 유재성(劉載成) 소령이 지휘하는 제15연대 제1대대가 고랑포를 출발하여 집적 없이 동북쪽으로 진격, 38도선 3km 북쪽에 위치한 마전리(麻田里)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국군 제1사단의 주력이 공식적으로 북진작전을 시작한 것은 미 제1기병사단보다 2일 뒤인 10월 11일이었다. 이처럼 국군 제1사단 장병들은 여타 인접부대들보다 38도선을 늦게 돌파하였으면서도 그들보다 먼저 평양을 탈환하여야 한다는 굳은 결의로 뭉쳐 있어 장병들의 사기는 매우 높았다.

사단의 첫 공격목표는 좌인접부대인 제1기병사단의 첫 공격목표 금천(金川)보다 더 먼 38도선 북쪽 32km 지점인 교통의 요충지 시변리(市邊里)였다. 사단은 제15연대를 우일선, 제11연대를 좌일선으로 전방 공격부대를 편성하고 제12연대를 사단 예비로 하여 사미천 계곡을 따라 제11연대를 후속하도록 하였다. 10월 11일 사단의 주력이 일제히 38도선을 돌파하여 계획된 공격축선을 따라 총공격을 개시하였다. 한편 임진강을 따라 우회기동한 사단의 우익연대인 제15연대 제1대대는 이날 정오에 38도선으로부터 25km 북쪽의 삭령을 점령하고, 계속 전진하여 그 북쪽 13km 지점의 토산으로 진격하였다. 진출 도중 그곳에서 저항하는 인민군 제27사단 소속의 1개대대 규모의 적을 야간공격을 감행, 격파하고 토산을 점령하였다. 한편 제15연대의 주력은 고랑포 북쪽에서 38도선을 돌파하고 38도선으로부터 2.5km 북쪽인 사미천변의 청정리(靑廷里)까지 집적 없이 진출하였다.

사단의 좌익연대인 제11연대는 이날 여명을 기하여 진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두곡 부근에서 적 1개대대가 배치된 방어진지를 통과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이날 23:00경에 겨우 38도선으로부터 북쪽으로 4km 지점인 서두정장(西頭井場)까지 진출하였다. 제11연대의 진격이 늦어진 것은 적이 매설한 지뢰와 적의 저항이 예상보다 완강하였다는 데도 원인이 있었으나, 적으로부터

노획한 문서로 연대 진출로상에 표시된 그들의 지뢰지대와 화기배치를 사전에 알게 됨으로써 이에 대하여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과감한 진격을 할 수 없었던 데에 더 큰 원인이 있었다. 연대는 노획한 적의 화기배치도에 표시된 적 화기진지를 차례로 공격 점령하면서 조심스럽게 전진하였다. 그러나 적의 화기진지를 점령하고 보면, 거기에는 실전(實戰) 경험이 전혀 없는 신병들이 잇단 패전으로 사기마저 극도로 저하된 상태에서 국군이 미처 공격도 시작하기 전에 새로 지급받은 화기를 유기하고 도주 또는 후퇴해 버린 흔적이 역력하였다.⁴³⁾

이날 국군 제1사단의 진격은 삭령 방향으로 우회기동 중인 제15연대 제1대대를 제외하고는 우익의 제15연대(-)가 2.5km, 좌익의 제11연대가 4km를 진격하였을 뿐이었다.

사단장 백선엽 준장은 사단이 이와 같이 느린 속도로 진격하자 그가 미 제1군단장 밀번 소장에게 약속한, 국군이 미군보다 앞서 평양으로 진격하는 것이 어렵게 되지 않을까 하고 우려하게 되었다. 이때 다부동 전투 때부터 계속 사단을 지원해 온 미 제10고사포단장 헨닝(Henning) 대령이 “보·전·포협동 돌파 작전”을 건의하였다. 적의 저항을 야포와 항공기로 제압하면서, 보병의 엄호를 받는 전차로써 적의 진지를 돌파하면, 그 뒤를 주력부대가 차량기동으로 후속하는 작전이었다. 그리고 부족차량은 고사포단의 탄약차량 50여 대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사단장은 그의 제의를 참모 및 고문관들의 토의를 거쳐 효과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였다. 이리하여 사단예비인 제12연대가 배속된 제6전차대대 C중대(M46 Patton전차 21대)와 미 제10고사포단⁴⁴⁾ 그리고 국군 제17포병연대 C포대와 보·전·포 협동작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한편 국군 제1사단의 좌익접 미 제1기병사단은 공격을 계속해서 좌익인 제7기병연대의 제3대대가 12일 아침에 연대의 최초 공격목표인 금천 북방 9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한포리로 진출하여 적의 퇴로를 차단하였다.

따라서 좌익의 제7기병연대가 금천 일대에서 제8 및 제5기병연대의 진출에 강력히 저항하는 인민군 제19 및 제27 양개 사단의 병력 수천 명의 퇴로를 차단하는 대성공을 거두었으며, 이곳에 차단진지를 구축하고 인민군의 철수를 기다렸다.

이날 밤, 제7기병연대가 구축해 놓은 도로봉쇄선에 남동쪽 금촌 방향으로부터 제8 및 제5기병연대의 추격을 받아 패주하는 적이 몰려들었다. L중대의 1개

소대가 구축한 매복진지에 북(北)으로 후퇴 중인 11대의 인민군 트럭이 전조등을 켜 채 마음놓고 밀어닥친 것이다. 소대는 적 차량들이 소총 유효사정거리내로 접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제히 집중사격을 가하여, 탄약을 적재한 인민군 트럭 4대를 파괴하고 다른 6대를 노획하였으며 인민군 약 50명을 사살하고 50여 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다.

제7기병연대는 중상을 입고 포로가 된 인민군 장교로부터 금천을 방어 중인 인민군 2개사단(제19사단과 제27사단)이 10월 14일 밤을 기하여 남천점(南川店)으로 철수하기 위해 유엔군의 금천 포위망 돌파를 계획한 작전문서를 노획하였다. 그는 금천 일대의 인민군 일부가 24km 북방 남천점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미 제7기병연대의 예성강 도하 후의 한포리까지의 장거리 우회기동작전의 성공은 사실상 어려운 조건하에서 이루어진 군수지원의 결과였다. 미 제7기병연대가 예성강 도하작전을 실시하기 전 군수지원에 관한 협의과정에서 사단 군수참모는 연대가 비록 도하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 후 배천으로부터 북쪽으로 진격하는 데 소요되는 연료, 야전식량 및 탄약 등을 사단의 현재능력으로서는 지원이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연대장 해리스(William A. Harries) 대령과 연대작전주임 위벨(James B. Webel) 대위의 노력으로 인천으로부터 필요한 보급품을 13척의 차량 상륙정(LCV)에 적재하고 해상으로 예성강 도하지점까지 수송했던 것이다.

사단 우익의 미 제5기병연대는 12일 아침 일찍부터 전개된 전투에서 선두의 제1대대가 북우(北隅)로 이어지는 좁은 길목의 175고지에서 10대로 추산되는 자주포의 지원을 받는 대대규모의 인민군으로부터 강력한 저항을 받아 제2대대를 진출시켜 제1대대와 합세하여 적을 힘겹게 격퇴시키고 오후에 그 일대를 확보하였다. 이날 북우에서 연대는 구화리(九化里) 방면으로부터 북진하여 온 국군 제1사단과 접촉하였으며 금천으로 향하였다.

한편 미 제5기병연대를 후속하던 영연방 제27여단은 북우 서쪽 7km 지점에 있는 홍화리(弘化里)까지 진출하여, 그곳으로부터 국사봉 북쪽을 거쳐 금천으로 통하는 기동로를 찾고 있었다. 그러나 사단 항공관측반의 잘못된 유도로 중앙의 제8기병연대 지역으로 진입하였으며 끝내 금천전투에는 참가하지 못하였다.

10월 13일 미 제1기병사단은 전날까지 금천 북방의 한포리에서 제7기병연대가 퇴로를 차단하고 있었으며, 금천 동쪽에서는 제5기병연대가, 남쪽에서는 제8

기병연대가 적의 강한 저항을 격퇴하며 금천을 포위하기 위해 진격하고 있었다. 동측방을 공격 중인 미 제5기병연대는 계속 지뢰지대에 직면하여 이를 제거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었으며, 북우 서쪽 13km 지점에서 약 300명으로 추산되는 인민군과 조우하여 이들을 격퇴시키는 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연대는 이러한 난관을 차례로 극복하고 이날 석양에 금천 외곽까지 진출하였다.

한편 남쪽에서 접근하는 제8기병연대는 경의가도를 따라 진격 도중 두석산(豆石山) 일대의 적의 강력한 방어진지를 돌파하지 못하여 지원화력을 요청한 결과, 이날 아침 지원포병의 공격준비사격이 두석산 일대에 집중되었다. 연대의 전투부대가 인민군 진지와 너무 근접되어 있어 B-26 전폭기의 공중지원이 취소되었으나 그 밖에 전투기편대들은 매 30분마다 적진 상공으로 출격하여 인민군 진지를 계속 강타하였다. 그러함에도 미 제8기병연대가 공격할 때마다 인민군은 전차, 야포, 박격포 및 각종 자동화기의 지원하에 그들의 이른바 반돌격(反突擊)을 가하면서 완강하게 저항하였다. 인민군은 여러 차례에 걸쳐 역습을 가해 왔는데, 그 중 한 번은 인민군 전차가 아침 안개를 뚫고 선두의 미 제70전차대대 B중대 전차를 향하여 돌진하여 옴으로써 전차전이 전개되었다. 이날 일진일퇴의 대전차공방전에서 제8기병연대의 공격을 지원한 유엔공군 및 미 제70전차대대 B중대 소속 전차대는 총 8대의 T-34 전차를 파괴하였다. 그러나 미군전차는 피해가 없었다.

이렇듯 인민군 제19사단의 주력이 금천 남방 두석산 부근에서 미 제8기병연대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하여 결사적인 저항을 하고 있을 때 1,000여 명으로 추산되는 인민군 병력이 탑승한 대규모의 차량 및 우마차의 행군대열이 금천을 빠져나와 1번국도를 따라 북쪽으로 후퇴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미 제7기병연대가 한포리에서 그들의 퇴로를 차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미 제7기병연대는 유엔공군의 항공지원을 받아 이들 인민군 500여 명을 사살하고 201명을 생포하였다.

동측에서 금천을 공격하던 제5기병연대의 선두인 제2대대는 이날 자정에 공격을 재개하여 금천 외곽을 방어하던 인민군을 소탕하고 금천 시가지 북반부를 점령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진출한 제3대대는 금천 남반부를 점령 확보하였다. 그 이튿날인 14일에 제2대대장은 한포리의 제7기병연대와 연결하기 위해 북쪽으로 진격하고, 제3대대는 북상 중인 제8기병연대와 연결하기 위해 남쪽으로

진격하였으며, 제1대대는 금천 시가지 소탕을 담당하였다.

북서쪽으로 전진한 제5기병연대 제2대대는 정오경 한포리의 미 제7기병연대와 연결하는 데 성공하였다. 제2대대가 남쪽으로부터 한포리로 전개하여 들어가자 제7기병연대의 차단진지를 공격하고 있던 약 2,400여 명의 적은 모두 부근의 산악지대로 도주하였다. 남쪽으로 진격한 제3대대는 제8기병연대의 월튼(Walton) 특수임무부대와 이날 정오경 금천 남쪽 6.5km 지점에서 연결하였다. 이리하여 미 제1기병사단의 금천 포위작전은 작전을 개시한 지 5일 만에 종결되었다.

금천이 점령당하고 38도선 방어선이 무너지자, 당황한 김일성은 대노하여 “앞으로는 일보도 후퇴해서는 안 된다. 더 물러설 땅이 없다.”라고 하면서 각 부대장에게 독전대를 편성하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뒤늦게 38도선을 돌파한 국군 제1사단은 보·전·포 협동작전부대로 지정된 사단예비 제12연대(연대장 金點坤 중령)는 한순화(韓順華) 소령이 지휘하는 제1대대를 연대에 배속된 미 제6전차대대 C중대에 탑승시키고 고랑포 북방 14km 지점인 구화리를 목표로 진격하게 되었다.

보·전·포 협동부대는 2번전차에 탑승한 사단장의 지휘로 10월 12일에 사미천(沙尾川) 하안(河岸)을 따라 일거에 구화리로 진출하였다. 이 보·전·포 협동작전은 상호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데다 협동작전의 경험이 없었던 까닭에 처음에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날 오후부터는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구화리를 점령한 제12연대는 그 여세를 몰아 진격을 계속하여 해질 무렵에는 구화리 북서쪽 10km 지점의 북우 근처까지 진출하였다. 이 지역은 북쪽으로 시변리, 서쪽으로 금천으로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로서 국군 제1사단의 전투지대였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국군 제1사단의 제12연대는 양개 부대간의 협조로 제5기병연대가 북우를 먼저 점령하고 서측도로를 따라 금천으로 이동한 뒤, 북우를 거쳐 시변리로 향하였다.

사단의 좌익선인 제11연대는 작일 가장 멀리 서두정장까지 진출한 제2대대가 적의 저항이 뜸해진 01:00에 행동을 개시하여 8km를 더 진격한 다음 고미성(古美城)에서 사미천을 이용하여 적의 퇴로를 차단하였다. 우측의 연대(-1)는 구화리를 거쳐 두곡리로 진출하였다.

10월 13일 국군 제15연대의 선봉 제1대대가 01:00에 토산리로부터 시변리를 목표로 우회기동을 계속하여 07:30에 시변리 동쪽 끝부분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이날 아침 식령을 출발한 제15연대(-1)는 제2대대가 14:00 시변리 서쪽 구성리(龜城里)로 진출하여 적의 퇴로를 차단하였으며 제3대대는 15:00에 시변리에 진출하였다. 이날 새벽에 위천리 부근에서 제11연대를 초월공격한 제12연대는 마식령산맥의 황계치를 넘어 시변리를 목표로 진격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연대는 황계치를 넘은 후부터 시변리까지 적이 매설한 지뢰를 제거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이 지체되었다. 연대는 이날 보·전·포 협동작전으로 주간에 25km를 주파하여 오후 일찍이 시변리에 도착, 제15연대와 연결하고 시변리 북쪽을 차단하기 위하여 외곽으로 진출, 야간 급방방어에 들어갔다. 사단예비로 된 제11연대도 제12연대를 후속 이날 일몰경에 시변리에 도착하였다.

국군 제1사단은 이 지역의 교통의 요충지인 시변리를 확보하고 적의 퇴로를 차단하는 데 성공하였다. 퇴로를 차단당한 인민군이 집단으로 투항하기 시작하여 사단은 이날만도 225명의 포로를 획득하였으며 수공과 후송이 문제가 될 정도였다. 국군 제1사단은 그 이튿날 배속된 미군 M-46 패튼 전차에 병사들을 분승시킨 제12연대를 선봉에 세우고 그 뒤를 제11연대가 초월공격이 가능하도록 후속하게 하였으며, 제15연대는 사단예비로 후미에서 진격하도록 하였다.

사단은 신계-곡산 쪽으로 후퇴하는 적을 추격하여 시변리 북서쪽 미우동 일대에서 T-34 전차 6대를 위시한 각종 포의 지원을 받는 연대규모의 적을 격퇴하고 이날 밤 신계까지 급속도로 진출하였다.

한편 미 제1군단의 동측에서 중부전선의 험준한 산악지대로 북진 중인 국군 제2군단은 10월 10일 육군본부로부터 “가능한 신속히 원산으로 계속 전진, 원산을 경유 미 제1군단과 합세하기 위하여 양덕(陽德)-장림리(長林里)-강동리(江東里) 선을 따라 평양을 향하여 공격하라.”는 육군본부로부터 작명⁶⁾을 접수하였다. 군단장 유재홍 소장은 수정된 작전명령을 예하사단에 하달하여 평양을 향한 공격작전 대열에 들어서게 하였다.

이리하여 제6사단의 선봉연대인 제2연대는 10월 13일 밤에 신고산을 출발하여 원산을 경유, 원산-평양 간 도로를 따라 다음날에는 그 서쪽 5km 지점인 덕원(德源)까지 진출하였다. 한편 평강(平康)으로부터 북진을 재개한 군단의 좌익 제8사단은 13일 밤에 임진강 상류의 이천(利川)을 점령하였고, 그 다음날에는 마식령산맥을 넘어 평양을 향하여 신계 방향으로 서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군단장은 제8사단이 국군 제1사단의 작전지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진격을 곡산 쪽으로 전환하여 평양 동북방으로 진격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그 동안 육본 예비로서 포천－지경리를 거쳐 10월 12일 평강으로 진출하여 그 일대에서 잔적소탕작전을 전개하고 있던 국군 제7사단은 10월 14일 육본 작명 제215호에 의거 국군 제2군단으로 다시 배속되어 평양을 공격하게 되었다.

10월 9일과 14일 사이의 6일 동안에 걸쳐 3중으로 구축된 인민군의 38도선 방어진지가 미 제1군단의 금천－시변리 포위작전에 의해 돌파되고 국군 제2군단이 신계－이천－덕원 선에서 평양을 향해 압박해 들어감으로써 평양진격작전은 한층 더 열기를 띠게 되었다. 다음 단계의 미 제1군단의 진격작전은 현 진출선(한포리－신계)으로부터 60km 거리인 황주(黃州)－울리(栗里) 선을 향하여 계속되었다. 군단의 우익인 국군 제1사단은 예성강 상류에 위치한 신계를 거쳐 수안으로 진격하고, 군단 중앙의 미 제1기병사단은 선두의 미 제7기병연대가 남천점에서 멸악산맥을 넘어 서흥 방향으로 진격하며, 나머지 2개연대와 영연방 제27여단은 남천점－금천 선에서 그 뒤를 따르도록 하였다. 그리고 군단 좌익의 미 제24사단은 미 제21연대로 배천을 거쳐 해주를 공격할 준비를 하는 동안, 주력 2개연대는 개성 부근에 집결하도록 하였다.

미 제1기병사단장 게이 소장은 그와 같은 군단 계획에 따라 38도선－평양 축선상의 요충지인 사리원을 점령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동계획을 수립하였다.

공격개시일은 10월 15일 07:00로 하며, 사단의 최선봉 부대로서 남천점－서흥 축선으로 진격 중인 미 제7기병연대가 서흥을 점령하면, 그 뒤를 후속 중인 영연방 제27여단이 연대를 초월공격하여 사리원을 정면에서 공격하고, 미 제7기병연대는 서흥으로부터 신당리로 우회기동하여 사리원 북방 18km인 황주로 진출하여 적의 퇴로를 차단하고 일부 병력을 남진시켜 사리원을 북쪽에서 공격하며, 미 제5기병연대는 서쪽으로 우회하여 남천점－청석두리－신원－재령－사리원 선으로 공격한다.

게이 사단장은 적이 이용할 만한 산악지형이 거의 없어 진출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고 사리원을 삼면으로부터 분진협격(分進挾擊)할 계획이었다.

10월 15일 미 제7기병연대 제2대대는 아침부터 한포리에서 남천점 공격을 개시하였다. 근접항공지원차 출격한 유엔공군 전폭기들의 네이팜탄 및 로켓포 공격과 기총소사가 시작되자, 남천점은 이른 아침부터 온통 불바다가 되었다. 적의 저항이 의외로 완강하여, 대대는 40여 명의 사상자를 내는 격전 끝에 정오경에야 남천점을 점령하였다. 이때 획득한 포로들은 “제19사단 지휘소가 과

괴되고 사단참모장이 폭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인민군은 금천에서부터 계속된 패전에도 불구하고 독전과 강요에 따라 여전히 강력하고도 조직적인 지연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날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한 가랑비가 저녁 무렵에는 갑자기 폭우로 변하여 도로가 온통 진흙밭이 되었으므로 남천점으로부터 서쪽으로 우회기동하여 해주 방면에서 패주하는 적의 퇴로를 차단하려던 미 제5기병연대의 기동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이에 따라 미 제1기병사단의 진격작전은 당초 계획보다 전반적으로 지연되었다. 이렇게 되자 가뜩이나 워커 장군으로부터 진격이 너무 늦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군단장 밀번 소장은, 이날 군단의 전 전투력을 투입하여서라도 일거에 사리원을 협격하여 점령할 것을 결심하고, 미 제24사단장(사단장 : John H. Church 소장)에게 미 제1기병사단의 좌측방을 엄호하면서 북으로 진격하여 사리원을 공격, 점령하고 평양을 향하여 계속 진격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같은 날 제1기병사단장 게이 소장도 영연방 제27여단장에게 미 제7기병연대의 직후방을 후속하여 동 연대가 서흥을 점령하면 그곳으로부터 연대를 초월공격하여 사리원을 점령할 준비를 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와 같이 지휘관들은 평양 조기 탈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으나 장병들은 겹친 피로로 매우 지쳐 있었다.

10월 16일 아침 일찍이 남천점으로부터 진격을 재개한 미 제7기병연대 제3대대(대대장 : James H. Lynch 중령)는 신막을 경유하여 이날 정오에 서흥을 점령하였으며, 그 뒤를 따르던 동 연대 제1대대는 서흥에서 북쪽으로 장춘천에 연한 지방도로를 따라 신당리로 진출하였다. 한편, 스테펜스(Richard W. Stephens) 대령이 이끄는 미 제24사단 제21연대는 이날 계획대로 배천을 출발하여 연안을 거쳐 해주 외곽까지 진출하였으며, 남천점에서 서쪽의 누천리 방향으로 서진한 미 제5기병연대와 미 제24사단 제19연대는 각각 청석두리를 목표로 진격하였다. 청석두리를 점령하면 그중 미 제19연대는 신원리 방향으로 서진한 다음, 재령-사리원 축선으로 진격할 계획이었으며, 미 제5기병연대는 최초의 계획을 변경하여 진로를 북동쪽으로 바꾸어 서흥으로 진격할 계획이었다.

이리하여 이날 금천-남천점 국도는 미 제7기병연대에 이어 서흥에서 미 제7기병연대를 초월공격하기 위하여 북진 중인 영연방 제27여단과 그 뒤를 후속한 미 제5기병연대, 미 제24사단 제19연대의 차량대열로 대혼잡을 빚었다. 이 같은 와중에도 군단장 밀번 소장이, “제1기병사단과 제24사단 중 먼저 사리원을 점령하는 사단에 평양을 제일 먼저 입성하는 영광을 줄 것이다.”라는 약속

을 하였다는 말이 나도는 가운데 양 사단 장병들 간에는 더욱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진격작전에서 모든 부대에 나타난 공통된 특징은, 군단의 각 사단간에는 물론 같은 사단의 연대간에서까지도 서로 먼저 평양을 점령하려는 경쟁심에 불타고 있었다.

이와 같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17일 미 제7기병연대는 신당리의 제1대대를 선두로 황주천 계곡의 우마차길을 따라 서진, 사리원 북쪽 26km 지점인 황주를 목표로 원거리 우회기동을 개시하였으며, 영연방 제27여단은 이날 아침 서흥에서 미 제7기병연대 진지를 초월하여 국도를 따라 사리원으로 진격하였다. 진격대형은 아길(Argyll) 영국군대대를 선두로, 중앙에 호주군 제3대대, 맨 후미에 미들섹스(Middlesex) 영국군대대의 순으로 한 종대대형이었다. 선두의 아길대대는 사리원 남쪽 6km 지점까지 적의 큰 저항 없이 진출하였으나 이 지점에서부터 대대는 적의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되었다. 적은 도로가 구부러진 지형을 이용하여 그 좌우능선에 대전차포와 자동화기를 배치하고 대대의 접근을 기다리고 있었다. 침병전차의 약 100m 후미에서 중대를 지휘하던 중대장 윌슨(David Wilson) 소령은 도로 좌측방의 경사진 사과밭으로부터 선두의 제1소대가 탐승한 전차대에 사격을 가하기 시작한 적을 발견하였다. 중대장은 즉각 중대를 좌우측으로 전개하여 중대 가용화력과 전차포의 사격을 사과밭으로 지향시켜 적 40여 명을 사살하고 많은 포로와 장비를 노획하였다. 그 후 진격을 계속한 영연방 제27여단은 더 이상 적의 저항이 없는 가운데 이날 16:00에 유엔 공군기의 계속된 폭격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다시피 한 사리원으로 진출하였다.

이날 17:00에 호주군 제3대대는 여단장 코드(Basil A. Coad) 준장으로부터 아길대대 진지를 초월공격하여 황주 쪽으로 8km를 북진, 사리원－평양간의 도로를 차단하고 다음날의 공격에 대비하라는 명령을 받고 사리원을 출발하였다. 그곳에 도착한 대대는 전방에 견고하게 구축된 적 진지를 마주보는 위치에 방어진지를 편성, 점령하고 다음날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한편, 10월 17일 아침 서흥으로부터 동북쪽으로 우회기동하여 신당리－황주 축선으로 진격한 우측방의 미 제7기병연대는 크라이노스(Peter D. Clainos) 중령이 지휘하는 제1대대를 선봉으로 사리원 북쪽 26km인 황주를 목표로 진격을 계속하였다. 그러던 중 오후 16:00경, 연대가 막 황주 남동쪽 5km까지 진출하여 다시 경의국도로 접어들었을 때, 경항공기가 투하한 사단장의 긴급 통신문을 수령하였다. 그 통신문은 “사리원 북쪽의 사리원－황주간 국도변 일대에 대규

모의 적이 운집하여 있다. 연대장은 연대주력을 계속 북으로 진격시켜 황주를 점령하도록 하고 1개대대를 즉시 남으로 기동시켜 그 적을 격멸한 후 사리원 북쪽의 호주군대대와 연결하라.” 하는 내용이었다.

이리하여 미 제7기병연대의 제2대대, 제3대대는 북쪽으로 진격을 계속하였으며, 제1대대는 사리원을 향하여 남진하기 시작하였다. 제1대대가 평양-사리원 국도를 따라 남하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대대는 군마(軍馬) 37필로 편성된 북한군의 기마분견대를 생포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북한군 대대가 사리원-황주 국도에 연한 양쪽 고지대에서 저지진지를 점령하고 유엔군의 진격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대대는 곧 도로 양쪽에 전투대형으로 전개하여 조심스럽게 남진하였으나 3~4km를 채 못 가서 대대 선두가 도로 동측방의 적으로부터 사격을 받게 되었으며 치열한 총격전이 전개되었다.

이때 대대장 크라이노스 중령이 기지를 발휘하여 한국인 통역관으로 하여금 적진 가까이 접근하여 큰소리로 “너희들이 대적하고 있는 부대는 소련군이다.” 라고 외치게 하였다. 그러자 1개소대 규모의 적이 크라이노스 중령이 있는 곳으로 다가왔으며 그들은 그곳에 미리 잠복시켜 놓은 미군들에 의하여 재빨리 무장이 해제되었다. 속은 것을 눈치챈 수명의 적이 항거하려 하였으나 그들 중 1명이 아군에 의하여 사살되자 나머지 인민군들은 곧 저항을 단념하고 투항하였다. 부근 고지에서 이를 지켜보던 다른 인민군 병사들도 연쇄적으로 줄을 지어 투항하였다. 이리하여 도로 동측방의 적들은 일제히 투항하였으며 그 좌측방의 적도 상당수가 투항함으로써 이날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에는 1,700여 명의 병사와 13명의 간호원들이 대대에 투항하였다.

이날 18:00에 대대장은 사리원 북쪽에 있는 호주군 제3대대장 그린(Charles H. Green) 중령에게, “미 제7기병연대 제1대대가 자동차에 불을 켜고 그곳으로 남진한다.”라고 무선으로 연락한 후, 곧 남진을 시작하여 22:30에 호주군 대대진지에 도착하였다.

이와 같이 미 제1기병사단은 강력한 적의 저항을 물리치고 사리원을 먼저 점령하게 되었으며, 군단장이 약속한 대로 미 제24사단을 제치고 평양공격의 선봉을 맡게 되었다. 이날 군단 좌익인 미 제24사단은 제21연대가 해주를 점령하였으며, 제19연대는 청석두리-신원리-재령을 거쳐 사리원 약 10km까지 육박하였으나 사리원이 이미 제1기병사단에 배속된 영연방 제27여단에 의하여 점령되었으므로 군단장은 미 제24사단의 사리원 진격을 중지시켰다. 이리하여 미

제24사단은 다음날 진로를 진남포 방향으로 전환하여 진격하게 되었다.

국군 제1사단장은 10월 14일 신계(新溪)를 점령한 후 그날 밤 사단 작전회의를 개최하고 상원(祥原)－울리(栗里) 축선 진격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제12연대가 우익에서 신계－수안(遂安)－울리 축선으로 진격하고, 제11연대가 좌익연대로서 신계－능리(綾里)－상원 축선으로 진격하며, 제15연대가 사단예비로써 사단사령부와 함께 제12연대를 후속하도록 하였다.

10월 15일 아침 사단은 계획대로 진격을 개시하였다. 신계 서쪽 2km 지점인 삼거리로부터 신계－수안 도로를 따라 진격을 개시한 사단 우익의 제12연대는 보·전 협동부대의 선도하에 일몰 직전까지 약 30km를 진격하여 수안 남쪽 하유리(下有里)까지 진출하였다.

한편 신계리를 출발하여 대평리(大坪里)－도아리(陶阿里)－능리 축선으로 진격한 사단 좌익의 제11연대 역시 적의 큰 저항 없이 21km를 진격하여, 이날 저녁 일몰시간까지는 광수리(廣水里)로 진출하였으며 사단예비인 제15연대와 사단사령부도 시변리에서 신계리로 이동하였다.

그 이튿날인 16일 제12연대는 하유리를 출발하여 그 북서쪽 수안을 목표로 진격하였다. 사단 수색중대의 정찰보고에 의하면 수안 남동쪽 445고지(長山)와 북쪽 요동산(遼東山)에 각각 대대규모의 인민군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연대장은 제2대대를 우일선으로 전진시켜 장흥동 뒷산을 공격하게 하고, 제3대대를 좌일선으로 전개시켜 수안을 거쳐 요동산으로 공격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공격을 개시한 연대는 우측의 제2대대가 배속된 미군 전차의 지원을 받아 12:30에 장흥동 뒷산(373m)으로 진출한 후 좌일선의 제3대대의 요동산 공격을 화력으로 지원하였다. 이리하여 연대는 요동산을 점령하고 이어 그 서측 수안을 점령하였다. 한편 사단의 좌익인 제11연대는 이날 일몰까지 좌인접 부대인 미 제1기병사단과의 전투지경선 가까이에 있는 능리로 진출하였다.

10월 17일 사단의 주공인 제12연대가 아침에 수안에서 울리를 목표로 진격을 개시하였다. 연대장은 연대예비로 후속하던 제1대대병력을 배속된 미군 전차에 탑승시켜 제2 및 제3대대를 초월공격하도록 하였다. 대대가 울리 남쪽 1.3km 지점에서 양쪽이 절벽으로 이어진 계곡으로 접어들었을 때 그 계곡의 감제고지인 좌전방 연대봉(蓮臺峰, 350m)과 우전방의 칼날같이 가파른 능선(200m)에 직사포 2문과 박격포 4문을 배치하고 있는 2개대대 규모의 적으로부터 사격을 받았다. 대대는 즉각 진격을 멈추고 긴급항공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후속 중인

제3대대의 진출을 기다렸다. 약 15분 후에 제3대대가 도착하자 제1대대가 연대봉을, 제3대대가 좌측능선을 목표로 공격하였다. 양개 대대가 거의 적진 가까이 돌진하였을 때(17:00경) 연대예비로서 상함리로 진출한 제2대대가 제1대대를 지원하여 연대봉을 점령하고 계속 전진하여 울리를 점령하였다. 울리를 점령한 제12연대 제2대대는 좌일선의 제11연대와의 연결을 위하여 미군 전차 10여 대에 분승, 보·전 협동으로 울리 서쪽 17km 지점인 상원으로 진격을 계속하였다.

한편 사단의 좌익인 제11연대는 17일 05:00에 도보로 능리를 출발하여 그 서북방인 상원을 목표로 진격하였다. 연대의 선두인 제2대대가 상원 남서쪽 각대봉(角帶峰)과 지점인 190고지를 연하는 선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배치된 적으로부터 저지사격을 받았다. 배치된 적의 규모는 1개대대에 달하였다. 제2대대(대대장 車甲俊 소령)는 제17포병대대 B포대의 화력지원 아래 이들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다. 16:30에 대대가 적진으로 육박하자 적은 거둬되는 패주로 전의를 잃었는지 진지를 포기하고 평양 쪽으로 도주하였다. 이리하여 제11연대는 18:00에 상원을 점령하였다. 그 후 21:00경 연대는 제12연대 제2대대가 상원에 진입함으로써 양개 연대간에 연결이 이루어졌다. 그 후 연대는 상원-평양 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7.5km 지점인 초귀동(初貴洞)으로 진출하여 23:00경 그곳에 전면방어(全面防禦)진지를 구축하였다.

이와 같이 10월 17일, 국군 제1사단은 38도선 돌파 이후 일일진출거리로서는 최고기록인 42km를 진격하여 평양 동남쪽 26km 지점 상원-울리 선을 점령한 것이다. 국군 제1사단은 기동력이 열세하고 2일이나 늦게 38도선을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상원선에 도착함으로써 같은 날 황주까지 진출한 제1기병사단을 훨씬 앞질러 평양에 근접하고 있었다. 여하튼 황주-상원 선의 점령으로 적의 평양 외곽방어선을 돌파한 군단은 평양공격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

사단장 백선엽 준장은 강력하게 구축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평양시 외곽방어선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1개 전차중대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밀번 군단장에게 요청하여 미 제24사단의 제6전차대대 D중대를 추가로 배속받았으며, 상원에는 2개중대 50여 대의 미군전차가 집결하여 내일의 평양공격준비에 바빴다.

(3) 平壤入城

미 제1군단은 10월 17일 38도선으로부터 평양 외곽선인 황주-울리(栗里)선까지 진출함으로써 평양까지 불과 40km를 앞두고 있었다. 이때 국군 제2군단은 제6사단이 원산-평양 축선으로 계속 서진하여 동양(東陽)까지 진출하였으며, 제8사단은 평강(平康)으로부터 3번도로를 따라 양덕(陽德) 남쪽 17km 지점까지 진출하였고, 제7사단은 국군 제8사단을 후속하여 마식령(馬息嶺)산맥을 넘어 예성강 상류의 곡산(谷山)으로 진격하였으며, 그중 제8연대는 17일 오후 늦게 울리에 진출하였다. 이로써 평양의 포위망은 남쪽·동남쪽·동측의 삼면에서 압축되고 있었다. 이날 10월 17일 이승만 대통령은 총참모장 정일권 소장에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평양만은 우리 국군이 먼저 점령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는 미 제1군단의 주공인 미 제1기병사단이 평양탈환을 위해 기계화부대로써 전격적인 속도로 황주까지 진출하고 있어 제일 먼저 평양을 점령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정 총장은 그날 제2군단사령부(곡산)를 방문, 군단장(유재홍 소장)을 만나 대통령의 뜻을 전하였고, 군단장은 제7사단사령부(丁峯里)로 달려가 사단장(신상철 준장)을 대동하고 평양에 근접한 울리까지 진출한 제8연대(연대장 김용주 대령)를 방문하여 연대장에게 평양을 미군보다 먼저 탈환하라는 구두명령을 하달하였다.

한편 육군본부는 이날(10. 17) 18:00에 미 제8군과 협의한 후 육본작전 명령 제218호로 국군 제2군단에 다음과 같은 요지의 명령을 하달하였다.

- ① 가능한 한 최단시간내 제2군단사령부를 포함한 군단의 전 병력을 강동(江東) 서쪽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이용가능한 모든 도로 및 통로를 사용하여 계속 서진하라.
- ② 미 제1군단과 협력하여 평양의 동쪽 및 동북쪽으로 우회공격하라.
- ③ 제6사단은 성천(成川), 순천(順川)을 경유 안주를 공격하라.
- ④ 북진을 계속하기 위한 차기작전을 준비하라.

이리하여 국군 제2군단 예하 3개사단 중 제6사단을 제외한 제7사단과 제8사

단이 평양탈환작전에 참가하게 되었다.

이 무렵 북한 인민군은 평양방위사령부(사령관 崔仁 소장)를 설치하고 국군과 유엔군의 진격을 방어하려 하였으나 이미 멸악산맥 일대의 평양 외곽방어선인 황주-울리 선이 붕괴됨으로써 대동강 및 동평양 일대에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여 완강한 저항을 기도하였다. 그러나 적의 저항은 그들의 기관이 철수할 시간을 얻고 후퇴하는 부대를 엄호하기 위하여 국군 및 유엔군의 진격을 지연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미 제8군 정보참모부는 인민군의 평양 방위부대 규모를 인민군 제17사단과 제32사단 소속의 잔류병 약 8,000여 명 정도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었다.

평양탈환작전은 10월 18일에 포위망을 압축한 미 제1기병사단, 국군 제1사단, 그리고 국군 제2군단에 의해 전개되었다. 미 제1기병사단은 황주에서 비교적 기동로가 양호한 경의선 철도와 국도를 따라 북으로 진출하여 평양 남쪽 방향으로 공격하게 되었다. 사단장은 황주의 미 제7기병연대를 주공으로 하여 평양공격을 재개하였다.

이날 여명을 기하여 진격을 개시한 미 제7기병연대는 제3대대를 선두로 황주천을 도하하고 평양 남쪽 12km 지점인 흑교리(黑橋里) 근교로 진출할 때까지 거의 적의 저항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선두가 흑교리 가까이 접근함에 따라 대대는 적으로부터 대전차포와 120밀리 박격포사격을 받았다. 정면의 적은 증강된 1개대대로 흑교리 남쪽에서 강력한 방어진지를 편성, 미군의 진출을 저지하고 있었다. 대대의 선두에서 진격을 엄호하던 미 제7전차대대 C중대의 전차 20대는 3~4대로 추산되는 적의 T-34 전차가 전차호 속에 숨어 완강히 저항하고 있는데다가 그 일대가 지뢰지대여서 접근할 수가 없어 진격이 둔화되고 말았다. 곧이어 피아간에 치열한 교전이 전개되었고 대대의 진격을 근접지원하던 F-51 전투기 1대가 적의 소화기에 맞아 격추되기도 하였다.

제3대대의 공격이 부진한 가운데 일몰이 다가오자 사단장은 제1·제2대대를 적 방어진지의 측방으로 공격하도록 지시하였다. 명령을 받은 양개 대대는 야간에 적 진지의 측방으로 우회하여 다음날인 19일 아침 적의 방어진지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방어진지의 적은 이미 철수하고 없었다.

이러한 둔화상황을 타개하고 공격기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날 제5기병연대가 투입되어, 5대의 전차와 공병 1개소대 그리고 중기관총 1개반으로 증강된 F

중대(중대장 : James H. Bell 중위)를 선두로 흑교리에서 미 제7기병연대를 초월하여 평양을 목표로 진격을 개시하였다. F중대는 저항하는 소수의 적을 격파하면서 진격을 계속하였으며 유엔공군 전투기들은 F중대 상공을 순회하면서 지원포병들과 긴밀한 협조하에 중대의 진격을 근접지원하였다. F중대가 평양 남쪽으로 진출하여 대동강 지류인 폭 20m의 무진천(戊辰川)에 도착하자 적은 대안의 제방 뒤에 3문의 대전차포를 배치하고 F중대의 도하를 방해하였으나 중대는 약 30분간의 박격포 공격으로 이를 격퇴한 다음 무진천을 도하하여 평양의 서남단에 도착함으로써 11 : 02에 동평양을 점령하였다.

한편 국군 제1사단은 군단의 우익으로서 울리 북방 초귀동에서 평양 동측방을 향해 공격을 재개하게 되었다. 이제 중심 8km의 산악지대를 돌파하고 낙랑평야로 진출한다면 평양에 선착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조건에 있었다. 그러나 미 제1군단이 제공한 항공사진에는 상원에서 평양에 이르는 접근로상에는 3중으로 된 인민군의 중심방어 진지가 판독되었다.

그 첫 번째가 대동리(大同里) 부근 도로 양쪽에 있는 관음산과 반응산 일대에 구축된 방어선이었으며, 두 번째는 대동리 북서쪽 4km 상원강변의 재령산이었고, 세 번째 방어선은 동평양에 이르는 평야지역 중간지점의 야산에 구축되어 있었다.

사단은 이와 같은 적정을 고려하여, 상원의 제12연대가 주공으로 보·전첩동으로 제11연대를 초월공격하여 대동리－선교리 대동교 축선으로 진격하고, 울리의 제15연대가 조공으로 하여 삼등(三登)－강동(江東) 축선을 따라 평양 동북방으로 우회기동할 계획이었다. 그리고 초귀동의 제11연대는 제12연대의 초월공격을 지원한 후 사단예비로서 문산리에 집결하도록 하였다.⁴⁶⁾

국군 제1사단은 10월 18일 아침 평양탈환을 위한 마지막 공격을 재개하였다. 사단의 주공인 제12연대는 배속받은 미 제6전차대대 2개중대와 보·전첩동으로 초귀동에서 제11연대를 초월하여 대동리를 목표로 진격하였다. 연대가 대동리 못미처 관음산과 반응산 사이의 애로지역을 막 통과하려고 할 때 2개대대 규모로 예상되는 적의 사격을 받았다.

이 지역은 사전 항공정찰에 의해 적정이 분석된 지역으로서 연대장은 즉각 제2, 제3대대로 도로 좌우측의 관음산과 반응산을 집중 공격하도록 하고, 제1대대의 엄호를 받는 미 제6전차대대(-2)로써 '중양을 돌파하도록 하여 적의 방어선을 뚫고 대동리를 점령하였다.

대동리로부터 패주하는 적을 계속 추격하던 연대는 대동리 북쪽 1km 지점에 이르렀을 때, 1개연대 규모로 예상되는 적으로부터 강력한 저항을 받았다. 적은 상원강 대안에 직사포 16문과 각종 곡사포를 배치하고 진출하는 선두전차에 집중포격을 가하여 왔으며, 접근로상에 매설된 지뢰와 상원강의 천연적인 장애물로 인해 연대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진격이 둔화되었다.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는 가운데 밤이 되자 사단장 백선엽 준장은 급히 작전 회의를 개최하고 교착된 전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여기서 연대는 보·전협동하에 야간공격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3:00경 제1, 제2대대가 공격의 선봉에 나서 야유을 이용, 도섭으로 상원강을 도하하고 적의 진지가 있는 능선 하단부까지 진출하였으나 적의 저지선을 돌파하지 못한 채 날이 밝았다.

한편 전날인 10월 17일 밤 울리를 출발하여 삼등으로 우회기동한 제15연대는 이날 아침 대동강을 도하하기 위하여 서쪽으로 진격, 22:00경 평양 시내에 있는 대동교로부터 서쪽 11km 지점에 있는 대동강과 남강이 합류하는 쌍강포(雙江浦) 상류쪽 남안(南岸) 일대를 완전히 장악하고 도섭장소를 정찰하는 등 다음날(10. 19) 실시할 도하준비에 심혈을 기울였다.

10월 19일, 사단의 주공 제12연대는 이날 여명을 기하여 각종 지원포병과 전차의 엄호하에 적 진지에 돌격을 감행하여 목표를 점령하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작일 강력히 저항하던 적 진지에는 적이 이미 진지를 포기하고 도주한 후였다.

이리하여 제12연대는 인민군이 평양 외곽에 구축한 3개의 저지선 중 2개의 저지선을 돌파하고 제1, 제2, 제3대대순으로 된 중대대형을 형성하여 낙랑평야로 진격을 계속하였다. 배속된 미군전차 4대당 1개소대의 보병을 탑승시킨 제1대대는 평양진격의 선봉으로 사방이 온통 조발과 수수밭으로 이어진 높고 건조한 구릉지대를 시속 50km의 속도로 돌진하였다.

연대의 선두부대가 동평양⁴⁾ 못미처 오류리(五柳里)에 이르렀을 때 약 2개대대 규모의 적으로부터 사격을 받아 연대는 진격이 둔화되었다. 이곳이 평양 외곽에 설치한 인민군의 3번째 저지선이였다.

미 제6전차대대 C중대 전차들은 적 진지의 양익을 동시에 강타할 수 있도록 좌우로 넓게 산개한 다음 중앙의 전차 3대가 보병의 엄호를 받으며 전속력으로 적진 중앙을 돌파하였다. 동시에 좌우에 산개했던 전차들이 보병 및 공병의 엄호하에 양 측방으로부터 돌격을 감행, 적의 마지막 평양 외곽 방어선을 무너뜨

렸다. 이 전투에서 제12연대는 약 300여 명의 인민군을 살상하였다. 또한 제12연대에 배속된 사단공병중대는 그 일대에서 72발의 대전차 지뢰를 제거하였으나 그 밖에도 많은 대인 및 대전차지뢰로 인하여 연대의 진격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인민군의 3번째 평양방어선을 돌파한 제12연대는 동평양까지 순조로운 진격을 계속하여 11:00에는 대동교 동쪽 100m 지점에 있는 동평양의 선교리(船橋里) 로터리까지 진출함으로써 제일 먼저 평양에 입성한 부대가 되었다.

또한 제12연대의 우측에서 미림(美林)비행장과 문수리(紋繡里)비행장(일명 평양비행장)을 목표로 진격한 제11연대는 거의 뛰다시피 빠른 속도로 진격을 감행했다. 그러나 한발 앞서(11:00) 미림비행장을 통과한 제15연대 직할대를 후속하여 12:35에 비행장에 도착하였으며, 다시 진격을 계속하여 이날의 최종 목표인 문수리비행장을 14:40에 점령하였다. 이날 제11연대는 진격도중 민족보위성 및 인민군총사령부가 위치하고 있던 추을미(秋乙美) 일대에서 퇴로가 차단당한 적 3,000여 명이 투항해 옴으로써 이를 처리하는 데 많은 애로를 겪어야만 하였다. 이들 포로의 1/3이 남한에서 강제 징집된 의용군이었으며 이들은 간단한 심사를 거쳐 바로 귀향조치하였다.

평양의 동북방으로 우회기동한 제15연대는 전날 늦게 대동강 상류에 진출하여 도섭지점을 대대별로 확보하였고, 이날(10. 19) 제3대대가 마산리(馬山里)에서 05:00에 가장 빨리 도하를 완료하였으며, 제2대대가 08:30에 이천리(梨川里)에서, 제1대대가 10:30에 삼산동(三山洞)에서 각각 경미한 적의 저항을 물리치고 도강을 완료한 다음 본평양 모란봉과 김일성대학을 목표로 진격을 계속하였다.⁴⁶⁾

한편 이미 11:00 조금 지나 동평양에 도착한 미 제5기병연대 제2대대 F중대장은 대동강 철교와 그 북쪽 제방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동강 철교상태를 확인하다가 2개의 철로 중 1개를 이용, 양각도까지 진출하였다. 이때 대안의 적이 양각도 북쪽의 철교를 폭파시켰다. 이리하여 대동강 북안으로의 진출이 불가능하게 된 채 양각도에 발이 묶여 있었으나 이날 후속한 제3대대와 교대한 후 동평양으로 다시 철수하였다.

F중대가 양각도로 진출하고 있을 때 제2대대의 잔여 주력은 무진천을 건너 다음, 우측으로 우회하여 대동교로 향하였다. 이때까지도 대동교는 폭파되지 않았으나 제2대대의 선두부대가 교량가까지 접근하는 순간 요란한 폭음과 함께 교량의 중앙부분이 대동교 북쪽에 배치된 인민군에 의하여 폭파되었다. 이로써

대동교와 대동강 철교가 모두 절단되었다. 바로 이때 제5기병연대 제2대대는 이들보다 조금 앞서 대동교 동쪽 100m 거리인 선교리(船橋里) 로터리에 도착하여 도섭장소를 찾고 있던 국군 제1사단 제12연대와 만났다. 양개 부대는 적 도(敵都)를 탈환한 기쁨을 나누었으며 이곳에서 군단장과 양개 사단장도 만나 작전을 협의하였다.

한편 모란봉을 목표로 공격하던 국군 제15연대는 제3대대가 14:50분경에 모란봉을 점령하였다. 당시 모란봉 일대에는 1개중대 규모의 적이 수많은 호(壕)와 천연동굴에 잠복하여 끝까지 저항하였으나 제15연대의 맹렬한 공격 앞에 전의를 잃고 패주하였다. 모란봉을 탈취한 제15연대는 본평양의 중심부로 진출하여 북한정권의 주요 행정기관을 점령하는 한편, 인민군의 퇴로를 차단하고 패잔병의 소탕작전에 들어갔다. 제3대대는 모란봉 만수대에 위치한 내각본부 청사로 진격하고, 제2대대는 제3대대의 좌측에서 대동강 서안을 끼고 남진하여 역시 만수대 구릉에 있는 북한정권의 청사 쪽으로 진격하였으며, 제1대대는 북으로 철수하는 적의 퇴로를 차단할 목적으로 서평양역을 향해 서진하였다.

한편 연대직할대(교육대)는 전술한 바와 같이 미림비행장을 거쳐 문수리비행장을 14:10에 점령하고, 뒤이어 도착한 제11연대에 비행장을 인계한 다음 16:45에 비행장 북쪽 1km 지점의 나루터에서 대동강을 도하하여 이미 점령한 모란봉에 진출하였다. 이로써 국군 제1사단은 제11연대와 제12연대를 동평양에, 그리고 제15연대가 본평양을 점령함으로써 평양탈환 주역의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육군 작전명령 제218호에 의해 평양으로 공격하던 국군 제2군단 예하부대 중 제7사단 제8연대(연대장 김용주 대령)도 제15연대를 후속하여 본평양에 진출하였다. 제8연대는 10월 18일 아침 울리를 출발하여 21:00경 삼등(三登)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이보다 한발 앞서 전날 밤 울리로부터 삼등으로 진출한 국군 제1사단 제15연대는 화천(貨泉) 승호리(勝湖里) 및 삼청리(三靑里)를 거쳐 이날 22:00에는 대동강 상류에 도착하여 도하지점을 정찰하고 있었다.

10월 19일 아침 제8연대는 삼등을 출발하여 이미 제15연대가 통과한 진로를 따라 삼산리에서 물 속으로 뛰어들어 두 팔로 소총을 머리 위까지 떠받들고 도하하였으며, 13:00 조금 지나 도섭장 서북쪽 노산리(魯山里)로 진출하였다. 이곳은 평양-강동 간 도로의 길목이며 제15연대가 오전에 통과한 곳이었다.

연대는 그곳에서 접적 없이 서쪽으로 진격하여 해질 무렵에는 김일성 대학으

로 진출하였으나 이곳도 제15연대 제3대대가 점령한 지역이었다. 다시 그곳에서 모란봉을 향해 진격을 재개하여 20:00경에 모란봉-기림리(서평양역) 선까지 진출하였다. 또다시 시내로 진입하였으나 이미 국군 제1사단이 주요시설을 점령한 뒤였으므로 모란봉으로 복귀하였다.

제8사단은 10월 19일에 성천을 점령하고 그 다음날 강동까지 진출하였으나 이때는 이미 평양이 함락된 후였기 때문에 사단은 진로를 북쪽으로 돌려 덕천(德川)으로 진격하였다.

미 제1기병사단 선봉연대로써 동평양 선교리에 가장 먼저 도착한 미 제5기병연대장 크롬베즈(Crombez) 대령은 국군 제1사단의 평양 선착(先着)과 제15연대의 우회기동 및 대동강 도하에 감탄하면서 사단장 백선엽 준장을 만나 “어떻게 그렇게 빨리 도하지점을 발견하였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백 장군은 “내가 평양 태생 아니오. 대동강의 도섭지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웃으면서 답변하였다.

10월 20일 아침이 밝자 동평양에 있던 제11연대와 제12연대가 지난 밤에 미군공병이 준비한 M-2 단정과, 대동교와 반월도 사이에 가설한 부교를 이용하여 대동강을 도하하였으며, 전날 본평양으로 진출한 제15연대와 합류하였다.

이로써 국군 제1사단은 이날(10. 20) 10:00를 기하여 평양시를 완전히 장악하였으며 국군의 입성을 환영하는 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가두를 메웠다.

미 제1기병사단도 국군 제1사단에 이어 대동강을 도하하였다. 먼저 제5기병연대가 공격단정과 부교를 통해 동평양에서 본평양으로 이동한 데 이어 사단주력도 도하를 완료하였다. 제1기병사단은 본평양에 진출 후 제5기병연대가 평양시 남쪽 외곽에, 제8기병연대가 평양시 북쪽 외곽에, 그리고 제7기병연대가 이날 야간 강행군으로 진남포로 향하였다. 사단장 게이(Gay) 장군은 인민군 군관학교 자리에 사단지휘소를 설치하였으며, 그 후 군단 명에 의거 평양시 전체의 질서유지와 경비를 담당하였다.

국군 제1사단은 미 제1기병사단과 전투지경선을 대동교를 동서로 연결하는 선으로 하여 그 북쪽을 담당하고 경계에 임하였으며, 사단지휘소를 내각본부에 설치하였다.

한편 미 제8군사령관은 김일성의 사무실이 있던 건물(시 인민위원회 옆 건물)을 8군 전방지휘소로 운용(10. 24)하였으며, 맥아더 장군은 10월 21일 평양 비행장에 내려 미군부대로써 제일 먼저 평양에 돌입한 제5기병연대 F중대를



평양입성 환영식

사열하였다. 이때 맥아더 장군은 전쟁초부터 있던 자가 있으면 나오라고 전 중대원에게 말했다니 겨우 5명뿐이었으며 그중 3명은 부상병이었다. 96일 전에 이들이 한국전쟁에 최초 참가하였을 때는 200여 명이 되었으나 처참한 전화(戰禍)는 이렇게도 많은 젊은이들을 앗아간 것이다.

또한 미 제8군사령부에서는 평양이 탈환되기 전인 10월 16일에 ‘인디안 헤드(Indian Head)’라고 부르는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였는데, 이 명칭은 미 제2사단의 부대마크에서 유래된 것으로 미 제1기병사단 선두부대와 함께 동평양에 입성하였으며 본평양에 들어갈 때는 국군 제1사단의 승인을 받았다.

이 부대의 임무는 특별히 선정된 북한정부 청사와 외국인 공관을 점령하여 정보자료를 수색획득하는 데 있었다. 미 제2사단 정보참모 포스터(Ralph L. Foster) 중령의 지휘하에 미 제2사단 제38연대 K중대와 미 제72전차중대 C중대 전차 6대 그리고 미공병폭파조, 미 제82고사포대대 분견대 및 방첩대로써 편성되어 있었다. 이 부대는 10월 20일에 부여받은 목표 거의 전부를 점령하여 군사적, 정치적인 많은 자료를 획득하고 10월 22일에 동경으로 후송하였다.

북한의 수도 평양을 목표로 한 미 제1군단의 평양탈환작전은 10월 9일 38도선을 돌파한 이래 만 11일 만인 10월 19일 국군 제1사단의 제11연대와 제12연대, 그리고 미 제1기병사단의 제5기병연대가 동평양을, 국군 제1사단 제15연대와 그 뒤를 따른 국군 제7사단 제8연대가 본평양을 각각 점령함으로써 종료되었으며, 그 이튿날 국군 제1사단 및 미 제1기병사단의 주력이 본평양에 진입하여 잔적을 소탕하였다. 10일 후인 10월 30일에는 국군 및 유엔군의 평양 입성 환영식이 평양시청(평양시 인민위원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시민의 열렬한 환호로 성대히 거행되었다.⁴⁹⁾ 이 자리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감격 어린 어조로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나의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만고풍상을 다 겪고 39년 만에 처음으로 대동강을 건너 평양성에 들어와서 사모하는 동포 여러분을 만날 적에 나의 마음속에 있는 감상을 목이 막혀서 말하기 어렵습니다. 40년 동안에 왜정 밑에서 어떻게 지옥생활을 했던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는 신세계 신국가를 만들어 신생활을 하겠다는 결심을 남녘 동포가 다 같이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싸워서 피를 흘리고 자유독립국을 세운 것이니…… 통일된 백성의 기상과 의도를 잊지 말고 또 남이니 북이니 하는 파당심을 다 버리고 오직 생사를 공동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공산당을 발붙일 곳 없이 해서 우리의 자유를 침해치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북동포 여러분! 나와 같이 결심합시다. 공산당이 어디서 들어오든지 그것이 소련이건 중공이건 들어오려면 들어오너라. 우리는 죽기로 싸워서 물리치며 이 땅에서는 발붙이고 살지 못할 것을 세계에 선언합니다.

대통령의 유시는 일제(日帝)와 공산학정에 시달린 시민들에게 환희와 감격의 눈물을 자아내게 하였다. 이제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깃든 통일조국이 눈앞에 다가 온 것 같았으리라. 이날 평양입성의 선봉부대인 국군 제1사단이 영예의 대통령표창과 꾸짖한 상품을 받았다.

第3節 鴨綠江을 향하여

1. 人民軍의 最後 抵抗態勢

국군과 유엔군이 평양입성을 눈앞에 두고 선두를 서로 다투어 가며 흑교리로 진격하고 있을 때 평양방어사령부는 1개연대만 평양에 남긴 채 사리원과 철원 및 평강 방면에서 후퇴한 병력과 합류한 다음, 그 주력을 청천강 이북으로 철수시켰다.⁵⁰⁾

또한 북한정권의 수도는 평양을 떠나 신의주로 옮겼으나, 그 후 중앙의 산악 요새에 위치한 강계로 다시 옮겼다.⁵¹⁾ 그러나 그들은 일선 전사(戰士)들에게는 결사항전을 호소하면서 기계화부대는 청천강 북쪽 정주지역으로, 그리고 보병부대로 구성된 인민군 주력은 강계로 집결시켰다. 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이들 병력을 규합하여 청천강선에 연하여 아래와 같이 3개의 방어선을 설정하였다.⁵²⁾

- 제1차 방어선 : 안주—개천—덕천을 연하는 선
- 제2차 방어선 : 희천선
- 제3차 방어선 : 강계선

당시 평양에서 안주-개천을 연하는 청천강선 이북으로 패주한 인민군은 약 40,000여 명으로 추산되었으며, 또한 철의 삼각지대(철원-평강-금화)에 제2전선을 형성한 부대 병력이 20,000여 명에 이르렀다.

이 무렵 김일성은 전세를 만회하기 위하여 유격전의 전리에 기초하여 적의 후방에서의 타격작전을 강화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제2전선 부대와 인민유격대의 조직을 강화하였다. 이에 대해 「조선전사」에는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⁵³⁾

적 후방 투쟁방침은 적의 후방에 인민군연합부대로써는 제2전선을 형성하고, 애국적 인민들로써는 인민유격대를 조직하여 적 후방을 교란하고 적을 끊임없이 소멸 약화시키며…… 적 증원부대의 진출을 차단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벌이는 것이었으며, 기본전선의 아군 주력부대들이 반공격 ‘반격’으로 넘어갈 때는 전선타격에 배합하여 적 배후타격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제2전선 부대는 10월 16일부터 활동에 들어갔으며, 이들의 주요임무는 국군 및 유엔군의 수송부대, 열차, 보급소, 교통시설, 통신시설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이들로부터 입은 피해는 수백 건에 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미 제9군단이 전방에 투입되지 못하고 병참선 경계 등의 후방지역 방호임무를 수행하며 이들의 발호(跋扈)에 대비하였고, 당시 창설된 제3군단도 이들의 토벌작전에 투입되어야 하였다.⁵⁴⁾

한편 이보다 앞서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는 10월 14일 패전(敗戰)에 대한 자아비판에서 포위작전의 소홀과 적의 반격시도를 저지하지 못한 데에 원인이 있음을 자인하고 전장 이탈자의 즉결처분, 독전대 조직 등 일곱 사항을 준수하도록 엄명하였으며, 최고사령관 김일성과 총정치국장 박헌영의 명의로 명령서가 하달되었다.⁵⁵⁾

이와 같이 전황이 위기국면에 접어들자 인민군 최고사령부는 병력 및 장비면에서 국군과 유엔군에 비하여 열세하고 사기가 저하되어 전의를 상실하고 있는 인민군들에게 최후발악적인 결사항전(決死抗戰)을 요구하고 독전대를 편성, 폭압적인 방법으로 승산 없는 저항을 시도하였다.

2. 유엔군의 戰果擴大計劃

맥아더 장군은 제8군이 적의 38도선 방어선을 돌파하고 북진을 하던 10월

15일 웨이크 섬(Wake島)에서 트루먼 대통령과 전략회담을 가졌으며, 여기에서 그는 한국전쟁의 승리를 낙관하며 “추수감사절 안에 적의 공식적인 저항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북한 인민군은 유엔군을 맞아 집요하게 저항하고 있으나 이는 체면유지를 위한 노력에 불과할 뿐이며 적군은 겨우 10만 명이 남아 있으나 그나마도 훈련, 장비, 지휘계통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말하였다.

또한 중공군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 그는 “거의 없다.” “중공이 효과적으로 개입할 시기를 놓쳤다.”고 말하였으며, 유엔군이 제공권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중공군이 평양까지 진출하는 데 막대한 희생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⁵⁶⁾

맥아더 장군은 웨이크 섬 회담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전쟁은 평양탈환과 함께 머지않아 종결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10월 17일 당시 유리하게 전개되는 상황에 기초하여 평양탈환 후에 적용될 유엔군사령부 작전명령 제4호(1950. 10. 17)를 하달하였다.

이 명령에서 맥아더 장군은 유엔군의 북진한계선(일명 맥아더 라인)을 서해안 선천에서 북동쪽으로 호를 그리며 동해안 성진에 이르는 새로운 목표선으로 상향 설정하고, 미 제8군은 선의 좌측 선천-청산장시-회복동-고인동-평원-덕실리 방향으로 전진하며, 미 제10군단은 우측 덕실리-풍산-성진을 향하여 진격하도록 하였다. 이 명령은 20일부로 유효하였다. 이 선은 종전의 정주-함흥 선보다 30마일 북상한 것으로서 한만(韓滿) 국경선까지는 대체로 48~64km를 남겨 두고 있었다. 그리고 이 선 북쪽으로는 국군만이 작전하도록 하였다.⁵⁷⁾

그는 이에 하루 앞서 16일에는 미 제10군단을 유엔군사령부 예비로 독립적으로 운용하되 동북부지역에서 작전하는 모든 미군과 국군을 작전지휘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10월 20일자로 국군 제1군단의 작전통제권이 미 제8군으로부터 미 제10군단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유엔군사령부 예비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을 숙천·순천 부근에 투하할 것임을 제8군사령관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육군본부에서는 작명 제221호를 하달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은 북진을 계속하여 회복동-덕실리 선을 점령·확보하고 지역 내 적을 섬멸하려 한다.

제1군단 : 1950년 10월 20일 12:00부로 육군본부의 지휘하로부터 해제되어 미 제10군단에 배속한다. 차후작전에 있어서는 미 제10군단장의 지

휘를 받아라.

제2군단 : ① 제7사단을 즉시 삼등으로 집결시키고 삼등 집결완료와 동시에 제2군단 지휘하로부터 해제, 육군본부 지휘하에 들어가게 하라.
(군예비)

② 담당지구 내의 목표선 “A”⁵⁸⁾를 점령, 확보하고 차후작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제3군단 : 경찰과 협력하여 담당지구 내 잔적을 소탕하라.

국군 제3군단은 당시 신편된 제5사단(1950. 10. 8. 재창설)과 제11사단(1950. 8. 7)을 배속받아 10월 16일에 창설되었으며, 국군의 후방지역, 즉 인제-양양에서 서울-춘천 남쪽까지의 후방지역 방어임무를 수행하며 복진작전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명령에 의거 평양점령 후 10월 20일에는 숙천·순천 공수작전, 21일에는 서부에서 미 제8군이, 동부에서는 미 제10군단이 선천-성진을 연하는 맥아더 라인을 향하여 진격을 계속하였다.

3. 淸川江線 確保

(1) 肅川·順川地域 空輸作戰

미 제8군의 지상군이 평양을 향하여 진격하고 있을 때, 김포비행장에는 미 극동군사령부의 전략예비인 제187공정연대전투단(연대장 대령 Frank S. Bowen Jr.)이 작전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맥아더 장군은 인민군 주력의 퇴로는 물론 증원을 차단하고, 병참선을 붕괴시키며, 아울러 북한 관리들을 포획하고, 후송할 것으로 판단되는 수백 명의 미 군포로들을 구출할 목적으로 한국전쟁 발발 후 한 번도 운용해 본 적이 없는 미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을 평양 북방에 투하시킬 계획이었다.

작전일시는 평양이 완전히 탈환되는 날로 결정하였으며, 투하지점은 평양 북방 약 56km 지점의 숙천(주투하지역)과 그 동쪽으로 17km 떨어진 순천으로 선정하였다. 이 지역은 평양에서 숙천을 거쳐 신의주에 이르는 경의선(京義線) 철도와 평양에서 순천을 거쳐 만포진에 이르는 만포선(滿浦線) 철도, 그리고

이들 철도와 병행하게 발달된 도로가 만주로 연결되어 있어 교통 및 군사상의 요충지였다.

10월 20일 공수부대 요원들은 폭우가 쏟아지는 새벽 02:30에 기상하여 비행장에서 출동준비를 하면서 기상이 호전되기를 기다렸다. 정오가 조금 못 되어서 비가 그치고 날씨가 맑아졌다. 공정연대전투단 요원들은 미 제314 및 제21 수송비행대의 C-119 수송기와 C-47 수송기 등 113대에 분승하였다.⁵⁹⁾ 연대장 보우엔 대령이 탑승한 첫 수송기는 이날 정오에 이륙하였고, 서해안을 따라 한강 하구에서 편대를 구성, 평양 북쪽으로 향하였다.

수송기가 숙천의 투하지점에 접근했을 때 미군 전투기들은 이에 앞서 투하지점에 로켓탄을 발사하고 맹렬히 폭격을 가하였으며, 14:00경에 주목표지역인 숙천 상공에 선두기로부터 낙하가 시작되었다. 이때 적의 대공화기사격은 없었고 간혹 투하지역에서 저지사격이 있을 뿐이었다. 제1, 제3대대와 연대본부 및 직할대가 먼저 낙하하고, 그 뒤를 이어 105밀리 곡사포와 탄약, 90밀리 대전차포와 차량 등 74톤 가량의 장비가 투하되었다. 이 공수작전에서 처음으로 중장비가 전투지역에 공중투하되었고, C-119 수송기도 처음으로 전투지역에서 운용되었다.

연대장은 목표지역에 투하 후 숙천 동북방의 감제고지들을 점령하고 숙천 시내를 소탕하였으며 숙천 북방도로를 차단, 봉쇄하였다. 이리하여 연대는 17:00까지 목표를 탈취하고 전술적 절단을 완료하였다. 제2대대는 계획대로 14:20에 순천 서남방에 낙하하여 이날 밤 목표지역을 확보하였다. 대대의 2개중대는 순천 남쪽과 서쪽 도로를 차단하고 1개중대는 동남방에서 청천강을 향하여 전진하는 국군 제6사단과 접촉을 이루었다.

공수투하 다음날인 10월 21일 제3대대는 평양으로부터 철수하여 숙천 남방 12km 지점 어파리(漁波里)와 영유(永柔)에서 방어 중인 인민군 제239연대의 2,500여 명과 조우하여 후방에서 그들을 기습공격하였다.

한편 평양탈환 후 미 제24사단의 선두부대로서 평양에서 청천강을 향하여 북진하던 영연방 제27여단이 때마침 영유까지 진격하여 남쪽에서 이들 적과 조우함으로써 공정연단 제3대대와 함께 인민군을 남과 북에서 포위, 협격하여 격멸시켰으며 많은 인원을 생포하였고, 이들 양개 부대는 그 이튿날 11:00에 연결하였다.

또한 순천의 제2대대는 21일에, 순천 북쪽 약 9km 지점 터널에서 200여 명의

미군포로가 학살되었다는 주민제보를 받고 수색작전을 벌여 그 가운데서도 생존해 있는 23명을 구출하고 66구의 시체를 찾아내었다. 그 후 대대는 평양에서 복상한 미 제1기병사단 제8기병연대 제1대대 및 미 제70전차대대 1개중대로 편성된 특수임무부대와 21일 09:00에 연결하였다.

10월 22일 공정연대가 연결할 때까지 전과는 사살 2,000명, 포로 3,818명이었으며, 공수연대 피해도 공수낙하시 46명, 지상전투에서 65명 등 100여 명의 사상자⁹⁰를 내었다.

숙천-순천지역 공수작전의 결과는 인민군 주력의 퇴로차단 및 미군포로의 구출이라는 최초작전목표 달성에는 미흡한 것이었다. 우선 맥아더 장군은 당시 북한의 잔존병력 30,000명 중 25,000명이 공수작전의 덮에 걸릴 것이라 하였으나 실제 포로는 그에 훨씬 못미치었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평양함락 훨씬 전인 10월 12일경에 그들의 관리들은 이미 빠져나갔고 포로들도 후송시켰으며, 인민군의 주력도 이미 철수한 뒤였기 때문이었다.

(2) 淸川江으로 進出

국군 제2군단은 평양탈환작전에 참가하기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서북진 하였으나, 미 제1군단의 급속한 진출로 제8연대 외에는 그 작전에 함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해 청천강으로의 진출은 오히려 국군 제2군단이 미 제1군단보다 먼저 시작할 수 있었다.

그것은 국군 제2군단의 제6사단이 평양탈환 날인 10월 19일 평양 동북방 50 km 지점의 성천(成川)을 점령하고 20일에는 사단예하 제7연대를 선두로 순천에 돌입하여 6시간 전에 공수낙하한 미 제187공정연대 장병들과 이날 20:00를 기해 연결함으로써 제7연대가 이때부터 미 제8군 중에서 가장 북쪽에서 진격작전을 전개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날 군단은 육군작전명령 제221호에 의거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양개 사단에 하달하였다.

- 군단의 공격목표는 희천(熙川)이다.
- 제6사단은 개천(价川)을 탈환한 후 희천으로 진격하라.
- 제8사단은 덕천(德川)을 탈환한 후 구장동(球場洞) 경유, 희천으로 진격하라.

이에 따라 제6사단은 10월 21일 06:00에 순천에서 공격을 개시하여 제8군의

선봉으로 청천강변의 개천으로 진격하였다. 사단의 선봉인 제7연대는 30km 북방의 개천을 목표로 제2대대(대대장 김종수 중령)가 선두에서 진로를 개척해 나가고, 그 뒤로 제3대대가 언제나라도 전방대대를 초월공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다.

양개 대대는 전 병력을 차량화하여 신속한 기동으로 기습효과를 달성하도록 하였다. 제7연대는 38도선을 넘어 화천으로 진격했을 당시 적이 버리고 간 150여 대의 차량을 노획하여 사용함으로써 계속 선두부대로 진출하게 된 것이다.

이 무렵 사단예하 제2연대와 제19연대가 35km 후방 성천에서 도보기동으로 북상하고 있었음으로 사단의 선두부대와는 거리관계상 상호지원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도 제7연대가 위험을 무릅쓰고 과감한 독주를 하는 것은 인민군의 저항이 경미했기 때문이었다. 인민군은 도처에서 부상자와 낙오병을 버리고 도주할 뿐만 아니라 차량과 주요장비를 파괴하지 않은 채 대로상에 유기하였으며, 심지어는 식사를 준비해 놓고도 정신없이 달아났다. 거리 이곳 저곳에 붙여 있는 “강계로 집결하라”는 다급한 벽보가 그 실상을 말해 주었고, 북한정권 간부들의 가족인 듯한 부녀자와 어린이들이 노변 수수밭에서 울음을 터트리며 살려 달라고 애걸하였다.

반면 국군장병들은 복진 선봉부대라는 긍지와 국경선이 가까워온다는 기대감에 고도의 사기를 유지할 수 있었다. 비록 복장은 여름에 입던 그대로 얇은 옷을 입고, 밀창이 다 떨어진 농구화를 착용했을 뿐 아니라 주야로 계속된 강행군과 연속된 작전으로 말미암아 신체적 피로마저 겹쳤지만 장병 모두가 앞장서기를 자원하며 지칠 줄을 몰랐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군수지원면이 뒤따르지 못하여 식량 및 연료를 현지에서 획득해야 했으며, 중·소대장들이 지도가 없고 도로만 따라 전진하였다. 특히 포병은 탄약이 떨어져 제187공수연대 제2대대에서 400발을 얻어오기도 했다.

제2대대의 선두가 13:00경 개천 동남쪽 15km 지점인 풍광산(風廣山) 계곡에 들어서고 있을 때 적 1개중대가 기습사격을 가해 왔다. 이 지역은 양쪽의 높은 산에 의해 일련의 애로지역이 형성되어 있어 이들을 격퇴하지 않고는 개천으로 진출이 불가능한 곳이었다. 대대는 이곳에서 1시간 이상 전 병력과 화력을 동원하여 교전하였으나 진로를 타개하지 못하여 진출이 지연되었다.

한편, 순천에 있는 연대지휘소에서 보고를 받은 연대장 임부택(林富澤) 대령

은 즉각 대기하고 있는 제3대대로 하여금 제2대대를 초월공격하여 금일 중에 개천을 탈환하도록 지시하였다. 순천에서 개천까지는 30km로서 평상시 차량으로 1시간 소요의 거리였다. 제3대대장은 즉각 순천을 출발 장성고개에서 제2대대를 초월한 다음, 계속 개천을 향하여 전진하던 중 개천 동남쪽 8km 지점 삼차로 부근에서 도로를 따라 2열중대로 복상하는 인민군 2개중대와 조우하게 되었다.

이들은 증원되는 제3대대의 차량을 보고 무질서하게 분산도주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광경을 목격한 대대장 인성관(印聖官) 중령은 일종의 모험을 시도하였다. 금일 중으로 개천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이들과 교전할 시간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패주하는 인민군 행군대열의 중앙을 그대로 돌진하여 개천으로 직행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적이 사격으로 도전해 오지 않는 이상 사격을 중지하라고 지시하였다.

대대가 자동차의 전조등을 밝히고 도로 중앙으로 전진하면서 “이제 전쟁은 끝났다. 총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외쳤다. 이렇듯 돌연한 상황에 직면한 인민군은 대부분 총을 버리고 사면으로 흩어졌으며 일부는 개인화기만을 소지한 채 주변의 산림지대로 은신하였다. 대대장병들은 소리 높이 군가를 부르며 유유히 전진하여 한 발의 총도 쏘지 않고 개천을 무혈점령하였다.

그 뒤를 이어 연대수색중대(-)가 개천으로 진입하였고, 후속하던 제2대대는 개천 남동쪽 구개천(舊价川) 모시골에서 야간숙영에 들어갔다. 이로써 제7연대는 청천강변의 교통요지인 개천을 장악하게 되었다. 개천을 점령한 제7연대 제3대대는 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음식을 제공받았으며 이날 새벽(10. 21)에 1개사단 규모의 인민군이 희천 방면으로 빠져 나갔다는 첩보도 제공받았다.

이날 밤 21:30 뜻밖에도 서측방에서 기적 소리와 함께 열차가 복상하고 있었다. 이 기차는 신안주에서 국군이 개천을 점령한 줄 모르고 아무런 경계대책도 없이 개천역으로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이 돌연한 사태에 대대장병들은 순간적으로 당황하였으나 대대장은 중화기 중대장에게 기관총과 박격포를 개천강 철교를 목표로 사격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대대본부의 장교를 포함한 전 기간 요원을 긴급출동시켜 교량 동쪽 제방에 배치시켰다. 그리고 소총중대는 좀 떨어져 있어 현지에서 비상태세를 갖추고 외곽경계에 임하도록 지시하고 연대수색중대(-)만 대대본부와 연한 북쪽 제방에 병력을 배치하라고 긴급지시하였다.

적은 이러한 사실도 모르고 병력배치가 끝나기도 전에 개천강 철교 부근으로

접근하자 구경 50 중기관총 사격을 신호로 하여 기습적인 사격을 실시하였다. 사격도중 81밀리 박격포탄 1발이 기관 부분에 명중되자 기차가 급정거하면서 기관사와 소대규모의 열차호송병이 뛰어내려 도주하였다. 대대장은 기관사를 생포한 다음 열차를 확인해 보니 적의 보급차량이었다. 10량이 연결된 화차에 각종 화기와 군복이 가득 차 있었으며 특히 T-34 전차 8대도 노획하는 대전과를 올렸다.

대대는 야간인데다가 감당하기에도 벅찬 많은 물량의 노획품이 있었으므로 경제대책만을 강구한 채 날이 밝기를 기다리던 중 또다시 동일한 방향에서 기적 소리와 함께 열차가 올라오고 있었다. 두 번째 열차는 앞차가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정지하게 되었고 아군으로부터 집중사격을 받자 소대규모의 호송병과 승무원들은 황급히 어둠 속으로 도주하였다. 결국 힘들이지 않고 또 다른 6량의 화차와 거기에 가득 실려 있는 보급품을 노획하였다.

날이 밝을 무렵 대대 병사들은 어느새 노획한 인민군 신품복장(新品服裝)을 챙겨 입고 있었으며 거기에다 탄띠와 인민군용 농구화까지 착용하고 나니 마치 인민군 부대 같아 피아식별이 곤란할 정도였다. 그러나 땀에 찌들고 다 해진 여름복장을 계속 입고 있으라고 강요할 수가 없어 누구도 이를 통제하지 않았다. 그 후 개천에 도착한 후속부대에서조차 이러한 상황이 벌어져 “6사단은 인민군의 보급을 받는다”는 일화를 남기기도 하였다.

지난 밤 두 번의 보급품 수송용 기차 노획사건으로 긴장 속에서 보낸 제7연대 제3대대 장병들은 날이 밝자 안도의 숨을 돌리고 있을 때 이번에는 연대규모의 병력이 동일한 방향인 안주 쪽에서 개천을 향하여 2열종대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대대장은 수적으로 우세한 적 병력을 기습작전으로 격멸할 계획하에 개천 동남쪽 마장리(馬場里)에 전 병력을 배치한 뒤 적의 선두가 교량 직전방에 접어들자 대대장의 사격개시 신호에 의해 전 화기가 일제히 불을 뿜었다. 불시에 기습을 받은 인민군은 일시에 쓰러지거나 분산도주하였다. 이때 적의 후미에서 뜻하지 않은 아군의 보·전협동부대가 나타나 적에게 전차포와 기관총 사격을 하면서 올라오고 있었다. 이 보·전협동부대는 ‘코끼리 특수임무부대’라고 부르는 미 제1군단의 특수임무부대로서 미 제6전차대대 C중대와 국군 제1사단 병력으로 혼성 편성되어 “개천—구장동 간의 철도를 봉쇄하라”는 임무를 띠고 안주를 거쳐 개천으로 올라가다가 이들 적과 조우하게 되었던 것이며, 이날 22일

08:00에 제3대대와 연결하였다.

이 특수임무부대는 북상 도중 영유(永柔)에서 적과 교전이 전개되어 진출이 지연된 관계로 이날 새벽에야 숙천을 통과하게 되어 개천(价川) 도착이 늦어졌으며, 이 특수임무부대가 먼저 점령하여 적의 퇴로를 차단해야 했으나, 제7연대 제3대대가 이들보다 하루 먼저 개천을 탈환하게 됨으로써 그들의 임무를 제3대대가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10월 22일 제7연대장 임부택 대령은 어제 밤부터 두절된 제3대대와 통신이 새벽에 소통된 직후 제3대대장으로부터 지난밤의 상황과 많은 물량의 적 장비와 보급품을 노획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대대 장병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제3대대를 연대에비로 개천에 잔류시키고 제1대대로 하여금 제3대대를 초월, 희천을 탈환하라고 명령하였다.

제1대대장은 06:00 숙천을 출발, 개천에서 제3대대를 초월한 후 군우리 삼차로에서 동북쪽 방향의 희천으로 전진하였다. 제1대대는 군우리 북방 4km 지점에서 수 미상의 적과 교전 중인 코끼리 특수임무부대를 발견하고 이들을 초월 전진하여 적을 격퇴한 후 원리를 거쳐 구장동으로 향하였다. 진격 도중 원리에서 8km 북쪽 자작(自作)에 도착하니 보급품을 실은 50여 량의 화차가 철로 위에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었다. 노획품 처리는 후속부대에 맡긴 채 계속 진격하여 도중에 저항하는 소수의 적을 제압하고 20여 명을 생포한 후 구장동을 무혈점령하였다.

구장동은 만포선(평양-만포진)과 평덕선(평양-덕천-구장동)이 교차되는 교통의 요지로서, 주변 일대의 산길까지도 이곳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민군의 저항이 클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의외로 그들은 자취를 감추고 없었다. 제1대대가 구장동을 출발 공격목표인 희천으로 향하던 중, 구장동 북쪽 7km 지점 터널에서 인민군에게 학살된 미군포로의 시체 28구를 발견하였고 구사일생으로 생존한 3명의 미군포로를 구출하였다.

생존포로는 “인민군이 30여 명의 미군포로를 끌고 북으로 가다가 22일 아침 국군의 추격으로 시간이 없자 이 터널 속에 몰아넣은 다음 기관총을 난사하여 학살하였다. 적의 마지막 부대가 이곳을 통과한 것은 5~6시간밖에 안 된다.”고 말하였다.

얼마 후 대대는 청천강 도하지점에 이르렀다. 이곳은 원참으로 청천강을 가로질러 교량이 있었으나 폭격으로 파괴되어 수심이 얕은 하류를 택하여 도섭하

던 중 이곳을 통과하려던 북한 고급관리 및 인민군 차량이 미공군의 폭격으로 강물 속에서 파괴되어 통로가 막혀 있었다. 거기에는 고급승용차 22대를 비롯한 일산(日産)트럭과 미군트럭 등 100여 대의 차량이 물 속과 강변에 즐비하게 버려져 있었다. 제7연대의 추격을 받은 북한관리와 인민군은 청천강을 도하하려다가 수심이 깊어 차가 빠지자 몸만 빠져나간 것이다. 이 노획차량 가운데 승용차는 일반 시중에서는 보기 드문 고급세단⁶¹⁾이었다.

대대는 원참도섭장에서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는 차량 몇 대만 밀어붙이고 도섭한 후 희천을 향해 진격을 계속하였다. 대대는 제1중대를 선두로 청천강을 건너 진격 도중 화평참 북쪽 도로변에서 식사 중인 인민군 장교 13명을 생포하고 그 주변 마을 입구에서 500여 명의 인민군을 교전 끝에, 저항하는 자는 사살하고 대부분의 병력을 생포하였다.

이와 같이 1개중대 병력이 큰 교전도 없이 대대규모의 적을 일망타진할 수 있었던 것은 인민군 패잔병도 이젠 저항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한 단면인 동시에, 전쟁이 곧 끝나리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한 청신호와도 같은 것이었다. 한편 포로가 갑자기 많이 획득되자 문제점이 생겼다. 대대가 단독으로 진격 중인 처지에 수시로 발생하는 포로들을 모두 수용하거나 일일이 후송하기에는 시간과 인력이 매우 부족하였다. 따라서 대대는 포로를 선별하여 경상자와 연소자 및 양민으로 인식되는 포로는 무장을 해제한 후 동포애를 발휘하여 귀향 조치하고 간부를 포함한 극렬분자(極烈分子)만 골라 압송하였다.

연대장은 제1대대가 본대와 40km나 이격되어 있고 날이 어두워 야간공격을 강행하여 군단의 목표인 희천을 단독으로 공격한다는 것은 상당한 모험이 뒤따를 것으로 판단한 나머지 추격을 중지하고 희천 남쪽 25km 지점, 화평동 북쪽에서 숙영한 다음 23일 새벽에 여명공격을 실시하라고 명령하고, 명일 희천 공격시는 연대의 주력이 후속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10월 23일 06:00 제7연대의 선봉 제1대대는 화평참을 출발, 희천으로 진격하였다. 대대가 화평참으로부터 9km를 전진하여 하행동(下杏洞) 삼차로에 도달했을 때 1개대대 규모의 적이 일제히 사격을 가해 왔다. 대대는 전원 하차하여 이들 적과 30분간 교전 끝에 격퇴시키고 계속 전진하여 마침내 14:30에는 희천시내가 바라보이는 유증참 마을로 접어들었다. 목표 탈취를 앞에 두고 긴장과 환희가 엇갈리는 순간 갑자기 인민군의 122밀리 야포탄이 날아왔다. 그리고 희천 동북쪽 490고지 중턱에서도 요란한 사격 소리와 함께 이들의 기관총탄이

유중참 일대에 난무하였다. 이들은 사전에 편성된 방어진지에서 야포와 기관총 등을 계속 사격하면서 강력한 저항을 하고 있었다. 포성과 총성이 엇갈리며 희천 일대를 진동하는 가운데 1시간 동안에 걸친 교전이 계속되었다. 16:00경에 이르러 적은 희천을 포기한 듯 주력은 철수하고 일부 잔류병력만이 투항하여 왔다. 이들은 철수과정에서 얼마나 서둘렀는지 동료의 시체는 물론 부상자까지도 그대로 버려둔 채 강계 방향으로 패주하였다.

생포된 포로 진술에 의하면, 희천에서 저항했던 인민군은 제18사단의 일부 병력으로써 그 주력은 구현령 일대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구현령은 희천 북쪽 25km 지점에 있으며 이 고개만 넘어서면 강계로 넘어갈 수 있는 작전상의 요지이다. 대대는 희천에서 T-34 전차 20대와 의약품 및 보급품을 실은 화차 6량을 노획하였다.

대대장은 “희천을 탈환한 후, 차후명령을 대기하라.”는 연대장의 명에 의해 희천에 주둔하면서 야간경계를 강화하였다. 이 무렵 제7연대 제2대대는 16km 서남쪽 하행동에, 제3대대와 연대지휘소는 그 남쪽 구장동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단예비인 제2연대는 제7연대가 희천을 탈환하자 사단장의 명에 의거 온정리를 탈환하기 위하여 구장동 남쪽 자작으로 급거 진출하여 이곳에서 청천강을 건너 도보로 온정리를 향해 진격할 계획이었다. 또한 제19연대(-)는 제2연대와 교대하여 사단예비로 군우리에 대기하고 있었다. 전날 영변을 점령한 제3대대도 그곳에서 차후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제2군단의 우익인 제8사단(사단장 이성가 준장)은 군단의 선두에 위치한 제6사단을 후속하여 10월 21일 성천으로 집결한 후 가창-북창-덕천을 경유 희천을 향하여 진격을 개시하였다.

사단의 선두부대인 제10연대는 제6사단이 희천을 점령하던 날인 23일 개천 동쪽 맹산을 점령한 다음 그 북동쪽의 영원으로 북진하였으며, 제16연대는 맹산을 경유 사단목표인 서북쪽의 덕천을 13:00에 탈환하였다.

산악지대를 거쳐 희천으로 북상할 예정인 제8사단은 뒤늦게 출발한데다가 지형상의 제약까지 받아 희천 남쪽 40~50km 거리에 뒤쳐져 있었으나 지금까지 어느 부대도 넘어보지 못했던 험악한 산악지대를 헤치며 속속 전진한 끝에 중간목표인 덕천까지 진출하였던 것이다.

특히 제16연대 제1대대가 덕천으로 돌입할 당시 2개중대 규모의 인민군이 덕천 부근 273고지에서 저항해 오며 따라 한차례 교전을 치르게 되었지만, 교전

30분 만에 이들을 격퇴시키고 평덕선(철로) 통로를 확보함으로써 사단의 전반적인 작전에 크게 활기를 불어넣었다.

그리고 사단사령부와 사단의 예비인 제21연대는 북창으로 전진하여 하루 먼저 개천으로 진격한 제6사단과 유기적인 협조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군단 예하의 2개사단이 비로소 균형을 잡아 협조된 작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한편, 평양을 탈환한 미 제1군단도 유엔군사령부 작전명령 제4호에 따라 국군 제2군단과 병행하여 10월 21일에 청진강을 목표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미 제1군단은 이때 좌전방에 미 제24사단(배속:영연방 제27여단), 우전방에 국군 제1사단을 내세우고 제1기병사단을 예비로 맥아더 라인의 서반부로 진격할 계획이었다. 미 제1기병사단은 평양 일대의 경계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0월 21일부터 각 사단의 선두부대가 차례로 평양을 출발하게 되었으며, 국군 제1사단은 제12연대를 선두로 하여 배속된 미 제6전차대대 D중대의 선도하에 평양을 출발하였다.

평양탈환시 선두입성의 영광을 차지했던 제1사단 장병들은 충천된 사기로 순천(順川)을 경유 22일에는 선두인 제12연대가 이미 제6사단이 통과한 개천에 도착하였으며 후속한 제11연대(-)와 제15연대도 이날 순천에 도착하였다.

10월 23일 07:00를 기하여 국군 제1사단 제12연대와 제15연대는 안주를 향해 전진하기 시작하였다. 개천에 위치한 제12연대는 청천강 남안을 따라 서쪽으로 전진하였고, 순천에 위치한 제15연대는 서북쪽의 도로를 따라 북상하였다. 제11연대(-)는 1개대대를 미 제1기병사단에 배속하여 평양에 남겨 놓고 사단 예비로 제15연대를 후속하였다.

청천강 남안의 안주는 대륙의 세력이 서북으로 밀려올 때마다 조상들이 조국을 방위하던 군사적 요충지였다. 제12연대에 배속된 보·전협동부대가 선두에서 안주읍으로 육박하려고 할 때 인민군 전차 2대와 자주포 2대를 발견하였다. 보·전협동부대는 이를 재빨리 격파하고 읍내로 진입한 다음 또 다른 적 전차 1대를 노획하였다.

그 후 보·전협동부대는 계속 신안주까지 전진하여 주변 일대의 적정을 확인하였고, 뒤따라온 연대의 본대는 안주읍을 점령한 다음 청천강을 건너갈 도하지점을 정찰하였다. 그 결과 신안주와 맹중리 간의 청천강 대교는 폭파되었고 안주 북동쪽 6km 지점 북송리 정면에 반파된 목교(木橋)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군단 공병의 지원을 받아 밤새 수리한 끝에 그 이튿날 09:00부터 2 $\frac{1}{2}$ 톤 차

량을 포함한 일반차량의 통행이 가능하였다. 그리고 전차는 교량 동쪽 5km 지점에서 도섭가능한 장소를 발견함으로써 청천강 도하에 지장이 없었다. 이 무렵 제15연대와 제11연대(-1)도 모두 안주로 진입하여 계속 북진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미 제1군단의 좌익을 담당한 미 제24사단은 10월 22일에 평양에 집결하여 북진준비를 갖추었으며 영유에서 제187공정여단과 연결한 후 사단에 배속된 영연방 제27여단을 선두로 이날 저녁 경의축선을 따라 진격작전을 전개하였다. 이 여단은 23일 15:00에 신안주에 도착함으로써 청천강을 점령하였다. 이 시간은 국군 제1사단의 안주 진입보다 4시간이 늦은 시간이며, 국군 제6사단의 개천 점령보다 46시간이 늦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제24사단의 주력은 평양출발이 늦어짐으로써 다른 부대에 비하여 더 뒤져 이날 순간까지밖에 진출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사단으로서는 도하해야 할 신안주 정면의 청천강 대교가 파괴되어 있는데다가 강물의 수심도 4m가 넘어 어떻게 청천강을 도하하느냐가 당면한 과제였다. 다음날 여단의 제1대대는 공격단정으로 청천강을 도하하고 여단 주력과 전차 및 차량은 국군 제1사단지역 안주교 부근에서 강을 도하하여 신안주 북방 맹중리까지 우회기동하였다. 이날 밤 제5연대 전투단이 신안주에 차량편으로 도착하였고 후속부대인 제21연대는 숙천까지 진출하였다.

이로써 미 제8군의 청천강선으로 진출은 국군 제2군단의 제6사단이 먼저 도착한 데에 이어 국군 제8사단, 미 제1군단 소속의 국군 제1사단, 미 제24사단이 청천강선에 진출하였다.

4. 鴨綠江으로의 進擊

(1) 유엔군의 總攻擊命令

서부전선에서는 미 제8군의 주력이 청천강을 도하하고 동부에서 미 제10군단의 원산상륙이 임박해지고 있을 때, 맥아더 장군은 10월 24일 미 제8군사령관과 미 제10군단장에게 “휘하의 전 부대를 동원하여 최대한의 속도로 국경선까지 진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그는 1주일 전(10. 17)에 설정한 진출 제한선도 단순한 최초목표에 불과하며 국군만이 그 목표선 북방에서 작전할 수

있다는 제한도 적어 항복할 경우에 효용성이 있는 것이지 항복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였다.⁶³⁾ 이 결정이 '9·27 훈령'에 포함되는지 그 여부를 놓고 미 합동참모본부와 맥아더 장군 사이에 논란과 마찰이 있었으나, 맥아더 원수는 "이는 전술적 필요에 의한 조치로서 한국군만으로는 국경선을 점령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며" 조기에 전쟁을 종결시키려면 지상군의 가용한 전투력을 모두 투입해야 한다는 이론(持論)을 내세워 명령의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는 가능한 한 유엔군은 국경선에서 철수해야 하고 한국군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단서를 붙였다.⁶⁴⁾

이에 따라 미 제8군사령관 워커(Walton H. Walker) 중장도 지금까지의 유엔군에 대한 북진 제한조치를 해제하고 24일을 기해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미 제1군단장 밀번(Frank W. Milburn) 소장에게 예비인 국군 제7사단을 배속(10. 23, 24 : 00)하고 가능한 한 국경선지대의 작전을 국군 제1사단과 제7사단 등 한국군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하였다.⁶⁵⁾

이에 따라 국군 제2군단장 유재홍 소장은 국경선으로 향한 진격작전을 위해 각 사단에 다음과 같은 약식명령을 하달하였다.⁶⁶⁾

- 군단은 제8사단을 우, 제6사단을 좌로 하여 중강진-벽동 간의 국경선으로 진출하려 한다.
- 제6사단은 회천-온정리 축선으로 연하는 선에서 초산과 벽동을 탈환하라.
- 제8사단은 회천-강계 축선으로 진격하여 만포진과 중강진을 탈환하라.

미 제1군단장 밀번 소장도 군단의 우익인 국군 제1사단에 안주-운산 축선을 따라 수풍호로 진격하도록 하고, 군단의 좌익인 미 제24사단에는 청천강을 건너 선천을 경유, 신의주를 목표로 진격하도록 하였다.⁶⁷⁾

(2) 楚山-中江鎮 방향 追擊作戰

국군 제2군단 예하 제6사단장 김종오(金鐘五) 준장은 군단명령을 수령한 후 제7연대를 우, 제2연대를 좌, 제19연대를 예비로써 초산-벽동 간의 국경선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제7연대는 초산을, 제2연대는 온정리를 경유 벽동을 탈환하라고 구두명령을 하달하였다.

제7연대는 사단작전 명령에 따라 초산을 점령하기 위한 최초 목표로 회목동

(檜木洞)을 향하여 24일 07:00 진격을 개시하였다. 희천을 점령했던 제1대대와 하행동에 있던 제2대대는 근거리 접근로인 산간도로를 따라 도보로 회목동으로 전진하였으며, 구장동에 있던 제3대대는 도로를 따라 하월림을 경유하여 역시 회목동으로 전진하였다.

한·만 국경선을 향한 제한 없는 총공격은 서부전선에서나 동부전선에서나 오직 누가 먼저 압록강이나 두만강에 도달하느냐에 초점이 집중되어 있어 부대간의 협조가 결여된 채 산간협로를 따라 진격의 속도를 재촉하고 있었다.

제6사단 제7연대는 희천을 떠나 35km 북쪽인 극성령(棘城嶺)을 넘어섰다. 극성령은 해발고도가 654m밖에 안 되나 적유령산맥의 한 분수령으로서 이 고개를 넘으면 초산군(楚山郡)이고 초산에 이르는 가장 가까운 산악접근로로 들어설 수 있다. 그런데도 인민군은 이러한 요지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그들은 국군이나 유엔군이 오직 좋은 도로만을 따라 차량 및 전차를 이용하여 북상하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 또한 그런 산악접근로까지 배치할 병력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제7연대(一)는 극성령을 넘어 10월 25일 오전에 회목동에 도달하였다.

제1대대는 진격 도중 생포한 포로로부터 주변 일대의 적정을 파악하였고 특히 1개사단 규모의 중공군이 온정리와 북진간 도로 동측 동림산 일대에 대기하고 있다는 첩보를 접수하고 이 내용을 즉각 연대에 보고하였다.

연대장은 중공군이 아군의 후방에 집결 대기 중이라는 사실에 상당한 충격을 받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단으로 문의하였으나 사단에서는 “설사 중공군이 있더라도 결코 대단한 존재가 아니니 멈추지 말고 계속 목적지까지 진격하라.”고 명령하였다.

이 무렵 군 수뇌부급에서는 중공군이 개입할 시기는 지났다고 판단하였으며, 설사 그들이 개입한다 할지라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으로 가볍게 여기는 실정이었다. 더욱이 하루만이면 국경선에 도달할 수 있는 지점까지 진출한 제7연대 장병으로서는 중공군이 아니라 더한 부대와 조우한다 할지라도 계속 밀어붙이려는 기세였다.

사단의 선봉 제7연대는 회목동에서 고장(古場)으로 향하였고 그 남쪽에서 1개대대 규모의 인민군의 저항을 물리치고 이날 18:30에 고장을 탈환하였다. 이제 국경선까지는 불과 30km밖에 되지 않았다.

이튿날 10월 26일 07:00 제7연대는 드디어 압록강을 향하여 마지막 진격작

전을 개시하였다. 이날 새벽에 첫눈이 내려 산야가 하얗게 뒤덮인 가운데 전 병력이 차량화된 제7연대 제1대대가 초산(楚山)을 향해 질주하였다.

이 무렵 초산 일대에는 연대규모의 인민군이 집결하고 있었다. 낙동강 전선에서 인민군 제8사단을 지휘하던 오백룡(吳白龍) 소장이 남쪽에서 계속 밀려오는 패잔병을 수습하고 있었으며, 그 병력이 연대규모에 달했다.

초산 남쪽 6km 지점의 애로지형에 배치된 이들과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다. 대대는 차량에서 하차하여 공격을 개시하였고 대대의 전 화기로 집중사격을 가하였다. 그러나 이제 더 물러날 땅이 없는 그들의 저항 또한 만만치 않아 무려 한 시간 반에 걸친 교전 끝에 그들은 패주하기 시작하였다.

이 교전을 끝으로 인민군의 저항은 사라지고 제1대대는 지체 없이 초산읍으로 돌입하였다. 그러나 시가지는 텅 비어 있었고 압록강은 보이지 않았다. 초산읍에서 압록강까지는 6km를 더 전진해야만 했다. 대대는 국경선을 향하여 신속히 이동하였다. 신도장(新島場) 일명 앙토동(央土洞) 고개마루에 올라서자 압록강의 푸른 물이 한눈에 들어왔다. “압록강이다!” 너나할것없이 환성이 터져 나왔다. 10월 26일 14:15 국군 제6사단은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압록강에 다다른 것이다.

무전기의 전과도 압록강 도착상황을 상급부대에 보고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선두에 달려간 첨병소대는 강변에 태극기를 꽂았다. 병사들은 수통에 압록강의 푸른 물을 가득 채웠다.

장병들은 지난 9월 16일 낙동강 전선에서 반격을 개시한 지 41일 만에 조국 통일의 최선봉으로써 국군과 유엔군을 통틀어 가장 먼저 국경선에 도착했다는 자부심과 긍지로써 온통 마음이 들떠 있었다. 대대는 신도장에서 만주 통천구(通川溝)로 통하는 뗏목나루가 있음을 발견하고 57밀리 대전차포로 이를 파괴해 버렸다. 대대는 제일 먼저 국경선에 도달한 제1중대를 신도장을 중심으로 배치하여 압록강변 경계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대대주력은 초산으로 일단 철수하였다.

이보다 하루 앞서, 제7연대가 고장으로 진격하던 10월 25일, 온정리에서는 제2연대가 벽동을 목표로 진격을 개시하여 북진(北鎭)으로 진격하던 도중에 동림산 기슭에서 적과 조우, 격전을 벌이었다. 이들이 인민군일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곧 중공군으로 밝혀졌다. 선두인 제3대대가 분산되자 예비인 제2대대가 투입되었으나 마찬가지로 상황이었다. 이날 오후 포로가 된 중공군 병사는, “그들이 10

월 17일부터 이곳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제2연대는 26일 중공군에게 온정리를 피탈당하고 퇴로가 차단되어 붕괴된 채 태평(泰平) 방향으로 철수하였다.

한편 이 무렵 제6사단의 동측방으로는 제8사단이 기동 중이었다. 제8사단장이성가 준장은 10월 24일 군단장 유재홍 소장으로부터 희천—강계 축선으로 진격하여 만포진과 중강진을 탈환하라는 명령을 받았었다. 강계는 적의 수뇌부가 이동한 것으로 알려진 중요 목표이었다. 사단장은 작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당면문제는 우선 희천으로 진출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비록 희천이 아군의 장악하에 있다 하더라도 사단이 이곳에 이르기에는 험준한 산악지대를 극복해야 하는 난관이 가로놓여 있었다. 주력이 집결되어 있는 덕천과 제10연대가 위치하고 있는 영원에서 희천으로 전진하려면 묘향산(1,365m) 좌·우측방의 통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제10연대는 영원에서 묘향산 동측의 산악협로를 따라 오령(五嶺)을 넘어 희천으로 전진하고, 제16연대는 덕천에서 묘향산 서측의 산간도로를 따라 우선 구장동으로 이동한 후 희천으로 전진할 계획이었다. 사단예비인 제21연대와 직할대 병력은 제16연대의 뒤를 따라 구장동으로 전진할 예정이었다.

제10연대는 24일 아침 진격을 개시하여 진출 도중 두암리(頭岩里) 고개에서 30여 명의 적을 생포하였다. 생포한 포로의 소속은 공교롭게도 낙동강 전선의 영천전투에서 싸웠던 인민군 제15사단 병력이었다. 이들은 철원지역에서 집결한 5,000여 명의 혼성병력이 강계 방면으로 복상 중이라는 것이었다. 제10연대는 24일 16:00에 영원 북방 송평동을 거쳐 26일 13:00 제8사단 소속부대로서는 제일 먼저 희천에 도착하였다. 이곳 희천에는 제6사단 제7연대가 3일 전에 점령했던 곳으로 이때에는 제6사단의 예비인 제19연대가 위치하고 있었다.

한편 24일 아침 덕천을 출발한 제16연대는 전진 도중 250여 명의 적을 생포하였으며, 이들은 제6사단이 구장동을 탈환할 때 산속으로 흩어졌다가 사단의 협공으로 순순히 투항해 온 자들이었다. 제16연대는 25일 15:00에 구장동에 도착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사단예비인 제21연대가 도착하였다. 사단장은 이곳에서 제16연대를 사단예비로 하고, 제21연대를 사단의 좌일선 연대로 각각 임무를 전환시킨 다음 제21연대를 선두로 희천을 향해 이동을 개시하였다.

먼저 출발한 제21연대가 26일 14:00 신흥동에 이르렀을 때 군단으로부터, “제8사단은 공격을 중지하고 구장동으로 집결하여 차후명령을 대기하라. 제10

연대를 즉시 온정리로 진출시켜 제6사단 제2연대를 지원하도록 하라.”는 긴급 명령이 하달되었다. 이때가 바로 제6사단 제2연대가 온정리에서 중공군에게 격파되어 분산철수하고 있을 때였다.

이는 중공군의 출현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면서 희천에 위치한 제6사단 예비 제19연대와 제8사단 제10연대를 온정리 방향으로 투입하여 제2연대를 구출하고 유기한 장비를 회수하기 위한 군단장의 결심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에 따라 2개연대가 제2연대의 구출작전(救出作戰)에 투입되었다. 그러나 이들 부대 역시 중공군에게 격파당하여 제2연대와 같은 운명에 빠지고 말았다.

이렇게 되자 초산으로 진출한 제7연대의 퇴로차단이 우려되었다. 10월 27일 사단장은 군단장의 승인을 받아 제7연대장에게 “제2연대가 패배하여 분산되었다. 연대는 남쪽으로 철수하여 사단과 합류하라.”고 명령을 하달하였다.

초산과 압록강 일대에서 국경선 경비에 임하고 있던 제7연대에게는 청천벽력 과도 같은 명령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제7연대는 철수를 개시하였으나 이때는 이미 퇴로가 차단됨으로써 적의 포위망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부대가 온통 분산되는 형극의 길을 걸어야 했다.

결과적으로 이곳에서 제6사단 3개연대와 제8사단 1개연대가 궁지에 빠지자 군단장은 제8사단의 2개연대를 구장동 북쪽에 전개시켜 철수부대를 수습하려 하였다. 제2군단은 29일 군으로부터 미 제1군단 예비로 있던 국군 제7사단을 배속받아 군의 동측방을 방호하기 위하여 11월 1일 구장동-덕천지역에 투입하였으나 이미 중공군이 이곳까지 진출하고 있어 제7사단의 공격도 무위로 끝났다. 이로써 국군 제2군단은 개천-원리 일대로 철수하였다.

(3) 新義州-水豊 방향 追擊作戰

국군 제1사단은 수풍리로 진격하라는 군단명령에 따라 10월 24일 11:00 안주에서 청천강을 도하하여 운산을 향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사단 우익인 제15연대는 구룡강(九龍江) 동쪽에서 운산 동측방을 공격할 계획 아래 영변(寧邊) 방면으로 전진하였고, 좌익의 제12연대는 구룡강 서쪽에서 용산동을 탈환한 다음 운산 정면으로 돌입할 예정이었으며, 예비인 제11연대(-1)는 안주에서 대기하다가 제12연대가 용산동을 탈환하면 그곳으로 이동하여 차후명령을 대기하도록 하였다.

제15연대는 이날 15:00에 영변에 도착하였으며, 연대보다 2일 먼저 도착한 제6사단 제19연대 제3대대가 영변을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양개 부대가 연결한 다음 제19연대 병력은 차량으로 연대가 위치한 희천으로 떠나고 제15연대가 지역을 인수하였다.

그러나 사단 좌익의 제12연대는 용산동 남쪽 1km 지점에서 침병중대가 적의 강력한 저항을 받고 일단 물러섰다. 이곳 용산동은 원래 박천-운산 도로와 태천-영변 도로의 교차지점으로 교통의 요충지로서, 적은 전차로 증강된 대대규모의 병력을 이곳에 배치하여 완강히 저항하고 있었던 것이다.

연대장 김점곤 대령은 2개대대를 좌우측으로 전개시켜 1시간 이상 격전을 치렀으나 적은 물러날 기세가 전혀 없었다. 이때 용산동 동쪽 영변 방향에서 제15연대의 전차 1개소대가 용산동 후방으로부터 돌입하면서 인민군 전차를 격파하자, 남·북에서 협공을 받은 적은 패주하기 시작하였으며 제12연대는 용산동을 탈취하였다. 이로써 제1사단은 운산으로 진출하기 위한 중간목표인 영변과 용산동을 확보한 것이다.

한편 10월 25일 아침 국군 제1사단의 운산공격이 개시되었다. 제15연대는 영변에서 구룡강 동측을 따라 진출하여 운산의 동쪽으로, 제12연대는 용산동에서 도로를 따라 운산의 남쪽으로 각각 공격하여 일부 경미한 적의 저항을 물리치고 이날 11:00경 운산 시내로 돌입하였다. 그러나 시내에는 적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양개 연대는 최종목표인 수풍댐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그 중간 목표인 청산장시를 향해 북쪽으로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청산장시는 맥아더 라인상의 한 지점이기도 하다. 제15연대가 11:00경 이곳에 도달할 무렵 갑자기 적과 교전을 벌이게 되었다. 30분 후 연대는 이들이 인민군이 아닌 중공군임을 식별하고 사단으로 즉시 보고를 하였으며, 이보다 조금 후 11:44에 중공군 1명을 포획하였다. 이것이 이 전쟁에서 최초의 중공군 포로였다. 이 포로는 운산 부근에 10,000명, 희천 부근에 또 10,000명의 중공군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음날 이를 포함한 3명의 포로가 미 제8군전방지휘소 평양으로 후송되었다. 제1사단은 예비인 제11연대까지 운산에 투입하여 이들 적과 전투를 벌이었으나 진격로를 더 이상 개척할 수 없었다.

한편 군단으로부터 신의주를 목표로 부여받은 미 제24사단은 신안주 북방 맹중리에서 숙영한 영연방 제27여단을 선두로 24일 새벽에 박천을 향해 진격하였다. 이날 10:00 제1대대가 박천읍내로 진입하였으나 시가지는 텅 비어 있었다.

여단장은 박천 서측 30km 지점에 있는 정주를 점령하기 위해 대령강(大寧江)을 도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대령강은 청천강의 지류이지만 청천강에 버금가는 강폭과 수심을 지니고 있었다. 이리하여 사단은 군단부교중대 병력과 15톤급 주교를 긴급 공수받았다.

이 무렵 제8군사령부에서는 인민군 제18기갑사단을 비롯한 대부분의 인민군 기계화부대가 신의주 방면으로 철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신속히 부교를 가설하여 아군의 전차부대가 조기에 진출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제27여단은 나루터를 이용하여 2개대대를 도하시키고 부교가 완성되기를 기다리던 중 26일 18:00에 적의 기습을 받았으나 즉각 전술공군의 근접지원을 요청, 기총소사와 네이팜탄으로 이들을 제압하였다. 이 사이에 부교가설작업도 급속도로 추진되어 제2대대와 전차중대가 이날 밤 도하함으로써 비로소 영연방 제27여단의 대령강 도하작전이 완료되었다.

영연방 제27여단은 청천강과 대령강의 도하작전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10월 27일 박천을 출발 정주를 목표로 진격을 개시하였다. 제27여단은 10여 km를 전진하였을 때 12:00경 효성령 고개에서 갑작스런 적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게 되었다.

적이 전차와 자주포의 지원하에 차폐된 진지에서 일제히 사격을 가해옴으로써 여단의 진격은 돈좌되었다. 여단의 긴급지원 요청을 받고 출격한 전폭기 편대가 네이팜탄과 1,000파운드짜리 폭탄으로 효성령 일대를 강타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여단의 보·전협동부대가 돌격을 감행하여 T-34 전차 10대와 자주포 2대를 격파하고 효성령 일대의 적을 격퇴시켰다. 그 이튿날도 정주를 향한 공격이 계속되어 15:00경 정주 동쪽 하소리 계곡으로 접어들던 중 적 전차 2대를 포함한 중대규모의 적을 발견하고 이를 격파시켰으며, 10월 29일 아침 여단은 제3대대인 호주군(濠洲軍) 부대가 먼저 정주를 향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때 항공관측보고에 의하여 전방 상소리 부근에 보병을 동반한 적 전차 4대가 도로를 봉쇄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우군 전폭기의 지원으로 이들을 격파한 대대는 신속히 전진하여 도로와 능선일대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적은 전차와 자주포를 앞세워 반격을 가해 왔으며 이날 밤 21:00에 정주 동쪽 달천강에 도달할 때까지 치열한 교전이 전개되었다. 이 전투에서 호주군 대대는 미 전차중대와 협동으로 적 전차 3대를 파괴하였다.

30일 아침 영국군 제2대대가 호주군 대대를 초월하여 정주읍내로 돌입하였으

며 시가지 소탕작전을 실시하였다. 여단장은 며칠간의 전투로 부대가 지쳐 있다고 판단하고 사단장 처치 소장에게 임무를 교대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사단장은 제21연대로 하여금 정주에서 제27여단의 임무를 인수, 신의주 축선으로 추격을 계속하도록 조치하였다.

미 제21연대장 스테펜스 대령은 정주에서 제27여단을 초월하여 사단의 최선봉부대로서 곽산을 향하여 추격을 계속하였다. 연대는 이날 하단동을 지날 때 멀지 않은 곳에서 달아나고 있는 적 전차의 소음을 듣고 전차의 속력을 더 빨리하여 야간추격을 강행했다. 이날은 음력 9월 20일로 시간이 경과할수록 달은 더 밝아졌다. 자정을 지나 31일 새벽 2시 페레즈(Perez) 중령이 지휘하는 제2대대가 곽산 서쪽 실패골 부근에 도착했을 때 적의 강력한 저지사격을 받았다. 적은 호남리 계곡에 전차 7대와 병력 500여 명을 매복시켜 놓고 미 제21연대의 선두대대가 계곡으로 들어서기를 기다렸다가 일제히 기습사격을 가해 왔다. 특히 300m 전방에서 퍼붓는 전차포와 기관총사격의 위력 앞에 대대의 전진은 둔화되고 말았다.

그러나 일단 적 전차의 위치를 확인한 전차대는 즉각 이에 대응하여 사격을 가하였으며, 지휘차량의 무전망을 이용한 대대장 및 연대장의 작전지휘는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심야의 대전차전에서 연대는 적 전차 5대와 자주포 1대, 대전차포 7문을 파괴하였고, 적은 50여 구의 시체를 유기한 채 곽산으로 도주하였다. 이 교전을 고비로 인민군의 저항은 현저히 약화되었으며 연대가 전진을 계속하여 선천을 지나 원동에 진출할 때까지 적의 저항은 거의 없었다.

이 무렵 운산지역에는 군단예비 제1기병사단이 투입되어 제8기병연대가 10월 31일 국군 제12연대와 작전지역을 교대함으로써, 2개사단이 당면한 적을 격퇴하고 북진하려 하였으나 상황은 점점 악화될 뿐이었다.

11월 1일 미 제21연대 제1대대가 제2대대와 교대한 후 사단의 선봉대로서 다시 국경도시 신의주를 향하여 전진하기 시작하였다. 대대는 적의 저항을 전혀 받지 않은 채 20km를 전진하여 정거동에 도착하였다. 여기서 국경선인 신의주까지는 33km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속도로 전진한다면 다음날이면 국경선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감격에 벅찬 종전(終戰)의 꿈은 잠시뿐이었다. 정거동에서 “진격을 멈추고 중심방어태세를 갖추라”는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명령이 사단장으로부터 하달되었다.

이에 따라 연대장도 긴급히 명령을 하달하여 제1대대로 하여금 방어태세로 전환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서부전선의 유엔군부대로서는 최북단까지 올라간 대대장병들에게 실망과 긴장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그런데 여기서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신의주를 눈앞에 둔 미군 최선봉 대대는 한국전쟁 초기 오산 북쪽 죽미령에서 인민군과 첫 전투를 벌였던 스미스 특수임무부대(미 제21연대 제1대대)였으며, 대대도 아직 스미스 중령이 지휘하고 있었다. 그는 미군대대장으로서 최초의 전투와 최북단의 전투를 함께 체험한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이날 밤(11. 1) 정거동에서 방어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미 제21연대 제1대대와 미 제6전차대대 1개 전차중대는 적 전차 7대와 500여 명의 병력으로부터 기습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전차중대장 모스(Jock G. Moss) 대위의 민첩한 지휘로 적 전차를 파괴하고 보·전협동작전으로 30분간에 걸친 혈전 끝에 적의 기습공격을 격퇴하였다. 이 전투에서 적 전차 7대를 전부 파괴하였고 100여 명을 사살하였다. 이 정거동 방어전투는 미 제8군이 제1차 북진작전에서 치른 마지막 싸움이었다.

한편 미 제24사단 제5연대전투단은 영연방 제27여단과 미 제21연대가 박천을 떠나 경의선 축선에서 선두를 바꿔가며 진격하고 있을 때 그 동측방 태천-구성 방향으로 추격작전을 전개하였다. 이 공격축선은 운산과 정주 간의 중간지대를 뚫고 수풍발전소까지 연결된 산악지역 접근로였다.

10월 28일 아침 적정이 불투명한 가운데 박천을 출발한 제5연대전투단은 선두인 제2대대와 제6전차대대 소속 1개 전차중대가 태천 남쪽 9km 지점의 꼬부랑고개(曲曲嶺)를 넘으려다가 300여 명의 인민군과 조우하면서 교전이 시작되었으며, 이 전투는 미 제5연대전투단이 그 이튿날 13:00에 태천을 점령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 전투에서 제5연대전투단은 100여 명의 적을 사살하고, 89명을 생포하였으며 전차 9대와 자주포 4문을 격파하는 수훈(殊勳)을 세웠다.

태천을 점령한 전투단은 다시 구성으로 전진하였다. 북서쪽의 퇴음령을 넘어 구성 동남쪽 덕화동에 이를 무렵 또다시 대규모의 인민군과 조우하게 되었다. 이들은 5,000~6,000명으로 추산되었으며 전차와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었다. 전투단은 즉각 근접항공지원 요청을 하여 전술공군의 강력한 지원을 받으면서 돌파작전을 전개하여 덕화동의 적진을 격파한 다음 31일 12:00경 구성을 점령하고 그 북쪽 백운동까지 추격하는 동안 인민군 300여 명을 사살하고 자주포 2대, 대전차포 6문을 노획하는 등 또다시 승리를 거두었다.

이날 탈환한 구성은 고려의 명장 강감찬 장군이 거란의 10만 대군을 격멸시킨 역사의 고장이었다. 그러나 연전연승 승리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인 11월 1일 오후에 우군 연락기의 통신통에 의하여 “진격을 멈추라”는 사단장의 명령을 받게 되었다.

미 제1군단장은 이날 11월 1일 국군 제2군단사령부에 들러 상황을 검토한 뒤 안주-개천 선을 확보하기로 협의하였으며, 복귀 후 야간에 사단장회의를 소집하여 23:00 박천-용산동-영변-운흥리 선으로의 철수를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각 사단은 11월 1일 자정 전부터 철수를 시작하였다.

이때 이미 군단예비는 모두 투입된 상황이었으므로 미 제8군은 군예비를 개천 방향으로 투입하여 철수부대를 엄호하고 적의 돌파에 대비할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서부전선에서의 총공세는 1주 만에 많은 손실을 입은 채 원점으로 복귀하였다.

맥아더 장군의 총공세작전에서 서부전선 상황은 10월 25일 운산과 온정리에서 국군이 중공군과 최초로 조우하고 중공군 포로를 획득함으로써 대단히 중대한 국면을 맞이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때 포로심문까지 한 바 있는 제8군에서는 운산과 온정리의 조우에 대해 “조직된 중공군 부대와 조우하고 있다고 믿기를 꺼려하고, 그들은 중공군에서 차출한 한국인으로서 인민군을 좀더 증강하기 위한 징후로” 해석하였다. 중공측 입장에서 “공공연한 개입을 위한 어떤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유엔군사령부 역시 10월 16일~30일 상황 보고서에 “중공군 부대가 그와 같이 부대별로 한국에 진입하였다는 정보는 없다.”라고 결론지었다.⁶⁷⁾

第4節 豆滿江을 향하여

1. 元山橋頭堡 確保作戰

(1) 橋頭堡 確保 計劃 및 命令

원산교두보는 당초 미 제8군 주력이 38도선을 돌파한 후 1주일 내에, 미 제10군단이 원산에 상륙하여 점령, 확보하도록 계획되었었다. 그러나 미 제10군단

의 원산상륙을 위한 승선도 완료되기 전인 10월 10일에 국군 제1군단이 원산을 먼저 점령함으로써 동북부지역 작전계획에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하였다. 이에 따라 결국 원산교두보는 국군 제1군단의 임무로 전환되었고, 미 제10군단은 후에 행정적 상륙을 하여 양개 군단이 낭림산맥 이동의 동북부지역 북진작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조정된 계획에 따라 국군 제1군단은 육군본부로부터 “미 제10군단이 도착할 때까지 원산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변·용포리·용탄리 및 용탄강 입구를 주저항선으로 하고, 영흥을 확보하며, 영흥-정평-함흥 및 파춘장-홍남 축선을 따라 진격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었다.

이에 따라 제1군단장은 영흥선에서 수도사단과 제3사단의 전선을 정리하기로 하고 10월 15일에, “제3사단은 원산과 그 부근 일대를 경계하는 동시에 미 제10군단의 원산상륙을 지원하라. 수도사단은 영흥-정평-함흥 및 파춘장-홍남 축선을 따라 진격하여 적을 섬멸하라.”⁶⁸⁾는 요지의 작전명령을 양개 사단에 하달하고 원산교두보 확보작전을 전개하였다.

10월 17일, 함흥과 홍남을 점령함으로써 원산 및 동한만 교두보가 확보될 무렵 맥아더 장군의 유엔군 북진한계선이 선천-성진 선으로 상향조정되고 20일부터는 군단이 미 제1군단의 통제하에 들어가 작전을 실시하게 됨과 아울러 이날 군단에 ‘국경선까지 진격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이로써 국군 제1군단의 북진작전은 원산교두보를 발판으로 활발하게 전개될 수가 있었다.

(2) 永興-咸興-城津 追擊作戰

수도사단(사단장 송요찬 준장)은 제3사단과 함께 원산을 탈환한 후 10월 15일까지 예하 제18연대가 여왕산-문천-고원-영흥을 차례로 점령하여 영흥과 정평 중간지점인 금진강(金津江)까지 진격하였고, 제1연대는 덕원에서 마전리-신창리-천내리를 차례로 점령한 다음 영흥으로 진격하였다. 제1기갑연대는 원산을 경계하다가 제3사단에게 그 임무를 인계하고 15일 영흥으로 차량이동하여 사단의 제1, 제18연대와 합류하였다. 이로써 수도사단은 영흥에서 함흥-홍남과 그 북방으로 공격작전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사단장은 이날 군단장으로부터 “함흥과 홍남으로 진격하라”는 요지의 명령을 받고 사단전방지휘소를 원산에서 영흥으로 추진 설치한 후, 함남의 공업도시

함흥과 항구인 홍남 공격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사단장은 공격작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의 작명을 하달하였다.

- 원산방어선에서 퇴각하기 시작한 적 42사단 및 제249여단 등은 문천-고원-정평 경유 함흥 방면으로 철수, 집결중이며, 단대호 미상의 포병부대가 함흥 부근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사단은 함흥 및 홍남을 공격 점령하려 한다. 공격개시 시간은 10월 17일 13:00이다.
- 제1연대는 홍남을 공격하고, 제18연대는 함흥을 공격하며, 제1기갑연대는 사단예비대 임무를 수행하라.⁶⁹⁾

이에 따라 제18연대장 임충식(任忠植) 대령은 함흥 공격에 앞서 적의 엄호부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정평을 먼저 점령하기 위하여 공격개시 하루 전에 작전을 전개하였다. 연대는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12:00경 정평으로 진출하였으며, 16:00경 함흥 서남쪽 10km 지점 홍상면에 도달하였다.

제1연대장 한신 중령은 영흥에서 정평, 신흥리를 거쳐 17:00 운남리까지 진출함으로써 사단의 전방 2개연대는 이날 함흥-홍남 직전방까지 진격하여 야영에 들어갔다.

사단은 10월 17일 제18연대가 05:00에 북쪽에서 함흥을, 제1연대가 06:00에 남쪽에서 홍남을 목표로 병행공격을 하였으며, 제1기갑연대가 예비로써 제18연대를 후속하였다.

이리하여 제18연대는 제2대대가 시가지 입구에서 1시간여에 걸친 격전 끝에 적을 물리치고, 11:30 함흥 시내에 돌입하였고, 제1대대는 공격간 약 1개소대 규모의 적과 조우하였으나 이를 격퇴하고 16:00에 유등리 북쪽 고지에 진지를 점령하고 야간경계에 들어갔다.

한편 홍남을 목표로 공격을 개시한 제1연대는 이날 운남리를 출발하여 함흥을 공격하는 제18연대와 보조를 맞추어 10:00에 성천강을 도하한 다음 홍남에 돌입하고 12:00에는 시내를 완전히 점령 확보하였으며, 오후에는 북쪽 10km 지점의 함흥까지 진출, 제18연대와 연결한 후 홍남으로 다시 복귀하였다. 사단 예비인 제1기갑연대는 함흥 남쪽 5km 지점의 지령리까지 진출하여 서북쪽의 잔적 출몰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였다.

그런데 국군이 함흥에 진격하여 들어갈 때 그곳에 있던 우익계열 시민의 봉

기가 일어나 인민군과 전투를 벌이는 한편, 아군의 성천강(城川江) 도하작전을 적극적으로 도와줌으로써 함흥탈환을 용이하게 해주었던 반공투쟁활동이 있었다.

다음날인 10월 18일에는 15:00부터 군단장 김백일(金白一) 소장 및 사단장 송요찬(宋堯讚) 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들의 열광적인 환영리에 함흥입성식이 성대히 거행되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국군의 입성으로 공산학정에서 해방되어 감격에 벅차 있었으나 일부 시민들은 부모형제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비통한 심정이었다.

이는 인민군이 함흥에서 후퇴하면서 약 12,000여 명에 달하는 양민을 학살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양민을 학살하는 데 있어서도 잔인무도하기 이를 데 없어 몽둥이나 장작으로 때려죽이거나, 우물 속에 밀어넣고 돌로 압살하거나, 손발을 묶고 등뒤에 무거운 돌을 맨 다음 바다에 수장하였으며, 방공호나 지하실에 감금, 봉쇄한 후 폭파하거나 심지어는 구덩이를 파고 생매장해 버리는 등 천인공노할 온갖 수단을 자행하였던 것이다.⁷⁰⁾

그러나 여기에는 남치된 자나 행방불명이 된 민간인의 숫자는 포함되지 않았으니 이보다 더 많은 양민학살이 자행되었으며 패전의 분풀이로 북한정권이 이 같은 동족학살을 자행하였다는 사실은 역사에 길이 오점(汚點)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 무렵 함흥과 홍남을 방어하던 적 제249여단 병력 6,000여 명과 제588포병대대는 포와 전차를 이끌고 함흥 북서쪽 오노리를 경유 장진호 방면으로 철수하였으며, 제588연대 일부와 마리훈련소 약 6,000여 명은 오노리에서 신흥 경유 풍산 방면으로 철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홍남 동북쪽에 있던 적 제598부대는 홍원 경유 나남 방면으로, 그리고 홍원에 주둔하고 있던 제10여단은 갑산 방면으로 각각 철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 아래 사단장은 제18연대를 함흥 북서쪽 장진 및 신흥으로, 제1연대와 제1기갑연대를 홍남에서 동북쪽의 홍원으로 진격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제18연대장은 이날 우선 함흥 북쪽 5km 지점 교통의 요충지인 오노리로 진격하였고, 제1연대는 홍남을 출발 홍원으로 진격하였으며, 사단예비 제1기갑연대는 지경리에서 함흥으로 이동하였다.

10월 19일 아침 제18연대 제1대대는 오노리를 점령하고 계속 북서쪽의 장진호를 향하여 북진하였으며, 제1대대를 제외한 연대(-1) 주력은 그곳에서 동북쪽 신흥-부전호를 향하여 진격하였다. 동해안 축선을 따라 진격한 제1연대는

이날 홍원 부근까지 진출하였다.

이 무렵 적의 활동은 함흥 북쪽에서 장진호 및 부전호 방향으로, 북청에서 황수원호-풍산 방향으로, 그리고 북청에서 동해안 도로를 따라 단천-성진 방향 등 세 방면으로 분산, 패주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사단장은 제18연대를 계속해서 장진-부전호 방향으로 추격하도록 하고, 제1연대는 홍원을 점령한 후 북청을 거쳐 서북쪽의 풍산으로 진격하며, 제1기갑연대는 단천-성진의 동해안 가도를 따라 진격하도록 하였다.

수도사단은 10월 20일 북쪽으로 진출한 제18연대가 신흥을, 동쪽으로 진격한 제1연대가 홍원 및 신포를 점령하였다.

다음날인 21일에는 알몬드(Almond) 장군이 승승장구 계속 복진을 하고 있는 국군 수도사단사령부(함흥)를 방문하여 사단장 송요찬 준장과 복진작전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10월 22일 제1연대는 북청 남쪽 12km 지점에서 600여 명(2개대대)의 적의 저항을 격퇴시키고 북청을 점령하였으며, 여기서부터 진격방향을 정북으로 전환하여 북청-황수원호-풍산을 점령하기 위해 진격을 계속하였다. 제1기갑연대는 신포에서 북청을 향해 진격 도중 수 미상의 적과 조우하여 이들을 격퇴하고 패잔병 13명을 생포하였다. 연대는 지금까지 동해안 축선을 따라 함께 진격하던 제1연대가 북쪽으로 진격로를 바꿈에 따라 동해안 축선을 단독으로 진격하게 되었다. 이 무렵 함경도 일대의 작전지역 기상은 영하를 오르내리는 초겨울에 접어들었으며 산악이 험하여 진격하는 데 애로가 많았다.

한편 적은 장진호 방면과 갑산-혜산진 방면으로 철수하면서 지연전을 계속 전개하였다. 특히 장진 방면에는 적 제2사단 병력 약 8,000명을 주력으로 하는 11,200명 정도가 집결하여 제18연대의 장진 방면 진격을 완강히 저지하고 있었으며, 동북쪽의 적은 함흥전투에서 패한 약 1개연대 규모가 제1연대의 북청탈환으로 풍산-갑산-혜산진 방면으로 철수하였으며, 그 병력은 2,500여 명에 달하였다.

10월 24일, 유엔군 전 부대에 총공격 명령이 내린 이날 제1기갑연대는 신북청(新北靑)을 출발, 이원을 점령하고 10월 25일에는 단천을 점령하였다. 제18연대는 제1대대가 마전리에서 국군 제3사단 제26연대와 진지를 교대하고 오노리를 경유 다시 동북쪽의 신포리까지 이동하였다. 제2대대는 경흥리에서 부전호 방면의 공격을 위해 준비 중이었고 제3대대는 신포리 북쪽 4km 지점까지 진격하였다.

10월 22일부터 풍산 방향으로 공격방향을 전환한 제1연대는 3일간의 격전 끝에 27일 후치령(厚峙嶺) 정상을 탈환하였으며, 제2대대는 황수원(黃水院)까지 진출하였다. 제18연대는 제3대대가 26일 신평과 신흥리에서 황수원으로 이르는 애로지역인 화접치(火蝶峙)⁷⁾를 공격하고 제2대대는 제3대대의 서측에서 부전호 방향으로 진격하여 백암산과 부전령을 점령하였다.

이 동안 동해안 축선의 제1기갑연대는 단천에서 성진(城津)을 목표로 진격중 그 중간지역인 마천령에서 증강된 1개연대 규모의 완강한 저항을 받았으나 27일 5시간의 공격 끝에 그 정상을 탈환함으로써 성진시가를 감제할 수 있는 유리한 지형을 확보하였다.

10월 28일 제1연대는 황수원을 점령한 데 이어 풍산을 점령하고, 다음날 기갑연대는 성진을 점령하였으며, 제18연대는 백암산에 진지를 구축하고 부전령 북쪽 및 그 동쪽 수상리 일대에서 적과 격전을 치르고 있었다.

이리하여 수도사단은 10월 말까지 제1연대가 함경산맥을 넘어섰고 제18연대가 개마고원 지대에, 제1기갑연대가 백두산에서 뺀 마천령산맥에 올라서게 되었으며 한·만국경선이 눈앞에 다가왔다. 병사들은 초겨울의 추운 날씨에도 허술한 하계복장을 입고 있었으나, 조국통일을 앞두고 감격에 벅차 사기는 충천되어 있었다.

이 무렵 적의 상황으로서는 제18연대 북쪽 부전호 남단에는 전방수색정찰보고에 따르면 중공군 2개연대를 비롯한 3개연대 규모의 적이 반격을 시도하기 위해 집결 중이었다. 그러나 그 동측 제1연대 정면의 인민군 패잔병은 풍산에서 북쪽의 삼수(三水) 방면으로 후퇴하였고, 동해안 축선의 적은 성진 북방고지에서 지연전을 위한 소규모의 적만을 남겨 둔 채 길주-청진 방향으로 주력이 철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3) 元山-咸興地區 平定作戰

제3사단은 원산을 탈환한 후 10월 15일까지 원산을 중심으로, 제22연대가 원산·안변·고저 일대에, 제23연대가 문평·마식령에, 제26연대는 고원·저탄강에 배치되어, 지역 내의 적을 소탕하고 경계를 실시 중에 있었다. 이날 사단장은 군단장으로부터 ‘원산과 부근 일대를 경계하라’는 요지의 명령을 부여받고 원산지역을 평정하기 위하여 연대의 책임지역을 조정한 뒤 재배치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제22연대는 원산을 중심으로 갈마(葛麻)비행장-고저-안변 선에 중점적으로 부대를 배치하여 원산의 남부지역을 담당하였고, 제23연대는 영흥만의 북안인 호도반도(虎島半島)-수달리(秀達里) 선과 평원가도상의 마전리 선을 연결하는 원산항의 외곽선을 경계하였으며, 제26연대는 제23연대의 북측 고원을 중심으로 한 문천-고원-영흥 지구를 경계함으로써 수도사단과도 접촉을 유지하였다.

10월 17일 제23연대는 호도반도 수색 중에 적군 6명을 사살하고 해안포 2문을 위시한 200톤급 함정 1척, 소총 10정 등을 노획함으로써 영흥만의 소해(掃海)작전과정에서 예상되는 적의 불의의 기습을 미연에 방지시켰다. 그리고 이날 원산에서는 제1군단 장병들에게 이승만 대통령의 극진한 치하가 있었고, 전사병들에게는 1계급 특진의 영예가 주어졌다.⁷²⁾

제3사단은 원산을 경계하던 중 10월 24일에는 제23연대가 고원 부근에서 수미상의 적과 조우하여 격전을 벌인 결과 3명을 생포하고 105명을 사살하였으며 전차 15대, 기관총 5정, 기관차 8량, 화차 1량 등을 노획하였다.

10월 25일 사단은 제26연대가 함흥에서 장진호 방향의 약 12km 지점 상통리에서 수도사단 제18연대와 교대함으로써 장진 방향의 적과 대치하게 되었다. 제23연대도 함흥으로 이동하고 제22연대만이 원산에서 미 제10군단의 상륙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날 제18연대와 교대한 제26연대가 장진호 남쪽 제1·제2발전소 부근에 도착하였을 때 1명을 포로로 생포하였는데 그는 중공군으로 식별되었다. 소속이 '제8군 제5연대'라고 암호명으로 밝히고 부근에 4,000~5,000명의 중공군이 전개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것이 동부전선에서 포획된 최초의 중공군 포로이며, 우연의 일치로 진술한 바와 같이 이날 서부전선에서도 국군 제1사단에 의해 중공군 포로가 발생하였다.

제3사단은 10월 26일에 미 제10군단이 원산에 상륙하자 원산지구 경계임무를 인계하고 제22연대마저 함흥지구로 이동함으로써 이곳의 평정작전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함흥 북쪽에 배치된 제26연대는 10월 29일 하갈우리(장진) 못미처 수동(水洞) 북쪽 1km 지점의 제2발전소 부근에서 포병대대(-1)의 지원을 받으며 1,000여 명의 적과 치열한 근접전투를 전개하였는데, 오후부터 적의 박격포사격이 증가되고 병력도 계속 늘어남으로써 진격은 돈좌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그

런데 이날 전투에서 16명의 중공군과 60명의 인민군을 포로로 하였다. 국군 제1군단장도 직접 중공군 포로들을 확인하였고, 이의 통보를 받은 미 제1군단장도 다음날 함흥의 제1군단사령부에 들러 직접 포로들을 심문하였다. 그들은 대부분 1년 전까지만 해도 장개석(蔣介石) 군대였으나 중국의 공산화에 따라 사단이 항복하여 중공군으로 전환되었다고 하였다. 그들은 또한 “10월 16일(후에는 14일이라 함) 압록강을 도하하여 만포진을 경유 장진 방면으로 남진한 중공 제42군 124사단 제370연대 소속이며 사단 및 연대 본부는 장진호 남단인 하갈우리에 위치하고 개전 이래 처음으로 전면적 공세를 감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는 이곳에 중공군이 투입된 확실한 정보이며, 인민군은 중공군의 전개를 위해 지연전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국군 제3사단은 10월 16일부터 11월 3일까지 약 20여 일 간에 걸쳐 원산·함흥지구에서 잔적을 소탕하고 수동리-마전리-고저선을 점령하여 원산-홍남을 중심으로 하는 영흥만의 교두보를 확보함으로써 미 제10군단의 상륙을 지원하고 수도사단의 계속적인 북진을 뒷받침하여 주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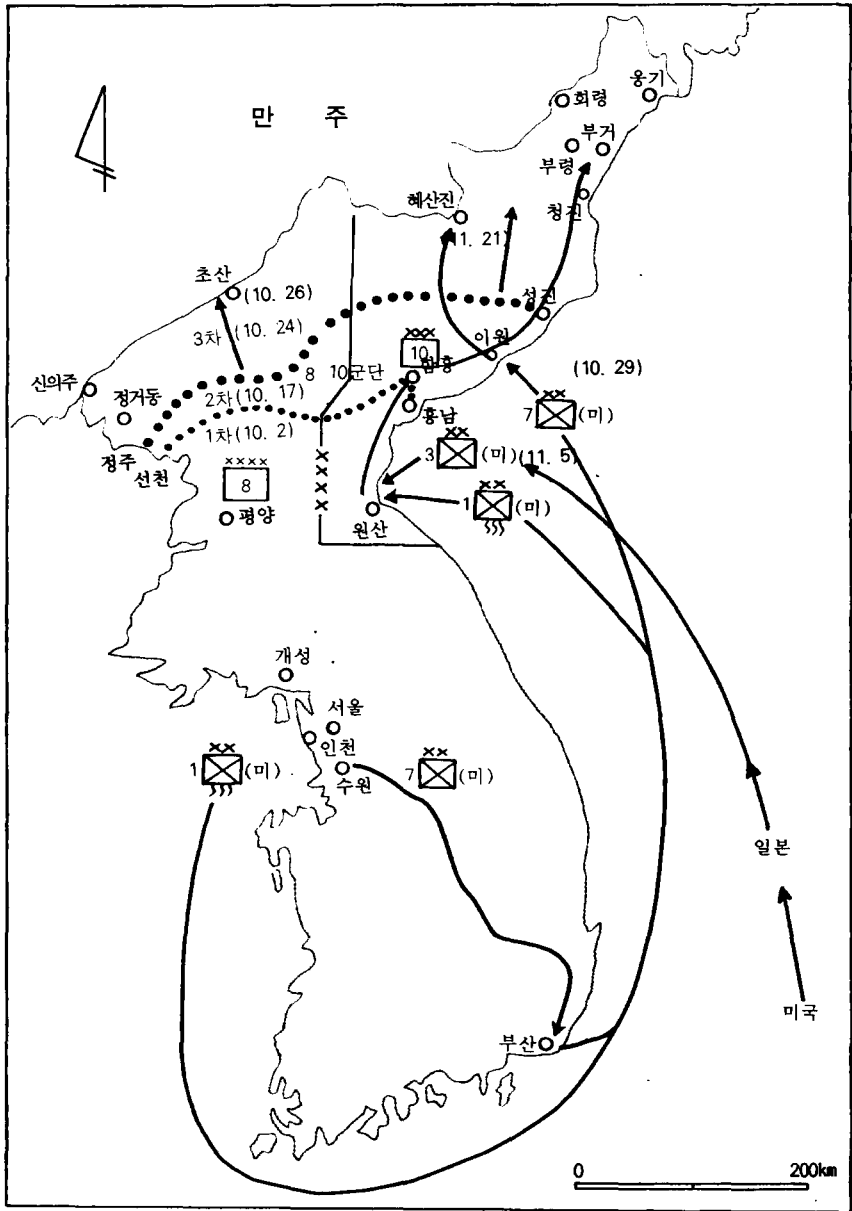
2. 元山上陸作戰과 戰線整理

(1) 元山上陸作戰

미 제10군단(미 제1해병사단과 미 보병 제7사단)의 원산상륙은 국군 제1군단이 원산 및 영흥만 교두보를 확보한 가운데 계획보다 뒤진 10월 26일부터 겨우 시작되었다. 미 제10군단장 알몬드(Almond) 소장은 상륙을 지원할 미 제7합동기동함대사령관 스트러블(Struble) 중장과 함께 국군 제1군단이 38도선을 돌파하여 북진의 첫발을 내딛던 10월 1일에 유엔군사령관으로부터 원산상륙에 관한 준비명령을 받았었다. “미 제7합동기동함대는 미 제10군단을 해로(海路)로 원산에 수송, 엄호지원하며, 청진 이남의 해상을 봉쇄하고, 상륙 전에도 필요한 해군작전을 수행하며, 수륙양면으로 원산을 공격하여 교두보를 확보하고 계속해서 함포사격 및 항공지원 그리고 군수지원을 제공한다. 미 제10군단은 인천에서 승선하여 원산에 상륙하며 상륙예정일은 10월 15일(그 후 20일로 수정)이다.”라는 것이었다.⁷³⁾

그 뒤 미 제10군단장은 10월 4일, 미 제1해병사단은 원산의 상륙기지를 확보

원산상륙과 북진한계선



하고 미 제7보병사단은 원산에 상륙한 다음 미 제8군과 연결하기 위해 서방으로 공격하라는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

그러나 10월 16일 미 제1해병사단이 인천에서 승선하여 원산으로 향진할 때는 이미 국군 제1군단이 원산을 탈환(10. 10)한 뒤였으며, 제10군단의 병력을 탑재한 함정들이 10월 19일 원산의 영흥만에 도달했을 때는 수많은 기뢰 때문에 상당기간 소해작업(掃海作業)을 계속해야만 입항이 가능하였다.

원래 소해작전(掃海作戰)은 상륙작전 계획시 영흥만에 기뢰가 부설되어 있다는 정보에 의거, 10월 10일부터 미군 소해정 10척, 일본 소해정 8척, 한국 소해정 1척 등 모두 21척의 소해함정을 동원하여 기뢰제거작전을 실시하였으나, 약 3,000개가 넘는 많은 기뢰가 광범위한 지역에 부설되어 있어 10월 20일 상륙예정일에도 소해작전은 계속되었다. 소해정 4척이 작전 도중 침몰되었다.⁷⁰⁾

한편 군단장은 10월 20일을 기하여 계획대로 국군 제1군단을 포함한 예하부대를 지휘하기 위하여 미조리(Missouri) 함상에서 헬리콥터편으로 원산비행장에 내려 기설치된 군단지휘소에서 이날 12:00부로 한반도 동북부 전선의 작전 책임구역과 작전지휘권을 인수하였다. 그가 지휘할 전술부대는 국군 수도사단과 제3사단, 미 제1해병사단 및 미 제7보병사단으로서 각종 지원부대를 포함하여 도합 9만여 명이었다.

제10군단은 원산 외항에 도착한 후에 기뢰작업으로 거의 1주일이나 물위에서 무료하게 왔다갔다 하다가(이로써 이 작전은 요요작전이라 불리게 되었다) 25일야 21척의 수송선과 15척의 LST가 원산항에 닿을 내렸고 그 이튿날인 10월 26일 상륙하였다. 10여 일 만에 미 제1해병사단 장병들은 26일 아침 적전(敵前) 상륙작전이 아니었으므로 가벼운 마음으로 원산에 상륙할 수 있었다.

한편 미 제7사단은 10월 19일 부산을 출항하였으나 역시 기뢰제거작업으로 인하여 부산 앞바다에 10일간 떠 있다가 27일 미 제10군단으로부터 북으로 향해하라는 명령을 받고 29일에 이원(利原)으로 상륙하였다. 상륙장소가 이처럼 변경된 것은 제10군단의 상륙이 평양탈환보다 늦어짐에 따라 10월 19일 유엔 군사령부의 명령에 의해 미 제10군단의 임무가 상륙 후 서진하지 말고 북진하도록 바뀐 데 기인하였다.

(2) 戰線整理

미 제10군단이 원산에 상륙할 무렵인 10월 하순 국군 제1군단의 전황은 수도사단이 함흥 북쪽 신흥리와 동북쪽 풍산 및 성진으로 진격하고 있었으며, 제3사단은 원산 및 함흥 일대에서 후방지역 경계와 미 제10군단의 상륙을 지원하는 한편, 수동 부근에서 중공군과 대치 중에 있었다. 미 제10군단장 알몬드 소장은 10월 26일에 작전회의를 개최하고 당시 상황을 토대로 맥아더 장군의 '10·20 총공격 명령'에 근거하여 새로운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⁷⁹⁾

- 군단은 동북지구의 한만국경선으로 계속 진격하려 한다. 국군 제1군단은 동해안 축선과 무산가도를 따라 북으로 계속 전진하여 백두산 이동의 국경선을 점령한 뒤 지구내의 적을 평정한다. 단, 미해병 제1사단과 미 제7사단이 진출할 때까지 일부 병력을 장진호, 부전호, 풍산 방면으로 지향시켜 적에게 최대한의 압박을 가할 것이며, 원산지구를 경비하는 한국군 제3사단은 그 임무를 미 제1해병사단에게 인계한 뒤 수도사단을 후속하라.
- 미 제1해병사단은 장진호선을 점령하고 계속 한만국경선으로 공격할 것이며, 미 제3사단이 원산에 도착할 때까지 일부 병력으로 원산-함흥 지구를 경비하라.
- 미 제7사단은 이원에 상륙하는 즉시 풍산과 부전호를 거쳐 백두산 서남쪽 해산진으로 진출한다.
- 미 제3사단은 원산-함흥 지구의 경비를 맡아 후방의 적 유격대를 소탕함과 동시에 군단의 보급로를 방호하라.

이에 따라 미해병 제1사단장 스미스(Oliver P. Smith) 소장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⁸⁰⁾

제1해병연대장은 원산 남쪽 고저(庫底)와 서쪽 마전리(馬轉里)의 국군 제1군단부대와 교대하여 경계임무와 작전을 수행하고, 제5해병연대장은 원산과 흥남 남쪽 연포비행장 및 군단의 서측방을 경비하며, 제7해병연대는 함흥에서 장진호에 이르는 계곡에서 국군 제3사단과 교대하여 장진 및 부전발전소를 경비한 다음 계속해서 진격한다.

10월 28일 미 제1해병사단의 해병 제1연대가 군단의 보급시설이 있는 원산 남쪽 고지에서 2일간의 경계임무를 수행하다가 다시 원산을 경유 마전리로 전진하여 29일 국군 제3사단 제22연대와 임무를 교대하고, 그 지역 일대에서 방어태세에 들어갔으며, 제5해병연대는 원산과 흥남 간의 연포(連浦)비행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군단의 서측 후방을 방호하고 있었으며, 제7해병연대는 이날 아침 차량으로 원산을 출발, 함흥 경유 장진호 남쪽 수동(水洞) 부근으로 이동하여 11월 2일에는 국군 제3사단 제26연대와 교대하였다.

이때 국군해병 제1연대(-제2대대)도 10월 27일 원산에 상륙하여 미해병 제1사단과 연합으로 원산-함흥방어작전을 실시하는 한편, 11월 초에는 고성에 집결하여 간성-마점리 일원에서 태백산맥을 타고 북상하는 패잔병의 차단 및 소탕작전을 전개하였다.

한편 미 제7사단장(David G. Barr 소장)은 제17연대로 하여금 이원에 상륙하여 북청-풍산-혜산진으로 전진하고, 제31연대는 이원에서 북청-함흥-오노리-신흥의 축선을 따라 부전호-신갈파진으로 진격하며, 제32연대는 사단의 예비로 후방경계에 임하도록 조치하였다.

10월 29일, 선두부대인 제17연대 본부와 제1대대가 이원에 상륙 즉시 제49야전포병대대와 제13야전공병대대 A중대와 함께 신북청-북청-장흥리를 거쳐 초리(初里)에 진출하였고, 제2, 제3대대는 상륙 중이었다.

그 이튿날 미 제17연대 선두부대는 1,335m의 후치령(厚峙嶺)을 넘어 저녁때 풍산에 도착하였다. 이때 수도사단 제1연대는 풍산 북쪽에서 완강히 방어하고 있는 적을 계속 공격하고 있었다. 미 제17연대(-2)는 수도사단 제1연대와 합동으로 이 적을 물리쳤으며, 11월 2일 전투가 끝난 뒤 국군 제1연대는 진지를 미군에 인계하고 동해안의 성진으로 이동 제1기갑연대를 후속하였다.

11월 3일 이원에 상륙한 미 제7사단의 제31연대는 최초계획과 달리 이원-풍산가도를 거쳐 부전호 방면으로 이동, 이 부근에 있던 수도사단 제18연대와 교대하였다. 임무를 인계한 수도사단 제18연대는 함흥 북방 서양리(西陽里)로 집결한 다음 성진 방향으로 이동하였다.⁷⁾ 또한 제32연대는 11월 4일 상륙을 시작하였으며 그 이튿날 함흥으로 이동한 다음 동북쪽의 담풍리에서 차후작전에 대비하였다.

이로써 국군 제1군단은 제3사단이 미해병 제1사단에 대부분 임무를 인계하고 동해안 축선으로 진격하게 되었고, 수도사단은 미 제7사단에 해당 작전지역을

인계하고 제1연대와 제18연대를 제1기갑연대가 단독으로 진격하고 있는 길주-청진 방향으로 지향시켰다. 결과적으로 양개 군단은 마천령산맥을 중심으로 전선을 정리하여 미 제10군단은 이서(以西)지역인 함경남도에서, 국군 제1군단은 그 이동(以東)지역인 함경북도에서 북진작전을 계속하게 되었다.

3. 長津湖·惠山鎭으로의 進擊

(1) 水洞-長津湖 追擊作戰

국군 제3사단과 교대한 후 장진호 방향으로 작전을 전개한 미 제1해병사단은 10월 29일, 제7해병연대가 11월 2일 수동(水洞)에 도착하여 국군 제26연대와 임무를 교대하자마자 곧바로 중공군과 충돌함으로써 전투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날 주간전투에서 미 제7해병연대는 중공군 3명을 생포하였다. 이들은 제124사단 제370연대라고 진술하였다. 이어서 계속된 야간전투에서 치열한 근접전투가 전개되었으며, 밤새 중공군 700여 명을 사살하고 해병부대도 큰 희생을 치르며 최초전투에서 적을 격퇴하였다.

초전에 중공군 제124사단과 격전을 치른 제7해병연대는 해병항공대의 지원하에 진격을 계속하여 수동-진흥리를 거쳐 황초령을 넘고 10일에는 고토리(古土里)를 점령하였다. 이 과정에서 6일 획득한 포로 진술에 의하면 중공군 제125, 제126사단도 장진호 부근에 집결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무렵 수동까지 진출하였던 중공군은 접촉을 유지하면서 장진호 방향으로 후퇴하고 있었다.

또한 11월 9일에는 국군 제3사단 제26연대가 미 해병사단에 배속되어 홍원에서부터 함흥을 거쳐 지경리에 집결하였으며, 그 후 마등령-중창령에 투입되어 미 해병부대의 서측방을 방호하였다.

이 무렵 작전지역에는 눈이 쌓였고 야간에는 수온주가 20~25°C까지 내려가는 혹한이어서 이에 익숙하지 못한 미군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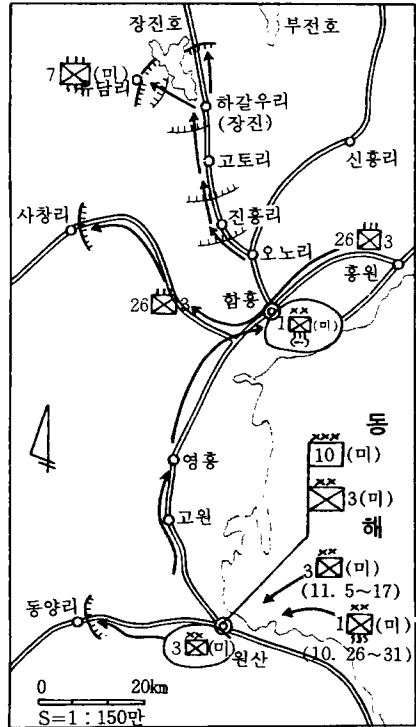
이와 같이 어려운 작전지역의 특징에도 불구하고 전방의 제7해병연대 진격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며, 후방에서는 미 제3사단의 원산 상륙이 개시됨에 따라 작전지역의 인계가 가능하게 되자, 미 해병사단장은 13일에 북진을 위한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

- ① 사단은 계속 장진호를 거쳐 한만(韓滿)국경선으로 공격하려 한다.
- ② 제1연대는 하갈우리를 점령하고 사단의 좌측방을 경계한다.
- ③ 제5연대는 고토리-진흥리 간의 후보급로를 확보 유지한다.
- ④ 제7연대는 하갈우리(下喝隅里)를 점령하고 명에 의거 유담리를 공격할 준비를 갖춘다.

이에 따라 이날 제5연대는 제7연대에 후속 북상하여 고토리-진흥리 간에 후보급로 경계에 임하고, 제1연대는 원산 방어를 미 보병 제3사단에 인계한 뒤 지경리에 집결하고 있었다.

한편 진격을 선도하고 있는 제7연대는 11월 10일에 고토리를, 11월 16일에는 장진호 남단 하갈우리를 점령하고, 24일에는 장진호 서안의 유담리(柳潭里)를 탈취하였다. 유담리 공격시 생포한 2명의 중공군으로부터 그 소속이 전에 생포된 병력의 소속과 다른 중공군 제89사단 제267연대라는 것과 그들이 10일 전 압록강을 도하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또 다른 중공군 부대들이 장진호 부근에 투입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장진호 북쪽에는 여러 사단의 중공군이 투입되어 있음이 분명하였다.

장진호 진격작전



(2) 利原-惠山鎮 追擊作戰

혜산진을 목표로 진격할 임무를 부여받은 미 제7사단도 수도사단과 교대와 동시에 대치 중인 적과 격전을 치렀다. 11월 2일 풍산에서 수도사단 제1연대와 교대한 미 제17연대는 2개연대의 적과 벌인 전투에서 적을 격파하고 추격전을

전개하였다. 수도사단 제18연대로부터 부전로 부근에서 진지를 인수받은 미 제31연대는 11월 8일에 백산(白山) 동측에서 1개대대 규모의 적과 조우하여 치열한 전투 끝에 적 50명을 사살하였는데, 이 전투에서 적이 유기한 시체를 조사한 결과 중공군 제42군 제126사단 제376연대의 일부 병력이었음이 판명되었다. 이와 같이 장진호 일대와 더불어 부전호 부근에도 중공군이 출현하자 미 제7사단은 물론 군단 전체가 긴장감이 더해 갔다. 한편 제31연대의 정찰대는 이날 부전호 남쪽을 수색하다가 미 제1해병사단과 접촉하였으며, 이는 인천상륙작전 이후 양개 부대가 만난 최초의 일이었다. 한편 이 무렵 제32연대는 풍산-초리 간에 배치되어 병참선 경계작전에 임하고 있었다.

11월 12일 풍산에 도착한 미 제10군단장은 종합적정분석을 토대로 미 제7사단장에게 계속 북진을 명령하였다. 부전호 동측에서 중공군의 출현으로 정면의 적 주력은 중공군이라고 믿고 작전에 신중을 기하던 사단장은 군단장의 명에 의거 제17연대를 갑산(甲山)을 거쳐 국경도시 혜산진으로 진격하게 하고, 제31연대를 부전강(赴戰江)을 따라 북진하여 압록강변의 신갈과진에 진출하도록 명령하였으며, 제32연대를 이원-풍산 등 후방보급로의 유지와 경계임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11월 15일 제17연대는 풍산 북쪽 20km 지점의 용이강(熊耳江)을 적의 심한 저항을 물리치고 도강하였으며, 19일에는 보·전·포 협동작전으로 갑산을 탈취하였다. 제31연대는 백산-수상리 부근의 광활하고 험준한 지역에서 농우(農牛)가 이끄는 썰매로 보급품을 운반하고 부상자를 후송하였으며, 11월 16일에는 수상리(水上里)-부전호반의 경로를 따라 서북으로 전진하여 부전호 북단 한대리(漢岱里)의 부전댐 발전소 부근에서 중공군 200명을 격퇴시키고 부전발전소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의 부전강 연안 도로는 우마차만이 통과할 수 있는 협소한 도로인데다가 눈이 많이 쌓여 전진이 불가능하였다.

11월 20일 사단장은 제31연대와 제32연대 주력을 풍산과 갑산으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31연대가 도로망의 결핍으로 전진이 어려워지자, 갑산에 집결한 미 제32연대로 하여금 삼수(三水)를 거쳐 신갈과진에 진출하여 미 제17연대의 서측에 배치하라고 명령하였다. 이날 제17연대는 진격을 계속하여 11월 21일 아침 국경도시 혜산진을 무혈점령하였다. 혜산진 시가와 압록강에 연한 주변 일대를 완전히 장악한 미 제17연대는 이미 해군 함재기에 의해 폐허가 되어버린 텅 빈 시가지 북쪽에서 경계에 임하였다.

혜산진 시가의 북쪽을 가로지른 압록강의 강폭은 45~70m 정도였는데 유폭(수폭)은 겨우 2m였다. 강상(江上)의 교량은 이미 파괴되어 있었고 강북쪽 300m 지점 만주지역의 장백(長白)에서 중공군의 보초와 장교들이 왕래하는 모습이 뚜렷히 보였다.

미 제17연대는 국경선 압록강변에 먼저 도달한 국군 제6사단 제7연대에 이어, 한만국경선에 도달한 두 번째 부대가 되었고, 유엔군으로서는 처음이었다.

한편 동부전선의 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10군단에 배속되어 전선에 투입된 미 제3사단³⁾(Robert N. Soule 소장)은, 9월 중에 부산에 도착한 제65연대를 제외하고 사단본부와 제7·제15연대는 병력이 아주 부족하여 총병력이 7,494명에 불과하였다. 이들은 9월에 일본에 도착한 후 극동군 예비로서 머물면서 8,500명의 카투사(KATUSA)를 보충받아 부대를 증편하였으며, 그 결과 1개분대가 미군 2명에 카투사 8명의 비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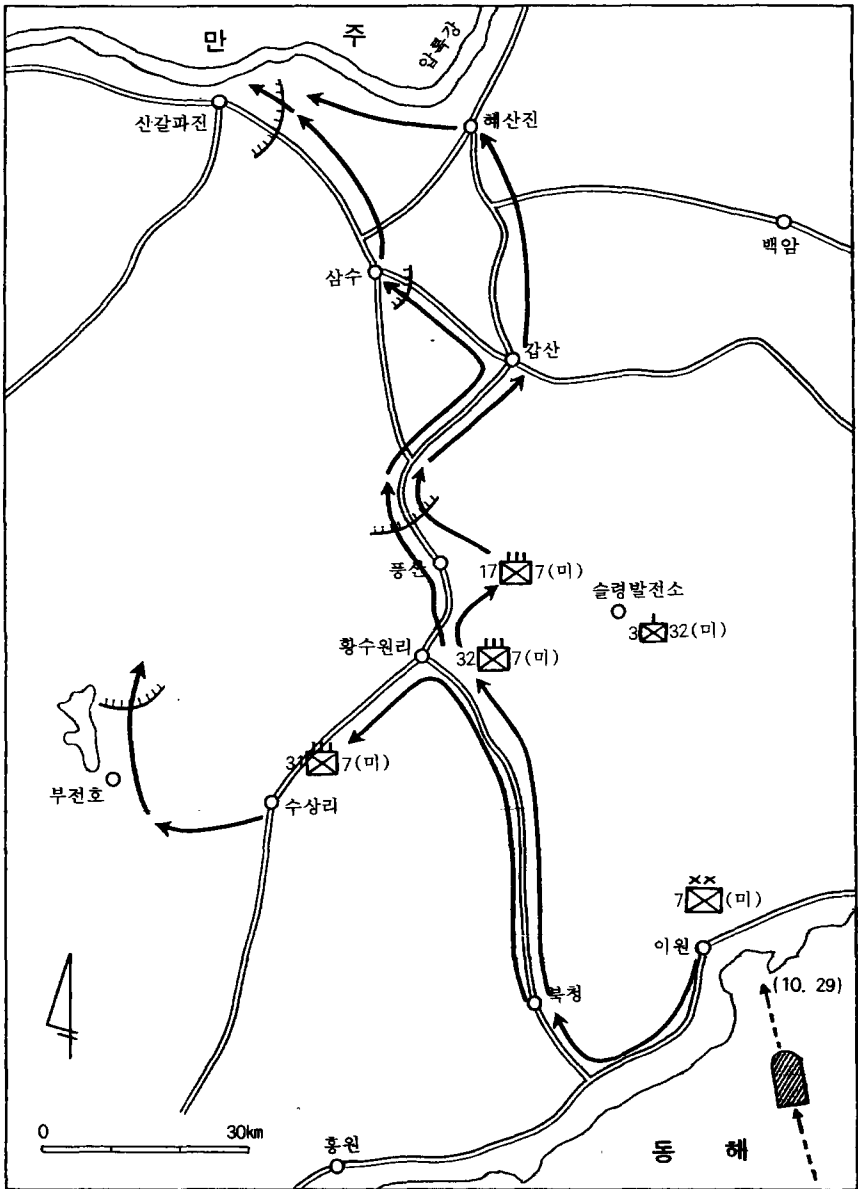
부산에 상륙해 있던 제65연대는 11월 5일에 원산에 상륙하였고, 사단의 주력인 제7연대와 제15연대가 11월 초에 일본을 출발 11월 17일까지 원산에 상륙을 완료하였다.

원산에 상륙한 제3사단의 임무는 원산과 함흥 남쪽에서 경계 중인 미 제1해



혜산진에 도착한 국군과 유엔군

이원-혜산진 진격작전



병사단과 교대하여 이 지역을 방어하고, 군단 후방지역의 주요도로를 통제하여 게릴라 활동을 봉쇄하고, 우회하려는 인민군을 차단하며, 원산과 함흥 간 해안선을 방호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사단의 전술책임지역(144×56km)이 너무나 광범위하자 미 제3사단장은 미 제1해병사단에서 배속전환받은 국군 제3사단 제26연대를 포함한 4개연대를 전부 전투단으로 편성하고 책임지역을 분할하여 임무를 수행하였다.

4. 豆滿江으로의 進擊

(1) 吉州—淸津 追擊作戰

수도사단이 미 제7사단에 부전호—풍산지역을 인계하고 동해안 축선의 성진으로 주력을 집결시키며 길주공격을 준비하고 있을 때, 적 상황은 장진호—부전호 선에서 수 미상의 중공군이 확인되어 전선을 긴장시켰으며, 성진 북쪽에서는 적 제41사단 및 제507여단 등이 길주를 위시하여 그 북쪽 명천(明川)—어랑천(漁郎川) 등지에서 축차적으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완강히 저항하고 있었다.

수도사단장 송요찬 준장은 제1기갑연대로 정면에서 돌파를 시도하고 제1연대를 동측으로 우회시켜 압박할 계획하여 11월 1일 길주를 향하여 공격작전을 개시하였다.

성진에서 북상한 양개 연대는 그 이튿날까지 제1기갑연대가 길주 남쪽 12km 지점 일신동까지 진출하였고, 제1연대는 길주 남동쪽 화대천(華臺川) 하류의 와현동까지 진격함으로써 길주를 양익 포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11월 3일 제1기갑연대는 남대천(南大川)과 나란히 뻗은 도로를 따라 길주 전방의 평야지대에 접어들었다. 이때 길주 동남쪽에 있는 552고지에 있던 적이 맹렬한 사격을 가해 와 연대는 즉각 공군 및 포병의 긴급지원을 요청하여 지원을 받아 치열한 전투를 벌이면서 힘겹게 전진해 나갔다. 고지는 길주를 비롯하여 남대천과 그 좌우의 평야지대를 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면 공격하는 제1기갑연대가 완전 노출되어 악전고투를 하게 된 것이다.

이때 길주 남동쪽 화대천을 따라 공격하던 제1연대가 552고지 후사면을 통과 동쪽 4km 지점인 허의동을 향하여 진격을 계속하였다. 11월 5일 제1기갑연대는 적의 필사적인 저항을 공군 및 포병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 맹렬한 공격으로 적

의 방어선을 붕괴하고 길주를 점령하였으며, 제1연대는 길주 동측으로 우회기동하여 측후방에서 길주에 배치된 적을 위협하면서 허의동을 경유 황곡동 및 명천 방향으로 패잔병들을 추격하였다.

길주를 피탈당한 적은 명천 북방의 어랑천 방향으로 북상하고, 청진 및 나남에 있던 적은 반대로 어랑천을 향하여 남하하고 있었으며 이들 적은 어랑천 일대의 천연적인 방호력을 이용, 결사적인 방어작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수도사단은 제1기갑연대로서는 합수(合水) 방향으로부터의 적의 위협에 대비하도록 하는 한편 제1연대로써 동해안 가도로 명천을 공격하도록 하고, 함흥에서 이동 중인 제18연대로 하여금 제1연대를 초월하여 봉강(鳳岡) 및 어랑천으로 공격할 계획이었다. 제1연대는 7일부터 명천공격에 이어 다시 저항하는 제507여단 패잔병과 제893해안경비대대 소속 약 400여 명의 적을 구축하고 10일에는 신명천 북쪽 용등까지 진출하여 적의 역습에 대비하였다.

11월 8일 철도를 이용, 명천에 집결한 제18연대는 다음날 어랑천 및 봉강 일대의 적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고 있었다.

사단의 선두로 나선 제1대대(대대장 李秉衡 소령)는 06:00 점적 행군으로 용암리-조막산을 경유 14:30에 봉강 입구 104고지까지 진격하였으며, 이때 어랑천 대안의 능선 일대에 2개대대 규모의 적이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고 결전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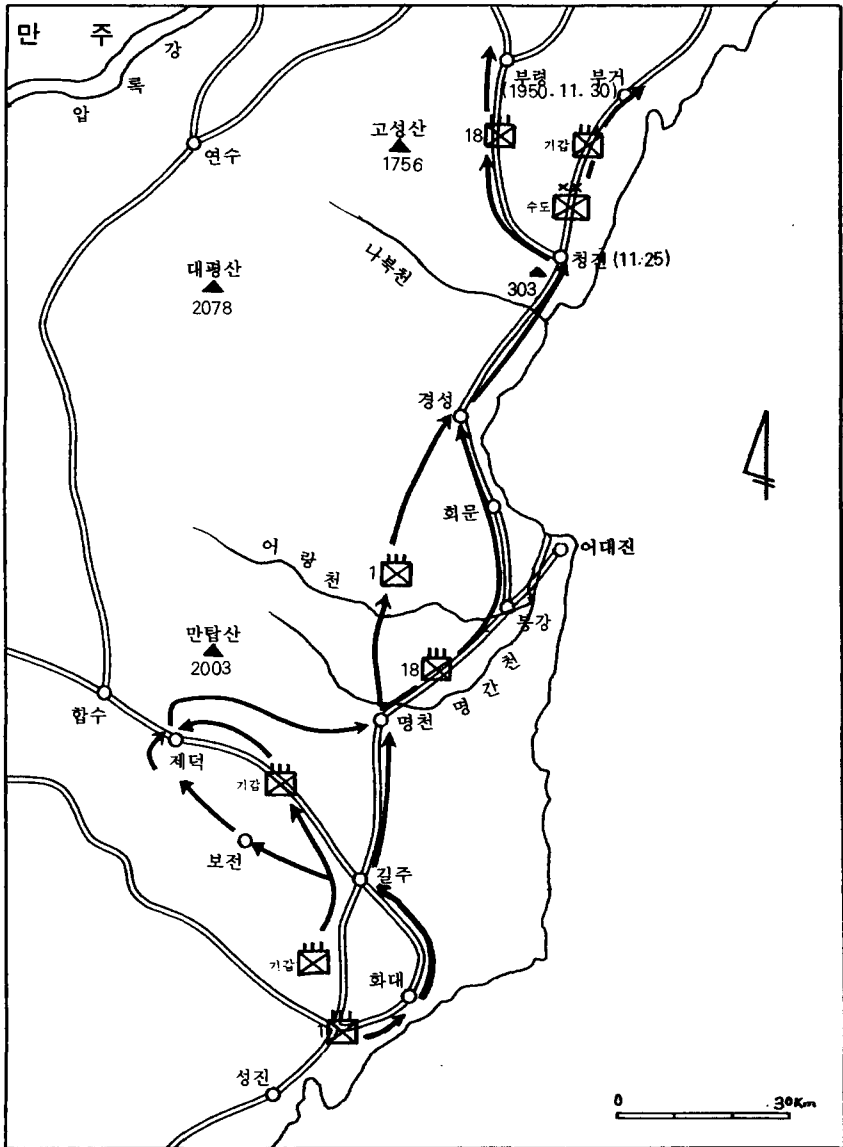
대대장은 104고지에서 어랑천 북쪽의 100능선으로 도하하여 132고지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대안의 적의 화력이 워낙 강하여 도하가 지연되었으며, 아군의 중화기와 야포가 적진에 대한 화력을 집중시키는 가운데 오후에 이르러 적전도하(敵前渡河)에 성공하고 강의 북안(北岸) 일대를 점령하였다.

다음날인 10일에 봉강에 진출한 제18연대 제1대대는 봉강 서북쪽의 104고지-132고지-90고지 일대에서 적과 대치하여 치열한 격전을 벌였으며, 적의 저항이 너무 완강하고 여기에 증원부대가 계속 도착함으로써 고전을 면치 못했다.

적은 성진과 길주와 명천을 차례로 빼앗긴 상태에서 천연적인 방어력을 가진 어랑천 방어선마저 붕괴된다면 청진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될 것을 감안했음인지 어랑천 강 북안의 천연적인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견고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결전을 기도하고 있었다.

이 무렵 제1연대는 제18연대 서남쪽 영안-용산동-용동-하평리 일대에서

길주-청진 진격작전



중심 깊은 진지를 구축하고 사주경계에 임하였다. 그리고 길주에서 합수 방향으로 진출하던 기갑연대는 길주 서북방에 있는 갑산곡(甲山谷) 지역에서 적의 저항을 물리치고 부대정비 중에 있었다.

봉강 일대의 적은 유리한 지형을 이용하여 계속 반격을 기도하였다. 어랑천 부근의 지형은 남쪽에는 명간천과의 사이에 표고 100~200m 정도의 야산지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어랑천 북안(北岸)은 급경사이기 때문에 방어를 하는 적에게는 천연적인 요새이지만 공격하는 아군에게는 큰 장애물이 되었다. 11월 12일 봉강을 공격 중이던 제18연대는 전차로 증강된 6~7개 대대규모의 대병력이 역습을 가해 오자 연대는 어랑천 남안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한편 제1연대도 제18연대의 서남쪽에서 계속 신명천 부근의 197고지를 확보하고 있다가 적 전차 4대와 직사포 및 박격포 등의 집중포화로 동 고지의 확보가 곤란하게 되자 철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무렵 미 해병대의 전폭기가 15센티미터나 쌓일 정도의 강설(降雪)에도 불구하고 봉강지역에 출격하여 적 전차 2대를 파괴하는 등 폭격을 가하였는데도 적은 완강하게 저항하면서 대대적인 반격작전으로 전환하였다. 특히 제18연대 정면의 봉강 일대는 아군이 수세에 물리게 되자 연대장 임충식(任忠植) 대령은 융통성 있는 작전을 전개하기 위하여 일단 후방으로 철수하였다.

제18연대는 명간천 남쪽의 연대봉(煙臺峰)과 175고지 일대로 철수하여 병력을 배치하고 있던 차 14일 새벽에 약 2개중대의 병력이 좌측의 175고지를 향해 명간천을 건너 반격을 가해 왔다.

이에 연대는 야포, 박격포 등 가용한 화력을 집중시켜 적을 격퇴하였으며, 특히 연대에 배속된 제10포병대대의 효과적인 포격으로 이들을 섬멸함으로써 전세를 역전시키는 데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였다. 또한 연대봉에 배치되어 있던 제18연대 제2대대에서도 명간천을 도하하여 연대봉을 공격하는 또 다른 2개중대를 격퇴함으로써 명간천을 사이에 두고 피아간에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하루 종일 전개되었다.

전날에 이어 15일에도 명간천 남쪽의 돌출부 175고지에서는 제18연대 제1대대가 새벽 02:00 적 2개대대 규모의 반격을 맞아 치열한 근접전투를 전개하였다. 대대는 일출시에 재공격을 감행하기 위해 진지를 175고지에서 남쪽 능선으로 이동하고 날이 밝자 제2대대의 증원병력과 함께 돌격을 감행하였다. 이때 포병대의 지원포격과 중화기중대의 집중사격으로써 적의 예봉이 일단 꺾어진

틈을 타서 동 고지를 향하여 돌진한 결과 11:00경에 목표를 완전히 점령하였다. 이렇게 되자 적은 175고지에서 철수를 시작하였으며 도섭이 가능한 명간천을 건너 패주하였다.

11월 16일, 이날은 제18연대가 명간천을 건너 영안(永安)과 극동(極洞) 뒷산을 연결하는 일련의 고지군으로 형성된 주저항선을 공격하였으며 약 5시간에 걸친 치열한 격전 끝에 이를 돌파하고 그 후방의 고지를 점령, 야간 방어태세에 임하고 있었다.

이 무렵 제1연대도 영안 서북쪽 어랑촌 남쪽의 468고지(EB 412713) 일대까지 북상하였으며 동쪽의 제18연대와 병행공격을 하였다.

이처럼 수도사단의 진격이 어랑천 부근에서 저지되자, 군단은 “수도사단장은 제1기갑연대를 제3사단과 임무교대하게 한 다음 동해안 축선으로 이동시켜 사단 전 병력을 통합지휘하여 지시된 목표를 공격, 점령하라.”⁷⁹⁾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명천강 북쪽으로 진출한 제1연대와 제18연대가 18일까지 봉강을 중심으로 한 어랑천 남안 일대에 진지를 확보하고, 제1기갑연대가 작전지역을 인계한 후 길주를 거쳐 명천 북쪽 용동(龍洞)에 집결하여 사단예비로서 제18연대를 증원할 준비를 끝내었다. 따라서 사단은 봉강에서 철수한 지 1주 만에 다시 어랑천 공격준비에 들어간 것이다.

이 무렵 적은 제41사단의 증원부대와 길주에서부터 계속 패주하였던 제507여단이 필사적인 반격작전을 5일이나 계속하였으나 수도사단의 거침없는 돌파와 포위작전에 휘말려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전세가 악화되면서 어랑천 북안으로 철수하여 봉강 좌우의 야산에서 병력을 재수습하고 있었다.

11월 19일 제18연대는 봉강 남쪽에서 어랑천을 도하하여 봉강 좌우측 어랑천 일대의 적을 격파하고 적의 진지를 점령하였다. 또한 제1연대도 제18연대의 서측에서 강을 도하하며 북으로 진격, 355고지를 점령하고 그 북쪽 용암동 일대에서 반격을 기도하던 적 1개대대 규모의 적을 급습하여 격멸시켰다. 이로써 10여 일 간에 걸쳐 일진일퇴의 치열한 공방전이 수도사단의 승리로 끝이 났다.

한편 어랑천 전투에서 참패한 적은 회문을 경유 주을, 청진 방면으로 철수하면서 축차적으로 지연전을 위한 진지를 구축하여 수도사단의 진격을 저지하려 하였다. 그러나 제18연대 제1대대가 다음날 오후에 회문비행장을 점령하고 이어서 그 서쪽 188고지를 점령함으로써 회문을 완전 탈환하였다. 수도사단장은 계속 동해안 도로를 따라 북으로 공격하여 11월 21일에 주을을 점령하고, 11월

23일에는 경성을, 이어서 24일 아침에 나남(羅南)에 접적 없이 진입하였다.

이 무렵 적은 청진 나북천(羅北川)과 그 대안의 303고지를 중심으로 한 고지 군에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모든 전투력을 집중하고 있었다. 제18연대 제1대대는 이날 11:00에 303고지에 대한 공격을 전개하였으나 개활지와 나북천으로 인하여 진출이 곤란하였다. 제1대대장은 야음(夜陰)이 주는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많은데도 과감하게 대대 야간공격을 실시, 21:00에 303고지를 탈취하였다.

적은 청진 서남부 외곽의 방어진지(303고지)가 무너지자 시가지가 감제되어 일부 엄호부대로 지연전을 펴며 주력은 청진 북쪽의 회령(會寧)과 동쪽의 용기(雄基) 방면으로 도주하였다. 11월 25일 수도사단은 제18연대가 여명공격을 재개하여 청진 서북 송정동까지 진출하고, 제1연대도 수성 서북의 송동(송골)까지 점령함으로써 드디어 청진을 점령하였다.

(2) 吉州—合水 追擊作戰

국군 제3사단은 원산·함흥 지역을 미 제1해병사단에 인계한 후 전 병력을 11월 8일까지 홍원—신포—신북청으로 전진하여 군단작전지역 내의 후방경계에 임하고 있었다. 다만 제26연대(연대장 서정철 중령)는 9일부로 미 제1해병사단에 배속되어 홍원에서 지경리로 이동하였다. 한편 적은 성진—길주—청진 방향으로 철수하면서 강력한 저항의 지연전을 펴, 병력과 장비를 보강하기 위한 시간을 획득하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10월 26일 이래 줄지어 상륙한 미 제10군단 전투부대의 강력한 화력에 부딪치면서부터 전선의 균형은 깨어지고 적은 도주하기에 바빴다. 적은 길주에서 청진으로, 길주에서 북쪽의 합수(合水) 방면으로 양분하여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합수에서는 1,000여 명의 병력이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고, 그 북쪽의 백암(白岩)에도 신편한 노동여단 병력으로 추축되는 약 4,500명이 집결 중이며, 후방지역에서도 별동대 및 유격대 등이 보급로의 차단과 부대 주둔지의 기습을 기도하고 있었다.

그 뒤 11월 13일 홍남 동쪽 홍원에 있던 군단사령부가 성진(城津)으로 이동함에 따라 제22연대 및 제23연대 일부도 성진으로 이동하였다.

사단은 이와 같이 군단예비대로서 후방지역 방어임무에 임하는 한편, 기회교육으로 전투력을 보강하면서 전방으로 투입에 대비하고 있던 중, 11월 16일에 군

단장 김백일 소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작전명령 제120호를 하달받았다.

- 제3사단은 사령부 및 예하 제23연대를 이동시켜 임명동-합수가도와 길주-합수가도의 2개 중대로써 합수를 공격, 점령하라.
- 사단 대전차공격대대를 단전에 주둔시키고 1개중대로 슬령(瑟嶺)발전소를 점령, 확보하라.
- 군단이 직접 운용하는 제22연대는 성진에 1개대대를 주둔시키고 주력은 길주로 이동하여 원대에 복귀하라.
- 수도사단장은 합수에 진출 중인 제1기갑연대를 제3사단 병력과 교대시킨 뒤 철수시켜 제 병력을 통합지휘하여 동해안 축선의 지시된 목표를 공격, 점령하라.

이에 따라 제3사단이 작전할 길주-합수(백암), 계산진 축선은 백두산에서 남으로 뻗어내린 마천령 산맥에 연하여 함경남북도를 가로질러 동해에서 압록강으로 이르는 대단히 중요한 통로이다. 하지만 이 지역은 해발 1,500미터 이상의 고원지대를 이루었으며 겨울에는 기온이 주야간을 막론하고 영하 20~30도로 강하될 뿐만 아니라 강설 또한 수 미터에 달하여 동계작전에는 피아간 많은 고난을 초래하게 되어 있다.

군단의 명령을 접수한 사단장은 제23연대로 하여금 성진-임명동-합수가도로 전진하고, 제22연대는 길주-합수가도를 따라 전진하여 합수를 양익에서 포위, 점령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성진에 집결한 제23연대는 임명동으로 먼저 진출한 제1대대를 선두로 20일에 합수 방향으로 진격을 개시하여 합수 30km 남쪽 대신리에서 수도사단 제1기갑연대로부터 작전지역을 인수하였다. 그 후 연대는 합수 동남쪽에서 적의 강한 저항에 부딪쳤으나 미공군의 지원을 받으며 격전을 거듭한 끝에 22일 합수를 점령하였다.

제22연대는 길주에서 재덕(載德)으로 먼저 진출한 제2대대를 선두로 재덕-합수도로를 따라 진격하였으나 제23연대보다 하루 늦게 이곳에 도착하였다.

합수를 점령한 제23연대는 서북방향으로 진격을 계속하여 25일에는 백암을 점령하고 그곳에서 적이 유기한 기관차 4대를 노획하였다. 다음날에는 제22연대(제1대대)가 백암으로 진출하여 제23연대와 임무를 교대하고 백암 합수에서 경계작전을 펴며 차기작전에 대비하였다.

한편 제26연대는 미 제7사단에 배속되어 작전 중이었고 대전차 공격대대는 슬령에 1개중대를 추진하여 22일부로 미 제7사단 제32연대의 1개중대로부터 발전소 경계책임을 인수하였다.

이로써 제3사단은 11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에 걸쳐 2개연대가 합수를 탈환하였고 그 북쪽 5km 지점의 백암까지 진격하였다.

第5節 새로운 戰爭으로의 轉換

1. 유엔군의 最終攻勢

‘10. 24 유엔군사령관의 총공세 명령하달’과 ‘10. 26 미 제10군단의 원산상륙’으로 국군과 유엔군의 압록강·두만강까지의 진출은 목전에 다다른 듯하였고, 병사들은 사기 충천하여 동서 양개 전선에서 총공세를 폈었다.

그러나 예상과 기대와는 달리, 서부전선에서는 비록 국군 선두부대가 압록강 변 국경 마을 초산을 점령하고 미군 일부 부대가 신의주 남쪽 정거동까지 진출하였지만, 뜻하지 않은 새로운 적 중공군과의 조우로 인하여 공격부대는 포위의 위협에서 가까스로 벗어나 11월 초에 간신히 신안주-원리에 이르는 청천강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제8군사령관은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여 군예비 미 제9군단을 전선의 중앙에 투입하고 교두보를 강화하는 한편, 재공격을 위한 준비를 갖추어 나갔다.

반면 동부전선에서는 같은 시기에 장진(長津)발전소 부근에서 중공군의 출현이 확인되었지만 미해병 제1사단이 유담리까지 진출하고, 그 외 동북부지역 부대는 인민군 잔존부대의 저항을 격파하고 전과확대 및 추격작전을 펴 11월 하순에 미 제7사단이 백두산 서측 한만국경선상의 혜산진에 돌입하고, 국군 제3사단은 합수·백암까지, 수도사단은 청진으로 진출하는 등 서부전선과는 대조를 이루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 동안 한·미 양국의 군사통수기구는 물론 군사령부에서는 새로운 적의 출현에 관한 정보판단과 이에 따른 전쟁수행 전략수립 논의를 다각적으로 전개하였다. 하지만 국가의 전략정보기관도 중공군의 참전목적과 그들이 취할 작전규모를 판단해 내지 못하였고, 현지의 전술정보기구도 포로심문에 의존할 뿐 여

타 정보의 부족으로 후에 밝혀진 실상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과소평가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전쟁지도부와 군사지휘기구는 전쟁수행 전략면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채 혼선을 빚고 있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국군과 유엔군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몰고 오리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였다.

한편 유엔군측은 만주로부터 압록강을 건너 추가로 유입되는 병력 및 물자의 차단과 적의 전쟁수행능력을 말살하는 데 목표를 두고 11월 7일부터 2주간에 걸쳐 압록강상의 교량을 파괴하는 등 국경지역의 중요 공장 통신수단 및 병참선에 대한 대규모 전략폭격작전을 단행하였다.

이 무렵 맥아더 장군은 서부전선의 공격준비가 완료되고, 동부전선의 진출이 고무적인데다 전략폭격의 효과로 전장이 만주로부터 고립된 것으로 믿는 등 우군상황(友軍狀況)을 과신한 반면, 적에 대하여는 결국 한국에 참전한 중공군이 조직된 부대⁸⁰⁾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중공군은 대병력으로 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그렇게 하더라도 자신의 공군력이 그들을 격파할 것이다.”⁸¹⁾ 라는 상황판단에 기초하여 이른바 최종공세를 결심하였다.

맥아더 장군의 최종공세는 11월 24일 09:00에 시작되었다. 그는 “이 작전이 성공하면 전쟁을 끝낼 것이다.”라고 공표하고 “크리스마스까지는 부대를 귀국 시키겠다.”⁸²⁾ 하여 이 공세는 최종공세 또는 크리스마스공세라고 불리었다. 당시 유엔군사령부는 적의 병력을 인민군 82,799명, 중공군 40,000~70,935명으로 판단하였으나⁸³⁾ 실제 투입된 중공군 병력은 300,000명이었다.

이 공세에서 미 제8군은 청천강 교두보를 발판으로 미 제1군단(미 제24사단, 국군 제1사단, 예비 영 제27여단)이 서, 미 제9군단(미 제25사단, 미 제2사단, 예비 터키여단)이 중앙, 국군 제2군단(제7사단, 제8사단, 예비 제6사단)이 동에서 강계-회천의 적 예상 집결지를 주목표로 공격작전을 전개하였다.

첫날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는 듯하였다. 둘째 날 좌익의 미 제1군단이 정주로 접근하고 있을 때 우익의 국군 제2군단이 덕천-영원에서 중공군에게 강타당하여 우측방이 돌파되면서 전세는 급전직하로 반전되었다.

한편 미 제8군보다 3일 후 11월 27일에 최종공세로 들어간 미 제10군단은 이번 작전에서 제8군과 벌어진 부대간격을 메우는 데 주안을 두고, 당초의 복진 계획에 일부 수정을 가하여 미해병 제1사단이 장진호에서 무평리로 진격하여 만포진-강계-회천으로 이어지는 적의 병참선을 차단한 다음 국경도시 만포진

으로 진출하고, 미 제7사단이 일부 부대를 장진호 동측으로 이동시켜 당초 해병사단의 진격 방향인 압록강변 후창(厚昌), 강구(江口) 방향으로 진격하며, 미 제3사단은 미 제8군과 연결을 이루도록 하였다.

국군 제1군단은 제3사단이 두만강변 무산으로 진격하되 제26연대는 혜산진으로 진출하도록 하였고, 수도사단은 최북단 회령과 웅기를 목표로 진격하도록 계획하였었다.

이 무렵 국군 제1군단 정면의 적은 노동여단이 백암에서 혜산진·무산 방향으로, 적 제41사단·제507여단·단대호 미상의 해안경비대가 주력은 무산-회령에 집결하고 엄호부대는 청진 북쪽 30km 부령과 부거에서 저지선을 형성하고 있었다.

합수를 점령한 국군 제3사단은 제23연대가 나남으로 이동하여 무산 방향으로 공격을 개시하였으며, 미 제7사단에 배속된 제26연대는 단천-홍군-풍산으로 이동하여 장진호 동측으로 기동하는 미 제31연대의 작전지역을 인수하여⁶⁰ 갑산-삼수로 진격하였고, 그중 제1대대는 29일에 혜산진으로 진출하였다. 제22연대는 합수·백암 부근에서 경계작전 중이었고 예하의 제3중대가 30일에 혜산진으로 진입하였다. 청진을 확보한 수도사단은 제18연대가 회령 방향으로, 기갑연대가 웅기 방면으로 추격을 계속하여 적의 가벼운 저항을 격파하고 11월 30일에는 부령과 부거 남쪽까지 접근하였다. 한만(韓滿)국경 회령까지는 40km, 한소(韓蘇)국경 웅기까지는 50km 남겨 두고 있었다.

그리고 혜산진을 점령한 미 제7사단에서는 제32연대가 삼수에서 킹스턴(Kingston) 특수임무부대를 선두로 혜산진 서측 30여 km 신갈파진으로 진격하였다. 이때 삼수전방의 적이 효과적인 지연작전을 펼 뿐만 아니라, 혜산진-신갈파진의 적도 소규모 부대이나 교량을 파괴하고 도로대화구를 설치하며 완강한 저항을 하는 바람에 제17연대의 측방지원도 지지부진하여 킹스턴 부대는 전진이 늦어져 11월 28일에 신갈파진에 도착하였다.

하지만 장진호 부근에서 무평리로 서진한 제1해병사단의 상황은 동북부지역과는 상이하게 공격 첫날부터 강력한 중공군의 저항에 부딪쳐 전진이 둔화되었음은 물론 이날 밤 사단의 유일한 보급로인 함흥-장진호 간 도로가 적에 의해 차단당하여, 공격부대가 포위당한 부대로 역전되었다. 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중공군 8개사단이 이곳에 투입되었었다.

상황이 서부전선에 이어 동부의 해병사단마저 위기로 빠져 들자, 11월 28일 밤 맥아더 장군은 워커 장군과 알몬드 장군을 도쿄로 불러 작전회의를 가진 후

전 부대의 철수를 결심하였다. 이에 따라 이날 이미 시작된 서부전선의 제8군에 이어 동부전선의 각 부대들도 11월 30일에 철수를 시작하였다.

결국 유엔군의 최종공세는 영하 20~30도의 혹독한 추위와 적유령산맥을 비롯한 6개의 산맥이 가로놓인 험준한 작전지역에서도 곧 전쟁이 끝나리라는 기대 속에 실시되었으나 새로운 적 증공군 대부대의 참전이 확인되면서 38도선 돌파 후 60일 만에 그 막을 내리었다.

2. 새로운 戰爭으로의 轉換

한국전쟁은 유엔군의 최종공세로 증공의 참전이 공식 확인되면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당초 이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인민군이 김일성과 스탈린의 공모하에 작성된 선제타격 작전계획에 따라 기습남침을 자행함으로써 인민군 대 국군의 전쟁으로 시작되었다. 이때 국군은 상대적 전력의 격차로 인민군 대 국군의 전쟁으로 시작되었다. 이때 국군은 상대적 전력의 격차로 인민군 대 국군의 전쟁으로 시작되었다. 이때 국군은 상대적 전력의 격차로 인민군 대 국군의 전쟁으로 시작되었다.

이 무렵 유엔헌장에 의한 집단안전보장조치에 따라 국군을 도와 인민군을 격퇴하고 한반도의 안전과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유엔군이 도착하여 국군과 연합전선(聯合戰線)을 형성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참전한 유엔군이 유엔군사령관의 단일지휘하에 대한민국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에 비추어 7월 14일에 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로써 국군은 법적으로는 유엔군이 아니나 실질적으로는 유엔군의 일원처럼 전쟁을 수행하였다. 이제 전쟁은 인민군 대 유엔군의 전쟁으로 발전하였다. 새로운 성격의 전쟁으로 변모한 것이다.

국군과 유엔군은 지연작전을 펴면서 전력을 회복하여 부산교두보 낙동강방어선에서 사활(死活)을 건 전투를 치러 적의 공세를 분쇄하고 전쟁의 주도권을 쥘 수 있었다. 인민군은 최초 속전속결로 8월 15일까지 남한을 완전히 공산화한다는 전쟁목표를 수립하였으나, 자유를 수호하려는 국민의 강력한 저항의지에 부딪치고, 유엔군의 참전으로 상대적인 전력의 우위를 상실하는가 하면, 병력과 물자 등 전쟁지원이 적절히 뒤따르지 못하여 공격역량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 흐루시초프(Khrushchyov)는 그의 회고록에서 “부산교두보는 요새도 아니었

다. 김일성은 마지막 단계에서 힘이 부족하였다. 그는 공격에서 병력과 장비, 전차의 많은 손실을 입었다. 나는 전차 1개군단만 더 있었다더라면 그 방어선을 돌파하고 충분히 전쟁을 끝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고문관들은 계획 과정에서 제반 요인을 고려하지 못하여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스탈린은 비난받아야 한다. 김일성도 지원받은 것 이상으로 더 요청하지 않았다. 물론 우리는 전차 1개군단을 더 지원할 수 있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인민군의 패인으로서 계획상의 판단착오와 기간 중 손실에 의한 전력의 약화를 지적하고 있다.⁸⁵⁾

국군과 유엔군은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과 더불어 반격작전으로 전환하여 9월 말, 전쟁발발 97일 만에 실지를 되찾고 전전현상을 회복하였다. 이때 인민군은 국군이 초기전투에서 입은 손실 이상의 피해를 입은 채 조직이 완전히 붕괴되어 북으로 도주하였으며 포위당한 일부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의 험준한 산악으로 잠입하여 게릴라가 되었다. 인민군 점령기간 중 미처 피난하지 못한 양민들은 공산주의 세뇌교육, 납치, 강제징집, 군수물자 지원 및 수송에 시달려야 했고 또 애국시인들이 그들의 학정에 항거하다가 숨져 갔다. 이념전쟁의 잔학함은 그들이 남기고 간 목불인견(目不忍見)의 참상이 실증해 주었으며, 공산주의가 이 땅에서 다시는 뿌리를 내릴 수 없게 되었다.

아군이 38도선에 도달하자 이(李) 대통령은 38도선은 이미 인민군의 남침시 허물어졌으므로 북진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으며 이 기회에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통치철학에서 38도선 돌파를 국군통수계통으로 명령하였으며, 미국정부는 인민군을 격멸하기 위한 38도선 북쪽에서의 군사작전은 ‘6·28 유엔 결의’에 비추어 적법하다는 결론하에 유엔군 계통으로 북진작전에 관한 훈령을 하달하는 한편, 군사적 점령 후 예상되는 정치적 통일을 위하여 ‘10·7 통한결의’를 추진하였다. 물론 이에 대해 중공은 ‘유엔군이 북진하면 자신들도 전쟁에 개입하겠다’고 하였으며, 소련은 ‘즉각 휴전 및 외국군의 철수를 주장하며’ ‘10·7 결의’에 반대하였다.

10월 1일 국군의 선도하에 유엔군의 북진작전은 시작되었으며, 중공과 소련의 개입가능성에 대한 확실한 판단 없이 우발계획하에 전개되었다. 적의 방어선을 돌파한 국군과 유엔군은 10월 19일 평양을 탈환하고 청천강선으로 진출하였다. 김일성은 이때 “탈출구가 없다. 미국은 틀림없이 북진하여 북한을 점령할 것이다.”라고 외치면서 절망하였으나,⁸⁶⁾ 전쟁지도부를 강제로 옮기고 청천강, 희

천, 강계에 3중 방어선을 구축하는 한편 유격전으로써 최후까지 저항할 결의를 다졌다.

10월 24일 청천강을 확보한 유엔군은 한만국경선을 향한 총공세를 폈다. 맥아더 장군은 국경선 부근에서는 국군만을 운용해야 한다는 전쟁지도상의 제한사항마저 제거하고 모든 부대로 하여금 압록강, 두만강으로 총진군하도록 하였다.

이 공세에서 국군 선봉부대가 압록강변 초산을 점령하기도 하였지만 중공군과 불의의 조우로 인하여, 서부전선의 유엔군은 청천강선으로 철수해야 했다. 그러나 동부전선에서는 국군이 청진에 접근하고 미군 선두부대가 혜산진을 점령하는 등 국경선을 향한 추격전이 계속되었다. 중공군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상황의 오판으로 그들의 참전목적과 작전기도를 간파하지 못한 채 맥아더 장군은 제8군의 재공격 준비가 완료되자 ‘11·24 최종공세’를 전개하였다. 하지만 이번에도 중공군의 대공세와 맞부딪쳐 11월 30일을 기하여 모든 부대가 철수를 시작하였다.

전선은 정주-영원-장진호-혜산진-합수-청진선에서 형성되어 있었다. 12개국⁸⁰⁾의 유엔군이 참전 중이었고 한만국경선은 지적에 놓여 있었다. 민족의 꿈과 염원, 통일의 실현이 좌절되는 순간이었다.

한국전쟁은 이제 인민군과 중공군 대 국군과 유엔군의 전쟁, 공산군 대 유엔군의 전쟁, 사실상 중공군 대 유엔군의 전쟁, 아주 새로운 단계의 전쟁으로 확대되었다. 당시 소련을 비롯한 공산국가의 군사지원을 고려할 때 한국전쟁은 마침내 냉전구조하의 공산진영 대 자유진영의 전쟁이 되었다.

이처럼 한국전쟁은 개전 이후 6개월에 걸쳐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전국토를 전장화하면서 인민군 대 국군의 전쟁, 인민군 대 유엔군의 전쟁, 중공군 대 유엔군의 전쟁으로 점차 무서운 모습으로 변신해 갔다. 따라서 전쟁의 성격도 민족전쟁, 이념전쟁, 국제전쟁이라는 독특한 특징을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성격과 특징으로 인하여 한국전쟁은 바야흐로 세계대전과 제한전쟁의 기로에 서게 되었고, 한민족 스스로가 통제할 수도 없는 국면에 깊이 빠져 들어 전쟁의 결과와 민족의 운명도 예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주 기

- 1) 韓豹頊, 「한·미외교요람기」, 1984, pp. 94~95. 미국의 오스틴은 6월 30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모든 미국의 군사적 행동은 한국이 6·25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도록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
- 2)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譯), 「중공군 압록강을 건너다」, 1989, p. 109.
- 3)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譯), 「美國合同參謀本部史 韓國戰爭」(上), 1990, p. 173.
- 4)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한국전쟁사」 제4권, p. 275.
- 5) 「한·미외교요람기」, pp. 98~99.
- 6) 「중공군 압록강을 건너다」, p. 98.
- 7) 「한국전쟁사」 제4권, p. 275.
- 8) 「중공군 압록강을 건너다」, p. 98.
- 9) 위의 책, p. 279.
- 10) 위의 책, p. 277.
- 11) 공보처, 「대통령 이승만 박사 담화집」, 1953, pp. 39~40.
- 12) 「美國合同參謀本部史 韓國戰爭」(上), p. 174.
- 13) 위의 책, p. 177.
- 14) 위의 책, p. 179 ; Schunabel, *Policy and Direction*, p. 183.
- 15)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國防條約集」, p. 638.
- 16) Schunabel, *ibid.*, pp. 193~194.
- 17) 공동발의 8개국 :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네덜란드, 덴마크, 브라질, 쿠바, 파키스탄.
- 18) 「중공군 압록강을 건너다」, p. 154.
- 19) Schunabel, *ibid.*, p. 197.
- 20) 「한·미외교요람기」, p. 91, p. 98.
- 21) 정일형, 「유엔과 한국문제」, 1961, pp. 25~26.
- 22) 1947. 11. 14. 결의 제112호 ; 1948. 12. 12. 결의 제195호 ; 1949. 10. 21. 결의 제293호.
- 23) 國防部 政訓局, 「韓國戰亂 1年誌」, pp. A18~A19.
- 24) 「한국의교요람기」, p. 102.
- 25) 프란체스카 비망록, 6·25와 이승만 대통령, 중앙일보, 1983. 7.
- 26) Schunabel, *ibid.*, p. 183 ; 「美國合同參謀本部史 韓國戰爭」(上), p. 186에 의하면 이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정부에서도 이 보도에 당황하였

으며 유엔군사령관에게, “귀하의 복진작전은 전략·전술적으로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주기 바란다. 오히려 당신이 군사적 필요에 의해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고 알려지기를 바라는 것”이 워싱턴의 방침이라고 통보하였다.

- 27) 「한국전쟁사」 제4권, p. 287.
- 28) 제1군단작전명령 제103호(1950. 9. 30) ; 제3사단 작전명령 제44호(1950.10. 1)
- 29) 합동참모본부, 「한국전사」, 1984, pp. 448~450.
- 30) 「한국전쟁사」 제4권, p. 326.
- 31) 북한 과학·역사사전 출판사, 「조선전사」 제26권, 1981, pp. 63~64.
- 32) 합동참모본부, 「한국전사」, p. 444.
- 33) Appleman, *South to the Nakdong, North to the Yalu*, pp. 638~640.
 - ① 제25사단 보급용, 대전까지 1개열차(9량) ② 식량 20만명분, 영등포까지 1개열차(20량) ③ 탄약수송용, 2개열차(각 20량) ④ 병원열차, 1개열차 ⑤ 유류보급, 1개열차(30량) ⑥ 국군보급용, 격일 1개열차(20량).
- 34)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205호(1950. 10. 5)
- 35)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평양탈환작전」, 1986, p. 44.
- 36) 「한국전쟁사」 제4권, pp. 325~326.
- 37) 제2방어계선 10~15km는 인민군 방어시 총경계지역(일반전초)으로 사단장이 그 위치를 선정하며, 여기서는 원산 외곽 상음리-안변-남산리를 연결하는 선이고, 제1방어계선 25~30km를 연결하는 선은 고저-회양-신고산을 연하는 선임(자료 : 육군대학 전술참고, 1982).
- 38) 「조선전사」 제26권, pp. 63~73.
- 39) 북한인민군 제588군부대, 영흥만 전투대형 배치약도, 부대장 김춘택(1950. 9. 15. 작성, 요도축척 1:20만)
- 40) 「한국전쟁사」 제4권, pp. 325~326.
- 41) 위의 책, pp. 336~337.
- 42) 「평양탈환작전」, p. 62.
- 43) 제11연대장 김동빈(金東斌) 대령 증언, 국방군사연구소.
- 44) 미 제10고사포단은 155밀리 곡사포와 90밀리 고사포로 혼성편제되었음.
- 45)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212호(1950. 10. 10. 20:00) 수정.
- 46) 「평양탈환작전」, p. 137.
- 47) 평양시가지는 S자형으로 흐르는 대동강을 중심으로 동서로 발달한 인구 약 50만의 도시로서 관공서를 비롯한 주요 행정기관들은 주로 본(本)평양으로 불리는 대동강 서쪽에 있으며, 동쪽의 동평양은 비교적 새로 개발된 공업지대로 형성되어 있다. 대동강에는 평양시 남단 양각도(羊角島) 쪽에 2개의 철교가 있으며, 그 철

교로부터 2.5km 북쪽 상류에 인도교인 길이 618m의 대동교가 있다. 평양의 중심가를 흐르는 대동강은 하폭이 평균 400~500m이며 급류이기 때문에 대동교 10여 km 상류인 남강과의 합류지점 이서(以西)지역에서는 도섭이 불가능하다.

- 48) 「한국전쟁사」 제4권, p. 453 ; 「평양탈환작전」, p. 147.
- 49) 「韓國戰亂 1年誌」, p. B-60. p. C 20~21 ; 프란체스카 비망록, 6·25와 이승만 대통령, 중앙일보, 1983.
- 50) 「한국전쟁사」 제4권, p. 15.
- 51) 「美國合同參謀本部史 韓國戰爭」(上), p. 208.
- 52) 「한국전쟁사」 제4권, p. 16.
- 53) 위의 책, pp. 16~17 ; 「조선전사」 제26권, pp. 101~102.
- 54) 「한국전쟁사」 제4권, p. 17.
- 55)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1950. 10. 14. 명령, 국방군사연구소 소장.
- 56) 육군본부(역), 「정책과 지도」, 1974, pp. 275~278.
- 57) 「美國合同參謀本部史 韓國戰爭」(上), p. 208 ; Schunabel, *ibid.*, p. 216.
- 58) “A”선은 일명 맥아더 라인(MacArthur Line)이라고도 하며, 유엔군(지상군)의 북진한계선. 이 선 이북의 진출은 지시된 국군만이 진출할 수 있음.
- 59) Appleman, *ibid.*, p. 654.
- 60) *Ibid.*, p. 661.
- 61)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청천강 전투」, 1985, p. 34.
- 62) 「정책과 지도」, p. 285 ; Appleman, *ibid.*, p. 670.
- 63) 「美國合同參謀本部史 韓國戰爭」(上), pp. 209~210.
- 64)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청천강 전투」, p. 49.
- 65) 위의 책, p. 50.
- 66) 위의 책, p. 50, p. 71.
- 67) 「美國合同參謀本部史 韓國戰爭」(上), p. 215.
- 68) 제2군단 작전명령 제115호(1950. 10. 15).
- 69) 수도사단 작전명령 제106호(1950. 10. 15).
- 70) 「한국전쟁사」 제4권, p. 499. 양민학살의 몇 가지 예시, 인민교화소 : 700여 명, 총령탑지하실 : 200여 명, 정치보위부지하실 : 300여 명, 덕산 니켈광산 : 6,000여 명, 반용산 방공호(4km) : 1,200여 명, 계 : 8,400여 명.
- 71) 함남 북청군과 풍산군의 경계선상의 고지 정상에 “목”으로써 일명 “불개미재”라고도 부르며 신풍리에서 수상리-황수원으로 북상하는 유일한 길이다. 해발 1,000~1,500m나 되는 고원지대의 고개로써 굴곡부가 25km나 되는 꾸불꾸불한 산골에 로이다. 함경도 산악지방은 어느 곳에 가거나 큰 고개가 있기 마련이지만 이 화점

- 치 역시 그와 같은 고지군에 못지않게 높고, 길고, 험한 고개로 되어 있다. 현재는 양강도와 함경남도의 경계선상이다. 「한국전쟁사」 제4권, p. 505.
- 72) 보병 제3사단, 「백골사단 역사」, 1980, p. 214 ; 「한국전쟁사」 제4권, p. 516.
- 73) 위의 책, pp. 582~583.
- 74) Appleman, *ibid.*, pp. 582~583 ; 「정책과 지도」, p. 273.
- 75) 「한국전쟁사」 제4권, p. 599.
- 76) 위의 책, p. 586.
- 77) 수도사단 작전명령 제110호(1950. 11. 5).
- 78) 미 제3사단(사단장 Robert N. Soule 소장)은 미 제10군단에 증원하기 위하여 예하 제65연대는 이미 8월 25일에 동인도제도의 동부 섬인 푸에르토 리코(Puerto Rico)에서 파나마 운하를 경유, 9월 22일 부산에 상륙하였고 제7연대와 제15연대는 사단본부와 함께 8월 30일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를 떠나 9월 16일에 일본의 모지(門司)에 도착하였다.
- 79) 국군 제1군단 작전명령 제120호(1950. 11. 16).
- 80) 「美國合同參謀本部史 韓國戰爭」(上), p. 238.
- 81) Appleman, *ibid.*, p. 765.
- 82) 「美國合同參謀本部史 韓國戰爭」(上), 1990, p. 265.
- 83) *Policy and Direction*, p. 273.
- 84) BILLY C. MOSSMAN, *Ebb & Flow*, CMH, USA, 1990, p. 86.
- 85) Khrushchev Remembers, Little, Brown & Company, 1990, p. 146.
- 86) *Ibid.*, p. 147.
- 87) 미·영·오스트레일리아·네덜란드·뉴질랜드·캐나다·프랑스·필리핀·터키·타이·남아공화국·그리스 후에 전투부대 파견국은 4국이 늘어나 모두 16개국이었다.

부 록

1. 年 表

연 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45	8. 15.	○ 일본 항복, 한국 해방 ○ 미국 일반명령 제1호 작성, 연합국에 통보
	8. 13.	○ 소련군 청진 상륙
	8. 14.	○ 소련군 평양 진주
	9. 2.	○ 맥아더 원수, 일반명령 제1호 공포 ○ 일본 항복 조인
	9. 8.	○ 미군 인천 상륙, 서울 입성
	9. 9.	○ 일본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 총독, 항복문서 서명
	10. 14.	○ 김일성 환영 평양시민대회
	10. 16.	○ 이승만 환국
	10. 21.	○ 북한 보안대(인민군 모체) 창설
	10. 24.	○ 국제연합 창설
	11. 11.	○ 해방병단 결성
	11. 13.	○ 국방사령부 설치
	11. 18.	○ 김일성 북조선공산당 제1서기 취임
11. 23.	○ 김구 및 임정요원 귀국	
12. 27.	○ 모스크바 삼상회의 한반도 5개년 신탁통치안 발표	
1946	1. 11.	○ 북한 철도보안대 창설
	1. 15.	○ 국군 국방경비대 창설(제1연대 창설)
	2. 8.	○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조직(위원장 김일성)
	3. 20.	○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3. 29.	○ 국방사령부, 국방부로 개칭
5. 8.	○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연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46	6. 15.	○ 국방부, 국내경비부로 개칭, 통위부로 호칭
	9. 12.	○ 통위부장 유동열 취임(한국인 초대부장)
	10. 1.	○ 대구 폭동사건 발생
1947	2. 17.	○ 북조선 인민위원회 구성(위원장 김일성)
	5. 21.	○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8. 30.	○ 해안경비대, 해안방위 인수
	9. 17.	○ 한반도 문제 유엔총회 의제로 상정
	10. 21.	○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11. 14.	○ 유엔총회, 유엔한국위원단 설치와 총선거에 관한 결의
1948	2. 8.	○ 북한 조선인민군 창설 선포
	4. 3.	○ 제주도 4·3사건 발생
	5. 10.	○ 남한 유엔 한위 감시하의 총선거 실시
	5. 15.	○ 통위부 항공부대 창설
	8. 15.	○ 대한민국 정부 수립
	8. 16.	○ 국방경비대 및 해안경비대, 국군으로 명명
	8. 24.	○ 한미군사안전협정 체결
	9. 9.	○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발족
	10. 19.	○ 여순반란사건 발생
	11. 2.	○ 대구반란사건 발생
	12. 10.	○ 모스크바에서 북한, 소련, 중공 전략회의
12. 12.	○ 유엔총회, 대한민국 승인과 외국군 철수에 관한 결의	
12. 26.	○ 소련군 북한에서 철군 완료, 고문단 잔류(보병 대대급까지)	
1949	3. 5.	○ 김일성·스탈린 회담
	3. 17.	○ 조소 군사·경제 및 문화협정 체결
	4. 28.	○ 김일·모택동 회담

600 附 錄

연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49	5. 5.	○ 국군 제8연대 2개대대 월북
	6. 29.	○ 주한미군 철수 완료 ○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
	7. 1. 7. 15.	○ 주한미군사고문단 설치 ○ 북한 조국보위후원회 결성
	10. 1.	○ 국군, 육·해·공군으로 정립 ○ 중공 중국인민공화국 수립
	12. 16.	○ 모택동·스탈린 회담(1950. 2. 16.까지)
1950	1. 12. 1. 26.	○ 미 애치슨 국무장관, 태평양방위선과 관련된 연설 ○ 한미 상호방위원조협정 체결
	3. 15.	○ 건국기(T-6) 10대 도입
	4. 초 4. 10. 4. 27.	○ 김일성·스탈린 회담 ○ PC함 1척 진해항에 도착 ○ 국군 경계대세 돌입
	5. 13. 5. 29. 5. 30.	○ 김일성·모택동 회담 ○ 북한 남침선제타격계획 완성 ○ 국회의원 선거
	6. 8. 6. 10. 6. 12. 6. 17. 6. 18. 6. 22. 6. 23. 6. 25.	○ 북한 위장평화공세 전개 ○ 국군 주요 지휘관 및 참모에 대한 인사이동 ○ 북한 민족보위성 비밀 지휘관 회의 ○ 인민군 전투부대 38선 부근으로 이동 ○ 델레스 미 대통령고문 방한 ○ 인민군 총사령부 전투부대에 남침정찰명령 하달 ○ 인민군 사단 전투명령 하달 ○ 국군 비상경계 해제 ○ 인민군 전투전개 완료 ○ 인민군 38도선 불법남침 개시 ○ 정부, 미국과 유엔에 군사지원 요청

연 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50	6. 26.	○ 국회, 유엔과 미국 의회 및 대통령에 보내는 메시지 채택 ○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인민군의 공격중지와 철수권고 결의 ○ 의정부 실함 ○ F-80 전투기와 야크 전투기 간에 첫 공중전, 야크기 3대 격추
	6. 27.	○ 정부 대전으로 천도 ○ 미국, 한국에 해·공군 지원과 미 제7함대의 대만 해협 봉쇄 결정 ○ 미 극동군 전방지휘연락단 본부(ADCOM) 수원에 설치
	6. 28.	○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한국군사지원 결의안 채택 ○ 한강교 폭파, 서울 실함, 시흥지구전투사령부 한강방어선 형성
	6. 29.	○ 미해공군, 38도선 북으로 작전지역 확대 ○ 맥아더 원수 한강방어선 시찰
	6. 30.	○ 미국 미지상군의 한국전선 투입 결정 ○ 정일권 소장 국군 육·해·공군 총사령관 겸 육군 총참모장에 임명 ○ 자유중국정부 지상군 33,000명 파견 제의
	7. 1.	○ 미 지상군 선발대 부산 도착, 한미간 연합작전 협조 (정일권·처치)
	7. 2.	○ 한국 공군 F-51 전투기 10대 인수
	7. 3.	○ 인민군 전차 한강 도하 ○ 육군본부 수원으로 이동
	7. 4.	○ 육군본부 평택으로 이동, 육군 전선정리 및 군 재편성 명령 하달 ○ 맥아더 원수 대전에 주한미군사령부 설치, 미 부산기지사령부 설치
	7. 5.	○ 미군 스미스 특수임무부대 오산(죽미령)에서 인민군과 첫 교전 ○ 국군 제1차 재편성, 제1군단 창설 ○ 한·미연합전선 형성, 유엔군 서부전선, 국군 중·동부전선 담당
	7. 6.	○ 미 제24사단 평택 부근 37도선에 방어선 구축
	7. 7.	○ 유엔안보리 유엔통합군사령부 설치 결의, 미국, 총사령관에 맥아더 원수 임명

연 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50	7. 7.	○ 오스트레일리아 해·공군 참전, 영국 해·공군 참전	
	7. 8.	○ 정부, 전국에 비상계엄 선포(전남북도 제외)	
	7. 9.	○ 미 제8군사령부 대구에 설치	
	7. 10.	○ 미 제25사단 부산 상륙	
		○ 미 제5공군 한국으로 이동	
	7. 12.	○ 한미 대전협정 체결(주한미군의 관할권에 관한 협정)	
	7. 13.	○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 주한미지상군 작전지휘 개시	
		○ 미 부산군수지원사령부 설치	
	7. 14.	○ 국군의 작전지휘권 유엔군 총사령관에게 이양	
		○ 육군본부 대구로 이동	
		○ 유엔 사무총장, 유엔 회원국에 지상군부대 파한을 권고	
	7. 15.	○ 국군 제2군단, 함창에서 창설	
	7. 16.	○ 정부, 대전에서 대구로 이동	
	7. 18.	○ 미 제1기병사단, 포항 상륙	
	7. 19.	○ 뉴질랜드 해군 참전, 트루먼 대통령 대한특별교서 발표 (징병제 실시, 예비군 동원, 주방위군 4개사단 현역화)	
		○ 대전 실패, 미 제24사단장 던 소장 실종	
	7. 20.	○ 미 제24사단 3.5" 로켓포로 인민군 전차 파괴	
		○ 김일성 독전명령(전선사령부 수안보에서) "8·15까지 부산 점령하라."	
		○ 정부, 전남·북 지역까지 비상계엄 확대 실시	
	7. 21.	○ 정부, 전남·북 지역까지 비상계엄 확대 실시	
	7. 24.	○ 국군 제2차 재편성, 지휘체제 재편	
	7. 25.	○ 유엔군사령부 설치(도쿄)	
	7. 28.	○ 캐나다 공군 참전	
	7. 29.	○ 워커 중장, 방어선 사수명령 하달	
	7. 30.	○ 캐나다 해군 참전	
	7. 31.	○ 미 제2사단(-) 부산 상륙	
		○ 맥아더 원수, 대만 방문 장개석 총통과 회담	
	8.	8. 1.	○ 국군 및 유엔군 낙동강 방어선 형성
			○ 소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복귀
		8. 2.	○ 미해병 제5여단, 부산에 상륙 마산으로 이동
	8. 3.	○ 인민군 낙동강 도하, 8월공세 전개	

연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50	8. 13.	○ 국군, 낙동강 방어선 조정(왜관-다부동-군위-보현산-강구 남쪽)
	8. 14.	○ 제1훈련소 창설
	8. 15.	○ 김일성 “모든 것을 전선으로” 명령 하달
	8. 16.	○ B-29 98대 왜관 대안 일대에 용단폭격 실시
		○ 카투사제도 시행(미 제7사단에 보충)
	8. 18.	○ 정부, 대구에서 부산으로 이동
	8. 19.	○ 맥아더 원수, 콜린스 대장·서먼 제독 군사작전회의(도쿄)
	8. 20.	○ 국군 10개사단화 추진(8. 20~11. 11), 이날 제7사단 제창설
	8. 22.	○ 국민병 소집 개시
	8. 28.	○ 영국 제27여단 부산 도착
	8. 31.	○ 인민군 9월공세 전개
	9. 1.	○ 미 대한정책 NSC 81 수립(38도선 이북으로의 군사작전 전개 법적 근거)
	9. 5.	○ 육군본부 및 미 제8군사령부 부산으로 이동
	9. 6.	○ 국군 제8사단, 영천 전투 전개
	9. 11.	○ 미 대한정책 NSC 81-1 수립(북한지역으로의 군사작전 확대 허용)
		○ 미 제10군단, 인천 상륙작전 단행
	9. 16.	○ 미 제7사단 인천 도착
		○ 미 제8군 낙동강 방어선에서 총반격 개시
	9. 17.	○ 미해병 제1사단 제5해병연대 김포비행장 탈환
	9. 18.	○ 김일성, 단계적 철수명령 하달
	9. 19.	○ 필리핀 지상군 도착
	9. 22.	○ 8군사령관 추격명령 하달
		○ 육군본부 대구로 복귀
	9. 23.	○ 김일성, 인민군 총후퇴명령 하달
		○ 스웨덴 병원선 도착
	9. 26.	○ 미 제1기병사단의 린취 특수임무부대가 오산 북쪽에서 미 제 10군단 예하 미 제7사단 제31연대와 연결작전
9. 27.	○ 미 합참 9·27 훈령 하달	
	○ 한·미연합군 서울 탈환	

연 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50	9. 28.	○ 맥아더 원수 북진계획 개요 보고
		○ 미 제24사단 대전 탈환, 오스트레일리아 지상군 도착
	9. 29.	○ 수도 환도식 거행(중앙청) ○ 미국 유엔군의 북진계획 승인, 미 제25사단 군산 탈환
	10. 1.	○ 유엔군사령관, 김일성에게 항복 권유 ○ 국군 제3사단·수도사단 38도선 돌파 ○ 인민군 38도선 방어작전 전개
	10. 2.	○ 중공 외상 주은래 중공군 개입 경고 ○ 유엔군사령부 북진명령 하달
	10. 4.	○ 남아프리카공화국 공군 참전
	10. 7.	○ 유엔총회 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 설치 의결
	10. 9.	○ 유엔군사령관, 인민군의 무조건 항복 제차 요구, 유엔군 북진 작전 전개
	10. 10.	○ 국군 수도·제3사단 원산 탈환
	10. 11.	○ 김일성 최후 저항 명령 하달
	10. 12.	○ 한국관계 유엔 소총회, 점령지역 행정조치 결의
	10. 15.	○ 웨이크 섬 회담
	10. 16.	○ 이 대통령 유엔 소총회 결의(10. 12)에 항의 성명
	10. 17.	○ 국군 수도사단 함흥·홍남 탈환 ○ 북진한계선 선천-성진 선으로 확대 ○ 터키 지상군 도착
	10. 19.	○ 평양 탈환, 중공군 침입
	10. 20.	○ 미 제187공수연대, 숙천-순천 공수낙하
	10. 21.	○ 미 제1군단, 평양에 군정 실시
	10. 24.	○ 북진한계선 철폐
	10. 25.	○ 중공군과 충돌(운산·온정리·장진호), 중공군 제1차 공세(10월 공세) 전개
	10. 26.	○ 국군 제6사단 제7연대 압록강변의 초산에 도달 ○ 미 제1해병사단 원산에 행정적 상륙
	10. 27.	○ 정부 행정관서, 서울로 복귀
	10. 29.	○ 미 제7사단 이원 상륙
	10. 30.	○ 이 대통령 유엔한국통일부흥단과 협력에 관한 담화(점령지역

연 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50	10. 30.	군정과 통일문제에 관하여) ○ 평양시민 환영대회
	11. 5.	○ 미 제3사단 원산에 행정적 상륙
	11. 7.	○ 태국 지상군 도착
	11. 10.	○ 태국 해군 참전
	11. 20.	○ 인도 야전병원 도착
	11. 21.	○ 미 제7사단 혜산진 점령
	11. 24.	○ 맥아더사령관 전쟁종결을 위한 총 진격명령 ○ 네덜란드 지상군 도착
	11. 25.	○ 동부전선의 수도사단은 청진, 제3사단은 합수 진출 ○ 중공군 제2차 공세(11월공세) 전개 ○ 그리스 공군 참전
	11. 28.	○ 미 제7사단 신갈파진 점령, 도쿄, 군사회담
	11. 29.	○ 국군 제26연대 혜산진 진출, 프랑스 지상군 도착
	11. 30.	○ 국군 제3사단 제22연대 제3중대 혜산진 진출 ○ 수도사단 청진 북방 부령·부거 진출 ○ 국군·유엔군 전면 철수

2. 關係資料目錄

(1) 文書資料

■ 國內資料

國防部, 國防部特命綴, 1949~1950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關聯 證言資料

陸軍本部 軍史研究室, 陸軍歷史日誌(1), 1945~1950

國本 一般命令 제3호(1950. 7. 5), 제5호(1950. 7. 7), 제35호(1950. 8. 2), 제20호(1950. 7. 24)

國本 一般命令 제49호(1950. 8. 20), 제54호(1950. 8. 27)

國防部 一般命令(陸) 제70호(1950. 9. 13)

陸軍本部 特命 제11호(1950. 7. 7)

陸軍本部 緊急命令 제8호(1950. 7. 21)

陸軍本部 訓令 제58호(1950. 9. 7)

陸軍本部 一般命令(陸) 제43호(1950. 6. 1)

陸軍本部 作戰命令 제38호(육군방어계획, 1950. 3. 25)

陸軍本部 作戰命令 제47호(1950. 4. 21), 제67호(1950. 5. 8), 제78호(1950. 6. 11), 제83호(1950. 6. 25)

陸軍本部 作戰命令 제19호(1950. 7. 3), 제20호(1950. 7. 5), 제55호(1950. 7. 19), 제57호(1950. 7. 20), 제70호(1950. 7. 25)

陸軍本部 作戰命令 제91호(1950. 7. 31), 제94호(1950. 8. 2), 제116호(1950. 8. 10), 제119호(1950. 8. 11), 제134호(1950. 8. 15), 제160호(1950. 9. 3), 제163호(1950. 9. 4)

陸軍本部 作戰命令 제180호(반격작전명령, 경남 부산, 1950. 9. 30), 제191호(1950. 9. 22), 제199호(1950. 9. 30), 제205호(1950. 10. 5), 제212호(1950. 10. 20 : 00)

第1軍團 作戰命令 제1호(1950. 7. 5), 제40호(1950. 7. 31), 제89호(1950. 9. 10), 제103호(1950. 9. 30), 제120호(1950. 11. 6)

第2軍團 作戰命令 제12호(1950. 8. 12), 제31호(1950. 9. 5), 제32호(1950. 9. 6),

- 제115호(1950. 10. 15)
 首都師團 作戰命令 제110호(1950. 11. 5)
 國軍 第3師團 作戰命令 제44호(1950. 10. 1)
 國軍 第8師團 作戰命令 제14호(1950. 7. 9), 제8사단 작전명령 제16호(1950. 7. 11)
 海兵隊 作戰命令 제1호(1950. 7. 14)
 國會圖書館, 國際聯合 韓國委員會 報告書(1949, 1950), 1965
 유성철, 나의 증언, 한국일보, 1990. 11
 이상조 증언, 한국일보, 1989
 프란체스카, 6·25와 李承晚 大統領, 중앙일보, 1983

■ 北韓資料

- 조선인민군전단(1950. 8. 6)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명령
 조선인민군 제6사단 작전명령 제42호(1950. 8. 17)
 조선인민군 전투일지
 조선인민군 제2군단 전투지령(1950. 7. 11)
 조선인민군 제588군부대, 영흥만 전투대형 배치 약도(1950. 9. 15, 요도축척 1 : 20만)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명령(1950. 10. 14)
 조선인민군 제884군부대 제5보대 대대전투명령(1950. 8. 29)
 조선인민군 제107보안부대 김포방어계획(1950. 9. 21, 국군해병 제1연대 제3대대 노획문서)
 조선인민군 선제타격계획 작전요도, 코르트코프(1992. 8. 29)
 조선인민군 경찰명령 제1호, 러시아어 및 영어(1950. 6. 18)
 조선인민군 공격작전의 정보계획, 러시아 및 영어(1950. 6. 20)
 조선인민군 제2사단 전투명령 제001호(1950. 6. 22)
 조선인민군 제4사단 전투명령 제001호(1950. 6. 22)

■ 國外資料

- Korean Army, Periodic Operations Reports, 1950
 BG G. B. Barth, *TROPIC LIGHTNING AND TARO LEAF IN KOREA VOL. 6*, Library Armed Forces Staff College, 1955
 GHQ ATIS, Interrogation Rpts, 1950~1951

HFEC G-2, *History of the North Korean Army, 1952*

8086th AU(AFFE) Military History Detachment, *Evacuation of Refugees and Civilians from Seoul, 1956*

Headquarters United States Army Forces, Far East & Eighth U. S. Army(Rear),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s*(San Francisco, 1954), Historical Manuscript File, call No. 8-5

Foreign Service of The U. S. A., TIGER KIM VS. THE PRESS, 12 May 51

EUSAK, Periodic Intelligence Report, 1950

Commanding Officer, 1st Battalion, 7th Cavalry Reg., After-Action interview with Lt. Col Peter D. Clainos, 1950

24th Div. Periodic Opns Report, 1950

25th Div. Periodic Opns Report, 1950

U. 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 of the United States, 1943~1950*

War Department Intelligence Division, Intelligence Review, 1946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Department of State Bulletin(1947. 9. 28)

State Department, *The Conflict in Korea, 1951*

U. N. Official Record ; Third Session, Supply No. 9, 1948

U. N., *Year Book of the UN, 1848~1849*

The Reporter, How Russia Built The North Korea Army, 26 Sept. 50

FEC G-2, Order of Battle Information North Korean Army, 1952

FEC G-2, Order of Battle Information C. C. P. Forces in N. K. 1952

EUSAK, 8th Army Operation Plan No. 10(1950. 9. 11)

國防軍史研究所, 韓國戰爭關聯 蘇聯資料(1993. 4)

外務部, 韓國戰爭關聯 蘇聯 極祕 外交文書(1~4권), 1994

(2) 單 行 本

■ 國內資料

國防部 政訓局, 「韓國戰亂1年誌」, 1951

國防部 法制委員會, 「國防關係 法令集」(1), 1960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史」 제1권(구판), 1967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史」 제1권, 제2권, 제3권, 제4권, 1967~1980

-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 要約」, 교학사, 1986
-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國防部史」, 1954
-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國防史」 제1권, 제2권, 1984, 1987
-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國防條約集」 제1집, 1988
-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多富洞戰鬪」, 1981
-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38度線 初期戰鬪」(中·東部戰線篇), 1981
-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仁川上陸作戰」, 1983
-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新寧-永川戰鬪」, 1984
-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38度線 初期戰鬪」(西部戰線篇), 1985
-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清川江戰鬪」, 1985
-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安康-浦項戰鬪」, 1986
-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平壤奪還作戰」, 1986
-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丹陽-義城戰鬪」, 1987
-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鎭川-化寧場戰鬪」, 1991
-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對非正規戰史」, 1988
- 國防軍史研究所, 「忠州-店村戰鬪」, 1992
- 陸軍本部 軍史監室, 「後方戰史」(軍需篇), (人事篇), 1953
- 陸軍本部, 「陸軍發展史」(上), 1970
- 陸軍本部, 「6·25事變 陸軍戰史」 제1권, 제2권, 1952, 1953
- 陸軍本部, 「創軍前史」兵書研究 제11집, 1980
- 陸軍本部 情報參謀部, 「北傀 6·25 南侵 分析」, 1970
- 陸軍本部(譯), 「政策과 指導」, 1974
- 合同參謀本部, 「韓國戰史」, 1984
- 海兵隊司令部, 「海兵戰鬪史」 제1집, 1962
- 陸軍士官學校 戰史學科, 「韓國戰爭史」, 일신사, 1988
- 陸軍士官學校, 「大韓民國 陸軍士官學校 30年史」, 1978
- 兵務廳, 「兵務行政史」(上), 1985
- 國軍 保安司令部, 「對共 30年史」, 1978
- 國軍 第3師團, 「白骨師團歷史」, 1980. 10. 31
- 戰爭紀念事業會, 「韓國戰爭史」, 제1권, 제2권, 제3권, 제6권, 1993
- 戰爭紀念事業會, 「現代史 속의 國軍」, 대경문화사, 1990
- 外務部 外交研究員, 「韓國外交 20年 附錄」, 1966

610 附 錄

- 外務部, 「韓國外交 30年」, 1979
內務部 治安局, 「警察戰史」, 1952
國土統一院, 「韓國戰爭 勃發 背景 研究」, 1972
文化公報部, 「實證資料로 본 韓國戰爭」, 1990
公報處, 「大統領 李承晚博士 談話集」, 1953
公報處, 「大韓民國統計要覽」, 1953
蔡根植, 「武裝獨立運動秘史」, 공보처, 1978
大檢察搜查局, 「左翼實錄事件」, 1~11권, 1956~1975
韓國弘報協會, 「韓國動亂」, 1973
韓國精神文化研究員, 「韓民族大百科事典」, 1991
共產圈問題研究所, 「北韓總覽 45~68」, 1968
中央日報社, 「民族의 證言」 제1권, 1973
서울新聞社, 「駐韓美軍 30年」, 1979
한표옥, 「한미의교요람기」, 중앙일보사, 1984
韓國放送公社, 「다큐멘터리 韓國戰爭」(上), 1991
朝鮮日報, 「이승만과 나라세우기」, 1995
丁一權, 「戰爭과 休戰」, 동아일보사, 1985
白善燁, 「軍과 나」, 대륙연구소, 1989
朴慶錫, 「五星將軍 金弘壹」, 서문당, 1984
李應俊, 「回顧 90年」(1890~1981), 1982
강성재, 「참군인 이중찬 장군」, 동아일보사, 1988
劉官鍾, 「韓國警察戰史」, 현대경찰문고, 1982
南相瑄, 「學徒義勇軍」, 효성출판사, 1975
여 정, 「붉게 물든 대동강」, 동아일보사, 1991
박갑동, 「한국전쟁과 김일성」, 바람과 물결, 1992
羅鍾一, 「證言으로 본 韓國戰爭」, 예진출판사, 1991
韓鎔源, 「創軍」, 박영사, 1985
鄭一亨, 「유엔과 韓國問題」, 신명문화사, 1961
金昌順, 「北韓 15年史」, 지문각, 1961
張俊瀆, 「北韓人民軍隊史」, 서문당, 1991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譯), 「美國合同參謀本部史 韓國戰爭」(上), 1990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譯), 「中共軍 鴨綠江을 건너다」, 1989

- 陸軍本部(譯), 「美海軍韓國戰參戰史」, 1985
 「맥아더회고록」, 신태양사, 1964
 드미트리 볼코그노프, 「스탈린」, 韓國國際戰略問題研究所(譯), 세경사, 1993.
 정홍진(譯), 「호루시초프 回顧錄」, 한림출판사, 1971

■ 北韓資料

- 북한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제24권, 제25권, 제26권,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허종호,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 1, 사회과학출판사, 1983
 북한 인문과학사, 「김일성선집」 1, 인문과학사, 1967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49~53 각년도, 1949~1954

■ 國外資料

-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Department of the Army, 1961
 The Secretary of Defense, *THE TEST OF WAR : History of the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1988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 The First Year*, OCMH, US Department of Army, 1972
 Robert K.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KMAG in Peace and War*, OCMH US ARMY, 1962
 James A. Field Jr.,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Korea*, 1963
 USAFIK, *History of USAFIK*, 1982
 U. S. Marine Corps, *U. S. Marine Operations in Korea 1950~1953, 1954~1972*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Department of the Air Force, 1983
 Strobe Talbott, *Khrushchev Remembers*, The Glasnost Tapes, by Little, Brown and Company, 1990
 (Ed.)Charles E. Heller and William A. Stofft, *America's First Battle(1776~1965)*
 Roy K. Flint, *T. F. Smith and the 24th Division : Delay and Withdrawal, 5~19 July 1950*, Univ. Press of Kansas, 1988
 Mark W. Clark, *From the Danube to the Yaru*, New York : Harper & Brothers, 1954

612 附 錄

- James A. Huston, *The Sinews of War : Army Logistics 1775~1953*,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1966
- Draft Field Manual, *The Logistical Command*, C & GSC, 1950
- Tamara Moser Melia, *Damn the Torpedoes-A short History of U. S. Naval Mine Countermeasures(1777~1991)*, Naval Historical Center Department of the Navy, Washington, D. C., 1991
- W. G. Robertson, *Counterattack on the Naktong 1950*(Combat Studies Institute Leavenworth Papers), 1985
- U. S. 25th infantry Div., *The Tropic Lighting in Korea-25th Infantry Div.*(Georgia : Albert love Enterprises)
- Bradley J. Haldy, *Korean Service Corps-Past and present*, Army Logistician, 1987
- James P. Finley, *The US Military Experience in Korea 1871~1982*, Hq USFK/EUSA, 1983
- U. S. Navy,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Korea*, 1971
- Montross and Canzona, *Inchon-Seoul Operation(1950~1953)*, 1955
- Billy C. Mossman, *Ebb and Flow November 1950-July 1951*, Center of Military History U. S. Army, Washington, D. C., 1990
- James F. Schnabel, Robert J. Watson, *The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Joint Chiefs of Staff, 1978
- 宋榮福, 「朝鮮人民軍の南侵と敗退」, ユリア評論社, 1979
- 科學院歴史研究所, 「朝鮮人民の正義の祖國解放戦争史」(1), 1961
- 森田芳夫, 「朝鮮戦争記録」, 岩南堂, 1964
- 陸戦史研究普及會, 「朝鮮戦争」第1~10卷, 原書房, 昭和41
- 佐佐木春隆, 「朝鮮戦争 韓国編」(上中下), 原書房, 昭和51

□ 執 筆

戰史部長 蔡 漢 國

前任研究員 鄭 錫 均

研 究 員 梁 寧 祚

□ 編 輯

管 理 員 林 英 淑

韓國戰爭(上)

1995年 8月 5日 印刷

1995年 8月 13日 發行

發行處 서울特別市 龍山區 龍山洞 1街 8番地
戰 爭 紀 念 事 業 會 附 設
國 防 軍 史 研 究 所

發行人 嚴 燮 駟

印刷處 서울特別市 龍山區 龍山2街洞 2-12番地
軍 人 共 濟 會 第 1 印 刷 事 業 所